장편소설 《개간된 처녀지》에 대하여

미하일 알렉싼드로비치 숄로호브는 1905년 5월 24일 남부로씨야 돈지방 로쓰또브 나 도누에 있는 웨쎈스까야마을의 이주민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까르긴스까야부락의 소학교를 졸업한 뒤 10살에 모스크바의 사립중학교에 들어갔다. 당시 시골의 한 상점 점원에 불과했던 그의 아버지는 학비를 대줄수 없어 부락에서 가까운 보그쟈르지의 중학교에 숄로호브를 전학시켰다. 그러나 그가 4학년이 되였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이 도시가 도이췰란드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였다. 숄로호브는 학업을 중단하고 당시 쁘레샤꼼쓰끼부락에서 한 증기제분소의 관리인으로 일하던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와 독서로 나날을 보냈다.

그는 공민전쟁시기에 붉은군대에 입대하였으며 돈지방에서 쏘베트주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였다. 1922년말 모스크바에 이주하여 로동을 하면서 소설창작을 시작하였으며 1926년에 작품집 《돈이야기》와 《푸른 초원》을 출판하였다.

작품집에 수록된 그의 초기단편소설들(《망아지》, 《폭동》, 《공화국혁명군사위원회 위원장》 등)은 돈지방에서의 공민전쟁과 가렬한 계급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까자크주인공들의 형상을 선명하게 창조한것으로 하여 오랜 작가들과 독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1924년에 돈지방의 고향마을로 돌아와 그곳에서 계속 소설창작에 전념하였다.

그는 20살때부터 장편소설 《고요한 돈》을 쓰기 시작하여 23살에 제1부를, 24살에 제2부를, 28살에 제3부를, 35살에 제4부를 써서 10여년동안에 전 4권의 소설을 완성하였다.

작가는 이 작품과 장편소설 《개간된 처녀지》의 창작을 동시에 밀고나갔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그는 종군기자로 전선에 나가 생동한 보도기사들과 장편소설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싸웠다》(1943—1944, 미완성), 단편소설 《증오의 과학》(1942), 《인간의 운명》(1956)을 비롯한 문학작품들을 써내여 쏘베트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

돋아주고 그들을 투쟁에로 고무추동하였다.

전후에 그는 문학창작활동을 계속하면서 당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쏘련최고쏘베트 대의원, 쏘련작가동맹 비서로 사회정치활동에도 적극 참가하였으며 레닌상, 국가상,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사회주의10월혁명시기 거대한 력사적사건과 사실에 기초하여 쏘련인민들의 생활을 폭넓게 진실하게 재현한것으로 하여 숄로호브의 창작은 쏘베트현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숄로호브는 장편소설 《개간된 처녀지》의 제1권은 1932년에, 제2권은 1960년에 발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에는 해당 시기의 사회계급관계와 사람들의 계급적처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민족의 풍속이 반영되게 됩니다.》

장편소설 《개간된 처녀지》는 쏘련인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시기로 되는 농촌의 사회주의적집단화운동과 그 과정에서 전개되는 첨예한 계급투쟁을 묘사하였고 이 투쟁을 통하여 농업집단화운동의 위대한 승리를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함으로써 《새로운것은 반드시 승리하며 집단농장제도와 사회주의의 승리는 필연적》이라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소설은 무엇보다먼저 농촌의 사회주의적집단화운동을 첨예한 계급투쟁속에서 이야기를 폭넓고 깊이있게 펼쳐나간것이다.

작품은 쓰딸린명칭 꼴호즈를 조직하는 력사적인 사건을 펼치면서 긍부정인물들의 형상에서 공민전쟁시기의 각이한 경력을 통하여 어제날에 대립된 두 진영에서 싸우던 쌍방이 오늘 농업집단화투쟁에서도 계속 싸우는 사상적인 관계, 운명적인 관계로 깊이 파헤쳐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제1권은 돈지방 그레먀치 로그에서의 농업집단화운동을 파괴하기 위하여 이곳에 은밀히 잠입하는 어제날의 백파장교 뽈롭쩨브와 꼴호즈를 조직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당대표인 뻬뜨로그라드의 뿌찔로브공장 로동자이며 볼쉐비크인 다위도브의 출현을 첫 장면에서 보여주었고 반혁명폭동분자 뽈롭쩨브가 제1권의 마지막장면에서 자기의 반란기도가 실패하고 도주한 후 다시금 이 고장에 잠입하는것으로 제2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있다.

주인공 다위도브는 그레먀치당지부 세포비서 마까르 나굴리노브, 촌

쏘베트위원장 안드레이 라즈묘뜨노브와 함께 당의 지도핵심으로 되여 중농열성분자 마이단니꼬브, 빈농 류비슈낀, 우샤꼬브, 야장공 샬릐, 기타 쓔까리령감 등을 자기 주위에 묶어세운다.

이 긍정인물들은 서로 다른 경력을 가지고있으나 공민전쟁시기부터 볼쉐비크의 기치따라 나선 사람들이다.

다위도브가 그레먀치촌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그의 팔뚝에 새긴 닻과 아주 능숙하게 말고삐를 푸는 솜씨를 보고 그가 일찍부터 발찍해의 붉은해병이였으며 기관총수였다는것을 알게 된다. 다위도브는 나굴리노브가 초록색적삼우에 붉은 훈장을 단것을 보고 그 역시 공민전쟁시기 영웅이라는것을 인차 짐작하며 그레먀치촌의 세포비서가 아닌가고 묻는다. 촌쏘베트위원장 라즈묘뜨노브의 이마에는 공민전쟁시기 백파기병과의 전투에서 생긴 칼자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백파놈들에게 모욕을 당한 후 자결한 안해에 대한 생각은 라즈묘뜨노브로 하여금 오래동안 가정을 이룰수 없게 한다.

마이단니꼬브는 지금까지 퇴색한 부죤늬모자를 쓰고 회의에 다니며 빈농 류비슈낀의 몸에는 아직도 공민전쟁에서 입은 상처가 남아있다.

이들은 언제나 공민전쟁시기의 간고한 싸움을 잊지 않고있으며 오늘의 집단화투쟁은 과거투쟁의 련속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적극 나서는것을 의무로 하는 옳바른 인생관을 체현하고있다. 하기에 그들은 볼쉐비크당의 호소에 적극 따라나서며 농촌에 존재하는 마지막착취계급인 부농을 소멸하고 새로운 집단농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러나 백파장교 뽈롭쩨브와 그의 옛 부하 오쓰뜨롭노브는 공민전쟁시기의 패배를 만회하고 쏘베트정권에 대한 복수를 목적으로 반혁명적음모집단을 조직하며 갖은 수단을 다하여 집단화운동을 파탄시키려고 책동한다.

그들은 과거에 제니낀의 수하에 있으면서 볼쉐비크와 싸우던 백파군의 악질분자들이였다. 1920년 제니낀의 반란이 패배로 끝난 뒤 뿔뿔이 갈라졌던 그들은 그동안 소식을 모르고있다가 다시금 반란을 꾀하여 모인것이다.

작품에서는 이 두 진영을 긍부정관계로 설정하고 이들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깊이있게 맞물려 이야기를 극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그러면서도 공민전쟁시기에 형성된 계급적진영의 변화도

놓치지 않고 반영하고있다. 일찌기 빈농출신이였으며 백파와의 싸움에서 용맹을 떨쳐 훈장까지 받은적 있는 찌또크 보로진은 공민전쟁이후의 혼란된 시기를 리용하여 횡재를 하여 부농으로 된 후 적의 편에 서서 집단화운동을 악랄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공민전쟁시기 강요에 못이겨 백파토벌대에 가담한적이 있는 빈농 호뻬로브는 반혁명조직인 돈강해방동맹에 가담하라는 뽈롭쩨브의 강요를 거절하다가 끝내 놈들에게 살해되고만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사람들의 계급적성분이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인생관변화에 따라 기본계급출신도 혁명의 적이 될수 있고 적의 편에 서있던 사람도 혁명의 편으로 올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또한 급변하는 쏘베트사회주의농촌현실을 제때에 폭넓게 기동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이것은 장편소설 《개간된 처녀지》 제1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소설에서는 농업집단화운동시기 그레먀치촌에서 발생한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화면처럼 펼쳐진다. 농업집단화운동을 위하여 농촌에 파견된 2만 5천명의 대표당원들의 일원으로서의 다위도브의 도착, 마을에서 처음으로 열린 빈농열성자회의, 부농재산몰수, 부농청산, 부농청산후의 촌민회의, 꼴호즈의 출현과 일체 생산도구와 집짐승 및 토지의 공유화, 집단화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좌경적편향과 이를 시정할데 대한 쓰딸린의 문헌발표, 적대세력의 반항과 파괴, 그에 대한 농민들의 반격 등이 작품의 기본줄거리로 되여 이야기가 줄기차게 뻗어나간다. 이 사건들은 첨예하게 대립된 두개의 진영, 두갈래 사건선으로 얽히여 누가 누구를 타승하느냐 하는 첨예한 계급투쟁의 화폭속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한곬으로 흐르게 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다위도브를 비롯한 여러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개성화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여기서 주인공 다위도브의 형상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는 언제나 당보에 발표된 자기 수령의 문헌들과 당의 로선을 철저히, 편향없이 관철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그러나 그 투쟁은 목숨을 내대야 할 어렵고도 간고한 난관으로 하여 매우 힘들게 진척된다.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준동과 암해책동, 숨어있는 계급적원쑤들의 류언비어에 속아넘어가 거두어들인 종자용낟알과 농기구를 도로 찾자고 무섭게 달려드는 개인농들과 마을아낙네들, 농업집단화에 대한 당

의 로선을 외곡집행하는 상급당일군들의 관료주의적사업태도, 그를 도와야 할 마을세포비서 나굴리노브의 좌경적오유와 이와는 반대로 지금은 평화시기이니 문제를 지내 계급적관점으로만 볼수 없다고 하면서 부농의 재산몰수를 더는 못하겠다고 하는 촌쏘베트위원장 라즈묘뜨노브의 우경적결함…

이런 속에서도 다위도브는 농업집단화를 당의 로선에 철저히 립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전격적으로 이끌어나간다.

다위도브의 성격은 참다운 볼쉐비크당원의 전형이며 자기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일군이라는 점에서 격이 있게 형상되였다.

그는 계급적원쑤인 오쓰뜨롭노브를 중농이라는 리력상 그릇된 확인과 농사일에 밝으며 사업수완이 있다는것만을 보고 경리부장으로 임명하며 간교한 방법으로 부림소들을 못쓰게 만든 암해책동을 눈물에 기만당하여 제때에 발견해내지 못하는 엄중한 과오를 범한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혁명의 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사회주의농업집단화운동의 확고한 승리를 내다보면서 이를 위해 자기 한몸을 내대는것과 같은 높은 당적, 계급적안목과 허심하고 소탈하며 농민대중을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이끌어가는 능란한 사업수완을 가지고있다.

소설에서 중농 마이단니꼬브의 형상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는 쏘베트정권이 수립된 첫날부터 쏘베트정권을 지지하였으며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에서 목숨걸고 용감히 싸운 사람이였다.

다위도브가 마을에 와서 당의 농업집단화방침을 전달했을 때에도 제일먼저 지지해나서 선참으로 가입신청을 낸다. 그러나 가입을 신청한 그날 밤 마이단니꼬브는 밤이 지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다. 몇십년동안 습관된 생활과 자기의 손때묻은 재산 즉 자기의 땅, 자기의 집짐승, 자기의 농기구들과 갈라진다는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였다. 이리하여 자기 집 말을 꼴호즈에 바친 후에도 그는 혹시 사양공들이 그 말을 잘못 거두지 않는가 하여 남몰래 가본다. 그는 당을 믿고 리성으로써 자기의 사심을 이겨낸다. 즉 하느님이 아니라 오직 볼쉐비크당만이 근로자들을 광명한 미래에로 이끌것이라는 진리를 굳게 믿고있다.

장편소설 《개간된 처녀지》에서는 생활론리를 무시하고 그 어떤 틀에 맞추어 인물형상을 단조롭게 하지 않았다. 이것을 부정인물의 형

상에서도 철저히 견지하고있다.

작품에서 부정인물 오쓰뜨롭노브는 농업집단화운동초기에 농장내부에서 파괴활동을 감행하던 파괴암해분자의 전형이다. 교활하기 그지없는 이자는 아주 교묘하게 가장하고있는데로부터 원칙성이 강한 다위도브뿐아니라 다른 일군들도 조금도 그를 의심하지 않는다. 소설은 농업집단화운동을 공민전쟁과 마찬가지로 적의 발악을 짓부시고 마지막착취계급마저 소멸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언명하고있다.

소설은 제2권의 첫머리에서 다시 이 꼴호즈에 나타나 기관총들을 비밀리에 마련하여 폭동준비를 하고있는 반혁명분자 뽈롭쩨브를 등장시키고있다. 이리하여 제1권의 마지막부분사건은 제2권의 첫부분사건과 밀접히 련결되게 되였다.

그러나 제1권과 제2권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제2권에서는 제1권과는 달리 동요하던 일부 농민 또는 그들의 안해들이 다위도브의 지시에 잘 응하지 않거나 지어 무리매를 안겨주기까지 하는 상태로부터 이제는 당과 다위도브를 지지하고 그의 지시를 잘 집행하는 농민들의 정신도덕적상태의 성장을 기본으로 보여주는데로 이야기가 펼쳐지고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일부 농장원들을 찾아 현장으로 내려가는 다위도브에게 나굴리노브는 《자넨 우리 아낙네들을 잘 알지. 그들이 보매 빈사상태에 이르기까지 구타하였다면 아마 이번엔 죽이고말거네.》라고 한다. 그러자 다위도브는 《아마 자네의 공포는 전혀 무근거한 것일지도 모르지? 이제는 집단화가 첫 몇달에 비해 훨씬 의식적인것으로 되였다네. 그런데 자네는 아직도 이전과 같이 낡은 자로써 그들을 재거던.》라고 반박한다.

다위도브는 그만큼 그사이에 까자크녀인들과 농민들이 사상적으로 성장하였음을 알고있었던것이다.

집단화의 첫시기에 그들은 부농과 개인농들의 그릇된 말에 기만당하였기에 다위도브의 지시를 잘 듣지 않았으나 그사이에 농업집단화의 우월성을 심장으로 느끼고 다위도브의 지시를 따르게 되였던것이다.

이리하여 둡쪼브, 우스찐과 같은 건달군들이 제2권에서 다위도브의 가장 가까운 방조자로, 그의 결함에 대해서까지 허심하게 일깨워주는 친근한 사람들로 개변되였던것이다.

이리하여 언제나 투쟁의 맨 앞장에 서서 농민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는 다위도브의 성격적측면은 제2권에서 더 뚜렷이 발현된다. 다위도브의 위신은 높아지며 한때 건달군으로 손꼽히던 우스찐은 다위도브의 영향밑에 일하기 싫어하는 까자크녀인들을 해설설복하는 선진분자로 장성한다. 이들만이 아니라 야장공 샬릐, 아르좌노브, 쓔까리 등도 현저히 장성한다. 샬릐와 아르좌노브는 다위도브의 부족점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간악한 원쑤인 오쓰뜨롭노브에 대한 경각성이 무딘것을 직접 충고하며 루쉬까와의 관계는 큰 해독으로 된다고 일깨워준다.

쓔까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한때 입당해야 책임적인 자리를 차지할수 있다고 그릇되게 생각하면서 당에 들여줄것을 간청하였다면 지금에는 그레먀치 로그의 일군들이 총회에서 입당을 권고하자 자기자신이 종교를 버리지 못했기때문에 입당청원서를 쓸수 없다고 말한다.

제2권에서 새로 등장한 구역당비서 네스쩨렌꼬의 형상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제1권에서 당정책집행을 제멋대로 하던 구역당비서 꼬르치쥔스끼의 그릇된 사업태도와는 달리 네스쩨렌꼬는 강한 원칙성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다위도브의 결함을 지적해주며 도덕의리적으로 그릇된 그와 루쉬까와의 관계를 묵과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작품에서 네스쩨렌꼬의 형상은 여러 장면에서 그려지지 않았으나 중요인물의 한사람으로 등장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소설은 또한 예술적수준이 높다.

작품에서는 개인의 운명을 시대와 력사의 운명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주인공들의 심리적변화를 구체적인 력사적사건과 능란히 결부시키고있을뿐아니라 그들의 성격을 투쟁과 생활에서 다면적으로 섬세하게 그리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과거회상을 주인공들의 생활묘사에 도간도간 자연스럽게 인입하면서 련상의 방법 혹은 대화문, 작가의 서술문 등을 통하여 그 가치를 돋구어주고있다.

그러나 작품에는 일련의 부족점들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긍정적주인공들인 다위도브며 나굴리노브, 라즈묘뜨노브 등의 투쟁은 잘 그려졌으나 그들의 가정생활은 다 불행하거나 어둡게 그려진것이다.

나굴리노브는 안해 하나 교양 못하여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리혼하며 라즈묘뜨노브는 사랑하는 안해가 백파놈들에게 몸을 더럽히고 자결하자 오래동안 홀몸으로 지내다가 자기보다 10년이나 이상인 과부를 얻어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과부마저 농업집단화의 몰리해로 제 먼저 갈라진다. 다위도브는 나굴리노브의 안해였던 루쉬까와 치정관계를 맺고 그의 유혹에서 헤여날줄 몰라 숱한 사람들의 충고와 말없는 비난을 받게 된다. …

작품의 부족점은 중심주인공 다위도브와 그의 가장 가까운 동지인 세포비서 나굴리노브를 비극적으로 운명하게 함으로써 어쨌든 무슨 일에서나 희생이 없이는 성공할수 없다는 시사를 강조하고 독자들에게 가슴아픈 여운을 크게 남긴다.

작품은 비록 결말을 비관적으로 그린 부족점이 있으나 평범한 까자크농민들의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 대한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사회주의승리의 력사적필연성과 합법칙성, 농촌의 사회주의적개조에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예술적으로 뚜렷하게 확증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뽈롭쩨브와 오쓰뜨롭노브, 찌모페이 등 적대계급의 형상을 통하여 원쑤들의 교활성과 포악성을 폭로하고 농촌에서의 혁명적변혁은 심각한 계급투쟁속에서 이루어진다는것을 깊이있게 그려내였다.

소설은 개별적성격의 창조, 깊이있는 심리묘사, 극적긴박감의 조성, 독특한 구성과 문체의 탐구, 자연묘사와 성격묘사의 유기적결합, 인민적인 언어구사와 풍만한 해학 등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었다. 소설은 독특한 주제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쏘베트문학의 고전적인 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소설은 영화로도 각색되였다.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 왕 섭

제 1 장

정월그믐, 처음으로 불어온 따뜻한 눈석이바람에 벗나무동산들은 향기를 풍긴다. 한낮때 어디든 바람이 자는 곳에서는 (해별이 따스하면) 벗나무껍질의 엷고 애련한 냄새가 녹은 눈의 담담한 습기와 섞여있으며 눈밑으로, 락엽밑으로 얼굴을 내민 흙의 힘차고 그윽한 숨결에 싸여있다.

이 아련하면서도 다채로운 향기는 푸름푸름 땅거미질 때까지 그리고 은행빛에 싸인 갈구리달이 앙상한 나무가지사이에 걸리고, 살쩌가는 토끼들이 폭신한 발자국을 눈우에 점점이 던질 때까지 겹질기게 벗나무동산들우에 서리여있다. …

이윽고 바람이 광야등성이에서 추위에 얼었던 미묘한 쑥냄새를 날라오고 해낮의 냄새와 소리들이 잦아들면 들쑥과 부리얀초와 가을갈이한 밭의 빛갈 잃은 브리짜초와 가을한 밭들의 물결진 언덕을 타고 밤에 동쪽으로부터 재빛승냥이처럼 슬며시 찾아든다.

황혼의 어스름을 발자국과 같이 광야에 끄을면서.

1930년 정월 어느날 저녁, 한 사나이가 말을 타고 광야끝의 소로로 해서 그레먀치 로그부락에 들어섰다. 그는 배에 고슬고슬 성에가 붙은 맥빠진 말을 내가에 세우고 말에서 내렸다. 좁은 소로길 량쪽에 뻗어있는 컴컴한 과수원들과 백양나무숲들우에 이지러진 달이 높이 걸려있었다. 소로길은 어둡고 고요했다. 어딘가 내 건너편에서 개가 요란스레 짖어대고 누렇게 불빛이 보였다. 사나이는 두코구멍으로 찬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장갑을 벗었다. 담배를 피워물고서 말북두끈을 조이고 안장밑에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땀이 내밴 축축하고 더운 말잔등을 감촉하자 덩지 큰 몸을 날쌔게 안장우로 던졌다. 그리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조그마한 개천의 여울을 건느기 시작했다. 개천밑바닥을 덮고있는 조약돌에 웅글은 편자소리를 내면서 건너가는 말은 도중에서 목을 뻗쳐 물을 마시려 했으나 타고있는 사나이가 서둘러대여 와락 경사진 기슭으로 뛰여올랐다.

사람들의 말소리와 발구활대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사나이는 다시금 말을 세웠다. 말은 들려오는 소리에 주의깊이 귀를 세우고 머리

를 돌렸다. 은빛가슴끈과 은장식을 한 까자크식의 높은 안장틀이 달빛을 받아 캄캄한 소로길에서 돌연히 선뜩 희게 번뜩이였다. 말을 탄 사나이는 안장틀우에 고삐를 던지고 이때까지 어깨에 걸려있던 까자크식 락타털모자를 황급히 쥐여쓰고 얼굴을 감싼 다음 급보로 말을 달렸다. 발구옆을 지나자 그는 전과 같이 평보로 달렸으나 털모자는 벗지 않았다.

이미 부락에 들어서서 그는 한 녀편네를 만나자 이렇게 물었다.

《저 아주머니, 이 부락에 야꼬브 오쓰뜨롭노브가 어디 삽니까?》

《야꼬브 루끼치 말이유?》

《그렇소.》

《저기 백양나무뒤 기와집이 그 댁인데 보이지요?》

《보입니다. 고맙소.》

그는 커다란 기와집옆에서 말에서 내려 삽짝문으로 말을 끌고 들어가서 채찍손잡이로 가만히 들창을 두드리고 사람을 불렀다.

《주인! 야꼬브 루끼치, 잠간 나오게.》

모자도 안 쓰고 저고리를 어깨에 걸친채 주인이 현관으로 나와 찾아온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층계를 내려왔다.

《이렇게 늦게 누가 왔어?》

희슥희슥한 수염으로 웃음을 띠우면서 그는 물었다.

《모르겠나, 루끼치? 재워주게. 어디 따뜻한데 말을 맬데가 없나?》

《아니요. 동지, 모르겠는데요. 구역집행위원회에서 오신분이 아니유? 농업부에서 오시지 않았수? 어쩐지 알것 같기두 한데… 목소리가 귀에 익은것 같군요. …》

《뽈롭쩨브를 잊지 않았나?》

그러자 야꼬브 루끼치는 불시에 놀란듯이 주위를 둘러보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 이렇게 속삭였다.

《나으리!… 어디서 오시는 길이유?… 대위님!… 곧 말을 치웁시다. … 마구간으루… 이거 몇해만인가요. …》

《임자 좀 조용하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 … 말등거리가 있나… 집에 딴사람은 없나?》

찾아온 사나이는 말고삐를 주인에게 내주었다. 말은 느릿느릿 주인의 손동작을 따르면서 길게 목을 뻗쳐 머리를 높이 들고 피곤한듯 뒤

발을 끌며 마구간으로 걸어갔다. 말은 발굽으로 요란스레 마루바닥을 울리고 다른 말이 있던 마구간냄새를 맡자 킁 하고 코를 불었다. 주인의 손이 코등에 놓이고 쓸려 단 이몸에서 슴슴한 자갈을 솜씨있게 조심히 떼여놓자 말은 고마운듯 건초우에 꿇어앉았다.

《북두끈을 끌렀으니 안장은 그냥뒀다가 좀 몸뚱아리가 식거들랑 내리웁시다.》

차거운 말등거리로 정성스레 말을 덮어주면서 주인이 말했다. 그리고 안장의 상태를 만져본 그는 방석우로 맨 북두끈이 단단히 조여있는것이며 등자띠를 잡아맨 끈이 무척 늘어진것으로 보아 손님이 먼곳에서 왔다는것과 이 하루동안에 적지 않게 말을 몰았다는것을 이내 알아차렸다.

《집에 낟알이 있나, 야꼬브 루끼치?》

《좀 있지요. 물을 멕이구 낟알을 줍시다. 자, 집으로 들어가시지요. 이제는 당신을 뭐라구 존칭해야 좋을는지… 옛날처럼 하자니 이제는 서먹서먹하구 또 쑥스러울것 같아서…》

주인은 어둠속이라 자기가 웃는것이 보이지 않는다는것을 알면서도 싱겁게 미소를 띄웠다.

《이름과 부칭을 부르게나. 잊지 않았나?》

손님은 앞장서서 마구간을 나서며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전 도이췰란드를 편답했구 이번전쟁에두 그랬는데… 자주 당신을 생각했지요, 알렉싼드르 아니씨모비치, 노보로씨스크에서 작별한 후로는 당신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요. 배를 타시구 까자크들과 함께 뛰르끼예루 가신줄 알았어요.》

두사람은 후끈하게 불을 땐 부엌으로 들어갔다. 손님은 털모자와 그밑의 흰 양피모자를 벗고 희슥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돋은 든든해보이는 울툭불툭한 머리를 드러내였다. 그는 승냥이를 방불케 하는 험악스런 대머리이마밑으로 얼핏 방안을 둘러보고 쑥 깊이 들어간 눈언저리속에 음험하게 번쩍이는 퍼러스름한 두눈을 가늘게 하고서 걸상에 앉아있는 두 녀자—주인녀편네와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주머니들,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덕택으로 무사합니다.》 주인녀편네가 공손히 대답하고 (대체 어떤 사람을 데려왔수, 어떻게 대우를 하라우?) 하고 묻는것처럼 기다리듯이 남편을 힐끗 보았다.

《저녁식사를 준비하우.》 주인은 손님을 살림방 식탁으로 청한 다음 짤막히 일렀다.

손님은 돼지고기국을 숟가락으로 떠마시면서 녀편네가 있는지라 날씨며 동료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돌로 쪼아낸듯 한 그의 커다란 아래턱은 간신히 움직이고있는것 같았다. 죽어가는 황소처럼 그는 기진한듯이 느릿느릿 씹었다. 저녁을 마치자 일어나서 먼지앉은 종이꽃속의 성상에 기도를 드리고는 어깨가 좁고 낡은 저고리에 붙은 빵부스레기를 털며 이렇게 말했다.

《잘 먹었네, 야꼬브 루끼치! 이제는 얘기나 좀 하세.》

며느리와 주인녀편네는 급히 식탁을 거두고 주인이 눈섭을 움직여 분부하는대로 부엌으로 나갔다.

제 2 장

어지간히 눈이 나쁘고 동작이 느린 구역당비서는 책상앞으로 다가앉아 곁눈으로 다위도브를 바라보고 눈밑에 늘어진 주름살을 잡으면서 실눈을 하고 다위도브의 문건들을 읽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전기줄이 바람에 맞아 휙휙 소리가 나고 울타리에 굴레를 매여놓은 말잔등에서 까치 한마리가 바로 등골을 엇비뚜름히 왔다갔다하면서 무엇을 쫓고있었다. 바람이 까치의 꽁지를 불어 흐트러뜨려서 날아오르게 했으나 까치는 로쇠한듯 맥을 못 추고 만사에 무관심한 말잔등에 또다시 내려앉아 장한듯이 사나운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솜을 뜯어 널어놓은듯 한 구름들이 거리상공을 낮추 날아가고있었다. 간간이 구름사이로 해빛이 엇비스듬히 내려비치고 여름철같이 푸른 하늘쪼각이 반짝이였다. 그러면 들창너머로 보이는 돈강의 굴곡이며 그 저쪽의 나무숲이며 조그마한 풍차들이 있는 지평선의 먼 산등성이가 감명깊은 한폭의 부드러운 그림을 이루었다.

《신병때문에 로쓰또브에 머물러있었단 말이군요? 할수 없지… 2만 5천명부대의 나머지 여덟명은 사흘전에 도착했소. 군중대회가 있었구 꼴호즈대표들이 그들을 환영했소.》 비서는 무엇을 생각하는듯 입술을 깨물었다. 《현재 여기 정세는 매우 복잡하오. 전 구역을 통해서 집단화률이 14.8프로요. 공동경작조합이 그냥 더 많소.

부농—부자에 속하는자들은 아직 곡물납부를 안하고있소. 사람들이 필요하오. 무척! 꼴호즈원들은 마흔세명의 로동자를 보내달라구 청원을 냈는데 겨우 당신들 아홉명만을 보내줬소.》

그리고는 부석부석한 눈시울밑으로 새삼스럽게 살피듯이 오래동안 다위도브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을가 하고 평가라도 하듯이.

《그러니까 동지는 즉 철공이군요? 아주 좋소. 그래 뿌찔로브공장에서는 오래 일했소? 한대 피우시오.》

《제대된 때부터 9년간이지요.》 다위도브는 담배를 집으려고 손을 뻗쳤다. 이때에 비서는 다위도브의 손회목에 퍼러스름하게 입묵한것이 눈에 띄자 처진 입술을 실룩하고 웃었다.

《아름다움과 자랑이군? 해군에 복무했소?》

《네.》

《그럴테지, 닻이 새겨져있는걸 보니…》

《젊어서, 이를테면… 철이 없구 어리석었기때문에 새겼지요. …》 다위도브는 화가 치민듯 소매를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생각했다. (제길, 쓸데없는데 눈이 빠른 사나이로군. 그러면서두 곡물납부는 망태기를 칠번 했거던!)

비서는 잠시 덤덤히 있다가 그 병색이 도는 부석부석한 얼굴에 띄우고있던 걸치레의 무의미한 웃음을 불시에 지워버렸다.

《동지는 오늘 전면적인 집단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구역당위원회의 전권위원으로 떠나시오. 변강당위원회의 최근지시문을 읽었소? 아오? 그럼 그레마치농촌쏘베트루 떠나시오. 휴식은 후에 하고. 지금은 시간이 없소. 100프로의 집단화를 향하여 매진하시오. 거기 그 난쟁이 협동조합을 우리는 거인—꼴호즈로 만들어야 하오. 선전대가 조직되면 곧 그리루도 보내겠소. 그동안 가서 부농들을 솜씨있게 죄여대면서 꼴호즈를 만드시오. 거기의 전체 빈농과 중농들을 꼴호즈에 들게 해야 하오. 그다음에는 꼴호즈의 전체 경지에 뿌릴 공동종곡폰드를 만드시오. 가면 조심해서 일하오. 중농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오! 그레마치에는 세명의 당원을 가진 세포가 있소. 세포비서와 농촌쏘베트위원장은 좋은 사람들인데 과거에는 붉은 빨찌산들이였소.》 하고는 또다시 입술을 깨물고있다가 덧붙여 말했다. 《그들은 거기서 모든 영향을 가지구있소. 알겠소? 정치적으로는 약하기때문에 실패할수

있단 말이요. 곤난한 일이 생기면 구역으루 찾아오시오. 젠장, 전화가 아직 없어서 개판이니까! 그리구 또 하나 거기 세포비서는 적기훈장수훈잔데 좀 과격하구 모서리투성이요. … 그리구 그 모서리가 전부 날이 섰거던.》

비서는 손가방의 자물쇠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있다가 다위도브가 일어서는것을 보자 활기를 띠고 말했다.

《가만있소. 그리구 매일 련락을 띄워 보고를 보내구 거기서 사람들을 죄여대시오. 그럼 우리 조직부장한테 들렸다가 떠나시오. 당신을 구역집행위원회의 말루 보내도록 이르겠소. 그럼 100프로의 집단화를 향해서 몰아대시오. 프로에 의해서 당신의 사업을 평가하겠소. 18개의 농촌쏘베트로써 거인꼴호즈를 만듭시다. 어떤 꼴호즈겠소? 이를테면 농업에서의 크라쓰늬뿌찔롭스끼 대공장이란 말이요.》 하고는 그 비교가 자신에게도 마음에 들었던지 벙긋 웃었다.

《당신은 아까 부농들을 조심히 취급할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하랍니까?》 다위도브는 물었다.

《그건 이렇소.》 비서는 손우사람인체 하는 미소를 띄웠다. 《곡물납부과업을 완수한 부농이 있는가 하면 또 완강하게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부농이 있소. 후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명백하지. 제107조를 적용하면 그만이요. 그렇지만 전자들에 대해서는 복잡하오. 가령 당신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소?》

다위도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라며는 그들에게 또 새로운 과업을 주겠소.》

《그건 호되군! 아니요. 동지, 그건 좋지 않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조치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릴수 있소. 그때에는 중농들이 뭐라겠소? 이렇게 말할게요. 〈쏘베트정권이란 이렇군! 농사군들을 이리저리 비틀어댄다〉구. 레닌은 농민들의 기분상태를 고려하라구 우리에게 가르쳤소. 그런데 당신은 두번째 과업을 운운하니 그건 어린애장난이요.》

《어린애장난이라구요?》 다위도브는 얼굴이 검붉어졌다. 《그럼 당신 생각에는 쓰딸린이 틀렸단 말이구려?》

《여기에 쓰딸린이 무슨 관계요?》

《뭐라드라… 저 맑스주의자들의 대회에서 하신 그이의 연설을 나도 읽었소. 저, 농업문제에 종사하구있는… 농업일군대회라던가?》

《농업문제전문가대회 말이요?》
《그래요, 그래요!》
《그게 어떻단 말이요?》
《그 연설이 실린 〈쁘라우다〉를 가져오라시오.》
사무주임이《쁘라우다》를 가져왔다. 다위도브는 열심히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비서는 미소를 띠우고 기다리듯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있었다.
《쓰딸린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여기요. 이것은 어떻소? 〈우리가 어떤 제한의 관점에 서있었던 동안은 부농청산이 용허되지 않았었다. …〉 그리구 그다음에는… 자, 이렇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지금 우리는 부농에 대하여 결정적인 공격을 취하고 그의 저항을 분쇄하며 그를 계급적으로서 청산할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 계급으로서요. 알겠소? 재차 곡물납부과업을 내리는 것이 왜 안됩니까?》
비서는 얼굴의 미소를 지워버리고 저으기 정색했다.
《꼴호즈에 들어가는 빈농—중농대중이 부농을 청산한다고 그 다음에 씌여있소. 그렇지 않소? 읽어보오.》
《원참!》
《원참이 다 뭐요!》 비서는 약이 올라 목소리까지 떨렸다. 《그래 어떡하란 말인가? 누구를 막론하구 전체 부농들에게 행정적조치를 취하라는거지. 집단화가 겨우 14프로요. 중농들이 이제 겨우 꼴호즈에 들어갈가 하구있는 구역에서 그렇게 하란 말이지. 그렇게 해서는 졸지에 일을 망쳐버릴수 있소. 현지조건을 아무것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들 오거던…》 비서는 자기를 억제하고 이번에는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런 생각으로써는 매양 일을 망쳐버릴수 있겠소.》
《뭐라구 이것을 말했으면 좋을가?》
《안심하구있소! 그런 조치가 필요하구 또 시기에 적절하다면 변강당위원회가 진작 우리에게 〈부농들을 근절하라!…〉고 분부했을게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하오! 눈깜짝할 사이에 민경이며 전체 기관이 방조할테니까. …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곡물을 감춘자들인 부농들을 인민재판을 거쳐 부분적으로 제107조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처벌할따름이요.》

《그렇다면 당신생각에는 머슴, 빈농, 중농들이 부농청산을 반대한단 말이요? 부농들편이요? 부농들을 반대하도록 그들을 추동해야 합니까?》

비서는 손가방자물쇠를 결연히 탁 치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구역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것은 구역당위원회 상무위원회고 개인적으로는 나요. 우리가 파견하는 곳으로 가서 당신이 발명한 로선이 아니라 우리 로선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시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과 토론을 하고있을 시간이 없소. 그런 일외에두 내게는 할일이 많소.》 그는 일어섰다.

다위도브의 두볼에 또다시 피대가 올랐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억제하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의 로선을 실시하겠소. 그런데 동지에게 로동자투로 까놓구 말하겠지만 당신의 로선은 틀렸소. 정치적으로 옳지 않소, 사실말이지!》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나자신이 책임을 질게구… 그런데 그 〈로동자투〉는 낡았소. …》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비서는 수화기를 들었다. 방안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다위도브는 조직부장한테로 갔다.

《저 사람은 우경을 범하구있군. … 사실말이지!》 그는 구역당위원회에서 나오면서 생각했다. 《농업문제전문가들에게 하신 쓰딸린동지의 연설을 전부 다시 읽어봐야겠다. 그래 내가 틀렸을가? 미안하지만, 천만에! 자네의 그 관대성이 부농들의 버릇을 굳혔어. 그래두 현당위원회에서는 수완가라고들 하던데 부농들에게는 아직두 곡물납부가 남아있거던. 부농을 죄여대는것과 해독자로서 근절하는건 별문제야. 왜 대중을 움직이지 않는가?》 그는 비서를 상대해서 머리속으로 론쟁을 계속했다. 여느때와 같이 정말 그럴듯한 결론은 후에야 떠올랐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후끈 달아 흥분한김에 닥치는대로 반대를 했다. 좀 더 침착해야 하겠다. 그는 언 물웅뎅이로 버석버석 걸어가다가 시장광장에서 얼어붙은 소똥에 발을 걸채였다.

《빨리 끝난것이 유감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네를 혼내웠을걸.》 하고 소리를 내여 말한 다위도브는 한 녀자가 히죽이 웃으며 지나가는것을 보자 화가 치민듯 입을 다물었다. 《까자크와 농민회관》에 들려 다위도브는 자기의 트렁크를 가져왔으나 자기의 재산이라고

는 양말, 양복, 샤쯔 두벌외에는 나사틀개, 집게, 줄칼, 십자나이프, 콤파스, 열쇠따위의 레닌그라드에서 가져온 보잘것없는 공구들임에 생각이 미치자 픽 웃었다.

《언제 이런것들을 쓰게 되겠다구! 뜨락또르라두 좀 고칠가 생각했더니 거기에는 뜨락또르두 없다지. 아마 전권위원으로서 구역내를 싸다니게 될게야. 꼴호즈의 어느 대장쟁이에게 줄가부다.》그렇게 마음먹고 그는 트렁크를 썰매안에 집어던졌다.

여물을 배불리 먹은 말은 얼럭덜럭 요란스러운 색칠을 한 둥대기가 달린 썰매를 가볍게 끌고갔다. 읍을 나서자마자 다위도브는 몸이 얼었다. 그는 해진 외투의 양털깃속에 열심히 얼굴을 싸고 모자를 눌러썼다. 바람과 축축한 눈가루가 깃과 소매속으로 날아들어 몸을 얼게 하였다. 낡은 보행군용구두를 신은 발이 특히 얼어들었다.

읍으로부터 그레먀치 로그까지는 인가도 없는 등성이로 20키로메터나 떨어져있었다. 등성이꼭대기에는 녹은 말똥으로 갈색이 된 길이 뻗어있었다. 주위는 무연한 눈의 처녀지다. 길 량켠에는 눈에 덮인 들쑥과 엉겅퀴꼭대기들이 초라하게 옹크리고있다. 오직 산협의 경사면에서만 여기저기서 마치 무슨 눈모양으로 생긴 붉은 흙이 세상을 내다보고있다. 바람에 불리여 거기에는 눈이 덮이지 않은것이다. 그대신 산협과 골바닥에는 촘촘히 내려앉은 눈무데기가 우까지 쌓여있다.

다위도브는 발을 녹이려고 썰매뒤판을 붙잡고 오래 뛰여가다가 썰매안으로 뛰여올라가 몸을 옹크리고 잠이 들었다. 썰매활대쇠판이 삐걱거리고 말편자끝이 썩썩 눈속으로 꽂히고 오른쪽멍에의 가름대가 소리를 내였다. 길에서 쏜살같이 날아오르는 갈가마귀의 날개가 해빛을 받아 보라빛번개와 같이 피여오르는것을 다위도브는 성에가 붙은 눈시울밑으로 가끔 보았으나 다시금 달콤한 잠이 그의 눈을 감겼다.

그는 심장이 조여드는듯 한 추위에 잠을 깼다. 눈을 뜨자 무지개빛으로 반짝이는 눈물너머로 차거운 태양과 고요하고 광막한 광야와 지평선끝의 남빛하늘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묘지의 흰 모자 비슷한 꼭대기에 불같이 아른거리는 불그누르스름한 한마리의 여우를 보았다. 여우는 쥐를 찾고있는것이였다. 여우는 뒤발로 서있다가 꿈틀거리며 우로 뛰여올라 앞발에 몸을 싣고 반짝이는 은빛눈가루속에 싸여 눈을 팠다. 여우꼬리는 부드럽게 헤엽치듯 미끄러져 붉은 불길처럼 눈

우에 놓였다.
그레먀치 로그에는 초저녁때 도착했다. 농촌쏘베트의 넓은 뜰에는 쌍두썰매가 쓸쓸히 서있었다. 문결에 담배를 피우며 예닐곱명의 까자크가 모여서있었다. 땀이 얼어서 털이 터슬터슬하게 된 말들은 문옆에서 발을 멈추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구간이 어디 있소?》
《어서 오시유.》 모두를 대표해서 중년의 한 까자크가 토끼털모자끝으로 손을 가져가며 대답했다. 《마구간은, 동지, 저 갈대루 이영을 이은 곳이외다.》
《저리루 끌고가시오.》다위도브는 마부에게 이르고 썰매에서 뛰여내렸다. 다부지고 든든한 체격이다. 장갑으로 뺨을 문지르면서 그는 썰매뒤를 따라갔다. 보매 사무원 같고 순수 로씨야식억양으로 발음하는 그 사나이가 농촌쏘베트로는 들어가지 않고 썰매를 따라가는것을 의아해하면서 까자크들도 마구간으로 향했다. 마구간문들로부터는 뜨스한 두엄김이 뭉게뭉게 쏠려나왔다. 마부가 말을 세웠다. 다위도브는 능란한 솜씨로 썰매에서 말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가까이에 모여서있던 까자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흰 녀자용외투를 입은 늙은이 하나가 수염에 맺힌 코물고드름을 긁으면서 능청스럽게 눈을 가느스름히 하고 말했다.
《주의하게, 말에 채우겠네, 동지!》
말꼬리밑의 껑거리를 벗겨낸 다위도브는 거매진 입술로 빙긋이 웃어 앞이발이 하나 없는것을 드러내면서 늙은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령감님, 나는 기관총사수였다우. 이런 말쯤은 문제로 안됩니다.》
《이발이 하나 없는데 그건 어쩌다… 암말이 부러뜨렸소?》 갈가마귀같이 검고 바로 코구멍까지 고슬고슬한 수염이 돋은 한 사나이가 물었다.
까자크들은 악의없는 웃음을 터쳤다. 그러나 다위도브는 재빨리 말목걸이를 벗기면서 익살로 응대했다.
《아니요, 이발은 오래전에 술탓으루 잃어버렸지요. 허긴 그게 좋아요. 물어뜯지나 않나 하구 녀인들이 겁을 내지 않을테니까. 그렇지요, 할아버지?》 까자크들은 그 익살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로인은 짐짓 애통해하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다위도브는 까자크들에게 담배를 권하고 한대 피워물고서 농촌쏘베트로 걸음을 옮겼다.

《거기, 거기에 위원장이 있네, 가보라구. 우리 당비서두 거기 있어.》로인은 줄곧 다위도브의 뒤를 따르면서 말했다.

까자크들은 두모금에 담배 한대를 다 피워버리면서 나란히 옆을 걸어갔다. 그들에게는 찾아온 이 사나이가 평소에 구역의 상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썰매에서 뛰여내려서는 가방을 껴안고 본체만체 사람들옆을 지나 농촌쏘베트로 향하는것이 아니라 마부를 거들어 말을 다루는 능란한 솜씨와 숙련을 보이면서 썰매에서 말을 풀기 시작한것이 퍽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미심스럽기도 했다.

《동지는 어떻게 말을 다루는걸 싫어하지 않으슈? 대관절 그게 사무원들이 할일이요? 그래 마부는 무엇때문에 있소?》참다못해서 검은 수염의 사나이가 말했다.

《그게 우리에게는 괴이쩍다니까.》령감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다위도브는 미처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았다.

《이 사람은 대장쟁이군!》수염이 노란 젊은 까자크가 다위도브의 손을 가리키면서 실망한듯이 웨쳤다. 그 손은 늘 금속을 다루어 손바닥피부에 남빛물이 들었고 손톱에는 낡은 상처자국이 있었다.

《철공입니다.》다위도브는 정정했다. 《그래 당신들은 왜 쏘베트루 가시오?》

《재미있어서 그러네.》 령감이 복도의 아래층계에서 발을 멈추면서 일동을 대신해서 대답했다. 《임자가 무슨 일루 우리를 찾아왔는지 알구싶구만. 혹시 곡물납부를 다시 하라는건지…》

《꼴호즈일루 왔어요.》

령감은 락심한듯이 휘파람을 길게 한번 불고 선참으로 층층대에서 발을 돌렸다.

×

낮은 방에서는 누근해진 양털반외투와 재의 시큼털털하고 뜨스한 냄새가 훽 코를 찔렀다. 책상곁에서 키가 크고 어깨가 쩍 버그러진 한 사나이가 남포등심지를 돋구면서 다위도브를 향하여 서있었다. 그

의 보위색웃옷에 적기훈장이 붉게 빛나고있었다. 다위도브는 이 사람이 바로 그레먀치 당세포비서라는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구역당위원회의 전권위원입니다. 당신이 세포비서요, 동지?》

《그렇소. 내가 세포비서 나굴리노브외다. 앉으시우, 동지. 쏘베트위원장이 이제 올게요.》 나굴리노브는 주먹으로 벽을 두드리고 다위도브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앞가슴이 쩍 버그러지고 다리가 기병식으로 집게다리였다. 송진이라도 부어넣은것 같이 눈동자가 유난스럽게 누르스름하고 큰 눈우에는 널직하니 검은 눈섭이 자라있었다. 만약 조그마한 매부리코의 코구멍이 지나칠만큼 사납게 패이지 않고 두눈이 흐리터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수수하기는 하나 인상적인 남성미를 가진 호남자였을것이다.

옆방으로부터 재빛염소털모자를 뒤통수에 제껴쓰고 라사직저고리와 넓은 줄이 붙은 까자크식의 후렁후렁한 바지를 입고 그 끝을 흰 털양말속에 쓸어넣은 키가 작고 뚱뚱한 한 까자크가 나왔다.

《이 사람이 바루 농촌쏘베트위원장 안드레이 라즈묘뜨노브입니다.》

위원장은 미소를 띠우면서 손바닥으로 희슥희슥하고 고슬고슬한 수염을 쓸어붙인 다음 다위도브에게 점잖게 손을 내밀었다.

《그래 당신은 어떤분이요? 구역당위원회의 전권위원이시오, 예? 당신의 문건을 좀… 마까르, 자네 봤나? 당신은 필시 꼴호즈의 일루 오셨지요?》 그는 여름철 하늘과 같이 맑은 눈을 자주 깜빡거리면서 소박하게 기탄없이 다위도브를 바라보았다. 이마에 엇비스듬히 푸른 상처자국이 있고 오래동안 수염을 깎지 않은 거무스름한 얼굴에 초조하게 기다리는 빛이 완연히 떠올랐다.

다위도브는 책상으로 다가앉아 당이 제기한 주내의 전면적인 집단화과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장 래일로 빈농들과 열성자들의 회의를 진행할것을 제의했다.

나굴리노브는 정세를 설명하면서 공동경작조합에 대해서 언급했다.

라즈묘뜨노브도 말참견을 하면서 갈색홍조가 떠오르기 시작한 뺨을 손으로 고인채 나굴리노브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있었다.

《이곳에는 소위 공동경작조합이란게 있지요. 말씀드리지만 로동자동지, 이것은 집단화에 대한 하나의 희롱일뿐더러 기필코 쏘베트정권

의 손실입니다.》 나굴리노브는 눈에 띌만큼 흥분하면서 말했다. 《이 조합에는 열여덟개 농가가 들어있는데 모두 형편없이들 가난하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수? 웃음거리일밖에. 합치기는 합쳤는데 열여덟개 농가에 말은 네필, 소는 두마리구 식구는 207명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림을 해나가겠소? 물론 그 사람들에게 기계와 마소를 살 장기대부금을 주구있지요. 그 사람들은 대부금을 받구는 있지만 장기간에두 그걸 물어내지는 못해요. 그 까닭을 미리 설명하겠소. 그 사람들한테 뜨락또르가 있다면 별문제지만 뜨락또르는 주지 않았구 소를 써가지구는 쉽사리 부유해질수가 없거던요. 그자들은 비루먹은 송아지처럼 쏘베트정권밑으루 기여들어서 빨아대기는 빨아대면서두 크지를 않으니만큼 내 생각대루 할수 있다면 벌써 오래전에 그자들을 해산시켰겠수다. 그자들간에는 〈뭐, 어차피 우리에게는 줄테지! 그렇지만 빚대신으루 우리한테서 받아낼건 아무것두 없다〉는 생각이지요. 이런 까닭에 그자들은 규률이 문란하니 저 공동경작조합은 래일에라두 뻐드러질것입니다. 모두를 꼴호즈에 넣자는것은 옳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말 멋진 일이구 온통 세상의 일같지 않을걸요! 그렇지만 까자크들이란 완고한 백성이기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걸 때려부셔야 할것입니다. …》

《당신들중에서 누가 그 조합에 들어있소?》

다위도브는 물었다.

《아니요.》 나굴리노브가 대답했다. 《나는 20년때 꼼무나에 들었댔소. 그런데 그후 이 꼼무나는 리기주의때문에 해산되구말았지요. 나는 사유재산을 포기했수다. 그것을 심히 미워했기때문에 나는 소와 농쟁기를 이웃의 제6호꼼무나에 주어버려서(그 꼼무나는 아직두 있지만) 우리 부부는 아무것두 가진것이 없지요. 라즈묘뜨노브는 그런 모범을 보일수 없었지요. 이 사람은 홀아비구 늙은 어머니가 한분 계실뿐이거던요. 이 사람이 조합에 들어간다면 우웡씨처럼 비난이 자자해서 못 견딜거외다. 〈로파를 귀찮은것 처분하듯이 우리에게 떠맡기구 자기는 밭에서 일두 하지 않는다.〉구들 할테니까요. 이건 야릇한 일이거던요. 또 한명의 우리 세포원은 지금 딴곳에 가있소마는 외팔입니다. 탈곡기에 손이 하나 달아났지요. 그 사람두 조합에 들어가는걸 사양하구있거던요. 자기가 아니래두 거기에는 식구들이 많다는겁니다.》

《참말 공동경작조합은 우리의 두통거리지요.》 라즈묘뜨노브가 맞장구를 쳤다. 《조합의 위원장 아르까쉬까 로쎄브란 작자는 좋은 주인이 못됩니다. 그런 작자를 선거하다니! 털어놓구말해서 우리는 그 일에 실패했지요. 그자를 그런 자리에 올라앉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건 왜요?》 다위도브는 부농들의 재산목록을 보아나가면서 물었다.

《그자에게는 한가지 고질이 있습니다. 그자는 상인으로서 살아갈 위인이거던요. 모든걸 바꾸구 되팔구 하구싶은것이 그자의 고질이외다. 공동경작조합을 깡그리 파산시키구말았지요! 종자소를 한마리 샀었는데 그걸 모터찌클과 바꿀 마음이 들었거던요. 자기 조합원들을 꼬여가지구 우리와는 의논두 없이, 보니까 읍에서 그 모터찌클을 끌구 오더군요. 우리는 꽥 소리를 지르구 머리를 그러쥐였지요! 그런데 끌어오기는 끌어왔지만 그걸 몰줄은 아무두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구 그게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습기두 하구 딱하기두 했지요. 읍으루 그걸 끌구 갔지요. 읍에서는 그것에 밝은 사람들이 보고서 〈칠을 해서 팔아넘기는게 낫다.〉 구들 하더랍니다. 거기에는 공장에서나 만들수 있는 그런 부속품이 없을밖에요. 야꼬브 루끼치 오쓰뜨롭노브를 그 사람들의 위원장으루 하는게 좋을겁니다. 그 사람은 령리하거던요! 크라쓰노다르에서 새 종류의 밀을 부쳐다 심었는데 어떤 열풍이 불어두 죽지 않고 자라구, 밭에는 언제나 눈이 쌓여있구 그 사람의 수확은 언제나 좋지요. 집짐승은 개량종을 키우구있구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 좀 투덜거리기는 하지만 착실한 일군일뿐더러 상장까지 가지구있습네다.》

라즈묘뜨노브가 말했다.

《그자는 집오리들속에 끼인 들오리처럼 어쩐지 늘 멀찌감치 떨어져있네.》

나굴리노브는 의아스럽다는듯이 고개를 꼬았다.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하구 한패야.》

라즈묘뜨노브는 확신하듯이 언명했다.

제 3 장

옛날의 중대장 뽈롭쩨브대위가 야꼬브 루끼치 오쓰뜨롭노브를 찾아온 날 밤 그들사이에는 오래동안 꿍꿍이가 있었다. 부락에서 야꼬브 루끼치는 매우 령리하고 꾀바를뿐아니라 조심성깊은 사람으로 간주되여왔다. 그러나 부락마다에서 맹렬히 벌어진 투쟁에 대해서는 끝내 방관적인 립장을 지켜내지 못하고 사건의 회오리바람속에 휩쓸려 들어갔다. 그날부터 야꼬브 루끼치의 생활은 위태로운 내리막길을 더듬게 되였다. …

그날, 저녁을 마치고 야꼬브 루끼치는 담배쌈지를 꺼내들고 두터운 털양말을 신은 발을 깔고서 궤짝우에 걸터앉아 해묵은 심중의 울화를 쏟아놓기 시작했다.

《뭐 말할것들 있을라구요? 알렉싼드르 아니씨모비치. 살림살이가 조금두 재미없구 즐겁지 않은걸요. 까자크들이 조금 살림두 꾸리게 되고 가산두 늘기 시작했었지요. 26년이나 27년경에는 세금두 이를테면 웬간했댔지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되려 거꾸로 되구말았거던요. 당신네 읍에서는 어떻습니까. 집단화에 대한 소문이 없나요?》

《있네.》 손님은 담배종이에 침을 뱉고 이마너머로 물끄러미 주인을 바라보면서 짤막히 대답했다.

《결국 이 투쟁때문에 어디서나 눈물인가보군요? 그럼 내 일을 말하지요. 나는 20년에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흑해옆에 네필의 말과 모든 가산을 남겨두었었는데 돌아와보니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데다. 그때부터 낮에 밤을 이어 일했지요. 농산물징발때 맨처음으루 분한 짓을 당했는데 곡물을 몽땅 다 가져갔지요. 그후로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을만큼 모욕을 당했수다. 하기는 그자들에게 계산서를 낼수도 있지요. 모욕을 주고는 잊지 않도록 인수증을 써주니까요.》 야꼬브 루끼치는 일어나서 바투 수염을 깎은 입가에 미소를 띠우면서 손을 뻗쳐 체경뒤에서 종이묶음을 꺼냈다. 《여기 이것은 21년에 납부한것에 대한 인수증들인데 곡물이며 고기며 기름, 가죽, 털, 가금을 납부했구 여러마리의 소두 납부사무소로 끌어갔지요. 그리구 이것은 단일농

업세와 자유과세납부통지서구 또 보험료령수증들이외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 대해서두 세금을 물었고 뜨락에 있는 집짐승에 대해서두 세금을 물었수다. … 이젠 이런 종이가 한자루는 될거야요. 한마디루 말해서 알렉싼드르 아니씨모비치,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요. 자기자신이 땅에 매여달려서 먹어왔구 또 다른 사람들까지 먹여왔지요. 내 생깝질을 벗겨낸것두 한두번이 아니였지만 다시금 추서군 했지요. 처음에 송아지를 두마리 벌어서 샀는데 그것이 자랐습니다. 그중 한마리는 고기루서 정부에 바치고 녀편네 재봉기를 팔아서 또 한마리 샀지요. 그후 25년에 집의 암소가 또 두마리 새끼를 낳아서 우리 집에는 네마리의 황소와 두마리의 암소가 생겼습니다. 나는 선거권두 박탈당하지 않았고 차차 착실한 중농으로 꼽히게 됐지요.》

《집에 말이 있소?》 손님이 물었다.

《잠간만 계시유. 말에 대해서두 말씀드릴테니. 나는 옆집 녀편네한테서 순 돈종의 암말이 낳은 하릅망아지를 한마리 샀지요. (그 암말은 전 부락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망아지가 자랐는데 이건 아주 준마였지요! 키가 작아서 반 웨르쇼크 모자라기때문에 군마루는 못됐는데 그 기운이란 당할 놈이 없었다니까요! 관구농업전람회에서 나는 이 말에 대해서 표창과 종마 면허증을 받았지요. 나는 농산기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구 앓는 녀편네 돌보듯 땅을 돌봤습니다. 나는 종곡의 소독두 했고 밭의 눈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쌓여있게 하는 일두 했지요. 봄파종작물은 꼭 가을갈이한 밭에다 심어서 내 밭이 언제나 제일이였습니다. 한마디루 말해서 나는 문화적인 농사군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관구 농산과의 상장을 받은것이 있지요. 저것 보시유.》

손님은 야꼬브 루끼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쪽을 힐끗 보았다. 거기에는 납인을 찍은 상장이 나무틀에 끼워 워로쉴로브의 초상화와 나란히 성상옆에 걸려있었다.

《그렇지요, 상장두 보내왔고 또 한 농산기수는 내가 키운 우량종 밀 한단을 로쓰또브로 가지구 가서 당국에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야꼬브 루끼치는 자랑하듯 계속했다. 《첫 몇년간은 다섯제쌰찌나에 파종했지만 그후 살림이 좀 펴이자 맵짜게 일해서 세크루그(1크루그는 4만평방메터－역자주), 다섯크루그, 일곱크루그에 파종하게 됐지요. 일군을 사댄건 분주한 때 두번뿐이였습니다. 그 당시 쏘베트정

권은 뭐라구 지시했겠습니까. 될수록 많이 심으라는것이였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심었지요. 그런데 인자하신 알렉싼드르 아니씨모비치, 이제 와선 겁이 나는군요! 일곱크루그에 파종했다 해서 나를 부농으루 보구 홈통에 빠뜨릴가봐 겁이 나거던요. 우리 촌쏘베트의 위원장인 붉은빨찌산출신의 라즈묘뜨노브동지, 간단히 말해서 안드류쉬까가 나를 이런 곤경에 빠지게 했지요. 옘병할것! 그는 〈야꼬브 루끼치, 힘자라는데까지 최대한도로 파종해서 쏘베트정권을 방조하우, 쏘베트정권은 지금 곡물이 몹시 필요하니까.〉 이러군 했지요. 수상스럽게 생각했었더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최대한도라는것이 나를 꼼짝할수 없게 만드는가봅니다, 젠장!》

《여기서두 꼴호즈에 가입하구들 있나?》 손님이 물었다. 너부죽한 어깨에 머리가 커 묵직한 곡물자루 비슷한 그는 뒤짐을 지고 뻬치까우 침상결에 서있었다.

《꼴호즈에요? 아직까지는 그리 심하게 굴지는 않았는데 래일 빈농들의 집회가 있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다니면서 그렇게 알렸지요. 자기들끼리는 〈들어라, 들어라.〉하구 귀찮게 떠들어댔지요. 그렇지만 모두 딱 거절하구 아무두 들어가지 않았거던요. 자기자신에게 해로운짓을 하는 놈이 어디 있겠나요? 필시 래일두 권할거외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오늘 저녁에 구역에서 어떤 로동자가 한명 왔는데 그자가 모두들 꼴호즈에 몰아넣을게라구들 하더군요. 우리 살림살이두 마지막인가봅니다. 벌어댔지요. 손이 멍과 굳은 살투성이가 되도록 벌어댔건만 이제 와서는 모든 재산을 한솥에 풀어넣어라, 집짐승두, 곡물두, 가금두, 집두 이를테면 그렇게 하란 말이죠? 결국 녀편네는 아저씨에게 주구 자기자신은… 하라는것과 다름이 없어요. 좀 생각해보슈, 알렉싼드르 아니씨모비치, 나는 꼴호즈에 두마리의 소와(두마리는 제때에 팔아버렸지만) 엄지말과 새끼말을 끌구 가구 농기구와 곡물을 들여놓는다치지만 다른자는 이가 욱실거리는 허리띠 하나뿐인걸요. 그런 놈들과 합쳐가지구 번것은 꼭같이 나누게 될테니 그래 내 속이 편안하겠소?… 그놈은 일평생 뻬치까우에 올라가 누워서 단꿈만 꾸구있었을테지만 나는… 더 할말이 없수다! 이거지요!》 야꼬브 루끼치는 껄껄한 손바닥가장자리로 자기 목을 자르는 시늉을 했다.
《그럼, 이만하구 맙시다. 당신은 어떻게 지내십네까? 지금 어떤 기관에 근무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공업이라두 하구계신가요?》

손님은 야꼬브 루끼치에게로 다가가서 걸상에 걸터앉아 또다시 담배를 말기 시작했다. 그는 담배쌈지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고있었다. 야꼬브 루끼치는 피대가 선 그의 갈색목에 파고들어간 낡은 저고리의 빠듯한 깃을 바라보고있었는데 그의 목의 울대뼈아래 량쪽에는 혈관들이 핑핑하게 부풀어져있었다.

《임자는 우리 중대에 복무하고있었지. 루끼치… 어느때 아마 예까쩨리노다르에서였던것 같은데 퇴각할 때 내가 까자크들한테 쏘베트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한걸 기억하구있나? 나는 벌써 그때 까자크들에게 경고했었네, 기억하나? 〈너희들은 큰 잘못을 저지른다! 공산당원들이 너희를 억눌러 양뿔처럼 비틀어댈게다. 그땐 정신이 들어두 늦다.〉 구 말이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푸르스름한 두눈의 동공이 바늘귀처럼 조그맣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미묘한 웃음을 띄웠다. 《내가 말한대루 되지 않았는가? 나두 우리편 사람들두 다 노보로씨스크를 떠나지 못했네. 떠날 경황이 없었거던. 지원군두 동맹군두 우리를 배반하구 버리구 갔네. 나는 붉은군대에 들어가 뽈스까전선으루 향하는 도중에서 기병중대를 지휘했었지… 그런데 거기에는 이전 장교들을 검열하는 청소위원회라는것이 있었네… 그 위원회가 나를 그 직위에서 철직시키구 체포해서 혁명재판으루 보냈지. 나를 땅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용소루 보냈을것은 두말할것두 없네. 그 까닭은 짐작하겠지? 생각컨대 한읍에 살던 어떤 개자식이 뽀드쫄꼬브를 처형하는데 내가 참가했다는걸 밀고한 모양이야. 혁명재판으로 끌려가는 도중에서 나는 도망쳤네. … 변성명을 하구서 오래동안 숨어살다가 1923년에 자기 읍으루 돌아왔지. 한때 기병중대의 지휘관이였다는 증명서를 나는 용히 간직해두었었구 좋은 동지들을 만나서 이를테면 살아남은것이네. 처음에는 나를 돈의 체까루 끌고가군 했지만 겨우 어떻게 모면해서 교원노릇을 했지.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르지. 일이 있어서 우쓰찌-호뻬르스까야루 가는 길에 옛날 같은 중대에 있던 임자한테 들린걸세.》

《교원노릇을 하셨다구요? 예… 당신은 책을 많이 읽으셨구 글공부야 더할나위 없으신데 앞으루 어떻게 될가요? 우리는 이 꼴호즈에 들어가지구 어디루 가게 될가요?》

《그야 공산주의루 가게 되지. 진짜배기공산주의루. 나는 칼 맑스두 읽었구 유명한 〈공산당선언〉두 읽었네. 꼴호즈의 일이 어떤 결

말에 이를지 아나? 처음에는 꼴호즈구 그다음에는 꼼무나가 되여서 사유란것이 완전히 없어지네. 소뿐만아니라 임자의 자식들까지 빼앗아 국가에서 가꾸게 되네. 자식, 처, 차잔, 숟가락 할것없이 모두다 공동소유로 되지. 자네는 게사니내장을 친 국수를 먹구싶은데 크와쓰를 먹으라구 하게 된단 말이야. 땅에 매인 농노루 되구말걸세.》

《내가 그런게 싫다구 해두요?》

《누가 임자한테 묻기나 할라구.》

《어떻게 그럴가요?》

《그래두 그렇게 되거던.》

《아주 묘하군요!》

《이를 말인가! 이번에는 내가 임자한테 묻겠는데 앞으루 그렇게 살수 있겠나?》

《앞으로는 갈길이 없지요.》

《길이 없으면 행동해야 하지, 싸워야 하지.》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알렉싼드르 아니씨모비치! 우리는 해봤지요. 싸웠습네다… 어떻게두 할수 없습니다. 생각조차 할수 없어요!》

《그래두 해보게.》 손님은 상대방에게 바투 다가앉아 꼭 닫긴 새문을 돌아보더니 불시에 낯색이 해쓱해져서 반쯤 속삭이듯이 말했다. 《나는 솔직히 말하네만 임자를 기대하구있네. 우리 읍에서는 까자크들이 폭동을 일으킬 차비를 하구있네. 이것을 그리 단순하구 소홀한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게. 우리는 모스크바와 련계를 가지고있으며 지금 붉은군대에 복무하고있는 장교들, 제조소와 공장에서 일하구있는 기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외와두 련계를 가지고있네. 그렇지, 그렇구말구! 만약 우리가 바로 이때 일치하게 조직되여 궐기한다면 봄까지는 외국렬강의 방조를 받아 돈지방을 청소할수 있을걸세. 가을걷이한 땅에 임자는 자기의 곡물을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파종하게 될걸세… 가만있어, 임자는 후에 말하게. 임자네 구역에는 우리에게 공감하고있는 사람들이 수다하네. 그들을 묶어세우구 모아야 하네. 바로 그 일루 해서 나는 우쓰찌―호뻬르스까야루 가는 길이야. 임자 우리한테 가담하겠나? 벌써 우리 조직에 복무하구있는 까자크가 3백명이상이나 있네. 두브롭스까, 보이쓰끄보이, 뚜뱐쓰끄이, 말릐 울리호와쯔끼와 또 기타 부락들에는 우리의 전투소조들이 있네. 여기 그레먀치에서두 그런 소조를 만들어야겠어. … 자, 그럼 말하게.》

《사람들은 꼴호즈와 곡물납부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구있습니다. …》
《가만있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임자얘기야. 임자한테 묻는거야, 그래 어떤가?》
《그런 일을 어디 당장에 결정할수 있나요?… 도끼날에다 대가리를 들이미는것과 같지요.》
《잘 생각하게… 명령하면 일시에 전체 부락들에서 궐기하는거네. 임자네 구역 읍과 내무서를 점령하구 당원들은 한놈씩 제집에서 해치우면 그다음에는 바람이 없어두 불은 퍼져나가게마련이야.》
《그래 무엇을 가지구요!》
《있을수 있지! 임자한테두 아마 남아있겠지?》
《글쎄 알수 있나요. … 하기는 오스트리아형이든가… 련발총 비슷한것이 어디 뒹굴고있었는데…》
《우리가 시작만 하면 한주일후에는 외국기선들이 대포며 장총들을 날라올걸세. 비행기두 나타날거야. 그래 어떤가?》
《좀 생각해보게 해주슈, 대위님! 다짜고짜 강박하지 마시구요. …》
손님은 그냥 창백한 빛이 사라지지 않은 얼굴로 뻬치까우 침상에 몸을 기대고 저으기 웅글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꼴호즈에 들라는것두 아니니까 아무두 강박하지는 않네. 임자 마음대루 하게. 그렇지만 혀바닥을 잘못 놀린다면… 이봐, 루끼치! 여섯알은 임자를 먹이구 그다음 일곱번째 알은…》 그는 호주머니속에서 딸깍거리며 권총고륜을 손가락으로 살짝살짝 돌렸다.
《혀바닥에 대해서는 념려하지 마시유. 그렇지만 당신네 그 일은 모험적인 일이외다. 솔직히 말하지만 그런 일에 가담하기는 무서워요. 그렇다구 살아갈 길두 끊어졌구.》 하고 잠시 말을 끊었다. 《부자들에 대한 박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노력한 덕으루 부락에선 첫째로 꼽힐거외다. 자유로운 세상이라면 지금 자가용자동차두 가지구 있을거요!》 잠시 덤덤히 있다가 주인은 애통하게 이렇게 말했다. 《다시금 혼자서 그런짓을 하다가는… 대번에 모가지를 비틀릴텐데.》
《어째서 혼자선가?》 손님은 밸이 꼴리는듯이 그의 말을 막았다.
《그건 그저 내가 입에 낸 말이구 그래 다른 사람들은 어떨가요? 이를테면 세상사람들은 어떨가요? 백성들이 움직일가요?》
《백성들이란 양떼와 같지. 끌고가야 해. 그럼 임자는 결심했나?》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알렉싼드르 아니씨모비치…》

《나는 확실히 알아야 하네, 결심했나?》
《어디루두 갈데가 없으니 결심하는거지요. 그렇지만 역시 좀 생각하게 해주슈. 래일 아침 확실한 말을 하겠수다.》
《그리구 임자는 믿을만 한 까자크들을 설복해야 하네. 쏘베트정권에 대해서 원한을 품구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게.》뽈롭쩨브는 벌써부터 명령조로 말했다.
《이런 세상이니 누구든지 품구있지요.》
《임자 아들은 어떤가?》
《손가락이 손을 떠나 어디루 가겠어요? 내가 가는데루 가지요.》
《괜찮은 젊은인가, 견실한가?》
《좋은 까자크외다.》 주인은 넌지시 자랑스레 대꾸했다.
방안 뻬치까침상결에 손님을 위해서 두터운 재빛털로 만든 무릎덮개와 외투를 깔아 잠자리를 만들었다. 손님은 장화를 벗었으나 옷은 벗지 않았다. 그리고 소털냄새가 나는 서늘한 베개에 뺨을 대기가 바쁘게 금시 잠이 들었다.
…날이 새기 전에 야꼬브 루끼치는 조그마한 옆방에서 자고있는 여든살의 늙은 어머니를 깨웠다. 이전의 중대장이 찾아온 목적을 어머니에게 간단히 이야기했다. 로파는 감기로 해서 관절을 못쓰게 된, 검은 피대줄이 내솟은 두발을 뻬치까우의 침상에서 드리우고 누런 귀박죽에 손바닥을 펼쳐대고 들었다.
《축복해주시겠수, 어머니?》 야꼬브 루끼치는 무릎을 짚었다.
《해라, 저 원쑤들과 해대라, 얘야! 하느님이 축복해주실게다! 교회들은 닫아버리구… 신부님들은 살수 없구… 해대라!》
아침이 되여 야꼬브 루끼치는 손님을 깨웠다.
《결심했수다! 분부하슈!》
《읽구서 서명하게.》 뽈롭쩨브는 웃호주머니에서 종이 한장을 꺼냈다.
《신명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본인 돈대군의 까자크는 돈강해방동맹에 가맹하여 상관들의 명령을 받들어 그리스도교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로씨야인민의 억압자인 공산주의자—볼쉐비크와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 모든 힘과 수단을 다하여 싸울것을 맹약함. 상관과 지휘관들에게 절대복종할것을 맹약함.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교조국의 제단에 바칠것을 맹약함. 이상 서명함.》

제 4 장

그레먀치의 열성자와 빈농들 32명은 모두 하나의 같은 호흡을 하고있었다.

다위도브는 웅변가가 아니였지만 모두는 가장 능숙한 옛이야기군의 말도 그렇게는 열심히 듣지 않을 정도로 처음에는 열심히 그의 말을 듣고있었다.

《동지들, 나자신은 크라쓰늬 뿌찔로브공장의 로동잡니다. 우리의 공산당과 로동계급은 당신들이 꼴호즈를 조직하는것과 우리들 전체에 대한 흡혈귀인 부농을 섬멸하는데 노력하라구 나를 당신들한테 보냈습니다. 나는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꼴호즈에 뭉치구 땅과 자기의 모든 도구며 집짐승을 공동소유로 해야 합니다. 그럼 왜 꼴호즈에 뭉쳐야 할가요? 그것은 이렇게 앞으루 더 살아가는 것이 저, 이를테면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곡물사정이 곤난한것은 부농들이 그것을 땅속에서 썩이구있기때문이고 그러니만큼 놈들한테서 우격다짐으로라도 곡물을 뺏아내야 합니다! 당신들은 기꺼이 납부하겠지만 자신들두 모자랍니다. 중농－빈농의 곡물로써는 쏘련을 먹여살릴수 없습니다. 더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옛날식보습이나 날이 하나밖에 없는 틀보습으로써 어떻게 더 많이 심겠습니까? 뜨락또르만이 이 곤경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사실말이지 나는 모릅니다만 여기 돈지방에서는 틀보습 하나로써 한가을에 얼마나 밭갈이하는지…》

《첫새벽부터 밤 어두울 때까지 보탑을 붙잡구있어야 겨울까지에 열두제샤찌나쯤 밭갈이하지요.》

《허! 열두제샤찌나? 그렇지만 굳은 땅이라면?》

《거기서는 무슨 말들을 하구있어요!》 하는 날카로운 녀자목소리. 《틀보습을 끌려면 여섯마리 혹은 여덟마리의 든든한 황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소가 우리한테 어디서 나겠수? 있다 하더래두 매 개인들에게는 없구 그것두 말라빠진것들이야요. 젖꼭지가 달린 황소들만 많은걸요. 부자들에게는 그게 있으니까 바람을 등에 진셈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구있는게 아니야! 입자는 치마자락이라두 입에 물

구 잠자쿠 있어.》 누구인가의 거쉰 굵은 목소리.
《아주 잘 아는군! 자기 집 녀편네한테나 가르치구 내겐 참견말어요!》
《그래 뜨락또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위도브는 조용해지기를 기다려 대답했다.
《뜨락또르라면 가령 우리 뿌찔로브공장에서 만든 뜨락또르로써 일에 밝은 좋은 운전사들이 부린다면 일주야 두교대에 역시 열두제샤찌나를 일굽니다.》
만장이 야! 하고 감탄했다. 누군가가 얼뻥뻥한듯 무심결에 한마디 했다.
《저런…》
《그것 참! 그런 말루 밭을 갈았으면…》 휘파람과 더불어 부러워하는 탄식.
다위도브는 흥분에 마른 입술을 손바닥으로 훔치고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공장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뜨락또르를 만들구있습니다. 빈농과 중농은 단독으루 뜨락또르를 사기에는 약합니다. 뱀이 가늘거던요! 그러니까 뜨락또르를 사려면 머슴, 빈농, 중농들이 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뜨락또르라는것은 여러분두 아시다싶이 조그마한 땅에서 몰아서는 불리한 그런 기계구 길게 몰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협동조합들이 뜨락또르에서 얻는 리익이라는것은 역시 수염소에서 젖을 짜는 격이지요.》
《그보다두 적을지두 모르지!》 뒤줄에서 누군가의 굵은 목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위도브는 건네는 말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 계속했다. 《당은 뜨락또르와 련결해서 당신들을 빈궁으로부터 끌어내려고 전면적인 집단화를 예견하구있습니다. 레닌동지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뭐라구 말씀했습니까? 〈오직 꼴호즈에 의해서만 근로농민은 빈곤에서 구원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파멸이다. 부농—흡혈귀가 그를 말끔 빨아먹을것이다. …〉 라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길루 견결히 나가야 합니다. 로동자들과 동맹함으로써 꼴호즈원들은 전체 부농과 적들을 쳐부실것입니다. 다음에는 당신들의 공동경작조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규모

가 작구 미약하구 따라서 그 사업두 매우 한심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물레방아에는 물이 흐르는 법입니다. … 한마디루 말해서 거기서는 결코 물이 흐르는것이 아니라 몽땅 손해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합을 꼴호즈루 개편해서 뼈다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뼈다귀주위에 중농들이 와서 붙을겝니다. …》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얘기도중에 잠간 방해하겠소!》 한때 조합원이던 얽음뱅이 사팔뜨기 좁까 우샤꼬브가 일어섰다.

《언권을 청해가지구 말하게.》 다위도브, 라즈묘뜨노브와 더불어 책상앞에 앉아있던 나굴리노브가 엄하게 주의시켰다.

《나는 청을 드리지 않구두 말하겠소.》 좁까는 물리치듯 말하고 마치 한꺼번에 주석단과 참가자들을 보는것처럼 사팔눈을 떴다. 《미안합니다만 그래 왜 손해를 보구 쏘베트정권을 괴롭히게 됐습니까? 당신들께 묻지만 왜 신용조합의 식객처럼 살았느냐 말이야요? 공동경작조합의 잘난 위원장때문이외다! 아르까쉬까 메노크때문이외다!》

《이색분자야, 거짓말 말어!》 뒤줄로부터 수닭소리 흡사한 목소리가 들리고 아르까쉬까가 팔굽으로 사람들을 헤치면서 주석단책상을 향해서 다가왔다.

《내가 증명하마!》 얼굴빛이 해쓱해진 좁까의 두눈이 코마루로 다가붙었다. 라즈묘뜨노브가 뼈다귀진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는것도 본체만체하고 그는 아르까쉬까에게로 돌아섰다. 《모면할래두 안돼! 우리가 자기네 꼴호즈에서 빈한한건 우리의 수효가 적기때문이 아니라 임자의 바꿈질때문이야. 나를 〈분자〉라구 한데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분할테다. 의논두 안하구 종자소를 모터찌클과 바꿨는가? 바꿨지! 알을 낳는 암닭을 바꿀려는 생각을 한건 누구야. …》

《또 거짓말!》 아르까쉬까는 걸어나오면서 항변했다.

《거세한 양 세마리와 송아지암소 한마리를 자네는 달구지와 흥정하자구 야단이겠지. 자네는 장사군이야! 그렇구말구!》 좁까는 의기양양했다.

《진정들 하게! 왜 닭들처럼 받고차기야!》 나굴리노브가 타일렀다. 벌써 그의 볼따귀근육은 발개진 피부밑에서 왔다갔다 놀기 시작했다.

《순서에 따라 내게 언권을 주슈.》 책상앞으로 헤치고 나온 아르까쉬까가 요청했다.

그는 벌써 말할 차비를 하고 아마빛턱수염을 그러쥐였다. 그러나 다위도브는 그를 물리쳤다.

《내가 얘기를 끝마치겠으니 지금 제발 방해를 하지 말아주시오. … 그러니까 동지들, 내가 말하는것은 오직 꼴호즈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선동은 하지 마슈! 우리는 배속까지 다 바쳐 기꺼이 꼴호즈에 들어갈테니!》 방문에 제일 가까이 앉아있던 붉은빨찌산출신의 빠웰 류비슈낀이 그의 말을 막았다.

《꼴호즈에 찬성이요!》

《협동조합으로써는 두목을 치기두 좋거던.》

《다만 사업을 꾀있게 해야 해.》

류비슈낀이 큰소리를 내여 모두의 지껄이는 소리를 억눌렀다. 큰 키에 두어깨가 벌어진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시꺼멓고 음침한 털모자를 벗어던지고 방문을 막아섰다.

《당신두 괴벽스런 사람이요, 왜 우리에게 쏘베트정권에 대해서 선동하우? 우리는 전쟁때 자신들이 이 정권을 부축하구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들이 어깨루 받들었수다. 우리는 꼴호즈가 어떤것인가를 알고있는만치 거기에 들어가겠소. 기계를 주시오!》 그는 왁살스런 손바닥을 뻗쳤다. 《뜨락또르는 좋은것이지요. 더 말할것 없소. 그렇지만 당신들, 로동자들은 그것을 적게 만들었소. 그 점에 대해서 당신들을 탓하겠수다! 우리는 쥐여잡을것이 없어 그것이 탈이요. 소루써 밭을 갈자면 한손으로는 소를 몰구 또 한손으로는 눈물을 씻어야 하니 그건 꼴호즈가 없더라두 할수 있소. 나자신이 꼴호즈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깔리닌한테 편지를 보내서 농군들이 어떤 새로운 살림을 시작할수 있도록 방조해달라구 그럴려구 생각했었소. 처음 몇년간은 옛 제도하에서와 같아서 세금을 물어라, 되는대루 살아라, 이거였소. 그렇다면 로씨야공산당은 무엇때문에 있는거요? 자, 승리는 했건만 그다음에는 뭐요? 다시금 옛날 그대루 연장을 메울 마소가 있는자는 보습뒤를 따라다녀라, 이거요. 그렇지만 아무것두 없는자는 어떡허란 말이요? 교회당앞에서 손을 내밀구 구걸을 하라는겐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바늘루 다리밑에서 재봉이나 해서 행인들의 옷깃이나 기우라는건지? 부자들의 땅을 빌리는것두 허가했구 일군들을 고용하는것두 허가했지요. … 그것은 혁명이 그렇게 지시한겁니까? 당신들은 혁명의 눈을 가리웠어요! 그리구 〈무엇때문에 싸웠는가?〉 하구 말하면 화약냄

새두 말아보지 못한 사무원들이 그 말을 비웃구 그들뒤에서는 백파불한당들이 껄껄댑니다! 아니요, 우리를 조롱하지 마시유! 우리는 그럴듯 한 말을 많이 들었수다. 당신은 외상으루든지 혹은 곡물과 교환으로라두 우리에게 기계를 주슈. 보습이나 손보습이 아니라 좋은 기계를 주시유! 얘기한것과 같은 뜨락또르를 주시유. 무엇때문에 나는 이런것을 받았소?》 그는 곧장 결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무릎을 넘어 책상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다가가서는 속옷자락을 걷어올려 턱으로 가슴에 대고 끼였다. 거무스름한 배와 허리우에 바싹 가죽이 켕긴 무시무시한 상처자국이 완연히 드러났다. 《무엇때문에 까제트군의 총검을 선물루 받았소?》

《부끄러운줄두 모르는 도깨비같으니! 차라리 홀딱 바지를 벗어버리겠지!》 죰까 우샤꼬브옆에 앉아있던 과부 아니씨야가 분개한듯 가는 목소리로 웨쳤다.

《그걸 바라우?》 죰까가 경멸하듯이 그에게로 눈을 흘겼다.

《잠자코 계시유. 아니씨야아주머니! 자기의 상처를 로동자에게 보이는건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보라지요! 그리구 앞으루두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이것을 감출래야 감출수 없게 될거외다! 지금두 이 바지는 명색뿐이요. 낮에는 처녀들옆을 지나가지 말아야지 혼비백산해서 놀랄거외다.》

뒤에서 큰소리로 웃어대며 왁작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류비슈낀이 엄한 눈으로 둘러보자 또다시 남포등심지가 조용히 지글거리는 소리까지 들리게 되였다.

《부자들이 또다시 나보다 잘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까제트군과 싸운 모양이군? 그자들은 맛이 있는것을 먹어두 나는 빵과 파만 먹기 위해서요? 그렇소, 로동자동지? 마까르, 자네 나한테 눈을 끔쩍거리지 말게! 나는 1년에 한번이나 이렇게 말하는거니까 말해두 좋아.》

《계속하시오.》 다위도브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계속하겠수다. 나는 금년에 밀을 세제샤찌나 심었지요. 내게는 세 명의 자식과 병신누이와 앓는 처가 있소. 그래두 나는 자기에게 부과된 곡물을 납부했지, 라즈묘뜨노브?》

《납부했네. 떠들어댈건 없어.》

《아니야, 떠들어대겠어! 그런데 부농 프롤 르와늬는, 그놈의 모가지를 그저…》

《이봐, 이봐!》 나굴리노브가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프롤 르와늬는 자기 몫을 납부했나? 안했지?》
《그렇길래 그자에게는 재판소에서 벌금을 부과하구 곡물을 몰수했지.》 감때사나운 눈을 번쩍거리면서 류비슈낀의 말을 사뭇 만족스레 듣고있던 라즈묘뜨노브가 한마디 했다. (자네를 여기 끌구 와서 뵈였으면 좋겠다. 느렁뱅이같으니!) 다위도브는 구역당위원회 비서를 상기했다.
《그자는 금년내루 또다시 이그나찌치님이 될거외다! 그리구 봄이 되면 다시금 나를 고용하러 올테지!》 하고 검은 털모자를 다위도브의 발밑에 던졌다.
《무엇때문에 당신은 내게 꼴호즈얘기를 하우? 부농의 피대줄을 끊어놓으소. 그럼 들어가리다! 놈들의 기계, 놈들의 소, 놈들의 힘을 우리에게 주슈. 그러면 우리는 동등하게 될거외다! 그렇지 않구서는 〈부농을 섬멸하라.〉 고 암만 지껄인댔자 부농은 년년이 우웡처럼 자라서 우리가 해볕을 못 보게 할겝니다.》
《우리에게 그놈의 재산을 주슈. 그러면 아르까쉬까 메노크가 그것을 비행기하구 바꿔올테니.》좀까가 한마디 했다.
《하하하하!》
《그 사람이야 그것쯤 식은죽먹기지.》
《인신공격의 증인들이 되여주소!》
《쯧! 이거야 어디 들려야지, 쉬!》
《제길, 진정시킬 방도가 없담?》
《자, 조용들 하슈!…》
다위도브는 소란스러운것을 겨우 진정시켰다.
《그것이 우리 당의 정책입니다! 당신은 문이 열려있는데 왜 문을 두드립니까? 계급으로서의 부농을 섬멸하구 그들의 재산을 꼴호즈들에 넘겨주는겁니다. 사실말이지! 그러니까 빨찌산동지, 당신은 공연히 모자를 상밑에 던졌소, 모자는 아직두 머리에 필요할게요. 토지를 빌리는것과 머슴들을 고용하는것은 이제는 안됩니다! 우리는 빈궁했기때문에 부농들을 참아왔습니다. 그자들은 꼴호즈보다 많은 곡물을 내였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반대지요! 쓰딸린동지는 이 산수를 정확하게 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농을 이 세상에서 해고하라! 그들의 재산을 꼴호즈들에 넘겨주라구요. … 기계에 대해서 당

신은 그냥 우는소리를 했는데… 꼴호즈의 개선을 위해서 5억루블리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소? 당신두 그 얘기를 들었지요? 그런데 당신은 뭘 걱정하시우? 우선 꼴호즈를 만들어놓구 그다음에 기계근심을 하시오. 그런데 당신은 먼저 목칼을 사구 그 목칼에 맞춰서 말을 사려는거요. 왜 웃소? 그렇지요!》

《류비슈낀은 뒤집어 생각한다니까!》

《허, 허…》

《그렇다면 좋아서 꼴호즈에 들어가지!》

《목칼얘기가… 근사해…》

《오늘 밤으루라두 들어가지!》

《지금 당장 가입하세!》

《부농을 분쇄하는데 앞장서슈.》

《꼴호즈에 가입할 사람은 손을 드시오.》나굴리노브가 제의했다.

손을 든 수를 계산해본즉 서른셋이였다. 누가 정신없이 쌍수를 든것이였다.

다위도브는 무더움을 못이겨 외투와 저고리를 벗어버렸다. 그는 속옷깃을 헤치고 벙글거리면서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

《당신들은 잘 자각하구있군요, 사실말이지! 그렇지만 당신들은 꼴호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만이라구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들 빈농은 쏘베트정권의 기둥이요. 당신들은 견실한 핵심이니만큼 자신들이 꼴호즈에 들어가구 또 동요하는 중농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농이 그걸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끌어들이겠소? 소라구 고삐를 매서 끌어오겠소?》 아르까쉬까 메노크가 물었다.

《설복해야지요! 다른 사람을 교양할수 없다면 어떻게 당신이 우리의 진리를 위한 투사겠소? 래일 회의가 있습니다. 자기자신이 찬성의 손을 들고 이웃 중농을 설복하시오. 이제는 부농문제토의에 들어갑시다. 그들을 북깝까즈변강밖으로 추방하는 결정을 할지, 어떨지?》

《찬성이요!》

《놈들은 뿌리밑둥을 잘라내야 합니다!》

《아니요, 뿌리밑둥을 자르는게 아니라 차라리 송두리채 뽑아내야지요.》 다위도브는 그렇게 정정하고나서 라즈묘뜨노브에게 말했다.

《부농들의 명단을 발표하시오. 지금 곧 그들 부농청산여부를 결정합시다.》

안드레이는 종이끼우개에서 한장의 서류를 꺼내 다위도브에게 주었다.

《프롤 다마쓰꼬브. 이자는 프로레타리아의 그런 징벌을 받을만 합니까?》

일제히 손들이 올라갔다. 그러나 쳐들린 손을 세여보다가 다위도브는 손을 들지 않고있는 한 사나이를 발견했다.

《반대요?》 그는 땀배인 눈섭을 들었다.

《기권입니다.》 손을 들지 않은 사나이는 간단히 대답했다. 온순해보이고 별로 두드러져보이지 않는 까자크였다.

《그건 어째서요?》 다위도브는 추궁했다.

《어째서냐 하면 그는 우리 이웃이구 또 나는 그의 신세를 많이 졌거던요. 그래서 그를 반대해서 손을 못 들겠소.》

《당장 회의장에서 나가라!》 나굴리노브가 말등자에 발이라도 건듯이 몸을 일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분부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나굴리노브동지!》 다위도브가 엄하게 그를 막았다. 《여보시오, 가지 마십시오! 자기의 의견을 말하시오. 당신이 보기에는 다마쓰꼬브가 부농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그런건 몰라요. … 나는 무식하니만큼 이 회의장에서 내보내주슈.》

《아니요, 우선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자한테서 어떤 신세를 졌는지?》

《언제나 그는 나를 도와주었지요. 소두 빌려줬구, 씨앗두 꿔줬구… 좀 많습니까. … 그렇지만 나는 정권은 반대하지 않아요. 나는 이 정권편입니다. …》

《자기를 옹호하라구 그자가 자네한테 요청했나? 돈이나 낟알로써 약속했나? 두려워말구 실토해보게!》 라즈묘뜨노브가 말에 참여했다. 《자, 말해봐, 그자가 자네게 뭘 약속했나?》 하고는 상대자와 또 자기의 로골적인 질문이 창피스러워서 어색하게 웃음을 띄웠다.

《아무것두 없는지 당신이 알아요?》

《거짓말 말게, 찌모페이! 자네는 매수된자야. 그러니까 부농 지지자지!》 좌중에서 누가 웨쳤다.

《실컷 악담을 하슈. 당신들 맘대루…》
다위도브는 목에 칼이라도 들이대듯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쏘베트정권편이요 혹은 부농들편이요? 여보, 당신은 빈농계급에 수치를 주지 말구 솔직히 회의앞에 말해보시오. 당신은 어느 편이요?》
《그자와 이러쿵저러쿵할것 없소!》 류비슈낀이 분개한듯 막았다. 《술 한병이면 저자는 입은것까지 몽땅 매수되는자외다. 찌모페이, 자넨 꼴두 보기 역해!》
기권자 찌모페이 보르쑈브는 마침내 걸치레로 온순하게 대답했다.
《나는 정권편이외다. 왜들 귀찮게 굽니까? 아는게 없어서 정신이 헛갈린걸요. …》 그러나 두번째 손들 때에도 자못 심드렁하게 손을 들었다.
다위도브는 간단히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찌모페이 보르쑈브는 계급의 적에게 매수되여있다. 두드려 고칠것.)
회의는 또 네명의 부농을 청산할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다위도브가 《찌트 보로진.》 하고 읽고 《찬성하는 사람?》 했을 때 장내는 답답하게 침묵을 지켰다. 나굴리노브는 당황한듯이 라즈묘뜨노브와 얼굴을 마주보았다. 류비슈낀은 땀에 젖은 이마를 털모자로 훔치기 시작했다.
《왜들 조용하오? 웬일입니까?》 영문을 몰라서 다위도브는 앉아있는 사람들의 줄을 둘러보았으나 아무하고도 시선이 맞지 않아 나굴리노브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왜냐하면 이렇소.》 나굴리노브는 뜨직하게 입을 열었다. 《이 보로진은 부락에서는 찌또크라구 부르는데, 18년에 우리와 함께 자원해서 적위군에 들어갔었지요. 빈농출신으로서 견결히 싸웠지요. 부상을 입었구 혁명전쟁에 이바지한 공로루 은시계까지 받았소. 로동자 동지, 그가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알겠소? 집으루 돌아오자 수개새끼가 썩은 고기를 무는것처럼 살림살이를 물구 늘어졌지요. … 그리구 우리가 경고하는것두 듣지 않구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거던요. 밤낮없이 일하구 꽥꽥한 털투성이가 되여 겨울이나 여름이나 무명바지 하나루 돌아다녔지요. 여섯마리의 소를 벌었구 또 갖은 힘든 일을 하느라구 탈장까지 생겼는데두 그냥 그자에게는 부족했지요! 두명, 세명씩 일군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차제분소를 손에 넣었구 그

다음에는 다섯마력짜리 증기발동기를 샀구 빠다제조와 집짐승 전매를 시작했지요. 자기자신이 잘 먹지 않을뿐더러 일군들이 하루에 스무시간씩 일하구 밤에는 또 말과 집짐승에게 먹을것을 주느라구 다섯번씩이나 일어나건만 굶주리게 하는 일이 드문했지요. 우리는 여러번 그를 당세포와 쏘베트에 불러다가 되게 무안을 주구 말했습니다. 〈그만두게, 찌트, 귀중한 쏘베트정권을 방해하지 말게! 자네는 이 정권을 위해서 여러 전선에서 백파들을 반대해 싸우지 않았는가. …〉 하구요.》 나굴리노브는 한숨을 내쉬고 두팔을 펼쳤다. 《도깨비가 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소유욕이 그자를 좀먹어들어가는것이 뻔하외다! 다시금 그를 불러다 우리들이 함께 싸운 전투며 고생한 얘기두 하구 타이르기두 하구 그래도 끝끝내 그가 길을 막아서구 부르죠아가 된다면 그리구 세계혁명을 기다리려 하지 않는다면 땅속에 처넣겠다고 으름장두 놓았지요.》

《좀더 간단하게.》 다위도브가 초조한듯 요청했다.

나굴리노브의 목소리는 떨리며 낮아졌다.

《이건 더 간단히 말할수 없지요. 이건 피가 맺힐만큼 아픈 일이니까… 그런데 그자는 즉 찌또크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데다. 〈나는 쏘베트정권의 명령을 수행해서 파종을 늘구구있네. 일군들두 법령에 따라서 고용하구있어. 처가 앓고있으니까. 내게는 아무것두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게 있네. 없는게 없소. 이걸 위해서 나두 싸운거야. 그리구 쏘베트정권이 서있는것두 자네들에 의해서가 아니네. 나는 제손으루 정권에 먹을것을 대구있지만 자네들은 가방을 끼구 돌아다닐뿐이야. 나는 자네들을 깔보구있네.〉 이러는군요. 전쟁과 또 우리가 함께 겪은 고생에 대해서 말할 때는 간혹 그자의 눈에두 눈물이 번뜩이지만 그자는 그 눈물이 가자는데루 가지 않구 돌아서서 마음을 모질게 먹구 이렇게 말하지요. 〈그건 벌써 옛날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그자의 공민권을 박탈했지요. 그자는 이리저리 뛰여다니구 변강과 또 모스크바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구있어요. 중앙기관들의 중요한 자리에는 오랜 혁명가들이 앉아있어서 한번 배반했다면 즉 적이니까 그 어떤 용서두 없다구 생각하고들 있거던요!》

《좀더 간단히…》

《이제 곧 끝납니다. 거기서들두 그의 공민권을 회복시켜주지 않아

서 그는 지금까지 그 모양으루 있지요. 하기는 일군들은 내보냈지만…》

《그러니 대체 어떻단 말인가?》 다위도브는 나굴리노브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나굴리노브는 해별에 탄 짧은 살눈섭으로 눈을 가리우듯이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모두 잠자쿠 있는거외다. 나는 지금은 부농이 돼버린 찌트 보로진의 과거래력을 말했을뿐입니다.》

다위도브는 입술을 오무리고 얼굴빛이 흐려졌다.

《무엇때문에 당신은 그런 을씨년스런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까? 빨찌산이였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를 존경해야 할게고 부농이 되여 적이 됐다면 분쇄해야지요! 무슨 여러 말이 있을수 있소?》

《나는 그가 불쌍해서 그러는게 아니외다. 여보시오 동지, 날 너무 들볶지 마슈!》

《보로진을 부농으로서 청산하는데 찬성하는 사람?》 다위도브는 사람들의 줄을 둘러보았다.

일제히는 아니나 띠염띠염 그래도 손들이 올라갔다.

회의가 끝난 후 나굴리노브는 다위도브를 자기 집에 와서 자라고 권했다.

《래일 당신께 잠자리를 얻어드리리다.》 촌쏘베트의 어두운 현관을 손더듬해서 나오면서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뽀득뽀득 소리가 나는 길을 나란히 서서 걸었다. 나굴리노브는 반외투앞을 헤치고 조용히 말했다.

《로동자동지, 부락의 재산을 모두 꼴호즈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속이 시원하군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개인소유를 미워했지요. 모든 죄악이 거기에서 생긴다구 학자동지들인 맑스와 엥겔스가 옳게 썼습니다. 하건만 쏘베트정권하에서두 사람들은 여물통앞의 돼지들처럼 이 저주로운 병독때문에 싸우고 승갱이질이거던요! 그리구 옛날 낡은 제도하에서는 어땠습니까? 생각만 해두 무섭군요! 내 아버지는 부유한 까자크로서 여덟마리의 소와 다섯마리의 말을 가지구있었지요. 밭두 우리 집은 넓어서 60～70, 백제샤찌나까지 파종했더랍니다. 식구두 많았지만 모두 일군들이였구요. 집안사람들끼리 모두 해냈지요. 생각해보슈, 내게는 장가를 든 형이 세명이나 있었으니까요. 내 기억속에 깊이 백혀있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로 해서 나

는 개인소유를 반대해나서게 됐지요. 어느날 옆집 돼지가 우리 집 남새밭에 들어와서 감자를 몇포기 못쓰게 만들었지요. 어머니가 그걸 보자 솥에서 끓는 물을 한바가지 퍼가지구 내게 말했지요. 〈마까르까야, 저놈의 돼지새끼를 몰아라, 내 문뒤에 서있을테니.〉 그때 나는 열두어살 먹었었지요. 그래 물론 나야 그 불쌍한 돼지를 몰았지요. 어머니가 끓는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돼지털에서 김이 확확 올랐지요! 돼지는 죽구요. 옆집에서는 원한을 품을밖에요. 한주일 지나가자 들에 있던 우리 집 밀낟가리 스물세개가 불탔지요! 아버지는 이내 그게 누구짓인지를 알았구 참아낼수가 없어서 재판을 걸었지요. 그래 놓으니 두 집사이는 피차 얼굴만 눈에 띄여두 그냥 있지 못할만큼 틀렸지요! 조금 얼근하기만 하면 싸움이구요. 한 다섯해 소송을 해오다가 마침내 살인사건에 이르렀지요. … 사육제때 옆집 아들이 탈곡장에서 살해된것이 발견됐습니다. 누가 삼지창으루 그의 가슴을 여러군데 찌른겝니다. 여러모루 보아 이건 내 형들의 소행이란걸 나는 깨달았지요. 사건의 심리가 있었지만 살인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술루해서 싸우다 죽은것으루 조서가 꾸며졌지요.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를 떠나 고용일군이 됐습니다. 그러다 전쟁에 가게 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재산을 위해서 내가 이 무서운 죽을 고비를 겪구있나?〉 그러면 못이 되여 모자까지 땅속에 백혔으면싶어지구! 제길, 망할것! 그러다가 독가스를 말구 몸을 망쳤지요. 지금두 조금만 올리막길을 가면 숨이 차구 피가 머리루 올라와서 가지 못하는걸요. 전선에 있을 때 벌써 령리한 사람들이 내게 가르쳐주어서 나는 볼쉐비크가 되여 돌아왔지요. 그리구 공민전쟁때는 참말 무자비하게 놈들을 쳐죽였지요! 까쓰또르나야부근에서 타박상을 입은 후로는 발작을 일으키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것이 있지요.》 나굴리노브는 훈장우에 커다란 손을 가져다대였다. 그러자 그의 목소리에는 유난히 따뜻한 새 어조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으루 해서 지금두 나의 마음속이 따뜻해지지요. 동지, 지금두 공민전쟁때, 진지에 있을 때와 같거던요. 땅속에 묻힐지언정 모두들 꼴호즈에 끌어넣어야지요. 더욱더 세계혁명이 가까와지는걸요.》

《당신은 찌트 보로진을 잘 아시우?》 다위도브는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에 잠긴듯이 물었다.

《그 말인가요, 그와는 친우였는걸요. 그렇지만 그자가 자기 재산

을 극도루 위하게 되면서 그것때문에 절교했지요. 20년에는 그와 함께 도네쯔관구의 한 면에서 일어난 부농들의 폭동을 진압하러 갔었지요. 두 기병중대와 특무대가 공격에 출동했댔습니다. 동구밖에는 폭동자들의 시체가 수두룩했지요. 찌또크가 밤에 숙소에 나타나서 짐짝을 들구 들어오겠지요. 그것을 흔들어대자 잘라낸 다리 여덟개가 마루바닥에 툴렁툴렁 떨어지겠지요. 〈이 사람이 환장을 했군!〉하구 한 동지가 그에게 말했지요. 〈당장 걷어가지구 사라지게.〉 그러나 찌또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놓으면 놈들이 다시는 폭동을 안 일으킬테지. 그리구 나는 장화 네컬레를 쓸수 있네. 식구들에게 모두 신발을 만들어주겠네.〉 그것을 난로우에서 녹여가지구 장화를 다리에서 뽑기 시작했지요. 환도루 목다리혼솔을 뜯구 벗기구 했지요. 벌거숭이가 된 다리들을 짚낟가리에 가져다 묻구서는 〈장사를 지냈다〉구 했지요. 만약 그때 우리가 알았다면 해독분자루서 총살해버렸을거외다! 그렇지만 동지들은 그를 일러바치지 않았거던요. 후에 내가 물어봤지요. 그게 정말이냐구요. 〈정말이구말구.〉 그의 대답입니다. 〈다리가 몽둥이처럼 얼어서 뽑아낼수가 없길래 그걸 환도루 잘랐지. 구두쟁이던 나로서는 좋은 장화들이 땅속에서 썩을것이 아까웠네. 그렇지만 지금은〉 하구 그자는 말해요. 〈나자신두 겁이 나네. 가끔 밤에 잠이 깨서 녀편네더러 끝쪽은 무서우니 바람벽쪽에 눕게 해달라구 부탁할 지경이네. …〉 자, 내 집에 왔수다.》 나굴리노브는 뜰안으로 들어가 방문걸쇠를 덜걱거렸다.

제 5 장

안드레이 라즈묘뜨노브가 현역입영의 환송을 받은것은 1913년이였다. 당시의 규칙에 의하면 그는 자기의 말을 가지고 입영해야 했다. 그러나 말은 고사하고 까자크가 갖춰야 할 군장도 그는 살돈이 없었다. 돌아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것이라고는 칼집이 쓸쳐 닳아 광채라군 없어진 환도 한자루뿐이였다. 안드레이는 그 쓰라린 굴욕감을 평생 잊지 못할것이다! 읍의 집회에서 로인들은 군대부담으로 그를 입영시키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털빛이 불그스름한 값싼 말과 안장, 외투 두벌, 바지 두벌 그리고 장화를 사주었다.… 《사회의 돈으루 네

게 차려준다. 안드류쉬까 이봐, 우리의 신세를 잊지 말구 읍에 욕되는 일을 하지 말구서 황제께 잘 복무해라.…》 로인들은 안드레이에게 말했다.

그러나 경마때 부자집 까자크네 아들들은 끄롤꼽스끼양목장에서 백루블리나 주고 사온 말들이며 쁘로왈리예의 종자말에서 받아낸 말, 값비싼 안장, 은장식을 한 굴레, 새옷들을 뽐내는것이였다… 안드레이의 몫으로 되여있던 땅은 읍사무소가 관리하여 안드레이가 남의 재산과 남의 유족한 생활을 수호하면서 전선을 싸다니고있을 동안 줄곧 도조를 받고 남에게 빌려주었다. 안드레이는 도이췰란드전쟁에서 게오르기십자훈장을 세개나 받는 전공을 세웠다. 훈장에 지급되는 십자년금은 처와 어머니에게 부쳤다. 그것으로써 늙은 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살았다. 눈물에 건건이 간이 밴 늙은 어머니의 여생을 안드레이는 어지간히 늦게야 편하게 해준것이였다.

전쟁이 끝나갈즈음 안드레이의 처는 가을부터 탈곡장에서 삯일을 해서 돈을 몽그려 전선으로 남편을 만나러 떠났다. 거기서 허락된 며칠간을 지내며(안드레이가 복무하던 제11돈까자크련대는 휴식중이였다.) 남편의 팔에 안겨잤다. 그밤들은 여름철의 번개와도 같이 지나갔다. 그러나 새의 죄를 범하는데, 굶주린 아낙네의 행복을 충족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거기서 눈에 영채를 띠우고 돌아와 달이 찬 후에 웨치지도, 울지도 않고 마치도 뜻밖인듯이 밭가운데서 안드레이와 같이 생긴 아들애를 낳았다.

18년 라즈묘뜨노브는 잠시동안 그레먀치 로그로 돌아왔다. 그는 부락에 오래 있지 않았다. 썩기 시작한 헛간의 들보와 서까래를 고치고 밭을 두제샤찌나 갈고나서는 그후 어쩐지 하루종일 아들애를 얼리면서 어깨속에 깊이 파고들어간 병정냄새나는 목에 애를 올려놓고 방을 뛰여다니며 웃어댔다. 그러나 보통때는 감때사나와보이는 밝은 빛갈의 두눈귀에 눈물이 고여있는것을 보고 안해는 넋을 잃었다. 《안드류쉬까, 떠나가야 하우?》

《래일 떠나겠소. 길량식을 준비하우.》

다음날 마까르 나굴리노브, 근위병 류비슈낀, 찌트 보로진 그리고 전선에서 돌아왔던 까자크 8명이 아침부터 안드레이네 집근처에 모였다. 안장을 놓은 여러가지 말들이 그들을 풍차 저쪽으로 날라간 뒤 뭉툭한 편자를 친 말발통에서 피여오른 봄철의 가벼운 먼지가 오

래동안 행길에 서려있었다.

이날 그레마치 로그우를, 범람한 봄시위물우를, 광야우를, 남빛의 온 세상 우를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검은 날개의 기러기와 들오리떼들이 우는 소리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광활한 하늘의 처녀지로 급히 날아갔다.

안드레이는 까멘스까야에서 동지들과 헤여졌다. 워로쉴로브군의 한 부대와 더불어 그는 모로좁스까야―짜리찐으로 나갔다. 마까르 나굴리노브, 류비슈낀 및 기타는 워로네쥬에 있었다. 3개월후 크리바야 무즈가부근에서 수류탄파편에 경상을 입은 안드레이는 붕대소에서 우연히 만난 같은 읍사람한테서 다음과 같은 사연을 알게 되였다. 뽀드쵸꼬브부대가 괴멸당한 후 그레마치 로그에서는 안드레이와 같은 부락에 살던 백파까자크들이 그가 적위군에 들어간것에 복수해서 그의 처를 잔인하게 롱락했고 그것이 전부 부락에 알려지자 예브도끼야는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결해버린것이였다.

…추운 날, 섣달그믐, 그레마치 로그, 집, 헛간, 울바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은 나무들, 멀리 언덕 저쪽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구쎌리시꼬브장군부대의 포성이 은은히 울린다. 안드레이도 함씬 땀에 젖은 말을 타고 초저녁때 부락에 들어섰다. 그것은 지금도 기억하고있다. 눈을 감고 쏜살같이 줄달음치는 추억을 과거로 돌리기만 하면 그만이다.… 삽짝문이 삐걱 열렸다. 숨을 헐떡이며 안드레이는 기진하여 비틀거리는 말을 고삐를 당겨 뜨락에 끌어들인다. 어머니가 맨머리바람으로 복도에서 뛰여나왔다.

아,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소리같은 그 통곡은 안드레이의 귀청을 찢었다!

《아이구, 얘야! 새애기는 그 맑은 눈을 감아버렸단다!…》

라즈묘뜨노브는 마치 남의 집 뜰안에 들어온것 같았다. 말고삐를 계단란간에 감아놓고 자기는 집안으로 들어갔다. 죽은 사람처럼 푹 패인 눈으로 텅빈 방, 텅 빈 요람을 둘러보았다.

《애는 어디 있소?》

어머니는 행주치마에 얼굴을 묻고 성긴 백발의 머리를 흔들었다.

가까스로 구슬려들은 대답은 이러했다.

《네 어린것두 나는 살려내지 못했구나! 두뉴슈까가 그렇게 된지 두주일만에… 인후병으루.》

《떠들지 마슈… 내게, 내게 눈물이 있으면 좋겠소! 누가 예브도끼야를 강간했소?》
《아니께이 제뱌뜨낀이 그 애를 탈곡장으루 끌어가구… 나를 채찍으로 때리구… 여러 녀석들을 탈곡장으루 불러모았더란다. 그 애의 흰 손을 그냥 칼집으루 때려서 돌아왔을 때는 온통 시커매지구… 두눈만 퀭해서…》
《그놈이 지금 집에 있어요?》
《도망쳤지.》
《그놈네 집에 누가 있어요?》
《그놈의 녀편네하구 늙은이가 있지. 안드류샤! 너 그네들은 처벌하지 말아라! 그네들이 지은 죄가 아니다. …》
《어머니!… 어머니는 내게 지시하슈?》
안드레이는 얼굴이 꺼매지고 숨이 막혔다. 외투의 고리쇠, 저고리 옷깃 그리고 속옷을 쥐여뜯었다. 갈비대가 아른거리는 벗은 가슴을 쇠물동이에 어푸러지듯 가져다대고 물을 마시고 동이언저리를 이발로 깨물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눈도 들지 않고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게 무슨 말을 하지 않았소?》
어머니는 앞쪽 한구석에 가서 기도대에서 누래진 종이쪼각을 꺼내왔다. 정든 목소리를 듣는듯 죽음의 말들이 울렸다.
《사랑하는 안드류쉔까! 저주할 놈들이 나를 더럽히구 내 몸과 당신에 대한 내 정성을 롱락했어요. 이제는 당신을 뵈올 낯두 없구 세상에 얼굴을 못 내놓겠어요. 나쁜 병까지 오른 이 몸은 창피해서 살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님 안드류쉔까! 나는 벌써 며칠째나 자지 못하구 베개를 눈물로 적시고있어요. 당신과 나의 사랑은 저승에 가서두 잊지 않을터예요. 다만 한가지 내 마음이 아픈것은 어린것과 당신과 당신과의 내 살림, 사랑이 그처럼 짧았던것입니다. 다른 마누라를 얻겠지만 원컨대 그이가 우리 애를 귀여워해주기 바라요. 당신두 그 애를, 에미없는 애를 귀여워해주세요. 내 치마, 솔, 저고리들은 동생에게 주도록 어머님께 말씀해주세요. 나이 찬 애니만큼 그 애에게 필요해요. …》
말을 몰아 제뱌뜨낀네 집 뜨락으로 달려온 안드레이는 말을 내려 칼집에서 환도를 뽑아들고 닁큼 현관으로 뛰여들었다. 아니께이 제뱌뜨낀의 아버지인 키가 큰 백발의 로인은 안드레이를 보자 십자를 긋고

성상앞에 무릎을 꿇었다.
《안드레이 쓰쩨빠늬치!》 그는 이렇게 말했을뿐 안드레이의 발밑에 몸을 숙이고 더는 한마디도 말이 없이 분홍빛대머리를 마루바닥에서 들지 않았다.
《네가 아들놈 대신으루 받을걸 받아라!…》 안드레이는 왼손으로 로인의 허연 턱수염을 그러쥐고 방문을 걷어차고서 현관으로 와락와락 끌어냈다. 로파는 기가 질려 난로옆에 나가넘어졌다. 그러나 제뱌뜨낀의 며느리—아니께이의 처는 어린것들을 한데 몰아가지고(그에게는 어린것이 모두 여섯이 있었다.) 울면서 현관으로 뛰여나왔다. 풍상겪는 백골처럼 얼굴이 새하얘진 안드레이는 허리를 내밀고 벌써 로인의 목우에 환도를 쳐들고있었는데 이때 큰것, 작은것, 코흘리개애들이 울며불며 그의 발밑에 쏟아졌다.
《그것들을 모두 죽여다고! 모두 아니께이의 새끼다! 나를 죽여다고!》 아니께이의 처 아브도찌야가 웨쳤다. 그리고 분홍색속옷을 풀어헤치고 오골쪼골 말라빠진 젖통을 덜렁거리면서 안드레이에게로 다가섰다.
안드레이의 발결에서는 올망졸망 어린것들이 우글거렸다. …
그는 사납게 눈을 부라리면서 뒤로 물러섰다. 환도를 집에 꽂고 평지인데도 여러번 발을 걸채면서 말있는데로 걸어갔다. 기쁨과 또 조금전에 겪은 무서움으로 해서 눈물을 흘리는 로인은 삽짝문결에까지 그의 뒤를 따라와서 줄곧 무릎을 꿇어 발등자에 입을 맞추려 했으나 안드레이는 패롭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발을 치우고 갈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너는 운수가 좋아!… 애새끼들 덕분이다. …》
집에 돌아온 그는 사흘동안 밤낮없이 소주를 마시고 취해서는 울었다. 그리고 이틀째 밤에는 예브도끼야가 들보에 목을 맨 헛간에 불을 지르고 나흘째만에는 퉁퉁 부어 무섭게 된 얼굴로 어머니에게 조용히 작별을 고했다. 어머니는 그의 머리를 가슴에 그러안으면서 빛갈 연한 아들의 앞머리에 흰머리카락들이 난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2년후 안드레이는 뾜스까전선으로부터 그레먀치로 돌아왔다. 1년동안은 식량징수대에 끼여 돈상류지방을 돌아다니고 그후에야 집일에 달라붙었다. 결혼하라는 어머니의 권고에 대해서 그는 그냥 대답을 안했다. 그러나 어느날 어머니는 검질기게 대답을 들으려 들었다.

《장가를 가려무나. 안드류사! 나는 이제 쇠동이를 다룰 힘이 없다. 어떤 처년들 너한테 안 오겠니. 누구한테 청혼을 하자니?》

《안 가겠어요. 어머니, 귀찮게 굴지 마슈!》

《그저 늘 한다는 말이! 봐라, 네 머리엔 벌써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언제나 장가를 갈 작정이냐? 백발이 돼서 가겠니? 에미 생각은 안하지! 난 그래두 손자들을 보게 되리라구 생각했댔지. 그래서 어린것들 양말을 떠주려고 염소 두마리의 털을 모아두었어. … 어린것들을 씻어주고 목욕이나 시켜주는게 내게 알맞는 일이야.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서 이제는 소젖을 짜기두 힘들다.》 하고는 울음으로 넘어갔다. 《누구를 닮아서 저런 등신이 나왔담! 눈두 거들떠보지 않구 풀썩거리구만 있지. 대체 왜 말이 없냐? 》

안드레이는 모자를 쥐여들고 말없이 집을 나갔다. 그러나 로파는 잠자코 있지 않았다. 이웃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수군거리고 상론하는것이였다. …

《예브도끼야 대신으로는 아무두 집에 들이지 않겠어요.》 안드레이는 완강히 고집을 세웠다.

그래서 어머니의 원한은 죽은 며느리에게로 옮아갔다.

《그 뱀같은것이 저 애한테 붙었구려!》그는 목장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거나 혹은 저녁에 자기 집 뜰안에 앉아서 로파들에게 말하는것이였다. 《자기가 목을 매죽더니 저 애 목숨까지 빼앗으려는거외다. 다른 색시를 얻으려구 안하거던요. 그래, 내 맘이 편하겠소? 글쎄, 여보! 남의 손자들을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나요. 다른 집 늙은이들은 즐거움두 있구 위로두 있지만 나는 구멍속의 들쥐처럼 외롭지요. …》

바로 그해에 안드레이는 노보체르까스크부근에서 전사한 하사 미하일 뽀야르꼬브의 안해 마리나와 가까와졌다… 마리나는 그해 가을로써 40고개가 넘었지만 그의 풍만하고 드센 몸과 거무스름한 얼굴에는 아직도 광야의 푸수한 아름다움이 남아있었다.

10월에 안드레이는 마리나네 집지붕에 풀이영을 이었다. 어두워지기 전에 마리나는 안드레이를 집안으로 불러들이고 재빨리 식탁에 보를 펴고는 보르스(국의 한가지—역주) 한사발을 내놓고 수놓은 깨끗한 나프킨을 안드레이의 무릎에 펴준 다음 자기는 광대뼈가 두드러진 볼을 손바닥으로 고이고 맞은편에 앉았다. 안드레이는 반지르르하게 검은 머리채가 묵직해보이는 마리나의 소담한 머리를 곁눈으로 바

라보았다. 마리나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말갈기처럼 꿋꿋해보였으나 조그마한 두귀 근처에서는 어수선하게 부드러이 곱슬곱슬 말려서 애티있게 보였다. 마리나는 저으기 눈꼬리가 올라간 길죽한 검은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안드레이를 면바로 바라보고있었다.

《더 드릴가요?》 그는 물었다.

《그럼 주구려.》 안드레이는 동의하고 손바닥으로 희읍스름한 입수염을 훔쳤다.

그는 또다시 다가앉아 보르스를 먹기 시작했다. 마리나는 다시금 그와 마주앉아 살피는듯 한, 무엇을 기대하는듯 한 눈으로 바라보고있었다. 한편 안드레이는 어쩌다 무심결에 마리나의 핑핑한 목우에서 툭툭 맥박치고있는 퍼런 피대줄을 보자 까닭모르게 당황해서 숟가락을 놓았다.

《왜 그래요?》 마리나는 의아쩍은듯이 그 검은 눈섭꼬리를 치켜올렸다.

《실컷 먹었소. 고맙소. 래일 아침 와서 마저 이읍시다.》

마리나는 식탁을 삥 돌아왔다. 이새 촘촘한 이발들을 슬며시 드러내고 빙그레 웃으면서 부드러운 커다란 가슴을 안드레이에게 가져다대고 속삭이듯이 물었다.

《우리 집에서 쉬시면 안돼요?》

《그래두 되지.》 당황한 안드레이는 달리 할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마리나는 그 어리석은 말에 대한 보답으로 뚱뚱한 몸을 굽혀 절을 했다.

《이건 참 고마워요. 은인님! 불쌍한 과부를 존대해주는군요. … 그런걸 못난이같이 나는 거절이나 하지 않나 하구 겁을 먹었댔지. …》

그는 날쌔게 등불을 불어끄고 어둠속에서 잠자리를 보고 복도로 통한 방문에 빗장을 지르고나서 저으기 노여운듯 한 어조로 업신여기듯이 말했다.

《당신은 까자크다운데가 오줌방울만큼밖에 없어요. 땜보브의 옹기장사가 만들었나봐.》

《그건 어째서요?》 화가 나서 안드레이는 장화를 벗던 손까지 멈췄다.

《다른 사람들과 같단 말이예요. 눈을 보면 감때사나와보이는데 계집에 대해서는 움츠러들어가니 그러구도 전쟁에서 십자훈장을 받았

담!》 그는 머리를 풀면서 핀을 입에 물어 똑똑치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미샤를 기억하겠지요? 그 사람은 키가 나보다 작았어요. 당신은 나하구 비슷하지만 그 사람은 조금 작았어요. 그래두 나는 용감한것 하나루 그 사람을 좋아했지요. 그 사람은 술집에서 싸움을 하는 일이 있다면 제일 강한자한테 맞섰구 코피를 쏟을지언정 그냥 지지 않았어요. 그렇기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는지두 모르지요. 그 사람은 무엇때문에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구있었거던요. …》 그는 자랑하듯이 말을 마쳤다.

안드레이는 마리나의 남편과 같은 련대에 복무하다가 그의 최후를 목격한 부락내 까자크들의 이야기를 회상했다. 정찰에 나갔을 때 그는 자기 소대를 지휘해서 곱절이나 수효가 많은 붉은군대 척후병들을 공격케 했다. 척후병들은 경기관총으로 그들을 도망치게 했고 네명의 까자크를 살해했으며 미하일 뽀야르꼬브를 그의 부하들로부터 분리시키고 따라잡으려고 했다. 자기를 뒤따르던 세명의 붉은군대전사를 그는 달리면서 대응사격으로 면바로 쏘아눕혔고 련대에서 우수한 기마수이던 그는 사격을 피해서 말우에서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대로 빠져나갈수 있었을것이나 말이 어떤 웅뎅이에 발을 내디디며 넘어질 때 주인의 한쪽다리가 접질러졌다. 그래서 그 씩씩한 하사에게는 최후가 닥쳐온것이였다.

안드레이는 뽀야르꼬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상기하고 벙긋이 웃음을 띄웠다.

마리나는 누워서 숨을 가쁘게 쉬며 안드레이에게로 다가붙었다. 반시간쯤 지난 후에 그는 시작했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속삭였다.

《미쉬까는 대담해서 좋았지만 당신은… 어딘지 모르게 좋아요.》 하고 불타는 귀를 안드레이의 가슴에 가져다댔다. 안드레이는 어스름속에서 마리나의 눈이 다루기 힘든 말의 눈처럼 번쩍번쩍 감때사납게 빛나는것을 보았다. 이미 첫새벽이 되여서 마리나는 이렇게 물었다.

《래일 이영을 마저 이으러 오겠어요?》

《오지 않으면 어떡허겠소?》 안드레이는 의아했다.

《오지 말아요. …》

《그건 또 어째서?》

《당신따위가 무슨 지붕쟁이예요! 당신보다는 쓔까리령감이 더 낫게 지붕을 이어요.》 하고 큰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우정 당신

을 부른거야요!… 그렇지 않구서야 뭘루 꼬이겠어요? 나는 당신때문에 손해를 봤지요! 아무래두 지붕을 전부 다시 이어야겠다니까.》

이틀후에 쓔까리령감이 주부에게 안드레이의 아무 짝에도 못쓸 일솜씨를 욕해가면서 지붕을 다시 이었다.

그리고 안드레이는 그때부터 매일밤 마리나를 찾아가게 되였다. 그보다도 10년이나 나이가 많은 아낙네사랑이 그에게는 달았다. 첫서리를 맞은 겨울의 산사과와도 같이 달게 느껴졌다. 부락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알게 되였으며 사람에 따라 그것을 각기 다르게들 보았다. 안드레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이웃 녀편네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무슨 창피람! 늙은것하구 붙었으니.》 그러나 이윽고 누그러지고 조용해졌다. 안드레이가 가끔 익살을 피우고 롱담을 걸던 이웃처녀 뉴르까는 그와 만나는것을 오래동안 피해오다가 어느날 나무를 하러 갔을 때 오솔길에서 마주치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늙은것한테 깔렸다지?》 그는 떨리는 입술로 웃음을 지으면서 살눈섭밑에 번뜩이는 눈물도 감추려 하지 않고 물었다.

《그래서 숨두 못 쉬겠다!》 안드레이는 익살로써 얼버무리려고 해보았다.

《좀더 젊은건 구해내지 못했던가요?》 뉴르까는 물러가면서 물었다.

《나자신이 어떤가 보지.》 안드레이는 모자를 벗고 흰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섞인 자기 머리를 장갑으로 가리켰다.

《그런걸 이 못난이는 저같은 머리흰 개한테 반했었지! 그럼 안녕히.》 하고 노여운듯이 고개를 들고 가버렸다.

마까르 나굴리노브는 짤막히 이렇게 말했다.

《찬성하지 않네, 안드류하! 그 녀편네는 자네를 하사루 만들구, 소자산계급으루 만들걸세. 아니 롱담이네, 그걸 모르겠나?》

《차라리 제대루 결혼을 하려무나.》 하루는 어머니가 너그러워졌다. 《며느리루 오래자.》

《그래서는 뭘 하게요.》 안드레이는 어물어물 대답했다.

마리나는 마치도 20년쯤 젊어진것 같았다. 그는 저으기 치째진 눈을 다소곳이 빛내면서 밤마다 안드레이를 맞았으며 사내처럼 힘차게 그를 그러안았고 광대뼈가 두드러진 그의 거무스름한 볼에서는 앵두같은 선홍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흡사히 그에게는 처녀시절이 되돌아온것 같았다! 그는 안드레이에게 비단쪼박을 무어 꽃쌈지를 만들어주

었으며 몸과 마음을 다 바친듯 한 눈으로 그의 일거일동을 더듬고 아양을 떨었다. 그리고 이윽고는 질투심과 안드레이를 잃지나 않을가 하는 공포심이 그의 가슴속에 무서운 힘으로 눈떴다. 그는 오로지 안드레이가 젊은 계집들과 장난질을 하지 않는가 감시하기 위해서 회의에 다니게 되였다. 어떤 계집에게 눈을 팔지 않는가? 처음에는 안드레이도 돌연히 나타난 그런 감시가 성가시여 마리나를 욕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에 물젖게 되였을뿐더러 심지어는 그것이 사내로서의 그의 자존심에 걸맞게 되였다. 마리나는 무던해져서 남편의 옷을 모두 안드레이에게 내주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처진 옷을 입고다니던 안드레이는 상속자의 권리인듯이 부끄러워도 하지 않고 소매나 깃이 눈에 두드러질만큼 짧고 또 좁은 하사의 라사바지며 웃옷을 입고 그레먀치를 활개치며 다녔다.

그는 애인의 집일을 도와주었으며 사냥을 가서 잡은 토끼나 자고새를 그에게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마리나는 자기의 권리를 악용하지 않고 비록 안드레이의 어머니에 대해서 은연히 적의를 품고있으면서도 그를 소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자신도 집일을 넉넉히 처리했으므로 사내의 방조가 없더라도 능히 해나갈수 있었다. 그가 분홍빛칡으로 묶은 세뿌드나 되는 밀단을 쇠스랑으로 치여들거나 혹은 간이수확기의 덜컹덜컹 돌아가는 축의 날개밑에서 잘라져서 내던져지는 보리알맹이를 라즈묘뜨노브가 은근히 만족감을 느끼며 바라본것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마리나는 사내다운 솜씨와 굉장한 힘을 가지고있었다. 말에 연장을 메울 때도 그는 사내들이 하듯이 목칼 구부러진 곳 가장자리를 뒤꿈치로 번디디고 대번에 가죽띠를 조이는것이였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마리나에 대한 정은 두터워지고 깊은 뿌리를 박았다. 안드레이는 간혹 전처생각도 했지만 벌써 이전과 같이 찌르는듯 한 아픔은 느끼지 않았다. 다만 프랑스로 망명한 아니께이 제뱌뜨낀의 맏아들을 어쩌다 만나면 파랗게 얼굴이 질렸다. 애비와 아들이 놀랄만큼 같이 생긴것이였다.

그러나 이윽고 로동과 그리고 빵쪼각을 위한 투쟁과 복새통속에서 그 원한은 녹아없어졌으며 지근거리는 질둔한 아픔, 일찌기 마쟈르의 한 장교한테서 받은 이마우의 칼자리에서 때때로 그가 느끼는것과 비슷한 아픔도 사라지고말았다.

×

안드레이는 빈농회의에서 나와 곧 마리나한테로 갔다. 마리나는 털실을 뽑아내면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낮고 조그마한 방에서는 붕붕 졸음을 자아내는듯 한 물레소리가 나고, 불을 때여서 화끈하였다. 털이 곱슬곱슬한 장난꾸러기 새끼염소가 침대로 뛰여오르려고 조그마한 발통으로 땅바닥을 통통 찼다.

라즈묘뜨노브는 성가신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물레질일랑 좀 그만하지!》

마리나는 끝이 뾰족한 구두를 신은 발을 물레발판으로부터 빼고 말허리동이처럼 널직한 잔등을 뒤로 젖히며 기운좋게 기지개를 켰다.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래일부터 부농들을 요정낸다네.》

《정말이유?》

《오늘 빈농들은 만장일치루 꼴호즈에 들어갔네.》안드레이는 저고리도 벗지 않고 침대에 걸터누워 따뜻한 털뭉치같은 새끼염소를 량팔에 안았다. 《임자두 래일 청원서를 내게.》

《어떤 청원이요?》마리나는 깜짝 놀랐다.

《꼴호즈에 넣어달라는 청원이지.》

마리나는 화끈 달아 물레를 힘껏 난로쪽으로 밀어내였다.

《아니, 당신은 환장을 했소? 거기서 하는짓을 내가 몰라서?》

《마리나, 거기 대해선 흥야라붕야라 말자구. 임자는 꼴호즈에 들어야 하네. 나더러 〈다른 사람들은 꼴호즈에 끌어넣구두 제 마리나는 빼놨다.〉 그럴테니 량심이 꺼리껴.》

《나는 안 들어요! 여하튼 안 들어요!》 마리나는 땀과 화끈 단 몸뚱아리냄새를 안드레이에게 풍겨대며 침대옆을 지나갔다.

《그렇다면 이봐, 우리는 천생 헤여지는수밖에 없네.》

《으름장이로군!》

《으르는게 아니라 그럴수밖에 없지.》

《그럼 마음대루 해요! 내 소를 꼴호즈로 끌어가면 난 어떡하라우? 그래두 당신은 와서 먹을걸 내라겠지!》

《우유는 공동소유로 되네.》

《아마 계집들두 공동소유루 될테지? 그것때문에 당신은 을러메는 거겠지?》

《때려줘야겠지만 어쩐지 그럴 마음두 안 나는군.》안드레이는 새끼염소를 토방에 밀어던지고나서 모자로 손을 뻗쳤다가 털목도리를 목졸라대는 끈처럼 목에 칭칭 감았다.

(이 귀신같은것들을 모두 설복하구 간청하구 해야지! 마리스까 이것마저 반대하구 나서는군. 래일 총회에서는 어떻게 될가? 너무 세게 다과대면 때리려들걸.) 그는 자기 집으로 걸어가면서 약이 올라 생각했다. 그는 오래동안 잠이 들지 못하고 부스럭댔다. 이머니가 빵반죽을 보려고 두번이나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헛간에서 경치게 목청이 큰 수닭이 울었다. 안드레이는 불안스럽게 래일 일을 생각했다. 무뚝뚝하고 꽛꽛한 다위도브가 (안드레이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였다.) 조심성없는 그 어떤 행동으로써 중농들을 꼴호즈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나 않을가 하는 위구가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그의 다부지고 쇠로 부어낸듯 한 단단한 몸매며 한덩어리로 뭉친것 같은 긴장된 얼굴, 량볼에 깊이 패인 주름살, 랭소를 머금은듯 한 총명스러운 눈을 생각했고 또 회의때 다위도브가 나굴리노브의 등뒤로 자기에게 몸을 기울여 이발이 빠진 입에서 어린애같이 깨끗하고 떫은 포도주 비슷한 냄새를 얼굴에 뿜어대면서 류비슈낀의 연설도중에 《저 빨찌산은 좋은 젊은인데 당신들이 돌보지 않구 교양을 안 줬소그려, 참말이지! 저 사람은 좀 두드려 고쳐야겠소.》 하던것을 생각했다. 그것을 생각하고서는 기쁜듯이 이렇게 단정했다. (아니, 그 사나이는 일을 망치지 않을게다. 마까르, 바로 그 사람을, 고삐를 조여야 해! 성급하기때문으루 해서 그 사람이 어떤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마까르가 고삐를 잘못 잡으면 그때엔 달구지를 수습할수 없게 될게야. 그렇지, 수습할수 없지. … 그래 무엇을 수습할수 없단 말인가. 달구지… 달구지는 웬 달구지… 마까르… 찌또크… 래일…) 솔곳이 잠이 들어 그의 의식을 지워버렸다. 안드레이는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입술로부터는 나무잎곬에서 이슬방울이 흘러내리듯이 고즈넉이 미소가 흘러나왔다.

제 6 장

아침 여덟시경에 다위도브가 촌쏘베트로 왔을 때에는 이미 그레먀치의 빈농들 열네명이 모여있었다.

《우리는 벌써 어뜩새벽부터 점두룩 당신을 기다리구있수다.》류비슈낀이 투박한 손바닥안에 다위도브의 손을 그러쥐며 빙그레 웃었다.

《학수고대했지.》 쓔까리령감이 뒤를 달았다.

흰빛의 부인용외투를 입은 이 령감은 다위도브가 도착한 첫날 촌쏘베트마당에서 그와 롱담을 주고받은 령감이였다. 그날이래 그는 자기를 다위도브의 친지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친근하게 스스럼없이, 무랍없게 다위도브를 대했다. 그날만 하더라도 다위도브가 오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던것이다. 《나허구 다위도브가 결정하는대루 될거야. 엊그제 그 사람은 나허구 오래동안 지껄였거던. 그야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 사이에 롱담두 하기는 했지만 주로 그 사람하구 꼴호즈를 어떻게 꾸릴가 하는걸 토의했지. 그 사람두 나처럼 재미있는 사람이야…》

흰빛 외투로써 쓔까리를 알아본 다위도브는 뜻하지 않게 그에게 된 무안을 주고말았다.

《아, 령감이군요? 엊그제는 내가 뭘하러 왔는가를 알고 좋지 않아하는것 같더니 오늘은 벌써 자신이 꼴호즈원이 됐구려. 용하십니다!》

《시간이 없었지… 시간이, 그래서 돌아갔댔소. …》 쓔까리령감은 게걸음으로 다위도브한테서 물러나면서 중얼거렸다.

두패로 나뉘여서 부농을 추방하러 떠나기로 결정되였다. 첫패는 부락웃쪽으로 가고 둘째 패는 아래쪽으로 가야 했다. 그런데 다위도브한테서 첫패를 지도하라는 제의를 받은 나굴리노브는 그것을 딱 거절했다. 그는 사방에서 집중되는 시선에 난감한듯이 당황해하며 다위도브를 한옆으로 불렀다.

《이 무슨짓이요?》 다위도브는 랭랭하게 물었다.

《차라리 나는 둘째 패하구 함께 아래쪽으루 가겠소.》

《그게 무엇이 다르오?》

나굴리노브는 입술을 깨물고 외면하며 이렇게 말했다.

《거기 대해서는 저… 하기야 어차피 알게 될테지! 내 처… 루쉬까가… 부농 프롤 다마쓰꼬브의 아들녀석 찌모페이하구 관계하고있소. 가구싶지 않수다. 얘기들이 생길테니까. 난 아래쪽으루 갈테니 라즈묘뜨노브가 첫패를 지도하두룩 하시유.》

《에 이 사람, 남의 입이 그렇게 무서워서야… 강요하지는 않겠소. 나하구 함께 둘째 패에 갑시다.》

다위도브는 오늘 나굴리노브의 처가 그들에게 조반을 내여줄 때 그의 눈섭우에 누르푸름한 오랜 멍을 본것이 불현듯 생각나서 마치 옷깃속으로 짚부스레기라도 들어간것처럼 얼굴을 찡기고 목을 옴지락거리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 사람 눈섭우에 멍을 만든건 당신이요? 때렸소?》

《아니요. 내가 아니요.》

《그럼 누구요?》

《그자지.》

《그자라니?》

《찌프쉬까요… 프롤의 아들이요.》

다위도브는 영문을 모르겠다는듯이 잠시 덤덤하니 있다가 버럭 화를 냈다.

《젠장! 영문을 모르겠군! 그 얘기는 후에 하구 갑시다.》

나굴리노브와 다위도브, 류비슈낀, 쓔까리령감 그리고 또 세명의 까자크가 촌쏘베트를 떠났다.

《어느 작자부터 시작할가?》 다위도브는 나굴리노브의 얼굴을 보지 않고 물었다. 그 이야기를 한 후에 두사람은 제각기 그 어떤 어색함을 느끼고있는터였다.

《찌또크부터 합시다.》

말이 없이들 거리를 걸어갔다. 집집의 들창에서 녀편네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린애들이 뒤를 따르려 했으나 류비슈낀이 울바자에서 나무가지를 뽑아들자 눈치빠른 애들은 떨어지고말았다. 이미 찌또크네 집에 접근했을 때 나굴리노브는 누구에게라없이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은 꼴호즈의 관리부루 사용해야겠군. 넓거던. 그리구 헛간은 꼴호즈의 마구간을 만들어야지.》

그 집은 사실 넓었다. 찌또크는 그것을 22년의 기근때 새끼를 못

낳는 암소 한마리와 세뿌드의 밀가루로 린접한 뚜뱐쓰끄이부락에서 산것이였다. 이전 소유주의 가족들은 모두 죽어버렸다. 그러므로 후에 그러한 무법한 흥정에 대해서 찌또크와 송사를 할 사람이 없었다. 그는 그 집을 그레먀치로 옮겨다가 지붕을 새로이 잇고 헛간과 마구간을 세워 영주할 집으로 만들었다. 적색으로 칠한 문패에서는 뼁끼공이 슬라브글자로 묘하게 써놓은 글이 행길을 바라보고있었다. 《뗴. 까. 보로진, 1923년》

다위도브는 호기심을 가지고 집을 살펴보았다. 선참으로 나굴리노브가 삽짝문에 들어섰다. 고리쇠소리를 듣고 헛간밑으로부터 사슬에 매놓은 털빛이 승냥이같은 커다란 수개가 뛰여나왔다. 개는 짖지도 않고 달려들어 흰털이 부르르한 배를 번뜩이며 뒤발로 일어서서는 목을 조인 목걸이때문에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 웅글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앞으로 내닫다가는 벌렁 뒤로 나자빠지군 하면서 몇번 쇠사슬을 끊어보려고 했으나 힘이 진해서 이번에는 마구간쪽으로 달려갔다. 마구간까지 늘여놓은 쇠줄로 사슬을 끌고가 쇠사슬고리가 잘랑잘랑 소리를 냈다.

《저런 영악스런 놈, 저놈이 덮치는 날이면.》 쓔까리령감은 걱정스럽게 곁눈질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될수록 바자가까이에 가섰다.

집안으로 떼를 지어 들어갔다. 수척하고 키가 큰 찌또크의 처는 양재기로 송아지에게 물을 먹이고있었다. 그는 사나운 눈으로 의아쩍게 불청객들을 돌아보았다. 인사에 대답해서 《별난것들이 나타났다.》 라든가 그런따위의 말을 웅얼거렸다.

《찌트 집에 없소?》 나굴리노브가 물었다.

《없어요.》

《어디 갔소?》

《모르겠어요.》 녀편네는 딱 잡아뗐다.

《베르필리예브나, 임자는 알테지, 우리가 왜 왔는지? 우리는…》 쓔까리령감이 수수께끼 비슷이 시작하려 했으나 나굴리노브가 눈짓을 하는 바람에 령감은 침을 꿀꺽 삼키고 기침을 한번 하고나서 이기지 않은 흰 가죽으로 만든 외투자락을 노상 점잖게 여미고 걸상에 앉았다.

《집에 말은 없소?》 나굴리노브는 불친절한 접대를 짐짓 알아채지 못한체 하고 물었다.

《있지요.》

《소는?》

《없어요. 당신들은 무엇때문에 왔어요?》

《임자와는 말할수가…》 또다시 쓔까리령감이 시작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류비슈낀이 뒤로 물러서며 그의 외투자락을 쥐여당겨서 령감은 덜레덜레 현관으로 끌려나갔기때문에 말끝을 맺지 못했다.

《소들은 어데 있소?》

《찌트가 타고갔어요.》

《어디루?》

《모른다구 하지 않았어요!》

나굴리노브는 다위도브에게 눈짓을 하고 나갔다. 걸어가면서 그는 쓔까리의 턱수염 가까이루 주먹을 가져가면서 뇌까리였다.

《말하라구 하기 전에는 잠자쿠 있어요!》 하고 이번에는 다위도브에게 말했다.

《일이 잘못됐습니다! 소들을 어디루 보냈는지 알아봐야겠군요. 그놈이 소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면…》

《그럼 소는 그만두구라두…》

《그게 무슨 말이유!》 나굴리노브는 펄쩍 뛰였다. 《그놈의 소들은 부락에서 제일이요. 뿔에 손이 닿지 않을 정도외다. 그럴수는 없지요! 찌또크두, 소두 찾아내야지요.》

류비슈낀과 수군수군하고나서 그들은 집짐승우리로 가서 거기서 헛간과 탈곡장으로 갔다. 한 5분후에 몽둥이로 무장을 갖춘 류비슈낀은 개를 고간밑으로 격퇴하고 나굴리노브는 마구간으로부터 키가 큰 말을 한필 끌어내여 안장을 놓고 갈기를 잡고 올라탔다.

《여보슈 마까르, 왜 묻지두 않구 남의 마구간을 마음대루 좌지우지해요?》 주부가 현관으로 뛰여나와 허리에 손을 짚고 웨쳤다. 《우리 주인이 돌아오면 이를테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잖을걸!》

《떠들지 마소! 집에 있다면 내가 어련히 그 사람과 따질라구. 다위도브동지, 자 이리로 좀 오슈!》

나굴리노브의 그런 행동의 까닭을 알아채지 못하고 다위도브는 다가갔다.

《탈곡장에서 행길루 소들이 갓 지나간 자리가 있군요. 보매 찌트가 낌새를 말구 소들을 흥정하러 간 모양이외다. 썰매는 그냥 헛간에

있군요. 계집년이 멀쩡한 거짓말을! 가서 그동안 끄체또브를 해치우시유. 나는 말을 타구 뚜뱐쓰끄이루 달려가겠수다. 거기밖에 그놈이 소를 몰고갈데가 없지요. 말을 몰게 나무가지를 하나 꺾어주슈.》

곧바로 탈곡장을 지나 나굴리노브는 행길로 향했다. 그의 뒤로는 흰 눈가루가 피여올랐다가 눈이 부시도록 강한 아롱진 은가루가 되여 울바자며 부리얀초의 가지들우에 서서히 내려앉았다. 소들의 발자국과 그옆의 말발통자국은 행길까지 뻗어나가 거기서 사라졌다. 나굴리노브는 뚜뱐쓰끄이방향으로 한 백싸젠(1싸젠은 2.314m)쯤 말을 달렸다. 도중에서 그는 바람에 불려 눈이 쌓인 곳들에 같은 발자국들이 눈먼지가 좀 오르기는 했으나 그냥 남아있는것을 보고 방향이 옳은것에 마음을 놓고서 보조를 늦췄다. 그렇게 한웨르쓰따(1웨르쓰따는 1 067m)반쯤 달렸을 때 새로 눈 쌓인 곳에서 불시에 발자국들이 보이지 않았다. 홱 말머리를 돌리고 뛰여내려 발자국들이 눈에 묻히지 않았나 하고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쌓여있는 눈은 자국이 나지 않은게 순결했다. 맨 아래쪽에 까치들의 십자형발자국들이 보일뿐이였다. 욕설을 해대고 나굴리노브는 량쪽을 들여다보면서 도로 뒤로 이번에는 평보로 말을 몰았다. 오래지 않아 발자국을 만났다. 소들은 방목장근처의 행길로부터 꺾어든것이였다. 나굴리노브는 속도높이 말을 몰았으므로 그 발자국들을 놓쳐버렸던것이다. 찌또크가 언덕을 넘어 곧장 워이쓰끄보이부락으로 향했구나 하고 나굴리노브는 짐작했다. (필시 어떤 아는 놈팽이한테루 갔겠지.) 그는 발자국들을 따라 걸음을 억제하듯이 하고 말을 몰면서 생각했다. 언덕너머 모르트브이골짜기근처에서 눈우의 소똥을 보고 말을 멈췄다. 새로 눈 똥인데 바로 조금전에 언 엷은 얼음이 그우에 덮여있었다. 나굴리노브는 반외투주머니속에서 권총의 산뜩한 손잡이를 만져보았다. 골짜기로는 평보로 내려갔다. 한 반웨르쓰따쯤 더 가서 말을 타고가는 사람과 뿔에 얽어맨 새끼에 끌려가는 두짝의 소를 보았다. 말을 탄 사나이는 소들우에 새끼를 휘두르면서 안장우에서 등을 구부리고있었다. 그의 어깨너머로 파란 담배연기가 이쪽으로 맴돌이치며 흘러오다가 사라졌다.

《돌아서게!》

찌또크는 울어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담배를 뱉어버리고서서 소들앞으로 돌아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와, 와, 서라!》
나굴리노브가 다가왔다. 찌또크는 그를 쏘아보며 맞이했다.
《자네는 어딜 가나?》
《소들을 팔려고 하네. 마까르, 나는 숨기지 않아.》 찌또크는 코를 풀었다. 불그레하니 몽골인들의 수염처럼 늘어진 입수염을 장갑으로 끈끈스레 훔쳤다. 그들은 말을 내리지 않고 서로 마주서있었다. 두 사람의 말들은 코를 울리며 서로 냄새를 맡았다. 바람에 그슬린 나굴리노브의 얼굴은 화끈 달았고 험악스러웠다. 찌또크는 겉으로는 태연하고 조용했다.
《소를 돌려 집으루 몰게!》 나굴리노브는 말을 한옆으로 물러세우며 분부했다.
잠시 찌또크는 망설였다.… 그는 졸린듯이 고개를 숙이고 반쯤 눈을 감고서 고삐를 주무르고있었다. 집에서 짠 라사로 만든 외투를 입고 해진 털모자우에 두건을 쓴 그는 졸고있는 커다란 독수리와 흡사했다. (만약 외투속에 무엇이 있다면 인제 저놈의 맞단추를 벗기겠지.) 나굴리노브는 꼼짝 안하고있는 찌또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마치 정신이 든듯이 새끼를 한번 휘둘렀다. 소들은 자기들의 발자국을 따라 다시 돌아갔다.
《몰수를 하나? 부농청산을 하나?》 오랜 침묵끝에 찌또크는 눈섭우까지 내려쓴 두건밑에서 퍼런 눈자위를 나굴리노브쪽으로 번뜩이고 물었다.
《오래 사니 별꼴을 다 보겠군! 나는 자네를 벌레같은 포로루서 몰아가는거야!》 나굴리노브는 참다못해서 웨쳤다.
찌또크는 몸을 옹송그렸다. 바로 언덕까지 갈 동안 덤덤하니 있다가 이윽고 이렇게 물었다.
《나를 어디루들 보내려나?》
《추방하지. 자네 외투아래 삐죽 내민건 뭔가?》
《단총일세.》 찌또크는 곁눈으로 나굴리노브를 힐끗 보고 외투자락을 헤쳤다.
저고리호주머니로부터 마구 대패질을 한 더러워진 단총손잡이가 누런 뼈다귀처럼 내밀고있었다.
《그걸 이리 내게.》 나굴리노브는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찌또크는 조용히 그 손을 물리쳤다.

《아니야, 못 주겠네!》 그는 족제비같이 날카로우면서도 비웃는듯한 눈으로 나굴리노브를 바라보면서 늘어진 입수염밑으로 담배진에 거멓게 된 이발을 드러내고 빙긋이 웃었다. 《못 주겠네. 재산을 몰수하고 마지막단총까지 몰수하려나? 부농이란 단총을 가지구있는 법이야. 신문에두 그렇게들 씌여있거던. 반드시 단총을 가지구있어야해. 이걸루 나날의 량식을 벌어야 할지두 모르지 않나? 농촌통신원은 내게 필요없네. …》 그는 웃음을 터뜨리고 고개를 흔들었다. 손은 안장에서 떼지 않았다. 나굴리노브는 단총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고 (부락에 가서 네놈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하고 마음먹었다.

《마까르, 저놈이 왜 단총을 가지구 떠났을가 하구 생각하겠지?》 찌또크는 계속했다. 《가지구있어서는 안되지만… 이것을 내가 가지구있는지는 벌써 오랬네. … 공민전쟁때부터거던. 집에 두었더니 좀 녹이 쓸어서 나는 이것을 닦구 기름칠을 했네. 쓸수 있게 해두면 혹시 나쁜 놈을 물리치는데 쓸모가 있으리라 생각했었지. 그런데 자네들이 부농들을 털어낼 차비를 하구있다는건 어저께 알았네. 다만 자네들이 오늘부터 털러 오리라구는 생각 못했어. … 그렇다면 벌써 밤으루 소들을 몰구 떠났을걸. …》

《누구한테서 들었나?》

《무슨 말인지! 낮말은 새가 듣구 밤말은 쥐가 듣지. 그래서 밤에 녀편네하구 의논해서 소를 믿을만 한 손에 넘기기루 했었네. 단총을 차구 나온건 어쩌다 뜨락에서 발견되지나 않을가 하구 들판에 매장할 작정이였는데 아까와서 그랬더니 자네한테 발견되구 말았거던. 무릎이 다 떨리네!》 그는 자기가 탄 암말의 가슴으로 나굴리노브의 말을 밀어내고 비웃듯이 눈알을 굴리며 생기를 띠우고 말했다.

《롱담은 좀 됬다 하게. 찌또크! 지금은 좀 얌전히 굴어.》

《하! 나는 바루 지금 익살을 놀구싶은걸. 편안한 살림을 애써 꾸리구 옳바른 정권을 방위했는데 그 정권이 내 멱다시를 잡으니…》 찌또크의 목소리가 뚝 끊어졌다.

그때부터 그는 말이 없이 타고갔다. 그리고 마까르를 말몸뚱이 절반길이라도 앞세우려고 애쓰면서 짐짓 말고삐를 조이였다. 그러나 이쪽도 경계해서 저으기 뒤로 떨어졌다. 소들은 두사람보다 훨씬 앞으로 나아갔다.

《빨리 가게, 빨리!》 나굴리노브는 찌또크를 유심히 살펴보았고 호

주머니안에서 7련발권총을 그러쥐면서 말했다. 그는 찌또크를 이미 알고있었다.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알고있었다. 《뒤떨어지지 말어! 한방 놓으려구 생각해두 어차피 그렇게는 안돼. 그럴 겨를은 없네.》

《자네는 겁이 많아졌네그려!》 찌또크는 미소를 띄웠다. 그리고 채찍으로 말을 한번 갈기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제 7 장

안드레이 라즈묘뜨노브가 자기 패와 함께 프롤 다마쓰꼬브네 집에 왔을 때 그는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있었다. 쐐기모양으로 턱수염을 기르고 왼편코구멍이 찢어진 벌써 어렸을 때 사과나무에서 떨어져 얼굴이 불성모양이 되였고 르와늬(찢어진자라는 뜻－역주)라는 별명은 여기에서 나왔다. 조그맣고 허약한 프롤자신과 그의 처인 핑핑 살이 찌고 장대한 로파와 스물두어살나는 아들 찌모페이 그리고 한창 시집갈 나이인 딸이 식탁앞에 앉아있었다.

어머니를 닮아 체격이 좋고 잘 생긴 찌모페이가 식탁뒤에서 일어섰다. 그는 보르르 돋은 애숭이수염밑의 새빨간 입술을 헝겊으로 훔치고 두드러져나온 능글맞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처녀들에게 인기있는 부락의 일등 손풍금수답게 버르장머리없이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자, 들어와서 앉으시지요. 나으리들!》

《우리는 앉아있을 사이없네.》 안드레이는 종이끼우개에서 서류한장을 꺼냈다. 《빈농회의는 당신, 프롤 다마쓰꼬브씨를 이 집에서 퇴거시키구 전체 재산과 집짐승들을 몰수하기루 결정했소. 그러니까 점심을 마치구는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이제 우리는 재산목록을 만들겠소.》

《그건 어찌된 일이요?》 프롤은 숟가락을 내던지고 일어섰다.

《당신을 부농계급으루서 섬멸하는거요.》 좀까 우샤꼬브가 그에게 설명했다.

프롤은 바닥에 가죽을 덧붙인 든든한 펠트신을 번쩍거리면서 살림방으로 가서 거기서 한장의 종이를 가져왔다.

《자, 인증서요. 라즈묘뜨노브, 당신자신이 서명한거요.》

《무슨 인증서요?》

《내가 곡물납부를 완수했다는 인증서지.》

《곡물은 여기에 하등 관계없소.》

《그래, 무슨 까닭에 나를 집에서 내쫓구 몰수한단 말이요?》

《빈농들이 그렇게 결정했다구 설명하지 않았소.》

《그런 법은 없소!》 찌모페이가 날카롭게 웨쳤다. 《당신들은 략탈행위를 하고있소! 아버지, 나는 지금 구역집행위원회루 가겠습니다. 안장이 어디 있어요?》

《구역집행위원회에 갈려면 걸어서 가게. 말은 못 주겠네.》

안드레이는 책상 한끝에 걸터앉아 연필과 종이를 꺼냈다.

프롤은 찢어진 코가 시퍼래지고 머리를 떨기 시작했다. 그는 서있다가 마루바닥에 주저앉아 부풀어오른 검은 혀바닥을 간신히 움직였다.

《개새끼들!… 개새끼들아! 도적질해라! 죽여라!》

《아버지, 일어서요. 제발!》 딸이 애비의 겨드랑을 껴안으며 울음을 터쳤다.

프롤은 몸을 수습하고 일어나서 걸상에 누워버리고는 좀까 우샤꼬브와 키가 크고 온순한 미하일 이그나쬬노크가 라즈묘뜨노브에게 불러주는것을 무관심한듯이 듣고있었다.

《흰 방울이 달린 쇠침대 하나, 털깃이불 하나, 베개 셋과 나무침대 둘…》

《찬장 하나, 식기두 불러야 하나? 제길헐!》

《의자 열둘, 등받이 있는 높은 의자 하나, 세줄식 손풍금 하나.》

《손풍금은 못 주겠다!》 찌모페이는 좀까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냈다.

《덤비지 말아. 사팔뜨기야, 코등을 터쳐놓을테다.》

《네 에미가 미처 씻어내지두 못하게 이쪽에서 피투성이를 만들어주마!》

《궤짝들 열쇠를 내놓소. 주인녀편네.》

《어머니, 주지 마셔요! 권리가 있으면 짜개보라지.》

《우리가 짜갤 권리가 있느냐구?》 제미드 몰춘이 활기를 띠우며 물었다. 그는 극히 필요할 때에만 말을 하고 여느때에는 입을 다물고있는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명절때에도 골목에 모여있는 까자크들축

에 끼여서 말없이 담배를 피우고 회의에서는 덤덤히 앉아있고 간혹 가다가 상대자의 질문에나 대답하면서 미안한듯 한 애처로운 미소를 띄우는것이였다.

개방된 이 세상은 제미드에게 있어 너무나도 소란스러운 음향에 가득차있는것이였다. 그 음향들은 밤에도 잦지 않고 생활의 언저리를 넘어나서 정적에 귀를 기울이는것을 방해했으며 초가을때 흔히 광야와 숲에 차있는 그 야릇한 침묵을 깨뜨리는것이였다. 제미드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부락 한끝에 떨어져 살았으며 근면하고 또 힘이 세기로 관구에서 꼽혔다. 그러나 어쩐지 운명은 그에게 불행의 락인을 찍고 이붓자식취급을 해왔다. … 그는 5년동안 프롤 다마쓰꼬브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한 후 결혼하여 자기 살림을 가졌다. 1년후에 또 화재가 있어서 그에게는 내내나는 보습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의 처는 이렇게 성명하고 나가버렸다. 《2년동안 함께 살았지만 말이라구는 두마디두 못 들었어요. 이제는 싫어요. 혼자 사우! 숲속에서 승냥이수것과 사는게 차라리 재미있을거야. 여기서 임자와 함께 있다간 미치겠어요. 벌써 나는 혼자서 지껄이기 시작했으니까. …》

하기는 녀편네가 제미드에게 익숙되여가기는 했었다. 첫 몇개월동안은 울기도 하고 남편에게 《제미드스까! 좀 말을 합시다요. 좀 말을 해요!》 하고 달라붙었다. 제미드는 털이 많이 돋은 가슴을 긁으면서 조용히 어린애같은 미소를 띄울뿐이였다. 그리고 녀편네가 귀찮게 굴어 못 견딜 지경이면 배속에서 나오는듯 한 굵은 목소리로 《이건 꼭 까치네!》 하고 나가버렸다. 어째서인지 소문은 제미드를 약은 축에 속하고 거만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들 하고있었다. 그가 평생 수선스러운 사람들과 요란스런 소리를 피한 까닭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안드레이는 제미드의 우뢰와 같은 웅글은 목소리를 듣자 고개를 들었다. 《권리?》 그는 몰춘을 마치 처음으로 보는듯이 바라보면서 되물었다. 《권리가 있지!》

제미드는 물에 젖은 다 해진 신으로 마루바닥을 더럽히면서 집게다리로 살림방에 들어갔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문간에 서있는 찌모페이를 잔나무가지라도 물리치듯이 한손으로 가볍게 물리치고 발걸음에 따라 애처로운 소리를 내는 식기들이 들어있는 찬장옆을 지나 궤짝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쭈그리고앉아 묵직한 자물쇠를 손가

락으로 주물렀다. 잠시후에 목이 오그라진 쇠가 궤짝우에 놓였다. 아르까쉬까 메노크는 경탄하는 빛을 력연히 얼굴에 띄우고 몰춘을 돌아보면서 감격한듯이 웨쳤다.

《저런 사람과 힘을 좀 바꿨으면 좋겠군!》

안드레이는 미처 받아쓸수가 없었다. 살림방과 대청에서 좀까 우샤꼬브와 아르까쉬까와 그리고 안드레이네 패에서 홍일점인 와씰리싸 아주머니가 겨끔내기로 제마끔 웨쳐대였다.

《돈지방의 부인용외투 하나!》

《털외투 하나!》

《덧구두가 달린 새 장화 세켤레!》

《라사 네필!》

《안드레이 라즈묘뜨노브! 여기 물건은 달구지루두 다 실어내지 못하겠어! 사라사며 공단이며 그밖에 여러것이 있네. …》

살림방으로 향한 안드레이는 복도에서 처녀의 우는 소리와 주부가 웨치는 소리 그리고 이그나쬬노크의 타이르는 소리를 들었다. 안드레이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여기서는 뭣들을 하구있나?》

울어서 눈이 부어오른 안장쿄의 그 집 딸이 방문에 몸을 기대고 통곡하고있었다. 처녀옆에서는 그의 어미가 갈팡질팡하면서 닭의 소리같은 소리를 내고있고 이그나쬬노크는 시뻘개가지고 당황한듯 히죽거리면서 처녀의 치마자락을 쥐여당기고있었다.

《너는 여기서 뭣을…》 안드레이는 미처 까닭도 알아보지 않고 분노에 숨이 막혀 힘껏 이그나쬬노크를 떠박질렀다. 이쪽은 펠트장화를 신은 발로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지금은 왼통 정치야! 적에 대한 공격이야. 그런데 네놈은 구석에서 계집애한테 손을 대구있어! 재판에다가…》

《가만, 잠간만 기다려주게!》 이그나쬬노크는 깜짝 놀란듯이 마루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애한테 손을 댔다구? 자네, 좀 보게. 저 계집애는 치마를 아홉개나 입구있네! 내가 그렇게 못하도록 하구있는데 자네가 날 떠박질렀어. …》

그제서야 안드레이는 법석통에 살림방에서 옷꾸레미를 꺼내온 처녀가 사실 어느사이에 모직물옷을 잔뜩 껴입은것에 눈이 미쳤다. 처녀는 한구석에 들어가서 치마자락을 아래로 잡아당기고있었다. 동작

을 마음대로 할수 없으리만큼 잔뜩 입은 옷때문에 괴상하고 거북스럽고 뚱뚱하게 보였다. 안드레이는 눈물에 젖은, 토끼눈같이 빨간 처녀의 두눈이 아니꼽고 또 가련했다. 그는 이그나쬬노크에게 이렇게 말하고 방문을 탕 닫았다.

《저 계집애를 벗기지는 말게! 이미 입은건 내버려두구 꾸레미만은 빼앗게.》

집에 있는 재산의 목록은 거의다 되였다.

《고간열쇠들을 내시오.》 안드레이가 요구했다.

숯이 된 나무그루처럼 얼굴이 거멓게 된 프롤은 팔을 한번 휘둘렀다.

《열쇠는 없네!》

《가서 족치게.》 안드레이는 제미드에게 일렀다.

제미드는 고간으로 향했다. 그리고 가다가 짐마차바퀴에서 심봉을 뽑았다.

다섯폰드가 되는 저울추형의 자물쇠를 겨우 도끼로 까부셨다.

《여보게, 문설주는 망그러치지 말게! 이제는 우리 고간이니까 주인답게 하게. 좀더 가만히! 가만히!》 좀까는 코를 풀썩거리는 몰춘에게 주의를 주었다.

낟알을 되기 시작했다.

《이걸 당장 채루 치면 어떨가? 저 칸에 큰 채가 있네.》 기쁨에 취한 이그나쬬노크가 제의했다.

모두 그를 보고 웃어대고 알이 묵직한 밀을 말박에 쏟아넣으면서도 오래동안 익살을 피웠다.

《한 2백뿌드는 더 납부할수 있는것이 여기 있네.》 무릎까지 밀에 묻혀서 걸어다니며 좀까 우샤꼬브가 말했다. 그는 삽으로 밀을 커다란 상자에서 퍼내고 밀을 손에 쥐여 손가락사이로 흘러떨어뜨렸다.

《밀알 하나가 작은 총알 하나만은 하네.》

《말말어! 순금같은 밀일세. 다만 땅속에 넣어두었던 모양으루 좀 상했군.》

아르까쉬까 메노크와 또 같은 패에 속한 한 젊은이는 집짐승우리에서 주인행세를 하고있었다. 아르까쉬까는 아마빛턱수염을 쓰다듬고 삭이지 못한 강냉이알들이 더덕더덕 나붙어있는 소똥을 가리키였다.

《소들이 힘을 잘 쓰지 않을수 있나? 순전히 낟알을 먹구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조합에서는 마른 꼴두 주지 못하지.》
고간으로부터는 신바람이 난 말소리와 웃음소리, 구수한 나락먼지와 또 가끔 맵짠 말들이 날아왔다.
안드레이는 집안으로 들어왔다. 주인녀편네가 딸과 함께 솥이며 식기들을 자루안에 넣고있었다. 프롤은 죽은 사람같이 가슴우에 손가락을 겯고 이미 양말바람이 된 발을 뻗치고 걸상우에 누워있었다. 조용해진 찌모페이는 증오하듯이 눈을 힐끗 하고 들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살림방에서 안드레이는 쭈그리고앉아있는 몰춘을 보았다. 그는 밑바닥에 가죽을 덧댄 프롤의 새 펠트신을 신고있었다.… 그는 들어온 안드레이를 보지 못하고 주걱으로 양철통에서 꿀을 떠서 맛이 있는듯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입맛을 다셔가며 깝진거리는 누런 꿀방울을 턱수염에 흘리면서 먹고있었다.

제 8 장

나굴리노브는 찌또크와 더불어 이미 한낮이 돼서야 부락에 돌아왔다. 그들이 오기 전에 다위도브는 두 부농의 재산목록을 만들고 그 집 사람들을 몰아낸 다음 찌또크네 집으로 돌아와서 류비슈낀과 함께 말리운 마소똥을 두는 헛간에서 발견한 낟알을 되고 달고 했다.
쓔까리령감은 다가오는 찌또크를 보자 먹이다 남은 꼴을 여물통에 놓고 부리나케 양우리에서 나갔다.
찌또크는 외투앞섶을 헤치고 맨머리바람으로 뜰을 걸어다녔다. 그는 탈곡장으로 가려고 했으나 나굴리노브가 그에게 고함을 질렀다.
《썩썩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고간에 가둬버리겠다!…》
그는 사나와보였고 흥분해있었으나 볼은 여느때보다 더 심하게 실룩거렸다. 그는 찌또크가 어디서 어떻게 단총을 버렸는지 미처 보지 못했다. 겨우 탈곡장곁에까지 와서야 나굴리노브는 이렇게 물었다.
《단총을 내겠나? 그렇지 않으면 빼어내겠네.》
《롱담말게!》 찌또크는 히죽 웃었다. 《꿈에라도 봤나보군?!》
단총은 그의 외투속에 없었다. 그것을 찾으러 되간다는것은 무의미했다. 깊은 눈과 부리얀초속에서는 어차피 찾아내지 못할것이다. 나굴리노브는 제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다위도브에게 그것을 이야기했

다. 줄곧 호기심을 가지고 찌또크를 바라보고있던 다위도브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여보시오, 무기를 내시오! 그게 당신한테두 좋을게요.》

《내게는 무기가 없었소! 그건 나굴리노브가 내게 분풀이를 하느라고 그러는거요.》 찌또크는 족제비같은 눈으로 롱간을 피우면서 히죽이 웃었다.

《그렇다면 당신을 체포해서 구역으로 보내야겠소.》

《나를요?》

《그렇소. 그래,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댔소? 당신의 과거를 참작할줄 알았소? 당신은 곡물을 감추었구 또 폭동을 준비했소. …》

《내가요?》 찌또크는 마치 뛰여오르려는듯이 몸을 꼬부리고 씩씩거리면서 되풀이했다.

이 순간에 그에게서는 걸치레이던 명랑, 침착, 자제가 고스란히 사라졌다. 다위도브가 한 말은 이때까지 쌓이고 억제되여있던 맹렬한 악이 폭발하는 계기로 되였다. 그는 물러서는 다위도브에게로 한걸음 내디디였다. 뜨락복판에 놓여있던 멍에에 발을 걸채자 몸을 굽혀 불시에 쇠뭉치를 뽑아들었다. 나굴리노브와 류비슈낀이 다위도브에게로 달려왔다. 쓔까리령감은 뜨락으로부터 꽁무니를 빼려고 했으나 지나치게 긴 외투자락에 공교롭게도 발이 엉키여 거칠게 부르짖으면서 어푸러졌다.

《사람 살리오, 여러분! 사람 죽소!》

찌또크는 왼쪽팔회목을 다위도브에게 잡혔으나 오른편손으로 그의 머리에 일격을 가했다. 다위도브는 비틀했으나 그냥 지탱했다. 터진 상처에서 피가 콸콸 뿜어나와 눈을 뜨지 못했다. 다위도브는 찌또크의 팔을 놓고 비틀거리면서 손바닥으로 눈을 쌌다. 두번째 타격은 그를 눈우에 쓰러뜨렸다. 이 순간에 류비슈낀이 찌또크를 가로안았다. 그는 그리 약하지 않으나 찌또크를 당해낼수가 없었다. 그의 팔을 뿌리치고 찌또크는 껑충껑충 탈곡장으로 내뺐다. 대문간에서 나굴리노브가 그를 따라잡아 술많은 그의 번번한 뒤통수를 권총손잡이로 내려쳤다.

찌또크의 녀편네가 이 복새판을 더 크게 만들었다. 류비슈낀과 나굴리노브가 남편을 따라가는것을 본 그는 고간으로 달려가 개를 사슬에서 풀어놓았다. 수개는 쇠목걸이를 절렁거리면서 쏜살같이 뜨락

을 돌아다니다가 쓔까리령감의 대경실색한 웨침소리를 듣자 눈우에 깔린 외투우에 올라탔다.… 흰 외투에서 헝겊과 양털쪼각이 찍찍 찢어져 갈기갈기 날아올랐다. 쓔까리령감은 미친듯 발로 개를 걷어차고 울바자에서 말뚝을 뽑아내려고 애쓰면서 일어섰다. 그는 뒤덜미를 물고늘어진 성난 개를 잔등에 업고 개가 맹렬히 지랄하는바람에 비틀거리면서 한 두어싸젠쯤 달려갔다. 마침내 죽을 힘을 다 써서 그는 말뚝을 뽑는데 성공했다. 개는 으르렁거리면서 뛰여내렸으나 급기야 령감의 외투를 둘로 찢어놓았다.

《내게 권총을 주게, 마까르!》 원기가 난 쓔까리령감은 눈을 흡뜨고 목구멍속에서 나는 소리로 말했다. 《이 가슴이 불타고있을 때 주게! 저놈의 개새끼와 계집년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네!…》

그럴즈음 사람들은 다위도브를 집안으로 데리고들어가서 상처주위의 머리카락을 깎았다. 상처로부터 아직도 그냥 붉은 피가 거품을 일으키며 뚝뚝 떨어졌다. 뜰에서 류비슈낀은 찌또크네 말을 쌍두썰매에 메웠다. 나굴리노브는 책상앞에 앉아서 황급히 이렇게 썼다.

《국가보안부 구역전권위원 자르첸꼬동지앞. 부농 찌트 꼰쓰딴찌노비치 보로진을 악독한 반혁명분자로서 당신의 관할에 넘깁니다. 이 부농의 재산목록작성중 그는 파견되여온 2만 5천명부대의 한사람인 다위도브동지를 공공연히 공격하여 두차례나 철봉으로 그의 머리를 구타하였습니다.

또 여기서 언명하는바는 보로진이 로씨야식장총을 잘라서 만든 단총을 소지하고있음을 보았는데 언덕우에 있었던것과 또 류혈을 념려한 나머지 단총을 탈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단총을 그는 눈속에 버렸습니다. 발견되는차 증거물로서 바치겠습니다.

쏘련공산당 볼쉐비크 그레먀치세포비서, 적기훈장 수훈자 엠. 나굴리노브.》

찌또크를 썰매에 올려앉혔다. 그는 물을 청해서 먹고 나굴리노브를 좀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나굴리노브는 계단에서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뭔가?》

《마까르! 잊지 말게.》 찌또크는 결박당한 팔을 흔들면서 술취한 놈같이 웨쳤다. 《우리가 또 만날 날이 있다는걸 잊지 말아! 너는 나를 짓밟았지만 때가 오면 내가 너를 짓밟을테다. 어차피 죽여버릴테

다! 동무던것두 이제는 마지막이다!》
《가라, 반혁명분자야!》 나굴리노브는 팔을 한번 휘둘렀다. 말들은 기운차게 뜰에서 나갔다.

제 9 장

이미 초저녁때가 되여서야 안드레이 라즈묘뜨노브는 자기와 함께 활동한 빈농협조대를 놓아주고 청산한 부농 가예브네 집에서 몰수한 재산을 실은 마지막달구지를 부농들의 전체 재산을 가져다모으는 찌또크네 집으로 보내고나서 촌쏘베트로 걸어갔다. 아침에 그는 다위도브와 어두워지면 곧 시작할 총회를 한시간 앞두고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한것이였다.
벌써 현관에서부터 안드레이는 촌쏘베트의 구석방에 불이 켜진것을 보고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다. 문두드리는 소리에 다위도브는 보고있던 공책으로부터 흰 헝겊으로 싸맨 머리를 들고 빙그레 웃음을 띄웠다.
《이젠 라즈묘뜨노브도 왔군, 앉으시오. 우리는 부농들한테서 곡물을 얼마나 발견했는지 계산하고있소. 그래, 당신은 어떻소? 끝났소?》
《끝났소… 아니, 머리는 왜 처맸소?》
신문지로 등갓을 만들고있던 나굴리노브가 흥심없이 말했다.
《찌또크가 한짓이네, 철봉으루. 찌또크를 나는 국가보안부의 자르첸꼬에게로 보냈네.》
《가만있소, 얘기는 차츰 합시다.》 다위도브는 책상우 주산을 밀어놓았다. 《1백 15를 놓으시오. 됐소? 그다음은 1백 8…》
《가만있소! 가만있소!》 나굴리노브는 주산알을 조심히 손가락으로 퇴기면서 황급히 중얼거렸다.
안드레이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고있다가 입술을 떨며 웅글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인젠 그만두겠소.》
《그만두다니? 어째서?》 나굴리노브는 주산을 밀어놓았다.
《부농청산에는 안 가겠소. 아니, 눈은 왜 부라리나? 지랄이라두 부리려나?》

《술에 취했소?》 다위도브는 단호한 결의에 충만된 안드레이의 얼굴을 불안스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웬일이요. 당신? 일을 안하겠다는건 무슨 뜻이요?》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 안드레이는 홱 눈이 뒤집혀 떠듬거리면서 흥분하여 웨쳤다.

《나는 배우지 못했네! 나는… 나는… 어린애들과 싸우는건 배우지 못했소!… 전선이라면 또 다르지! 거기서라면 어떤것이든지 환도건 또 아무것이로든지 해내지… 나는 가지 않겠네.》

안드레이의 목소리는 조여지는 악기줄처럼 자꾸 그냥 높아져서 금시 끊어져버릴것 같았다. 그러더니 안드레이는 갈린 소리로 한숨을 내쉬고나서 불시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대관절 그게 일이야? 나는 뭔가? 사형집행인인가? 내 심장은 돌심장인가? 나는 전쟁에는 어울려들었지만…》 하고는 또다시 고함으로 변했다. 《가예브에게는 새끼가 열한개가 있네! 우리가 들어가자 그것들이 울어대는데 나는 모자가 우로 올라가는것 같았소! 머리카락이 곤두섰거던! 집에서 놈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네. … 그러자 나는 눈을 감구 귀를 틀어막구서 뜨락뒤루 도망쳤네! 녀편네들이 기절해 나자빠져서 며느리며… 어린것들이 정신이 들도록 물을 끼얹었지. …》

《울게! 그러면 좀 나아지네.》 나굴리노브는 실룩거리는 볼따구니근육에 빨간 자리가 날만큼 손바닥을 꽉 가져다대고 불타는듯 한 눈으로 안드레이를 줄곧 바라보면서 권고했다.

《울음이 나와야지! 나는 자기 자식을…》 안드레이는 중등무이하고 이발을 드러내더니 책상에서 홱 돌아섰다.

고요해졌다.

다위도브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처매지 않은 그의 한쪽볼이 역시 점점 시퍼래지고 귀가 새하얘졌다. 그는 안드레이에게로 다가가서 어깨를 붙잡더니 홱 그를 돌려세웠다. 안드레이의 얼굴에서 험악한 눈길을 떼지 않고 헐떡거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자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자네는 그들이 가련하지.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불쌍해했나? 원쑤들은 우리 어린것들의 눈물을 보구 울었나? 에미, 애비 다 살해된 고아들에 대해서 울었나? 어때? 내 아버지는 파업이 있은 후 공장에서 해고되구 씨비리로 류형을 갔네. … 어머니슬하에는 우리들 넷이 있었구… 맨 우인 내가 그때 아홉살이

였네. … 아무것도 먹을건 없구 그래서 어머니는 나갔지. … 자네 여길 좀 보라구! 어머니는 우리를 굶어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어! 우리의 비좁은 방으루— 우리는 지하실에서 살구있었네. — 손님을 끌어오네… 침대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었구. … 그래 우리는 휘장뒤에서… 마루바닥에 앉아있네. … 그런데 나는 아홉살이였어. … 취한 녀석들이 어머니와 같이 오군 했네. … 그러면 나는 어린 누이동생들이 울어대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구있지. … 그렇다구 누가 우리의 눈물을 훔쳐줬는가? 자네 듣는가?… 아침에 그 저주맞은 한루블리를 받아쥐고…》 다위도브는 짯짯한 손바닥을 안드레이의 얼굴앞에 내밀고 괴로운듯이 이발을 갈았다. 《내 어머니가 번 한루블리를 가지고 빵을 사러 가네…》 하고는 갑자기 납덩이같은 검은 주먹으로 힘껏 책상을 두드리고 웨쳤다.

《자네! 자네는 어떻게 가련해할수 있는가?》

또다시 조용해졌다.

나굴리노브는 책상에 손톱을 박고 솔개미가 잡은것을 쥐듯이 그것을 붙잡고있었다. 안드레이는 말이 없었다. 다위도브는 흐느끼는것처럼 무겁게 숨쉬면서 잠시동안 방안을 거닐다가 안드레이의 어깨를 짚고 그와 함께 걸상에 앉아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에끼, 못난 사람같으니! 오자마자 대뜸 〈인제는 일을 안하겠다… 아이들… 불쌍하다. …〉 이러니 무슨 말을 문턱문턱 다 하나, 정신차리게! 자, 좀 얘기해보세. 부농의 가족들을 이주시키는게 불쌍해졌나? 좀 생각해보게! 그런자들이 없는 생활을 우리가 건설하는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장래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주시키는거네… 자네는 그레먀치의 정권당국에 서있는데 그래두 내가 자네를 선동해야겠나?》 하고 가까스로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는 부농들을 쏠룹끼루 이주시키네. 그렇다구 그들이 죽지는 않겠지? 일을 한다면 먹여주지. 그리구 우리가 건설할 때는 벌써 그 애들은 부농의 자식들이 아닐걸세. 로동계급은 그들을 재교양하거던.》 하고 담배갑을 꺼냈으나 손가락이 오래동안 떨려서 담배를 집어낼수가 없었다.

안드레이는 얼굴빛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진 나굴리노브의 얼굴을 줄곧 바라보고있었다. 다위도브에게는 뜻밖의 일로 안드레이가 급히 일어서자 그와 때를 같이해서 도약판에서 튀여나듯이 나굴리노브

가 뛰여일어났다.

《버러지같으니!》 그는 주먹을 부르쥐고 쨍 울리게 웅얼거렸다. 《그 무슨 본새루 혁명에 복무하고있나? 불쌍하다구? 나는… 지금 늙은이, 애, 녀편네들을 수천명 세워놓구…》 나굴리노브는 돌연히 거칠게 웨쳐댔다. 그의 확대된 커다란 눈동자에는 광채가 뛰놀고 두입모서리에는 게거품이 내돋았다.

《떠들지 말게! 앉게!》 다위도브가 놀라서 말했다.

안드레이는 책상을 뒤집어엎고 급히 나굴리노브에게로 한걸음 내디디였다. 그러나 이쪽은 바람벽에 몸을 기대면서 고개를 젖히고 눈을 부라리고 찌르는듯 한 목소리로 길게 웨쳤다.

《죽여버린다—아—아—아!…》 하고 왼손으로는 칼집을 찾는듯 허공을 그러쥐고 오른편손은 부들부들 떨면서 있지도 않는 칼자루를 찾으면서 자기자신이 벌써 한옆으로 쓰러졌다.

안드레이는 재빨리 그를 두팔에 받아안았다. 그리고 무거워진 마까르의 몸전체의 근육이 뻗치고 두다리가 강철로 만든 용수철같이 뻣뻣해지는것을 느꼈다.

《발작이네… 발을 잡게!…》 안드레이는 겨우 다위도브에게 웨쳤다.

×

그들이 학교로 왔을 때에는 이미 거기는 회의에 모인 사람들로 가득차있었다. 회의장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수 없었다. 까자크, 녀편네, 처녀들이 복도와 현관에 잔뜩 서있었다. 활짝 열어놓은 방문으로 사람의 운김이 담배연기와 섞여서 흘러나왔다.

얼굴이 창백하고 터진 입술에 피가 말라붙은 나굴리노브가 선두에서서 복도를 걸어갔다. 뚜벅뚜벅 걷는 그의 발밑에서 해바라기씨껍질이 빠작거렸다. 까자크들은 길을 틔워주면서 어줍게 그를 바라보았다. 다위도브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이가 다위도브야?》 꽃숄을 한 처녀가 해바라기씨를 잔뜩 싼 손수건으로 다위도브를 가리키면서 큰소리로 물었다.

《외투를 입었구나… 몸집은 작군.》

《작지만 다부지다. 봐라, 목이 든든한 종자소같구나! 씨를 붙이려

구 우리에게 파견했나부다.》 한 처녀가 둥그런 재빛눈을 가늘게 뜨고 다위도브를 바라보면서 깔깔거렸다.

《저 2만 5천명대오는 어깨가 널직하구나. 잘 안아줄게다, 얘들아.》 병정의 안해 나딸리야가 그린 눈섭을 움직이면서 유들유들하게 말했다.

《어째, 머리를 벌써 깬가봐? 처맸을 땐…》

《아마 이발에 깨물렸나부다. …》

《아니야, 찌또크가 그렇게 했어…》

《처녀들! 아가씨들! 왜 타곳사람에게만 눈을 팔구들 있어?》 파랗게 면도질을 한 중년의 까자크가 웃어대면서 길다란 팔로 처녀들을 한두름 그러안아 바람벽에 밀어댔다. 캑캑 소리들이 일어났다. 처녀들의 주먹이 까자크의 잔등을 북처럼 두드려대여 웅글은 소리가 났다.

다위도브는 교실방문까지 이르는 동안에 땀을 뺐다. 군중은 해바라기씨, 기름, 파, 값싼 눅거리담배냄새를 풍기고있었다. 처녀들과 젊은 녀편네들한테서는 궤짝안에 오래 두었던 곰팡이냄새와 머리기름냄새가 났다. 교실안에는 벌떼소리와 같은 와 하는 소리가 차있었다. 사람들자체도 분가한 벌떼와 같이 검은 덩어리를 이루고 들끓듯 욱실거리고있었다.

《여기 처녀들은 사납군.》 다위도브는 연단에 올라갔을 때 난감한듯이 말했다.

얇은 널판자로 만든 연단에는 교실용책상을 두개 합친것이 놓여있었다. 다위도브와 나굴리노브는 자리에 앉았다. 라즈묘뜨노브가 개회를 선언했다. 지체없이 주석단에 선출되였다.

《꼴호즈에 관해서 말할 언권을 구역당의 전권위원 다위도브동지에게 줍니다.》 라즈묘뜨노브의 말이 떨어지자 물가의 물결소리와 같던 말들이 쑥 줄어들고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다위도브는 일어나서 머리의 붕대를 수습했다. 그는 반시간쯤 말했는데 마지막녘에 가서는 목소리가 갈렸다. 장내는 침묵했다. 점점 더 무더워졌다. 두개의 남포등이 비치는 희미한 불빛속에서 다위도브는 앞의 몇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땀에 번뜩이는 얼굴을 보았다. 그 뒤는 온통 어스름에 싸여있었다. 한번도 그의 말을 중단시키지들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말을 마치고 물이 든 고뿌로 손을 뻗치자 소낙비처럼 질문이 쏟아졌다.

《모든것을 공동소유로 해야 합니까?》
《집은 어떻게 됩니까?》
《꼴호즈는 림시적인거요 혹은 영구적인거요?》
《개인농들은 어떻게 돼요?》
《그네들의 땅은 빼앗지 않소?》
《식사두 함께 하우?》

다위도브는 오래동안 세세히 대답해주었다. 문제가 복잡한 농업문제에 관한것일 때에는 나굴리노브와 안드레이가 그에게 협력했다. 규약총칙이 랑독됐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가운데 한줄에서 여우털로 만든 방한모를 쓰고 검은 반외투를 활짝 열어헤친 한 까자크가 일어섰다. 그는 언권을 청했다. 우로부터 드리운 남포등이 여우털모자에 엇비슷이 빛을 던져 부르르하고 벌건 털이 연기에 싸여 불붙고있는것 같았다.

《나는 중농이외다. 한데, 말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물론 두말할것두 없이 꼴호즈는 좋은것이기는 하외다마는 잘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깍제깍 되는대로 해놓구서 자 먹어라,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당에서 나온 전권위원동지는 〈그저 힘을 합해라. 그러면 리롭다. 레닌동지도 그렇게 말씀하고있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렇지만 전권위원동지는 농사일에 밝지 못하고 또 생각해야 할건 저이는 이제까지 로동생활을 해와서 보습뒤를 걸어보지도 못했구 아마 소를 어떻게 다루는지두 모를겝니다. 그렇기때문에 조금 실수했수다. 내 생각같아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꼴호즈에 모아야 할것 같군요. 일을 근면하게 하구 집짐승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한 꼴호즈에 모으구, 빈농들은 다른 꼴호즈에 모으구, 유족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으구, 제일 건달뱅이들은 국가보안부가 일하도록 가르쳐주라고 부탁해서 추방하는거외다. 사람들을 한무데기속에 몰아넣어가지구서는 뭐가 뭔지 모르게 되지요. 옛말에두 있듯이 백조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개가 그 꼬리를 집구서 뒤루 잡아당기구 가물치가 그것을 또 물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격이외다. …》

장내는 소리를 죽인 웃음으로써 이에 호응했다. 뒤에서 한 처녀가 날카롭게 캑 소리를 질렀다.

《참을성없는것들이 본새를 내는군! 여기서 나가라!》

여우털모자의 주인은 수건으로 이마와 입술을 훔치고나서 계속했다.

《착실한 살림군이 소를 고르듯이 사람들을 골라야 합니다. 살림군은 힘과 키가 어금지금한 소들을 고르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소들을 한데 메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센것은 애를 쓰구 약한것은 서게 되지요. 그리구 그것때문에 센것두 줄창 서야 합니다. 그래서야 무슨 일이 되겠어요? 동지는 말하기를 부농들을 빼놓구서는 부락전체가 한꼴호즈에 뭉쳐야 한다구요. …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리다. 찌트야, 아파나쓰야, 우리를 떼여주렴!…》

류비슈낀이 일어나서 끝이 우로 치솟아오른 검은 입수염을 조련치 않게 쫑깃하고서 방금 말한 사나이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꾸지마, 자네는 가끔 가다 아주 달콤하게 잘 말하는군! 녀편네라면 언제까지나 자네 말을 듣구있겠네! (낮은 웃음소리가 설렁대기 시작했다.) 자네는 빨라가 꾸지미체바에 대해서처럼 회의장을 구슬리구 있네그려…》

일제히 웃음이 터졌다. 남포등에서 뾰족한 불끝이 뱀혀바닥처럼 뻗쳐나왔다. 필시 그 어떤 얌전치 못한 우스운 내용을 가진 암시를 전체 참가자들이 알고있는터이였다. 나굴리노브까지 눈웃음을 지었다. 다위도브가 그에게 웃는 원인을 물으려고 할 때에 류비슈낀이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을 압도했다.

《목소리는 자네 목소리지만 타령은 남의 타령일세! 자네에겐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는게 좋겠지. 자네는 그것을 필시 프롤 르와네 기계조합에 들어있을 때 배웠겠지? 자네네 발동기는 작년에 압수했구 이제 우리는 자네네 프롤까지 송두리채 뽑아냈네! 자네들은 프롤의 발동기주위에 모여서 꼴호즈 비슷한걸 만들었었지. 허긴 부농들의것이지만. 자네들이 탈곡세로 얼마나 짜냈는지 자네는 잊지 않았겠지? 여덟뿌드에 한뿌드씩이였지? 자네는 아마 지금두 부자들에게 붙어있구싶을게야. …》

소동이 일어나 라즈묘뜨노브는 겨우 질서를 잡았다. 그러나 그냥 오래동안 술렁거리고 봄철의 우박같이 시비들이 날아왔다.

《그렇지, 너희들은 조합을 만들어 마냥 벌어댔지!》

《저런 이같은것들은 뜨락또르만으로는 튀겨낼수 없어!》

《네놈을 부농들이 삶아놨구나!》

《저자를 좀 핥아줘라!》

《네놈의 대가리루 해바라기씨 절구질을 했으면 좋겠다!》

약골인 중농 니꼴라이 류쉬냐가 다음언권을 청했다.

《그만두게, 뻔한 소릴거네.》 나굴리노브가 그에게 미리 귀띔했다.

《그건 어째서? 내가 바루 토론을 할는지두 모르지 않나. 그래, 나는 자네 의견을 반대해서 말해서는 안되나? 나는 말하겠지만 꼴호즈란건 자원적인것이니까 원한다면 들어가구 원치 않는다면 곁에서 보구있어두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곁에서 보구있으려네.》

《우리란건 누구요?》 다위도브가 물었다.

《이를테면 농민들이지요.》

《당신은 자기 소견이나 말하슈. 저마다 타구난 혀바닥이 있으니까 제각기 말할게요.》

《자기 소견을 말할수두 있지요. 다시말하면 나는 제 소견을 말하구있수다. 나는 꼴호즈에서 살림이 어떻게 되여가는지 보구싶수다. 만약 좋다면 들어가구 그렇지 않다면 뭣하러 기여들어가겠소. 그물안에 기여들어가는건 못난 고기외다. …》

《옳소!》

《들어가는걸 좀 기다리세!》

《새 살림일랑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보세!》

《제깍 들어가세!》

《아흐바뜨낀에게 언권을 줍시다. 말하시오.》

《친애하는 여러분, 나는 자기 얘기를 하겠소. 나는 친형 뾰뜨르와 함께 살았소. 그런데 사이좋게 살수가 없었소! 녀편네들이 자기들끼리 소동을 일으켜 물을 끼얹어두 떨어지지 않구 관자노리의 머리카락을 나꿔채니 나와 뾰뜨르사이두 좋지 못할밖에. 그런데 지금 전부락을 한데 몰아넣으려구 하구있소! 그렇게 되면 종잡을수 없게 어지러워질수밖에요. 밭을 갈려구 벌에 나가두 반드시 싸움이 벌어질게요. 이완이 내 소를 혹사하면 나는 또 그의 말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식이지요. 그러면 민경이 골머리 아픈 처지에 빠져야 할거요. 모두 코피가 터져가지구있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많이 일하구 또 어떤 사람은 적게 일하게 되구. 우리 일이란 형형색색이 돼서 공장에서 기계곁에 서있는것과는 다르오. 게서는 여덟시간만 지나구는 지팽이를 들구 돌아가지만…》

《당신은 언제 공장에 있은 일이 있소?》
《나는 다위도브동지, 있은 일은 없지만 압니다.》
《당신은 로동자에 대해서 아무것두 모릅니다! 있은 일두 없구 보지두 못하구서 왜 혀바닥을 마구 놀립니까! 로동자가 지팽이를 들구서 어쩌구 하는건 부농들의 수작이요!》
《그럼, 가령 지팽이는 들지 않는다 하더라두 일을 다 하구서는 가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뜩새벽부터 일어나서 밭일을 하거던요. 밤이 될 때까지 술한 땀을 흘리구 발에는 닭알만 한 물집이 생기지요. 그리구 밤에두 자지 못하구 소여물을 먹여야 하오. 잘 먹지 않구서는 소는 보습을 끌지 않으니까요. 나는 꼴호즈에서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두 다른 사람은, 가령 우리 꼴릐바 같은자는 밭고랑에서 잠만 잘걸요. 쏘베트당국에서는 빈농치구 건달은 없다, 그건 부농들이 지어낸 말이다라구 하지마는 그건 옳지 않소. 꼴릐바는 평생 뻬치까우에 누워있었소. 전부락이 아는 일이지만 그는 한해겨울 밭을 방문으루 뻗치구 누워 지냈지요. 아침녘이 되면 발에는 서리가 불리구 옆구리는 뻬치까벽돌에 델 지경이였지요. 이를테면 뒤를 보구싶어두 뻬치까에서 내려와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루 게을러졌거던요. 그런자와 내가 어떻게 일할수 있겠소? 나는 꼴호즈에 가입하지 않겠소!》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에게 언권을 줍니다. 말하시오.》
뒤줄에서 재빛외투를 입고 키가 작은 한 까자크가 오래동안 걸려서 연단으로 비집고 나왔다. 빛날은 기병모끝이 털모자, 방한모, 녀편네들의 여러가지 숄과 수건우에서 흔들거렸다.
나와서는 주석단을 등지고 서서 천천히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강연을 읽을텐가?》 좀까 우샤꼬브가 히죽거리면서 물었다.
《모자를 벗게!》
《보지 말고 하게!》
《저 작자는 평생 종이에다 모두 써두지.》
《하ー하! 유식하군!…》
마이단니꼬브는 때묻은 수첩을 꺼내들고 서투른 글씨로 써놓은 수첩장들을 급히 넘기기 시작했다.
《자네들 좀 있다 웃게. 그러다 울게 될지두 모르니!…》 그는 노한듯이 입을 열었다. 《그러이, 나는 무엇을 먹구사는가 적어두네. 이제 자네들한테 읽어주지. 여기서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하나두 조리

있는 말은 없었네. 살림살이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구들 있어. …》
다위도브는 긴장했다. 앞줄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목소리들이 잔물결처럼 학교안에 퍼져나갔다.
《나는 중농이외다.》 마이단니꼬브는 당황함이 없이 확신있게 말을 시작했다. 《작년에 나는 다섯제샤찌나 파종했지요. 당신들두 아다싶이 내겐 두마리의 황소와 말과 암소와 처와 세 자식이 있수다. 일하는 일군이라군 이것뿐이외다. 파종한데서 아흔뿌드의 밀과 열여덟뿌드의 쌀보리 그리구 스물세뿌드의 귀밀을 수확했지요. 자신에게 필요한건 식구들이 먹기 위해서 예순뿌드, 가금에 열뿌드가 필요하구 말에 줄 귀밀이 남지요. 내가 팔수 있는건 무엇이겠소? 닭을 팔구 읍으루 오리를 가져가구, 그밖에 또 얼마간 수입이 있지요!》 하고 눈에 애타는 빛을 띄우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 돈으루 내가 신발, 옷, 석유, 성냥, 비누를 살수 있겠소? 그리구 말두 네발에 쇠를 치려면 돈이 있어야지요? 왜 당신들은 잠자쿠 있소? 많건적건 수확이 있으면 또 좋지요. 그렇지만 대뜸 흉년이나 오면 어떡합니까? 그때엔 내가 뭣이 됩니까? 거라지요! 무슨 권리루 당신들은 나를 꼴호즈에 못들어가게 하구 밀어내오? 그래, 내가 꼴호즈에 들어가면 이보다두 나빠지겠소? 거짓말이요! 당신들, 중농들두 모두 같을거요. 그런데 무엇때문에 당신들이 반대하구 또 자기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혼란시키는지 그 까닭을 이제 말하겠소.》
《그자들을 비틀어주게, 꼰드라트!》 류비슈낀이 아주 좋아하며 웨쳤다.
《얼얼하게끔 비틀어놓겠소! 당신들이 꼴호즈를 반대하는건 자기의 소며 자기 둥지때문으루 해서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기때문이외다. 너절한것이래두 제것이라는 생각때문이외다. 쏘련공산당이 새로운 생활에루 당신들을 떠미는데두 당신들은 눈먼 송아지처럼 어미소젖꼭지아래 끌어가두 발을 버둥거리구 머리를 뒤흔들구있거던요. 그런즉 송아지가 젖꼭지를 빨지 않으니 밝은 세상을 살리가 없지! 내 얘기는 이걸루 전부외다. 나는 오늘루 꼴호즈가입신청을 쓰겠구 다른 사람들께두 그걸 권하오. 원치 않는 사람들은 마음대루 하구 다른 사람들에게나 훼방을 놓지 마소.》
라즈묘뜨노브가 일어섰다.
《여러분, 이건 뻔한 일이요! 남포등두 꺼져가구 시간두 늦었소. 꼴

호즈에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드시오. 호주들만 손을 듭시다.》
참가한 2백 17명의 호주들중에서 67명만이 손을 들었다.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손이 오르지 않았다.
《꼴호즈에 가입하구실지 않소?》 다위도브가 물었다. 《이를테면 마이단니꼬브동지가 옳게 말했군?》
《들구실지 않아요!》 하는 녀자의 목소리.
《임자네 마이단니꼬브한테서 지시는 안 받겠네!》
《조상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
《우리에게 강박하지 말아!》
웨쳐대는 소리들이 이미 조용해지기 시작했을 때 말아피우는 담배들에 불빛이 피여나군 하는 어둑컴컴한 뒤쪽 어느 줄에서 악의에 찬 누군가의 찢는듯 한 목소리가 뒤늦게 들려왔다.
《우리를 바보처럼 몰아넣을건 없다! 찌또크가 네 피를 냈지만 더 할수도 있어!》
다위도브는 회초리로 후려맞은듯 했다. 그는 쥐죽은듯이 조용한 속에서 얼굴빛이 파래지면서 이발이 하나 빠진 입을 벙긋이 벌리고 잠시 덤덤히 서있다가 갈린 목소리로 이렇게 웨쳤다.
《이놈아! 원쑤의 목소리야! 나는 피를 조금 흘렸다! 나는 아직두 너같은것을 모두 멸망시키기까지는 산다. 그렇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나는 당을 위해서… 나는 자기 당과 로동자들의 사업을 위해서 피를 전부 바치겠다. 듣느냐, 이 부농의 벌레야? 전부, 마지막 한방울까지!》
《누가 떠들었어?》 나굴리노브가 자세를 바로잡았다.
라즈묘뜨노브는 연단에서 뛰여내려갔다. 뒤줄들에서 걸상이 우지끈하더니 한 20명가량이 와르르 한데 쏠려 복도로 나갔다.
가운데서도 일어들 서기 시작했다. 유리가 우지끈 쨍그렁 깨졌다. 누가 들창유리를 밀어 깨뜨린것이다.
《모르긴 몰라두 찌모스까가 떠든것 같네! 프롤 르와늬네…》
《놈들을 부락에서 추방하자!》
《아니야, 그건 아낌까야! 뚜뱐쓰꼬이에서 온 까자크들이 여기 있네.》
《악선동하는 놈들은 혼을 내라. 쫓아내라!…》

회의는 한밤이 훨씬 지나서야 끝났다. 목이 쉬고 눈앞이 캄캄해질 지경으로 꼴호즈를 찬성 또는 반대해서들 말했다. 여기저기서, 심지어는 연단가까이에서까지 량파가 덩어리가 져서 자기네의 정당성을 증명하면서 서로 멱살들을 잡았다.

끈드라트 마이단니꼬브의 가장 가까운 이웃사람이 그의 웃옷을 배꼽까지 찢어놓았다.

하마트면 사태는 드잡이에까지 이를번 했다. 벌써 좁까 우샤꼬브는 걸상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뛰여넘어가서 끈드라트를 방조하려 했으나 다위도브가 그들을 말렸다. 좁까가 선참으로 마이단니꼬브에 대해서 비꼬아 말했다.

《여보게 끈드라트, 머리를 짜보게. 찢어진 웃옷대신에 몇시간동안 밭일을 해야 할지?》

《자네 색시가 만들면 얼마나 받을지 자네 계산 좀 해보게. …》

《뭣이! 그런 롱담을 하면 회의에서 쫓아낼테다.》

제미드 몰춘은 뒤줄의 걸상아래서 방문밑으로 스며드는 바람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워서 너무나도 떠들썩한 소음을 피해 외투자락으로 머리를 감싸고 짐승과 같이 자고있었다. 채 다 못뜬 양말을 가지고 회의에 온 중년부인들은 실뭉치와 바늘을 떨어뜨려가면서 홰에 오른 닭들처럼 졸고있었다. 다수가 돌아갔다. 여러차례 발언한 아르까쉬까 메노크가 꼴호즈를 옹호해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그의 목으로부터는 흡사히 게사니목소리같은 고약한 소리가 나올뿐이였다. 아르까쉬까는 울대뼈를 문지르고 애타는듯 팔을 한번 휘둘렀다. 그래도 역시 참아낼수가 없어서 자기 자리에 앉으면서 맹렬한 꼴호즈 반대자인 니꼴라이 아흐바뜨낀에게 전반적집단화가 실시된 후에 그가 어떻게 되리라는것을 제시했다. 즉 담배진에 누래진 엄지손가락을 다른 엄지손가락에 가져다대고 툭! 하고 시늉을 한것이다. 니꼴라이는 침을 뱉고 낮은 목소리로 욕지거리를 할뿐이였다.

제 10 장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는 회의에서 돌아가고있었다. 그의 머리우 상공에서는 북두칠성이 꺼지는 일없는 화로불처럼 조용히 불타고있었다. 추위에 탕탕 땅이 터지는 소리며 바삭바삭 잔가지들이 얼어드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만큼 고요했다. 집에 돌아온 꼰드라트는 외양간의 소한테로 가서 마른 꼴을 조금 안아다가 여물통에 넣었으나 래일은 소들을 공동집짐승우리로 끌어갈것을 생각하자 꼴을 크게 한아름 걷어안고 소리내여 이렇게 말했다.

《자, 인젠 헤여질 때가 왔구나… 얼룩아, 이리 좀 온! 4년동안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우리는 일했지… 그래두 우리에겐 신통한 일이 없었구나. 너희들두 굶다싶이 했구 나두 재미없었다. 그렇기때문에 너희들에게 공동생활을 하게 하련다. 뭘 부스럭대느냐? 정말 내가 말하는걸 알기나 하는것처럼.》 그는 얼룩황소를 발로 건드리고 한손으로 침을 흘리며 씹고있는 소아가리를 옆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 연보라빛눈과 시선이 마주치자 5년전에 자기가 이 황소를 기다리던 일이 문득 생각났다. 그때 늙은 암소는 누구도 보지 못했을만치 몰래 종자소를 붙였었다. 가을이 되여서도 오래동안 암소가 교미한 기색이 없었다.

《젠장, 새끼를 못 낳게 됐구나!》

꼰드라트는 암소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선뜩했다. 그러나 암소는 늙은 암소가 죄다 그렇듯이 새끼낳이를 한달 앞두고 11월말에는 드러눕게 되였다. 추운 밤 꼰드라트는 마치 무엇에 찔리운듯이 몇번이고 일어나서 발에는 펠트신을 꿰고 아래는 속옷바람으로 따뜻한 외양간으로 뛰여가보는것이였다. 새끼를 낳지 않았나? 추위가 죄여대느니만큼 송아지는 엄지가 핥아주기 바쁘게 얼어죽을수 있다. … 새끼낳이하기 전 며칠밤동안 꼰드라트는 거의 자지를 않았다. 어느날 아침 그의 처 안나가 즐거운 낯으로 장한듯 한 기색으로 들어왔다.

《늙은게 벌써 이슬이 비여요. 밤에는 꼭 낳겠어요.》

꼰드라트는 옷도 벗지 않고 등불도 켜놓은채 저녁부터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는 일곱번이나 소에게 가보았다! 이미 동이 트기 전에 여

덟번째만에야 외양간문을 열기도 전에 고르로운듯 한 깊은 신음소리를 들었다. 코등이 희며 조그맣고 벌써 엄지가 핥아주어 꺼칠꺼칠해진 송아지는 애처롭게 떨면서 산뜻해진 입으로 젖꼭지를 찾고있었다. 꼰드라트는 송아지를 두팔에 안아들고 자기 입김으로 따뜻하게 불어주면서 외투자락으로 감싸서 급히 집안으로 가져갔다.

《수놈이다!》 그는 기쁜듯이 웨쳤다. 안나는 십자를 그었다. 《고마워요, 하느님! 우리의 가난을 살펴주셨군요!》

조그마한 말 하나를 가졌을뿐인 꼰드라트는 똥줄이 바르게 궁했었다. 이윽고 황소는 자라서 여름이나 겨울의 혹한속에서나 길 혹은 밭에서 그 쪽발을 수없이 옮겨디디며 보습과 달구지를 끌면서 꼰드라트를 위해서 일을 잘했다.

소를 보고있던 꼰드라트는 울컥 목이 메여 눈이 따끔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는 울었다. 그리고 터져나온 눈물에 마치 속이 후련해지기라도 한듯이 외양간에서 돌아섰다. 남은 밤을 그는 자지 않고 담배만 피웠다.

…꼴호즈에서는 어떻게 될가? 자기가 깨달은것과 같이 꼴호즈에로의 길,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피할수 없다는것, 어린애들과 함께 집의 토방에서 자란 집짐승을 끌고가서 공동의 손에 넘기는것이 자못 애석하다 할지라도 끌고가야만 한다는것을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깨달을가? 자기 재산을 애석해하는 이 옹졸한 마음을 억눌러야 하며 그것이 가슴속에 기여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코를 골고있는 안해곁에 누워서 꼰드라트는 어둠에 아뜩해진 눈으로 어둠속을 들여다보면서 그런것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또 생각했다. (면양, 새끼염소들은 어디에 모으나? 그것들은 따뜻한 곳이 필요하구 잘 돌봐야 하지 않는가. 거의다 꼭같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분리한다? 어미들두 헛갈릴텐데 황차 사람들이야. 그리구 암소들은? 사료는 어떻게 모으나? 퍽 많은 손해를 볼게다! 귀찮아서 한주일후에라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때에는 영영 그레먀치를 버리구 탄광으루 가겠다. 남아있댔자 살 건덕지가 없거던.)

동틀 림박에야 그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 꿈에서도 그는 괴롭고 안타까왔다. 꼰드라트에게 있어 꼴호즈는 수월한것이 아니였다! 꼰드라트는 자기의 재산, 소, 자기의 땅과 그를 얽매고있는 미련을 눈물로써, 피를 흘리면서 끊어버린것이였다.…

아침에 조반을 먹고 그는 별에 그슬려 줄이 간 이마에 괴로운듯이 주름을 잡고 오래동안 걸려서 청원서를 썼다. 그것은 이렇게 되였다.

《공산당 그레먀치 세포비서 마까르 나굴리노브동지 앞

청원서

본인 중농 꼰드라트 흐리스또포로브 마이단니꼬브는 처와 어린 아이들과 재산 및 전체 집짐승과 더불어 꼴호즈에 가입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생활에 전적으로 찬성이니만큼 그 생활에 참가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까. 마이단니꼬브》

《들어갔수?》 안해가 물었다.

《들었소.》

《집짐승들을 끌어가요?》

《인제 끌어가지. … 바보같은게 떠들긴? 내가 작게 입을 놀리구 타일렀다구 또 그 소리야? 임자두 찬성하지 않았나!》

《꼰드라샤, 암소만은 아까와요. … 나도 찬성은 해요. 다만 몹시 마음이 안타까와서…》

그는 웃음을 띄우고 행주치마로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다. 어미에 덩달아 네살나는 맨밑의 계집애 흐리쓰찌쉬까도 울기 시작했다.

꼰드라트는 암소와 황소들을 몰아내여 말에 안장을 놓은 다음 개천으로 몰고갔다. 물을 먹였다. 소들은 집으로 발길을 돌리려 했으나 꼰드라트는 가슴속에 악이 북받쳐오름을 느끼면서 말을 몰아 소들의 길을 막고 촌쏘베트로 끌고갔다.

집집의 들창에 녀편네들이 다가붙어 내다보고 까자크들은 거리에 나오지 않고 울바자너머로 바라보았다. 꼰드라트는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그러나 촌쏘베트근처에 이르러 한모퉁이를 꺾어들자 장마당에서처럼 숱한 소, 말, 양들이 모여있는것을 보았다. 옆골목으로부터 류비슈낀이 나왔다. 그는 암소 한마리를 끌어오는데 그뒤로는 목에 맨 바줄을 덜렁거리면서 송아지가 급히 따라오고있었다.

《저것들 꼬리를 잡아매여 함께 몰아가세.》 류비슈낀은 익살을 피워보려고 했으나 보매 그는 생각에 잠긴듯 엄한 기색이였다. 그는 적지 않게 애를 써서 마침내 암소를 끌고 온것이였다. 볼우의 생생한 할퀸 자국이 그 증거였다.

《자네 그건 누가 허볐나?》

《솔직히 말하지, 녀편네야! 그 귀신같은것이 소때문에 달려들었어.》 류비슈낀은 입수염 한끝을 입에 물고 볼멘 소리를 내였다.

《땅크처럼 공격해오네그려. 외양간결에서 류혈의 참사가 벌어졌으니 이제는 창피해서 이웃 볼 낯두 없을 지경이네. 낫을 들구 달려들었거던. 실소리같지 않지? 나는 말했지. 〈붉은 빨찌산을 치겠어? 장군들을 처박지른 우리야!〉 그리구서 그것의 관자노리털을 걷어쥐였지. 누가 옆에서 봤다면 아마 가관이였을거야. …》

촌쏘베트에서 찌또크네 뜨락으로들 향했다. 아침부터 또 열두명의 중농이 밤사이에 생각을 고치고 청원서를 제출하고 집짐승들을 몰아왔다.

나굴리노브는 두명의 목수와 함께 찌또크네 뜰에서 여물통을 만들려고 적양나무를 깎고있었다, 그레먀치 로그 최초의 공동여물통을 만들려고.

제 11 장

꼰드라트는 오래동안 걸려서 지레대로 언땅을 까고 기둥구멍을 팠다. 그의 옆에서는 류비슈낀이 일했다. 소낙비를 실은 검은구름처럼 드리운 빠웰의 검은 모자밑으로 땀이 방울져 떨어지고 얼굴은 불탔다. 이발을 드러내면서 힘껏 맹렬하게 지레대를 내리쳤다. 언 땅덩이와 부스럭들이 콩튀듯 바람벽을 치면서 우로, 좌우로 날았다. 오래지 않아 여물통이 되여 위원회가 평정한 쉰여섯마리의 황소를 헛간으로들 몰아넣었다. 나굴리노브가 땀이 배여 어깨죽지에 착 들어붙은 보위색속옷바람으로 헛간에 들어왔다.

《도끼질을 좀 하더니 벌써 속옷이 쥐여짜게 됐군! 마까르, 자네는 변변한 일군이 못돼!》 류비슈낀이 머리를 흔들었다. 《날 좀 보게. 영차, 영차!… 찌또크네 지레대는 든든한데… 영차!… 빨리 반외투를

입게. 그러다 감기라두 들면 사지를 펴구 나자빠지네!》
나굴리노브는 반외투를 걸쳐입었다. 그의 량볼에서는 피빛으로 붉던 홍조가 식어가는 풍로불처럼 서서히 사라졌다.
《이건 독가스중독때문이야. 좀 일을 하거나 언덕진 곳을 올라가면 금시 숨이 막히구 심장이 두근거리거던… 마지막기둥인가? 잘됐어! 보게, 우리 살림살이가 어떤가?》 나굴리노브는 송진내 풍기는 새 여물통우에 죽 늘어선 소들을 열기있는 빛나는 눈으로 둘러보았다.
바깥뜰에서 암소들을 배치하고있는 동안에 라즈묘뜨노브가 좀까 우샤꼬브와 함께 왔다. 라즈묘뜨노브는 나굴리노브를 한옆으로 불러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게 마까르, 어제 일을 노여워말게. … 난 어린것들이 부르짖는걸 듣구 자기 새끼가 생각나서 가슴이 쥐여뜯기는것 같았네. …》
《젠장, 오지랖 넓은 자넬 쥐여뜯어주구싶네!》
《그야 그럴테지! 자네 눈만 보드래두 내게 대한 마음이 식었다는걸 알수 있어.》
《그런 소릴랑 작작하게! 어디루 가나? 마른 꼴을 모아와야겠네. 다위도브는 어디 있나?》
《그 사람은 쏘베트에서 메노크와 함께 꼴호즈가입신청을 검토하구 있네. 그럼 난 가겠네. … 내게는 아직 부농 하나가 그대루 남아있어, 쎄묜 라쁘쉬노브가. …》
《가야 또 그 모양일테지?…》 나굴리노브는 히죽거렸다.
《그런 말 말게! 사람들중에서 누구를 데리구 갈가? 아주 대단하네. 전투마당모양 그야말로 란장판이야! 집짐승들을 끌어오는가 하면 꼴을 나르구 어떤 사람은 벌써 종곡까지 날라왔네. 그건 도루 돌려보냈어. 종곡은 후에 착수하세. 누구를 보조루 데려갈가?》
《저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를 데려가게. 꼰드라트! 이리루 좀 오게! 위원장과 함께 라쁘쉬노브를 청산하러 가게나. 겁이 나지 않나? 어떤자들은 싫어하거던. 저 찌모페이 보르쑈브처럼 어줍은 축들이 있단 말이야. … 걸맞게 하는건 마음에 꺼리끼는 모양이지. …》
《아닐세, 왜 안 가겠나? 난 가겠네, 기꺼이.》
좀까 우샤꼬브가 다가왔다. 셋이서 거리로 나섰다. 라즈묘뜨노브는 꼰드라트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왜 자네는 찌프리구있나? 즐거워해야지. 보게, 부락이 얼마나 번

창한가. 개미집을 헤집어놓은것 같네.》

《그렇게 조급히 즐거워할건 없어. 힘들어질걸세.》 꼰드라트는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무엇이?》

《파종두 그렇구 집짐승들을 돌보는것두 그렇지, 이자 봤나, 세명이 일하구있는데 열명은 바자밑에 쭈그리구 앉아서 담배만 말구있으니…》

《모두 일하게 돼! 그건 처음이니까 그렇지 먹을게 없어지면 아마 담배들두 덜 피우게 되겠지.》

길거리 한모퉁이에서 발구가 하나 옆으로 넘어져있었다. 그곁에는 건초가 흩어져 쌓여있고 꺾어진 발구 발가름대가 딩굴고있었다. 멍에를 벗겨놓은 소들이 눈을 배경으로 색채가 더욱 뚜렷한 속생초를 씹고있었다. 한 젊은이—꼴호즈에 든 쎄묜 꾸쥀꼬브의 아들이 쇠스랑으로 느릿느릿 건초를 긁어모으고있었다.

《아니, 자넨 왜 죽은 사람처럼 그리구있나? 난 자네 나이땐 용수철 걸어놓은것 같았어! 자, 쇠스랑을 이리 내게!》 쬼까 우샤꼬브는 히죽거리고있는 젊은이의 손에서 쇠스랑을 쥐여채고 기침을 한번 하고나서 건초 한무더기를 난딱 치켜들었다.

《어떡하다 뒤집어엎었나?》 발구를 들여다보면서 꼰드라트가 물었다.

《내리막에 처박혔지요, 모르시겠어요?》

《자, 뛰여가서 도끼를 가져오게! 저 도네쯔꼬브네 집에서 가져와.》

발구를 일으켜세우고 발구 발가름대를 깎아서 끼웠다. 쬼까는 찬찬히 웃짐을 싣고 갈퀴로 다스렸다.

《꾸쥀꼬브! 어, 꾸쥀꼬브! 찍소리두 못 내게끔 때려줬으면 시원하겠군. 보라구, 소들이 꼴을 얼마나 짓밟았나! 제손으루 한아름 안아다가 울바자곁에다 던져서 먹게 할게지 되는대루 내버려두는 놈이 어디 있어?》

젊은이는 깔깔 웃고 소들을 몰아갔다.

《인젠 그건 우리거가 아니야요. 꼴호즈거야요.》

《저런 개자식 봤나?》 쬼까는 량쪽으로 엇나가붙은 눈으로 꼰드라트와 라즈묘뜨노브를 바라보면서 입걸게 욕설을 늘어놓았다.

라쁘쉬노브네 집에서 재산목록을 작성하고있는 동안에 그 집뜰안에 서른명가량 사람들이 모였다. 대부분은 근처의 녀편네들이고 까자크는 적었다. 키가 크고 쐐기모양의 턱수염을 기른 백발의 늙은이 라쁘쉬노브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분부했을 때 집에 모여있던 군중들속에서 수군수군하는 소리와 낮은 말소리들이 들려왔다.

《이게 무슨 일이람? 애써 벌어놓으니 이제는 무덤으루 가라는셈이지.》

《답답한 일이로군. …》

《저 사람 몸이 돼보면 쓰라리렷다! 그렇지?》

《누구나 아픈거야 매한가지지.》

《아마 저렇게 되기는 싫겠지. 그렇지만 자기가 낡은 제도하에서 빚대신으루 트리포노브한테서 재산을 뺏어가던 때에는 저렇게 되리라군 생각 못했을거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야. …》

《염소같은 수염을 기른 저 마귀는 저렇게 해야 해! 꽁무니에 불을 달아야 해!》

《부인네들, 남의 불행을 좋아하는건 죄요. 그것이 자기의 불행이 될지두 모르니까.》

《천만에! 우리가 가지구있는거라군 돌멩이쯤밖에 없소. 이보다 살림이 더 썩 좋아지진 않아!》

《작년에 수확기를 이틀동안 준 대신으루 내게서 제 계집한테서처럼 10루블리나 짜냈어. 그래, 그건 떳떳한것인가?》

라쁘쉬노브는 원래 돈많은 사람으로 알려져있었다. 그 늙은이는 고리대금이며 또한 도적질한것을 몰래 사는것까지 마다하지 않았으므로 벌써 전쟁전에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한때는 그의 집짐승우리에 도적질한 말들이 숨겨져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가끔, 그것도 많은 경우 밤에 집시, 말장사군들이 그를 찾아왔다. 라쁘쉬노브의 아귀진 손을 거쳐 도적들이 나는 큰 신작로로 해서 말들이 짜리찐, 따간로그, 우류삔스까야에 나갔다는것이다. 이전에 라쁘쉬노브가 1년에 서너번쯤 읍으로 가서 예까쩨리나2세의 초상이 든 루블리지폐들을 금화로 바꾸어오군 했다는것은 확실하게 부락에 알려져있었다. 어느해에는 그의 쌈지를 좀 털려는 일까지 있었으나 산전수전 다 겪은 세찬 늙은이 라쁘쉬노브는 듬직한 몽둥이

로 도적들을 격퇴하고 도망쳐왔다. 그러나 그자신도 누구한테 뒤떨어지지 않았다. 벌에서 남의 낟가리에 손을 대고있는 그를 붙들은 일도 있지만 그것은 젊었을 때의 일이고 나이가 지긋하자 아주 뻔뻔스러워져서 잘 건사하지 않은 남의것은 모조리 훔쳤다. 린색하기라고는 교회당에서 니꼴라 미를리끼스끼의 성상앞에 한끄뻬이까짜리 초를 세워놓고도 조금만 타면 다가가서 불어끄고는 십자를 긋고 호주머니에 쓸어넣는것이였다. 그렇게 해서 초 한자루를 1년이나 세웠다. 그리고 그가 그처럼 지나치게 알뜰한것과 하느님을 소홀히 하는데 대해서 나무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느님은 너희 바보들보다 현명하셔! 하느님은 초보다도 정성을 바라지. 하느님이 내게 손해를 끼칠 까닭이 있나. 예수님은 교회당에서 장사치들을 채찍으루 때리기까지 하셨다네.》

라쁘쉬노브는 부농을 청산한다는 소식을 태연스레 맞이했다. 그는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다. 값나가는것은 모두 미리 감추었고 또 믿을만 한 손에 넘긴것이였다. 그자신이 재산목록을 만드는것을 협조하고 넉두리하는 늙은 녀편네에 대해서는 발을 굴러 을러메다가 잠시후에는 달래듯이 이렇게 말했다.

《떠들지 마소, 로친네. 우리의 고통은 하느님께서 굽어살피시리다. 자비로운 하느님께서는 모든걸 보구계셔. …》

《그래, 하느님은 임자가 새 양털외투를 감춘건 보지 못하시나?》 죱까가 주인의 어조에 맞춰서 정색하고 물었다.

《어떤 털외투?》

《지난 일요일에 임자가 교회당에 입구갔던 털외투 말이야.》

《내게는 새 털외투가 없었네.》

《있었어. 지금쯤 어디 고이 들어가있을테지!》

《그게 무슨 말인가 제멘찌, 하느님앞에서 맹세하네만 없었네!》

《하느님이 벌을 내리리. 임자를 못에 박을게야!》

《그리스도두 굽어살피지만 자네 그건 괜한 말이네. …》 라쁘쉬노브는 십자를 그었다.

《마음에 죄를 짓구있군!》 죱까는 군중에게 눈을 끔쩍해서 녀편네와 까자크들의 미소를 자아냈다.

《나는 하느님앞에 죄가 없네, 참말이지!》

《털외투를 감췄지! 최후심판에서 벌을 받네!》

《그건 자기 외투에 대해서?》 라쁘쉬노브는 참다못해서 발끈했다.
《감춘데 대해서 벌을 받지!》
《하느님이 필시 너갈이 약으신줄 알어, 이 거짓말쟁이야! 하느님은 그런 일에는 간섭을 안하신다!… 털외투는 없어! 네가 늙은이를 놀려대는건 부끄러운 일이야. 하느님과 또 사람들앞에 부끄러운 일이야!》
《그럼 내가 씨앗으루 기장 두말을 꿔갔는데 서말을 받아낼 때는 임자 부끄럽지 않았나?》 꼰드라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또 거쉬여서 일동이 떠들어대는 속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으나 라쁘쉬노브는 젊은이처럼 혈기있게 그에게로 돌아섰다.
《꼰드라트! 임자 아버지는 존경할만 한 사람이였는데 임자는… 그 사람 생각을 해선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성서에두 〈넘어지는자를 밀치지 말라.〉 했거늘 임자는 이게 무슨 행동인가? 언제 내가 임자한테서 두말대신에 서말을 받았단 말인가? 그리구두 하느님? 하느님은 모든걸 보구계신다!…》
《하느님은 저 루추한 녀석에게 기장을 그저 주기를 원했을테지!》 라쁘쉬노브 녀편네가 가슴이 찢어져라고 웨쳤다.
《떠들지 마소, 로친네! 주께서는 참으셨구 우리에게두 일렀소. 수난자, 그이께서는 다시 관을 쓰시구 피눈물을 흘리셨다우. …》
라쁘쉬노브는 흐리터분한 눈물을 옷소매로 훔쳤다. 떠들썩하던 녀편네들이 저으기 조용해지고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꼰드라트는 다 적고나서 엄하게 말했다.
《자, 라쁘쉬노브령감. 여기를 나가게. 임자 눈물은 그리 애처롭지 않아. 임자는 숱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하느님의 도움을 안 받구래두 임자에게 벌을 줄테다. 나가라!》
라쁘쉬노브는 반편이고 또 말을 떠듬거리는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그의 머리에 털모자를 씌워준 다음 집을 나섰다. 군중이 물밀듯 그뒤를 따랐다. 뜰에 내려와서 늙은이는 미리 눈우에 반외투자락을 펴고 무릎을 꿇었다. 찌프린 이마에 십자를 긋고 사방을 향해서 땅에 닿을만큼 머리를 숙였다.
《나가! 나가!》 꼰드라트가 분부했다. 그러나 군중은 웅성거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웨치는 소리들이 들렸다.
《제집과 작별만이라두 하게 해라!》

《고약스레 그러지 마소, 안드레이! 한발을 널안에 들여놓은 사람인데 자네는…》

《평생 해온짓으루 하자면 저자는 두발을 다 쓸어밀어야 해!》 꼰드라트가 웨쳤다.

교회의 장로 그라쉘린로인이 그의 말허리를 끊었다.

《당국에 야유하는군? 너같은 놈은 때려줘야겠다!》

《이 살여우같은 놈아, 내가 너를 집두 못 찾아가게끔 때려주겠다!》

라쁘쉬노브는 절을 하고 십자를 긋고 모두가 듣도록 큰소리로 지껄여대여 동정심많은 녀편네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잘들 계시우, 정교 교인네들! 잘들 계시우, 여러분! 하느님의 복을 받아 몸성히들 지내구 피와 같이 귀중한 내 재산을 써주시우. 여기 살면서 나는 정직하게 일했구. …》

《도적물건을 샀구!》 현관에서 죰까가 다음구절을 가르쳐주었다.

《…낮바닥에 땀흘리면서 나날의 량식을 벌었구.》

《사람들을 파산케 하구 리자를 짜내구 자기자신이 도적질을 했지. 털어내놔! 개같은 놈, 네놈의 멱살을 잡아 땅에 처박을테다!》

《…날마다 량식을 벌었구 이제는 늙은 나이에…》

녀편네들은 코를 훌쩍거리고 머리수건끝을 눈으로들 가져갔다. 라즈묘뜨노브는 라쁘쉬노브를 일으켜세우고 뜰에서 쫓아내려고 《선동질을 말아, 그렇지 않으면…》 하고 소리를 지르려 했는데 그때 죰까가 란간에 기대여 서있던 현관에서 돌연히 야단법석이 일어났다.

라쁘쉬노브의 녀편네가 한손에는 깨우던 게사니알이 든 광주리를 들고 또 한손에는 흰눈과 또 해빛에 눈이 부셔서 조용해진 게사니를 안고 부엌에서 뛰여나왔다. 죰까는 그에게서 광주리는 쉽게 빼앗아냈다. 그러나 게사니는 라쁘쉬노브의 녀편네가 두팔로 그러안았다.

《손을 대지 말아, 이 더러운 녀석아! 손을 대지 말아!》

《이제는 꼴호즈의 게사니다!…》 죰까는 길게 내뻗친 게사니모가지를 틀어쥐면서 부르짖었다.

라쁘쉬노브의 녀편네는 게사니발을 잡고있었다. 그들은 현관 층층대에서 맹렬히 서로 싱갱이를 해가면서 기를 써 자기쪽으로 당겨댔다.

《이리 내라, 사팔뜨기야!》

《주먹이나 먹어라!》

《놓라는데두!》

《꼴호즈의 게사니야!…》 좀까는 숨을 헐떡거리며 웨쳤다. 《이 게사니는 봄에… 우리한테 게사니새끼를 까준다!… 너는 네가 처먹을건다 처먹었어. …》

엄부렁하게 머리카락이 흩어진 라쁘쉬노브의 녀편네는 펠트신으로 층계를 벋디디고 자기쪽으로 게사니를 잡아당기며 입에서 침을 튕겼다. 처음에 시끄럽게 깩깩 소리를 지르던 게사니는 보매 좀까가 숨을 끊어버린듯 조용해졌으나 계속 날개는 미친듯이 퍼덕퍼덕 푸득이고있었다. 흰 솜털과 깃털이 눈송이처럼 층층대우에 떠돌았다. 금시이제라도 좀까가 짓이겨 얼추 반주검이 된 게사니를 라쁘쉬노브 녀편네의 뼈다귀 진 손에서 빼앗아내리라 생각되던 바로 그 순간에 든든치 못한 게사니모가지가 끊어져나갔다. 라쁘쉬노브네 녀편네는 치마폭을 뒤집어쓰고 층계를 쾅쾅 울리며 출입문 층층대에서 요란스레 떨어져내렸다. 한편 좀까는 뜻밖의 일에 악 소리를 지르고 두손에 게사니대가리를 쥔채 뒤에 놓여있던 광주리우에 엉덩방아를 찧어서 깨우던 게사니알들을 깔고말았다. 전대미문의 웃음이 폭발되는통에 처마에 달려있던 고드름이 떨어졌다. 라쁘쉬노브는 짚었던 무릎을 일으키고 모자를 푹 내려쓰더니 침을 흘리며 만사에 무관심한 자기 아들의 손을 분연히 끌어당기며 거의 뛰다싶이 뜰에서 끌고나갔다. 라쁘쉬노브의 녀편네는 독한 아픔에 얼굴이 시커매져서 일어났다. 그는 치마를 털면서 대가리를 잃은채 층계옆에서 꿈틀거리고있는 게사니에게 손을 뻗치려 했으나 출입문 층층대근처를 돌아다니던 누런 수개가 게사니목에서 콸콸 흘러나오는 피를 보자 잔등의 털을 일으켜세우고 별안간 뛰여들어 녀편네의 코밑에서 그것을 가로채여 물고 어린애들의 휘파람과 쉬쉬 몰아내는 소리를 들어가며 뜨락으로 끌고갔다.

좀까는 얼이 나가게 놀란 오렌지빛눈으로 아직도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있는 게사니대가리를 라쁘쉬노브의 녀편네뒤에다 뿌려던지고 집안으로 들어가버렸다. 그리고 그냥 오래동안 뜨락과 골목에서는 마른 나무가지에 앉은 새들을 불안케 하여 놀라 날아나게 하면서 여러 목소리의 웃음이 계속 폭발되였다.

제 12 장

그레마치 로그의 생활은 성미사나운 말이 어려운 장애물앞에서 뒤발로 일어선것과 흡사하게 되였다. 까자크들은 낮에 골목과 집들에 모여서 꼴호즈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론쟁하고 예측들을 말했다. 련이어 매일 밤 나흘동안 회의가 소집되여 닭들이 홰를 칠 때까지 계속되였다.

나굴리노브는 그동안에 마치 중환으로 오래 누워라도 있은것처럼 수척해졌다. 그러나 다위도브는 여전히 침착을 유지하고있었고 다만 입술우와 량볼에 고집스런 깊은 주름살이 더욱 뚜렷해졌을뿐이였다. 어떻게 해서인지 그는 평소에 잘 발끈하고 또 그처럼 수월히 까닭모를 혼란에 빠지게 하던 라즈묘뜨노브에게도 자신심을 불어넣을수 있었다. 안드레이는 사나와보이는 두눈에 자신있는 웃음을 띄우고 공동집짐승우리를 살펴보면서 부락내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꼴호즈관리부가 선거될 때까지 꼴호즈를 지도할것이 위임된 아르까쉬까 메노크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군 했다.

《우리는 놈들의 뿔을 휘여잡읍세! 모두 꼴호즈에 들게 돼.》

다위도브는 구역위원회로 사람을 띄워 아직은 꼴호즈에 32프로밖에 인입되지 않았으나 꼴호즈로의 인입사업이 성공적인 속도로 계속되고있음을 통지했다.

자기 집에서 쫓겨난 부농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집에 거처했다. 찌모페이를 직접 관구의 검사한테로 보낸 프롤 르와늬는 자기의 친구인 보르쑈브—언젠가 빈농회의에서 손들것을 거절했던 바로 그자의 집에 거처했다. 보르쑈브의 비좁은 집에는 부농의 활동분자들이 모였다.

엿듣거나 엿보는 일이 없도록 보통 낮에 한두명씩 보르쑈브네 집에 모여드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우거나 촌쏘베트의 주의를 받지 않도록 뒤길과 탈곡장으로 해서 슬며시 기여들 들었다. 가예브 다위드와 또 부농청산후 거지미치광이가 된 점쟁이협잡군 라쁘쉬노브가 찾아오고 가끔 야꼬브 루끼치 오쓰뜨롭노브도 기맥을 살피려고 나타났다. 중농들중에서 니꼴라이 루쉬냐와 기타 꼴호즈를 결정적으로 반대해나선 몇몇이 이 본부에 가담했다. 빈농도 보르쑈브를 제외하고 또 두명이 있었다. 한명은 키가 크고 눈섭이 없는 까자크 와씰리 아따만 츄꼬브

인데 언제나 말이 적고 머리와 얼굴은 면도로 빤빤히 밀어 닭알처럼 매끈했다. 또 한명은 근위포병중대의 포병으로서 뽀드쫄꼬브와 같이 군대에 복무한 니끼따 호쁘로브로서 공민전쟁때에는 내내 군대복무를 회피했으나 그래도 1919년에는 깔믜크인인 아스뜨모브대좌의 토벌대에 복무하게 되였었다. 이것이 쏘베트정권하에서의 호쁘로브의 그후 생활을 결정했다. 1920년 꾸쑈브까에서 퇴각할 때 아스뜨모브의 토벌대에서 흰 줄이 세로 박힌 특무장의 견장을 단 그를 보았으며 또 그가 세명의 깔믜크까자크와 더불어 체포한 기관구철도로동자들을 심문하기 위해서 아스뜨모브에게로 몰고가는것을 본 사람이 부락에 세명 있었다. 그들은 야꼬브 오쓰뜨롭노브부자와 라쁘쉬노브로인이다. … 그들은 보았다. … 그리고 호쁘로브는 노보로씨스크로부터 그레먀치로 돌아와 오쓰뜨롭노브부자와 라쁘쉬노브가 살아남은것을 안 후로 그의 생활은 얼마나 어두워졌으랴? 앞가슴이 버그러진 이 근위포병은 반혁명에 대한 처벌이 엄혹하던 몇해동안 얼마나 공포를 느꼈으랴?! 편자를 박을 때 어떤 말이든 그 뒤발통을 쥐고 견뎌내는 그였지만 교활스러운 미소를 띠운 라쁘쉬노브와 만날 때면 서리맞아 풀이 죽은 늦가을의 떡갈나무잎처럼 덜덜 떨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를 무서워했다. 만나면 입술도 간신히 움직여 갈린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할아버지, 까자크의 목숨을 잡지 않게 해주슈, 고자질 마슈!》

라쁘쉬노브는 자못 노여웠으나 그를 안심시켰다.

《그게 무슨 말인가, 니끼따! 천만의 말이네! 그래, 내 목에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단 말인가? 구세주께서는 〈이웃을 자기자신과 같이 동정하라.〉 구 가르치셨네. 그런 생각일랑 하지두 말게, 나는 말하지 않아! 칼루 찌른대두 피두 안 나와. 나는 그렇네. … 다만 자네두 무슨 일이 있거들랑 나를 돕게나. … 저기 회의에서 누가 나를 반대하거나 당국에서 손을 댈려거든… 임자가 막아주게. 만일을 생각해서… 손이 손을 씻는 법이야. 그리구 치여든 칼은 칼에 맞아 망하느니. 그렇지 않나? 그리구 또 하나 부탁하구싶은데 우리 집 밭을 좀 도와서 갈아달라구. 아들녀석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도움이 안되구 사람을 얻자니 비싸서 …》

해마다 니끼따 호쁘로브는 라쁘쉬노브를 도왔다. 공짜로 밭을 일구어주고 곡식단을 날라들이고 라쁘쉬노브의 밀을 그의 탈곡기에 대주

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책상앞에 앉아 발그스름한 수염이 돋은 널직한 얼굴을 무쇠같은 손바닥에 묻고 생각했다.

(언제까지나 이 모양일가? 죽여버리겠다!)

야꼬브 루끼치 오쓰뜨롭노브는 귀찮게 간청도 하지 않고 위협도 하지 않았다. 워드까병쯤이 아니라 어느때건 좀더 큰일을 요구해도 감히 호쁘로브가 거절하지 못하리라는것을 그는 알고있는것이였다. 술은 야꼬브 루끼치도 그의 집에서 어지간히 자주 얻어마시고 판에 박은듯이 《한턱 잘 먹었네.》 하고 치사했다.

(그 술에 목구멍이 메여 죽어라!) 호쁘로브는 증오감에 넘치여 식탁밑에서 반뿌드나 됨직한 저울추같은 주먹을 그러쥐며 생각했다.

뽈롭쩨브는 아직도 그냥 야꼬브 루끼치네 집에서, 이전에 오쓰뜨롭노브의 늙은 어머니가 지내던 조그마한 살림방에서 지냈다. 로파는 뻬치까로 옮겨가고 뽈롭쩨브는 그가 있던 방에서 뜨거운 뻬치까벽돌에 힘줄 선 맨발을 뻗치고 뻬치까우의 짤막한 침상에 누워 거의 끊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밤이면 그는 잠이 든 집안을 자주 거닐었다.(접철에 게사니기름을 잘 쳐서 방문 하나 삐걱소리가 안 난다.) 가끔 반외투를 걸쳐입고 담배를 끈 다음 골짜기에 숨겨둔 말을 보러 나갔다. 오래동안 서만 있는 말은 소리를 죽이고 떨리는 울음으로 그를 맞이했다. 자기의 감정을 소리껏 표현할 때가 아님을 아는듯 했다. 주인은 손으로 말을 쓸어주고 그 구부러진 억쇠같은 손가락으로 다리의 관절들을 만져보았다. 언젠가 한번은 유난히 어두운 밤인데 말을 골짜기에서 끌어내여 안장도 없이 광야로 타고나갔다. 그는 밝기 전에 돌아왔다. 말은 땀으로 미역을 감고 자주 옆구리를 실룩거렸으며 가끔 가다 괴로운듯 부르르 떨었다. 아침이 되자 뽈롭쩨브는 야꼬브 루끼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린 읍에 갔었네. 거기서는 나를 찾구있어. 까자크들은 차비를 차리구 명령만 기다리구있네.》

꼴호즈문제로 두번째 그레먀치부락민총회가 소집되였을 때 야꼬브 루끼치는 그자의 권고에 의해서 꼴호즈가입을 호소하는 토론을 했으며 그 현명한 긍정적인 말과 또 부락에서 위신있는 야꼬브 루끼치가 자기의 꼴호즈가입을 성명하는 토론이 있은 후 대번에 31개의 청원이 들어온것으로써 다위도브를 무척 기쁘게 했다.

야꼬브 루끼치는 꼴호즈에 대해서 좋게 말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에는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뾜롭쩨브가 준 돈으로 꼴호즈를 반대하는 믿을만 한 중농들에게 한턱 내면서 자기도 약간 마시며 딴판으로 말했다.

《자네두 참 딱한 사람이군! 나야 자네와 달라 꼴호즈에 들어가야 하구 반대할수가 없지. 나는 괜치 않게 지냈으니까 부농으로서 청산해버릴지 모르지만 자네야 거기 비집구 들어갈 필요가 뭔가? 멍에를 못 봤나? 꼴호즈는 자네에게 밝은 세월 못 보게 굴레를 씌울거야!》 하고는 앞으로 있을 폭동이며 녀편네들의 공동소유에 대해서 이미 따로 외워둔것을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대자가 록록하거나 모든것을 해낼만 한 표독한 마음을 가지고있는자일 때에는 설복하고 간청하고 또 국외로부터 우리 편이 왔을 때 처벌을 당해야 한다고 위협해서 마침내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동맹에 들겠다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돌아갔다.

모든것이 착착 잘되여갔다. 야꼬브 루끼치는 동맹에 가맹한것이며 그가 이야기한것을 아무한테도 입밖에 내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면서 약 30명의 까자크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어느날 그 일을 끝마치려고 부농본부에 갔을 때(그도 또 뾜롭쩨브도 청산당한 부농들과 그들주위에 모인자들에게는 확고한 희망을 걸고있었으므로 그들의 가맹은 힘들지 않은 일로 보아 맨 마지막으로 들린것이였다.) 거기서 처음 그는 실패를 맛보았다. 야꼬브 루끼치는 외투에 몸을 감싸고 해질무렵에 보르쑈브를 찾아왔다. 사람이 살지 않는 방에 낮은 난로가 피워져있었다. 모두 모여있었다. 주인 찌모페이 보르쑈브는 무릎을 짚고서 잘게 꺾은 나무가지를 난로아가리에 집어넣고있고 걸상들우와 한구석에 쌓여있는, 게오르기훈장의 댕기처럼 오렌지빛과 검은빛 줄이 간 식용호박들우에 프롤 르와늬, 라쁘쉬노브, 가예브, 니꼴라이 루쉬냐, 와씰리 아따만 츄꼬브 그리고 포병이던 호쁘로브가 앉아있었다. 바로 이날 관구에 갔다돌아온 프롤 르와늬의 아들 찌모페이는 들창을 등지고 서있었다. 그는 검사가 자기를 엄격히 대한 일, 진정서를 심의할 대신에 자기를 체포해서 구역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일을 이야기하고있었다. 야꼬브 루끼치가 들어오자 찌모페이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격려했다.

《저 사람은 우리와 한동아리다. 찌모샤, 저 사람을 겁내지는 말아.》

이야기를 마친 찌모페이는 눈을 번뜩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판에 지금 반혁명빨찌산부대가 있다면 말을 타구 공산당원들을 쳐죽였으면 좋겠군요!》

《답답한 세상이 됐지요, 답답한…》 야꼬브 루끼치도 맞장구를 쳤다. 《그나마 이것으루 끝났다면 고마운 일이겠소만…》

《예서 더 어떤 나쁜 일을 기다리라나?》 프롤 르와늬가 골을 내였다. 《자네께는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 자기야 고소하겠지만 벌써 나도 빵에 굶주리기 시작했네. 제정하에서는 자네와 피차 어금지금하게 지냈는데 지금에 와서 자네는 온전하지만 나는 마지막신발까지 벗기웠어.》

《나는 그런 말을 하구있는게 아니네. 어떤 일이 있지 않을가 겁이 나서 그러지. …》

《어떤 일?》

《가령 전쟁이라든가. …》

《제발 그렇게 됩소사! 전승 성자님! 지금 당장이라두! 사도 행전에두 씌여있지. …》

《19년에 웨쉬냐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몽둥이를 들구라두 나가구싶네!》

《산채루 피대줄을 뽑아냈으면 좋겠어, 어험, 어험!》

필호놉스까야역부근에서 목을 부상당한 아따만 츄꼬브는 목동이 피리라도 부는것처럼 분명치 않게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백성이 격분하구있으니까 이발로라도 물구 늘어질게야!…》

야꼬브 루끼치는 린접읍들에서 조용치 않다는둥, 어떤 곳에서는 옛날 모스크바에 가담한 좋지 못한 아따만들을 머리에 자루를 씌워서 물에 잡아넣어 단단히 버릇을 가르친 그런 까자크식으로 이미 공산당원들에게 버릇을 가르치고있다는둥 조심히 운만 떼였다. 그는 나직나직 한마디한마디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했다. 북깝까즈변강들이 도처에서 조용치 않다는둥, 하류의 읍들에서는 이미 녀편네들이 공동소유화되여 공산당원들이 선참으로 공공연히 남의 녀편네들과 동침하고있다는둥, 봄까지는 륙전대의 상륙이 기대된다는둥 넌지시 그런 말들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한주일전에 그레먀치를 지나간, 이전에 같은 련대에 있던 아는 장교가 자기에게 말한것이라고 했다. 한가지만 야꼬브 루끼치는 숨겼으니 그것은 그 장교가 지금까지도 그

의 집에 숨어있는것이였다.
이때까지 잠자코 있던 니끼따 호쁘로브가 물었다.
《야꼬브 루끼치, 자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해주게. 우리가 폭동을 일으켜 여기 공산당원들은 몰살한다 하구. 그건 좋은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민경은 우리가 해낸다 해두 역에서 군대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그때엔 어떻게 하나? 그들을 대항해서 누가 우리를 인도하겠나? 장교들이 없네. 우리는 암둔해서 별을 보구 길을 알아내는 처지구. … 그렇지만 전쟁에서는 군대가 무턱대구 돌아다닌게 아니거던. 지도에 의해서 길을 찾구 사령부에서는 지도를 그리지. 우리에게는 손은 생긴다쳐두 머리가 없어.》
《머리두 생기지!》 야꼬브 루끼치는 열기있게 장담했다. 《장교들이 나타날거야. 그네들은 붉은군대 지휘관들보다 유식하거던, 옛날 사관후보생으로부터 상관이 됐구 고상한 학문을 받았거던. 그렇지만 붉은군대의 지휘관들이란 어떤가? 가령 우리 마까르 나굴리노브만 하드래두 그렇지. 대가리를 쳐자르는건, 그건 할수 있지만 그자가 한개 중대를 과연 지휘해내겠나? 절대루 안되지! 지도를 알아보겠나?》
《그래 장교들이 어디서 나타나나?》
《아낙네들이 낳지!》 야꼬브 루끼치는 사납게 말했다. 《니끼따, 그래 자네는 왜 양꼬랑지에 우윙씨 달라붙듯 달라붙나? 〈어디서, 어디서!〉하니 난들 어디선지 아나?》
《국외에서 오지, 꼭 와!》 프롤 르와늬는 위로삼아 말하고 변혁과 피비린내나는 복수의 달콤한 맛을 미리부터 맛보듯 흡족해서 한쪽 성한 코구멍을 벌리고 코를 울리면서 담배연기가 가득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호쁘로브는 일어나 발로 호박을 걷어차고 발그스름한 빛갈의 널직한 입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점잖게 말했다.
《그건 그렇다치구… 아닌게아니라 지금은 까자크들두 약해졌어. 폭동으루 해서 죽게 얻어맞았거던. 그네들은 나서지 않을게야. 꾸반두 지지하지 않을테구. …》
야꼬브 루끼치는 세기 시작한 입수염속으로 랭소하면서 장담했다.
《나서네, 한사람처럼 나서네! 그리구 꾸반두 온통 불에 휩싸일걸세. … 싸움에서는 이렇네. 지금은 내가 밑에 깔려서 어깨죽지루 땅을 비비구있어두 얼마후에는 내가 적을 타구 앉아서 발루 걷어차거던.》

《아니야, 자네들은 마음대루 하게나만 난 그건 동의 못해!》 하고 호쁘로브는 마음을 정함에 따라 몸이 싸늘해지는것을 느끼며 입을 열었다.

《나는 정권을 반대해나서지 않았구 또 다른 사람들에게두 권하지 않았네. 야꼬브 루끼치, 자네두 공연히 사람들을 그런짓에 충동질하구있네. … 자네네 집에 류숙한 장교루 말하면 그 사람은 딴곳 사람이구 흉악한 사람이네. 그자는 물을 흐려놓구는 한옆으루 물러날게구 그러면 또다시 우리만 혼이 나야 하네. 지난번 전쟁에서만 하드래두 그자들은 쏘베트정권을 반대해서 우리를 떠밀어내세우구 까자크들에게 나무껍질견장을 달아 급작스레 장교를 만들구는 자기들은 후방의 사령부에 들어앉아 다리 가는 아가씨들과 놀음만 했지. … 처벌문제가 나서자 누가 전체 죄를 뒤집어썼는지 기억하나? 노보로씨스크의 부두에서 붉은군대가 깔믜크인들의 대가리를 잘랐을즈음 장교들과 또 다른 고귀한 어른들은 기선을 타구 따뜻한 다른 나라루 가버렸지. 전체 돈군이 노보로씨스크에 양떼처럼 뭉쳐있었는데 장군들은 어떠했나?… 에이 참! 말이 난김에 묻구싶네만 자네네 집에 류숙했던 나으리는 지금두 자네네 집에 숨어있지 않나? 자네가 바께쯔에 물을 떠가지구 골짜기루 가져가는걸 한두어번 봤네. … 나는 생각했지, 무엇때문에 루끼치가 저리루 물을 날라갈가, 무엇에 물을 멕이는걸가? 그런데 좀 이따 들으니까 말이 울겠지.》

호쁘로브는 야꼬브 루끼치의 얼굴이 흰 입수염과 비슷한 빛으로 변하는것을 고소하게 보고있었다. 좌중이 놀라 설레기 시작했다. 호쁘로브는 잔인한 기쁨에 가슴이 메여지는듯 했다. 그는 말을 던지고는 마치 한옆에서 다른 사람의 말처럼 자기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 집에는 아무런 장교두 없네.》 야꼬브 루끼치는 웅글은 목소리로 말했다. 《운건 우리 집 암말이구 골짜기루 물을 나른 일은 없네. 가끔 구정물을 가져갔지. … 우리 집 돼지가 거기 있어서…》

《자네네 암말 울음소리는 내가 알아, 속이지 말게! 무슨 상관 있다구? 자네네 일에 나는 관계자가 아니니 자네들 마음대루 하게나. …》

호쁘로브는 모자를 쓰고 량옆을 둘러보면서 방문으로 걸어갔다. 라쁘쉬노브가 그의 길을 막았다. 그의 흰 턱수염이 떨렸다. 그는 이상스레 주저앉으면서 량팔을 벌리고 물었다.

《밀고하러 가느냐, 이 유다야? 이 변절자야? 네가 깔믜크인들과 토

벌대에 들어있었다는걸 내가 입만 벌리면…》
《령감 덤비지 마소!》 호쁘로브는 쇠로 부어낸듯 한 주먹을 라쁘쉬노브의 턱수염의 높이까지 쳐들면서 차거운 분노속에서 입을 열었다. 《나는 먼저 자수할테다. 이렇게 말할테야, 토벌대에 들어있었구 특무장이댔소, 재판해주시유, 이러구. 그렇지만 이봐! 너 늙은것두… 너두…》 호쁘로브는 숨이 막혔다. 그의 넓은 앞가슴이 대장간 풀무처럼 풀썩거렸다. 《네놈은 내 피를 몽땅 빨아냈지! 한번만이라두 네놈에게 잘코사니야 하구싶어!》
그는 팔을 둘러메지도 않고 뚱기치듯 라쁘쉬노브의 얼굴에 한대 먹이고 문설주옆에 쓰러진 늙은이를 돌아보는 일도 없이 방문을 탕 닫고 나가버렸다. 찌모페이 보르쑈브가 빈 바께쯔를 가져왔다. 라쁘쉬노브는 무릎짚고 바께쯔우에 몸을 일으켰다. 그의 코구멍으로부터 마치 끊어놓은 정맥에서처럼 검은 피가 쏟아졌다. 쥐죽은듯 한 정적속에서 다만 라쁘쉬노브가 흐느끼고 이를 가는 소리와 라쁘쉬노브의 턱수염에서 피가 흘러내려 바께쯔언저리를 울리며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종내 끝판이 났구나!》 많은 식구를 가진 청산당한 부농 가예브가 말했다. 그러자 즉시 니꼴라이 루쉬냐가 인사도 안하고 모자도 쓰지 않은채 집에서 나가버렸다. 그에 덩달아 아따만 츄꼬브가 거쉬고가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남기고 얌전스레 걸어나갔다.
《헤여져야겠소,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은 없겠소.》
몇분동안 야꼬브 루끼치는 덤덤히 앉아있었다. 그는 심장이 부풀어올라 목을 치미는것 같았다. 숨을 돌리기가 힘들었다. 머리에 울컥울컥 피가 오르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번지였다. 이미 여러 사람이 가버렸을 때 그는 일어섰다. 바께쯔우에 몸을 기울이고있는 라쁘쉬노브를 피해서 돌아가면서 그는 찌모페이 르와늬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하구 함께 가세, 찌모페이!》
찌모페이는 말없이 저고리를 입고 모자를 썼다. 두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부락에서는 켜져있던 마지막등불들도 꺼졌다.
《어디루 가자우?》 찌모페이가 물었다.
《내 집에 가세.》
《무엇하러?》
《이제 알게 되네, 서두르세.》

야꼬브 루끼치는 우정 촌쏘베트옆을 지나갔다. 거기에도 불빛이 보이지 않고 들창들이 시커먼 입을 벌리고있었다. 두사람은 야꼬브 루끼치의 집뜰에 들어섰다. 현관 층층대가까이에 와서 야꼬브 루끼치는 찌모페이의 저고리소매에 손을 가져다대고 걸음을 멈췄다.

《여기서 좀 기다리게, 이제 내 자네를 부를테니.》

《좋습니다.》

야꼬브 루끼치는 문을 두드렸다. 며느리가 빗장을 뽑았다.

《아버지유?》

《나다.》 그는 들어온 뒤 방문을 꼭 닫고 다른데로는 안 가고 살림방문을 두드렸다. 거쉰 목소리가 물었다.

《누구야?》

《납니다, 알렉싼드르 아니씨모비치. 괜찮을가요?》

《들어오게.》

뽈롭쩨브는 검은 숄을 드리운 들창 맞은편 조그마한 책상앞에 앉아서 무엇을 쓰고있었다. 글씨가 가득 쓰인 종이를 왁살스러운 손바닥으로 덮고 이마가 벗어진 머리를 돌렸다.

《그래 뭔가? 일이 어떤가?》

《좋지 못해요. … 큰일 났습니다!》

《뭐? 빨리 말해!…》

뽈롭쩨브는 뛰여일어나서 글쓴 종이를 호주머니에 쓸어넣고 얼굴에 피가 올라 검붉어지면서 마치 뛰여들기 전의 커다란 야수처럼 긴장되여 만단의 차비를 차리고 몸을 굽혔다.

야꼬브 루끼치는 일어난 일을 두서없이 그에게 이야기했다. 뽈롭쩨브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깊은 눈확에서 그의 푸르스름한 조그마한 두눈이 매섭게스리 뚫어지게 야꼬브 루끼치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서히 자세를 바로잡고 주먹을 그러쥐였다폈다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면도로 빤빤히 민 입술을 무섭게 비꼬고 야꼬브 루끼치에게로 한걸음 내디디였다.

《이 너절한 놈! 아니, 이 늙은 못난 놈아, 나를 망하게 하려니? 일을 망쳐놓고싶으냐? 너는 벌써 어리석은 부주의루 해서 반나마 일을 망쳤다. 내가 너더러 뭐라구 일렀느냐? 내가 뭐라구 일렀어? 한사람, 한사람 모두 미리 기맥을 짚어봐야 했을거다! 그런데 너는 소가 낭떠러지에 빠지듯 했구나!…》 소리를 죽인 그의 웅얼거리는듯 한 굵은

속삭임은 야끄브 루끼치를 질리게 했으며 더욱 커다란 공포와 혼란속에 빠뜨렸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냐? 그놈은 벌써 밀고를 했는가, 그 호뻐로브는? 엉? 안했어? 말해봐라, 이 그레먀치의 등신아! 안했어? 그놈이 어디루 갔는지 뒤를 밟았는가?》

《아니요. … 알렉싼드르 아니씨모비치… 나으리, 우리는 이제 끝장이 났수다!》 야끄브 루끼치는 머리를 움켜쥐였다. 그의 갈색뺨으로 해서 희읍스름한 입수염우로 눈물이 간지럽게 흘러내렸다. 그러나 뽈롭쩨브는 이발을 갈았을뿐이였다.

《이봐, 일을 해야 하지, 그렇게… 네 아들은 집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 나는 사람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어떤?》

《프롤 르와늬의 아들이웨다.》

《그래서, 왜 그자를 데려왔는가?》

그들은 시선이 마주쳤다. 말이 없이도 인차 속내를 깨달았다. 야끄브 루끼치가 먼저 시선을 돌리고 《믿음직한 젊은인가?》 하는 뽈롭쩨브의 질문에 다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뽈롭쩨브는 맹렬한 기세로 못에서 자기 반외투를 벗기고 베개밑으로부터 깨끗이 닦은 권총을 뽑아 고륜을 한번 돌렸다. 그러자 틈사이로 약통실에 꽂은 니켈탄알 꼭대기들이 둥글게 번쩍하고 빛났다. 외투단추를 채우면서 뽈롭쩨브는 전투때처럼 똑똑하게 호령했다.

《도끼를 들어. 제일 가까운 길루 안내해. 가는데 몇분이나 걸릴가?》

《멀지 않아요, 한 여덟집 건너섭니다. …》

《그자의 가족은?》

《처가 하나 있을뿐이죠.》

《이웃들은 가까이 있는가?》

《한쪽은 탈곡장이구 또 한쪽은 정원입니다.》

《촌쏘베트는?》

《거기까지는 멀어요. …》

《가세!》

야끄브 루끼치가 장작 패는 곳으로 도끼를 가지러 간 동안에 뽈롭쩨브는 왼손으로 찌모페이의 팔굽을 그러쥐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절대루 내가 하라는대루 해라! 저리루 가서 젊은이, 임자는 변성으루 말하게. 촌쏘베트의 경비원인데 그자에게 서류를 가져왔다구 해. 그자자신이 문을 열두룩 해야 해.》

《이것 보슈, 동지. 당신을 뭐라구 불러야 할지. … 아직 통성을 못해서… 저 호쁘로브는 황소처럼 세차서 주의하지 않으면 맨주먹으루두 일을 낼수 있으니만큼…》 찌모페이는 스스럼없이 말하려고 했다.

《닥쳐!》 뽈롭쩨브는 그를 막고 야꼬브 루끼치에게로 손을 뻗쳤다.

《이리 내라. 안내해.》

야꼬브 루끼치의 손바닥으로 해서 적양목자루가 따뜻해지고 축축해진 도끼를 반외투밑의 바지허리띠에 꽂고 외투깃을 세웠다.

말없이 골목을 걸어갔다. 뚱뚱하고 큰 뽈롭쩨브의 체구옆에서는 찌모페이가 어린애같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걷는 대위와 나란히 측은스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걸어갔다. 그러나 어둠과 일으켜세운 외투깃이 방해가 되였다.

울바자를 타고 탈곡장으로 넘어섰다.

《발자국을 밟고 와, 자국이 하나만 남게.》 뽈롭쩨브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숫눈우로 승냥이처럼 꼬리를 물고 한걸음한걸음 걸어갔다. 뜰로 들어가는 삽짝문가까이에 와서 야꼬브 루끼치는 왼쪽옆구리에 손바닥을 가져다대고 울기라도 하려는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떡하나. …》

뽈롭쩨브가 방문을 가리켰다.

《두드려라!…》 찌모페이는 말을 들었다기보다 그의 입술의 움직임으로 그것을 알아차렸다.

나직이 걸쇠를 다치자 즉시로 방문 오른쪽에 흰 모자를 쓰고 서있던 낯선 사람의 손가락이 반외투의 맞단추를 맹렬히 쥐여뜯는 소리를 들었다. 찌모페이는 또 한번 두드렸다. 야꼬브 루끼치는 뜨락마당에 세워놓은 보습밑에서 기여나온 개새끼를 무서움 가득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추위에 언 개새끼는 소리도 내지 않고 입을 벌려 으르렁거리다가 갈대로 지붕을 이은 움으로 가버렸다.

×

호쁘로브는 걸어오는 동안에 저으기 진정되기는 했지만 괴로운 생각에 잠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처가 그에게 저녁을 차려주었다.

그는 흥심없이 조금 먹고 서글프게 말했다.

《마리야, 난 지금 절군 수박이 먹구싶구려.》

《해정으루요?》 마리야는 웃음을 띄웠다.

《아니요, 난 오늘은 술을 안 마셨소. 마슈뜨까, 난 래일 토벌대에 있었다는걸 당국에 자수하겠소. 난 앞으루 더 이렇게는 지내지 못하겠소.》

《아유, 희한한 생각두! 왜 오늘은 그렇게 이상해졌수? 알수가 없군요!》

니끼따는 널직하게 난 불그스름한 입수염을 쫑깃하고 미소를 띄웠다. 그리고 이미 자리에 누워서 다시금 정색하고 말했다.

《건빵을 만들든가 간없는 무슨 길식량을 좀 구워주구려. 난 감옥에 가겠소.》

그리고는 처의 간청도 듣지 않고 뜬눈으로 누워서 생각했다.

(자기자신과 또 오쓰뜨롭노브의 일두 말하겠다. 그놈들두 감옥에 갈이 가게! 나는 어떻게 될가? 총살하지는 않겠지? 3년쯤 들어가서 우랄에서 나무나 자르다가 청백한 몸이 돼서 나오겠다. 그때에는 아무두 과거일에 대해서 탓하지 않겠지. 자기의 죄때문에 더는 누구에게 일해주지 않아두 될거야. 아스띠모브의 토벌대에 들어가게 된 사연을 정직하게 말하겠다. 전선에 나가는것을 기피했댔소, 누가 총알앞에 이마빼기를 내대구싶었겠소? 이렇게 말할테다. 재판은 하라지. 오래전 일이니까 경해지겠지. 죄다 이야기하겠다! 나자신이 사람을 총살한것두 아니구 채찍질루 말하자면 그야 탈주한 까자크들을 볼쉐비즘으루 해서 몇사람에 대해서 채찍질을 했지. … 나는 그때 어두운 밤보다두 더 깜깜이여서 뭣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는 잠이 들었다. 오래지 않아 그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첫잠을 깼다. 잠시 누워있었다. (누가 귀치 않게 이럴가?) 두드리는 소리가 반복되였다. 니끼따는 화가 나서 기침을 하면서 슬슬 일어났다. 남포등을 켜려고 했으나 마리야가 잠을 깨여 이렇게 속삭였다.

《또 회의가 아닐가요? 불을 켜지 마슈! 밤낮 안정을 못하게 하니… 저주맞을것들이 눈이 뒤집혔어!》

니끼따는 맨발로 복도에 나갔다.

《누구야?》

《나야요, 니끼따아저씨. 쏘베트에서 왔어요.》

귀에 설은 어린애목소리… 니끼따는 그 어떤 불안스러운 조짐을 느끼고 이렇게 물었다.

《누구야? 무슨 일이야?》

《나야요, 꾸쩬꼬브 니꼴라이야요. 위원장한테서 아저씨께 문서를 보냈는데 이제 곧 쏘베트에 오라는 분부야요.》

《문밑으루 넣어라.》

…방문밖에서는 순간 조용해졌다. 고슬고슬한 흰 털모자밑에서 독촉하는 무서운 눈길, 잠시 당황했던 찌모페이는 출로를 발견했다.

《확인증이 필요하니까 문을 열어줘요.》

그는 호쁘로브가 초조히 발을 옮겨짚으며 토방에서 맨발로 버석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검은 빗장이 덜컥했다. 열린 4각형의 문간에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호쁘로브의 흰 모습이 떠오른다. 이 서슬에 뽈롭쩨브는 문지방에 왼쪽발을 걸고 도끼를 둘러멨다가 등으로 호쁘로브의 코마루를 내려친다.

니끼따는 망치에 얻어맞아 죽기 직전에 아뜩해진 소모양 무릎을 꺾고 풀썩 뒤로 쓰러졌다.

《들어들 가! 문에 빗장을 꽂아!》 뽈롭쩨브는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명령한다. 그는 문손잡이를 손더듬하여 찾은 다음 도끼는 손에 쥔채 집안의 방문을 열어젖힌다. 방 한구석의 침대로부터 홑이불 부스럭대는 소리와 불안에 찬 녀자목소리.

《무얼 넘어뜨리기라두 했소?… 거기 누구야요. 니끼뚜스까야요?》

뽈롭쩨브는 도끼를 떨어뜨리고 두팔을 뻗치고 침대로 달려든다.

《아유머니, 게 누가 없소!… 웬 사람이요? 사람 살류. …》

찌모페이가 문설주에 지끈 몸을 부딪치면서 방안으로 뛰여든다. 그는 한구석에서 숨이 막혀 캑캑거리는 소리와 날치는 소리를 듣는다. 뽈롭쩨브는 녀편네를 덮치고 베개로 그의 얼굴을 엎누르고서 량팔을 비틀어 손수건으로 잡아맨다. 그는 빠져나려고 발버둥치는 든든한 녀편네의 따뜻한 체온과 함께 붙잡힌 새와 같이 세차게 뛰노는 심장의

고동을 느낀다. 문득 일순간 그의 몸속에서 지지는듯 한 벅찬 정욕이 불붙어오른다. 그러나 그는 왁 소리를 지르고 맹렬히 한손을 베개밑으로 들이밀어 말아가리라도 벌리듯이 녀편네의 입을 벌린다. 녀편네는 이제 웅글은 외마디소리도 내지 못한다. 뽈롭쩨브가 그의 입에다 바로 목구멍까지 치마를 뭉쳐 틀어넣은것이다.

뽈롭쩨브는 결박한 녀편네곁에 찌모페이를 남겨두고 자기는 문가로 가서 병에 걸린 말처럼 씩씩거린다.

《성냥!》

야꼬브 루끼치가 불을 켠다. 뽈롭쩨브는 희미한 불빛밑에 번듯이 나가넘어진 호쁘로브우에 몸을 기울인다. 포병은 거북스럽게 다리를 굽히고 한쪽 볼을 토방에 댄채 누워있다. 그는 숨이 붙어있는데 널직하고 불룩한 그의 가슴이 몹시 불어오른다. 성냥이 꺼진다. 뽈롭쩨브는 호쁘로브의 이마우 도끼맞은 자리를 손으로 더듬어본다.

《나는 놔주슈. … 나는 피에는 비위가 약해서…》 야꼬브 루끼치가 속삭인다. 그는 오한에 떨고 다리가 굽어든다. 그러나 뽈롭쩨브는 대답도 안하고 명령한다.

《도끼를 가져와. 저기… 침대옆에 있어. 그리구 물두.》

물을 끼얹어 호쁘로브는 정신을 차렸다. 뽈롭쩨브가 무릎으로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이새소리로 묻는다.

《밀고했느냐? 변절자야, 말해라! 이봐, 성냥!》

성냥이 또다시 몇초동안 호쁘로브의 얼굴과 반쯤 뜬 그의 눈을 비친다. 야꼬브 루끼치의 손이 떨리고 조그마한 성냥불도 떨린다. 문앞에서는 지붕에서 늘어진 갈대이삭에 누런 불빛이 춤춘다. 성냥이 다타서 야꼬브 루끼치의 손을 지지건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뽈롭쩨브는 질문을 두번 반복하고나서 호쁘로브의 손가락을 꺾기 시작한다. 호쁘로브는 신음한다. 그리고 돌연히 엎드려 눕는다. 서서히 겨우 팔과 무릎을 짚고 일어선다. 뽈롭쩨브는 긴장한 나머지 안깐힘을 쓰면서 다시금 그를 뒤로 제껴뜨리려고 애쓴다. 그러나 곰같은 힘으로 포병은 일어선다. 왼손으로 그는 야꼬브 루끼치의 허리띠를 잡고 오른손으로 뽈롭쩨브의 목을 그러안는다. 뽈롭쩨브는 머리를 두어깨사이로 움츠러뜨리고 호쁘로브의 차거운 손가락이 뻗어오는 목을 감추듯이 하고 웨친다.

《불!… 빌어먹을! 불이라는데두!》 그는 어둠속이라 도끼를 손

더듬으로도 찾아내지 못한다.

도끼가 뾜롭쩨브의 손에 잡혔다. 뾜롭쩨브는 무진 애를 써서 호쁘로브의 껴안은 팔에서 벗어나와 이번에는 도끼날로 한번, 또 한번 내리친다. 호쁘로브는 쓰러진다. 쓰러질 때 머리가 걸상에 걸린다. 그 충격을 받아 걸상에서 바께쯔가 굴러떨어진다. 그 소리가 총소리처럼 요란하다. 뾜롭쩨브는 이발을 부득부득 갈면서 쓰러져있는 사람을 요정낸다. 그리고는 야꼬브 루끼치를 방안에 끌어들이고 들어온 방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 침흘리개야! 계집년의 대가리를 붙잡아. 우리는 알아야 해. 녀석이 밀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젊은이, 자네는 계집년의 발을 누르고있어!》

뾜롭쩨브는 결박당한 녀편네우의 가슴으로 엄습한다. 한마디한마디 똑똑 끊어서 묻는다.

《네 남편이 저녁에 돌아온 후 쏘베트나 혹은 다른데 갔었느냐?》

그는 방안 어스름속에서 무서움에 얼이 빠지고 다 쏟아버리지 못한 눈물로 해서 부어오른 두눈과 숨이 막혀 거멓게 질린 얼굴을 본다. 그는 속이 아니꼬와진다. 빨리 여기서 밖으로 나가고싶다. … 그는 증오를 품고 잔인하게 손가락으로 녀편네의 귀를 쥐여비튼다. 무서운 아픔에 녀편네는 모지름을 쓰고 잠시동안 의식을 잃는다. 이윽고 정신이 들자 불현듯 혀바닥으로 침에 젖은 뜨끈한 입마개를 밀어낸다. 그러나 웨쳐대지는 않고 짤막짤막 흐느끼는 속삭임으로 간청한다.

《어른님네! 어른님네, 제발 살려주슈! 죄다 말하겠어요!》 그는 야꼬브 루끼치를 알아본다. 야꼬브 루끼치는 그와 친한 사이여서 한 7년쯤전에는 조카 아들애에게 그와 같이 이름을 붙이지 않았던가. 불성모양이 된 찢어진 입술을 간신히 말더듬처럼 움직인다.

《아저씨!… 여보슈!… 무엇때문이요?…》

뾜롭쩨브는 깜짝 놀란듯이 넓은 손바닥으로 그의 입을 막는다. 아직도 녀편네는 자비를 바라는 희망의 발작에서 피투성이가 된 입술로 그 손바닥에 입맞추려 해본다. 그는 살고싶은것이다! 그는 무서운것이다!

《남편이 어디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그는 고개를 가로 흔든다. 야꼬브 루끼치는 뾜롭쩨브의 팔을 붙잡는다.

《나으리… 크쌴 아니씌믜치!… 이 녀편네게는 손을 대지 마슈.… 이것은 을러놓으면 말하지 않을거외다!… 절대루 말하지 않을거외다!…》
뽈롭쩨브는 그를 밀쳐낸다. 그는 이 난처한 몇분동안에 처음으로 손잔등으로 얼굴을 훔치고 생각한다.
(래일이면 고자질할게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집, 까자크계집인데 장교로서 나는 부끄럽구나.… 젠장!… 마지막을 보지 않도록 눈이나 가려주자.…)
아마포속옷자락으로 그의 머리를 감싼다. 아이 안 낳은 30줄 녀편네의 균형잡힌 몸우에 일순간 시선이 머문다. 녀편네는 총알맞은 커다란 흰새처럼 다리를 꼬부리고 모로 누워있다.… 뽈롭쩨브는 어스름속에서 문득 녀편네의 명문과 거무스름한 배가 졸연간 땅을 덮으면서 번들거리기 시작함을 본다. (왜 머리를 덮었는지 깨달았구나, 젠장!…) 뽈롭쩨브는 얼굴을 가리운 속옷우로 도끼날을 힘껏 내려친다.…
야꼬브 루끼치는 어린 아이에게 같은 이름을 붙여준 녀편네의 몸이 오래 계속되는 경련과 더불어 늘어지는것을 느낀다. 선지피의 비린 냄새가 그의 코구멍을 엄습했다.… 야꼬브 루끼치는 비척거리면서 난로까지 다달았다. 심한 구역의 발작이 그의 몸을 뒤흔들어 괴롭게 속안의것을 토해버렸다.
현관에서 뽈롭쩨브는 마치 술에라도 취한것처럼 비칠거렸다. 란간에 내려앉은 솜털같은 숫눈에 입술을 가져다대고 입에 넣기 시작했다. 그들은 삽짝문으로 나왔다. 찌모페이 르와늬는 뒤떨어져 한 구역을 에돈 후 학교쪽으로부터 울려오는 아름다운 손풍금소리를 향해서 걸어갔다. 학교근처에서는 놀음이 벌어지고있었다. 찌모페이는 둘러선 사람들틈을 비집고나가서 손풍금수에게 손풍금을 청했다.
《찌모샤! 집시의 딴스곡을 켜요.》 한 처녀가 청했다.
찌모페이는 손풍금주인한테서 손풍금을 받으려다 떨어뜨리고말았다. 조용히 웃고 다시 팔을 뻗쳤으나 왼편어깨에 혁띠를 걸치지도 못하고 또다시 떨어뜨렸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을 좀 움직이다가 껄껄 웃고 손풍금을 돌려주었다.
《어디서 벌써 처먹구 왔군!》
《봐라, 얘들아. 저 사람이 아무래두 취했지?》
《꼴 좋다!…》
처녀들은 찌모페이한테서 물러갔다. 손풍금의 주인은 불안스레

손풍금풀무주름에서 눈을 불어 떨구고 《집시녀자》를 서투른 솜씨로 뜯기 시작했다. 처녀들중에서 가장 키가 큰 울리야나 아흐와트끼나가 이전처럼 두팔을 굽히고 뒤꿈치가 낮은 신을 신으면서 나섰다. (새벽까지 여기 앉아있어야겠다.) 찌모페이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했다. (그러면 심문때 아무두 나를 물어캐지 않겠지.) 그는 일어나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취한 사람의 시늉을 내여 비척거리면서 학교현관의 층계에 앉아있는 한 처녀에게로 가서 그의 무릎우에 머리를 놓았다. …

한편 야꼬브 루끼치는 배추잎처럼 새파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쓰러져 베개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뽈롭쩨브가 세면기에서 비누로 손을 씻느라 철썩거리는 소리와 푸푸 소리를 내다가 자기 방으로 가는것을 들었다. 뽈롭쩨브는 이미 한밤이 되였을 때 주부를 깨웠다.

《주인아주머니, 더운 물이 있소? 차를 마시게 좀 떠주우.》

차를 마시고는 (야꼬브 루끼치는 베개뒤로부터 한쪽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큼직한 배를 꺼내서 쩝쩝 먹고 담배를 피우며 부둥부둥한 맨 가슴을 쓸어만지면서 나갔다. 방에 와서 뽈롭쩨브는 아직 식지 않은 난로쪽으로 벗은 발을 뻗쳤다. 그는 류마치스로 해서 저린 발을 밤마다 불에 쪼이는것을 좋아한다. 1916년 겨울 황제폐하께 충성을 다하여 복무하면서 부근강을 헤염쳐건늘 때 발에 동상을 입은것이였다. 그때로부터 뽈롭쩨브대위는 따뜻함을, 따뜻한 펠트장화를 그리워하게 된것이다.

제 13 장

그레먀치 로그에 온지 한주일동안에 다위도브앞에는 여러 문제가 큰 산같이 나타났다. 밤마다 촌쏘베트나 혹은 찌또크네 넓은 집에 자리잡은 꼴호즈관리부에서 돌아와서 다위도브는 오래동안 방안을 거닐고 담배를 피우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우편배달부가 놓고간 《쁘라우다》와 《몰로트》(로쓰또브—나—도누에서 발간되는 신문)를 읽고서는 또다시 생각이 그레먀치의 사람들이며 꼴호즈며 이날 하루에 일어난 일들로 돌아갔다. 그는 사냥군의 기발에 둘러싸인 승냥이처럼 꼴호즈

와 관계되는 생각의 둘레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보았다. 자기의 직장, 동무들, 일들을 회상했다. 거기서는 이제 많은것이 달라졌을테지. 그것도 자기가 없는 동안에 모두 그렇게 달라질것이다. 이제와서 벌써 자기는 변속장치를 개량할 새 방도를 찾아내려고 뜨락또르기관도면을 붙잡고 밤을 새울수도 없다. 자기가 일하던 변덕스럽고 까다로운 기대에서는 다른 사람이 일하고있을게다. 떠나가는 2만 5천명 부대원들을 환송하면서는 열렬히 좋은 말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아마 자기를 잊었을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는 저으기 서글퍼졌다. 그러다가 생각은 불시로 또다시 그레먀치로 돌아왔다. 흡사히 뇌안에서 누가 생각의 흐름을 새 방향으로 돌리면서 능란하게 스위치를 돌려꽂는것 같았다. 그는 결코 그처럼 소박한 도시사람으로서 농촌에 일하러 온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계급투쟁의 전개, 그 얽힌 매듭 그리고 흔히 은폐되여있는 그 형태들은 그가 그레먀치에 도착해서 처음 며칠동안에 본것과 같이는 복잡하지 않은것으로 생각되였다. 꼴호즈의 사업이 거대한 장점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중농들이 완강히 꼴호즈에 들어가기 싫어하는것을 그는 리해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호상관계를 인식하는 열쇠를 찾아낼수 없었다. 찌또크는 어제날의 빨찌산인데 오늘에 와서는 부농이고 적이다. 찌모페이 보르쑈브는 공공연히 부농을 옹호하여 나선 빈농이다. 오쓰뜨롭노브는 개명한 일군이고 자각적으로 꼴호즈에 들어온 사람인데도 나굴리노브는 그에게 경계하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그레먀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위도브의 머리에 스쳐지나갔다.… 그들속의 많은것이 그에게는 리해할수 없었고 그 어떤 감촉할수도 보이지도 않는 장막에 덮여있는것 같았다. 부락은 그에게 있어 새로운 구조의 복잡한 발동기와 같았다. 그래서 다위도브는 그것을 인식하고 연구하고 일체 부속품들을 만져보고 이 교묘한 기계의 끊임없는 나날의 긴장된 고동에서 모든 부정음을 들으려고 주의깊게 긴장하여 노력했다.…

빈농 호쁘로브와 그 처의 수수께끼같은 살해는 그 어떤 숨은 용수철이 이 기계에서 작용하고있음을 그로 하여금 추측케 했다. 호쁘로브의 죽음에는 령세적농사경영의 썩은 담벽을 급격히 붕괴시킨 새로운것 그리고 집단화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그는 희미하게 추측했다. 호쁘로브와 그의 처의 시체가 발견된 날 아침 그는 라즈묘뜨노브 그리고 나굴리노브와 함께 오래동안 이야기했다. 그들도 추측과 상상속을

헤매고있을뿐이였다. 호쁘로브는 빈농이였는데 과거에는 백파였고 사회적생활에는 소극적이였으며 부농 라쁘쉬노브에게 어느 정도 의지하고있었다. 살해의 목적은 강도였다고 누가 말한 상상은 분명히 불합리한것이였다. 왜냐하면 재산에서 무엇 하나 가져가지 않았고 가져갈래야 호쁘로브에게는 가져갈것이 아무것도 없었기때문이다. 라즈묘뜨노브는 뿌리치듯 팔을 한번 들었다놓았다.

《필시 계집일루 누구를 노하게 한결세. 어떤 남의 녀편네한테 손을 댔어. 그게 그자의 목숨을 잃게 한거야.》

나굴리노브는 잠자코 있었다. 그는 잘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위도브가 이 살인에는 부농들중의 누가 관계하고있으리라는 자기 추측을 말하고 그들을 속히 부락에서 추방하자고 제의하자 나굴리노브는 단연 그것을 지지했다.

《그놈들측에서 호쁘로브를 까넘겼네. 제잡담하구 버러지같은 놈들을 추운 고장에루 추방해야 해!》

라즈묘뜨노브는 그것을 비웃고 어깨를 으쓱했다.

《놈들을 추방해야 해. 더 말할것두 없지. 놈들은 사람들이 꼴호즈에 들어가는걸 방해하구있네. 그렇지만 호쁘로브만은 놈들때문에 화를 본게 아니야. 그자는 놈들과 관계가 없었어. 그자가 라쁘쉬노브를 의지하구 그놈네 집에서 일을 한것두 사실이지만 그것은 먹을걸 얻으려구 그런건 아닐테지? 가난에 억눌려 그때문에 라쁘쉬노브에게 붙은거야. 모든걸 부농들에게 들씌워서는 안돼. 이상스레들 생각하지 말게! 아니야,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건 계집일이야!》

구역에서 예심판사와 의사가 왔다. 살해된 시체들을 해부하고 호쁘로브네 집 이웃사람들과 라쁘쉬노브를 심문했다. 그러나 결국 예심판사도 살인범과 그 원인을 규명할 실마리를 얻지 못했다. 그 다음날인 2월 4일에 꼴호즈원총회는 부농들의 가족을 북깝까즈변강의 경외로 추방할데 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권위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꼴호즈관리부가 총회의 비준을 받았다. 관리부의 성원으로는 야꼬브 루끼치 오쓰뜨롭노브와(나굴리노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위도브와 라즈묘뜨노브가 열심히 그의 립후보를 지지했다.) 빠웰 류비슈낀, 좀까 우샤꼬브가 선거되였으며 아르까쉬까 메노크는 겨우 통과했고 다섯사람째로는 다위도브가 아무런 론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선거되였다. 여기에 도움이 된것은 전날 받은 문서였는데 그 문

서에는 구역당위원회가 구역농업조합과의 합의밑에 꼴호즈관리위원장의 직책에 구역당위원회 전권위원이며 2만5천명부대의 한사람인 다위도브동지를 추천한다고 씌여져있었다.

종회에서서는 꼴호즈에 어떤 명칭을 붙이는가 하는것이 오래 론의되였다. 라즈묘뜨노브가 맨 마지막에 말했다.

《나는 붉은 까자크라는 명칭에는 반대외다. 그건 죽은 명칭이요. 이전에 로동자들은 까자크라는 말루써 어린애들을 울리였소. 오늘날 꼴호즈원이 된 친애하는 동지들, 나는 바로 사회주의에로 가는 우리의 귀중한 길인 우리의 꼴호즈에 쓰딸린동지의 이름을 붙일것을 제의합니다. 그이가 시초부터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기울지 않구 곧바른 길을 걸어왔다는건 우리들모두가 압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싸웠구 청춘을 잊구서 자기의 피를 아낌없이 흘린 그 가장 사랑하는 사회주의에로 그이의 뒤를 따라 사태처럼 나아갑시다.》

안드레이는 사뭇 흥분하여 그 이마의 상처자국이 검붉어졌다. 잠시동안 그의 사나와보이는 두눈에 눈물의 안개가 핑 돌았으나 그는 마음을 다잡고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우리의 이오씨프 위싸리오노비치동지가 건강하여 우리를 지도하여주기를 축원합시다! 그이께 경의를 표해서 일어서서 모자를 벗을것을 제의합니다.》

전원 일어섰다. 드러난 대머리들이 번뜩거리고 머리카락이 부시시한 각색머리들이 드러났다. 라즈묘뜨노브는 계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이의 이름을 답시다. 그리구 나는 실제적인 증명을 하겠는데 우리가 짜리찐을 방위했을 때 나는 직접 전선의 포화속에서 쓰딸린동지를 봤으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이는 워로쉴로브와 함께 혁명군사위원회에 계셨는데 사민복을 입구있었지요. 그때 겁열시와 또 화선에서 그이는 우리 전사들에게 견결성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자네는 본줄거리에서 벗어났네, 라즈묘뜨노브.》 다위도브가 그의 말허리를 끊었다.

《본줄거리가 아니라구? 그렇다면 물론 사과하지만 나는 그이의 이름을 달자는걸 굳이 주장하네.》

《그건 다 아는 일이지. 나두 역시 쓰딸린동지의 이름을 꼴호즈에

붙이는걸 찬성하네. 그렇지만 그건 책임이 중한 이름이네.》다위도브는 훈계했다. 《그 이름을 욕되게 할수는 없어! 그런다며는 주변의 전체 꼴호즈들을 릉가하게끔 일해야 하네.》
《거기에 우리는 근본적으루 찬성이네.》쓔까리령감이 말했다.
《알았소!》라즈묘뜨노브는 빙그레 웃었다. 《친애하는 동지들, 나는 촌쏘베트위원장으로서 떳떳이 언명하지만 쓰딸린동지의 이름보다 나은 명칭은 있을수 없소. 나는 꼴호즈들을 전부 다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소. 우리 공산당은 쓰딸린동지의 주위에 무척 굳게, 아주 튼튼히 뭉쳐있구 그이를 무척 소중히 하구있으니만큼 여기서 더 나은 이름은 생각해낼수 없습니다. 실례루서 나는 19년에 봤지만 뜨뽈리까부락근처에서 우리 붉은보병대가 쫄립강의 언제를 점령했는데 물레방아간근처에서…》
《또 자네는 옛말이로군.》다위도브는 말했다. 《어서 회의를 진행시켜 구체적으로 손을 들어 결정하세!》
《미안하네. 여러분, 결정합시다. 그런데 전쟁을 회상하면 가슴이 근질근질해서 한마디 하구싶단 말이야.》라즈묘뜨노브는 면구한듯이 웃고 앉았다.
회의는 만장일치로써 꼴호즈에 쓰딸린동지의 이름을 붙였다.

×

다위도브는 아직도 그냥 나굴리노브네 집에 거접하고있었다. 그들내외의 침대로부터 낮은 비단휘장으로 사이를 막고 궤짝우에서 잤다. 첫방은 어린애가 없는 과부인 주인녀편네가 차지하고있었다. 다위도브는 마까르를 거북스럽게 하고있다는것을 깨닫고있었으나 도착한 초기라 분주하고 설렁해서 주택을 찾아볼 겨를이 없었다. 나굴리노브의 처 루쉬까는 한결같이 다위도브에 대해서 친절했다. 그러나 마까르한테서 그의 처가 찌모페이 르와늬와 관계하고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후로는 그에게 대해서 불쾌감을 숨길수 없었고 자기가 그들한테 림시 류숙하고있는것이 괴로왔다. 아침마다 다위도브는 담화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주 곁눈으로 루쉬까를 살펴보았다. 보매 그는 25살을 넘지 않았다. 잔 주근깨가 그의 갸름한 볼을 가득 덮어 알락달락한 그의 얼굴은 까치알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그의 골탄같이

검은 눈이며 상큼하니 날씬한 몸매에는 그 어떤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의 둥그런 귀여운 눈섭은 항상 조금 치켜올라가있고 늘 무슨 즐거운 일을 기다리고있는것 같았다. 새빨간 입술은 도도롬한 이발들이 촘촘히 박힌 이새를 드러낸채 두 입귀에 미소를 간직하고있었다. 그는 걷는것도 처진 어깨를 흔들면서 마치 금시라도 누가 뒤로부터 그를 붙잡아 그 처녀같은 가냘픈 어깨를 껴안아주지 않나 하고 기다리고있는것 같았다. 옷은 그레먀치의 전체 까자크녀자들과 같이 입었고 조금 더 정갈했는지도 모른다.

어느날 이른아침 구두를 신고있던 다위도브는 휘장 저쪽에서 하는 마까르의 말소리를 들었다.

《내 반외투주머니에 고무줄이 들어있네. 임자 쎄묜한테 부탁했었나? 그 사람이 어제 읍에서 와서 임자에게 전하라구 그러데.》

《마까루스까, 정말이야요?》 루쉬까의 잠투정하는듯 한 따뜻한 목소리가 기쁨에 떨렸다. …

그는 속옷바람으로 침대에서 뛰여내려 못에 걸려있는 남편의 반외투로 달려가 주머니에서 넙적다리를 조여매는 둥그런 고무줄이 아니라 파란빛으로 수를 놓고 띠가 달린 도회지식의 고무줄을 꺼냈다. 다위도브는 거울에 비친 그를 보았다. 그는 사내애같이 가는 목을 뻗치고 홀쭉한 다리에 사온 고무줄을 끼여보면서 서있었다. 거울에서 다위도브는 그의 불타는듯 한 눈에 반짝이는 미소와 주근깨투성이뺨우에 살짝 비낀 홍조를 보았다. 착 다리를 감싼 검은 양말을 즐기듯 바라보면서 그는 다위도브쪽으로 몸을 돌렸다. 속옷깃사이로 거무스름한 팽팽한 젖이 흔들거렸다. 그리고 그는 즉시로 휘장너머 다위도브를 보고 왼손으로 천천히 옷깃을 여미였으나 돌아서지도 않고 눈을 가늘게 하면서 해죽이 미소를 지었다. 《보세요, 참말 나는 미인이지요!》 면구스러워 안하는 그의 두눈은 그렇게 말하고있었다.

다위도브는 삐걱거리는 궤짝우에 쾅 하고 나가넘어졌다. 얼굴이 검붉어지고 다섯손가락으로 이마에서 반질반질한 검은 머리카락을 치켜올렸다.

(젠장! 내가 엿보기라두 한것처럼 생각하겠구나. … 부질없이 일이 났었군! 내가 관심이라두 가지구있는듯이 생각하겠지. …)

《남앞에서 좀 벗구다니지 말게나.》마까르는 다위도브가 면구한듯 기침을 깇는것을 듣고 볼멘 소리로 웅얼거렸다.

《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보입니다.》
다위도브는 간막이너머로 기침을 했다.
《보이면 실컷 보지요.》루쉬까는 치마를 머리로부터 뒤집어입으면서 태연스레 말했다. 《마까루스까, 남이란 없어요. 오늘은 남이래두 내가 마음만 있다면 래일은 내 사람이 될걸요.》하고 깔깔 웃고는 뛰여가서 침대에 몸을 던졌다.
《당신은 얌전두 하지! 송아지같은 사람!…》

×

아침을 마치고 대문을 나서기가 바쁘게 다위도브는 칼로 자르듯이 말했다.
《자네 녀편네는 너절한 위인이군!》
《그건 자네한테는 관계없어. …》나굴리노브는 다위도브를 보지 않고 조용히 대꾸했다.
《그대신 자네한테 관계있지! 오늘루 나는 딴집에 이사하겠네. 보기에두 나는 속이 아니꼽네! 그처럼 어엿한 사나이인 자네가 녀편네한테는 달게 군담! 저 녀편네가 르와늬와 관계하구있다구 자기자신이 말했지.》
《그 사람을 때려야겠나, 그럼?》
《때리는게 아니라 교양을 줘야지! 그렇지만 나는 솔직히 말하겠네. 나는 당원이지만 이런 일에는 신경이 예민하네. 나라면 내쫓구말테야! 그 녀편네가 대중앞에서 자네 신망을 떨어뜨리구있는데두 자네는 잠자쿠 있거던. 그 사람은 밤새 어디를 싸다니나? 우리가 회의에서 돌아와두 그냥 집에는 없거던! 나는 자네네 집안일에 간섭하는건 아닐세만…》
《자네는 결혼했나?》
《아니, 그렇지만 자네네 가정을 봐서 이제는 널안에 들어갈 때까지 결혼 안하겠네!》
《자네는 녀편네를 사유물처럼 보구있네.》
《제길헐! 왜 그런지 무정부주의자같으니! 사유물, 사유물하구! 가정은 존재하겠지? 그런데 자네는… 음탕을 조장하구있으니 참을성

두 용하네. 여기 대해서 나는 세포에서 문제를 세우겠어!… 농민들은 자네한테서 모범을 따라야 하는데 썩 좋은 모범이겠네!》

《그럼 나는 그것을 죽여버리겠네!》

《저런!》

《그런데 자네 저… 지금은 이 일에 아랑곳하지 말게. …》

마까르는 길 한가운데 걸음을 멈추고 부탁했다. 《나자신이 이 일을 처리할테야. 지금은 그런 경황이 없네. 이게 어제그제 시작된거라면 또 모르지만 나는 이미 참을대루 참아왔어. … 조금 더 기다려서 후에… 그것한테는 내 심장이 말라붙었거던. … 그렇지 않다면 벌써… 자네는 어디루 가나, 쏘베트루 가나?》 그는 화제를 돌렸다.

나굴리노브는 팔을 한번 들었다놓고 화를 냈다.

《자네와 안드레이에겐 오쓰뜨롭노브가 귀동이가 됐군! 그 작자는 중에게 그것이 필요할만큼밖에는 꼴호즈에 필요하지 않아. … 나는 반대네. 나는 그놈을 꼭 꼴호즈에서 제명해버리구야말겠어! 2년동안 농업세에다 추가세까지 물었네. 유족한 독충이야. 전쟁전에는 부농이였는데 우리가 그놈을 등용해?》

《그 사람은 깬 일군이야! 아니, 그럼 자네 생각에는 내가 부농을 옹호하구있나?》

《그놈의 날개죽지를 꺾어놓지 않았던들 벌써 오래전에 부농들축에 날아들었을게거던!》

두사람은 아퀴를 짓지 못하고 피차 매우 불만한 가운데 헤여졌다.

제 14 장

2월…

추위에 땅은 조여들고 갈라터진다. 혹한속에 태양이 떠오른다. 바람이 눈을 핥고 지나간 곳에서는 밤마다 땅이 우적우적 터진다. 광야의 구릉들은 지나치게 익은 수박처럼 뱀 지나간 자리같은 균렬투성이가 된다. 부락을 벗어나 가을갈이밭근처에서는 바람에 불려 쌓인 흰눈이 굉장히 눈이 부시게 반짝인다. 개천가의 백양나무들은 온통 은세공을 베푼것 같다. 집집의 굴뚝으로부터는 아침마다 곧바로 오렌지빛의 연기기둥이 건설장의 비계처럼 솟아오른다. 탈곡장들에서는

추위때문에 밀짚들이 유리빛의 8월, 열풍의 더운 입김, 여름의 하늘 냄새를 향기롭게 풍긴다.

추운 뜨락들에서는 아침이 될 때까지 황소, 암소들이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닌다. 아침녘에는 여물통에 먹다남은 부리얀초 하나 볼수 없다. 겨울에 낳은 양새끼와 염소새끼들은 벌써 뜨락에 두지를 않는다. 아낙네들이 졸리는 눈으로 밤마다 그것들을 엄지들한테 내갔다가는 다시 치마폭에 싸서 숯내 찬 따뜻한 집안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염소들의 그 고슬고슬한 털에서는 찬 대기, 각종의 풀, 달콤한 염소젖따위 원시적인 냄새가 다정하게 풍긴다. 눈이 녹아 언 얼음밑의 눈은 신선하고 알맹이진게 껄껄한 소금같다. 한밤에는 하도 고요하고 간들간들 흔들리는듯 한 술한 별들이 널린 얼어붙은 하늘이 하도 쥐죽은듯 해서 이 세상은 생명 가진 모든것들한테서 버림을 받은것 같이 생각된다. 눈에 덮인 처녀지의 파란 광야를 승냥이가 지나간다. 눈우에 발바닥자국도 나지 않고 다만 눈이 녹아 얼어붙은 얼음덩이를 발톱이 허빈 곳에만 할퀸 자리가 반짝반짝 진주같은 자국을 남긴다.

밤에 새끼 밴 암말이 검은 공단같은 그 젖통에 젖이 불어오르는것을 느끼고 조용히 울면 그 울음소리는 수십리 주변에까지 들린다.

2월…

동트기 전의 푸르른 정적.

황량한 은하가 빛을 잃는다.

집집의 컴컴한 들창에 어리는 검붉은 불빛, 그것은 타는 난로불의 반사이다.

개천에서는 지레대에 깨여지는 얼음이 쩡쩡 소리를 낸다.

×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야꼬브 루끼치는 아들과 처를 깨웠다. 난로에 불을 지폈다. 야꼬브 루끼치의 아들 쎄묜은 숫돌에 칼을 갈았다. 뾜롬쩨브대위는 털양말우로 정성스레 각반을 치고 펠트신을 신었다. 그는 쎄묜과 함께 양우리로 갔다. 야꼬브 루끼치네 집에는 열일곱마리의 면양과 두마리의 염소가 있다. 쎄묜은 어느 양이 새끼를 뱄으며 어느 양이 이미 새끼를 낳았는가를 안다. 그는 붙잡아 손더듬으로 거세한 양, 수것, 새끼를 낳지 않은 암것을 골라 한마리씩 따뜻한 헛간으

로 끌어낸다. 뽈롭쩨브는 흰 모자를 이마우에 눌러쓰고 거세한 양의 선뜩하고 터슬터슬한 굽은 뿔을 잡아쥐고서 땅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뒤로 나가넘어진 양을 가슴으로 내려누르면서 그 대가리를 쳐들고 목을 따 콸콸 검은 피를 쏟게 한다.

야꼬브 루끼치는 살림군이다. 그는 자기 양들의 고기를 어떤 곳의 공장식당에서 로동자가 먹거나 붉은군대 군인이 먹는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쏘베트편인데 쏘베트정권은 야꼬브 루끼치를 괴롭게 했고 그가 급히 살림을 늘쿠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가능성을 주지 않았다. 쏘베트정권은 야꼬브 루끼치에게 그리고 그는 쏘베트정권에게 피차 불구대천의 원쑤였다. 야꼬브 루끼치는 어린아이가 등불에 끌리듯이 일평생 재산에 마음이 끌려왔다. 혁명전에는 살림이 커지기 시작했었다. 아들은 오보체르까스크의 사관학교에 보내려고 생각했으며 또 빠다제조기도 사려고 생각하여 이미 돈도 모았었고 자기 집에 두세명 머슴도 두려고 생각했었다.(그 당시는 앞날의 호화로운 생활을 생각하여 기쁨에 가슴이 미여지는듯 하군 했었다!) 그리고 또 장사를 시작하여 령락한 지주—까자크군 특무장 죠로브한테서 거의 버려두고있는 증기제분기를 살 작정이였다. 그 당시 야꼬브 루끼치는 짯짯한 바지가 아니라 비단으로 아래우를 만들어입고 배에는 금시계줄을 가로 드리우고 손도 굳은살 박힌 손이 아니라 부드럽고 희며 그 손에서는 때가 낀 시커먼 손톱이 뱀 껍질벗듯이 싹 빠져나갈 자기를 뇌리에 그려보았다. 아들은 대좌가 되여 교육받은 색시를 얻을것이고 그리고 야꼬브 루끼치는 마차따위가 아니라 지주 노워빠블로브가 가지고있는것과 같은 자가용자동차를 타고서 역으로 그를 마중갈것이다.… 아, 그의 손안에서 생활이 무지개빛 백루블리지폐처럼 빛나고 빨각소리를 내던 그 잊을수 없는 시기에 야꼬브 루끼치가 뜬눈으로 본 꿈이 좀 많았던가! 혁명은 류례없는 진동의 랭기를 뿜었다. 야꼬브 루끼치의 발밑의 땅은 흠칫흠칫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락심하지 않았다. 타고난 침착성과 교활로 말미암아 닥쳐올 비바람을 벌써 재빨리 알아채고 이웃과 부락민들 모르게 벌어놓았던것을 처분해버렸다.… 1916년에 샀던 증기발동기를 팔고 10루블리금화 30매가 든 금고와 은화를 넣은 가죽구럭을 묻고 필요이상 되는 집짐승을 팔고 밭을 줄였다. 차비를 하는것이다. 혁명, 전쟁, 전선은 풀우를 지나가는 광야의 질풍처럼 그의 우를 지나갔다. 휘기는 휘였지만 꺾이거나 병신이 되는 그런 일은 없었다.

폭풍에서는 백양나무나 떡갈나무만이 꺾이고 뿌리채 뽑혔다. 강인한 부리얀초는 다만 땅에 엎드리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선다. 그런데 이 일어나는것이 야꼬브 루끼치에게는 되지 않았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쏘베트정권을 반대하고 그렇기때문에 그는 불깐 소처럼 창조도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도도한 기쁨도 없이 답답하게 살고 그렇기때문에 그에게는 뽈롭쩨브가 녀편네보다도 가깝고 친아들보다도 다정한것이다. 이전에 백루블리지페처럼 빛나고 빨각거리던 그 생활을 되찾기 위해서 뽈롭쩨브와 더불어 일어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생활을 버려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그레먀치꼴호즈의 관리부원인 야꼬브 루끼치는 열네마리의 양을 잡는다. (살이 찌고 새끼를 낳아 쏘베트정권이 좋아하라고 양들을 꼴호즈의 양떼에 넣느니보다는 차라리 뽈롭쩨브대위 발밑에서 김이 문문 나는 양피를 게걸스레 핥고있는 저 수개에게 양고기를 던져주는게 낫다.)하고 야꼬브 루끼치는 생각한다. 학식있는 뽈롭쩨브대위는 옳게 말했다. 《집짐승을 잡아야 하네! 볼쉐비크들의 발밑에서 땅을 뺏어내야 해. 돌보지 않아서 소들이 죽게 하라, 정권을 잡을 때 우리는 또 소를 얻을수 있다! 미국과 스웨리예에서 우리에게 소를 보내줄게다. 기아와 파괴와 폭동으로 놈들의 목을 졸라매자! 암말은 내놓기 아까와하지 말게, 야꼬브 루끼치! 말을 공동소유화하는건, 그건 좋아. 그건 우리에게 편리하구 리로와. … 폭동을 일으켜 부락들을 점령할 때 집집으로 다니며 말을 구하느니보다 공동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내서 안장을 놓는게 손쉬워. 썩 잘한단 말이야!》 뽈롭쩨브대위의 머리는 그 솜씨와 같이 믿음직하다니까…

야꼬브 루끼치는 헛간옆에 서서 뽈롭쩨브와 쎄묜이 들보에 매단 죽은 양가죽을 척척 벗기는것을 보았다. 박쥐등이 흰 양가죽을 뚜렷이 비쳤다. 가죽을 벗기는것은 쉬웠다. 야꼬브 루끼치는 양의 몸통을 잠시 보고있다가 여물통옆에 딩굴고있는 양의 검은 대가리에 눈이 가자 정갱이를 얻어맞은것처럼 흠칫하고 파랗게 질렸다.

아직 흐려지지 않은 눈동자를 크게 뜬 양의 누런 눈에는 죽음의 공포가 깃들어있었다. 야꼬브 루끼치는 호쁘로브의 처를, 《아저씨! 여보슈! 무엇때문이요?》 하던 그의 떠듬거리는 무서운 속삭임을 상기했다. 야꼬브 루끼치는 가죽을 벗긴 양의 연보라빛 도는 분홍색몸통을 넌덜머리 나는듯 힐끗 보았다. … 그때와 같이 코를 찌르는 피냄새에 왈칵 구역이 치밀어 아찔했다. 야꼬브 루끼치는 황황히 헛간에서

물러갔다.

《고기가 비위에 거슬리는군. … 아!… 냄새두 싫다.》

《왜 와서 이래? 임자가 없어두 어련히 하겠다구, 약골같으니!》 뽈롭쩨브는 히죽이 웃고 피묻은 손가락으로 담배를 말기 시작했다.

조반까지에야 겨우 그 일이 끝났다. 가죽을 벗긴 양몸통들은 고간에 매달았다. 녀편네들이 양꼬리를 푹 삶았다. 뽈롭쩨브는 방안에 들어박혔다. (낮에는 거기서 두문불출하였다.) 양고기를 넣고 갓 끓인 배추국과 양꼬리 삶은것을 그에게 가져갔다. 며느리가 그한테서 빈 접시를 날라내갈가말가 할 때 삽짝문이 삐걱하고 울렸다.

《아버지! 다위도브가 우리 집에 와요!》 쎄묜이 뜨락에 들어선 다위도브를 먼저 보고 웨쳤다.

야꼬브 루끼치의 얼굴은 채로 친 흰 가루보다도 더 새하얘졌다. 한편 다위도브는 벌써 문가에서 비로 구두를 쓸고 요란하게 기침을 한 다음 힘있게 발을 옮겨디디면서 태연스레 걸어들어왔다.

(인제는 다 틀렸다!) 야꼬브 루끼치는 생각했다. (저 걷는 거동 보게, 개자식같으니! 온 세상의 주인이 내란듯이! 제집에서처럼 걸어오는걸! 아, 다 틀렸다! 니끼따의 건으루 체포하러 왔나부다, 낌새를 챈 모양이로군, 원쑤같으니.)

방문 두드리는 소리, 힘있는 목소리.

《들어갈만 합니까?》

《들어오슈.》 야꼬브 루끼치는 크게 말하려 했으나 나온 목소리는 속삭임이 되고말았다.

다위도브는 잠시 서있다가 방문을 열었다. 야꼬브 루끼치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못한것이다! 신 뒤꿈치가 마루에 덜덜 부딪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맥빠진 떨리는 두다리를 들기까지 했다.)

《안녕하시오, 주인!》

《어서 오슈, 동지!》 야꼬브 루끼치와 그의 처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밖이 몹시 춥군요. …》

《예, 매우 춥습데다.》

《쌀보리는 얼어죽지 않을는지, 어떻게 생각하시오?》

《동지, 이리루 들어와서 앉으시오.》 야꼬브 루끼치는 권했다.

(뭘 이 사람은 놀라서 그럴가, 우스운 사람이군.) 집주인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그의 입술이 실룩거리면서 간신히 움지럭거리는것을 보고 다위도브는 의아쩍게 생각했다.
《그래, 쌀보리가 어떨가요?》
《아니외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 눈이 덮여있으니까. … 눈이 바람에 날린 곳에서는 좀 다칠지두 모르겠소만…》
(쌀보리얘기부터 시작해가지구 이제 아마 《자, 차비해라!》 하구 말하려나보다. 뽈롭쩨브에 대해서 누가 밀고를 했는지두 몰라? 수색이나 아닐가?) 야꼬브 루끼치는 생각했다. 그는 놀랐던 마음이 저으기 진정되였다. 대번에 얼굴로 확 피기가 오르고 털구멍에서 땀이 번쩍 나와 이마며 흰 입수염이며 껄껄한 턱으로 흘러내렸다.
《천천히 노시다 가슈. 방으루 들어오슈.》
《나는 당신과 좀 얘기를 하려구 들렸습니다. … 이름과 부칭은 어떻게 부릅니까?》
《루까의 아들 야꼬브웨다.》
《야꼬브 루끼치구려? 그럼 야꼬브 루끼치, 당신은 회의때 꼴호즈에 대해서 조리있게 아주 잘 말했습니다. 꼴호즈에 복잡한 기계가 필요하다는 당신의 말은 물론 옳습니다. 다만 로력조직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했소. 사실말이지! 당신을 경리부장으루 등용할 작정이요. 나는 당신이 깬 일군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
《이리 안으로 들어오슈, 귀중한 동지! 가샤, 싸모와르를 끓이우. 배추국을 좀 잡수시지 않겠소? 그렇지 않으면 절군 수박을 자를가요? 안으루 들어오슈, 우리의 귀중한 손님! 새로운 생활에루 우리를…》 야꼬브 루끼치는 기쁨에 말문이 막혔다. 어깨에서 큰산이라도 벗어놓은것 같았다. 《깬 방식으로 일을 했지요. 당신이 옳게 말했습니다. 암둔한 우리 사람들을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에서 돌려세우려고 했지요. … 어떻게 밭을 갈구있겠습니까? 땅을 도둑질하듯 하구있습니다! 관구 농업부에서 받은 표창장을 가져오너라. 아니, 우리가 그리루 가지, 그만둬라.》
야꼬브 루끼치는 쎄묜에게 슬며시 눈을 끔벅하고 살림방으로 손님을 안내했다. 쎄묜은 눈치를 알아차리고 뽈롭쩨브가 들어박혀있는 방문을 닫으려고 복도로 나가 그 방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다. 방안이 텅 비여있었던것이다. 쎄묜은 대청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뽈롭쩨브는 털양말만 신은채 살림방으로 통한 방문곁에 서있었다. 그는 쎄묜에게

나가라는 몸짓을 하고서 짐승같이 삐죽이 내민 연골질의 귀를 방문에 가져다댔다. (대담한 작자군!) 쎄묜은 대청에서 나오면서 생각했다.
오쓰뜨롭노브네 집에서는 겨울에 그 서늘하고 넓은 대청에 사람이 거처하지 않았다. 뺑끼칠을 한 구석에는 해마다 대마종자를 넣어두었다. 방문옆에는 사과를 절군 통이 놓여있었다. 뽈롭쩨브는 그 통 한끝에 걸터앉았다. 그에게는 말소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죄다 들렸다. 성에가 낀 들창에 빨간 저녁빛이 비쳐들었다. 뽈롭쩨브는 발이 얼었다. 그러나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쪽에 있는 원쑤의 거쉰 목소리에 가슴이 죄여드는듯 한 증오감을 느끼면서 귀를 기울이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개자식, 군중대회에서 목이 쉬였구나! 내 네놈을! 아, 당장 해치울수 있다면!) 뽈롭쩨브는 피가 몰켜 부풀은 주먹을 가슴에 가져다댔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방문 저쪽에서는—
《우리 꼴호즈의 귀중한 지도자인 당신께 말하겠지만 우리가 옛날식으루 일을 해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가령 쌀보리를 들어봅시다. 그것이 얼어서 한제샤찌나에서 스무뿌드나 소출이 있다면 그건 장한거구 많은 사람들이 종곡두 뽑지 못하는건 무엇때문입니까? 헌데 내 밭에서는 언제나 이삭들사이를 헤치구 지나가기 어려울 지경이외다. 암말에 안장을 놓구 타구나가서 안장틀너머로 이삭을 잡아매주는 일이 흔히 있었수다. 그리구 그 이삭은 한손에는 다 못 쥘 지경이지요. 이것두 모두 바람에 눈이 날려가지 않게 하구 땅이 물을 먹게 했기때문이외다. 어떤 사람은 해바라기를 바루 뿌리우까지 자르지요, 땔나무가 된다구 욕심을 부리는거지요. 그런 개자식은 여름에 축사에서 마른 마소의 똥을 거둘 경황두 없다니까요. 태여나기를 게으름뱅이루 태여났거던요. 그런자는 타일러두 모릅니다. 해바라기 대가리만을 자르면 눈을 잡아두구 바람이 대들사이를 넘나들지 못해서 눈을 낭떠러지루 날라가지 못한다는걸 모르지요. 봄이 되면 그런 땅은 가장 깊이 간 가을갈이보다두 낫습니다. 눈을 잡아두지 않으면 헛되게 녹아버려 기름진 물이 흘러가고마니까 사람에게두 리득이 없지요. …》
《그렇겠군요.》
《다위도브동지, 은덕깊은 우리 쏘베트정권이 내게 표창장을 공연히 주었겠습니까! 나는 무엇이 어떻다는걸 알거던요. 그야 농업기수들두 가다가 실수하는 일이 있지만 그네들의 학문에는 그야 옳은것두

많지요. 실례를 들어서 나는 한 농업잡지를 구독했는데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유식한 사람 한분은 쌀보리가 얼뿐만아니라 죽구마는건 눈의 옷을 입지 못한 헐벗은 땅이 터지면서 그 뿌리를 끊어버리기때문이라구 그 잡지에 썼습니다.》
《거 재미있군요! 나는 그건 듣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쓴게 옳습니다. 그분께 나두 찬성이외다. 알아보려구 내 손으루 실험까지 해봤지요. 파서 보니까 싹틔운 낟알이 땅속에서 피를 빨아 양분을 얻는 머리카락같은 뿌리수염이 상하구 끊어졌더군요, 낟알은 양분을 얻을 길이 없으니 죽어버리지요. 사람두 피줄을 끊어버리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수 없지요! 낟알두 같거던요.》
《그렇소. 야꼬브 루끼치, 당신은 실제적으루 말하구있소. 눈을 잡아두어야 하지요. 그 농업잡지들을 좀 읽게 내게 주시오.》
(그건 네게 소용없다! 그럴 겨를이 없어. 네 목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하고 생각하며 뽈롭쩨브는 미소를 띄웠다.
《그럼 가을걷이한 밭에서는 눈을 어떻게 잡아둘가요? 방패가 필요합니다. 벌써 나는 마른 나무가지루 그런 방패를 만들어보려구 생각했지요. … 낭떠러지와 싸워야 합니다. 그 낭떠러지들이 해마다 우리한테서 1천여제샤찌나씩 빼앗아가거던요.》
《그건 모두 옳소. 그럼 어떻게 하면 집짐승우리를 따뜻하게 할수 있는지 그걸 말해보시오. 돈두 많이 안 들이구 보람있게 하려면, 예?》
《집짐승우리 말입니까? 그야 할수 있구 말구요. 네편네들을 시켜서 울바자에 흙칠을 하게 하는게 한 방법이구요, 그게 안된다면 두 울바자사이를 마른 마소똥으루 메우면 되지요. …》
《그렇군요. … 그럼 종자의 소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뽈롭쩨브는 통뒤에서 좀더 편히 자리를 잡으려 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뚜껑이 미끄러져 와르릉 떨어졌다. 뽈롭쩨브는 다위도브가 이렇게 묻는것을 듣고 이발을 갈았다.
《거 뭐가 떨어지지 않소?》
《누가 뭘 넘어뜨렸나 봅니다. 겨울에는 저기서 거처하지 않습니다. 땔것이 많이 가서요. … 개량종 대마를 보여드리지요. 반입종입니다. 겨울동안 저 방에 간수해두지요. 저리루 가십시다.》
뽈롭쩨브는 닁큼 복도문가로 뛰여갔다. 제때에 기름을 쳐놓은 방문

은 삐걱소리도 없이 그를 내보냈다. …

다위도브는 잡지뭉치를 겨드랑에 끼고 야꼬브 루끼치의 집을 나섰다. 그는 찾아갔던 결과에 만족했으며 오쓰뜨롭노브가 필요함을 더욱 깊이 확신했다. (저런 사람들하구라면 1년동안에 이 농촌을 일변시킬수 있겠다! 령리한 농군인걸. 젠장, 책두 많이 읽었어. 농사와 땅을 얼마나 잘 알구있는가! 이것이 기능이란거야! 마까르가 왜 그 사람을 못 믿어하는지 까닭을 모르겠어. 사실말이지 저 사람은 꼴호즈에 커다란 리익을 가져올게야!) 촌쏘베트로 걸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제 15 장

야꼬브 루끼치의 책략으로 인해서 그레먀치에서는 밤마다 집짐승을 잡게 되였다. 어슬어슬해지기가 바쁘게 벌써 어디선가 면양이 억눌린듯 한 짧은 울음소리를 내는가 하면 숨넘어가기 전의 돼지의 꽥소리가 정적을 꿰뚫었고 송아지가 음메 소리를 낸다. 꼴호즈에 든 사람도, 개인농도 집짐승을 잡았다. 황소, 면양, 돼지, 심지어는 암소까지 잡았다. … 두밤사이에 그레먀치의 집짐승의 마리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개들이 집짐승의 창자나 내포를 물고서 부락내를 끌고다니기 시작하고 움과 고간들은 고기로 찼다. 이틀동안에 소비조합상점에 1년반이나 창고에 쌓여있던 약 2백뿌드나 되는 소금이 달아났다. 《잡아라, 이제는 우리것이 아니야!》, 《잡아라, 꼴호즈에서는 고기를 못 먹게 된다.》 그런 흉악한 소문이 떠돌았다. 그래서들 잡았다. 운신을 못할만큼들 먹었다. 늙은것, 어린것을 막론하고 모두 배탈이 났다. 점심때에는 삶고 볶은 고기로 집집의 식탁들이 휘여들 지경이였다. 점심때에는 누구나가 입에 기름이 번지르하고 모두가 제사집에서처럼 트림을 했다. 그리고 머리가 뻥할만큼 포식해서 모두 눈물이 구저분했다.

쓔까리령감은 선참으로 지난 여름에 낳은 송아지를 까넘겼다. 가죽을 벗기기 쉽게 로파와 함께 그것을 들보에 매달려고 오래동안 헛되이 갖은 애를 다 썼다. (방목해서 기른 송아지는 육중하게 살이 쪘던 것이다.) 로파는 송아지궁둥이를 쳐들다가 허리까지 삐여 그후 한주

일동안이나 녀의사가 그의 잔등에 부항을 붙였다. 한편 쓔까리령감은 다음날 아침 손수 자기가 료리를 하여 로파가 병신이 된것을 서러워해선지 혹은 게걸이 심해선지 식사때 대충 삶은것을 하도 많이 잡숴서 그런지 그후 며칠동안 뜨락을 나서지 못하고 추위가 혹심한데도 밤낮없이 헛간뒤 해바라기속으로 다녔다. 그즈음 반나마 무너진 쓔까리네 집옆을 지난 사람들은 남새밭 해바라기대들속에 령감의 털모자가 삐죽이 내밀려있는것을 자주 보았다. 삐죽 내밀고는 있으나 꼼짝 안하다가 이윽고 쓔까리령감자신이 불시에 해바라기속에서 나타나 골목으로는 눈도 팔지 않고 절룩거리며 집으로 들어간다. 심히 괴로운 걸음걸이로 간신히 발을 끌면서 대문까지 이르자 갑자기 급한 일이라도 생각난듯이 발길을 돌려 종종걸음으로 해바라기속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다시금 령감의 털모자는 꼼짝없이 점잖게 해바라기대들속에 삐죽이 내밀고있다.

한편 혹한은 죄여댄다. 바람은 남새밭의 눈을 불어 흐트러뜨려 령감주위에 부리가 뾰족한 눈무더기를 쌓아올린다. …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 라즈묘뜨노브는 집짐승도살이 대중적성격을 띠고있음을 알자 곧 다위도브에게로 달려갔다.

《앉아있군?》

《책을 읽구있네.》다위도브는 누르스름한 조그만 책의 책장을 넘기고 생각에 잠긴듯이 미소를 띄웠다. 《여보게, 이 책은 마음을 그러쥐네!》그는 이발빠진 입을 벌리고 짧으나 힘찬 팔을 펼치고 웃음을 터쳤다.

《소설을 읽구있군! 그렇지 않으면 무슨 노래책이거나. 부락에서는…》

《바보! 바보! 소설이라구! 노래책이 다 뭐야!》다위도브는 웃음을 터치면서 안드레이를 맞은편 걸상에 앉히고 그의 손에 책을 내질렀다. 《이건 로쓰또브의 당열성자대회에서 한 안드레예브동지의 보고네. 여보게, 이건 소설 열권의 가치가 있어! 사실이지! 읽기 시작하자 먹는것두 잊구서 읽었네. 이제는 필경 다 식어버렸겠는걸.》

다위도브의 거무스름한 얼굴에 분한듯 한, 애석한듯 한 빛이 어렸다. 그는 일어나서 두손을 호주머니에 들이밀고 부엌으로 갔다.

《자네는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있나?》 라즈묘뜨노브는 깔끔해지면서 물었다.

《듣지 않구! 물론 듣지, 이제 곧.》
다위도브는 부엌에서 식은 배추국이 든 질그릇을 가져다놓고 앉았다. 그는 즉시로 빵을 한쪼각 크게 뜯어물고 씹으면서 분홍빛도는 광대뼈우로 혹같은 근육을 움직이며 재빛눈을 기진한듯이 가늘게 뜨고 말없이 라즈묘뜨노브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배추국우에는 오렌지빛으로 반짝이는 소고기기름이 동골동골 굳어졌고 떠있는 고추꼬투리가 빨간 불길처럼 빛났다.
《고기 넣은 국이로군.》 안드레이는 담배진이 밴 손가락으로 그릇을 가리키면서 영악스럽게 물었다.
다위도브는 목이 메여 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만족한듯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래, 고긴 어디서 났나?》
《모르겠네. 왜 그러나?》
《부락에서 집짐승을 절반이나 잡아치웠으니 말일세!》
《누가?》 다위도브는 빵덩이를 돌려서 밀어놓았다.
《도깨비들이야!》 라즈묘뜨노브의 이마우 상처자국이 검붉어졌다. 《꼴호즈위원장! 거인—꼴호즈를 만들겠다지! 누군 누구야, 자네네 꼴호즈원들이 잡구있지! 그리구 개인농들두! 환장들을 했어! 일시에 모두가 잡구있네. 지어는 황소까지 잡구있다니까!》
《이게 자네 버릇이야. … 군중대회에서처럼 웨쳐대는건…》 다위도브는 배추국을 먹으면서 화가 치민듯 말했다. 《침착히 조리있게 말하게. 누가 잡구있단 말인가, 왜?》
《난들 아나, 왠지?》
《자네는 언제나 부르짖구 웨쳐대니… 눈을 감으면 저 잊지 못할 17년이 다시 온것 같네.》
《부르짖게두 됐지!》
라즈묘뜨노브는 벌어진 집짐승도살에 관해서 아는것을 이야기했다. 이야기가 끝날무렵이 되자 다위도브는 거의 씹지도 않고 넘겼다. 익살기는 씻은듯이 없어지고 눈둘레에 패인듯 주름살이 잡혀 얼굴이 어쩐지 걸늙어보였다.
《즉시루 가서 총회를 소집하게. 나굴리노브는… 아니, 그 사람한테는 내가 들리지.》
《무엇때문에 소집하나?》

《무엇때문에라니? 집짐승을 잡는걸 금지해야지! 꼴호즈에서 내쫓구 재판에 넘기세. 이건 매우 중대하네, 사실말이지! 이건 부농들이 또다시 훼방을 놓는거야! 자, 한대 피우구 가보세. … 아참, 내가 뽐내는걸 잊었었군.》

다위도브의 얼굴에 행복스러운 미소가 지나가고 그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떠올랐다. 암만 엄하게 입술을 오무려보아도 그는 기쁨을 감출수 없었다.

《나는 오늘 레닌그라드로부터 소포를 받았네. … 동무들이 보내준 소포야. …》

그는 몸을 굽혀 침대밑에서 상자를 꺼내더니 만족한듯 얼굴이 벌개가지고 뚜껑을 쳐들었다.

상자안에는 담배 싼것, 과자곽, 책, 조각을 한 나무담배갑 그리고 또 무엇인지 싼것과 만것이 무질서하게 들어있었다.

《동지들이 나를 생각하구 이렇게 보내주었네. … 여보게, 이건 우리 레닌그라드 담배네. … 보게, 여기 쵸콜레트까지 있는데 이거야 내가 뭘하나? 어느 집 어린 아이한테나 줘야겠네. … 그렇지만 중요한건 그런게 아니라 이 사실이야, 그렇지? 중요한건 나를 생각하구 보내준거야. 여기 편지두 있네. …》

다위도브의 목소리는 여느때없이 부드러웠다.

이처럼 행복에 어쩔줄 모르는 다위도브동지를 안드레이는 처음 보았다. 그의 흥분은 모르는 사이에 라즈묘뜨노브에게로 옮아갔다. 좋게 이야기하고싶어서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것 좋군. 자네는 좋은 사나이니까 이를테면 그래서 보내준걸세. 보게, 거기에 들어있는건 한루블리어치쯤이 아니네.》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네두 아다싶이 나는 제길, 고아와 비슷한것이 녀편네두 아무두 없네, 사실말이지! 그런데 별안간 이 소포네그려. 감동적인 사실이야. … 보게, 편지에 몇사람이나 서명을 했나.》 다위도브는 한손으로 담배갑을 내밀고 또 한손에는 많은 사람이 잔뜩 서명을 한 편지를 쥐였다. 두손이 떨리고있었다.

라즈묘뜨노브는 레닌그라드의 담배를 붙여물고 이렇게 물었다.

《그래 어떤가, 새 방이 마음에 드나? 주인녀편네는 괜치 않나? 세탁은 어떻게 하고? 빨건 우리 어머니한테라두 가져오면 어떤가? 그렇지 않으면 주인녀편네하구 계약을 하던지. … 자네 속옷은 칼루두 자

르기 힘들 지경으로 꽛꽛해졌구 땀내가 죽은 말에서처럼 고약하네.》

다위도브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발끈했다.

《거기에는 사정이 있네. … 나굴리노브네 집에 있었지만 거기서는 어쩐지 거북스러워서… 깁는것두 제 손으로 했구 또 씻는것두 이럭저럭 자기가 했네. 그리구 통털어 나는 아직 도착한이래 씻지를 못했어, 사실말이지, 내의두 그렇구… 여기 상점에는 비누가 없는데 벌써 전에 주인녀편네한테 부탁했더니 〈비누를 줘요.〉이러는군. 세탁비누를 보내달라구 동무들에게 편지를 쓰려네. 방은 괜치 않아. 어린애들이 없어서 방해가 없이 책을 읽을수 있구 또 통털어…》

《어머니한테 가져오게, 빨아줄게야. 조금두 사양말게, 우리 어머니는 좋은 늙은이네.》

《그건 어떻게든 할수 있네. 걱정말게, 감사하이. 꼴호즈를 위해서 목욕탕을 만들어야겠어. 참말이네! 만드세, 사실말이지! 그럼 가서 회의를 조직하게.》

라즈묘뜨노브는 담배를 피우고 나갔다. 다위도브는 별생각없이 소포안의 싼것들을 밀어놓고 한숨을 내쉬였다. 황갈색속옷의 늘어진것을 고치고나서 뒤로 넘긴 검은 머리카락을 쓸어붙이고 옷을 입기 시작했다.

도중에 나굴리노브한테 들렸다. 나굴리노브는 널직한 눈섭을 찡그리고 외면하면서 그를 맞았다.

《집짐승을 잡구들 있지. … 제것이 아까와진 모양이야. 소부르죠아간에서 그런 소동이 일어나거던.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군.》 인사를 하고나서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당장 무뚝뚝하게 안해에게로 돌아섰다. 《글리께리야, 곧 여기서 나가게. 주인녀편네한테 좀 가서 앉아있어. 임자가 있는데서는 난 말을 하지 못하겠네.》

서글퍼보이는 루쉬까는 부엌으로 나갔다. 부농들의 가족과 함께 찌모페이 르와늬가 떠나간 이후 줄창 이 며칠동안 그는 물에라도 잠긴듯이 풀이 죽어서 돌아다녔다. 부어오른 그의 눈밑에는 슬픔에 찬, 호수같은 푸른빛이 생기고 코도 죽은 사람같이 뾰족해졌다. 정부와의 리별이 가슴에 벅찬 타격을 준것이 분명했다. 추운 북쪽변강으로 떠나가는 부농들을 보내던 때 그는 드러내놓고 부끄러워도 않고 찌모페이를 기다리면서 온종일 보르쑈브네 뜨락근방을 서성거렸다.

저녁에 부농가족들과 가장집물을 실은 달구지들이 그레먀치를 떠날

때 그는 지랄이라도 치는듯 한 듣기 역한 소리로 웨쳐대고 눈우에서 뒤치락거렸다. 찌모페이는 달구지에서 내려 그한테 달려가려 했으나 프롤 르와늬가 을러대며 고함을 질러 그를 되불러갔다. 찌모페이는 불타는 증오에 새하얘진 입술을 깨물며 줄곧 그레먀치를 돌아다보면서 달구지뒤를 따라갔다.

다정하던 찌모페이의 말도 이제는 백양나무잎과 같이 살랑거렸다. 루쉬까는 두번다시 그 말들을 듣지 못하리라. 계집의 몸으로서 님 그리는 심화병에 어찌 마르지 않으랴, 어찌 애끓지 않으랴 . 이제는 누가 정답게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당신에게는 이 초록빛치마가 잘두 어울리는군. 루쉬까! 그걸 입은 당신은 옛날 장교색시보다두 더 곱다니까.》라든가 혹은 녀자들의 노래구절로 《용서해요, 어여쁜이여. 아름다운 그대 모습 내 마음에 들어요.》 하고 말하랴. 오직 찌모페이만이 아첨과 유들유들한 난봉의 솜씨로써 루쉬까의 마음을 뒤흔들수 있었다.

그날부터 그는 남편에 대해서 아주 스스러워졌다. 한편 마까르는 그때 침착히, 무게있게 그리고 여느때없이 수다스럽게 말했다.

《집에서 며칠 남은 날을 살아라, 마지막으로. 그리구는 고무줄이며 머리기름병이며 자기 잡동사니들을 모아가지고 갈데루 가. 임자에게 반해서 숱한 창피를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참을수 없다! 부농의 자식과 붙은것두 나는 잠자쿠 있었다. 그렇지만 임자가 꼴호즈의 책임적인 사람들앞에서 그자식때문에 눈물을 짠바에는 더 참을수 없어! 임자와 함께 있다가는 세계혁명을 보긴커녕 전연 뒤떨어지구 말겠다. 임자는 내 생활에서 등살에 매여달린 쓸데없는 짐이야. 그 짐을 나는 벗어버리겠다! 알았어?》

《알았어요.》 루쉬까는 대답하고 조용해졌다.

그날 저녁 다위도브와 마까르사이에는 간절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 계집이 자네에게 창피를 줬네! 자네는 이제 어떻게 꼴호즈사람들앞에서 얼굴을 쳐들구 다니겠나, 나굴리노브?》

《자네는 또 그 얘긴가. …》

《자네는 몽둥일세! 소똥집같으니!》 다위도브는 목이 검붉어지고 이마에 피줄이 일어섰다.

《자네하구야 말을 할수 있나?》 나굴리노브는 방안을 거닐며 손가락을 딱딱 꺾으면서 능청스럽게 히죽거렸다. 《조금만 말이 빗나가두

이내 자네는 〈무정부주의자다! 편향이다!〉하구 결구 늘어지지. 내가 녀편네를 어떻게 보구있구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런 수치를 참아왔는지 자네는 아나? 이미 나는 자네한테 말했지. 나는 그 계집에게 미련이 있는게 아니야. 자네는 양꼬랑지에 대해서 뭘 생각해본 일이 있나?》

《아, 아니…》다위도브는 마까르의 이야기가 별안간 방향이 달라지는통에 얼떨떨해서 말꼬리를 길게 뽑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네. 양은 왜 저런 꼬리를 달구 태여났을가? 아무런 필요두 없을것 같지. 말이나 개면 그 꼬리루 파리라두 날리지. 그렇지만 양은 여덟폰드나 되는 고기살덩이를 매달구 있어서 흔들어본댔자 파리두 못 날리구 그 꼬리루 해서 여름에는 덥구 또 우웡씨나 붙지.》

《아니, 꼬리타령은 왜 하나?》 다위도브는 슬그머니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굴리노브는 태연히 계속했다.

《그건 내가 보기엔 부끄러운데를 감추기 위해 양한테 달려있네. 거북스럽기야 하지. 그러나 양이 되여보면 어데다 감추겠나? 내게두 계집은 즉 다시말하면 녀편네는 양한테 꼬리가 필요하듯이 필요한걸세. 나는 세계혁명에 골몰하구 있네. 나는 그것을 애인처럼 기다리구있어.… 내게 계집이란 뭬 하면 그뿐이야. 계집은 곁불이지. 그렇지만 계집이 없어두 안되네. 내 계집이 만약 약골이라면 쓸데없지! 나는 그것한테 이렇게 말했네. 〈그럴 필요가 있다면 바람을 피워라. 그렇지만 이봐, 치마폭에 새끼를 싸온다든가 병을 옮아왔다간 모가지를 비틀어놓겠다!〉그런데 다위도브동지, 자네는 그런걸 아무것두 모르네. 자네는 쇠로 만든자 한가지야. 그래서 자네는 혁명에 대해서두 잘 느끼지 못하네.… 그래 왜 자네는 계집일루 해서 나를 콕콕 찌르나? 그것이 부농하구 관계했구 그놈을, 계급적원쑤를 불러댔으니까 결국 그 계집은 독벌레야. 나는 그것을 집에서 내쫓겠네. 때리는건 나는 못하겠어. 나는 새 생활에 들어섰으니만큼 자기 손을 더럽히구싶지 않아. 자네라면 아마 때렸겠지. 어떤가? 그렇다면 공산당원인 자네와 이를테면 과거사람, 가령 어떤 관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나? 그자들은 늘 녀편네를 때렸지. 그렇구말구! 아니야. 여보게, 루쉬까에 대해서 내게 얘기하는건 그만두게, 그것과는 내가 처리할테니. 이 일에 있어서는 자

네는 필요없는 사람이야. 계집, 그건 매우 중대한 일이란 말일세! 많은것이 그것에 좌우되거던.》 나굴리노브는 꿈꾸는듯 한 미소를 띄우고 열기있게 계속했다. 《모든 국경을 쳐부시면 나는 선참으로 웨치겠네. 〈피가 다른 녀편네들하구 결혼해라!〉구. 왼통 뒤섞여서 이 세상에는 한자가 몸뚱아리가 희면 다른자는 누렇고 또 다른자는 검고, 흰자들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자들을 괄시하구 업수이 여기는 그런 수치가 없어질거야. 모두가 기분좋게 거무스름한 얼굴이 되구 모두가 같아질거네. 나는 가끔 밤에 그런 생각을 하네. …》

《자네는 꿈속에서 살구있군, 마까르!》다위도브는 불만스레 말했다. 《자네는 모를데가 많네. 인종적반목은 그렇지만 그외에는! 사생활문제에 있어서 나는 자네를 찬성 안하네. 그건 마음대로 하게나! 다만 이 이상 자네 집에서는 거처하지 않겠네, 사실말이지!》

다위도브는 책상밑에서 트렁크를 꺼내들고 (트렁크속에는 갑갑하게 들어있던 공구들이 와르르 소리를 냈다.) 나가버렸다. 나굴리노브는 그를 어린애가 없는 꼴호즈원 필리모노브네 집으로 바래다주었다. 그때, 필리모노브네 뜰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파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가정문제와 사생활문제는 그 이상 더 언급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들 서로의 관계는 한결 차거워졌다. …

그래서 이번에도 나굴리노브는 줄창 옆이나 아래를 보면서 다위도브를 대했다. 그러나 루쉬까가 나간 다음에는 저으기 신이 올라 말했다.

《집짐승을 잡구있네. 벌레같은 놈들이! 꼴호즈에 바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세사람 몫이라두 처넣을 작정들이지. 오늘 회의에서 흉악한 집짐승도살자들을 총살하자는 청원을 제출하도록 나는 제의하겠네.》

《뭐어!》

《총살하잔 말이야, 총살하려면 어디다 수속해야 하나? 인민재판으루는 안될가? 새끼 밴 암소를 잡은자들을 한 뒷 땅땅 해버렸으면 좋겠네. 그러면 아마 다른 놈들두 정신이 들게야! 이제는 아주 엄격하게 해야 해.》

다위도브는 궤짝우에 모자를 던지고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깊이 생각하는 기색이 엿보였다.

《또 자네는 빗나가네. … 자네두 야단일세. 마까르! 자, 좀 생각해

보게. 암소를 잡았다구 해서 과연 총살할수 있겠나? 그런 법령은 없네. 사실말이지!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쏘베트의 결정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거기에는 2년간의 금고와 토지몰수에 처할수 있구 악질적인자는 변강에 추방할수 있다는것이 밝혀져있네. 그런데 자네는 총살청원을 하자지. 어쩌면 자네는 그렇게두…》

《그렇게 해두! 나는 아무렇지두 않네! 자네는 줄창 가늠해보지 않으면 계획만 하구있거던. 그래 꼴호즈에 들지 않은자들이 소를 몽땅 잡으면 뭘루 밭을 갈아 씨를 뿌리겠나?》

마까르는 다위도브에게루 바싹 다가서서 그의 널직한 어깨에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그는 다위도브보다 거의 머리 하나 키가 커서 우에서 그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자네는 한심하이! 왜 자네 머리는 그렇게 느린가 말이야?》 하고는 거의 웨치다싶이 했다. 《파종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아닌가! 대관절 그걸 모르겠나? 집짐승을 잡은데 대해서 뒤서너놈 독벌레들을 반드시 총살해야 하네! 부농들을 총살해야 해! 놈들의 작간이거던! 상부정권기간에 청원을 해야 해!》

《바보!》

《또 내가 바보가 됐군. …》 나굴리노브는 맥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즉시로 고삐를 채운 말처럼 고개를 치켜들고 고함을 질렀다.

《모조리 잡아없앨거야! 공민전쟁때 진지전때가 와서 사방에서 접어드는 적을 까부시듯이. 그런데 자네는! 자네같은자들이 세계혁명을 망치구있어!… 자네들, 생각이 느린자들때문에 세계혁명이 오는게 늦네! 곳곳에서 부르죠아들이 로동대중을 강탈하구 붉은중국인들을 포연속에서 학살하구 전체 흑인들을 후려갈기구있는데 자네는 여기서 원쑤들에게 곰살궂게 구나! 부끄럽네! 이만저만 부끄럽지가 않아! 외국에서 부르죠아들의 괄시를 받구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면 심장의 피가 마를 지경이야. 그렇기때문에 나는 신문을 읽어낼수 없네!… 신문을 읽으면 나는 온통 속이 뒤집혀! 그런데두 자네는! 원쑤놈들이 감옥에 몰아넣은 사랑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네들을 자네는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게야!…》

다위도브는 무섭게 큰소리로 코를 울리고 반드르르한 검은 머리카락을 다섯손가락으로 긁어올렸다.

《젠장! 어떻게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나? 사실말이지! 제발 떠들지 말아주게! 자기가 신경쇠약이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드는군! 나는 뭐 전쟁에서 루쉬까의 눈을 위해서 반혁명분자들을 해치운줄 아나? 자네는 뭘 제의하구있나? 정신차리게! 총살이란건 문제두 안되네! 차라리 대중사업을 진행해서 우리의 정책을 해설하는게 좋아. 총살하는건, 그건 간단하지! 그런데 자네는 늘쌍 이렇지! 조금이라두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시 자네는 극단에 떨어지거던, 사실말이지!입때까지 자네는 어디 있었나?》

《자네와 같은 곳일세!》

《거기에 사실이 있어! 우리는 모두 그 운동을 소홀히 해왔는데 이제는 시정해야겠네. 총살을 운운할 때가 아니야! 히스테리는 그만 부리게! 일에나 착수하게! 젠장, 어떤 아가씨 한가지라니까! 손톱을 물들인 아가씨만두 못해!》

《내 손톱은 피에 물들었네!》

《장갑을 끼지 않구 싸운 사람은 다 그렇지, 사실말이지!》

《쎄묜, 어떻게 자네는 나를 아가씨라구 부를수 있나?》

《말결에 나왔지.》

《그 말을 취소하게.》 나굴리노브는 조용히 부탁했다.

다위도브는 덤덤히 그를 바라보고있다가 웃음을 터쳤다.

《취소하네. 진정하구 회의를 가세. 도살하지 말라구 단단히 타일러야겠어.》

《어제 나는 온종일 집집으루 다니며 타일렀네.》

《그게 좋은 방법이야. 더 다녀야 해, 우리들모두가.》

《또 자네는… 어제 나는 방금 뜨락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지. (그만하면 설복한셈이지!) 하구. 그런데 나와서 들으니까 〈꽥, 꽥!〉하구 벌써 어떤 돼지새끼가 칼을 맞구 소리를 지르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벌레같은 사유주의자에게 세계혁명과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한거네! 그것두 이만저만하게 말했다구! 감격해서 자신두 몇번씩 눈물이 나왔어. 아니야, 그네들은 타이를게 아니라 대가리를 때리구서 분부해야 해. 〈이 독충아, 부농들 말을 듣지 말아! 그놈한테서 사유란걸 배우지 말아! 이 고약한놈아, 집짐승을 잡지 말아!〉하구. 그자는 자기가 소를 잡구있는줄 생각하구있지만 실상인즉 그자는 세계혁명의 등골에 칼을 꽂구있는거야!》

《사람을 봐서 때리기두 하구 가르치기두 해야지.》 다위도브는 고집했다.

그들은 뜰로 나섰다. 축축한 눈이 휘뿌리고있었다. 낡은 눈을 덮은 끈적끈적한 눈송이가 지붕우에서 녹았다. 캄캄한 어둠속을 지나 학교에 이르렀다. 회의에는 그레먀치부락민들의 절반밖에 오지 않았다. 라즈묘뜨노브가 《야수적인 집짐승도살과의 투쟁대책에 관하여》 하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쏘베트의 결정을 랑독하고 그다음에 다위도브가 발언했다. 마지막에 그는 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물여섯통의 꼴호즈가입청원이 들어와있습니다. 래일 회의에서 그것을 토의할텐데 부농의 낚시에 걸려서 꼴호즈에 가입하기 전에 집짐승을 잡은 사람은 가입을 수락하지 않겠소, 사실말이지!》

《만약 꼴호즈에 든자가 새끼집짐승을 잡으면 그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류비슈낀이 물었다.

《그런자들은 제명하겠소!》

만장이 야 소리를 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꼴호즈를 해산하시오! 부락에서 집짐승을 잡지 않은 집은 없으니까!》 보르쑈브가 웨쳤다.

나굴리노브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내흔들었다.

《닥쳐라, 이 부농지지자야! 꼴호즈일에 주둥이를 들여밀지 말아. 네가 없어두 넉넉하다! 너자신이 나릅짜리 황소를 잡지 않았니?》

《내 집짐승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지!》

《래일 너를 감옥으루 보낼테니 주인행세는 거기 가서나 해라!》

《너무 심하외다! 너무 심해요.》누군가 거쉰 목소리로 웨쳤다.

회의는 비록 인원이 적었지만 격렬했다. 헤여질 때 부락민들은 말이 없었고 다만 학교에서 나와 뿔뿔이 떼지어 걸어가면서야 의견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도깨비에 홀려서 양을 두마리 잡았어!》 류비슈낀은 한숨을 길게 내쉬였다. 《이제는 회의앞에 나가서 눈을 끔쩍끔쩍할수밖에, 에이, 그 계집년을! 그것이 〈잡아라, 잡아라.〉하구 죄를 짓게 충동질했지. 고기를 처먹구싶었던게야! 에이, 치마입은 마귀같으니! 집에 가서 당장 혹이 튀여나오게끔 패여줘야지!》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줘야 해.》 류비슈낀을 중매선 고령의 로인

아낌 베쓰흘렙노브가 충고했다. 《임자가 그런짓을 해서야 어디 쓰겠나, 임자는 꼴호즈원인데.》

《그것두 그렇군요.》 류비슈낀은 어둠속에서 입수염에 쌓인 눈송이를 털고 흙덩이에 발을 걸채이면서 한숨을 지었다.

《아낌할아버지, 댁에서두 아마 얼룩소를 잡았겠지요?》 베쓰흘렙노브네 이웃에 사는 좀까 우샤꼬브가 기침을 하면서 말했다.

《잡았네. 어떻게 안 잡을수가 있어야지! 그 망할 얼룩소가 다리가 부러졌네그려! 귀신이 그걸 움으루 몰아갔는지 움에 빠져 다리가 부러졌어.》

《글쎄, 내가 저녁에 보니까 령감님이 며느리하구 함께 나무가지를 들구 소를 움으루 몰아대더군요. …》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이야, 제멘찌! 그런 말일랑 말게!》 아낌령감은 깜짝 놀라 새까만 어둠속에서 자주 눈을 깜빡거리며 골목 한복판에 멈춰서기까지 했다.

《갑시다, 갑시다. 령감님.》 좀까는 그를 가라앉혔다. 《아니, 왜 밭에 박힌 연장처럼 서있수? 황소를 움에 몰아넣었지요?》

《저절로 빠졌어. 제멘찌! 죄질 얘기 말게. 어, 그건 큰 죌세!》

《령감님두 능청스럽지만 소는 더 능청맞지요. 소는 혀바닥이 꼬리까지 가지만 령감님은 아마 그렇게는 못하시지요? 〈소를 병신으로 만들면 먹어둔거야.〉 그렇게 생각했지요.》

부락 상공에서는 축축한 바람이 미친듯이 날쳤다. 개천가의 숲에서 백양나무와 수양버들이 소란스럽게 설레였다. 눈을 찌른대도 모를 캄캄한 장막이 부락을 덮었다. 습지로 인해서 어렴풋해진 목소리들이 골목골목에서 오래동안 들렸다. 눈이 펑펑 쏟아졌다. 겨울이 마지막밑천을 털어내리고있는것이였다.

제 16 장

다위도브는 라즈묘뜨노브와 함께 회의에서 돌아왔다. 축축한 눈이 촘촘히 내리고있었다. 어둠속 여기저기서 등불들이 반짝이였다. 홱홱 불어지나가는 바람에 끊기우는 개짖는 소리가 전부락에 서글프게 끊임없이 들렸다. 다위도브는 야꼬브 루끼치의 눈 잡아두는 이야기를 상

기하고 한숨을 내쉬였다. (아니야, 금년은 그럴 사이가 없다. 이런 눈보라에는 밭에 숱한 눈이 쌓일걸! 아깝구나, 사실말이지!)

《마구간에 들려서 꼴호즈의 말들을 좀 보세.》라즈묘뜨노브가 제의했다.

골목으로 꺾어들었다. 오래지 않아 불빛이 나타났다. 마구간으로 된 라쁘쉬노브네 건초적지장옆에 등불이 달려있었다. 뜰안으로 들어갔다. 마구간 문가까이 처마밑에 여덟명가량의 까자크들이 서있었다.

《누가 오늘 경비인가?》라즈묘뜨노브가 물었다.

서있던 사람들중의 한명이 담배를 장화에 문질러끄고 대답했다.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외다.》

《그래, 왜 여기 모두 모여있소? 여기서 뭣들 하구있소?》다위도브가 물었다.

《저, 다위도브동지… 여기 서서 함께 담배를 피우구있지요. …》

《저녁에 탈곡장에서 꼴을 날라왔어요.》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가 벌어졌지요. 눈보라를 그어갈려구요.》

간을 막은 마구간에서 말들이 한결같이 꼴을 씹고있다. 매 간마다 그 맞은편 나무시렁에는 목칼, 끌띠 등이 걸려있다. 통로는 깨끗이 쓸었고 누런 강모래가 조금 흩어져있다.

《마이단니꼬브!》 안드레이가 불렀다.

《어!》 마구간끝에서 대꾸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이단니꼬브는 갈퀴로 쌀보리짚 한단을 날라왔다. 그는 방문에서 네번째 간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검은 말을 발로 일으켜세우고 짚을 뿌렸다.

《돌아섯! 제길헐!》 그는 사납게 웨치고 졸고있는 말에 대해서 갈퀴자루를 둘러댔다.

말은 놀란듯이 발로 마루를 퉁퉁 긁고 코를 울리더니 보매 눕는것은 단념한듯 여물통으로 목을 뻗쳤다.

마구간냄새와 짚냄새가 전신에 밴 꼰드라트는 다위도브에게로 다가와서 껄껄하고 찬 손을 내밀었다.

《그래 어떻소, 마이단니꼬브동지?》

《괜치 않습니다, 꼴호즈위원장동지.》

《어째 몹시 공식적이구려. 꼴호즈위원장동지라…》 다위도브는 미소를 띄웠다.

《나는 지금 책임을 집행하구있는중이지요.》
《왜 사람들이 마구간근처에 모여있소?》
《직접 그네들한테 물으시구려!》끈드라트의 목소리에는 사납게 골이 난 빛이 엿보였다. 《밤꼴을 줄 때면 그녀석들이 어디선가 나타나거던요. 사람들은 개인농사때 버릇에서 아무래도 빠지지 못하거던요. 저기 앉은건 모두 말주인들이외다. 찾아와서는 걱정이지요. 〈내 밤색말에 꼴을 줬나?〉, 〈우리 황부루 짚을 깔아줬나?〉, 〈내 암말 잘 있나?〉 대체 그자의 암말이 어디 가겠어요? 내가 암말의 코등을 쥐기기라두 하겠어요? 그냥 기여들어와서는 조르지요. 〈자, 말들 꼴 주는걸 도웁세!〉 그리구는 그냥 자기 말에게 조금이라두 더 꼴을 넣어주려구 노리지요. … 야단이외다! 필요없는자는 여기서 서성거리지 않도록 결정을 채택해야겠수다.》
《들었나?》 안드레이는 다위도브에게 눈짓을 하고 아주 곤난하다는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모두 여기서 쫓아버리시오!》 다위도브는 얼굴이 엄해지면서 일렀다. 《경비자와 협조자외에는 한사람두 없게 하시오! 꼴은 얼마큼씩 줍니까? 달아서 줍니까?》
《아니요, 달지 않습니다. 눈대중으루 한마리에 한 반뿌드씩 줍니다.》
《짚은 다 깔아줍니까?》
《아 그렇지, 내참!》 끈드라트는 맹렬하게 기병모를 한번 쥐여흔들었다. 그의 거무스름하고 든든한 목이며 다 낡은 외투깃에 부드러운 지푸레기가 흩어졌다. 《우리 경리부장 오쓰뜨롭노브, 저 야꼬브루끼치가 오늘 저녁전에 와서 하는 말이 〈말들에게 먹다남은 꼴을 깔아주라.〉 이러는군요. 대관절 그런 법이 있어요? 그자는 제길, 우수한 일군이라구들 하는자가 그런 망발을 한담!》
《그건 어째서요?》
《그렇지 않구요, 다위도브동지! 먹다남은 꼴은 모두 알뜰히 멕일수 있는거외다. 그속에다 먹을수 있는 잔쑥이나 혹은 부리얀초를 섞으면 양이나 염소들이 모두 말끔 먹을텐데 그자는 말들에게 깔아주라구 분부하는거외다! 내가 반대하려니까 그자는 〈네 일은 내게 지시하는게 아니야!〉 하겠지요.》
《먹다남은 꼴은 깔지 마시오. 옳소! 우리가 그 사람을 래일 혼쌀

을 내겠소!》 다위도브는 약속했다.

《그리구 또 하나, 우물옆에 쌓아뒀던 짚을 헐기 시작했는데 그건 무엇때문인가요?》

《야꼬브 루끼치가 내게 말하던데 그건 좀 나쁜 짚이랍디다. 그 사람은 나쁜 짚은 겨울에 멕이구 좋은건 봄갈이때 멕이려구 남겨두구싶답니다.》

《그렇다면 그건 옳소.》 끈드라트는 동의했다. 《먹다남은 짚에 대해서는 그자에게 말해주슈.》

《말하겠소. 자, 레닌그라드담배나 한대 피우시오. …》 다위도브는 기침을 했다. 《공장동무들이 나한테 보내주었소. … 말들은 다 무사합니까?》

《고맙습니다. 불을 좀 주시유. … 말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지난밤에 라쁘쉬노브네 말이던 우리 준마가 쓰러졌댔지만 잘 돌보아 다 낫지요. 래일 편자를 모두 다시 박겠수다. 너무 미끄러워서 얼음에 편자가 다 먹혔거던요. 그럼 안녕히 가슈. 나는 아직 짚을 다 깔아주지 못했수다.》

라즈묘뜨노브는 다위도브를 바래다주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한 집을 지났다. 그런데 다위도브네 집으로 가는 골목에서 꺾어들었을 때 라즈묘뜨노브는 개인농 루까쉬까 체바꼬브네 뜰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다위도브의 어깨를 건드리고 이렇게 속삭였다.

《보게!》

삽짝문옆으로 서너걸음쯤 떨어져 검은 사람그림자가 얼씬거렸다. 갑자기 라즈묘뜨노브는 날쌔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문 저쪽에 서있던 사람을, 오른손으로는 권총손잡이를 그러쥐였다.

《너 루까 아니냐?》

《아니, 이거 안드레이 쓰쩨빠노비치군요.》

《오른손에 든게 뭐냐? 자, 이리 내놔! 썩!》

《아니, 당신은? 라즈묘뜨노브동지!》

《내라는데두! 갈긴다!…》

다위도브는 근시눈을 가늘게 하면서 소리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자네는 그 사람한테서 뭘 뺏어내구있나?》

《내놔, 루까! 쏜다!》

《자, 받우. 아니, 당신은 눈이 뒤집혔소?》

《이런걸 가지구 이놈이 문옆에 서있었군! 에이, 이놈! 무엇때문에 너는 밤에 칼을 들구 서있느냐? 너는 누구를 기다렸니? 다위도브가 아니냐? 왜 단도를 들구 서있느냐 말이야? 반혁명이냐? 살인자가 되구 싶더냐?》

안드레이의 날카로운 사냥군의 눈만이 삽짝문옆에 서있는 사람의 수중에서 흰 칼날을 보아낼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달려든것이요 마침내 무장해제를 시킨것이다. 그러나 얼벙벙해진 루까쉬까를 다급하게 문초하기 시작하자 루까쉬까는 삽짝문을 열고 목소리까지 달라져서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잡도리하는바에는 나두 잠자쿠 있지 못하겠소! 당신은 쓸데없는걸 가지고 제발 나를 의심하지 마시유. 안드레이 쓰쩨빠늬치! 들어갑시다.》

《어디루?》

《헛간으루.》

《그건 뭣하러?》

《가서 보면 내가 왜 칼을 들구서 골목을 내다보구있었는지 다 알게 될거외다. …》

《가봅시다.》 다위도브는 앞장서서 루까쉬까네 뜰안으로 들어서면서 제의했다. 《어디루 갑니까?》

《내뒤루 따라오시유.》

쌓았던 마소똥 마른것이 무너져내린 헛간속에는 걸상우에 등불이 켜있고 그옆에 루까쉬까의 처가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동그란 얼굴에 눈섭이 가늘고 예쁘장하게 생긴 녀편네였다. 남의 사람들을 보자 그는 놀란듯 일어나서 담벽앞에 놓여있는 두개의 바께쯔와 함지를 막아섰다. 그의 뒤 으슥한 구석을 보니 방금 깔아놓은듯 깨끗한 짚우에서 불깐 살찐 돼지가 어슬렁거리고있었다. 돼지는 커다란 버치속에 머리를 들이밀고 구정물을 먹느라고 첩첩거렸다.

《보슈, 참 야단났습니다. …》 루까쉬까는 돼지를 가리키면서 면구스러운듯 두서없이 말했다. 《불깐 돼지를 몰래 잡으려구 했수다. … 녀편네는 저것에게 먹을걸 멕이구 나는 그저 저걸 때려잡으려던 판인데 들으니까 어딘가 골목에서 두런두런하길래 〈어디 나가보자. 공교롭게 누가 듣지나 않을가?〉 하구 생각했지요. 그래서 나는 소맬 걷구 행주치마 두른채 칼을 든 그냥그대루 문으루 나갔지요. 그랬더니

그게 당신들이였어요! 그래 나를 어떻게들 생각하시유? 대체 사람을 죽이는데 행주치마 두르구 소맬 걷어붙이구 나가겠소?》 루까쉬까는 행주치마를 벗으면서 계면쩍은듯이 미소를 띄우고 화를 참으며 처에게 소리쳤다. 《아니, 왜 서있어? 바보같으니, 돼지를 쫓아내!》

《자네 그걸 잡지 말게.》 라즈묘뜨노브는 저으기 열적게 말했다. 《이자 회의두 있었네만 집짐승을 잡으라는 허가는 없네.》

《안 잡겠수다. 잡으려던 마음을 당신들이 몽땅 깨쳐버렸소. …》

다위도브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집에 이를 때까지 줄창 안드레이를 놀려댔다.

《꼴호즈위원장을 죽이려는것을 미연에 막았네그려! 반혁명분자를 무장해제시켰겠다! 하니까 장산걸, 사실말이지! 하하하!…》

《그 대신 돼지목숨을 살렸거던.》 라즈묘뜨노브도 익살로 갚았다.

제 17 장

다음날 그레먀치당세포의 비공개회의에서는 그레먀치꼴호즈의 꼴호즈원들에게 속하는 큰 방목집짐승이나 또는 작은 집짐승을 막론하고 전부를 공동소유화한다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집짐승외에 가금도 공동소유화하기로 결정되였다.

처음에 다위도브는 작은 집짐승과 가금의 공동소유화를 완강히 반대했으나 나굴리노브는 만약 꼴호즈원들의 회의에서 전체 집짐승을 공동소유화할데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전집짐승을 가금과 더불어 도륙낼것이니만큼 봄파종사업이 파탄되리라고 단호하게 언명했다. 라즈묘뜨노브가 그를 지지하고 그래서 다위도브도 주저하면서 동의했다.

이밖에 악질적인 집짐승도살을 제지시키기 위해서 강력히 선전사업을 전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당원들이 각각 책임을 지고 즉시 당일부터 집집을 방문할것이라는 결정이 채택되여 회의록에 기입되였다. 집짐승을 도살한 사실이 실증된자들에 대한 처벌대책에 관해서는 당분간 아무에게도 적용하지 않고 선동사업의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면 집짐승과 가금이 좀 부지돼 나갈걸세. 그렇지 않으면 봄까지에 부락에서는 소 우는 소리두 닭소리두 듣지 못하게 되

네.》 나굴리노브는 흡족해서 회의록을 서류끼우개에 넣으며 말했다.
꼴호즈회의는 전체 집짐승을 공동소유화할데 관한 결정을 쾌히 채택했다. 부림짐승과 젖짜는 짐승은 이미 공동소유화되여있었으므로 이 결정은 어린 마소와 양 그리고 돼지들과 관계되는것이였다. 그러나 가금에 대해서는 오래동안 열렬히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아낙네들이 반대했다. 회의끝에 가서는 그들의 고집도 꺾었다. 여기에서는 나굴리노브가 큰 역할을 놀았다. 그는 길다란 손바닥을 훈장우에 가져다대면서 간절하게 말한것이다.
《친애하는 부인네들! 닭이나 게사니들을 그리 아쉬워하지 마시오! 마소의 잔등두 붙잡아내지 못했는데 항차 그것들의 꼬리를 붙잡아내겠소. 닭두 꼴호즈에서 살두룩 하시유. 봄까지는 인공부화기를 주문해올텐데 그러면 암닭대신에 부화기가 수백마리의 병아리를 까게 됩니다. 부화기라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아주 훌륭히 병아리를 깨웁니다. 제발 생고집들을 부리지 마소! 그건 당신들의 닭이 될게구 다만 공동닭우리에 있을뿐이외다. 닭을 개인들이 가져서는 안돼요. 친애하는 아주머니들! 그리구 닭에서 당신들에게 무슨 리익이 있소? 어차피 지금은 알을 안 낳구 또 봄철이 되면 시중이 여간 아니지요. 즉 다시말하면 닭들이 남새밭에 들어가서 심어놓은걸 쫘먹는가 하면 또 보시유, 그 망할것들이 알을 어딘가 고간밑에다 낳아버리구 그런가 하면 또 족제비가 닭모가지를 비틀어버리지요. … 닭으루 해서 오죽이나 생기는 일이 많겠소? 그리구 번번이 닭우리루 기여들어가서 어느것이 알을 가졌는지, 어느것이 가지지 않았는지 만져봐야지요. 닭이 있으면 분주만 하구 싫증이 납니다. 그렇지만 꼴호즈에서는 닭들이 어떻게 자라겠소? 아주 좋지요! 그것들을 좋은 사람이 시중하게 될거외다. 어떤 홀애비령감님에게, 가령 아낌 베쓰흘렙노브 같은 령감님에게 그것들을 맡겨서 령감님이 종일 그것들을 만져보구 홰대밑에 들어가게 하지요. 일인즉 재미있구 쉽구 로인에게 가장 알맞는 일이외다. 그런 일이면 절대루 탈증두 안 생기지요. 친애하는 여러분, 동의하시유?》
아낙네들은 웃고 한숨짓고 웅얼거리고 하다가 동의했다.
회의가 끝나자 즉시로 나굴리노브와 다위도브는 집방문을 떠났다. 첫 집에서부터 집짐승도살은 실로 매 집에 있었다는것이 판명되였다. … 점심녘에 쓔까리령감네 집도 들여다보았다.

《이 령감은 열성분자가 돼서 집짐승을 소중히 해야겠다구 자신이 말했댔소. 이 령감은 집짐승을 잡지 않을거네.》 나굴리노브는 쓔까리네 집 뜰안으로 들어가면서 확언했다.

열성분자는 다리를 쳐들고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의 속옷은 마구 흐트러진 턱수염까지 말려올라갔고 창백한 마른 배에는 대여섯리터 듬직한 질단지가 날이 선 아가리로 꺼꾸로 꽂혀있었다. 량옆구리에는 흡각이 거머리처럼 붙어있었다. 쓔까리령감은 들어온 사람들을 보지도 않았다. 죽은 사람처럼 가슴우에 겯은 두손은 떨리고 눈확에서 불거져나온 두눈은 아픔에 얼이 나가 천천히 돌고있었다. 허우대 큰 쓔까리의 녀편네는 뻬치까옆에 서있고 침대곁에서는 흡각, 부항을 붙일줄 알며 접골, 방혈, 지혈 그리고 쇠뜨개바늘로 락태를 잘 시키키로 근방에 이름난 검은 쥐같이 날쌘 녀의사 마믜치하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지금도 가련하기 짝이 없는 쓔까리령감을 치료하고있는것이였다.

다위도브는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래졌다.

《안녕하십니까, 령감님! 배우에 그건 무어요?》

《아, 아프네! 배가…》 쓔까리령감은 두번에 전줄러서 간신히 말했다. 그리고 즉시 가는 소리를 내면서 강아지처럼 깽깽거렸다. 《단지를 떼라! 떼라구, 마귀할미야! 아유, 배가 터진다! 아유, 여보소, 사람살류!》

《참아요! 참아요! 이제 좀 나아질테니.》 마믜치하로파가 배가죽에 찰싹 붙은 단지아가리를 떼여내려고 헛되이 애쓰면서 속삭이듯이 타일렀다.

그러나 쓔까리령감은 갑자기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녀의사를 발로 걷어차고 두손으로 단지를 잡아쥐였다. 그때 다위도브가 얼른 그를 거들었다. 난로옆의 시렁에서 반죽 미는 몽둥이를 쥐여잡고 로파를 밀어내고서 단지밑바닥을 내려친것이다. 단지는 부서져나가고 깨진 쪼각들사이에서 씩 소리가 나면서 공기가 빠져나왔다. 쓔까리령감은 배속으로부터 딸꾹질을 한번 하더니 편안한듯 숨을 가볍게 쉬고 힘들이지 않고 흡각들을 떼여냈다. 다위도브는 깨여진 단지쪼각밑에서 퍼르스름한 커다란 배꼽처럼 내밀고있는 령감의 배를 일별하자 미칠듯 북받치는 웃음에 목이 메여 걸상에 주저앉았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모자는 미끄러져내리고 검은 머리카락이 눈우에 늘어졌다. …

마믜치하로파가 깨진 단지에 대해서 넉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자 금시에 그는 속옷을 내리우고 몸을 일으켰다.

《아유, 이런 변이 있나!》 로파는 쿨쩍쿨쩍 말했다. 《마귀가 단지를 부셨구나! 당신같은 위인들을 고치다가는 밥 빌어다가 죽도 못 쑤어먹겠다!》

《사라져라, 이 할미야! 당장 여기서 나가!》 쓔까리는 손으로 방문을 가리켰다. 《하마트면 너는 내 목숨을 끊을번 했어! 그 단지를 네 대가리에다 쳐붙여놓을걸 그랬다!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살인이 날지두 몰라! 나는 그런짓에는 앞뒤를 못 가린다!》

《왜 령감께 이런짓을 했소?》 나굴리노브는 마믜치하가 탕 문을 닫고 나가기가 바쁘게 물었다.

《오, 이 사람들, 정말이지 영영 죽어버릴번 했네. 밤낮 이틀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하구 바지춤을 집구서 설했네. … 걷잡을수 없는 설사가 시작됐다니까! 맥이 빠졌는지 더러운 게사니처럼 매초마다 지쳤댔어. …》

《고기는 많이 먹었겠지요?》

《고기는…》

《송아지를 잡았나요?》

《이제는 송아지가 없네. … 그건 내게 도움이 안됐네. …》

마까르는 기침을 한번 하고 밉살스러운듯 령감을 보고 등을 쏘았다.

《늙은 도깨비같은 이런 령감에게는 단지가 아니라 세바께쯔나 들부항을 붙여야겠소! 내장까지 다 빨아내두룩! 꼴호즈에서 쫓아낼테니 그때에는 설사가 멎겠지! 왜 잡았소?》

《가련하게두 정신이 나갔었네, 마까루쉬까… 로파가 나를 충동질했지. 밤뻐꾸기같은 그것한테 언제나 내가 지거던. … 나를 가련히 여겨주게, 다위도브동지! 우리는 서루 친구였으니만큼 나를 꼴호즈에서 내쫓지 말게. 나는 내 재산에 피해를 입었으니만큼…》

《무엇때문에 그런 위인을 상대하구있나?》 나굴리노브는 팔을 흔들었다. 《가세, 다위도브. 여보 병객! 총에 바르는 기름에 소금을 섞어서 마시소, 그러면 당장 나을테니.》

쓔까리령감은 노여운듯이 입술을 떨었다.

《조롱하나?》

《정말이요. 이전 군대에서 우리는 그것으루 배탈을 고쳤소.》

《그래 내가 쇠루 됐단 말인가? 쇠총을 소제하는걸루 내가 치료를 해야 하나? 그만두겠네! 차라리 해바라기속에서 죽으면 죽었지 그 기름은 안 마시겠어!》

다음날 채 죽지 않은 쓔까리령감은 벌써 부락내를 절룩거리며 다녔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위도브와 나굴리노브가 자기를 찾아와서 파종기구의 수리며 기타 꼴호즈일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묻더라고 말했다. 이야기끝에 령감은 담배를 말며 한참동안 사이를 두었다가 한숨을 내쉬고 말하는것이였다.

《내가 좀 앓았더니 벌써 그네들이 찾아왔거던. 내가 없이는 그네들이 일을 해내지 못해. 여러 약을 권하데. 〈치료하시유, 할아버지. 그러다 불행히두 별세하는 날에는 우리가 참 랑패요!〉 이렇게들 말하겠지. 큰 랑패구말구, 참말이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두 세포루 부르네. 그래 이것저것 그네들에게 가르쳐주지. 나는 말이 적지만 정확하거던. 내 말은 아마 소홀히 하지 않을거야!》 하고는 자기 이야기가 어떤 반응을 주었는가 살피면서 정기없는 기쁨에 넘치는 눈을 들어 상대자를 보았다.

제 18 장

그리하여 조용해지려던 그레먀치 로그는 또다시 부산해졌다.… 집짐승을 잡던것은 정지되였다. 밤낮 이틀동안 각종 털빛의 양과 염소들을 공동집짐승우리로 몰아가고 끌어가고 닭들은 자루에 넣어서 날라들 갔다. 집짐승들이 울어대고 가금이 꽥댁거리고 떠들어대서 전부락에 신음하는듯 한 소리가 서리여있었다.

꼴호즈에는 이미 1백 60호의 농가가 가입되고있었다. 3개의 작업반이 조직되였다. 꼴호즈관리부는 야꼬브 루끼치에게 부농들한테서 몰수한 반외투며 장화며 기타 몸에 붙이는 물건들을 옷과 신발이 없는 빈농민들에게 분배할것을 위임했다. 미리 서류를 작성했다. 그 결과 모두에게 만족을 주기에는 관리부의 힘이 부족하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야꼬브 루끼치가 몰수한 부농들의 옷들을 분배하고있던 찌또크네 뜨락에서는 땅거미질 때까지 왁자지껄 말소리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사람들은 당장 고간옆, 바로 눈우에서 신발을 벗고 부농들의 고급신

발을 신어보고 등거리, 저고리, 외투들을 입었다. 앞으로 줄 보수에서 떼기로 하고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옷이며 신발을 받게 된 행운아들은 당장 고간처마밑에서 옷을 벗고 흡족한듯 기침을 깇고 눈을 빛내고 초라한 떨리는 거무스레한 얼굴들에 화기를 띄우면서 깁고 또 기운 자기의 낡은 넝마를 급히 꿍지고 이제는 몸뚱아리가 싸여 보이지 않는 새옷을 떨쳐입었다. 그러나 무엇을 하나 받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권고와 주저하는 말과 욕지거리가 있었으랴. … 류비슈낀에게는 저고리와 바지와 장화를 내주도록 다위도브가 지시했다. 얼굴을 찌프린 야꼬브 루끼치는 궤짝에서 옷을 한무데기 꺼내 류비슈낀의 발밑에 내던졌다.

《마음대루 고르게.》

작업반장은 입수염이 흠칫 움직이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 그는 고르고 또 골라 온몸에 함씬 땀을 뽑았다. 라사를 이발로 씹어도 보고 벌레나 좀이 먹지 않았을가 해별에 비쳐도 보고 시꺼먼 손가락으로 10분동안이나 꾸기적거리기도 한다. 한편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훈훈한 입김을 내뿜으며 웅성거린다.

《그걸 가지게, 다 궤칠려면 손자대까지 가겠네.》

《임자는 눈이 어디 붙었나! 보지 못하나? 이건 안을 뒤집었어.》

《거짓말 말게!》

《그럼 저나 가져갈게지!》

《그걸 가져, 빠블로!》

《그만두구 다른걸 입어봐라!》

류비슈낀의 얼굴은 구워낸 벽돌처럼 빨갛다. 그는 검은 웃수염을 씹는다. 궁지에 빠진듯이 사방을 둘러본다. 다른 저고리로 손을 뻗친다. 골라낸다, 어디라 탓할데 없는 저고리다! 몹시 긴 그 팔을 소매에 낀다. 소매는 팔굽까지 오고 어깨혼솔이 터진다. 그리하여 또다시 게면쩍게 흥분한듯 눈웃음을 지으면서 옷무데기를 헤집는다. 시장에서 많은 장난감을 앞에 놓은 어린아이처럼 눈이 이리저리 달리고 입술에는 누가 이 분대장 류비슈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쓸어주어야 어울릴만큼 티없고 애된 미소가 떠있다. 이렇게 한나절이나 골랐으나 골라내지를 못했다. 바지와 장화만을 신고나서 나오는 한숨을 삼키며 찌프리고있는 야꼬브 루끼치에게 말했다.

《차라리 래일 와서 입어보겠네.》

줄이 박힌 새 바지에 빠작 소리를 내는 장화를 신고 대번에 10년은 젊어져서 뜨락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도 아닌데 일부러 큰 거리로 나서서 혹은 담배를 불에 붙이고 혹은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느라고 자주 골목에서 걸음을 멈췄다. 세시간이나 걸려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몸을 냈다. 저녁이 되자 벌써 전그레먀치에 소문이 퍼졌다.
《거기서는 군대에 입대나 할 때처럼 류바쉬까를 차려입혔대! 오늘 하루종일 옷을 골랐다니… 전수 새것을 입구 신구 집으루 왔다는데 바지는 설빔갈대. 대뜸 두루미가 된듯이 발밑의 땅두 짚는지마는지 하더라나. …》
좀까 우샤꼬브의 안해는 궤짝에 들어붙어 떨어지지 않아서 우격다짐으로들 떼여냈다. 일찌기 찌또크네 녀편네것이던 주름잡은 모직물치마에 새 구두를 발에 꿰고 꽃숄을 어깨에 걸쳤다. 그러자 이때에야 비로소 좀까의 안해가 얼굴이 결코 추하지 않을뿐더러 몸매도 날씬한것이 모두의 눈에 띄였으며 이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알려졌다.
이제까지의 쓰라린 반생을 통하여 언제 맛있는것 하나 먹어보지 못하고 새 저고리 하나 어깨에 걸쳐보지 못한 이 가련한 녀인이 꼴호즈의 그 재물을 보고 어찌 정신이 얼떨떨하지 않았으랴? 야꼬브 루끼치가 궤짝에서 녀자웃옷을 한무데기 꺼냈을 때 늘쌍 떠나지 않는 빈궁과 굶주림에 빛을 잃은 그의 입술이 어찌 파래지지 않았으랴? 그는 썩은 기저귀와 다 해진 양가죽쪼각에 갓난애를 둘러싸서 기르면서 해마다 애를 낳았다. 그리고 자신은 고통과 또 떠나지 않는 곤궁으로 인해서 이전의 아름다움도 건강도 싱싱함도 잃어버리고 여름은 채처럼 성긴 치마 하나로 돌아다녔으며 겨울이면 한벌밖에 없는 속옷을 빨고는 벗고서 어린것들과 함께 뻬치까우에 앉아있었다, 갈아입을것이 없어서. …
《여러분!… 여러분네!… 이것 보슈, 난 아직 이 치마를 가지지 않을지두 몰라요. … 바꾸겠어요. … 난 어린것들에게두 뭘… 미샤뜨까… 두냐스까에게…》 그는 궤짝뚜껑에 매달려 불타는 눈으로 줄곧 울긋불긋한 옷무데기를 바라보며 반정신이 나가 속삭였다.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된 다위도브는 가슴이 찌릿했다. … 그는 궤짝앞으로 비집고 나가서 물었다.
《당신은 어린애가 몇이나 있소?》
《일곱이예요. …》 좀까의 안해는 달콤한 기대로 해서 눈을 들기도

두려워하며 속삭이듯 대답했다.
《여기 어린애들것이 있소?》 다위도브는 낮은 목소리로 야꼬브 루끼치에게 물었다.
《있지요.》
《이 부인이 요구하는대루 어린애들것을 내주시오.》
《너무 과남한데요!…》
《그건 또 무슨 말이요, 엉?》 다위도브가 이발빠진 입을 사납게 벌리자 야꼬브 루끼치는 급히 궤짝우에 몸을 굽혔다.
여느때는 말수더구가 많고 입심사나운 좀까 우샤꼬브도 덤덤히 마른 입술을 추기면서 숨을 죽이고 안해뒤에 서있었다. 그러나 다위도브의 마지막말이 떨어질 때 그는 다위도브를 힐끗 보았다.… 좀까의 사팔눈에서는 익은 열매에서 과즙이 뿜어나오듯이 별안간 눈물이 솟아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 왼손으로는 사람들을 헤치고 오른손으로는 눈을 가리우면서 문으로 뛰여갔다. 헛간에서 뛰여나온 좀까는 자기의 눈물을 사람들에게 보일가 창피해서 눈을 가리우면서 뜨락에서 나왔다. 그러나 눈물은 그 가리운 시꺼먼 손바닥밑에서 이슬방울처럼 맑게 반짝거리며 줄줄이 뺨우를 흘러내렸다.
저녁녘에 쓔까리령감도 분배장에 달려왔다. 끌호즈관리부건물로 뛰여들어온 그는 간신히 숨을 돌리며 다위도브에게 말했다.
《편안하슈, 다위도브동지! 아주 팔팔하시군.》
《안녕하십니까.》
《내게 종이를 써주오.》
《무슨 종이 말입니까?》
《옷을 받는 종이지.》
《무엇때문에 령감께 옷을 드려요?》 다위도브옆에 앉아있던 나굴리노브가 널직한 눈섭을 치켜들었다. 《송아지를 잡은때문에?》
《지난 일을 생각하면 눈알 빠진다네. 마까루쉬까, 아나? 무엇때문이라니? 찌또크를 청산할 때 누가 혼났나? 나하구 다위도브동지였지. 이 사람은 머리를 맞았지만 그건 대수롭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개새끼가 외투를 어떻게 만들었나? 외투가 발싸개가 되구 말았네! 나루 말하면 쏘베트정권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인데 그래 내겐 필요가 없다? 차라리 찌또크에게 대가리가 쪼각이 나두 외투는 다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그랬어. 그 외투는 우리 로친네거가 아닌가? 로친네가 외투때문에

나를 없애버릴지두 몰라. 그땐 어떡허겠나? 암, 그렇지 않구!》
《꽁무니를 빼지 않았더라면 외투가 성한대루 있었을거외다.》
《어떻게 뛰지 않나? 마까루쉬까, 임자는 찌또크네 마귀할미가 어떻게 했는지 못 들었나? 그년은 나한테 개새끼를 추겨대구 〈저놈을 물어라! 쎄르끄, 저놈을 물어! 저놈이 제일 나쁜 놈이다!〉 그렇게 떠들어댔다네. 건 다위도브동지두 아마 증명할수 있을거야.》
《령감은 로인이지만 불깐 말처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거던!》
《다위도브동지, 증명하시유!》
《나는 도무지 기억이 없는데요. …》
《참말이지 그년이 그렇게 떠들었네! 무서운걸 보구 나는 그제야 뜨락에서 물러났지. 그놈의 수개가 다른 개새끼들같으면 또 모르지만 이건 호랭이보다두 무서우니까!》
《아무두 령감한테 개를 추겨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만들어서 얘기하구있지!》
《마까루쉬까, 임자는 잊었어! 임자자신두 그때는 질겁을 해서 얼굴색이 말이 아니였으니 어떻게 기억할수 있을라구! 나는 그때두 벌써 생각했지. 〈이제 마까르가 도망치리라!〉구. 나는 그놈의 수개가 뜨락으루 나를 어떻게 끌구다녔는지 세세히 기억하구있네! 만일 그놈의 개가 아니였더라면 찌또크는 내 손에서 살아나지 못했을거야. 맹세해두 좋네! 나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니까!》
나굴리노브는 이발이라도 쏘는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다위도브에게 말했다.
《빨리 령감께 써주게, 가버리두룩.》
그러나 쓔까리령감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 이야기에 신바람이 났다.
《마까루쉬까,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이 주먹으루 어떤 놈이든지…》
《아, 짱을 놓지 마슈, 실컷 들었어요! 한바께쯔들이 부항를 놔주도록 써달라우? 무엇으루 배를 고치겠소?》
천둥같이 화가 난 쓔까리령감은 말없이 쪽지를 잡아쥐더니 작별인사도 없이 나가버렸다. 그러나 야끄브 루끼치의 손에서 가죽으로 만든 널직한 외투를 받자 다시금 기분상태가 넘쳤다. 그는 소금단지에서 소금을 쥐여들 때처럼 손가락을 모아 반외투자락을 쥐고 물웅뎅이를 넘으려는 녀편네 치마쥐듯 그것을 집어 펼치고서 혀바닥을 울리며 까자크들앞에서 뽐냈다.

《자, 이게 반외투네! 내가 애써서 번거야. 다 알다싶이 우리가 찌또크를 청산할 때 그놈은 쇠몽둥이를 가지구 다위도브동지한테 달려들었네. 이거 내 친구가 일 나겠다 생각하구 즉시 조력하려구 달려가서 나는 용사답게 격퇴했지. 내가 없었더라면 다위도브두 마지막이였어!》

《그래두 들리는 말엔 령감이 개가 무서워서 줄행랑을 놓다가 넘어져서 개한테 돼지처럼 귀를 물어뜯겼다면서요.》 듣고있던 사람들중에서 누가 한마디 했다.

《거짓말이야! 참 몹쓸 사람들이라니까. 생뚱한 소리를 하거던! 개쯤이 뭐냐구? 개란 짐승은 미욱하구 고약한 물건이지. 말 하나 알아듣지두 못하구…》쓔까리령감은 슬쩍 화제를 돌렸다.

제 19 장

밤…

그레먀치 로그로부터 북쪽 멀리멀리 어스레한 광야의 물결진 등성이를 넘어, 골짜기와 협곡들을 넘어, 쭉 뻗어나간 숲 저쪽에 수도가 있다. 수도의 상공은 전등불의 홍수이다. 그 떨리는 파란 섬광은 필요조차 없는 한밤의 달빛과 별빛을 무색하게 하면서 소리없이 불타는 화재의 불빛처럼 다층건물들우에 서리여있다.

그레먀치 로그로부터 1천 5백키로메터 떨어진 곳에서 위대한, 정다운 모스크바는 밤에도 생활하고있다. 기관차의 기적이 호소하듯 길게 부르짖고 자동차의 경적이 무슨 거대한 조화의 련쇄처럼 울리고 전차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레닌묘 저쪽, 크레믈리성벽 저쪽, 밝게 비친 하늘에서는 상공을 불어지나가는 차거운 바람속에서 붉은기의 기폭이 펄럭인다. 아래로부터 백열한 전광에 비춰지는 기폭은 이글이글 불타며 흘러내리는 빨간 피처럼 나붓긴다. 상공을 지나가는 바람이 맴돌아치면 잠시 무겁게 드리워졌던 기발의 기폭이 뒤집히고 그 끝을 혹은 서쪽으로 혹은 동쪽으로 돌리면서 또다시 펄럭이고 폭동의 검붉은 불길처럼 불타오르며 투쟁에로 부른다. …

2년전, 그때 모스크바의 전로쏘베트대회에 갔던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는 밤에 붉은광장을 찾았었다. 묘와 하늘에서 장쾌하게 빛나

는 붉은기를 보고 그는 썼던 기병모를 급히 벗었다. 맨머리바람으로, 집에서 짠 천으로 만든 외투앞을 헤치고 오래동안 까닭도 없이 서있었다.

한편 그레먀치 로그에서는 밤이 되면 괴괴한 정적이 서린다. 백조의 솜털같은 햇눈이 널린 주변의 황량한 언덕들이 반짝거린다. 골짜기들의 눈쌓인 곳에서는 부리얀초들우에 짙은 청색을 부어놓은듯 그늘이 져있다. 촌쏘베트옆에 자란 피라미드형의 백양나무는 아득히 높은 시꺼먼 하늘로 검은 양초같이 뻗쳐있다. 샘물줄기가 개천으로 흘러들면서 요괴스럽게 돌돌 소리를 낸다. 흘러가는 시내물에서 그대는 이 세상을 비치기를 끝마친 별들이 떨어져내림을 볼것이다. 동무여, 자세히 밤의 정적에 귀를 기울여보라. 그러면 그대는 토끼가 나무즙에 누래진 그 이발로 나무가지를 쏠아먹는 소리를 들을것이다. 벗나무줄기에는 흘러나와 얼어붙은 호박색진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난다. 그것을 뜯어서 들여다보라, 진덩이는 무르익은 추리처럼 보르르 정다운 가루에 덮여있다. 나무가지에서 간혹 얼음껍질이 떨어진다. 밤이 그 쟁그랑소리를 정적으로써 감싼다. 오슬오슬한 재빛아가미같은것이 달린 벗나무가지의 움들은 죽은듯 동정이 없다.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뻐꾸기눈물》이라고 부른다. …

정적…

오직 새벽이 되여 북쪽 검은구름밑으로부터 모스크바의 바람이 그 찬 날개로 눈을 부채질하며 날아올 때에야 그레먀치 로그에서는 아침의 생의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숲에서 앙상한 백양나무가지들이 살랑대기 시작하고 부락근처에서 겨울을 나며 밤에 탈곡장에서 모이를 찾아먹는 자고새들이 서로 불러대면서 지저귀기 시작한다. 그들은 골짜기옆의 눈우에 조그마한 십자들을 모아묶은듯 한 방사형의 발자국들을 널어놓고 파헤집은 짚을 뒤에 남긴채 낮동안을 지내려고 낭떠러지 모래터비탈의 홍초덤불로 날아간다. 송아지들이 어미소한테로 가게 해달라고 엄메엄메 울고 공동소유화된 닭들이 영악스레 웨쳐대고 말리운 마소똥의 씁쓸하니 뗣은 냄새가 부락우에 비낀다.

그러나 부락우에 밤이 내리덮여있는 지금은 전그레먀치에서 필시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 혼자만이 자지 않고있을것이다. 집에서 썬 눅거리담배때문에 그는 입안이 쓰고 머리는 추같이 무겁고 피운 담배에 속이 메스껍다. …

한밤중, 꼰드라트에게는 모스크바상공의 기쁨에 넘치는 불빛의 신기루가 어린다. 그는 크레믈리우에 그리고 국외에서 사는, 꼰드라트와 같은 근로자들의 눈에서 숱한 눈물이 흐르고있는, 가없는 세계우에 펼쳐진 선홍색기폭의 준엄하고 분노하는듯 한 펄럭임을 본다. 어린 그의 눈물을 가셔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언젠가 한 말이 생각난다.

《얘 꼰드라트야, 울지 말아, 하느님께 노여웁게 하지 말아.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은 날마다 울고 하느님께 자기의 가난을 하소연하구 모든 재물을 차지한 부자들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고있단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가난뱅이들에게 참으라구 이르셨다. 그래서 하느님은 가난뱅이와 굶주린자들이 자주 울어대는것에 노하셔서 그네들의 눈물을 모아 안개를 만들어 푸른 바다에도 휘뿌리고 하늘을 보이지 않게 휩싸기두 한단다. 그러면 이제 배들이 갈길을 잃고 바다우를 헤매기 시작한다. 그러다 배는 암초에 부딪쳐 가라앉는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은 또 눈물로 이슬을 만든단다. 하루밤에 찝찔한 이슬이 우리네 땅과 또 멀리 다른 땅에까지 왼통 곡식우에 내리면 짠 눈물때문에 곡식이 타버려 이 세상에 크나큰 기근과 질병이 시작된단다.… 그러니까 가난뱅이들은 울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울어서 제자신을 더 괴롭게 하니까.… 알았니? 얘야.》하고는 엄하게 말을 맺았다. 《기도를 올려라, 꼰드라트까! 네 기도가 더 빨리 하느님한테 이른다.》

《그럼 우리는 가난뱅이야요, 어머니? 아버지는 가난뱅이야요?》 어린 꼰드라트는 진실하게 하느님을 믿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가난뱅이다.》

꼰드라트는 구교풍으로 그린 컴컴한 성상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노여움 잘타는 하느님께 눈물방울 하나라도 보일세라 말끔히 눈을 닦았다.

꼰드라트는 누워서 그물 또는 삼실처럼 옛 기억을 더듬는다. 그는 부친의 계통으로 보자면 돈 까자크지만 지금은 쫄호즈원이다. 광야의 길처럼 많이 또 긴 밤을 그는 곰곰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꼰드라트의 아버지는 현역으로 복무했을 때 자기 중대와 더불어 공장주들의 리익을 옹호하여 이와노브—워즈네쎈스크의 파업방직공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환도로 쳐죽였다. 아버지는 죽고 꼰드라트는 자라 1920년에

는 공장주들과 그 고용병들의 습격으로부터 자기의 쏘베트정권을, 바로 이와노브—워즈네쌘스크 방직공들의 정권을 옹호하면서 백파 뽈스까군과 우랑겔군도배들을 족쳤다.

꼰드라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이라는것을 믿지 않으며 전세계의 근로자들을 해방과 빛나는 장래에로 인도하는 공산당을 믿고있다. 그는 집짐승전부를 꼴호즈의 집짐승우리로 끌어갔으며 털 하나 남기지 않고 가금전부를 가져갔다. 그는 일하는자만이 빵을 먹고 풀을 밟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지에 서있다. 그는 굳게, 든든히 쏘베트정권에 뿌리를 뻗쳤다. 그런데도 꼰드라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일한, 자원해서 바친 자기의 집짐승, 자기의 재산에 대한 독사같은 미련이 남아있기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것이다. … 가슴속에 미련이 감돌고 울적함과 애수가 가슴을 얼어들게 한다. …

이전에는 온종일 조금도 쉴 사이없이 그는 분주하군 했다. 아침부터 황소, 암소, 면양, 말들에 꼴을 주고 물을 먹이며 낮에는 또다시 탈곡장에서 풀 하나 떨어질세라 건초와 짚을 날라내고 밤에는 또 거둘것을 거두어야 한다. 밤중이 되여서도 몇번씩 집짐승우리를 가보고 발밑에 흩어진 건초를 쓸어모아 여물통에 넣어준다. 그러한 주인으로서의 시중에 가슴이 흐뭇해지는것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꼰드라트네 집짐승우리가 텅 비여 죽은듯 하다. 나가볼래야 나갈데가 없다. 여물통은 비여있고 싸리문은 활짝 열려있다. 심지어는 긴긴 한밤사이 닭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 밤이 지나가는것도 알 도리가 없다.

꼴호즈마구간의 경비를 서게 되는 때에라야만 울적함을 벗어날수 있다. 날이 새면 그는 무섭게 황량해진 집짐승우리며 수심에 찬 안해의 눈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한시바삐 집에서 나가려고 애쓴다.

지금 안해는 그의 옆에서 숨결도 잔잔히 자고있다. 뻬치까우에서는 흐리쓰찌쉬까가 부스대고 달콤히 입맛을 다시면서 잠꼬대를 한다. 《아버지,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필시 그 애는 각별히 좋은 어린애다운 꿈을 꾸고있을것이다. 그애는 사는데 근심걱정이 없고 그러므로 편안히 숨쉬고있다. 빈 성냥갑도 그에게는 기쁘다. 넝마로 만든 자기의 각시를 위해서 그 애는 그것을 가지고 썰매를 만든다. 그 썰매로 밤까지 재미있게 지낼것이고 오늘날은 또 새로운 즐거움으로써 그 애에게 미소를 보낼것이다.

한편 꼰드라트에게는 자기의 생각이 있다. 그는 그속에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몸을 뒤챈다. … (저주맞을 미련아, 너는 언제나 나를 떠나려느냐? 악독한 마귀야, 너는 언제나 말라죽겠느냐?… 그리구 어찌된셈일가? 마구간옆을 지날 때 남의 말들이 서있으면 하등 아무렇지두 않건만 자기 말한테 이르러 털이 띠처럼 검게 뻗어나간 잔등이며 표적을 찍은 왼쪽귀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그 순간에는 말이 녀편네보다두 더 정다운것 같다. 그리고 더 맛있는 풀을 많이 잘게 해서 넣어주려고 줄창 노린다. 다른 사람들두 그렇다, 모두가 자기 말한테 와서는 안달아하지만 남의 말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두 안하거던. 지금은 남의 말이란건 없구 전부가 우리것이지만 그렇다. … 집짐승을 돌보기들 싫어하고 많은자들이 집짐승을 심드렁하게 여기게 되였다. … 어제는 꾸쫸꼬브가 경비를 섰는데 말들을 자기가 몰아다 물을 멕이지 않구 애녀석을 시켜, 그 애는 말을 타고 전체 말떼를 속보로써 개천으로 몰아갔지. 어떤 말은 물을 잔뜩 마시구 어떤 말은 잘 마시지두 못했는데 다시 속보루 마구간에 몰아왔지. 그래두 누구한테 반대두 못하겠어. 이발을 드러내구—하아, 임자 혼자 열성이 대단하군!—이러니까, 이것두 모두 어렵게 살아왔기때문이야. 모든게 흡족하던 그런자라면 아마 그렇게 미련이 남지두 않을거야. … 잊지 말고 래일 다위도브한테 꾸쫸꼬브가 어떻게 말들에게 물을 멕였는지 이야기해야겠다. 그렇게 말을 돌보다가는 봄에 말이 써레 하나두 끌어내지 못할걸. 래일 아침에는 닭들을 어떻게 시중하구있는지 좀 보자. 녀편네들은 비좁기때문에 벌써 닭이 일곱마리나 죽었다구 지껄여대구있다. 아, 어렵구나! 그래, 무엇때문에 지금 가금들까지 한데 모은담? 암닭대신으루 수닭만이라두 한 집에 한마리씩 남겨두지 않구… 소비조합상점에는 상품이 없는데 흐리쓰찌샤는 맨발이다.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었으면! 다위도브한테 부탁을 하자니 면구스럽구… 아니, 차라리 이번 겨울은 뻬치까우에 앉아서 나라지. 여름이 되면야 신발은 소용없어.) 꼰드라트는 5개년계획을 건설중에 있는 나라가 겪고있는 궁핍을 생각한다. 그리고 홑이불밑에서 주먹을 부르쥔다.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지 않는 서방의 로동자들에게 증오를 품고 머리속으로 이야기한다. (너희들은 너희 주인한테서 넉넉히 받는 봉급때문에 우리를 팔았다! 너희들은 우리를 배부른 살림과 바꿨다!…왜 너희들한테는 아직 쏘베트정권이 없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늦었느냐? 만약 손을 댔다면 지금쯤은 혁명을 해냈을텐데두 그냥 너희들은 긁적긁적하면서 도무지 떨쳐나서지 못하구 어쩐지 보조두 안 맞게 비척비척 걷구있다. … 혹시 너희들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경제를 일으켜세우고있는가를 국경너머로 보지 못하느냐? 그처럼 궁핍을 겪고 맨발이다싶이, 헐벗다싶이 하구 다니면서도 우리는 이발을 악물고 일하고있다. 다 차려놓은 다음에 들어서기에는 너희들두 창피할거야! 너희들이 모두 볼수 있는 그런 높다란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들한테 맵짠 욕을 퍼부었으면 좋겠다!…)

꼰드라트는 잠이 든다. 그의 입에서는 담배가 흘러떨어져 하나밖에 없는 속옷에 커다란 구멍을 낸다. 뜨끔해서 그는 잠이 깨여 일어난다. 입속으로 욕설을 늘어놓으면서 속옷구멍을 기우려고 어둠속에서 바늘을 찾는다. 그러지 않으면 안해가 아침에 발견하고 그 구멍때문에 한 둬시간은 그를 들볶을것이다. … 종내 그는 바늘을 찾지 못한다. 다시금 잠이 든다.

새벽에 잠을 깨여 뜰로 나가자 놀랄만큼 야릇한 소리를 듣는다. 한 헛간에서 밤을 지내는 공동소유화된 수닭들이 가지각색목소리로 한꺼번에 힘찬 합창을 해대는것이다. 꼰드라트는 놀라운듯이 부어오른 눈을 뜨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닭울음소리를 한 2분가량 듣고있다가 뒤늦은 마지막 《꾸—께—꾸우우.》소리가 급히 끊어지자 졸리는듯 한 미소를 띄운다. (저것들때문에 우리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잠두 못 자고 안정두 못하겠구나. 이전에는 부락 한끝에서 울면 또 한끝에서 울구 그랬는데 이건 란장판이로군. … 원, 세상두!) 하고 개잠을 자러 간다.

×

아침에 조반을 마치고 그는 닭의 우리로 갔다. 아김 베쓰흘렙노브 령감이 성난 고함소리로 그를 맞이했다.

《그래 날두 샐가말가한데 왜 서성거리나?》

《령감님도 볼겸 닭들도 볼겸 왔소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령감님.》

《이제까지는 살아왔네만 이젠 그만 살아야겠네!》

《어째서요?》

《닭을 돌보는데 기진맥진이야!》

《그건 또 무엇때문에요?》

《하루밤 임자 여기 있어보게. 그러면 알지! 망할놈의 수닭들은 왼종일 싸움질을 해서 그걸 따라다니기에 버텅다리가 될 지경이네. 암닭들이야 암것이니까 뭘, 하구 생각하겠지만 그것들두 서로 변두를 물어뜯어서 온 뜨락안을 쫓아다녀야 하네! 이런 일은 싹 집어치우겠어! 오늘루 다위도브한테 가서 해임시켜달라겠네, 벌치기루 돌려달라겠어.》

《닭들이 이제 익숙해지겠지요, 령감님.》

《그것들이 익숙해질 동안에는 령감다리는 버텅다리가 되겠네. 그래, 대관절 이게 사내녀석 할 일인가? 나는 이러나저러나 까자크야. 뛰르끼예전쟁에두 참가했어. 그런데 여기서는 황송하게두 닭들의 총사령관으루 내세웠네. 이 직책에서 일을 시작한지 이틀밖에 안되는데 애녀석들때문에 다니질 못하겠다니까. 집으루 돌아가느라문 그 나쁜 놈들이 길을 막구 떠들어대겠지. 〈닭의 령감태기! 닭새서방, 아낌령감태기!〉 이러네. 누구한테나 존경받던 내가 이 늙은 나이가 돼서 닭의 령감이란 별명을 받아가지구 죽다니? 난 정말 마음에 없네.》

《그만하슈, 아낌령감님! 애녀석들이 대수야요?》

《애녀석들만이 놀려댄다면 또 모르겠는데 계집년들두 어떤것들은 덩달아 나서거던. 어제 점심을 먹으러 집으루 가구있지 않았겠나. 우물가에 도네쯔꼬브네 나쓰쫀까가 서서 물을 긷구있데. 〈닭들을 감독하구있어요, 할아버지?〉 하구 묻겠지. 〈알낳는 닭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낳지. 그렇지만 어째 잘 낳지들 않는다.〉 하구 말했지. 그랬더니 그 깔믜크의 암말같은것이 지껄여대데. 〈이봐요, 봄갈이까지 광주리루 하나 알을 낳게 못하면 령감님을 암닭한테 붙이겠어요!〉 그런 롱담을 듣기에는 나는 너무 늙었어, 이 직책은 아주 고약스럽네.》

로인은 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울바자옆에서 닭 두마리가 서로 가슴팍과 가슴팍을 부딪치더니 한마리는 변두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또 한마리는 멱다시에서 한줌이나 털이 날아났다. 아낌령감은 도중에서 마른 나무가지로 무장을 갖추고 닭들한테로 급히 뛰여갔다.

꼴호즈관리부는 이른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득했다. 뜨락 층층대옆에는 썰매를 매여놓은 한쌍의 말이 구역으로 가려는 다위도브를 기다리고 서있었다. 안장을 놓은 라쁘쉬노브네 준마는 발로 눈을 파고있고 그옆에서 류비슈낀이 북두끈을 조이면서 분주히 돌아가고있었다. 그도 뚜뱐쓰꼬이 꼴호즈관리부와 곡물정선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기때문에 떠날 준비를 하고있는것이였다.

꼰드라트는 첫방으로 들어갔다. 최근에 읍에서 온 부기원이 장부우에 얼굴을 묻고있었다. 요사이 와서 몸이 수척하고 침울한 야꼬브 루끼치가 그 맞은편에 앉아서 무엇인가 쓰고있었다. 아르까쉬까 메노크가 부락에 한사람밖에 없는 대장쟁이 이뽈리트 샬릐와 한구석에서 무엇을 다투고있었다. 옆방에서 라즈묘뜨노브의 쨍쨍하고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서둘러 웃어가면서 다위도브에게 말하고있는것이였다.

《어뜩새벽부터 늙은 녀편네 네명이 나한테 찾아왔네. 인솔자는 미쉬까 이그나쬬노브의 어머니 울리야나로파네. 그 로파를 아나? 몰라? 체중이 일곱뿌드나 되구 코끝에 사마귀가 있는 녀편네야. 그렇게 찾아왔는데 울리야나로파는 폭풍우처럼 험악하게 돌아서 분김에 숨두 못 돌리구 코끝의 사마귀가 춤을 출 지경이네. 그리구 다짜고짜루 대들지 않겠나. 〈야, 이 몹쓸 물건아!〉 하구. 위원회의 내 방에는 사람들이 와있는데 그 로파는 입에 못 담을 말루 욕설이지. 그래 물론 나는 엄격하게 말했지. 〈그런 말본새를 그만두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모욕한 죄루 읍으루 보내겠소. 왜 천둥같이 골이 올랐소?〉 하구 물었지. 그랬더니 로파 말이 〈임자들은 왜 늙은 로파들에 대해서 일을 꾸며? 어쩌면 임자들은 우리 늙은것들을 조롱해?〉 이러는군. 가까스루 그 까닭을 알아냈네. 꼴호즈관리부가 일을 할수 없는 60살 넘은 로파들을 모두 봄에 가서 마치두…》 라즈묘뜨노브는 웃음을 참느라고 볼따구니를 불려가지고 말을 맺았다. 《마치두 닭알을 깨우는 증기기계가 모자라서 로파들에게 그 일을 시킬것 같다는 뜬소문을 들었던 모양이야. 그래놓으니 그네들은 발광을 했지. 울리야나로파는 칼이라두 맞은 녀편네처럼 부르짖데. 〈뭐! 내게 닭알을 안기겠어? 내가 올라앉을 그런 닭알은 없을걸! 너희놈들을 모두 지짐판으루 때려주구 나두 물에 빠져죽겠다!〉 겨우 그네들을 설득했지. 〈빠져죽지

못할걸요. 울리야나할머니, 우리 개천물은 할머니가 빠져죽기에는 어차피 물이 모자라요. 그건 모두 헛소리구 부농들이 만들어낸 말이외다.〉 나는 그랬지. 이렇단 말이야. 다위도브동지! 적들은 헛소문을 퍼뜨리구 우리를 훼방하구있네.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느냐구 추궁하기 시작했더니 마침내 알아냈어. 워이쓰끄보이에서 엊그제 수녀 하나가 부락에 와서 찌모페이 보르쑈브네 집에서 잤는데 그네들에게 암닭들을 모으는것은 국수에 고기를 치기 위해서 모두 도시에 보내려는거구 로파들한테는 특별한 식의 의자를 만들어 짚을 깔구서 닭알을 안게 하는데 반대해나서는 사람들은 의자에다 결박해놓을거라구 그랬다는군.》

《어디 있나, 그 수녀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있던 나굴리노브가 재빠르게 물었다.

《줄행랑을 놨지. 바보가 아니니까 헛소문을 퍼뜨려놓구는 꽁무니를 뺐네.》

《그런 검은 끄랑지 달린 까치들은 붙잡아서 보낼데루 보내야 해. 그런게 왜 내게 부딪치지 않을가! 대가리를 치마루 잡아매구 곤장질을 해줄텐데.… 그래, 자네는 쏘베트위원장인데 자네네 부락에 아무나 막 손님을 들이는군. 아주 좋은 질서결!》

《귀신인들 그런것들을 죄다 감시해내나!》 다위도브는 외투우에 모피외투를 덧입고 책상앞에 앉아있었는데 꼴호즈회의에서 비준받은 봄전야작업계획을 마지막으로 또 한번 훑어보면서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중상하는건 적의 낡은 수법이야. 그 기생충놈들은 그냥 우리 건설에 오점을 찍으려구 하구있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놈들에게 말할 건덕지를 주구있네. 가금들만 해두 그렇지.…》

《무엇이 그래?》 나굴리노브는 코구멍을 불렸다.

《가금들을 공동소유화한 바로 그짓 말이네.》

《옳지 않은 말이야!》

《사실말이지 옳은 소리네! 우리는 종곡두 준비하지 않았는데 가금들에 손을 댔거던. 참말 어리석은짓이지! 지금 나는 자기 팔굽이라두 깨물구 싶으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분명 종곡준비때문에 나를 야단할게야, 사실말이지! 아주 불유쾌한 일이네.…》

《말해보게. 왜 가금을 공동소유화할 필요가 없었는지? 회의에서는

모두 찬성하지 않았는가?》
《회의가 문제가 아니야.》 다위도브는 얼굴을 찌프렸다. 《가금은 사소한 문제라는걸 왜 자네는 깨닫지 못하나. 우리는 주요한 일들을 해결해야 하네. 꼴호즈를 공고히 하구 꼴호즈가입자들의 비률을 백프로에 이르게 하구 또 파종을 해야 하네. 글쎄 마까르, 나는 진정으루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저주로운 가금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으루 오유를 범했어. 사실말이지 오유를 범했어! 나는 지난 밤에 꼴호즈조직에 관한걸 좀 읽었는데 어디에 오유가 있는지 깨달았네. 우리는 꼴호즈, 다시말하면 협동조합인데 우리는 꼼무나를 만들려구 했거던.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좌경이야, 사실말이지! 자네두 좀 생각해보게. 내가 자네라면(자네가 그걸 실시하구 선동했으니까.) 볼쉐비크답게 대담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구 닭이며 기타 가금들을 집집으루 나눠주두룩 명령하겠네. 어떤가? 만약 자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돌아와서 곧 자기 책임상 그렇게 하겠네. 나는 떠나겠네. 잘들 있게.》
모자를 눌러쓰고 나프탈린냄새가 풍기는 부농의 소유이던 모피외투깃을 세우고 종이끼우개를 끼우면서 다위도브는 말했다.
《아직 혼이 나보지 못한 별별 수녀나부랭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에 대해서 입을 놀리며 우리를 반대해서 녀편네, 늙은이들을 무장시키구있네. 그런데 꼴호즈사업은 아직 매우 어렵지만 무척 필요한 것이네. 모두가 우리를 지지해야 하네! 늙은이두 녀편네들두. 녀편네들두 꼴호즈에서 자기 역할을 가지구있거던, 사실말이지!》 하고 성큼성큼 힘찬 걸음걸이로 나가버렸다.
《마까르, 가서 닭들을 집집에 나눠주세. 다위도브가 옳은 말을 했어.》
라즈묘뜨노브는 대답을 기다리면서 오래동안 나굴리노브를 바라보고있었다. … 나굴리노브는 반외투앞을 헤치고 창턱에 앉아서 손으로 모자를 주무르며 소리도 없이 입술만 우물거렸다. 마까르가 홱 고개를 들었다. 라즈묘뜨노브는 그의 진실한 눈길과 마주쳤다.
《가세. 잘못했어. 옳은 말이야! 저 앞이빠진 개장구 다위도브가 꼼꼼하구 옳아. …》 하고 저으기 계면쩍은듯이 미소를 띄웠다. 다위도브는 썰매를 타고있고 그옆에는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가 서있었다. 그들은 활기있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꼰드라트는 열렬하게 말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있고 마부는 초조한듯 고삐를 주무르면서 자리밑에 꽂은, 끝에 술이 달린 채찍을 손질하고있었다. 다위도브는 입술을 깨물면서 듣고있었다.

라즈묘뜨노브는 층층대에서 내려오다가 다위도브가 이렇게 말하는것을 들었다. 《흥분하지 말구 좀 진정하시오. 모든것이 우리 수중에 있소. 모두 해치웁시다, 사실말이지! 벌금제를 만들어 작업반장들이 개별적책임을 지고 감독하게 합시다. 그럼 갔다오리다!》 말잔등우에 채찍이 날아올라 찰싹 소리를 냈다. 썰매는 눈우에 퍼런 자국을 휘우듬히 그리면서 문밖으로 사라졌다.

닭의 우리에는 수백마리의 닭이 가지각색 유리구슬을 뿌려놓은것처럼 흩어졌다. 아낌령감은 마른 나무가지를 들고 닭의 우리안을 돌아다닌다. 산들바람이 그의 쥐빛턱수염과 룡간을 부리고 이마에 맺힌 구슬같은 땀을 말린다. 닭의 령감은 펠트신발로 닭들을 헤치면서 걸어다닌다. 그의 어깨에는 밀모이가 반쯤 든 자루가 걸쳐있었다. 령감은 고간에서 헛간까지 좁은 오솔길같은 줄을 이루면서 모이를 뿌린다. 그런즉 그의 발밑에서 닭들이 끓듯이 우글거리고 조급스럽고 걱정스러운 《끄, 끄, 끄, 끄.》소리가 쉴 사이없이 들린다. 울타리로 막은 탈곡장은 사방 석회석을 널어놓은것 같이 게사니떼로 새하얗다. 거기로부터는 봄에 날아올 때에 범람한 강에서 들려오는것처럼 우렁차고 새된 꽥꽥소리며 퍼덕이는 날개소리가 들려온다. 헛간옆에 사람들이 물샐틈없이 한데 뭉쳐서있다. 머리들은 아래로 숙이고 눈들은 어딘가 발밑 동그라미속에 쏠려져있다.

라즈묘뜨노브는 다가가서 동그라미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살펴보려고 잔등들너머로 들여다보았다. 사람들은 코를 훌쩍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는다.

《빨간게 이기겠네.》

《천만에! 보게, 저건 벌써 변두가 옆으루 넘어졌어.》

《아, 저것이 무섭게 해냈군!》

쓔까리령감의 목소리가 들린다.

《밀쳐대지 말어.… 밀쳐대지! 어련히 시작할라구, 밀쳐대지 말어, 이 반편아! 네 명문을 찔러놓겠다!…》

동그라미안에서는 수닭 두마리가 날개를 펼치고 왔다갔다 하고있다. 한마리는 불타는듯 붉고 또 한마리는 퍼런빛이 도는 검은 털의 닭

이다. 그 변두들은 형편없이 쪼여서 피가 말라붙어 시꺼멓고 발밑에는 검고 붉은 털들이 잔뜩 깔렸다. 두마리의 투사는 기진해졌다. 그것들은 서로 갈라져서 무엇을 쫓는듯 한 시늉도 하고 조심스러운 눈으로 피차 동정을 살피면서 녹은 눈을 발로 헤집는다. 그들의 걸태평은 오래가지 않는다. 별안간 검은 닭이 땅을 차고 화재때 불찌처럼 우로 날아오르자 붉은 닭 역시 뛰여오른다. 두마리는 한번, 또 한번 공중에서 부딪친다. …
 쓔까리령감은 세상만사를 잊어버리고 보고있다. 그의 코끝에서는 코물이 추운듯 떨고있으나 그는 그것도 모른다. 그의 모든 주의는 붉은 닭에 집중되여있다. 붉은 닭이 이겨야 한다. 쓔까리령감은 제미드 몰춘과 내기를 하고있는것이다. 불시에 누군가의 손이 한창 긴장속에 있는 쓔까리를 끌어낸다. 쓔까리령감은 고개를 돌린다. 그는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악에 얼굴이 이그러졌다. 그는 닭과 같은 과감성을 가지고 무례한자에게 달려든다. 그러나 얼굴표정이 삽시간에 달라지면서 공순하고 싹싹한 얼굴이 된다. 그것은 나굴리노브의 손이였던것이다. 나굴리노브는 얼굴을 찌프리면서 구경군들을 밀어헤치고서 닭들을 쫓아버리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빈둥빈둥 여기서 닭싸움을 붙이구있군. … 썩썩 일들을 하러 가게, 건달뱅이들같으니! 할일이 없다면 마구간에 꼴이라두 주러 가게. 남새밭에 거름을 나르던지. 그리구 두사람은 매 집의 녀편네들에게 닭을 가져가러 오라구 알려주게.》
 《닭꼴호즈를 해산하나요?》 닭싸움을 즐기는축의 한명이 물었다. 여우털모자를 쓴 반니크라는 별명을 가진 개인농이다. 《닭들의 의식이 꼴호즈를 만들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모양이군! 그런데 사회주의가 되면 닭들이 싸움을 하나, 안하게 되나?》
 나굴리노브는 묻는자를 깔끔한 눈으로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얼굴빛이 질린다.
 《자네 실컷 야유하게. 그렇지만 뭣을 야유하는가를 알어! 사회주의를 위해서 꽃다운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네는 그네들을 야유하는군! 당장 이 자리에서 사라져라, 반혁명분자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끊어 저승으루 보내겠다. 사라져라, 버러지야. 송장을 만들기 전에! 나두 익살쯤 피울줄 안다!》
 그는 조용해진 까자크들에게서 물러나 마지막으로 또 한번 닭들이

가득찬 우리를 바라보고나서 무거운 한숨을 억누르고 저으기 등을 구부리고 삽짝문으로 걸어간다.

제 20 장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담배연기가 파랗게 맴돌고 타자기가 달가락거리고 네데를란드식뻬치까가 열기를 뿜고있었다. 오후 2시에는 상무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여야 했다. 구역당비서는 빤빤히 면도를 했고 땀이 나고 무더워서 라사직속옷깃을 헤쳐놓고있었다—서둘렀다. 다위도브에게 의자를 가리키고 드러내놓은 희멀끔하고 핑핑한 목을 긁적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시간이 많지 않소, 그걸 고려하시오. 그래 당신네 곳에서는 어떻소? 집단화률은 어떻고? 오래지 않아 백프로에 달하겠소? 간단히 말하시오.》

《오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집단화률이 아니지요. 내부형편이 어떠해야 할는지? 나는 봄철농사사업계획을 가져왔는데 보실수 있을가요?》

《아니요, 아니요!》 비서는 펄쩍 뛰고 자루처럼 늘어진 눈을 병적으로 가늘게 하면서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쳤다. 《그 일은 구역농업조합의 루삐또브한테루 가지구 가시오. 거기서 그 사람이 보구 결제할거요. 나는 시간이 없소. 관구당위원회에서 한 동지가 와서 이제 상무위원회가 시작되니까. 참, 묻구싶지만 당신은 왜 여기루 부농들을 보냈소? 당신두 야단이요… 내가 로씨야말루 말하지 않았소, 〈직접 지시가 없으니만큼 그 일은 서둘지 말라.〉 구 미리 말해두지 않았소, 당신은 부농들을 쫓아다니지 말라구. 꼴호즈두 만들지 못한 주제에 부농청산을 시작하느니보다는 전면적집단화나 끝냈어야 했소. 그래 당신네 종곡준비는 그게 뭔가? 즉시루 종곡준비를 하라는 구역당위원회의 지시문을 당신은 받지 못했소? 왜 아직까지 그 지시문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두 취해지지 않았소? 나는 오늘루두 상무위원회에서 당신과 나굴리노브를 부득이 문제세우지 않을수 없게 되오. 당신들을 회의록에 기록하게 될거요. 그건 추태요! 이것 보시오, 다위도브! 구역당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지시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심히 불유쾌한 당적규률을 적용하게 되오! 당신네는 종곡을 얼마나 모았소? 이제 내가 알아보겠소. …》 비서는 책상우에서 한장의 종이를 꺼내고 눈을 가늘게 하면서 그우를 훑어보다가 대번에 얼굴빛이 검붉어졌다. 《물론 그럴테지! 왜 당신은 잠자쿠 있소?》

《당신이 내게 말할 틈을 주지 않구있습니다. 종곡준비는 사실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루라두 돌아가면 곧 시작하겠습니다. 줄창 그동안은 매일 회의를 소집하구 꼴호즈작업반들을 조직했거던요, 사실말이지! 일이 산같아서 당신이 바라는대루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즉시루 꼴호즈두 만들구 부농들을 몰수도 하구 종곡두 모으구. 그렇게는 안됩니다. … 우리는 그걸 모두 수행할테니까 회의록에 기입하는건 서둘지 마시오. 그건 차후에라두 할수 있으니까요.》

《관구와 변강에서 숨두 못 돌릴만큼 다그쳐대는데 어떻게 서둘지 않겠소! 종곡준비는 벌써 2월 초하루까지 되여있어야 할텐데 당신은…》

《나는 그걸 15일까지에는 해놓겠습니다, 사실말이지! 글쎄 2월중에 씨를 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선기때문에 오늘 관리부원 한명을 뚜뱐쓰끄이루 보냈습니다. 거기 꼴호즈위원장 그네듸흐는 롱간을 부렸거던요. 거기서 정선기가 언제 나는가 하구 우리가 서면으로 조회했더니 〈차차 서서히〉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어지간히 날쌘 친구거던요, 사실말이지!》

《그네듸흐 말은 내게 하지 마오. 자기 꼴호즈에 대해서나 말하시오.》

《집짐승도살을 반대하는 깜빠니야를 실시했습니다. 이제는 잡지들 않지요. 2, 3일전에는 가금과 작은 집짐승들을 공동소유화할 결정을 채택했는데 그것은 도살을 념려해서고 또 통털어… 그렇지만 오늘 나는 나굴리노브한테 가금은 도루 나눠주도록 말하고 왔습니다.》

《그건 또 왜?》

《작은 집짐승과 가금의 공동소유화는 잘못이라구 생각합니다. 아직은 꼴호즈에 그것이 필요없습니다.》

《꼴호즈회의가 그런 결정을 채택했소?》

《채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가금이 없고보니 꼴호즈원들의 의기가 떨어졌지요, 사실말이지! 사소한 일루 그네들을 흥분케 할 까닭이 없습니다. … 가금을 반드시 공동소유화할 필요는 없지요. 꼼무나가 아니라 꼴호즈를 만들구있으니까요. …》

《훌륭한 리론이야! 그런데 도루 돌려주는건 무엇때문이요? 물론 가금에 손을 댈 필요는 없었소. 그렇지만 이왕 실시한바에야 뒤로 물러설건 없어. 당신네들한테는 어쩐지 한자리에서의 답보와 2중성이 있소. … 바싹 정신차려야겠소! 종곡준비가 안됐구 집단화두 백프로가 못됐구 농기구는 수리가 안돼있구…》

《오늘 야장과 이야기를 하구 왔습니다.》

《그것 보오,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다구 내가 그러는거요! 꼭 당신들한테 선전대를 보내야겠소. 선전대가 당신들에게 일하는 방식을 가르쳐줄게요.》

《보내주십시오. 아주 좋을겝니다, 사실말이지!》

《그렇건만 서둘 필요가 없는 일은 삽시간에 해치웠지. 한대 피우시오.》 비서는 담배갑을 내밀었다. 《별안간 아닌밤중에 홍두깨로 부농들을 태운 달구지가 와닿았겠지. 게뻬우의 자르첸꼬는 내게 전화를 걸어 〈저네들은 어디다 둘가요? 관구에서는 아무 통지가 없습니다. 저자들은 호송대가 필요한데 무엇을 태워서 어디루 보낼가요?〉 이러지 않겠소. 당신들이 어떤짓을 했는지 좀 보시오! 의논두 련락두 없었으니까…》

《그럼 그자들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다위도브는 화가 동했다. 그는 노해서 좀 조급히 말하기 시작할 때에는 저으기 혀가 짧아진것처럼 말했는데 그것은 빠진 앞이사이에 혀가 닿아서 말이 입맛을 다시는것처럼 되여 분명치 않게 나오기때문이였다. 이번에도 그는 그 거쉰 목소리로 저으기 혀가 짧아진듯이 크게 열렬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놈들을 내 목에라두 걸어두어야 했단 말입니까? 놈들은 빈농 호뽀로브부처를 살해했습니다. …》

《심리과정에서는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소.》 비서는 말허리를 끊었다. 《거기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수 있거던.》

《심사원이 똑똑치 못해서 증명되지 않았지요. 다른 원인 운운은 헛소립니다! 부농들의짓입니다, 사실말이지! 놈들은 꼴호즈를 조직하는것을 백방으루 방해했구 반대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을 추방했지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는지? 당신은 마치 불만인것 같은데…》

《어리석기짝이 없는 억측이요! 말을 조심해 하시오! 나는 계획이

있는데두 제멋대루 하는것과 계획적사업이 빨찌산식의 사업작풍으루 바뀌는것을 반대하는것이요. 그런데 당신은 선참으루 자기네 부락에서 부농들을 들어내는 묘안을 내서 우리를 그자들의 추방과 관련해서 극히 곤난한 처지에 놓이게 했소. 그리구 그 무슨 지방주의요? 왜 당신은 그자들을 당신네 달구지루 구역에까지만 보냈소? 왜 진작 역으루, 관구루 보내지 않았소.》

《달구지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주의라는거요! 자, 그만 됐소. 앞으루 가까운 시일에 해야 할 당신의 과업은 이렇소. 종곡을 완전히 모을것, 파종까지에 농기구수리를 마칠것, 백프로의 집단화를 달성할것. 당신네 꼴호즈는 자립적꼴호즈루 될거요. 거기는 지역상으로 봐서 다른 주민지구들과 떨어져있으니까 유감이지만 〈거인〉을 만들라구 했다가는 또 분립시키라고도 하고 갈피를 못 잡게 구오! 골단지가 뒤섞이겠다니까.》

비서는 머리를 쥐여잡구 잠시 덤덤히 앉아있다가 이번에는 다른 어조로 말했다.

《가서 구역조합에서 그 계획을 의논하구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시오. 만약 거기서 점심을 얻지 못하거들랑 내 집으루 가시오. 집녀편네가 당신께 점심을 줄거요. 잠간 기다리오! 쪽지를 써줄테니.》

그는 종이쪼각에 급히 무엇인가 마구 써서 다위도브에게 쥐여주고나서 서류속에 머리를 박고 축축히 땀이 난 차거운 손을 내밀었다.

《곧 떠나두룩 하오. 잘 가시오. 상무위원회에서 당신들을 문제세우겠소. 아니, 그만두지.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조직적대책을 취할테니까.》

다위도브는 밖으로 나와서 쪽지를 펼쳤다. 푸른색연필로 활달하게 이렇게 씌여있었다.

《리자! 이 서면지참자에게 즉시 무조건적으로 점심을 제공하도록 단호히 제의하오. 계. 고로치쥔스끼》

(아니, 이런 위임장을 가지구 가느니보다는 차라리 점심을 굶겠다.) 쪽지를 읽고 구역조합으로 향하면서 허기증이 난 다위도브는 쓸쓸하게 그렇게 작정했다.

제 21 장

계획에 의하면 그레먀치 로그의 봄갈이면적은 금년에 472헥터가 되여야 하는데 그중에서 110헥터는 처녀지였다. 가을밀경지로서는 가을에 이미 개인농적질서하에서 643헥터가 밭갈이되였고 210헥터에 가을쌀보리가 파종되여있었다. 총파종면적은 곡물과 기름작물별로 다음과 같이 할당하기로 예정되여있었다. 밀－667헥터, 쌀보리－210, 보리－108, 기장－65, 강냉이－167, 해바라기－45, 대마－113, 도합 1 325헥터에다 또 그레먀치 로그로부터 우쟈치나야골짜기까지 뻗어있는 오이밭으로 할당된 모래터 91헥터가 더 있었다.

2월 12일 꼴호즈의 열성자 40여명이 참가하여 진행된 확대생산협의회에서는 종곡준비문제, 농작업에서의 기준작업량문제, 농기구수리문제 그리고 봄농작업때를 위해서 예비사료중에서 밀보리를 갈라내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야꼬브 루끼치의 권고에 따라 다위도브는 종자보리를 한헥터당 우수리없이 7뿌드씩 도합 4 669뿌드 파종할것을 제의했다. 그러자 당장에 귀가 뻥해질듯 한 부르짖음이 일어났다. 모두 제각기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웨쳐대여 그 소동에 찌또크네 집 들창유리가 덜덜 떨리고 찌렁찌렁 소리를 냈다.

《뻐근히 많군!》

《배탈 안 나게 해야겠네!》

《모래터에다 난생 그렇게 뿌려본 일이 없네.》

《닭들이 웃겠어!》

《힘껏 잡구 다섯뿌드야.》

《기껏해야 다섯뿌드 반이지.》

《우리 곳에는 한제샤찌나에 일곱뿌드씩 필요한 그런 기름진 땅은 고양이이마빼기만큼밖에 없어! 목장으루 했던 묵은땅을 일궈야지, 당국에선 뭘 생각했담?》

《그렇지 않으면 빠뉴쉬낀네 바라크옆의 땅을 일구던지.》

《허! 제일 풀이 심한 곳을 일궈?!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군!》

《그럼 한헥터에 씨앗이 한키로가 필요할지 말들 해보게.》

《키로를 가지구 우리를 속이지 말아! 말루 되든지 뿌드루 달아라!》
《여러분! 여러분, 조용하슈! 젠장, 환장들을 했군! 내게 한마디 시켜주게.》 제2작업반장 류비슈낀이 애를 박박 썼다.
《시켜줄테니 얼마든지 말하게!》
《원, 사람들두, 옘병을 할! 별것없는 짐승들이로군… 이그나트! 뭘 자네는 종자소처럼 으르대구있나! 안깐힘을 쓰느라구 왼통 시퍼래가지구…》
《자네자신이 미친개처럼 게거품을 물었네!》
《류비슈낀에게 언권을 주슈!》
《이거야 견디겠나, 귀청 터지겠네!》
회의는 부르짖는 소리로 란장판이 되였다. 마침내 제일 떠들던자들의 목소리가 저으기 가라앉았을 때 다위도브가 전에없이 맹렬하게 고함을 질렀다.
《누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가 말이야? 당신들처럼. 왜 부르짖소? 한사람씩 순서에 따라 말하구 다른 사람들은 잠자쿠 있는거요, 사실말이지! 여기서 비적들같은 행위는 할수 없소! 자각을 가져야 하오!》 하고 조용히 계속했다. 《당신들은 회의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진행해야 하는가를 로동계급에게서 배워야겠소. 가령 우리 직장이라든가 또는 구락부에서 회의가 있다면 질서있게 진행되오, 사실말이지! 한명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듣구있소. 그런데 당신들은 모두가 한꺼번에 웨쳐대니 도무지 알아들을수가 없단 말이요!》
《남이 말할 때 지껄여대는자는 이 빗장으루 대가리를 까놓겠다, 사실말이지! 네활개 펴구 나가자빠지게!》 류비슈낀이 일어나서 굵직한 참나무빗장을 뒤흔들었다.
《그럼 자네 회의가 끝날즈음 해서는 모두 병신을 만들겠군!》 죱까 우샤꼬브가 자기 예측을 털어놓았다.
회의참가자들은 웃고 담배를 피우고 이번에는 진지하게 기준파종량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것은(판명된바와 같이)론쟁하고 떠들어댈것이 못되였다. … 선참으로 야꼬브 루끼치가 발언하여 당장 모든 모순을 해결했다.
《공연히들 고단하게 떠들었소. 다위도브동지가 왜 일곱뿌드를 제의했는지 아오? 매우 간단하외다. 그건 우리들모두의 의견이외다.

소독과 그리구 정선기에 걸어서 선종을 하겠는가? 해야지. 못쓸것이 나오겠는가? 나오지. 그것두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건 일부 데면스러운 사람들이 씨앗과 나쁜 낟알을 갈라내지 않았기때문이외다. 그걸 먹는 낟알과 함께 간수하구 되는대루 파종하지요. 그렇지만 찌꺼기가 생긴다 하더래두 못쓰게 되지는 않지 않아요? 닭이나 짐승들한테루 돌리면.》

일곱뿌드씩으로 결정되였다. 보잡이의 기준작업량문제로 넘어갔을 때 일은 한층 곤난하게 되였다. 여기서는 말하는 의견들이 하도 각각 달라서 다위도브는 거의 방도를 잃어버렸다.

《봄이 어떤 봄이 될는지두 모르는터에 당신들은 나더러 보잡이의 기준작업량을 어떻게 미리 정하라구 하오?》 얼굴이 얽고 건장한 제3작업반장 아가폰 둡쪼브가 다위도브를 공격하면서 웨쳤다. 《그래 당신은 눈이 어떻게 녹을지, 눈밑에서 어떤 땅이, 습한 땅이 나올지 혹은 마른 땅이 나올지 압네까? 아니, 당신은 땅을 꿰뚫어보는가 말이요?》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무엇을 제기하오, 둡쪼브?》 다위도브는 물었다.

《쓸데없이 종이만 못쓰게 만들지 말구 지금은 아무것두 쓰지 않을걸 제기하지요. 파종때가 오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당신은 작업반장인데 어떻게 자각없이 계획을 반대하오? 당신 생각에는 계획이 필요없소?》

《무엇이 어떻게 되리라구 미리 말할수는 없소!》 뜻밖에 야꼬브 루끼치가 둡쪼브를 지지했다. 《그리구 기준량을 어떻게 정할수 있겠습니까? 가령 당신한테서는 나이먹은 든든한 소 여섯마리가 보습을 끌구 내게서는 사릅짜리 어린 소들이 끈다구 칩시다. 과연 내가 당신만큼 갈아내겠소? 절대루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가 한몫 끼여나섰다.

《경리부장인 오쓰뜨롭노브한테서 그런 말을 듣는건 우리루서 놀라운데요! 과업두 없이 당신은 어떻게 일하겠소? 생각내키는대루 할테요? 나는 보탑에서 손을 안 떼는데 당신은 양지쪽에서 잔등만 해볕에 쪼일테니 그리구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받자구? 거 잘났군, 야꼬브 루끼치!》

《고마운 일일세, 꼰드라트 흐리쓰또포리치! 그래 당신은 소힘과 땅

을 어떻게 알맞게 하겠소? 당신네 땅은 부드러운데 내 땅은 굳구 당신 땅은 낮은데 있는 기름진 땅이요. 내 땅은 언덕에 있소. 그처럼 령리하다면 어디 말해보우.》

《굳은 땅에는 거기 과업을 주구 부드러운 땅에는 또 다른 과업을 주지. 소들은 겨리를 할 때 알맞게 하면 되오. 모든걸 헤아려 생각할수 있소. 내게 설명은 마오!》

《우샤꼬브가 말하구싶답니다.》

《말하시오!》

《여러분, 나는 이런걸 말하구싶어요. 늘 그렇게 하듯이 파종을 앞두구 한달동안은 소들을 좋은 건초며 강냉이, 보리 같은 근기있는 사료를 멕여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는 우리가 사료를 어떻게 하겠는가? 여분으루 있던 곡물을 곡물납부가 다 먹어갔으니…》

《집짐승에 대해서는 후에 이야기가 있소. 지금 그건 본줄거리가 아니요, 사실말이지! 경작의 하루기준작업량문제를 결정해야 하오. 굳은 땅에서는 몇헥터, 보습 하나에 얼마, 파종기 하나에 얼마를 결정해야 하오.》

《파종기라구 해두 여럿이지요! 나는 열한줄짜리루는 열일곱줄짜리를 당해내지 못하겠수다.》

《사실이요! 자기 의견을 내놓으시오. 그런데 여보, 당신은 왜 줄창 잠자쿠만 있소? 당신은 열성자축에 들어있는데두 아직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군요.》

제미드 몰춘은 의아쩍게 다위도브를 흘낏 보고 배속에서 나오는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찬성이외다.》

《무엇이?》

《밭을 갈아야 하는것과 또 결국… 씨를 뿌려야 한다는것에요.》

《그리구!》

《그것이 전부외다.》

《그것으루 전부요?》

《음.》

《말을 했군!》 다위도브는 미소를 띄우고 또 뭐라고 했으나 모두가 웃어대는통에 말이 들리지 않았다.

이윽고 쓔까리령감이 몰춘을 대신해서 변명했다.

《다위도브동지, 이 사람은 부락에서 몰츈(말없는 사람이라는 뜻—역주)이란 별명으루 통한다네. 평생 잠자쿠있다가 여간하지 않으면 말을 안하지. 그래서 녀편네까지두 저 사람을 버렸다네. 어리석지는 않은 까자큰데 반편 비슷하구 좀더 부드럽게 말한다면 질둔하다구 할가, 한구석이 터진 자루와 비슷하지. 저 사람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구있네마는 코를 줄줄 흘리는 못난이였어. 바지두 안 입구서 뛰여다녔구영 재주라구는 하나두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렇게 자라서 잠자쿠있지. 그것때문에 옛 제도하에서 뚜뱐쓰끄이의 신부가 저 사람한테는 성찬식두 해주지 않았다네. 참회때 검은 보루 저 사람을 씌우구 물었지. 〈얘야, 너는 도적질을 하느냐?〉 잠자쿠 있지. 〈음탕한짓을 하느냐?〉 또 잠자쿠 있네. 〈담배를 피우느냐? 간통을 하느냐?〉 그냥 말이 없네. 못난이같은것이 〈죄를 지었습네다, 신부님!〉 하면 당장에 속죄될걸 그랬거던. …》

《입을 닥쳐!》하는 뒤에서의 말소리와 웃음소리.

《…이제 일초동안이면 끝나네! 그런데 저자는 코만 훌쩍거리구 촌닭 관청에 온것처럼 휘둥그래 있지. 신부는 화끈 달구 눈이 뒤집힐밖에. 머리에 쓴 모자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래두 이렇게 묻네. 〈언제 너는 남의 안해나 이웃 하늘소나 다른 집 집짐승을 탐낸 일이 있느냐?〉 그리구 또 복음서에 있는 다른 여러것을 물었어. … 그래두 제미드는 잠자쿠 있지. 하기야 뭐라구 할말이 있었겠나? 누구 녀편네에게 마음을 두었다 하더래두 성사는 안됐을테니까…》

《그만두시오, 령감! 당신 얘기는 우리 일에 관계가 없소.》 다위도브가 엄하게 분부했다.

《이제 관계되게 되네, 점점 일에 가까와가네. 이건 허두에 지나지 않아. 일초동안만 더 주게! 자주 말허리를 끊는군… 제길헐! 무슨 얘기를 하댔는지 잊었는걸! 제길!… 이런 정신 보게! 옳지, 생각이 나는군.》 쓔까리령감은 자기의 대머리를 철썩 치고 기관총 쏘듯이 쏟아놓았다. 《그러니까 남의 녀편네에 대해서는 제미드는 애초부터 글렀구 또 하늘소라든가 혹은 다른 신성한 짐승이야 저 사람이 무엇때문에 탐을 내겠나? 말도 못 가지구 농사를 하자니 저 사람이 그런것들이 탐이 날수두 있겠지만 우리 고장에서는 그런것들을 기르지 않아서 저 사람은 난생 그런것들을 보지두 못했거던. 그리구 친애하는 여러분께 묻겠지만 어디서 우리한테 하늘소가 나타나겠소? 옛날옛적

부터 여기에는 그런것들이 없었는걸! 호랑이든가 하늘소 그리구 락타두…》

《이제두 입을 다물지 못하겠소?》 나굴리노브가 물었다. 《당장 밖으로 쫓아내겠소.》

《마까루쉬까, 임자는 5.1절때 세계혁명에 대해서 학교서 한낮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말했네. 이루 다 말 못할만큼 따분하게 꼭같은 말을 중언부언했지. 나는 슬그머니 걸상우에서 새처럼 꼬부리구 자구말았지만 임자 말허리를 끊으려구는 안했는데두 임자는 내 말을 막는구만…》

《령감이 마자 얘기를 하게 하지, 시간은 있어.》 익살과 재미있는 말을 몹시 좋아하는 라즈묘뜨노브가 말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잠자쿠 있었는지두 모르지만 그건 전연 아무두 모르지. 신부는 그때 깜짝 놀랐어. 보를 씌운 제미드한테루 얼굴을 가져다대구 묻네. 〈아니, 너는 벙어리가 아니냐?〉 이때에야 제미드는 그자한테 말했지. 〈아니, 참 추근추근두 하네!〉 그러자 신부는 아주 몹시 성이 나서 얼굴이 새파래가지구 낮은 목소리루 가까운데 있는 로파들이 듣지 않두룩 〈그래 이녀석아, 왜 장승처럼 말이 없냐?〉 그리구 제미드의 량미간을 조그만 촉대루 답새겼지!》

웃음소리를 압도하면서 제미드의 우뢰와 같은 굵은 목소리가 울린다.

《거짓말이야! 때리지는 않았어.》

《아니, 안 때렸어?》 쓔까리령감은 까무라칠듯이 놀랐다. 《그래두 어차피 같아, 아마 때리구싶었을테니까… 그래서 그자는 저 사람에게 성찬식을 해주지 않았지. 여러분, 제미드가 잠자쿠 있댄들 뭐어떻소, 우리는 말을 하세. 그건 우리에게 상관없어. 내 말처럼 좋은 말두 그것은 은이구 침묵은 금이라구는 하지만.》

《령감은 그 은을 모두 금으루 바꿨으면 좋겠소! 다른 사람들한테 귀찮지 않을테니까…》 나굴리노브가 권고했다.

웃음이 마른 나무 타듯이 피여났다가는 꺼지군 했다. 쓔까리령감의 이야기는 사무적기분을 깨뜨려버렸다. 그러나 다위도브는 얼굴에 떠있던 웃음을 거두고 이렇게 물었다.

《기준작업량에 대해서 뭣을 말하려구 했습니까? 문제에 들어가시오!》

《나 말인가?》 쓔까리령감은 이마에 밴 땀을 옷소매로 훔치고 눈을 끔벅거렸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두 얘기하려구 하지 않았네. … 나는 그저 제미드에 대해서 문제를 밝혔지. … 기준량은 여기에 하등 관계없어. …》

《이 회의에서 당신이 발언하는걸 금지합니다! 본질적으루 말을 해야지 롱을 치는건 후에라두 할수 있거던요, 사실말이지!》

《보습 한개루 일주야에 한제샤찌나로 합시다.》 농사전권위원들중의 한명인 꼴호즈원 이완 바딸리씨꼬브가 제의했다.

그러나 둡쪼브는 분격한듯이 웨쳤다.

《자네는 망녕이 났군! 그런 수작은 집의 녀편네한테나 하게! 하루에 한제샤찌나는 못 갈아! 땀으루 미역을 감아두 못해내네!》

《나는 이제까지 갈아왔네. 그럼 좀 적게 해두 되지…》

《암, 적어야 하구말구!》

《보습 한개에 반제샤찌나루 하지, 굳은 땅에서.》

오랜 론의끝에 일주야 기준밭갈이량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였다. 굳은 땅에서는 보습 한개에 0.60헥터, 부드러운 땅에서는 0.75헥터.

파종기의 파종량은 이렇게 결정되였다. 11렬식－3.25헥터, 13렬식－4헥터, 17렬식－4.75헥터.

그레먀치 로그에 통털어 368마리의 황소와 73마리의 말이 있는 조건하에서 봄철파종계획은 고된것이 아니였다. 이에 대해서는 야꼬브 루끼치도 이렇게 언명했다.

《열심히 일을 하기만 한다면 일찌기 파종을 끝낼수 있어요. 봄사이에 마소 한마리당 4제샤찌나 반이 됩니다. 이건 거저 먹기외다, 여러분! 말할나위두 없지요.》

《뚜뱐쓰꼬이에서 마소 한마리에 8제샤찌나루 됐답니다.》 류비슈낀이 말했다.

《그네들두 좀 잔등에 땀이 나봐야지! 우리는 작년 가을 서리가 내리기 전에 가을갈이를 했는데 그네들은 성모제때부터 나무를 잘라내는 부질없는짓들을 했네.》

3일간에 종곡을 모으기로 결정되였다. 야장 이뽈리트 샬릐의 그리 달갑지 않은 발언이 있었다. 그는 귀가 멀기때문에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의앞이라 켕겨서 그을음으로 더러워진 털모자를 일에 으깨진듯 한 손으로써 줄곧 주무르고있었다.

《수리는 죄다 할수 있지요. 나는 늦지 않게 해내겠소. 그렇지만 쇠는 어떻게 애를 써서든지 당장 손에 넣어야겠수다. 보습끌과 허리에 쓸 쇠가 한쪼각두 없는걸요. 일할 건덕지가 없지요. 씨뿌리는 기계는 래일부터 착수하겠소. 조수 한명하구 숯이 필요합니다. 그리구 나는 꼴호즈에서 얼마나 돈을 받게 될가요?》

다위도브는 보수에 대해서는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야꼬브 루끼치에게는 래일로 쇠와 숯을 구하기 위해서 구역으로 떠나도록 제의했다. 고정적사료예비에 관한 문제는 곧 해결되였다. 그다음에는 야꼬브 루끼치가 발언했다.

《여러분, 어떻게 어디다 무엇을 심는가를 잘 토론해야 하구 또 일을 잘 아는 유식한 사람을 농산기술자루 뽑아야겠어요. 하기는 꼴호즈가 조직되기 전에 다섯명의 농산전권위원이 있었지만 그네들이 한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땅을 자상히 죄다 아는 늙은 까자크들중에서 한명의 농산기술자를 뽑아야겠소. 새로 토지정리가 실시될 때까지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무척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소. 지금 우리 꼴호즈에는 전부락이 거의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구 조금씩 계속 들어오구있지요. 한 50호쯤이 개인농으루 남아있지만 그네들두 멀지 않아 각성해서 꼴호즈원이 될거외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학문에 의해서 학문이 하라는대루 파종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경작하기루 되여있는 2백제샤찌나중에서 절반을 헤르쏜식밭으루 만들자는거외다. 금년 봄에는 110제샤찌나의 처녀지를 일구는데 그걸 이 헤르쏜식밭으루 합시다.》

《그런 소린 듣지 못했는걸!》

《그 헤르쏜이란건 뭐요?》

《그걸 실제적으루 우리에게 설명해주시오.》 그처럼 경험많은 자기 경리부장의 지식을 넌지시 자랑하면서 다위도브가 물었다.

《그건 이런 밭이외다. 일명 에운 밭이라구두 하지요. 그건 아주 재미있구 묘하게 생각해낸거외다! 가령 금년의 경작지에다 강냉이 혹은 해바라기를 심는다 합시다. 그런데 이랑을 적게 하구 여느때보다 절반쯤 버성기게 심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은 이제까지의 경작파종에서보다 50프로밖에 거두지 못하지요. 강냉이이삭을 거두거나 또한 해바라기대가리를 꺾은 다음에 그 대는 그냥 남겨둡니다. 그리구 금년 가을에 그 대들사이의 에워진 곳에다 가을밀을 심지요.》

《그래 어떻게 심소? 기계에 대들이 꺾어질텐데?》 이제까지 입을 벌리고 탐내듯 듣고있던 마이단니꼬브가 물었다.

《어째서 꺾어져? 이랑들사이가 성기구 그러니까 기계는 대를 건드리지 않구서 소매를 슬치듯이 그옆을 지나가지요. 그래서 대들사이에는 눈이 쌓여 남아있게 됩니다. 눈은 천천히 녹구 그러니까 습기를 한층 더 많이 줍니다. 봄에 밀이 자라나면 그 대들을 거둬버리구 김을 매지요. 어지간히 재미있게 생각해냈어요. 나자신이 그렇게 심어보지는 않았지만 금년에는 해볼 작정이댔소. 타산을 옳게 한만큼 이건 틀림없수다!》

《그렇겠군! 지지합니다!》 다위도브는 책상밑에서 발로 나굴리노브를 건드리고 이렇게 속삭였다. 《어떤가? 그런데두 자네는 그냥 저 사람을 반대했지. …》

《나는 지금두 반대네. …》

《그건 벌써 고집이란거야, 사실말이지! 종자소처럼 벋디디는군…》

회의는 야꼬브 루끼치의 제의를 채택했다. 그다음에는 또 사소한 여러가지 일들을 토론하고 결정했다. 드디여 헤여져가기 시작했다. 다위도브가 나굴리노브와 함께 촌쏘베트에 아직 채 이르지 못했을 때 촌쏘베트의 뜰로부터 가죽잠바앞을 헤친 작달막한 청년 하나가 급히 걸어나왔다. 우물정자형의 줄이 간 도회지풍모자를 한손으로 누르고 획획 불어오는 바람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그는 빨리 다가왔다.

《구역에서 누가 왔나보군.》 나굴리노브는 눈을 가늘게 떴다.

청년은 바싹 가까이 다가와서 군대식으로 한손을 모자채양에 가져다댔다.

《당신들은 촌쏘베트에 계신분들이 아닙니까?》

《그래 당신은 누구를 만나렵니까?》

《여기 당세포비서나 쏘베트위원장을 만나고싶습니다.》

《내가 세포비서구 이 사람은 꼴호즈위원장이외다.》

《마침 잘됐습니다. 동지들, 나는 선전대사람입니다. 우리는 방금 도착하여 쏘베트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구있습니다.》

개발코에 얼굴이 거무스름한 그 청년은 재빨리 다위도브의 얼굴을 슬쩍 살펴보더니 의향을 묻고싶은듯 한 미소를 띄웠다.

《동지, 당신이 다위도브가 아닙니까?》

《다위도브요.》

《그럴줄 알았습니다. 한 뒤주일전에 나는 관구위원회에서 당신과 만났지요. 나는 관구의 기름공장에서 압착공으루 있습니다.》

이때에야 비로소 다위도브는 청년이 자기들한테로 다가왔을 때 왜 갑자기 그에게서 해바라기기름냄새가 향기롭고 고소하게 풍겨왔는지 그 까닭을 깨달았다. 기름에 번들번들한 그의 잠바는 암만 비벼털어도 날지 않을 그 고소한 냄새에 함씬 배여있는것이였다.

제 22 장

존쏘베트의 현관에는 모자도리가 낮고 꼭두에 흰 십자가 붙은 꾸반모를 쓰고 검은 가죽으로 만든 주름잡은 반외투를 입은 작달막한 사람 하나가 가까이 걸어오는 다위도브에게 등을 돌리고 서있었다. 꾸반모를 쓴 그 사나이는 쩍 버그러지게 어깨가 넓었고 희한할만큼 널직한 그의 잔등은 문설주와 방문전체를 가리우고있었다. 그는 굵고 짧은 든든한 두다리를 악어발처럼 벌리고 서있는데 키가 작고 다부진 그는 마치 광야의 느릅나무와도 같았다. 주름잡힌 넓은 목다리에 뒤꿈치가 량옆으로 비뚤어진 장화는 층층대마루에 뿌리를 박은듯 곰같은 그의 체중으로 해서 꽉 박혀있는것 같았다.

《저분이 우리 선전대장 꼰드라찌꼬동집니다.》 다위도브와 나란히 걸어가던 청년이 말했다. 그리고 다위도브의 입술에 떠있는 미소를 보자 이렇게 속삭였다. 《우리들사이에서는 〈정방형아바이〉라고들 부른답니다.… 저분은 루간쓰크기관차제작소에서 왔는데 선반공이지요. 년세는 아바이년세지만 젊은이찜쪄먹게 건장하답니다.》

이때 꼰드라찌꼬는 말소리를 듣고 불그레한 얼굴을 다위도브에게로 돌렸다. 늘어진 갈색웃수염밑에서 이발이 미소로 해서 희게 빛났다.

《쏘베트의분들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고스레 오셨습니다, 동지. 나는 꼴호즈위원장이구 이 사람은 당세포비섭니다.》

《좋소! 집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젊은이들이 벌써 오래 기다리구있소. 나는 이 선전대의 대장으루서 이제 당신들과 좀 얘기하구싶소. 내 이름은 꼰드라찌꼬라구 부르오. 우리 대원들이 당신들께 나를

끄와뜨라찌끄(정방형이란 뜻—역주)라구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말은 듣지 마시오. 우리 애들은 장난질이 세구 게다가 못난이들이 돼서 형편없지요…》 그는 모로 서서 비집고들어가면서 굵은 목소리로 쩌렁쩌렁 말했다.

오씨쁘 꼰드라찌끄는 남부로씨야에서 20년이상 일했다. 처음에는 따간로그, 그다음에는 로쓰또브—나—돈, 마리우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간쓰크에서 일하다가 청소한 쏘베트정권을 그 널직한 어깨로 받들기 위해서 적위군에 들어갔었다. 로씨야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동안에 그는 고향인 우크라이나말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며 쉡첸꼬식의 늘어진 웃수염을 보아 그가 우크라이나사람이라는것을 아직 알아볼수 있었다. 1918년 그는 워로쉴로브휘하에서 도네쯔의 탄부들과 함께 반혁명폭동이 불타오른 까자크부락들을 뚫고 짜리찐으로 갔었다. … 이미 세월은 흘렀지만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가슴과 기억에 영생토록 그 감명이 살아있는 공민전쟁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꼰드라찌끄는 잔잔한 긍지감을 품고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리 클레멘찌는 루간쓰크사람이네. … 그렇구말구. 이전에는 아주 잘 알았지. 아마 또 만날수두 있을거야. 그이는 즉석에서 나를 알아볼게야! 짜리찐부근에서 백파들과 싸웠을 때에는 그이가 나하구 자주 이렇게 롱담을 했다네. 〈그래 어떤가, 꼰드라찌끄? 임자는 아직 살아있군, 늙은 승냥이같이!〉 그러면 나는 말하지. 〈살아있습니다, 클레멘찌 오흐리믜치. 죽을 짬이 없지요. 보십쇼, 반혁명패를 어떻게 쳐죽이구있는지? 얼마나 세차게 해내는지!〉 만약 그이가 나를 만나면 당장 나를 그러안을게야.》 꼰드라찌끄는 자신있게 말을 맺는것이였다.

전후에 그는 또다시 루간쓰크에 와서 운수방면의 체까기관에서 일했고 그다음에는 당사업 그리고 다시금 공장으로 배치되였다. 거기에서 당의 동원에 의해서 농촌집단화를 방조하는데 파견되였다. 근년에 와서 꼰드라찌끄는 살이 찌면서 가로퍼져나갔다. … 이제는 벌써 그 당시의 전우들도 1918년 짜리찐에서의 전투때 네명의 까자크를 무찔렀으며 또 용감한데 대하여 금세공을 베푼 은환도를 직접 우랑겔한테서 받은 꾸반의 중대장 말릐마가를 무찌른 그 오씨쁘 꼰드라찌끄를 알아보지 못할것이다. 오씨쁘는 몸집이 커지고 늙기 시작했으며 얼굴에는

푸른빛, 보라빛의 피줄들이 지나갔다.… 빨리 달려서 피곤한 말이 허연 거품딱을 뒤집어쓴것처럼 세월은 오씨쁘의 머리에 백발을 씌웠다. 축 늘어진 웃수염에까지 저주로운 백발이 주접했다. 그러나 의지와 힘은 오씨쁘 꼰드라찌꼬를 배반하지 않았으며 멋없이 뚱뚱해지는것으로 론의한다면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따라쓰 불리바는 나보다 더 육중했지만 뾜스까귀족놈들과 어떻게 싸웠는가? 그렇지! 만약 싸움을 할라치면 나는 아직 장교 뒤놈쯤은 당해낸다! 내 나이 반백이지만 그게 대수냐? 내 아버지는 짜리정권하에서두 백을 살았으니 나는 이제 우리 친애하는 정권하에서 백오십은 살테다!》 그의 나이와 그가 자꾸 뚱뚱해지는것을 사람들이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다.

꼰드라찌꼬는 선참 서서 촌쏘베트의 방으로 들어갔다.

《조용하게, 여보게들! 이분은 꼴호즈위원장이구 저분은 세포비서이시네. 우리는 여기 사정이 어떤지 들어야 해. 그러면 우리가 뭣을 해야 할지 알게 될거야. 자, 다들 앉게!》

선전대원들중에서 한 15명가량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흩어져 앉고 두명은 말을 돌보러 가는듯 뜰로 나갔다. 낯선 얼굴들을 살펴보면서 다위도브는 농산기수와 초급중학교의 교원과 의사—이 세명의 구역일군을 알아보았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관구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였는데 일부는 모든 점으로 보아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였다. 사람들이 의자를 움직여놓고 기침을 하면서 각기 자리에 앉는 동안에 꼰드라찌꼬는 다위도브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우리 말들한테 마른 꼴을 주구 아무데루두 가지 않두룩 마부들에게 일러주오.》 하고 능청스럽게 말을 가늘게 했다. 《여기서 귀밀을 얻을순 없겠소?》

《귀밀은 없는데요, 종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한 다위도브는 즉시로 어색함과 또 자기자신에 대한 불쾌감을 통절하게 느끼면서 가슴안이 온통 싸늘해졌다. 사료용귀밀은 아직 백여뿌드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가 거절한것은 봄농사가 시작될것을 생각해서 귀밀을 눈동자같이 소중히 간직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야꼬브 루끼치는 거의 울다싶이 하면서 말들에게(관리부의 말들에 대해서만!) 귀중한 곡물을 조금씩 주었는데 그것도 오직 멀고 험한 길을 떠날 때뿐이였다.

(이것이 저 소유자적본능이로구나! 나두 그것에 걸리기 시작하는군. …) 다위도브는 생각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전연 없었어, 사실말이지! 에이참… 귀밀을 주어버릴가? 아니야, 이제는 벌써 그건 거북스러운 일이야.)

《혹시 보리는요?》

《보리두 없습니다.》

보리는 사실로 없었다. 그러나 다위도브는 다 알만 하다는듯 한 미소를 머금은 꼰드라찌끄의 눈길을 받아 화끈 달아올랐다.

《없습니다, 참말루 보리는 없습니다.》

《당신은 좋은 주인이 되겠소. … 아니, 더 나가서 부농이 될지두 모르겠는걸…》 꼰드라찌끄는 수염이 난 입가에 웃음을 띄우면서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다위도브가 량미간을 찌프리는것을 보자 그를 그러안고 발이 마루에서 조금 뜰만큼 쳐들었다. 《아니, 아니! 롱담이요. 없는건 없는거지! 자기네 집짐승을 먹이게 자신이 많이 간직해둬야 하지… 자, 그럼! 여보게들, 일에 착수하세! 죽은듯이 조용히들 있게.》 하고는 다위도브와 나굴리노브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무엇이든 방졸 하려구 왔는데 그건 당신들두 알리라구 믿구있소. 그러니까 여기 당신네 사정을 알려주는게 좋겠소.》

집단화의 집행형편과 종곡수집에 대한 다위도브의 자세한 보고가 있은 후에 꼰드라찌끄는 이렇게 결정했다.

《여기선 우리들전부가 들어붙어서 할 일은 없소.》 그는 호주머니에서 수첩과 3로리 대 1인치의 지도를 꺼내더니 굵은 손가락으로 그우를 더듬었다. 《우리는 뚜뱐쓰끼로 갑시다. 그 부락은 보매 여기서 가까운것 같소. 여기 당신네한테는 네명의 대원들을 남겨둘테니 그 사람에게 일을 방조케 하시오. 종곡을 어떻게 빨리 수집할가 하는데 대해서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구싶소. 우선 회의를 소집하구 농민들한테 무엇이 어떤가를 이야기하시오. 그리구 그후에는 대중사업을 전개하시오.》 그는 천천히 자세하게 말했다.

다위도브는 만족하게 그의 말을 들었다. 그로서는 절반가량이나 알수 없는 우크라이나말씨때문에 더러 모호한 표현을 다 명확하게 깨달을수는 없었으나 꼰드라찌끄가 기본적으로 종곡수집운동의 옳은 계획을 말하고있음을 깊이 느꼈다. 한편 꼰드라찌끄는 만약 부락의 개인농들이나 부유한자들이 뜻밖의 고집을 부리거나 종곡수집조치에 대해

서 이러저러한 반항을 한다면 그들에게 대해서 취해야 할 방침은 한결같이 천천히 이야기했으며 다른 촌쏘베트들에서 선전대가 사업한 경험에 의해서 얻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도중에서 혹은 다위도브, 혹은 라즈묘뜨노브, 혹은 나굴리노브와 의논하면서 지도하려거나 가르치려는 기색은 털끝만치도 보이지 않고 줄곧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할게요. 당신들 그레먀치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렇지, 나두 그렇게 생각했소!》

다위도브는 미소를 띄우고 선반공 꼰드라찌꼬의 피줄이 두드러진 검붉은 얼굴과 깊이 쑥 들어간 두눈의 능청스러운 광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에이참, 귀신같으니, 령리하거던! 우리의 창발성을 속박하지 않으려구 짐짓 의논하는체 하는군. 허긴 자기의 옳은 판단에 대해서 반대한대두 역시 슬쩍 자기가 생각하는데루 돌려세울게야, 사실말이지! 저런 사람들을 여러번 봤어, 사실말이지.)

또 하나의 조그마한 일이 꼰드라찌꼬동지에 대한 그의 호감을 더 크게 했다. 떠나기 전에 꼰드라찌꼬는 세명의 동지들과 함께 그레먀치로그에 남는 작업반장을 한옆으로 불렀는데 두사람사이에는 짤막한 이야기가 벌어졌다.

《자네는 왜 쟈케트우에다 권총을 찼나? 당장 집어넣게!》

《그렇지만 꼰드라찌꼬동지, 부농들은… 계급투쟁이…》

《그래, 뭘 자네는 내게 말할텐가? 부농들이 뭐란 말인가, 어떻단 말인가? 자네는 선전을 하러 왔네. 만약 부농들이 소동을 일으키면 그때 권총을 꺼내게. 그전에는 권총을 차구 다니지 말어. 너무 령리하군! 아주 어린애처럼 어려! 겉에다 달아매구 무기를 자랑한담… 지금 즉시 주머니에 집어넣게. 자네에 대해서 부농들의 앞잡이가 〈여러분, 보슈. 저렇게 권총을 가지구 당신들에게 선전하러 왔소!〉 그러지 않게.》 하고 이발사이로 내는듯 한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바보같으니…》

그리고 이미 썰매에 올라타면서 다위도브를 가까이 불러 그의 외투단추를 주무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펄쩍나게 일을 할게요! 당신들두 모든 일이 제깍 되두룩 잘 일하시오. 나는 뚜뱐쓰끼에 있을테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알리시오. 그리루 가면 아마 오늘루라두 한 연극 할는지 모르겠소.

내가 부농들을 상대루 어떻게 연극을 하는지 보여주구십소! 내게는 부농들이 자연히 놀음을 놀게끔 하는 모범이 있지… 아, 꼰드라찌꼬령감두 늘그막에 수고를 하는군! 그리구 귀밀에 대해서는 생각지 마시오. 그런 일에 대해서는 당신보고 성을 내지 않소.》 하고 널직한 잔등을 썰매뒤판에 털썩 기대면서 히죽이 웃었다.

《무슨 머리가 저렇게 크구 저 무슨 어깨며 저 무슨 발이람!》 라즈묘뜨노브가 웃음을 터쳤다. 《뜨락또르 한가질세! 연장을 메워 저 사람 혼자서 끌게 하면 여섯마리 소가 필요없겠네. 저렇게 장대한 사람들을 무엇으루 만드는지 나는 괴이쩍을 지경일세. 어떻게 생각하나, 마까르?》

《자네두 쓔까리령감 비슷해졌군, 객적은 소리를 하게 됐어!》 나굴리노브는 노한듯이 손을 흔들고 돌아섰다.

제 23 장

뽈롭쩨브대위는 야꼬브 루끼치네 집에서 지내면서 열심히 봄의 폭동을 준비했다. 밤마다 그는 닭들이 울 때까지 자기 방에 들어앉아서 무엇인가를 쓰고 제도연필로 그 무슨 지도를 그리고 글을 읽었다. 간혹 그 방을 들여다볼 때 야꼬브 루끼치는 뽈롭쩨브가 그 이마 벗어진 머리를 조그마한 책상우에 숙이고 글을 읽으면서 꿋꿋한 입술을 소리도 없이 움직이고있는것을 보았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그가 괴로운 생각에 잠겨있는것을 야꼬브 루끼치는 보았다. 그런 때면 보통 뽈롭쩨브는 팔굽을 짚고 기다랗게 자란 버성겨가는 희끔한 머리카락속에 손가락을 들이밀고 앉아있었다. 꺆아지른듯 한 꽉 다문 그의 턱은 마치도 몹시 굳은 그 무엇을 씹기라도 하는듯이 움직이고 두눈은 반쯤 감겨있었다. 몇번을 불러야 겨우 그는 고개를 들었고 무시무시할만큼 까딱 움직이지 않는 그의 조그마한 동공에는 원한의 불길이 피여올랐다. 《그게 뭔가?》 그는 짖는듯 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한 순간 야꼬브 루끼치는 그에 대해서 더욱 커다란 공포를 느꼈으며 부지중에 존경의 념을 품었다.

날마다 뽈롭쩨브에게 부락과 꼴호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하는것은 야꼬브 루끼치의 의무로 되였다. 그는 정직하게 그에게 보고했

다. 그러나 그 보고는 매일 뽈롭쩨브에게 새로운 슬픔을 가져다주고 그의 뺨우에 더욱 깊은 주름살을 가로 파놓는것이였다. …

그레마치 로그에서 부농들이 추방당한 후에 뽈롭쩨브는 밤새 자지 않았다. 그의 육중하면서도 사뿐한 발걸음소리가 새벽까지 들렸다. 야꼬브 루끼치가 발끝을 저겨딛고 방문으로 다가갔을 때 그가 이발을 갈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것을 들었다.

《발밑의 땅을 무너내는구나! 의지할 기둥을 뻬어내는구나. … 쳐죽여야 한다! 쳐죽여야 한다! 무자비하게 쳐죽여야 한다!》

조용해진다. 펠트신을 신은 발을 사뿐히 갈아디디면서 또다시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가 손가락으로 몸뚱아리를 문지르고는 버릇대로 가슴을 긁는 소리가 들리다가 또다시 웅글은 말소리가 들린다.

《쳐죽여야 한다! 쳐죽여야 한다!…》 그리고는 목구멍안에서 나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만사를 굽어보시는 자비롭고 공명하신 주여!…부축해주옵소서!… 언제나 그때가 오려는지요? 주여, 당신의 천벌을 내리소서!》

새벽이 다 되여 불안해진 야꼬브 루끼치는 방문으로 다가가서 또다시 그 틈사이에 귀를 가져다댔다. 뽈롭쩨브는 중얼중얼 기도를 올리고 쿨럭거리면서 무릎을 짚고 절을 했다. 그리고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 이미 절반은 꿈속에서 또 한번 분명하게 중얼거렸다. 《모두 쳐죽여야 한다… 마지막 한놈까지!》 하고는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며칠후 야꼬브 루끼치는 밤에 덧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갔다.

《누구요?》

《문을 여시오, 주인!》

《거 누구요?》

《알렉싼드르 아니씨모비치를 찾아왔소. …》 밖에서 속삭였다.

《누구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소.》

《그이한테 말하오. 나는 쵸르늬에서 문건을 가지구 왔소.》

야꼬브 루끼치는 저으기 주저하던 끝에 《될대루 돼라!》하고 방문을 열었다. 털모자로 얼굴을 싼 작달막한 한 사나이가 들어왔다. 뽈롭쩨브는 그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꼭 닫았다. 한시간반동안 방으로부터는 소리를 죽인 조급스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동안에 야꼬브 루끼치의 아들은 찾아온 련락원의 말에 꼴을 주고 안장

북두끈을 늦추고 굴레를 벗겼다.
그후부터 거의 매일같이 련락원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밤중이 아니라 새벽녘 가까운 밤 두시나 세시경이였다. 보매 첫번 련락원보다 더 먼곳들에서 오는것 같았다.
이즈음 야꼬브 루끼치는 기묘한 2중생활을 하고있었다. 아침부터 꼴호즈관리부에 나가서 다위도브, 나굴리노브, 목수, 작업반장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집짐승우리의 건초며 종곡의 소득이며 농기구수리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다른 생각을 할 짬이 없었다. 활동적인 야꼬브 루끼치는 그자신도 뜻하지 않게 그의 성미에 맞는 사무적인 분망과 끊임없는 근심스런 생활속에 휩쓸려들어갔다. 다만 본질상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와서는 그가 이미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꼴호즈를 위하여 일하면서 부락을 돌아다니고 려행을 하고 몰두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만으로도 기뻤다. 오직 불길한 생각을 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것만도 좋았다. 그는 일에 열중했다. 일을 하고싶었고 여러가지 계획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집짐승우리의 난방, 큰 마구간의 건설에 열성을 다하여 착수했으며 공동소유화된 곡물창고의 이동과 새 꼴호즈 곡물창고의 건설을 지도했다. 그러나 저녁이 되여 분주하던 하루일이 조용해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기만 하면 집의 한방에 뽈롭쩨브가 묘지우의 솔개미처럼 고요속에서 찌프린 무서운 얼굴로 앉아있으리라는 한가지 생각에 야꼬브 루끼치는 명치밑이 지근거리고 동작이 느슨해지며 형언키 어려운 피곤이 온몸을 휩쓰는것이였다. …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녁을 먹기 전에 뽈롭쩨브한테로 갔다.
《말하게.》 그는 담배를 말면서 주린듯이 들을 차비를 차리고 명령하는것이였다.
그러면 야꼬브 루끼치는 지난 하루동안에 꼴호즈에서 있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뽈롭쩨브는 보통 잠자코 듣고있었다. 다만 오직 한번, 야꼬브 루끼치가 부농들의 옷들과 신발을 빈농들에게 분배한것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분통이 터져 그는 미친듯이 목구멍안에서 독수리울음같은 소리를 내면서 웨쳤다.
《봄이 오면 물건을 받은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테다! 그놈들을 모두… 그 불한당놈들을 모두 명단에 적어두게! 알았나?》
《내게 명단이 있어요, 알렉싼드르 아니씨모비치.》

《그게 자네한테 있어?》
《가지구있습니다.》
《이리 내!》
명단을 받아서 이름, 부칭, 성, 분배받은 물품들을 빠짐없이 써넣으면서 꼼꼼히 그 사본을 베끼고 옷이나 신발을 받은 사람들 매 개인의 성명 맞은편에 열십자로 표했다.
뽈롭쩨브와 이야기를 하고나서 야꼬브 루끼치는 저녁을 먹으러 가고 취침하기 전에 또다시 그에게로 가서 다음날 무엇을 할가 지시를 받는것이였다.
야꼬브 루끼치가 2월 8일 제2작업반의 지휘자에게 사람들을 붙여 달구지 넉대를 보내서 개천의 모래를 외양간으로 나르도록 분부한것도 뽈롭쩨브의 안에 의한것이였다. 모래를 날라왔다. 야꼬브 루끼치는 외양간 땅바닥을 깨끗이 소제하고 거기에 모래를 깔도록 지시했다. 그 일이 끝나갈무렵에 다위도브가 제2작업반 집짐승우리를 찾아왔다.
《모래는 왜 가지구들 그러우?》 그는 작업반의 외양간책임자로 임명된 제미드 몰춘에게 물었다.
《깔구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침묵.
《무엇때문에냐 말이요?》
《모르겠소.》
《누가 여기에 모래를 뿌리라구 했소?》
《경리부장이외다.》
《그래 그 사람이 뭐랍디까?》
《깨끗이 해야 한다나요… 별생각을 다 해내지요, 개자식이!》
《두엄이 쌓이고 냄새가 심하구 소가 탈이 날수두 있지요. 소들을 깨끗하게 해주라구 수의들두 말하구있소, 사실말이지. 당신은 공연히 그저… 불만스런 말투요. 이제는 외양간이 보기에두 기분좋게 되지 않았소. 모래를 깔아서 깨끗하구, 어떻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우?》
그러나 다위도브는 몰춘과 이야기를 주고받을수 없었다. 몰춘은 덤덤히 골짜기로 가버리고 다위도브는 속으로 자기 경리부장의 창안을 찬성하면서 점심을 먹으러 갔다.

초저녁때 류비슈낀이 그에게로 달려와서 볼멘 소리로 물었다.
《소들에게 짚을 깔아주던 대신에 오늘부터 모래를 깔아줍니까?》
《예, 모래를 깝니다.》
《그래 오쓰뜨롭노브란 놈은 뭐요? 제 마음대루 할수 있는것을 다 할수 있단 말이요? 어디서 그런 일을 봤소? 그래 다위도브동지, 당신까지두? 대관절 그런 부질없는짓에 찬성한단 말이요?》
《흥분하지 마시오, 류비슈낀! 문제는 위생에 있는만치 오쓰뜨롭노브는 옳게 했소. 깨끗하면 안전하지요. 병이 없어질테니까.》
《그래 그게 대체 무슨 위생이요? 소가 어디에 엎디겠소? 지금 추위가 얼마나 죄여대구있나 좀 보시유. 짚에 엎디면 따뜻하지만 모래우에 어디 누워보시유!》
《아니요, 제발 반대를 마슈! 집짐승을 다루는데서두 구식은 집어치워야 하오! 모든것을 우리는 과학적기초우에 세워야 하오.》
《그래 그게 무슨 기초요? 에이참!…》 류비슈낀은 검은 털모자로 장화목다리를 탁 치고 활짝 단 쇠보다도 더 벌개진 얼굴로 다위도브의 방에서 뛰여나갔다.
아침이 되자 스물세마리의 소가 땅바닥에서 일어날수 없었다. 밤사이에 모래가 얼어 소들의 오줌이 빠지지 않아서 소는 젖은 곳에 누워있었기때문에 얼어붙은것이였다. … 몇마리의 소는 돌처럼 언 모래우에 가죽을 뜯기우면서도 일어섰고 네마리는 얼어붙은 꼬리가 끊어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소들은 몸뚱아리가 얼어들어 탈이 났다.
야꼬브 루끼치는 뽈롭쩨브의 지시를 실천함에 너무 열성을 다해서 하마트면 경리부장의 직위를 떼울번 했다. 《놈들이 소를 이러저러한 방법으루 얼어버리게 하게! 놈들은 바보들이니까 자네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구 믿을걸세. 그렇지만 말들은 오늘로라도 출동시킬수 있두록 보전하게!》 그전날 밤 뽈롭쩨브는 그렇게 말한것이였다. 그리고 야꼬브 루끼치는 그것을 수행한것이다.
아침에 다위도브가 그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방문에 고리쇠를 걸더니 눈도 들지 않고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아니, 어떻게 된 노릇이요?》
《다위도브동지! 나는… 머… 머리카락이라두 쥐여뜯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벌레같으니…》 다위도브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분노에 눈물이 글썽해진 눈을 야꼬브 루끼치에게로 홱 들었다.

《해독행위를 하고있나?… 외양간에 모래를 뿌려선 안된다는걸 자네는 몰랐나? 소들이 언다는걸 몰랐어?》

《나는 소들을 위해서… 신명이 내려다보십니다. … 정말 몰랐어요!》

《닥쳐!… 자네같은 살림군이 몰랐다구는 믿지 않는다!》

야꼬브 루끼치는 울음을 터뜨렸다. 코를 풀면서 같은 말을 그냥 중얼거렸다.

《깨끗하게 하려구 했지요. … 두엄이 없두룩… 그렇게 되리라구는 몰랐구 생각두 못했습니다. …》

《가서 우샤꼬브에게 일을 인계하게. 자네를 재판에 넘기겠어.》

《다위도브동지!》

《나가란 말이야!》

야꼬브 루끼치가 나간 후 다위도브는 이번에는 좀더 랭정히 일어난 일을 생각해보았다. 해독행위로써 야꼬브 루끼치를 의심하는것이 이제는 벌써 당치않은것으로 그에게는 생각되였다.

오쓰뜨롭노브는 부농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혹 그를 그렇게 불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동기로 된것이다. 언젠가 오쓰뜨롭노브가 경리부장으로 등용된 직후에 한번은 류비슈낀이 어쩌다가 《오쓰뜨롭노브는 자신이 부농이던자야!》 하고 말을 던진 일이 있었다. 그때 다위도브는 야꼬브 루끼치가 오래전에는 사실 부유하게 지냈으나 흉작으로 해서 가산을 잃고 중농이 되였다는것을 조사하여 구명했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다위도브는 소와 관련된 이번 불상사에서 야꼬브 루끼치는 죄가 없고 그가 외양간에 모래를 깐것은 깨끗하게 하겠다는 생각과 또 부분적으로 아마 늘 혁신을 찾는 그 지향에 움직여 그렇게 한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만약 그 사람이 해독분자라면 그처럼 열심히는 일하지 않았을게다. 또 그 사람의 소만 해두 두마리가 그때문에 봉변을 보지 않았는가.) 다위도브는 생각했다. (아니다, 오쓰뜨롭노브는 우리에게 충실한 꼴호즈원이야. 모래사건은 어찌다가 잘못된 오유야, 사실말이지!) 그는 야꼬브 루끼치가 성심껏 재치있게 따뜻한 집짐승우리를 만든 일이며 건초를 소중히 한 일이며 언젠가 꼴호즈의 말 세마리가 탈이 났을 때에는 저녁때부터 아침새벽까지 마구간에 와서 손수 말들에게 관장을 시키고 복통이 멎도록 대마기름을 속안에 넣어주었으며 그다음에는 후

에 판명되였지만 세주일동안이나 말들에게 쌀보리짚만 먹여서 말들을 탈나게 한 장본인인 제1작업반의 마부 꾸쵠꼬브를 꼴호즈에서 내쫓자고 그가 선참으로 제의한 일들을 상기했다. 다위도브가 관찰한바에 의하면 야꼬브 루끼치는 말들에 대해서 딴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애를 썼다. 그러한 일들을 모두 상기한 다위도브는 자기가 당치않게 화를 낸것이 경리부장에 대해서 계면쩍고 또 죄송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자기가 좋은 꼴호즈원이며 여러 사람들한테서 존경받는 꼴호즈 관리부원에 대해서 그처럼 우악스럽게 고함질을 한것이며 심지어는 부주의했다는 죄밖에 없는 그에 대해서 해독행위를 의심한것이 거북스러웠다. (이 무슨 부질없는짓이냐!) 다위도브는 머리카락을 긁어흐트러뜨리고 면구한듯 기침을 깇고 방에서 나갔다. 야꼬브 루끼치는 열쇠묶음을 손에 들고 회계원과 말하고있었다. 그의 입술은 분한듯이 떨리고있었다. …

《저 여보, 오쓰뜨롭노브… 일을 인계하지 말구 그냥 눌러하시오, 사실말이지. 허지만 만약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사실말이지… 구역에서 수의를 불러오구 작업반장에게 언 소들은 일을 그만두도록 일러주시오.》

꼴호즈에 해독을 주려던 루끼치의 첫 시도는 무사히 끝났다. 뽈롭쩨브는 림시로 오쓰뜨롭노브에게 다음과제를 면제해주었다. 다른 일이 분주했기때문이다. 어느날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밤에 새로운 사람이 그를 찾아왔다. 그 사나이는 발구를 돌려보내고 집안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즉시로 뽈롭쩨브는 그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면서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분부했다. 두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다음날 아침 저으기 유쾌한 얼굴로 뽈롭쩨브는 야꼬브 루끼치를 자기방에 불렀다.

《저 친애하는 야꼬브 루끼치, 이 사람은 우리 동맹원이구 이를테면 우리 전우네. 륙군소위구 까자크식으루 하자면 호룬쥐인데 와쯜라브 아우구쓰또비치 랴찌옙스끼라구 하네. 이 사람을 사랑하구 아껴주게. 그리구 이 사람은 우리 주인인데 구식까자크지만 지금 꼴호즈의 경리부장으루 있네. … 쏘베트의 사무원이라구 말할수 있지. …》

소위는 침대에서 일어나 널직한 흰 손바닥을 야꼬브 루끼치에게 내밀었다. 보매 그는 한 30살가량이고 얼굴은 누렇고 수척했다. 뒤로 넘긴 물결진 검은 머리카락이 검은 공단으로 만든 속옷의 세워붙

인 깃까지 늘어져있었다. 명랑해보이는 곧바른 입술우에는 곱슬곱슬 성기게 수염이 돋았다. 왼쪽눈은 보매 타박상때문인듯 늘 가느스름하고 그밑에는 가을철 나무잎처럼 마르고 생기없는 주름살이 지나간 피부가 기복을 이룬채 꼼짝 안했다. 그러나 가느스름히 뜬 그 눈도 전 륙군소위 랴찌옙스끼의 얼굴에 떠있는 금시 웃을듯 한 명랑한 표정을 깨뜨리지 않을뿐만아니라 오히려 강조하고있는것 같았다. 그의 갈색눈이 금시 이제라도 깜빡이면서 살갈이 펴져 방사형의 주름살이 관자노리로 펴져나가고 락천적인 소위자신은 애되게, 사람을 유인하듯 웃음을 터칠것만 같았다. 후렁후렁해보이는 옷은 우정 그렇게 만든것으로서 주인의 날쌘 동작을 거북스럽게는 하지 않았으며 또 그의 깨끗한 몸가짐을 숨기지도 않았다.

이날 뽈롭쩨브는 전에없이 명랑했으며 야꼬브 루끼치에 대해서까지 친절했다. 아무런 의의도 없는 이야기를 그는 곧 끝마치고 오쓰뜨롭노브에게로 얼굴을 돌리면서 이렇게 언명했다.

《랴찌옙스끼는 자네네 집에서 한 두어주일 묵네. 그리구 나는 오늘 어두워지면 곧 떠나겠네. 와쫄라브 아우구쓰또비치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가져다드리구. 이 사람의 명령은 내 명령이네, 알았나? 그렇단 말이야, 야꼬브 루끼치!》 하고 투박한 손바닥을 야꼬브 루끼치의 무릎우에 놓고 의미심장하게 강조했다. 《멀지 않아 시작하세!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우리 까자크들에게 그렇게 말하구 원기를 내두룩 하게. 그럼 이제는 가보게, 우리는 아직 좀 얘기가 있어.》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아니고서야 뽈롭쩨브가 두주일동안이나 그레먀치 로그를 떠나지 않을것이야. 야꼬브 루끼치는 알고싶어서 몸이 달았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는 언젠가 뽈롭쩨브가 자기와 다위도브의 말을 엿들은 그 광실로 살그머니 들어가서 얇은 간벽에 귀를 가져다댔다. 벽너머 저쪽방에서 들릴가말가하게 들려오는 말소리를 그는 들었다.

랴찌옙스끼—《당신은 븨짜도로브와 련계를 취하는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각하께서는 물론 당신과 회견할 때 말할겝니다. 계획… 적절한 정세… 그것은 참말루 좋습니다! 쌀쓰크 관구에서는… 장갑렬차… 패배하는 경우에는…》

뽈롭쩨브—《쉿!》

랴찌옙스끼—(더욱 목소리가 낮아져서 별수없이 야꼬브 루끼치는

그의 말의 줄거리를 놓쳐버렸다.) 《패배… 물론… 아프가니스탄… 그네들의 방조를 얻어 돌파하고…》

뽈롭쩨브—《그렇지만 지금이… 게뻬우…》

(그다음에는 줄곧 〈부—부—부—부—부—〉 소리로 되였다.)

랴찌옙스끼—《또 하나의 안은 이렇습니다. 국경을 넘어… 민스크에서… 지나가면서… 나는 확언하지만 국경경비대는… 총사령부에서는 무조건 채택합니다.… 대좌는, 나두 성명을 알지만… 약속되여있는 부호는… 그건 참말 힘찬 방조가 아닙니까! 그러한 후원은… 문제는 원조금에 있는게 아니라…》

뽈롭쩨브—《그래 각하의 의견은…》

랴찌옙스끼—《장군이 반복하리라구 믿구있습니다… 많지요! 내게 구두로 분부하시기를… 극히 긴장된… 리용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목소리는 귀속말이 되고말아서 야꼬브 루끼치는 말들의 뜻을 깨닫지 못한채 한숨을 내쉬고 꼴호즈관리부로 나섰다. 그리고 또다시 이전 찌또크네 집에 이르러 흰 널판자에 《그레먀치 쓰딸린꼴호즈관리부》라고 대문우에 써붙인것을 여느때처럼 힐끗 바라보자 례의 분격을 느꼈다. 그러나 이윽고 랴찌옙스끼소위와 뽈롭쩨브가 확신있게 《멀지 않아 시작하세!》 라고 하던 말을 상기하자 잘코사니야 하는 마음과 또 자신에 대한 증오를 품고 생각했다. (제발 빨리 그렇게 돼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네들과 꼴호즈사이에서 얼음판의 소처럼 사지가 찢어지겠다!)

밤이 되여 뽈롭쩨브는 말에 안장을 놓고 자기의 서류를 모두 전대에 쓸어넣더니 길량식을 받아들고 작별을 고했다. 야꼬브 루끼치는 오래동안 서만 있던 뽈롭쩨브의 말이 안장을 싣고 원기있게 춤을 추듯이 경쾌하게 발굽을 울리면서 들창앞을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새로 거접한 사람은 부산스러운데다가 군대식의 파렴치한 사나이였다. 유쾌한 그는 매일 미소를 띄우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녀편네들에게 롱담을 걸고 담배연기가 딱 질색인 로파를 난처하게 했으며 야꼬브 루끼치의 집을 어떤 사람이 들여다보지나 않을가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위구함이 없이 걸어다니므로 야꼬브 루끼치는 그에게 주의까지 주었다.

《좀 조심하시우.… 공교롭게 누가 나타나서 당신을 볼지두 모릅니

다, 나으리.》
《그래 내 이마에 내가 나으리라는게 씌여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물을지두 모르지요. …》
《주인, 내게는 가짜증명서가 호주머니에 가득하네. 그래두 곤난해지구 신용하지들 않는다면 이 위임장을 내놓겠네. … 이 위임장만 있으면 아무데나 통과할수 있어!》하고 유쾌한듯이 미소를 띄우고 주름잡힌 울퉁불퉁한 피부에 덮여 까딱 안하는 눈으로 도전하듯이 바라보면서 뿌옇게 번들거리는 검은 모제르권총을 품속에서 꺼냈다.
기승스러운 소위의 쾌활함이 그렇지 않아도 야꼬브 루끼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은 후로는 더욱 심해졌다. 어느날 저녁 관리부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복도에서 소리를 죽인 말소리와 꺼리는 웃음소리, 버스럭대는 소리를 듣고 성냥을 켜자 한구석에 놓여있는 상자뒤에서 랴찌옙스끼의 번뜩이는 왼쪽눈과 그옆에서 홍당무우처럼 새빨개지고 당황한듯 치마를 매만지며 뒤통수로 벗어져 넘어간 머리수건을 수습하고있는 며느리를 보았다. … 야꼬브 루끼치는 한마디도 안하고 부엌으로 발을 내디디려 했으나 이미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랴찌옙스끼가 그를 따라와서 어깨를 툭 치고 이렇게 속삭였다.
《여보 아바이, 잠자쿠 있게… 아들의 마음을 흔들어놓을건 없어. 우리 군인들은 어떤지 아나? 신속성과 기습이야! 젊었을 때 그런 일 없는 사람 어디 있다구, 에헴… 자, 담배나 한대 피게! 자네자신부터 며느리하구 그렇지 않은가? 에끼, 이 악한같으니!》
야꼬브 루끼치는 하도 기가 막혀 담배를 받아들고 랴찌옙스끼의 성냥불에 불을 붙인 다음 부엌으로 들어갔다. 한편 랴찌옙스끼는 불을 붙여주고나서 훈계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가령 성냥을 켜준다든가 사람이 자기한테 친절히 해주면 치사를 해야지. 에이참, 몽매두 하지. 그래두 경리부장이야! 이전같으면 나는 자네를 종졸루두 안 써주겠네.》
(귀신이 이런자를 우리 집에 데려왔구나!) 하고 야꼬브 루끼치는 생각했다.
랴찌옙스끼의 뻔뻔스러운 행동거지는 그를 괴롭혔다. 아들 쎄묜은 집에 없었다. 그는 지시를 받고 수의를 데리러 구역으로 갔었다. 그

러나 야꼬브 루끼치는 그에게 아무 말도 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자기자신이 며느리를 고간으로 불러 몰래 버릇을 가르쳤다. 말 북두끈으로 계집을 후려갈겼다. 그러나 얼굴은 때리지 않고 잔등과 그 아래를 때렸기때문에 눈에 띄우는 곳에는 때린 자리가 나지 않았다. 쎄묜까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밤에야 읍에서 돌아왔다. 그의 처가 그에게 저녁식사를 가져다주고 걸상 한끝에 걸터앉았을 때 쎄묜은 그저 의아쩍어했을뿐이였다.

《아니, 임자는 왜 남의 집에라두 온것처럼 앉아있나?》

《나는 종처가… 생겨서…》쎄묜의 녀편네는 대뜸 얼굴이 빨개져서 일어섰다.

《파하구 빵을 함께 씹어서 붙이면 곧 빨아낸다던데.》 이때 난로 한옆에서 초 묻힌 실을 꼬고있던 야꼬브 루끼치가 사뭇 애타는듯이 권고했다.

며느리는 할낏 그를 보았으나 공손히 대답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이제 낫겠지요. …》

랴찌옙스끼에게는 때때로 문건이 왔다. 그는 그안에 들어있는것을 읽고는 즉시로 뻬치까에 태워버렸다. 나중에 가서는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야꼬브 루끼치의 며느리에 대해서는 더 장난질을 하지 않았다. 저으기 침울해지여 야꼬브 루끼치나 혹은 쎄묜에게 차츰 더 빈번히 반리터들이병을 부탁하고 발각거리는 새 10루블리 지페를 손에 쥐여주는것이였다. 술에 취하면 그는 즐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 했고 이야기에서는 현실에 대한 광범한 총화와 자기딴에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려고 했다. 어느날 그는 야꼬브 루끼치를 심히 당황케 하였다. 그를 자기 방에 불러 술을 권하고 능갈치게 눈을 끔벅거리면서 이렇게 물었다.

《꼴호즈를 무너뜨리구있나?》

《아니요, 그럴리가 있습니까?》 야꼬브 루끼치는 짐짓 놀란체 했다.

《임자는 어떤 방법으루 일하구있나?》

《어떤 방법이라뇨?》

《어떤 일을 진척시키구있나 말이야? 임자는 파괴자가 아닌가. … 그래 여기서 임자는 뭘 하구있어? 말들을 스트리키니네로 중독시킨다든가 생산도구를 못쓰게 만든다든가 또 어떤 일을 하겠지?》

《말은 다치지 말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반대지요. …》 야꼬브 루끼치는 털어놓았다.

근래에 그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기때문에 술 한잔에 머리가 핑 돌고 속을 털어놓구싶어졌다. 그는 한편으로 공동소유화된 부락의 사업을 건설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를 파괴하는것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하소연하고싶었다. 그러나 랴찌옙스끼는 그에게 말을 시켜주지 않았다. 술을 들이키고 야꼬브 루끼치에게는 그이상 술을 부어주지 않고 이렇게 물었다.

《그래 무엇때문에 임자는 바보같이 우리와 관계를 가졌나? 묻구싶구만, 무엇때문에? 무슨 옘병을 못해서? 뽈롭쩨브나 나는 어디루두 갈데가 없으니까 죽음을 맞받아나가네. … 그렇지, 죽음을 맞받아서지! 그렇지 않으면 승리하느냐지만 이보게 천한 사나이, 승리할 가망성은 통탄할만큼 적네. … 백분지 일이나 될가, 그이상은 안돼! 그렇지만 우리는 이왕 이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말투대루 철쇄밖에는 잃을것이 없네. 그렇지만 임자는 어떤가? 임자는 내가 보기엔 그저 희생에 불과하네. … 임자는 그럭저럭 살아갈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반실이는 살아두 좋아. … 가령 나는 임자와 같은 천한자들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리라구 믿지 않는다 하더래두, 그래두… 임자들은 세계의 늪에서 물을 흐려놓는것쯤은 할수 있을게야. 그리구 폭동이 일어나면 백발의 도깨비같은 임자대가리들을 철썩해버리거나 그저 포로루 붙들어 지각없는자루서 아르항겔쓰크현으루 류형을 보낼테지. 그러면 공산주의가 재차 강림할 때까지 거기서 소나무나 자르구있으면 돼. … 에이, 이 헌신짝같은것! 나는 왜 폭동을 일으켜야 하는가 그 까닭을 알지, 나야 귀족이 아닌가! 내 아버지한테는 약 5천제샤찌나의 경지와 근 8백제샤찌나의 숲이 있었네. 나나 나와 같은 다른자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 어떤 이국에서 이를테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나날의 량식을 번다는것이 피눈물이 나게 분했네. 그렇지만 임자는? 임자는 어떤잔가? 곡물을 만드는 농군이구 곡물을 처먹는자가 아닌가! 두엄의 딱정벌레야! 임자들같은 개자식 까자크놈들은 공민전쟁에서두 혼이 덜 났어!》

《우리는 살아갈수가 없어요!》 야꼬브 루끼치는 반박했다. 《세금으루 숨도 못 돌리겠구 집짐승은 가져가구 개인생활이란건 없지요. 그렇지 않다면야 뻔한 일루 귀족이라든가 당신들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평생 나는 그런 죄악에 참석하지는

않았을거외다!》

《세금이라구! 마치 다른 나라들에서는 농민이 세금을 안 무는것 같군. 더 많이 문다네!》

《그럴리 없지요.》

《그건 내가 장담하네!》

《거기서 어떻게 살구있구 얼마나 세금을 무는지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거기서 살아서 알어.》

《그럼 당신은 외국에서 오셨구려?》

《그래 어떻단 말인가?》

《그저 알구싶어서요.》

《많은걸 알면 빨리 늙는다네. 가서 또 술이나 받아오게.》

야꼬브 루끼치는 쎄몬을 시켜서 워드카를 사러 보내고 자기는 혼자 있고싶어서 탈곡장으로 나가 짚낟가리헛간밑에 앉아 두시간가량이나 생각에 잠겼다. (주름투성이 저주맞을 놈같으니! 너무 지껄여대서 머리가 뻥하군. 혹시 그놈은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구 자기네를 거역하지나 않나 시험 말아서 후에 알렉싼드르 아니씨모비치가 돌아온 다음에 일러바치려는지두 몰라… 그러면 그이는 나를 쳐죽이지 않을가? 혹시는 정말루 그렇게 생각하구있는지두 모르지. 평시에 먹은 마음이 취중에 나오는 법이니까. … 뽈롭쩨브와 관계를 맺지 않구 조용히 꼴호즈에서 한 1～2년 참을걸 그랬나? 꼴호즈들에서 일이 잘돼가지 않는걸 보면 한해쯤 지나서 정부가 꼴호즈들을 해산해버릴지두 몰라? 그러면 또다시 나는 사람다운 살림을 할텐데… 아, 하느님 맙시사, 하느님 맙시사! 이제는 어떡허면 좋담? 모가지가 성하게 달려있을상싶지 않구나. … 이제 와서는 벌써 매일반인것 같다. … 엎어치나 제쳐치나 깨진 박은 매일반이거던. …)

바람이 울바자너머로 쏠려들어와 탈곡장을 독판치듯 불어대기 시작했다. 바람은 삽짝문근처에 흩어져있던 짚을 낟가리로 날라다가 개들이 뚫어놓은 구멍에 쓸어밀고 짚이 그리 탐탐히 쌓이지 않아 허저부레한 낟가리모서리들을 긁어내고 헛간꼭대기로부터 마른 눈을 쓸어내렸다. 세차고 차거운 바람이였다. 야꼬브 루끼치는 오래동안 어느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가 알아내려고 보았으나 알아낼수가 없었다. 바람은 낟가리주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가 하면 사방에서 차례로 불

어오는것 같았다. 짚속에서는 바람에 불안해진 쥐들이 야단을 치기 시작했다. 찍찍거리면서 쥐들은 자기네 숨은 길로 뛰여다녔는데 때로는 바람벽같은 낟가리에 기댄 야꼬브 루끼치의 잔등근처를 뛰여갔다. 바람소리, 짚이 살랑거리는 소리, 쥐들의 찍찍소리, 삐걱거리는 우물 드레박소리를 들으면서 야꼬브 루끼치는 어렴풋이 잠이 든것 같았다. 밤의 모든 음향이 그에게는 멀리서 들려오는 야릇하고 서글픈 음악처럼 들리게 되였다. 반쯤 감은 눈물어린 눈으로 그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고 짚냄새와 광야의 바람냄새를 들여마셨다. 그에게는 사위가 모두 아름답고 단순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한밤중에 워이쓰꼬보이 부락에서 뽈롭쩨브가 보낸 련락원이 찾아왔다. 랴찌옙스끼는 봉투에 《지급》이라고 씌여있는 편지를 읽자 부엌에서 자고있는 야꼬브 루끼치를 깨웠다.

《자, 이걸 읽어보게.》

야꼬브 루끼치는 눈을 비비면서 랴찌옙스끼한테 온 편지를 받아들었다. 수첩에서 뜯어낸 한장의 종이우에는 제도용연필로 곳곳에 경음부를 섞어서 읽기 쉽게 이렇게 씌여있었다.

《소위 귀하!

우리는 볼쉐비크 중앙위원회가 꼴호즈파종용이라는 명목하에 농민들사이에서 곡물을 수집하고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받았소. 사실인즉 그 곡물은 외국에서 판매되고 꼴호즈원들도 포함하여 농민들은 가혹한 기아에 처할 운명에 있소. 쏘베트정권은 불가피적인 가까운 종말을 예감하여 최후의 곡물을 팔아먹고 종국적으로 로씨야를 파산에 이르게 하고있소. 당신이 현재 우리 동맹을 대표하고있는 그레먀치 로그에서 가짜종곡수집을 반대하는 선전을 농민들사이에서 즉시 전개할것을 당신에게 명령하오. 당신에게 보내는 나의 이 편지내용을 야.까.에게 제시하고 그로 하여금 시급히 해설사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지우시오. 어떤 일이 있든간에 곡물수집을 방해하는것이 지극히 필요하오.》

아침이 되자 야꼬브 루끼치는 관리부에는 들리지 않고 반니크와 또 돈해방동맹에 그가 모집한 다른 한패들한테로 향했다.

제 24 장

선전대장 꼰드라찌끄가 그레먀치 로그에 남겨두고 간 세명으로 되는 조는 종곡수집에 착수했다. 조의 본부로는 부농들의 빈집들중 하나를 차지했다. 첫새벽부터 젊은 농산기수 웨쮸뜨네브는 야꼬브 루끼치의 방조밀에 봄파종계획을 검토하여 더욱 정확히 하고 찾아온 까자크들에게 농업상의 문제들을 해명해주었으며 그 나머지 시간은 곡물창고에 들어온 종곡들의 선별과 소득을 꾸준히 관찰했다. 그리고 간혹가다 그의 말투대로 하자면 《수의질》을 하러 다니며 어떤 집의 탈난 소나 양을 치료했다. 왕진료로서는 보통 현물을 받았는데 즉 탈난 집짐승의 주인네 집에서 점심을 얻어먹고 또 때로는 한단지의 우유 혹은 한솥의 찐 감자를 동지들한테 가져오는 일까지 있었다. 나머지 두명—관구국영제분소에서 온 제분공 뽀르피리 루브노와 기름공장에서 온 공청원 이완 나이죠노브는 그레먀치사람들을 작업반에 불러 곡물책임자의 일람표와 대조하면서 호출된 부락민이 종곡을 얼마나 가져왔는가 검열하는 등 힘이 미치는 한 수완껏 선동했다.

사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종곡을 수집하면서 적지 않은 난관이 있으며 기한내에 수집하려면 바싹 긴장해야 하겠다는것이 분명해졌다. 종곡수집속도를 추진할 목적으로 조와 그곳 당세포가 취한 모든 조치는 대다수 꼴호즈원들과 또 개인농들축으로부터의 커다란 저항에 봉착했다. 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곡물을 징수하고있느니, 금년에는 파종을 하지 않을것이라느니, 시시각각으로 전쟁이 가까와오고있다느니 하는 풍문이 부락에 떠돌았다.… 나굴리노브는 매일같이 회의를 소집하고 선전조의 방조밑에 해설을 하고 당치않은 풍문을 반박하였으며 반쏘베트선전으로 적발되는자는 엄벌에 처하리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곡물은 의연히 들어오는것이 극히 느렸다. 까자크들은 기회를 노려가며 아침부터 집을 떠나 어디로 가든가 부리얀초를 거두러 가거나 이웃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촌쏘베트 혹은 선전조본부에 호출되지 않도록 으슥한 곳에서 불안한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것이였다. 녀편네들은 전연 회의에 나가는것을 중지해버렸고 촌쏘베트에서 련락원이 집으로 찾아오면 《우리 집 주인은 없구 나는 모른다.》는 짧은 말

로써 발뺌을 했다.
마치 그 어떤 억센 손아귀가 곡물을 틀어쥐고있는것 같았다. …
선전조본부에서는 보통 이런 말들이 오고갔다.
《종곡을 냈소?》
《아니요.》
《어째서요?》
《낟알이 어디 있소?》
《아니, 없다니?》
《그야 아주 간단한 얘기지요. … 파종을 위해서 간직해두려구 생각했었는데 그후 곡물납부에 여분을 바치고나니 먹을게 하나두 없어졌지요.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그래 당신은 씨뿌릴 생각은 안했소?》
《생각은 했지만 먹을것이 없어서…》
다수가 마치도 종곡까지 곡물납부로 바친것처럼 방패막이하였다. 다위도브는 관리부에서 그리고 와뉴쉬까 나이죠노브는 본부에서 납부소의 일람표, 령수증들속에 묻혀 조사했으며 완강히 부인하는자들을 폭로했다. 종곡이 남아있다는것이 판명된것이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 29년도의 탈곡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곡물납부로서 바친 곡물의 총량을 계산하여 그 잔고를 밝혀야 했다. 그러나 곡물이 남아있다는것이 드러난 때에도 완강한자는 굴하지 않았다. 《그야 물론 밀이 남아있었지요. 그렇지만 동지들두 살림이 어떻다는걸 알지 않아요. 우리는 저울에 단다든가 되로 되는 일없이 먹구 쓰는데 습관되여있지요. 한달에 식구 한명에 한뿌드씩 남겨두기는 했지만 가령 나만 하더라두 하루에 서너너덧폰드씩 먹지요. 찬이 나쁘기때문에 그렇게 먹지요. 그래서 지나치게 쓰게 돼요. 곡물은 없소, 찾아라두 보슈.》
나굴리노브는 세포회의에서 가장 부유한축의 부락민들중에서 종곡을 납입하지 않은자들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하자고 제의했었다. 그러나 다위도브, 루브노, 나이죠노브, 라즈묘뜨노브는 그것을 반대했다. 하긴 종곡징수에 대한 구역당위원회의 지시문에도 가택수색의 실시는 엄격히 금지하고있었다.
선전조와 꼴호즈관리부가 사업을 개시한 후 사흘동안에 꼴호즈원들의분으로 다만 480뿌드와 개인농들분으로 겨우 35뿌드가 납입되

였을뿐이였다. 꼴호즈의 열성자들은 자기네분을 완전히 납입했다.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 류비슈낀, 둡쪼브, 제미드 몰춘, 쓔까리령감, 아르까쉬까 메노크, 야장 샬리, 안드레이 라즈묘뜨노브 및 기타 사람들은 첫날로 곡물을 날라왔다. 다음날은 아침부터 야꼬브 루끼치네 쎄묜과 야꼬브 루끼치자신이 두대의 발구를 몰아서 공동소유곡물창고에 당도했다. 루끼치는 즉시 관리부로 가고 쎄묜은 발구에서 커다란 곡물자루들을 부리우기 시작했다. 좀까 우샤꼬브가 그것을 받아 저울에 달았다. 네자루를 쎄묜이 쏟아내고 다섯번째 자루를 끌렀을 때 우샤꼬브가 매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자네 아버지는 이런 낟알을 뿌릴 작정이였나?》 그는 한줌의 낟알을 쎄묜의 코앞에 내밀었다.

《이게 어떻단 말이야?》 쎄묜이 발끈했다. 《사팔눈이 돼서 밀을 강냉이루 보는 모양이로군!》

《아니, 강냉이로는 안 봐! 나는 사팔눈이지만 너같은 협잡군보다는 잘 본다! 자네부자는 아주 좋은 위인들이지, 잘 알어! 그래 이게 뭐냐? 씨앗이냐? 코등을 돌리지 말어! 그래 왜 이렇게 깨끗한 낟알을 가져왔니, 이 벌레같은놈아?》

좀까는 쎄묜의 얼굴에다 손바닥을 내대였다. 그런데 손바닥에는 흙이며 풀씨가 섞인 형편없는 낟알 한줌이 놓여있었다.

《당장 나는 사람들을 불러모으겠다. …》

《떠들지 말어!》 쎄묜은 대경실색했다.

《자루를 잘못 가져온 모양이다. 곧 도루 가서 바꿔올테야… 괴벽스럽기두, 내 참! 왜 빈 달구지처럼 덜러덩댄담. 바꿔온다구 하지 않아, 무슨 잘못이였어…》

좀까는 가져온 열네자루중에서 여섯자루를 퇴짜주었다. 그리고 쎄묜이 퇴짜를 맞은 한 곡물자루를 거들어 어깨에 매워달라고 청했을 때 좀까는 짐짓 못 들은척 저울쪽으로 돌아서버렸다.

《그래 거들어주지 않겠어?》 쎄묜이 저으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창피스럽지! 집에서는 아마 쳐들었겠지, 겁석했을테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거워졌나? 혼자 쳐들게, 망할놈같으니!》

쎄묜은 다홍빛이 되여 안깐힘을 쓰면서 자루를 가로 옆에 끼고 날라갔다. …

그후 이틀동안은 종곡납입이 거의 없었다. 세포회의에서는 호별방문을 하기로 결정되였다. 그전날 다위도브는 린접구역의 농사시험소로 갔다. 그것은 작년에 시험소의 시험농장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긴 기간을 훌륭히 견디여내고 우수한 수확을 낸, 가물에 잘 견디는 재래종인 《벨토제른까종》을 교배해서 육성한 새로운 밀종자에 대해서는 야꼬브 루끼치와 작업반장 아가폰 듑쪼브가 많이 이야기도 했고 또 요즈음 밤마다 열심히 농업기술잡지를 읽어온 다위도브는 농사시험소를 찾아가서 새로운 밀을 얻어오리라고 작정한것이였다.

그는 3월 4일에 려행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기 하루 앞두고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제2작업반에 배속된 마까르 나굴리노브는 아침부터 류비슈낀과 함께 약 30호를 돌았다. 그리고 저녁에 라즈묘뜨노브와 서기가 촌쏘베트에서 퇴근했을 때 그는 낮에 미처 돌지 못한 집들의 호주들을 그리로 불러내게 되였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채 한 네명가량을 돌려보냈다. 《씨앗이 없는걸요. 나라에서 내주게 하시우.》 그러는것이였다. 이윽고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당신들은 어떻게 낟알이 없다구 말하오? 가령 꼰스딴찐 가브릴로비치, 당신만 하더라두 가을에 3백뿌드나 탈곡하지 않았소!》

《그래 자네가 내 대신 국가에 낟알을 바쳤나?》

《얼마나 바쳤길래?》

《백삼십뿌드네.》

《그 나머지는 어디 갔소?》

《어디 갔는지 모르겠나? 처먹었네!》

《거짓말말어! 그렇게 낟알을 처먹으면 배때기가 터지게! 가족은 여섯명인데 그렇게 낟알을 먹어! 잡담말구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당장 꼴호즈에서 쫓아낼테다!》

《꼴호즈에서 내쫓구 마음대루 하게. 그렇지만 낟알은 정말이지 없네! 리자를 받더라두 정권에서 내주도록 하게…》

《자네는 쏘베트정권을 말아먹는데 이골이 났군. 파종기와 풀베는 기계를 사느라구 꾼 돈은 신용조합에 반환했나? 그럴테지! 그 돈을 횡령하구두 또 낟알까지 얻어보려나?

낟알을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좋지 못할걸. 허튼소리에 증이 났다니까! 창피스러워.》

《있기만 하면야 난 선선히 내겠네만…》

나굴리노브가 아무리 백방으로 타이르고 으름장을 놓아도 보람이 없어 결국 종곡을 납부하려고 하지 않는자들을 돌려보낼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방에서 나갔다. 2, 3분동안 현관복도에서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현관층층대가 삐걱거렸다. 잠시후에 개인농 그리고리 반니크가 들어왔다. 그는 방금 촌쏘베트에서 나간자들과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가를 이미 아는 모양으로 그의 입귀에는 자신있는, 결고드는듯한 미소가 찰랑거렸다. 나굴리노브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우의 명단을 펼치고 웅글은 목소리로 말했다.

《앉게, 그리고리 마트베이치.》

《이거 친절하군, 고마운데.》

반니크는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았다.

《그리고리 마트베이치, 자넨 왜 씨앗을 안 가져오나?》

《내가 왜 그걸 가져와?》

《그렇게 총회에서 결정됐었지, 꼴호즈원두 개인농두 씨앗을 가져오라구. 자네한테는 씨앗이 있나?》

《없어서 어떡하게, 물론 있지.》

나굴리노브는 명단을 일별했다. 반니크의 성명 맞은쪽에는 《1930년도 봄파종예정면적》란에 6이란 수자가 씌여있었다.

《자네는 금년에 여섯헥터에 밀을 심으려나?》

《그러이.》

《그렇다면 마흔두뿌드의 씨앗을 가지구있겠군?》

《모두 고스란히 가지구있네. 채루 쳐서 골라낸 금싸래기같은 낟알을 가지구있지!》

《그거참 용하네!》 나굴리노브는 안도의 긴숨을 내쉬고 칭찬했다. 《그걸 래일 공동소유곡물창고루 날라오게. 자기 자루에 넣은채 둘수있어. 낟알을 섞는걸 바라지 않는다면 개인농들 낟알은 그네들 자루에 넣은채 받겠네. 가져다가 저울에 달아서 창고책임자에게 바치게. 그러면 그 사람은 자루우에다 납인을 찍어주구 자네에게 령수증을 줄테니 봄에 자기 낟알을 죄다 받을수 있네. 그렇게 안하면 잘 간수하지 않았다든가 먹어없앴다든가 불평들이 많을게야. 그렇지만 곡물창고에 넣어두면 든든히 간수되네.》

《그건 나굴리노브동지, 그만두게.》 반니크는 스스럼없이 미소

를 띄우고 희슥한 입수염을 쓸어붙였다. 《자네의 그따위 계교는 아무 보람없어! 나는 낟알을 자네들한테 못 주겠네.》
《좀 묻구싶네만 그건 어째선가?》
《내 집에 두는게 더 잘 간수되겠기때문이지. 자네들한테 내준다면 봄에 빈자루두 못 찾을걸. 우리두 이제는 약아져서 그런 수에는 넘지 않아!》
나굴리노브는 널직한 눈섭을 찌프리고 저으기 얼굴빛이 질렸다.
《어쩌면 자네는 쏘베트정권을 의심하나? 믿지 못하겠단 말이로군?》
《아무렴, 믿지 않지! 우리는 자네네 사람들한테서 허튼소리를 실컷 들었네!》
《누가 허튼소리를 하던가? 그리구 어떤 허튼소리를?》 나굴리노브는 사뭇 얼굴빛이 질려가지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반니크는 그것도 못 보는듯이 든든해보이는 버성진 이발을 드러내면서 그냥 조용히 벙글거렸다. 다만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노여움과 불타는듯 한 악의에 떨렸다.
《낟알을 모아 기선에 실어서 남의 땅에 보내려구? 당원들이 단발머리계집년들과 타구다닐 자동차를 사려구? 무엇하려구 우리의 낟알을 긁어모으는지 다 알아! 이젠 평등한 세월을 만났는걸!》
《미쳤구나, 이 도깨비야! 무슨 수작을 지껄이는거야?》
《너두 모가지를 틀어쥐면 미칠테지! 곡물납부루 116뿌드나 날라갔어! 그리구 이제는 내 자식들이… 굶어죽으라구… 마지막씨앗마저 빼어가려는거냐. …》
《닥쳐! 거짓말 말어라, 이 벌레같은놈아!》 나굴리노브는 주먹으로 쾅 책상을 내려쳤다.
주산이 마루에 내려떨어지고 잉크단지가 곤두박질을 쳤다. 짙은 자색잉크줄기가 반짝거리면서 종이우를 흘러 가죽으로 만든 반니크의 반외투자락에 쳐졌다. 반니크는 손바닥으로 잉크를 휘뿌리고 일어섰다. 그의 두눈은 가느스름해지고 입귀에는 흰 게거품이 내끓었다. 그는 격분을 억누르면서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데다 대구 닥치란 소릴 해! 주먹을 네 녀편네 루쉬까에게나 휘둘러라. 나는 네 녀편네가 아니다! 지금은 20년때가 아니야, 알겠니? 낟알은 못 주겠다. 너같은건 없어져라.》

나굴리노브는 책상너머로 그에게 팔을 뻗치려 하다가 즉시로 몸을 한번 기우뚱하고 자세를 수습했다.

《너 그게… 누구 수작이냐?…이 반혁명분자, 여기서 내게 왜 그런 수작을 해?… 사회주의를 야유했겠다, 벌레같은놈!… 당장…》 그는 말문이 막혀 헐떡거렸다. 그러나 가까스로 진정하고 손등으로 얼굴의 진득거리는 땀을 훔치고나서 말했다. 《당장 래일 낟알을 가져오겠다는 증서를 내게 써내라. 그리구 래일은 갈곳으루 가야 한다. 거기서 너는 어디서 그런 수작을 귀에 담었는지 문초를 받을게다!》

《너는 나를 체포할수는 있다. 그렇지만 증서두 안 쓰겠구 낟알두 못내겠다!》

《쓰라는데두!…》

《좀 기다려라…》

《나는 너한테 점잖게 부탁하구있다. …》

반니크는 문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참을수없이 맹렬하게 분통이 터진듯 방문손잡이를 쥐여잡으면서 이렇게 쏘아붙였다.

《지금 가서 그 낟알을 돼지들한테 쏟아주겠다! 너희들 기생충한테 주느니 돼지들이 처먹게 하는게 나아. …》

《돼지들한테 주겠어? 씨앗을?!》

나굴리노브는 껑충껑충 두걸음으로 방문곁에 이르러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쥐고 그 총탁으로 반니크의 관자노리를 내리쳤다. 반니크는 비틀하고 바람벽에 기댔다가 잔등으로 벽의 회칠을 슬치면서 마루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하더니 나가넘어졌다. 관자노리의 상처로부터는 머리카락을 적시면서 검붉은 피가 나왔다. 이미 자제력을 잃은 나굴리노브는 넘어진자를 발로 몇번 걷어차고나서 물러섰다. 반니크는 뭍에 오른 물고기모양으로 한두어번 입을 크게 벌리더니 이윽고 바람벽을 붙들면서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어서기가 바쁘게 피는 더욱 랑자하게 흘러나왔다. 그는 말없이 옷소매로 피를 훔쳤다. 허옇게 된 그의 잔등에서 회가루가 흩어졌다. 나굴리노브는 물병에다 입을 대고 그 언저리에 이발을 덜덜 부딪치면서 아무 맛없는 미지근한 물을 마셨다. 일어선 반니크를 곁눈으로 힐끗 보고 그는 그에게로 다가가서 집게로 집듯이 그의 팔굽을 잡아쥐여 책상으로 내밀친 다음 그의 손에다 연필을 쓸어밀었다.

《써라!》

《쓰긴 쓰겠다, 그렇지만 이건 검사에게 알려질게다. … 권총으루 강박하니 나는 무엇이든 쓰마. … 손찌검을 하는건 쏘베트정권하에서 허락돼있지 않어. … 당두 이런짓을 하는 너를 잘한다구는 안할게다!》 반니크는 맥없이 걸상에 주저앉으면서 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굴리노브는 그 맞은편에 서서 권총을 손에 들었다.

《옳지, 반혁명분자가 쏘베트정권이며 당을 다 생각하는군! 너같은것은 인민재판에 걸것두 없이 당장 내 재판으루 처단해버리겠다. 만약 쓰지 않는다면 해독분자루 네놈을 쏘아죽이구 그다음에는 네놈때문으로 해서 10년이라두 감옥에 들어갈테다! 써라! 증서를 썼느냐? 써라, 〈이전에 열성적백위병이였으며 마몬또브일파로서 손에 무기를 잡고 붉은군대에 접어들었던 나는…〉 썼느냐?… 〈쏘련공산당(볼쉐비크)과〉 쏘련공산당이라구는 대문자루 써야 해, 됐어! 〈…쏘베트정권에 대해서 내가 한 더없이 모욕적인 말을 취소하고 용서를 바라오며 앞으로는 비록 내가 숨은 반혁명분자이기는 하나…〉》

반니크는 책상우에 엎드리듯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의 손안의 연필은 또다시 천천히 종이우를 기여갔다. 나굴리노브는 권총방아쇠에 손가락을 건채 똑똑 끊어서 구술했다.

《〈…비록 내가 숨은 반혁명분자이기는 하나 모든 근로자들에게 귀중하며 근로인민의 숱한 피로써 쟁취된 쏘베트정권에 대하여 구두로나 문서로나 행동으로나 해독을 끼치지 않을것을 맹세합니다. 쏘베트정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노여웁게 하지 않을것이며 세계혁명이 도래하여 전세계에서 우리들—혁명의 원쑤들이 마침내 멸망하는 날을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쏘베트정권의 길을 가로막지 않고 종곡을 감춤이 없이 래일 1930년 3월 3일에 공동소유곡물창고로…〉》

이때 련락원과 또 그와 함께 세명의 꼴호즈원이 방으로 들어왔다.

《복도에서 좀 기다리게!》 나굴리노브는 그렇게 소리를 지른 다음 반니크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계속했다. 《〈…종곡 소맥 현품 42뿌드를 운반하여올것을 맹세합니다. 이상 여기에 서명합니다.〉 서명해라!》

얼굴에 검붉은 빛이 돌아온 반니크는 마구 끄적거리고 일어섰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네가 책임을 지게 되네, 마까르 나굴리노브.》

《우리들은 모두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진다. 그런데 만약 래일 낟알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버릴테다!》

나굴리노브는 증서를 접어서 보위색깁나쓰쬬르까 웃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권총을 책상우에 던지고 방문까지 반니크를 따라갔다. 그는 한밤중까지 촌쏘베트에 남아있었다. 련락원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그의 조력을 받아서 종곡반입을 거부한 세명의 꼴호즈원을 빈방에 가두어버렸다. 이미 밤도 이슥히 지나서야 피곤과 겪은 흥분으로 해서 녹초가 되여 촌쏘베트의 책상앞에 앉은채 엉성하게 얽힌 머리를 길다란 손바닥우에 놓고 잠이 들었다. 날이 새기 전에 마까르는 화려하게 치장한 숱한 군중이 봄철의 범람하는 물처럼 광야에 가득차 끊임없이 움직여가는것을 꿈에 보았다. 사람들사이로 기병대가 지나갔다. 저마다 털색이 다른 말들이 광야의 푸근한 땅을 짓밟고 지나갔다. 그러나 요란스러운 말발통소리는 기병대가 마치도 깎아놓은 철판우라도 지나가는듯이 어쩐지 와랑와랑 소란스럽게 울렸다. 은빛처럼 반사하는 관현악대의 나팔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인터나쇼날》을 불러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까르는 늘쌍 깨여있을 때 느끼듯이 가슴이 찌르르한 흥분과 타는듯 한 목구멍의 경련을 느꼈다. … 그는 지나간 기병대의 맨뒤에 1920년 까흡까부근 전투때 우랑겔도당에게 참살당한 자기의 죽은 친우 미찌까 로바치가 있는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의아쩍게 생각지 않고 기뻐하며 사람들을 헤치고 지나간 기병대뒤로 달려갔다. 《미쨔! 미쨔! 기다려주게!》 그는 불렀으나 자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미찌까는 안장우에서 고개를 돌려 마까르를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심드렁하게 잠시 바라보다가 속보로 가버렸다. 그러자 즉시로 마까르는 말을 타고 자기한테로 달려오는 자기의 이전 련락병 쬴림을 보았다. 역시 20년에 브로드부근에서 뾜스까군의 총탄에 쓰러진 사나이다. 쬴림은 오른손으로 마까르의 말고삐를 잡고 웃으면서 달리고있었다. 이전 그대로 발이 희고 머리가 강마른 말은 거만하게 고개를 높이 쳐들고 목을 수레바퀴처럼 굽히고서 선두에 서서 달리고있었다. …

밤새 봄바람에 부대끼는 덧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마까르는 꿈속에서 음악으로 듣고 철판을 인 지붕이 와르릉거리는 소리를 자지러진 말발통소리로 들은것이였다. … 라즈묘뜨노브가 아침 여섯시쯤 해서 촌쏘베트에 왔을 때 나굴리노브는 아직 자고있었다. 3월말 아침의 연보라빛에 서리고 널직한 눈섭이 애타는 긴장속에서 움직거렸다. … 라즈묘뜨노브는 마까르를 흔들어깨우고 꾸짖었다.

《서류들을 헤쳐놓구 자구있나? 재미난 꿈을 꾸는 모양이군, 이발을 드러내구! 왜 자네는 반니크를 때렸나? 그자는 새벽에 종곡을 가져다바치구 즉시루 구역에 갔네. 류비슈낀이 내게 달려와서 말하던데 반니크가 자네를 고소하려구 민경으루 갔다네. 손질을 너무 했어! 다위도브가 돌아와서 이제 뭐라겠나! 에 참! 마까르!…》

나굴리노브는 거북스럽게 하고 잔 까닭으로 해서 부어오른 얼굴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생각에 잠긴듯이 미소를 띄웠다.

《안드류쉬까! 내가 이자 어떤 꿈을 꾸었겠나? 정말 재미있는 꿈이였네!》

《자네 꿈얘긴 됐다 하게! 반니크건에 대해서나 말하게.》

《그런 독충에 대해서는 얘기두 하고싶지 않네! 그놈이 낟알을 가져왔다지? 그럼 보람이 있었군. …마흔두뿌드의 씨앗은 그리 적은게 아니야. 권총으로 한번 때려서 반혁명분자 한놈, 한놈한테서 마흔뿌드씩 낟알이 나온다면 나는 일평생 그걸 업으루 하구 돌아다니며 놈들을 때려주겠네! 그런 말버릇에 대해서 그만큼 때린건 약과야! 다리를 비틀어놓지 않은걸 다행으루 생각해야지!》 하고 눈을 번쩍거리면서 분연히 말을 맺었다. 《그 너절한 녀석은 장군 마몬또브와 함께 싸다녔네. 놈을 흑해에서 미역을 감길 때까지 그놈은 우리를 대항해왔는데 이제 또다시 훼방을 놓구 세계혁명에 해독을 끼치려구 노리고있지! 그놈이 여기서 나한테 쏘베트정권과 당에 대해서 어떤 주둥이질을 했는지 아나! 분통이 터져서 나는 머리카락이 곤두섰네!》

《어떤 수작인들 못하겠나! 그렇지만 때려서는 안돼, 놈을 체포해야지.》

《아니야, 체포할게 아니라 죽여버려야 해!》 나굴리노브는 애통한듯이 두팔을 벌렸다.

《왜 내가 그놈을 쳐죽이지 않았을가? 영문을 모르겠어! 바루 그게 지금 나는 분하네.》

《자넬 어리석다구 하면 언짢아하겠지만 자네는 아주 어리석네! 이제 다위도브가 돌아오면 그런짓을 한데 대해서 몹시 뇌까릴거야!》

《그가 돌아오면 나더러 잘했다구 하지, 그 사람은 자네같은 장작개비가 아니야!》

라즈묘뜨노브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구부린 손가락으로 책상과 그다음에는 마까르의 이마를 두드리고 이렇게 말했다.

《같은 소리로군!》

그러나 마까르는 성이 나서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반외투를 떨쳐입기 시작했다. 이미 방문손잡이를 잡고서 고개도 안 돌리고 투덜거렸다.

《여보게, 령리한 사람! 빈방에서 소부르죠아들을 놓아주구 오늘루 낟알을 가져오두룩 이르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면을 하구 돌아와서 도루 놈들을 가두겠다구.》

라즈묘뜨노브는 놀라 눈이 이마쪽으로 치솟아올라갔다. … 그는 촌쏘베트의 문서들과 지난해 구역농업전람회에 출품했던 견본들이 보관되여있던 빈방으로 달려갔다. 방문을 열자 크라쓰노꾸또브, 안찌쁘 그라치 그리고 키가 작은 아뽈론 뻬쓰끄와트쓰끄브—이 세명의 꼴호즈원을 발견했다. 그들은 묵은 신문철을 마루에 깔고 무사히 밤을 지냈는데 라즈묘뜨노브가 나타나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여러분, 물론…》 라즈묘뜨노브가 말을 시작하려 했으나 체포당했던 사람들중의 한명인 나이많은 까자크 크라쓰노꾸또브가 냉큼 그의 말을 가로챘다.

《뭐 더 말할것 없네, 안드레이 쓰쩨빠늬치. 우리가 잘못했지. 말할것 있나. … 놔주게, 당장 낟알을 가져오겠네. … 우리는 밤에 여기서 서루 좀 의논했는데 낟알을 가져들 오기루 작정했네. … 이제야 잘못을 뭘 감추겠나, 낟알을 그냥 좀 가지구있을가 해봤지. …》

나굴리노브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금시 사과하려고 하던 라즈묘뜨노브는 형세가 이렇게 되는것을 보자 불현듯 태도를 일변했다.

《아무렴, 벌써 그랬어야지요! 당신들은 꼴호즈원들이 아닌가요! 씨앗을 감춘다는건 창피스러운 일이지요!》

《제발 우릴 놓아주오, 지난 얘길 다신 뇌까리지 않을테니. …》 안찌쁘 그라치가 시꺼먼 턱수염속으로 게면쩍은듯이 웃음을 띄웠다.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라즈묘뜨노브는 책상앞으로 물러갔다. 그리고 여기서 말해야 하겠지만 이 순간 그의 머리속에서도 이런 하치 않은 생각이 얼씬거렸다. (혹시 마까르가 옳은지두 몰라? 좀더 세게 다그면 하루동안에 다 모으겠다!)

제 25 장

다위도브는 농사시험소에서 열두뿌드의 개량종밀을 얻어가지고 제법 만족하여 즐거운 기색으로 돌아왔다. 주인집녀편네는 그에게 점심을 차려주면서 그가 없는 동안에 나굴리노브가 그리고리 반니크를 때리고 밤에 촌쏘베트에다 세명의 꼴호즈원을 감금한 이야기를 했다. 그 소문은 보매 그레먀치 로그에 널리 퍼진 모양이였다.

다위도브는 얼른 점심을 마치고 불안에 싸여 관리부로 나갔다. 거기서 주인집 녀편네의 말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다 세세한 이야기를 보충했다. 나굴리노브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구구했다.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했으며 또 일부는 사양하고 침묵을 지켰다. 례를 들어 류비슈낀은 단연코 나굴리노브편에 섰고 한편 야꼬브 루끼치는 입술을 삐죽하게 하고 마치 자기자신이 나굴리노브의 훈계를 받기라도 한것처럼 노한 빛을 띄웠다. 오래지 않아 마까르자신이 관리부로 나왔다. 그는 평소보다 더 근엄한 기색으로 다위도브와 공손히 인사를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불안과 기대를 품고 그의 눈치를 살폈다. 단둘이 되자 다위도브는 참지 못하고 매섭게 물었다.

《자네 그건 무슨 소문인가?》

《들었다면서 왜 문촌가?》

《그런 방법으루 자네는 씨앗수집을 선전하기 시작했나?》

《그놈이 내게 그런 고약한 수작을 말라지! 나는 원쑤들의, 백파벌레들의 조롱을 그냥 참겠다구 맹세한 일은 없네!》

《그래, 자네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구 또 그것이 정치적면에서 볼 때 어떤것인지 좀 생각해봤나?》

《그때엔 생각할 짬두 없었네.》

《그건 대답이 아니야, 사실말이지! 자네는 정권을 모욕한데 대해서 그자를 체포할게지 때려서는 안되네! 그건 당원으루서 수치스러운 행동이야! 사실말이지! 우리는 오늘 세포에서 자네 문제를 내놓겠네. 자네의 그 행동이 우리들한테 대단한 해독을 가져왔어. 우리는 그것을 문책해야겠네! 또 여기 대해서는 구역당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것두 없이 나는 꼴호즈회의에서 말할테네. 그건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잠자쿠 있다면 꼴호즈원들은 마치 우리가 자네와 한배속이구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폭력주의를 품고있는것 같이 생각할테니까! 그럴수 없네! 우리는 자네와 한계를 가르고 규탄하겠네. 자네는 당원인데 헌병처럼 행동했어. 이 무슨 수친가! 젠장, 그게 무슨짓이람!》

그러나 나굴리노브는 황소처럼 고집을 부렸다. 그런 행동은 당원으로서 용허될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해롭다는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보려던 다위도브의 모든 론증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그놈을 때린건 옳아! 때린것두 아니구 그저 한번 두드렸을뿐인데 좀더 호되게 때려줄걸 그랬어. 귀치 않게 굴지 말게! 나를 재교양하는건 때가 늦었어. 나는 빨찌산으루서 자기 당을 가지각색 불한당들한테서 어떻게 방위해야 하는가를 알구있네!》

《나두 반니크가 우리 사람이라군 말하지 않네. 그깐놈은 될대루 되라지! 내가 말하는건 자네가 그놈을 때리지 말아야 했다는걸세. 그리구 당에 대한 모욕을 막는것두 다른 방식으루 할수 있었거던, 사실말이지! 자네는 가서 머리를 좀 식혀가지구 잘 생각하게. 그러면 저녁에 세포에 와서 내 말이 옳았다구 말할걸세, 사실말이지.》

저녁에 당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량미간을 찌프리고 마까르가 들어서자마자 다위도브는 대뜸 이렇게 물었다.

《잘 생각했나?》

《잘 생각했네.》

《그래서?》

《나는 그 개자식을 좀 덜 때렸어. 죽여버릴걸 그랬네!》

선전대성원들은 전적으로 다위도브를 지지하여 나굴리노브에게 엄중경고를 주는데 찬성했다. 안드레이 라즈묘뜨노브는 손을 드는데는 참가하지 않고 줄곧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이미 집으로 돌아가기 조금전에 마까르가 잔뜩 부어가지고 《나는 어디까지나 내가 옳다구 생각하네.》 하고 말하자 라즈묘뜨노브는 벌떡 일어나서 침을 밸고 맹렬히 욕설을 늘어놓으며 방에서 뛰쳐나갔다.

컴컴한 현관복도에서 담배불을 붙이면서 다위도브는 그 성냥불빛으로 하루동안에 저으기 풀이 죽은 나굴리노브의 얼굴을 들여다보자 화해를 하자는듯이 이렇게 말했다.

《마까르, 자네는 공연히 우리들한테 화를 내구있네, 사실말이지!》

《나는 화내지 않네.》

《자네는 낡은 빨찌산식방법으루 일하구있네. 그렇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구 기습이 아니라 진지전이 벌어지구있단 말일세. … 우리는 모두 빨찌산식의 작풍이 고질이였어. 물론 나두 그랬지. 자네는 비록 신경병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두 여보게 마까르, 자기를 좀 다잡아야 하지 않을가, 응? 우리의 젊은 세대를 좀 보게, 선전대의 우리 공청원 와뉴쉬까 나이죠노브는 얼마나 신통하게 일하구있나! 그 애가 맡은 구역에서는 씨앗이 제일 많이 들어와 거의 전부 반입됐네. 보기에는 그리 날쌜것 갈지두 않구 주근깨투성이인데다가 키두 조그맣지만 자네들 누구보다두 제일이네. … 어떤 묘리가 있는지는 모르나 집집으루 롱담을 하며 돌아다닌다네. 들리는 말이 그 애는 무슨 옛말을 농민들에게 해준다나… 그래두 그 애가 다니는 집들에서는 상통을 때리거나 랭방에 가두지 않아두 낟알을 가져오네, 사실말이지.》 다위도브가 나이죠노브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미소와 따뜻한 음조가 느껴졌다. 그러자 나굴리노브는 그 날쌘 공청원에 대한 선망 비슷한것이 마음속에 움직이는것을 느꼈다. 《구경삼아 래일 그 애와 함께 집집으루 다니면서 그 애가 어떤 방법으루써 성과를 올리는가 좀 보게.》 다위도브는 계속했다. 《그렇게 한다구 해서 참말이지 자네에게 언짢을건 하나두 없네. 우리는 가끔 젊은이들한테서두 배울게 있어, 사실말이지! 그네들은 어쩐지 우리와는 달리 자라나구있구 그네들이 어쩐지 더 주위환경에 잘 적응하는것 같아. …》

나굴리노브는 덤덤하니 말이 없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일어나기가 바쁘게 와뉴쉬까 나이죠노브를 찾아내여 넌지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짬이 있는데 너와 함께 나가서 도웁구싶다. 너희 제3작업반에는 아직 반입하지 않은자가 얼마나 남았니?》

《얼마 안 남았어요. 나굴리노브동지! 갑시다. 둘이면 더 흥이 나지요.》

두사람은 떠났다. 나이죠노브는 물오리처럼 몸을 기웃거리면서 마까르에게는 익숙되지 않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는 해바라기기름냄새가 고소하게 풍기는 가죽잠바앞을 헤치고 우물정자로 줄이 간 모자를 바로 눈섭까지 푹 내려썼다. 나굴리노브는 어제 다위도브가 그로서는 기이할만큼 상냥스레 와뉴쉬까라고 부르던 그 공청원의 별로 두드러진데도 없고 어쩐지 애되게 보이는 주근깨 퍼진 얼굴을 옆으로부터 검사라도 하듯이 들여다보았다. 그 얼굴에는 무엇인지 무척 다

정스럽고 호감을 가지게 하는것이 있었다. 조그마한 반점들이 있는, 솔직해보이는 재빛눈때문일가, 혹은 소년다운 둥그스름한 맛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고집스레 앞으로 내민 턱때문일가. …

그들이 닭의 령감이 되였던 아낌 베쓰홀렙노브령감네 집에 왔을 때 그의 가족들은 모두 조반을 먹고있었다. 령감자신은 앞쪽 한구석의 식탁앞에 앉아있고 그와 나란히 하여 역시 아낌이라는 이름때문에 《젊은 아낌》이란 별명이 있는, 한 사십되여보이는 아들이 앉았고 오른쪽에는 그의 안해와 고령의 과부장모, 맨끝에는 숙성한 두 처녀가 자리잡았고 식탁 량옆에는 어린애들이 마치 파리 달라붙듯 다닥다닥 몽켜있었다.

《댁에서는 모두 안녕하십니까!》 나이죠노브는 기름묻은 모자를 벗어던지고 우로 삐죽 일어선 머리카락을 쓸어붙였다.

《안녕하시우, 롱담이 아니라면.》 붙임성있고 쾌활한 젊은 아낌이 보일가말가 한 웃음을 띄우고 대답했다. 나굴리노브라면 그런 익살맞은 인사에 그 널직한 눈섭을 찌프리고 지극히 엄격하게 《우린 익살피우고있을 겨를 없네. 왜 아직 낟알을 가져오지 않나?》 했을것이다. 그러나 와뉴쉬까 나이죠노브는 그 집사람들의 얼굴에 떠있는 차겁고 어둡은 빛은 본체도 안하고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많이들 잡수십쇼!》

아낌이 식탁에 같이 앉기를 권하지도 않고 그저 간단히 《고맙네.》 하고 한마디 할가, 혹은 걸걸하니 익살맞게 《남들 먹는거나 임자는 서서 구경하게.》 이렇게 슬쩍 넘겨버릴가 하고 미처 입을 벌릴 겨를도 없이 나이죠노브는 급히 계속해서 말했다.

《아니, 념려들 마십쇼!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기는 좀 아침을 먹어두 좋지만… 사실은 오늘 아직 나는 아침을 못 먹었지요. 나굴리노브동지는 본곳사람이니까 물론 벌써 배가 든든하겠지만 우리는 하루건너 겨우 이렇게 먹구 지내지요. … 하늘나라의 새들처럼.》

《그럼 씨두 안 뿌리구 가을걷이두 안하구 임자네는 배가 불러있겠군?》 하고 아낌이 웃음을 터뜨렸다.

《배는 부르건말건 언제나 우리는 유쾌하지요.》 이 말과 함께 나이죠노브는 어느새 어깨에서 가죽잠바를 벗어던지고 상에 다가앉는데 나굴리노브도 깜짝 놀랐다.

아낌령감은 그처럼 버릇없는 손님의 행동거지를 보자 외마디기침을

했다. 그러나 젊은 아낌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건 군대식이로군. 젊은이, 임자가 나를 앞지르기 잘했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자네가 〈많이들 잡수십쇼!〉할 때 〈남들 먹는거나 임자는 서서 구경이나 하게!〉하려던 판이였네. 얘들아! 이 사람한테 숟가락을 가져다줘라.》
한 처녀가 성큼 일어났다. 그리고 행주치마에 대고 웃음을 내뿜으면서 숟가락을 가지러 갔다. 그러나 그것을 나이죠노브에게 줄 때에는 남정들한테 무엇을 줄 때 하는 격식대로 절을 하고 얌전히 내주었다. 식탁은 활기를 띠고 유쾌하게 되였다. 젊은 아낌이 나굴리노브에게도 권했으나 나굴리노브는 거절하고 궤짝에 걸터앉았다. 눈섭이 희끄무레한 아낌의 딸이 눈웃음을 지으면서 살림방으로 뛰여가서 깨끗한 나프킨을 가져다가 나이죠노브의 무릎우에 놓았다. 젊은 아낌은 호기심과 호감의 빛을 숨기지 않고 이 촌티없는 담대한 청년의 주근깨 많은 얼굴을 바라보고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 보게 동지, 임자는 내 딸의 마음에 들었네, 애비한테는 난생 깨끗한 나프킨을 줘보지 못한것이 임자한테는 자리두 잡기 전에 가져다주는군. 청혼을 한다면 제깍 내주겠네!》
처녀는 아버지의 롱담에 얼굴이 빨갛게 되여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나이죠노브는 유쾌한 기분을 더한층 돋구면서 롱담으로 대꾸했다.
《따님은 아마 주근깨 많은 사나이한테는 시집을 안 갈게야요. 청혼두 할수 있지만 어두운 때래만 되지요. 그땐 나두 신수가 좋아져서 처녀들 마음에 들수도 있거던요.》
정과가 나오는 바람에 이야기는 끊어졌다. 다만 입술을 놀려 씹는 소리와 나무숟가락으로 그릇을 긁는 소리가 들릴뿐이였다. 어느 사내애가 배졸임을 찾느라구 숟가락으로 그릇안을 휘젓기 시작한 때 비로소 침묵은 깨여졌다. 이때 아낌령감은 자기 숟가락을 말끔히 핥은 다음 장난꾸러기의 이마를 툭 두드리고 훈계했다.
《골라내지 말아!》
《어쩐지 교회당처럼 집안이 조용해졌군요.》 주인마누라가 말했다.
《교회당에서두 언제나 조용하지는 않지요.》 밥과 정과를 든든히 먹고난 와뉴쉬까가 말했다. 《바로 우리 곳에서 부활제때 우스워서 밸

이 끊어질번 한 일이 있었지요.》
주인마누라는 식탁을 치우던 손을 멈췄다. 젊은 아낌은 담배를 말고 들을 차비를 하면서 걸상에 걸터앉고 아낌령감까지도 트림을 하고 십자를 그으면서 나이죠노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굴리노브는 초조한 빛을 분연히 드러내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자가 언제면 낟알얘기를 시작할텐가? 여기서는 보매 우리 일이 아주 글렀나부다! 이 두 아낌은 그렇게 곧 휘여잡지는 못해. 전 그레먀치치구 제일 느린 두 놈팽이들이니까. 그리구 젊은 아낌은 붉은군대에두 복무했구 또 본래 까자큰데 임자가 저 위인을 어떻게 다루어보겠다구? 안될 말이지. 낟알을 가져오지 않는건 저자가 사유재산을 신봉하기때문이구 린색하기때문이야. 저자한테서는 동지섣달에 눈두 얻어내지 못해, 다 알어!) 그동안 와뉴쉬까 나이죠노브는 시작할 기회를 기다리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따진구역의 태생인데 우리 곳에서 한번은 부활제때 교회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례배가 진행되구있었는데 교인들이 교회당에 모이니 비좁아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사제와 보제는 두말할것두 없이 찬미가를 부르고 설교를 하고있었구 울타리옆에서는 애녀석들이 놀구있었지요. 우리 촌에 이듭짜리 암소 한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찌나 사나운지 조금만 건드려도 무섭게 달려들어 뿔루 받아넘길려구 노리지요. 그 암소란 놈이 울타리근처에서 태평스레 풀을 뜯구있을 때 애녀석들이 그 소 약을 올려 소가 그중의 한 녀석을 따라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금시라두 그녀석을 따라잡게 되지 않았겠어요. 애녀석이 울타리안으루 뛰여들자 소두 따라올라오지요. 교회당현관에는 사람들이 빼곡이 서있었지요. 암소란 놈은 달려와서 그 애녀석의 꽁무니를 치받을려구 합니다! 애녀석은 나는 새같이 한 로파의 발밑으루 기여들어갔지요. 로파는 마루에 뒤통수를 탕 하고 벌렁 나가자빠져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사람 살류! 큰일났소!…〉 그 로파의 령감은 지팽이루 애녀석의 잔등을 냅다 쳤지요! 〈이 고약한 놈아, 뒈져라!…〉 그러나 소는 〈음메!〉하구 그 령감한테루 뿔을 돌리구 다가듭니다. 그래놓으니 야단법석이 일어났지요! 제단곁에 있던자들은 영문을 알수 없으나 현관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와 기도를 그만두고 서서 안절부절을 못하며 〈저기선 왜 떠드오?〉, 〈왜, 저기 무슨 일이 일어났소?〉 하구들 서루 묻지요.》

대경실색한 마을사람들이 술렁거리는 모양을 와뉴쉬까가 어찌도 홍이 나서 사람들앞에 생생하게 엮어대는지 젊은 아낌이 종내 참지 못하고 선참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암소란 놈이 큰 변을 벌려놨군!》

와뉴쉬까는 흰 이발을 드러내고 웃으면서 계속했다.

《한 젊은이가 능청스럽게 말했지요. 〈저기 미친개가 뛰여들었는지두 몰라, 쳐죽여야지!〉 그 젊은이옆에는 임신한 녀편네가 서있었는데 질겁을 해서 교회당이 떠나가게 웨쳤지요. 〈아유머니! 저게 이제 우리를 모두 깨물게야!〉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앞의 사람들을 떠미는 통에 초대가 넘어가면서 초타는 냄새가 확 풍기지 않겠어요. 캄캄해졌지요. 이때 어떤자가 부르짖습니다! 〈불에 타죽겠다!〉 그러자 일은 맹랑해졌지요! 〈미친개다!〉, 〈불에 타죽는다!…〉,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세상의 끝장이 왔어!〉, 〈뭐?… 이 세상의 끝장? 마누라! 집으루 갑시다!〉 모두가 옆문으루 달려가 사람 하나 빠져나갈수두 없게 문이 막혀버렸지요. 초상자가 넘어지구 동전이 흩어지구 장로가 넘어져 고함을 지릅니다. 〈도적이야!…〉 녀편네들이 양떼처럼 설교단으루 오르려니까 보제가 향로루 그네들 머리를 족치면서 〈에끼, 이 미친것들!… 어디루 올라와? 계집년들이 설교대에 올라와선 안된다는걸 더러운 너희들은 모르느냐?〉 이럽니다. 촌장은 배에 시계줄을 드리운 뚱뚱보였는데 방문으루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면서 웨칩니다. 〈나를 내보내달라! 내보내달라는데두, 이 망할것들아!… 나는 이 마을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그렇지만 이 세상의 끝장인데 그를 내보낸다는게 다 뭡니까!》

웃음소리에 말을 끊기면서 와뉴쉬까는 말을 마쳤다.

《우리 마을에 아르히쁘 쵸호브라는 말도적이 있었습니다. 매주일마다 말을 훔쳐가는데두 도무지 그자를 붙들어내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 아르히쁘가 교회당에 와서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구있었지요. 그런데 〈세상의 끝장이다! 사람 죽는다!〉하구들 웨쳐대자 아르히쁘는 들창으루 달려들어 들창을 부시구 빠져나갈려는데 들창밖에는 살창이 끼워져있습니다. 방문에는 사람들이 전탕 갈팡질팡하구있구 아르히쁘는 교회당안을 뛰여다니다가 걸음을 멈추고는 손을 치면서 〈이제는 걸렸구나! 마침내 걸렸구나!〉 했답니다.》

두 처녀와 젊은 아낌과 그의 처는 눈물이 나고 딸국질이 날만치 웃

어댔다. 아낌령감은 어떤가 하면 그도 이몸만 남은 입을 소리도 없이 벌렸다. 귀가 먹은 로파는 이야기를 절반도 못 들어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서도 무엇때문인지 울음보를 터쳐 눈물에 부어오른 빨간 눈을 훔치면서 웅얼거렸다.

《그래서 가엾은게 걸렸군! 불쌍두 해라! 그 사람을 어떻게 했나?》

《누구 말입니까, 할머니?》

《그 나그네 말이우다.》

《어떤 나그네요, 할머니?》

《자네가 말하던 그… 순례하는 나그네 말이다.》

《순례라뇨?》

《난들 아니… 난 귀가 멀어서 잘 듣지 못하는걸…》

로파와의 대화는 새 웃음판을 벌려놓았다. 젊은 아낌은 웃는통에 배여나온 눈물을 훔치면서 대여섯번이나 되물었다.

《그 도적이 뭐라구 했다? 〈이제는 걸렸구나!〉 했어? 참 젊은이, 희한스럽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네!》 그는 와뉴쉬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꾸밈없이 감탄했다. 그런데 와뉴쉬까는 재빠르게 슬며시 정색하고 한숨을 내쉬였다.

《그건 물론 우스운 얘기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웃구있을 정세가 아닙니다. … 오늘 나는 신문을 읽구 가슴이 저렸습니다. …》

《가슴이 저렸어?》 아낌이 새로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가 기대하면서 되물었다.

《저렸어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람들을 야수적으루 롱락하구 학대하기때문에 가슴이 저렸어요. 이런 기사를 나는 읽었지요. 로므니아에서 두명의 공청원이 농민들을 깨우쳐주며 말하기를 지주들의 땅을 몰수해서 자기들사이에서 분배해야 한다구 했다나요. 로므니아에서는 농민들이 아주 가난하게 살구있거던요. …》

《가난하다는건 아네. 17년에 우리 련대가 로므니아전선에 갔었기때문에 직접 내 눈으루 봤지.》 아낌이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그 공청원들은 자본주의를 뒤집어엎구 로므니아에 쏘베트정권을 세우두룩 선동했지요. 그러나 포악한 헌병들이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한명은 때려서 죽이구 또 한명은 문초를 받기 시작했지요. 그 사람의 눈을 뽑아내구 머리카락을 모두 뜯어냈지요. 그리구나서

가는 쇠줄을 빨갛게 달궈가지구 그 사람 손톱눈을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

《몹쓸놈같으니!》 아낌의 처가 손바닥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 《손톱눈에다가?》

《손톱눈에다지요. … 그리구 문초합니다. 〈너희들 조직에 또 누가 들어있는지 말해라. 공청에서 탈맹하라.〉 그러나 그 공청원은 견결하게 대답했지요. 〈너희놈들한테는 말하지 않을테다, 흡혈귀들아, 그리구 탈맹두 안하겠다!〉 그러자 헌병놈들은 환도루 그 사람의 귀를 자르구 코를 베냈지요. 〈말할테냐?〉, 〈못하겠다.〉 하고 그 사람은 말했지요. 〈너희놈들의 피묻은 손에 죽어두 말 못하겠다! 공산주의 만세!〉 그러자 놈들은 그 사람의 팔을 동여서 천정에 매여달구 그밑에 불을 달아놨지요. …》

《저런 염병을 할 악귀같은 놈들이 있나! 거 참혹한 일이로군!》 젊은 아낌은 격분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 그 사람을 불에 태워죽이는데 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릴뿐 자기의 공청원동지를 한사람두 불지 않았고 〈프로레타리아혁명과 공산주의 만세!〉를 되뇌일뿐이였지요.》

《용하군, 동지들을 불지 않았으니! 그래야 해! 깨끗이 죽을지언정 동지들을 불수야 없지! 성경에두 〈벗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구 했다네.》 아낌령감은 주먹으로 책상을 한번 치고 이야기군을 재촉했다. 《그래 그래,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나?》

《…놈들은 그 사람을 문초하구 별별 조련질을 다 했지만 그 사람은 잠자쿠 있지요. 아침부터 밤까지 내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까무러치면 헌병들은 물을 끼얹구 또 그지랄이지요. 그렇게 해서두 그 사람한테서 무엇 하나 알아내지 못하리라는걸 깨닫자 놈들은 가서 그 사람의 어머니를 붙잡아 자기네 비밀경찰부루 끌구 왔습니다. 〈잘 봐라.〉 놈들은 그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네 새끼를 어떻게 다루는가! 네 자식더러 순종하두룩 말해.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구 고기를 개들한테 던져주겠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까무라쳐버렸는데 피여나자 자기 아들한테로 달려가서 얼싸안고 피투성이 된 아들의 두손에 입을 맞춥니다. …》

얼굴빛이 해쓱해진 와뉴쉬까는 입을 다물고 눈이 둥그래서 듣고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처녀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아낌의

마누라는 행주치마에 코를 풀고 흑흑 느끼면서 중얼거렸다. 《얼마나 그…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참말!…》 젊은 아낌은 불시에 한번 기침을 하고 쌈지를 끌어당겨 급히 담배를 말기 시작했다. 나굴리노브만이 궤짝우에 앉아서 외면상 침착을 유지하고있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이야기가 끊어졌을 때 어쩐지 이상스럽게 뺨이 실룩거리고 입이 한옆으로 돌아갔다.

《〈…얘야! 나를 봐서, 네 에미를 봐서 저 악독한 놈들한테 순종해다고!〉 하고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동지들을 배반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나의 사상을 위해서 죽겠어요. 차라리 어머니는 최후를 앞둔 내게 입맞춰주시우. 그러면 더 편안히 죽겠어요. …〉》

와뉴쉬까는 떨리는 목소리로 로므니아의 한 공청원이 사형리—헌병들의 고문을 받고 죽은 이야기를 끝마쳤다. 잠시동안 조용해졌다가 이윽고 울어서 눈이 부어오른 주인녀편네가 이렇게 물었다.

《그 수난자는 나이가 얼마나 되댔노?》

《열일곱살이였어요.》 와뉴쉬까는 서슴없이 대답하고 즉시로 그 우물정자줄이 간 모자를 눌러썼다. 《그렇지요, 로동계급의 영웅—우리의 귀중한 로므니아공청원동지는 죽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살림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할일은 그네들이 자본주의를 뒤집어엎구 로농정권을 수립하도록 방조하는것이지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꼴호즈들을 세우구 꼴호즈의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곳에서는 아직두 자각하지 못한탓으루 해서 그런 헌병들을 돕구 꼴호즈건설을 방해해서 종곡을 내지 않는 그런 농사군들이 있어요. … 아, 이거 조반을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댁을 찾아온 용무에 대해선데 댁에서는 즉시루 종곡을 가져가야겠어요. 댁에서는 꼭 일흔일곱뿌드 내게 돼있습니다. 주인어른, 빨리 날라가십시오!》

《알게 뭔가… 그저 낟알은 거지반 다 없어졌네. …》 전혀 뜻하지 않았던 습격에 얼떨떨해진 젊은 아낌이 심드렁하게 말을 시작하려 했으나 처가 그의 쪽으로 독기어린 눈길을 던지고 매섭게 막았다.

《이제와서까지 그럴게 뭐요! 빨리 자루에 넣어서 가져가요!》

《일흔뿌드는 없네. … 그리구 채루 쳐놓지두 않은걸…》 아낌이 풀

기없이 항변했다.

《가져가라, 아끼무스까. 결국 바쳐야 하는걸 가지구 뭘 이제 고집을 쓰니.》 아낌령감이 며느리를 거들었다.

《우리는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좀 도움을 해드리지요. 채루 쳐드리지요.》 와뉴쉬까는 선선히 나섰다. 《그래, 댁에 큰 채가 없어요?》

《있지. … 그런데 좀 못쓰게 됐네. …》

《대순가요! 고치지요! 빨리 하세요, 빨리. 주인어른! 그렇지 않아두 우리는 이 댁에서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걸요. …》

반시간이 지나자 젊은 아낌은 꼴호즈의 뜰에서 소발구 두대를 끌어오고 한편 와뉴쉬까는 얼굴이 주근깨처럼 잔 구슬같은 땀에 덮여가지고 벌거우리한 순금빛 도는, 채로 친 탐탐하고 굵은 밀을 넣은 자루들을 골짜기로부터 고간채양밑으로 끌어내고있었다.

《왜 댁에서는 낟알을 골짜기에다 간수했어요! 커다란 고간을 가지구있으면서 낟알을 어쩌면 그렇게 허수하게 둬요!》 그는 능청스럽게 눈을 끔벅거리면서 아낌네 집 한 처녀에게 물었다. 《그건 아버지가 생각해낸 일이야요.》 처녀는 부끄러운듯이 대답했다.

베쓰흘렙노브가 그 일흔일곱뿌드를 공동소유곡물창고로 날라간 후 와뉴쉬까와 나굴리노브는 그 집주인들과 작별하고 집으로 향했다. 나굴리노브는 기쁜 흥분속에서 피곤한듯 한 와뉴쉬까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공청원얘긴 자네가 생각해낸건가?》

《아닙니다.》 이쪽은 대답했다. 《언젠가 오래전에 모쁘르잡지에서 그런 얘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자네는 오늘 읽었다구 했지. …》

《매일반이 아니야요? 중요한건 그런 일이 있었구 그것이 가슴을 찌른다는거지요, 나굴리노브동지!》

《그렇지만 거 자네는… 더 가슴을 찌르게 하려구 자기편에서 말을 보탰겠지?》 나굴리노브는 캐여물었다.

《그건 대수로운 일이 아니지요!》 와뉴쉬까는 화가 난듯이 팔을 내두르고 추운듯 몸을 옹송그리고서 가죽잠바단추를 채우며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건 사람들이 사형리들과 자본주의제도에 증오감을 품구 우리 투사들한테 동정을 느끼는거야요. 중요한건 씨앗을 가져다

내는거지요. … 그리구 난 보탠것두 별루 없어요. 그 집 마나님이 만든 정과는 달구 아주 그럴듯 하던데요! 나굴리노브동지, 당신은 공연히 거절했어요!》

제 26 장

3월 10일 저녁부터 그레먀치 로그에는 내려덮듯 안개가 끼여 아침까지 집집의 지붕으로부터는 눈석이물이 졸졸 흘러내렸다. 남쪽광야 등성이에서 불시로 따뜻하고 축축한 바람이 불어왔다. 봄을 맞이한 첫날 밤은 흘러온 안개와 정적의 검은 비단에 싸여 봄바람을 품고 그레먀치우에 서리여있었다. 아침도 늦어서야 분홍빛이 된 안개가 걷히면서 하늘과 해가 나타났으나 남쪽으로부터 이번에는 세찬 사태처럼 바람이 몰려왔다. 알맹이 진 굵직굵직한 눈이 설레이고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물이 되여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집들은 갈색지붕을 드러내고 길은 시꺼먼 구멍투성이가 되고말았다. 그리고 낮녘이 되자 눈물같이 깨끗한 두메물이 낭떠러지와 골짜기로 콸콸 세차게 흘러내려와 무수한 줄기를 이루어 벗나무의 쌉쌀한 뿌리를 씻고 내가의 갈대를 잠그면서 낮은 지대와 숲과 과수원들로 내달았다.

한 사나흘 지나자 어느쪽으로나 바람을 받는 언덕들은 벌써 알몸뚱이가 되여버리고 흙바탕까지 씻기운 경사면들은 축축한 진흙을 반짝이기 시작했다. 두메물은 흐려지고 그 들끓듯 맴돌며 흘러내리는 물결우에 화려하게 끝이 끓어오른 물거품의 노란 방울이며 깨끗이 씻기운 곡초뿌리들이며 밭의 허접쓰레기 그리고 물에 끊겨 덤불진 금어초를 실어갔다.

그레먀치 로그에서는 내물이 범람했다. 어딘가 상류쪽에서 해볕에 여윈 얼음덩어리들이 흘러왔다. 물굽이들에서는 얼음덩이들이 본물줄기에서 삐여져나와 알쓸이철의 큰 물고기들처럼 빙빙 돌면서 서로 부딪쳤다. 때로는 물줄기가 그것을 강파로운 기슭으로 밀어던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으로 흘러떨어지는 흐름에 끌려 얼음덩이가 과수원으로 들어가서 뿌적뿌적 나무줄기에 부딪치고 어린 과일나무를 꺾고 사과나무에 상처를 내고 벗나무동산에 빽빽이 자란 어린 나무들을 휘면서 나무들사이를 헤엽쳤다.

부락을 벗어난 곳에서는 눈에서 해방된 밭들이 오라고 부르는듯이 거멓게 드러나보였다. 보습으로 갈아번진 기름진 검은 흙의 층들에서는 해별을 받아 수증기가 피여오르고있었다. 크낙한 자비로운 정적이 한낮의 광야우에 서리여있었다. 밭들우에는 태양과 젖빛같이 흰 김과 가슴을 설레게 하는 첫 종달새의 지저귐이 차있으며 구름 한점 없는 파란 하늘에 삼각형의 대렬을 지어 날으는 두루미떼의 부르는듯 한 울음소리가 차있다. 묘지들우에서는 온기를 머금고 피여오른 아지랑이가 가물가물 나붓기고 풀잎의 날카로운 푸른 끝은 지난해의 마른 줄기를 밀어제치면서 태양을 향해서 뻗어나간다. 바람에 마른 가을 쌀보리는 휘황한 별을 맞받아 잎을 뻗치면서 마치 발돋움하고있는것 같다. 그러나 아직 광야에는 생명있는것이 적다. 모르모트들은 아직 겨울잠에서 깨여나지 못했고 짐승들은 숲과 골짜기에 숨어있다. 다만 간혹 가다 들쥐가 마른 부리얀초로 뛰여지나가거나 암수로 쌍을 지은 자고새들이 가을작물우를 날아갈뿐이다.

그레먀치 로그에서는 3월 25일까지에 종곡이 완전히 수집되였다. 개인농들은 자기들의 종곡을 개별적곡물창고에 납입했고 그 창고의 열쇠는 꼴호즈관리부에 보관되였다. 꼴호즈원들은 여섯동의 공동소유곡물창고에 곡물을 가득히 채워넣었다. 곡물은 선별기로서 정선했는데 밤에도 등불을 세개나 켜놓고 일했다. 이뽈리트 샬릐의 대장간에서는 땅거미질 때까지 대장간 풀무의 커다란 아가리가 풀썩거리고 망치밑으로부터는 금싸래기같은 불꽃이 튀여 모루가 듣기 좋게 쟁강거렸다. 샬릐는 있는 열성을 다 기울여 3월 15일까지에는 수리하러 가져온 쇠스랑, 써레, 경복기, 파종기, 보습들을 모두 수리했다. 그리고 16일 저녁 다위도브는 꼴호즈원들이 다수 모인 가운데 자기가 레닌그라드에서 가져온 공구들을 그에게 상으로 준 다음 이런 연설을 했다.

《우리의 존경하는 야장 이뽈리트 씨도로비치 샬릐동지의 실로 돌격적인 사업에 대해서—다른 꼴호즈원들도 모두 그 사업을 본따야겠습니다만—우리 꼴호즈관리부는 이 공구를 증정하는바입니다.》

다위도브는 이 돌격적인 야장의 표창식에 즈음하여 말끔히 수염을 깎고 깨끗이 세탁한 샤쯔를 입고있었는데 붉은 천우에 널어놓은 공구들을 책상에서 집어들었다. 그러자 안드레이 라즈묘뜨노브가 얼굴빛이 검붉어진 이뽈리트를 연단우로 밀어올렸다.

《여러분, 샬릐동지는 오늘 현재 백프로로 수리를 끝마쳤습니다, 사

실말이지! 이분은 도합 쉰네개의 보습날을 수리했으며 대소 각종의 파종기 열두대와 열네개의 써레와 기타 여러것의 전투적태세를 갖추게 했습니다, 사실말이지! 존경하는 우리 동지, 표창으로써 당신께 주는 우리의 형제적선물을 받으시오. 그리구 이런 말 할 필요두 없지만 앞으로도 그처럼 돌격적으루 일하구 우리 꼴호즈의 전체 농기구가 항상 정돈되여있게 해주시오, 사실말이지! 그리구 당신들, 다른 사람들두 역시 들에서 돌격적으루 일해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꼴호즈의 명칭에 합당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로씨야앞에서 창피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말이지!》

이 말과 더불어 다위도브는 상품을 3메터의 붉은 공단에 싸서 그것을 샬리에게 주었다. 그레먀치사람들은 아직 박수로써 찬동의 뜻을 표현할줄 몰랐다. 그러나 샬리가 떨리는 손으로 붉은 천에 싼것을 받았을 때에는 학교안이 떠들썩해졌다.

《저 사람은 받을만 해! 굉장히 일을 했으니까!》

《못쓰게 된걸 도루 쓰게 만들었지.》

《공구에다 또 녀편네옷감으루 공단까지 받았는걸!》

《이뽈리트, 임자 한턱 내야 하네, 이 검정종자소같으니!》

《저 사람을 올려추세!》

《그런 말 말아, 바보같으니! 그렇지 않아두 저 사람은 모루곁에서 실컷 몸을 놀렸어!》

그다음에는 부르짖는 소리들이 요란스런 하나의 와—소리로 변하고 말았다. 그래두 쓔까리령감은 녀자같은 쟁쟁한 목소리를 내여 소음을 꿰뚫었다.

《왜 잠자쿠 서있어? 말을 하라니까! 답사를 하라구! 나무그루하구 몸뚱이부부사이에 태여났나.》

사람들은 쓔까리를 지지해서 혹은 진지하게, 혹은 롱담으로 웨치기 시작했다.

《그 사람 대신으루 제미드 몰춘에게 말을 시키지!》

《이뽈리트! 빨리 말하게, 그러다간 쓰러지겠네!》

《너무 기뻐서 혀바닥을 삼켜버렸나부네!》

《그야 망치루 두드려대는것 하구는 다르지!》

그러나 모든 례식을 좋아하고 이번에도 상품수여식을 주최하고있던 라즈묘뜨노브는 떠들썩한것을 진정시키고 흥분한 장내를 안정시켰다.

《좀들 진정하시우! 왜 또들 떠들어대우? 암내라두 일었소? 개명하게 손바닥을 칠노릇이지 웨쳐댈건 없소! 제발 조용들 하구 이 사람에게 답사를 시킵시다!》 하고는 이뽈리트에게로 몸을 달려 주먹으로 슬며시 그의 옆구리를 한대 지르고 이렇게 속삭였다. 《가슴안에 힘껏 숨을 들여마시구 말하게. 자 씨도로비치, 될수록 길게, 유식하게 말해주게. 자네는 우리 례식의 주인공이니만큼 격식에 맞게 기다란 연설을 해야 하네.》

그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본 일이 없으며 생후 한번도 기다란 연설을 해보지 못한데다가 일해주고는 부락민들한테서 술이나 한잔 얻어먹던 이뽈리트 샬릐는 관리부의 상품이며 그 엄숙한 수여식으로 말미암아 평소의 균형상태를 아주 잃어버리고말았다. 붉은빛꾸레미를 꽉 가슴에 껴안은 두손이 떨리고 평상시에 대장간에서는 그처럼 확고히 힘있게 쩍 벌리고서있던 두다리가 떨렸다.… 손에 꾸레미를 쥔채 그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또 그에게 있어서 대서특필할 이 사건에 대하여 살이 새빨개지리만큼 씻고 또 씻은 얼굴을 훔친 다음 갈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도구는 우리에게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관리부에 대해서… 감사하구 또 감사하외다! 나는 … 대장간에서 이골이 났으니만큼… 그리구 오늘 꼴호즈원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언제나 정성껏 하겠습니다.… 그리구 공단은 물론 우리 집사람에게 소용되지요.…》 그는 빼곡이 들어찬 교실안을 당황히 두루 살피며 안해를 찾았다. 그러나 안해가 눈에 띄지 않자 한숨을 내쉬고 길지 못한 연설을 마쳤다.

《그래서 공단에 싼 이 도구와… 우리의 일에 대해서… 다위도브동지, 당신과 또 꼴호즈에 감사합니다!》

라즈묘뜨노브는 샬릐의 흥분된 연설이 거의 끝나가는것을 보자 땀을 뺀 야장에게 공연히 온갖 시늉을 다 해보았다. 이쪽은 그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절을 한 다음 꾸레미를 마치 잠자는 아이 안듯이 두팔에 받쳐들고 강단에서 내려갔다.

나굴리노브는 머리에서 쥐여뜯듯이 급히 털모자를 벗고 한팔을 휘둘렀다. 두개의 발라라이까와 바이올린으로 꾸며진 관현악단이 《인터나쇼날》을 시작했다.

×

작업반장들인 듑쪼브, 류비슈낀, 좀까 우샤꼬브는 밭이 경작과 파종을 할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알아보려고 매일 광야로 말을 타고 나갔다. 봄은 마른 바람의 숨결과 더불어 광야를 찾아왔다. 개인날이 계속되였다. 벌써 제1작업반은 자기네 구역에 있는 모래밭을 갈 준비를 하였다.

선전대는 워이쓰꼬보이읍으로 소환되여갔다. 그러나 꼰드라찌꼬는 나굴리노브의 청에 의해서 와뉴쉬까 나이죠노브를 파종기간 그레먀치에 남겨두기로 했다.

샬릐에게 상품을 수여한 다음날 나굴리노브는 루쉬까와 헤여졌다. 루쉬까는 동구밖에 사는 이모네 집에 들여박혀 한 이틀쯤 그림자도 보이지 않다가 어느땐가 꼴호즈관리부곁에서 다위도브와 만나자 그를 멈춰세웠다.

《난 인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위도브동지, 좀 가르쳐주세요.》

《이제야 물을걸 묻는군! 탁아소를 만들려고 생각하구있는데 그리루 들어가시오.》

《감사하지만 그건 싫어요. 자기 새끼를 가져보지 못한것이 이제 남의 아이들을 보아요? 썩 좋은 생각을 했군요!》

《그럼 작업반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난 로동을 해보지 못한 아낙네가 돼서 밭일을 하면 머리가 어질어질한걸요. …》

《저런, 아주 가냘프군! 그렇다면 제멋대로 놀구려, 그대신 곡물은 못 받소. 우리께서는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이니까.》

루쉬까는 한숨을 내쉬고 끝이 뾰족한 구두로 축축한 모래를 쑤시면서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하구 친한 찌모쉬까 르와늬가 북방에 있는 꼬를라쓰시에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오래지 않아 이리루 온다구 그래요.》

《그건 엉터리없는 수작이요!》 다위도브는 빙그레 웃었다. 《그리구 만약 온다 하더래두 우리는 그자를 더 멀리 쫓아보낼테요.》

《그럼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나요?》

《못 받지요! 그걸 기다릴건 없구 건달을 피우지 마시오. 일을 해

야 하오, 사실말이지!》 다위도브는 날카롭게 대답하고 가버리려 했으나 루쉬까는 저으기 계면쩍어하면서 그를 붙잡았다. 루쉬까가 말꼬리를 길게 끌면서 이렇게 물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야유하는듯하고 도전하는듯 한 어조가 꿈틀거렸다.

《부실한 놈팽이라두 좋으니 내게 새서방감을 하나 골라줄수는 없으세요?》

다위도브는 약이 오른듯 이발을 드러내고 무뚝뚝하게 쏘았다.

《난 그런 일은 안하오! 잘 가시오!》

《잠간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더 묻겠어요!》

《뭐요?》

《당신이 나를 색시루 얻어주지 않겠어요?》 하는 루쉬까의 목소리에는 로골적인 도전과 야유가 울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위도브가 당황할 차례가 되였다. 그는 뒤로 넘긴 머리카락뿌리까지 빨개져서 소리도 없이 입술을 움직였다.

《날 좀 보세요, 다위도브동지.》 루쉬까는 얌전을 피우면서 계속했다. 《이만하면 인물두 잘났구 사랑에두 아주 쓸만 하답니다. … 좀 보세요, 눈두 곱구 눈섭이며 다리맵시며 또 다른 곳두 죄다 괜찮다우. …》 그는 초록빛모직치마를 손가락끝으로 살짝 쳐들고 한쪽 허리를 내밀면서 어리뻥뻥해진 다위도브앞에서 몸을 꼬았다. 《아니, 그러면 미워요? 그러면 그렇다구 하세요. …》

다위도브는 진절머리가 나는듯 한 몸짓으로 모자를 뒤통수로 밀어붙이고 대답했다.

《당신은 못해낼 일이 없는 색시요. 두말할것두 없지. 그리구 다리두 고와, 그런데 다만 저… 당신은 그리루 가야 할데를 가구있지 않단 말이요. 그건 사실이요!》

《나야 가구싶은데루 가지요! 그럼 나는 당신한테 희망을 걸수 없단 말이군요?》

《희망을 걸지 않는게 좋을게요.》

《내가 당신한테 쫄딱 반했다든가 당신한테 몸을 의지하구싶어서 그런다구는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이 불쌍해졌을뿐이야요. (젊은 사나이가 색시두 없이 홀몸으루 지내면서 녀자한테 손 하나 대지 못하는구나. …) 그렇게 생각했지요.》

《제길, 당신은 모를 사람이요. … 그럼 또 만납시다! 당신을 상대

하구있을 짬이 나는 없소.》 하고나서 롱담비슷이 덧붙여 말했다. 《이제 파종을 끝마치면 그때 어디 이 이전 해병한테 달려들어보시오, 다만 마까르한테서 허락을 받아와야 하오, 사실말이지!》

루쉬까는 웃음을 터뜨리고 그의 뒤에다 대고 말했다.

《마까르는 나한테 세계혁명을 가지구 방패막이하더니 당신은 파종이군요. 아니, 숫제 그만두슈! 나는 당신같은 그런 사람들은 필요없어요! 내게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데 그래서야 무엇하겠소?… 당신네 피는 일때문에 곰팽이가 쓸었는걸. 그런 피를 가진 사람은 심장두 찬 법이거던요!》

다위도브는 어리뻥뻥한듯 빙글거리면서 관리부로 걸어갔다. (저 녀자를 어떻게 해서 일을 시키두룩 해야겠군. 그렇지 않으면 저 아낙은 옳은 길에서 빗나가겠어. 쉬는 날두 아닌데 저 녀자는 차려입구 나서서 그런 수작을 하구있으니…) 하고 생각했으나 그다음에는 마음속으로 단념한듯 손을 내흔들었다. (젠장, 될대루 되라지. 어린애두 아닌데 응당 자신이 깨달아야지. 정말이지 나는 뭔가, 자선사업하는 부르죠아마님인가? 일을 하라구 해봐서 싫다면 마음대루 못난짓을 하라지!)

그는 나굴리노브에게 짤막히 이렇게 물었다.

《리혼했나?》

《제발 묻지 말아주게!》 마까르는 자기의 기다란 손톱을 유난히 주의깊게 들여다보면서 중얼거렸다.

《나는 그저 조금…》

《나두 그저 조금일세!》

《밸대루 하게! 이건 좀 묻지두 못하겠군, 사실말이지!》

《제1작업반은 출동해야 할 땐데 그자들은 늦장을 부리구있네.》

《자네는 루께리야를 옳은 길루 인도해야 하네. 그 녀자는 지금 스스로 자기 신세를 망치려 하구있어!》

《그래, 내가 그 계집의 신부란 말인가 뭐란 말인가? 귀찮게 굴지 말게! 나는 제1작업반 얘기를 하구있네. 그 작업반은 암만 늦더라두 래일은…》

《제1작업반은 래일 출동하네. … 그래, 자네는 리혼해버렸으니까 자네 책임은 없다구 그걸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나? 왜 그 녀자를 교양하지 않았나? 자네두 야단일세, 사실말이지!》

《래일 나자신이 제1작업반과 함께 밭으루 나가겠네. … 아니, 왜 자네는 우웡씨처럼 귀찮게 들어붙나? 〈교양해라, 교양해라〉 하니 나자신이 전수 교양을 받지 못한 주제에 무슨 건덕지루 교양하겠나? 그래 리혼해버렸는데 또 어떡하란 말인가? 자네는 옴처럼 고약스럽군!… 저 반니크란 놈과의 건두 있겠다!… 나는 받은 죽만 해두 귀밑을 흐르는데 자네는 헤여진 녀편네일까지 가지구 와서 못살게 구는군. …》

다위도브가 급히 대답을 하려고 할 때 관리부뜰에서 자동차경적소리가 울렸다. 구역집행위원회의 포드가 기우뚱기우뚱 차체를 흔들고 웅뎅이에 고인 눈녹은 물을 차축으로 헤치면서 들어왔다. 자동차문을 열어제끼고 구역집행위원회 위원장 싸모힌이 나왔다.

《내 일때문에 왔네. …》 나굴리노브는 량미간을 찌프리고 사납게 다위도브를 힐끗 바라다보았다. 《여보게, 이제 또 저 사람한테 녀편네얘기는 하지 말게! 그러단 난 수도원으루 귀양가야 하네! 저 싸모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 〈왜 리혼했는가, 그리구 어떤 리유루?〉 이러거던. 당원이 리혼을 하면 저 사람은 가슴에 비수라두 가져다댄것처럼 야단이네. 그 어떤 신부 한가지지. 구역검열위원회 위원장감은 못돼. 이마가 벗어진 저자가 나는 딱 질색이네! 아, 그 반니크놈이 재액이였어! 그 벌레같은 놈을 죽여버렸으면 씨원하겠다. …》

싸모힌은 방으로 들어와서 방수포로 만든 가방을 손에 쥔채 인사도 없이 반롱담조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나굴리노브, 일을 저질렀더군! 자네때문에 이렇게 눈이 녹아서 질벅질벅한데를 와야 하네그려. 이 동지는 누구요? 아마 다위도브지? 그래,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굴리노브와 다위도브하고 악수를 한 다음 책상옆에 앉았다. 《다위도브동지, 한 반시간동안 사양해주시오. 나는 이 괴짜와(몸짓으로 나굴리노브쪽을 가리켰다.) 좀 얘기를 해야겠소.》

《그럼 어서 얘기하십시오.》

다위도브는 일어섰다. 그리고 방금까지 리혼이야기를 말아달라고 부탁하던 나굴리노브가 《병이 중하면 죽기밖에 더할가.》 하고 결심을 한듯 이렇게 두덜거리는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반혁명분자 한놈을 때렸소, 그건 사실이요. 그렇지만 아직 그게 다는 아니요, 싸모힌. …》

《그래, 또 뭬 있나?》

《녀편네를 오늘 집에서 내쫓았소!》

《그래?…》 벗어진 이마에 몸이 수척한 싸모힌은 놀란듯 말끝을 길게 뽑고 가방속을 뒤지며 말없이 서류를 버스럭거리면서 요란스럽게 씩씩거렸다. …

제 27 장

밤에 야꼬브 루끼치는 삽짝문근처에서 발걸음소리와 수선거리는 소리를 잠결에 들었으나 도무지 잠에서 깨여날수가 없었다. 그리고 가까스로 잠을 깨였을 때에는 울타리널판자가 그 무엇에 눌려 삐걱거리고 무슨 쇠소리가 쟁강한것 같은것을 이미 눈을 뜨고 들었다. 급히 들창으로 다가간 야꼬브 루끼치는 들창의 조그마한 구멍에 다가붙어 내다보았다. 동트기 전의 깊은 어둠속에 덩지 큰 뚱뚱한 어떤 사나이가 울타리를 넘어오는것을 알아보았다. (쿵하고 내리뛰는 육중한 소리도 들었다.) 어둠속에 희뜩거리는 털모자로써 뽈롭쩨브라는것을 알았다. 저고리를 겹쳐입고 이미 삽짝문안으로 말을 끌어들이고 문에 빗장을 꽂고있었다. 야꼬브 루끼치는 그의 손에서 말고삐를 받아쥐였다. 말은 앞어깨우까지 젖고 배속으로부터 거쉰 소리를 내고 비틀거렸다. 뽈롭쩨브는 인사에는 대답도 안하고 갈린 목소리로 속삭이면서 이렇게 물었다.

《저… 랴찌엡스끼는 있나?》

《자구있지요. 그이두 야단이야요. … 그사이 줄창 술만 마셨지요. …》

《제길! 불한당같으니… 말을 내가 너무 몰아댔나보군. …》

뽈롭쩨브의 목소리는 딴사람이 아닌가싶게 부드러웠다. 야꼬브 루끼치는 그 목소리에서 그 어떤 초조와 커다란 불안과 피곤을 느꼈다. …

뽈롭쩨브는 살림방에 들어와서 장화를 벗고, 줄이 달린 청색까자크바지를 안장구럭에서 꺼내입었다. 그리고 누빈 허리띠까지 올리젖은 바지는 뻬치까침상우에 걸었다.

야꼬브 루끼치는 문설주옆에 서서 자기 상관의 느린 동작을 주시하

고있었다. 이쪽은 뻬치까침상에 걸터앉아 두팔로 무릎을 안고 맨발뒤꿈치를 쪼이면서 잠시동안 조는듯 아무 동정이 없었다. 보매 그는 무척 졸리는 모양이였다. 그러나 그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그리고 취해서 깊이 잠이 든 랴찌옙스끼를 오래동안 바라보고있다가 이렇게 물었다.

《오래전부터 술을 마시나?》

《처음부터지요, 무척 많이 마시지요! 나는 사람들앞에서 거북스럽게 됐수다. … 매일 워드까를 마시게 되니… 의심을 받을수 있지요.》

《불한당같은!》 하고 뽈롭쩨브는 이발을 악문채 경멸하여마지않는듯이 이발사이로 말을 뱉았다. 그리고는 세기 시작한 커다란 머리를 흔들거리면서 또다시 앉은채로 졸기 시작했다. 그러나 밀려드는 흐리마리한 잠에 몇분동안 졸다가 흠칫 몸서리를 치더니 뻬치까침상에서 다리를 내려놓고 눈을 떴다.

《밤낮 사흘동안 잠을 못 잤네. … 개천들이 물이 났거던. 임자네 그레먀치개천두 헤염쳐 건넜네.》

《좀 누우실걸요, 알렉싼드르 아니씨모비치.》

《눕겠네. 담배를 주게. 내 담배는 젖고말았어.》

담배에 주린듯이 깊이 두모금을 들이키고나서 뽈롭쩨브는 활기를 띠였다. 그의 눈에서 졸리는듯 한 안개가 걷히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다.

《그래, 여기 정세는 어떤가?》

야꼬브 루끼치는 짤막히 말하고 이번에는 자기편에서 물었다.

《당신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오래지 않습니까?》

《요 며칠사이에 시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만두네. 래일밤에 임자와 함께 워이쓰꼬보이로 가세. 거기서 거사해야겠어, 읍이 좀더 가까우니까. 거기에는 지금 선전대가 있네. 그걸 상대루 해보세. 그리구 이번 길에는 임자가 꼭 내게 필요하네. 거기서는 까자크들이 임자를 아니까 임자가 말하면 그네들을 고무추동할수 있을거야.》 하고나서 뽈롭쩨브는 말을 끊고 그의 무릎우에 뛰여오른 검은 고양이를 그 커다란 손바닥으로 오래동안 다정스레 쓸어주고있다가 이윽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따뜻함과 애정이 울렸다.

《요것아! 요런것이! 고양이야! 고양이새끼야! 참말루 털이 까맣기

두 하다! 루끼치,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네! 말과 고양이가 제일 정갈스런 동물이라네. … 우리 집에는 커다랗고 털이 다부룩한 씨비리종고양이가 한마리 있었지. … 늘쌍 나하구 같이 잤었지. … 달빛은…》 뽈롭쩨브는 명상하듯 눈을 가느스름히 하고 미소를 띄우고서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흰 점이 박히고 안개가 낀것 같은 재빛이였네. 신—통—스런 고양이였어! 루끼치, 임자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나, 개는 미워하네! 저,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아마 여덟살쯤 났댔을거야. 우리 집에 조그만 강아지가 있었는데 어느날 내가 그것하구 놀다가 아마 그것을 아프게 해준 모양이지. 그것이 내 손가락을 덥석 하구 피가 날만치 깨물었네. 나는 약이 올라 기다란 나무가지를 잡아쥐구 그것을 매질하기 시작했지. 그것이 달아나면 나는 따라가서 때리는데 참말 고소함을 느끼면서 때리네! 그것이 고간밑으루 가면 나두 따라가고 현관밑으루 가면 거기서 끌어내여 이제는 깽깽거리지두 못하구 쌕쌕하면서 홀짝거릴뿐이네. … 그리구 그때 나는 그것을 두팔에 안아들었지. …》 뽈롭쩨브는 입 한모서리만으로 어쩐지 미안하고 게면쩍은듯이 미소를 띄웠다. 《안아들고는 가슴이 저릴만큼 그것이 애처로워서 왁 울음을 터쳤네! 나는 경풍을 일으키고 말았지. … 어머니가 달려오셨는데 나는 강아지와 나란히 마구간옆의 땅바닥에 넘어져서 다리를 뱅뱅 꼬구있었네. … 그때부터 나는 개는 딱 질색이야. 그대신 고양이는 굉장히 좋아하지. 그리구 어린 아이들하구 조그만것들 말이야. 무척 좋아하네. 어쩐지 병적일 정도야. 어린 아이들이 우는것을 듣구있을수가 없어. 속이 모두 뒤집히는것 같다니까… 그래 령감, 임자는 고양이를 좋아하는가 어떤가?》

일찌기 도이췰란드전쟁때 까자크들에 대한 잔인한 취급으로써 이름났던 자기의 상관,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장교가 그처럼 단순한 인간적감정을 보인것과 그가 한 희한스런 이야기에 더없이 놀란 야꼬브 루끼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뽈롭쩨브는 잠시 잠자코 있다가 저으기 엄한 얼굴이 되여 이번에는 무뚝뚝하게 사무적으로 물었다.

《우편이 온지 오래 됐나?》

《지금은 범람때가 돼서 골짜기들이 모두 물이 나구 길이 없지요. 한주일반쯤 우편이 없었습네다.》

《쓰딸린의 론문에 대해서 부락에서 아무 소문두 못 들었나?》

《어면 론문인데요?》

《꼴호즈에 관한 그의 론문이 신문에 게재되였다네.》

《아니요, 못 들었수다. 그 신문이 여기엔 배달되지 않은가보군요. 그래, 그 론문에 뭐라구 씌여있습디까? 알렉싼드르 아니씨모비치?》

《뭐, 빈소리지… 임자한테는 흥미두 없는 일이야. 그럼 가서 자게. 말은 한 서너시간후에 물을 먹여주게. 그리구 래일 밤에는 꼴호즈의 말을 두필 끌어내다 어두워지면 곧 워이쓰끄보이루 가세. 임자는 안장 없이 타구 가게, 멀지 않으니까.》

아침이 되여 뽈롭쩨브는 술이 채 깨지 않은듯 한 랴찌옙스끼와 오래동안 이야기했다. 이야기가 끝난 후 랴찌옙스끼는 해쓱한 표독스러운 얼굴로 부엌으로 나왔다.

《해정이라두 하셔야지요?》 야꼬브 루끼치는 미리 앞질러 물어보았다. 그러나 랴찌옙스끼는 어딘가 그의 머리우를 힐끗 본 다음 한마디씩 뚝뚝 끊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아무것두 필요없네.》 그는 살림방으로 가서 침대우에 엎드렸다.

밤에 꼴호즈의 마구간 수직을 선 자는 야꼬브 루끼치가 돈해방동맹에 모집한자들중의 한명인 이완 바딸리씨꼬브였다. 그러나 야꼬브 루끼치는 그에게도 어디로 그리고 무슨 용무로 간다는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네 일루 근방에 좀 갔다와야겠네.》 그는 바딸리씨꼬브의 질문에 대해서 어름어름 대답했다. 그리고 이쪽은 주저없이 두필의 좋은 말을 풀어주었다. 야꼬브 루끼치는 탈곡장뒤로 해서 말들을 끌어다 숲에 잡아매놓고 자기는 뽈롭쩨브를 부르러 갔다. 살림방 방문으로 다가갔을 때 랴찌옙스끼가 《그것은 우리의 패배를 의미하는게 아닙니까, 생각해보십쇼!》 하고 웨치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대해서 뽈롭쩨브는 굵은 목소리로 엄하게 뭐라고 대꾸했다. 그 어떤 불길한 예감에 야꼬브 루끼치는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다.

뽈롭쩨브는 안장을 가지고 나왔다. 두사람은 밖으로 나섰다. 말 있는 곳으로 갔다. 속보로 출발했다. 동구밖의 여울에서 개천을 건넜다. 가는 도중 줄창 뽈롭쩨브는 말이 없었으며 담배를 피우는것도 금하고 길로가 아니라 한 열댓싸젠 떨어진 곳을 가도록 분부했다.

워이쓰끄보이에서는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야꼬브 루끼치와 지기간인 한 까자크의 집에 20명가량 부락민들이 앉아있었다. 대다수

가 늙은이들이였다. 뽈롭쩨브는 모두와 악수를 나눈 다음 한사람을 데리고 들창곁으로 가서 한 5분동안 수군거렸다. 다른 사람들은 말없이 뽈롭쩨브와 야꼬브 루끼치를 번갈아보았다. 한편 야꼬브 루끼치는 문지방가까이에 앉아서 잘 모르는 스스로운 까자크들속에 있는지라 당황하고 거북스러움을 느꼈다. …

창들은 안으로부터 아마포로 빈틈없이 휘장을 치고 덧문까지 닫았으며 뜰에서는 주인의 사위가 망을 보고있었다. 그러자 뽈롭쩨브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 까자크제군, 때가 림박했소! 당신들의 노예시기가 끝나가고있으니 진출해야겠소. 우리의 전투조직은 만단의 준비가 되였소. 래일모레 밤에는 거사요. 여기 당신네 워이쓰꼬보이에는 반개 기병중대가 당도할텐데 첫 발포소리가 나면 당신들은 달려들어 숙사에서 저… 선전대원들을 쳐부셔야 하오. 한놈두 살아서 도망치게 해서는 안되오! 당신네 조의 지휘는 소위 보마르에게 맡깁니다. 어둠속에서 아군과 적을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진격하기 전에 모자에 흰 헝겊을 꿰매는것이 좋겠소. 매 개인의 말, 가지고있는 무장, 환도, 장총 혹은 렵총까지두 준비하구 사흘분의 군량을 준비해야 하오. 선전대와 이 고장의 당원들을 요정낸 다음에는 당신들을 원조하려고 당도한 반개중대와 합세하시오. 그리고 지휘권은 반개중대의 대장에게로 넘어가오.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 그 사람이 인도하는 곳으루 가시오.》 뽈롭쩨브는 긴 한숨을 내쉬고 똘스똡까의 허리띠에 찔렀던 왼손가락을 뽑고 손잔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고나서 큰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레먀치로그로부터 당신들이 모두 잘 아는 까자크 야꼬브 루끼치 오쓰뜨롭노브가 나와 함께 왔소. 이전에 나와 같은 련대에 있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당신들한테 대다수의 그레먀치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의 기반으로부터 돈을 해방하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려는 각오를 가지구있다는것을 확인할것이요. 말하게, 오쓰뜨롭노브!》

뽈롭쩨브의 패로운 눈길은 야꼬브 루끼치를 의자에서 일으켜세웠다. 야꼬브 루끼치는 온몸이 무겁고 말라든 목의 뜨거움을 느끼면서도 날쌔게 일어섰으나 말은 하지 않게 되였다. 잠잠해있던 사람들중에서 보매 나이가 제일 많아보이는 한 까자크가 그를 앞질러 말을 시작한것이다. 그는 교회 평의회의 위원이고 전쟁전에는 워이쓰꼬보

이 교회관구학교의 상임관리자였다. 그는 야꼬브 루끼치와 동시에 일어나서 야꼬브 루끼치가 미처 입을 떼기 전에 이렇게 물었다.

《저 나으리, 대위어른, 당신두 소식을 들었겠지만… 이자 당신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상론했수다. 한데… 아주 재미있는 신문이 나왔어요. …》

《뭐!— 령감, 당신은 무슨 말을 하구있나?》 뽈롭쩨브는 저으기 갈린 목소리로 물었다.

《모스크바에서 신문이 왔단 말이외다. 그런데 그 신문에 실린 전당위원장의 편지는…》

《비서요!》 뻬치까곁에 모여서있는 사람들중의 누가 정정했다.

《…즉 다시말해서 전당비서 쓰딸린동지요. 바로 이것이 이달 초이튿날 신문이외다.》 로인은 늙은이다운 목소리로 뜨직뜨직 말했다. 그리고 이미 저고리안주머니에서 차곡차곡 네겹으로 접은 신문을 꺼냈다. 《우리는 당신이 오시기 조금전에 우리들끼리 이것을 랑독했소. 그런데… 이 신문을 보구 우리는 당신과 손을 끊게 됐지요! 우리들 즉 다시말해서 우리 농사군들이 살길은 다르거던요. … 어제 우리는 이 신문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는 늙은 나이두 불구하구 말을 타구서 읍에 갔댔소. 렙쇼브골짜구니를 건널때는 눈물을 흘려가며 헤염쳐갔지만 하여간 그 골짜구니를 건넜지요. 읍에 가서는 어떤 아는 사람한테 사정사정해서 돈을 꾸어가지구 이 신문을 샀지요. 열다섯루블리를 냈소! 후에 십꼬뻬이까씩 촌회에서 모아서 나한테 주기루 그렇게 결정했소. 허긴, 신문이 그만한 가치는 있어요. 약차하면 더 가치가 있을는지두 모르지. …》

《령감,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하구있소? 무슨 얼토당토 않은 소리야? 로망을 하지 않았는가? 누가 여기 모인 사람들모두를 대표해서 말할 권리를 주었어?》 뽈롭쩨브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금빛도는 짤막한 입수염이 나고 코가 납작한 한 40살 나보이는 조그마한 까자크가 나섰다. 그는 바람벽곁에 모여서있던 사람들속에서 뛰여나와 도전하듯이 사납게 입을 열었다.

《여보, 이전 장교동지. 우리네 늙은이들한테 좀 고함질을 마소. 그렇지 않아두 옛세월에 당신들은 족하구두 남으리만큼 그네들에게 고함질을 했지요. 상전행세는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는 몰풍스럽지 않게 얘기해야 합니다. 쏘베트정권이 선 이후루 우리는 그런 취급을 받

던 버릇이 없어졌지요, 알겠소? 그리구 우리 저 령감님말대루 우리들 사이에서는 회의가 있었는데 〈쁘라우다〉에 난 그 기사를 보았으니만큼 우리는 폭동을 일으키지 않기루 작정했지요. 우리 길과 당신네 길은 갈라졌수다! 우리 부락의 당국이 못나게 일을 해서 억지루 사람들을 꼴호즈에 몰아넣구 많은 중농들을 터무니없이 부농취급을 했는데 전체 인민을 억지루써는 다스리지 못한다는걸 우리 부락 당국은 몰랐지요. 우리네 쏘베트위원장은 회의에서 자기를 반대해서는 말 한마디 할수 없게 우리를 억눌렀으니까. 우리의 북두끈을 잔뜩 졸라매서 숨두 쉴수 없었지. 그렇지만 좋은 주인이란 모래터나 힘든 길에서는 말 안장끈을 늦춰서 편하게 해주려구 애쓰는 법이거던. … 그야 물론 이전에 우리는 이건 중앙에서 우리 기름을 짜내자구 그런 명령이 오는거라구 생각했댔지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그런 선전이 나온거라구 추측하구 우리들사이에서는 〈바람이 안 불면 바람개비가 안 돈다〉구들 말했었지요. 그런 까닭으루 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구 결심했구 당신네 동맹에두 들어갔던거외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백성을 억지루 꼴호즈에 몰아넣거나 허락도 없는데 교회를 닫아버린 지방의 당원들을 쓰딸린이 용서없이 두드려대구 직책에서 해임시켜버리게 되였거던요. 그러니까 농사군은 숨이 나가구 안장끈이 늦춰졌으니까 들어가구싶으면 꼴호즈에 들어가구 싫으면 개인농대루 있게 되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네와 의의좋게 갈라지기루 결정했수다. … 우리가 어리석게 서명한 그 서면들을 우리께 도루 주구서 가구싶은데루 가슈. 우리는 자신이 깨끗치 못한 몸이니만큼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겠수다. …》

뽈롭쩨브는 창문으로 물러서서 문설주에 몸을 기댔다. 그의 얼굴은 모두의 눈에 뜨일만큼 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그가 좌중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물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바싹 죄여든듯 힘차게 울렸다.

《이게 뭐요, 까자크 여러분? 변절이요?》

《그건 마음대루.》 또 한명의 로인이 대답했다. 《마음대루 부르슈.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당신들과 동행이 아니외다. 수령자신이 우리를 옹호해나섰는데 왜 우리가 길을 엇나가겠소? 나만 하더래두 선거권을 박탈당했구 부락에서 추방하려구들 했지만 내 아들이 붉은군대에 있으니만큼 선거권을 되찾을수 있단 말이요. 우리는 쏘베트정권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우리 부락의 란장판을 반대한건데 당신들은 전

체 쏘베트정권을 반대하게끔 우리를 돌려세우려구 했지요. 아니요. 그건 우리께 좋지 않수다! 호의루 부탁할 때 우리께 서면을 돌려주슈.》

그러자 또 한명의 중년까자크가 굽실굽실한 턱수염을 천천히 쓸어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실술 했수다, 뽈롭쩨브동지… 참말이지 실술 했수다! 우리가 당신네 하구 관계를 맺은건 옳은 길이 아니였지요. 경험에 손해는 없다구 이제는 남을 의지하지 않구 해나가겠어요.… 전번엔 당신이 황금이라두 줄것처럼 약속하기에 우리는 그 약속이 너무 굉장한 바람에 깜짝 놀랐댔지요! 당신은 폭동이 일어나면 동맹국들이 삽시간에 무기며 모든 군비를 보내줄거라구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공산당원들을 사격하는것뿐이라구 했지요. 그런데 후에 우리가 잘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대체 어떻게 되겠소! 무기는 싼 물건이니까 그네들이 보내준다 하구 그래 그네들자신두 우리 땅에 기여들테지? 그리구 기여들기만 한다면 그네들과 좋게 헤여지진 못해요. 총을 가지구 그네들을 로씨야땅에서 쫓아내야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공산당원들루 말하자면 우리 동족이구 이를테면 한동아리사람들이지만 그 귀신들은 알지두 못할 말들을 지껄이면서 거드름만 피우구 겨울동삼에 눈 한웅큼두 주기를 싫어하는자들이 돼서 그놈들하구 맞다들면 꼼짝달싹 할수 없습네다! 나는 20년에 외국에 가서 갈리뽈리에서 프랑스빵을 좀 먹었소마는 거기서 발을 빼내리라구는 생각두 못했댔소! 그자들의 빵은 경치게 쓰거던! 그리구 또 많은 민족들을 나는 봤지만 로씨야인민보다 더 무던하구 마음이 순한 사람은 없단말이요. 꼰쓰딴찌노뽈과 아테네의 항구들에서 일했기때문에 영국인, 프랑스인들을 많이 보았소. 인두루 빤빤히 대려놓은것 같은 장교놈이 옆을 지나갈 때면 내가 수염두 안 깎구 쓰레기처럼 더러운데다 땀내가 푹푹 나니까 입을 삐쭉합니다. 나를 보는것두 구역이 나는 모양이지. 그자들의 해병들은 술집에서 두루미춤을 추게 하기 시작했지요!》하고 까자크는 히죽이 웃었다. 《로씨야식으루 우리 주먹을 어떤 영국놈팽이한테 멕이면 그자는 곤두박질을 하구 나가자빠져서 머리를 얼싸쥐구 숨을 헐떡거리지요. 그자들은 로씨야의 주먹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게 배불리 처먹기는 하면서두 허약한 위인들이더군. 우리는 그 동맹자들을 이모저모 깨물어 맛을 보았소! 아니요, 우리는 우리 정권과 어떻게 해서든 타협을 하구 집안일을 밖으로 끄집어

낼건 없어요. … 그 서면을 도루 돌려주슈!》
(저 사람이 이제 들창으루 내빼면 나만 남아 모래백사장에 오른 새우신세가 되겠구나! 괜한 참견을 했지!… 아 어머니, 나쁜 때 날 낳아주었구려! 망할것하구 관계를 맺었어!… 마귀한테 홀렸다니까!) 야꼬브 루끼치는 걸상우에서 뒤스럭대며 줄곧 뽈롭쩨브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한편 뽈롭쩨브는 태연스레 들창가에 서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뺨은 창백한 빛이 사라지고 분노와 결의로 해서 자주빛으로 물들었다. 이마에는 가로 두줄의 굵은 피대줄이 부풀어오르고 두손은 꽉 창턱을 그러쥐고있었다.
《그럼 할수 없지. 까자크제군, 그건 당신들의 마음대루 하시오. 우리하구 함께 나가구싶지 않다면 마루바닥을 쪼면서 간청하지는 않겠소. 서면은 돌려주지 못하겠소, 내가 가지구있지 않구 본부에 있으니까. 그리구 당신들은 공연히 근심하구있소. 나는 게뻬우에 당신들을 고소하러 가지는 않을테니까. …》
《그야 그럴테지.》 한 로인이 동의했다.
《…너희들이 겁내야 할것은 게뻬우가 아니라…》 이때까지 천천히 부드럽게 말해오던 뽈롭쩨브가 불시에 목청껏 웨쳤다. 《우리를 겁내야 한다! 우리는 너희들을 변절자로서 총살해버릴테다! … 자, 길을 내라! 비켜서! 바람벽에 물러서라!…》하더니 권총을 꺼내여 그것을 내뻗치고 방문으로 향했다.
까자크들은 얼뻥뻥해서 비켜섰다. 야꼬브 루끼치는 뽈롭쩨브보다 앞서서 어깨로 방문을 탕 열어제끼고 팔매친 돌멩이처럼 복도로 날아나갔다.
두사람은 어둠속에서 말을 풀어 속보로 뜰에서 나갔다. 집안으로부터는 흥분한 목소리들이 와—하고 들려왔으나 아무도 나오지는 않았고 누구 한사람 그들을 만류해보려는 까자크도 없었다. …

×

그레먀치 로그로 돌아와 야꼬브 루끼치가 빨리 몰아대여 함씬 땀이 난 말들을 꼴호즈마구간에 돌려주고 오자 뽈롭쩨브는 그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는 반외투도 털모자도 벗지 않았다. 들어가자 곧 랴찌옙스끼에게 차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련락원이

가져온 편지를 읽고나서 그것을 뻬치까에 태워버린 다음 자기의 소지품들을 전대에 넣어 잡아매기 시작했다.

야꼬브 루끼치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책상앞에 앉아있었다. 랴찌옙스끼는 눈을 번뜩거리면서 모젤권총을 소제하고있었다. 총기름을 친 부속품들을 정확하고 날랜 동작으로 결합해나갔다. 뽈롭쩨브는 방문소리에 이마에서 손을 떼고 야꼬브 루끼치한테로 얼굴을 돌렸다. 그러자 야꼬브 루끼치는 쑥 들어간 벌개진 대위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널직한 코마루가 눈물에 젖어 번쩍거리는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

《이번에… 우리 일을 성공 못해서 우네. …》 뽈롭쩨브는 쩡쩡한 목소리로 말하고 곱실곱실한 흰 털모자를 벗어서 그것으로 눈을 훔쳤다.

《돈에두 참된 까자크들은 적어지구 변절자와 악당같은 불한당들만 많아졌네. … 지금은 떠나가지만 루끼치, 우리는 돌아올테야! 이자 편지를 받았네. … 뚜반쓰꼬이와 또 우리 읍에서두 역시 까자크들이 폭동을 거절했네. 쓰딸린이 그 론문으루 그자들을 자기 편에 붙인걸세.》 뽈롭쩨브의 목안에서는 무엇인지 꿀럭꿀럭 소리를 냈다. 광대뼈밑에서는 근육이 씰룩거리고 커다란 두손의 손가락들은 갈구리처럼 짓부러져 마디마디가 새하얘지리만큼 주먹을 그러쥐였다. 거쉰 소리를 내면서 긴 한숨을 내쉬고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펴더니 입 한모서리에 벙긋 웃음을 띄웠다.

《무슨 자식들이! 너절한 놈들같으니!… 신명의 저주를 받을 못난이들이야!… 그래두 좋아! 이제 깨닫구 후회하더래두 그땐 늦을걸. 우리는 떠나네, 야꼬브 루끼치. 조석을 대주구 또 여러가지 돌봐준데 대해서 감사하네. 임자한테 지시를 주네만 꼴호즈에서는 나오지 말구 백방으루 그들을 방해하게. 그리구 우리 동맹에 들어있던자들한테는 내가 단단히 이르더라구 말해주게. 우리는 일시 퇴각하나 분쇄된건 아니야. 우리는 또다시 돌아올것이구 그때에는 우리들한테서 떨어져나갔거나 우리를 배반하구 또… 조국과 돈을 해방하는 위대한 사업을 배반한자들에게 불행이 내린다. … 까자크들의 환도에 맞아 운명하는것이 그런자들이 받을 제재라구 그렇게 말하게!》

《그렇게 말하지요.》 야꼬브 루끼치는 중얼거렸다.

뽈롭쩨브의 이야기와 눈물에 그는 감동했다. 그러나 배속으로는 위

험한 숙박주인노릇을 면하게 된것과 모든것이 그처럼 무사하게 끝나고 앞으로는 재산과 자기 목숨을 내대지 않아도 된다는것이 한량없이 기뻤다.

《그렇게 말하지요.》되풀이하고 그는 용기를 내여 물었다. 《그래, 당신은 어데로 가시는가요? 알렉싼드르 아니씨모비치.》

《그건 알아 뭣하겠나?》 뽈롭쩨브는 경계하듯 물었다.

《혹시 당신한테 용무가 있거나 또 어떤분이 당신을 찾아오시지 않을가싶어서요.》

뽈롭쩨브는 고개를 젓고 일어섰다.

《아니, 그건 임자한테 말할수 없네. 그렇지만 한 서너주일후에 돌아올줄 알게. 작별하세.》 하고 선뜻 한손을 내밀었다.

그는 제손으로 말에 안장을 메우고 끈끈스레 말등거리를 어루만지고 북두끈을 조였다. 랴찌옙스끼는 뜰안에 나와서야 야꼬브 루끼치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의 손에 지페 두장을 쥐여주었다.

《당신은 걸어서 가십니까?》 야꼬브 루끼치는 그에게 물었다.

《그건 임자네 뜨락에서 나갈 때뿐이구 거리에만 나가면 자가용자동차가 나를 기다리구있지.》 의기가 떨어지지 않은 중위는 익살을 피웠다. 그는 뽈롭쩨브가 안장에 올라타기를 기다려 등자띠를 잡아쥐였다. 《자 공작님, 적의 진영으루 내달리십쇼. 나는 정강말로라도 뒤떨어지지 않으리다.》

야꼬브 루끼치는 삽짝문밖까지 손님들을 전송하고나서 커다란 안도감을 느끼면서 문에 빗장을 꽂고 십자를 그었다. 그리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듯 랴찌옙스끼한테서 받은 돈을 호주머니에서 꺼내들고 오래동안 새벽을 앞둔 어둠속에서 그것이 얼마짜리 지페인가를 분간하려고 해보았으며 또 손으로 더듬어 빨각거리는 소리로써 그것이 가짜지페가 아닌가 알아내려고 해보았다.

제 28 장

3월 20일 아침 우편배달부가 범람때문에 늦어진 신문을 배달했는데 그 신문에 쓰딸린동지의 론문 《성공으로 인한 현훈증》이 게재되여있었다. 신문 《몰로뜨》 석장이 하루동안에 전 농가를 돌고돌아 저녁녘에는 때묻고 누눅해져 다 해진 휴지가 되고말았다. 그레먀치 로그가 생긴 이후로 이날처럼 신문이 많은 독자들을 그 주위에 모여들게 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패거리로 집안과 골목, 집짐승우리뒤, 창고처마밑에서들 신문을 읽었다. … 한사람이 소리를 내여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애써 정숙을 지키고 들었다. 론문에 대해서 곳곳에서 대론쟁이 벌어졌다. 각자가 자기투로 해석을 내렸는데 대체로 제멋대로였다. 그리고 거의 어디서나 나굴리노브 혹은 다위도브가 나타나면 어째선지 급히 신문을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넘기여 신문은 마치 흰 새와도 같이 군중속을 휘돌아 마침내 어떤 사람의 커다란 호주머니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제 꼴호즈는 썩어버린 옷처럼 혼솔이 터져나갈게야!》 득의양양한 반니크가 선참으로 억측을 내놓았다.

《두엄은 흘러가구 묵직한 건덕지는 남지.》 좀까 우샤꼬브는 반대했다.

《이봐, 거꾸로 반대가 되지 않게 해.》 독설을 토하고 반니크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좀 기대될만 한 사람들한테 《꼴호즈에서 탈퇴해버려, 아직 늦지 않으니!》 하고 수군거리기 위해서 급히 떠나갔다.

《중농들은 량다리를 걸쳤네! 한다리는 꼴호즈에 디디고 또 한다리는 빼여들고 어떡하면 이제 꼴호즈에서 빠져나가 자기 농사루 되돌아갈가 하구 벌써 주의깊게 노리구있네.》 빠블로 류비슈낀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있는 꼴호즈원－중농들을 가리키면서 메노크에게 말했다. 대체로 알지들 못하면서도 녀편네들은 녀인의 습성으로 지레짐작과 억측을 일삼았다. 그리하여 부락에는 류언비어가 자자해졌다.

《꼴호즈들이 해산된다는군!》

《소들을 돌려주라구 모스크바에서 명령했대.》

《부농들을 도루 불러다 꼴호즈마다에 넣는다나.》
《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되준다데.》
《뚜뱐쓰끄이의 교회당을 열구 거기 모았던 종곡을 꼴호즈원들한테 량곡으루 나눠준다는군.》
커다란 사건들이 닥쳐오고있었다. 모두가 그것을 느꼈다. 밤에 비공개당세포회의에서 다위도브는 신경을 돋우며 이렇게 말했다.
《쓰딸린동지의 론문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씌여졌소! 가령 마까르는 이 론문에 눈섭두 아니구 정통으로 눈을 찔렸소! 마까르는 성공으루 인해서 현훈증을 일으켰구 아울러 우리두 좀 머리들이 돌았었소. … 동지들, 의견들을 말해주시오, 무엇을 시정해야 할지? 가금은 제때에 생각이 옳게 들어서 나눠주었지만 양과 소는 어떻게 해야 할는지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신들께 묻구싶소. 만약 이 일을 정치적으루 하지 않는다면 사실말이지…그것은 〈힘있는자는 살아나가라!〉, 〈꼴호즈에서 빠져나가라!〉는 신호비슷이 되구말겁니다. 그러면 모두 도망치거나 집짐승들을 끌어내가 우리는 깨진 여물통만 안구서 남게 될게요. 아주 뻔한 일이요!》
나굴리노브는 일어서서 눈물어린, 피가 선 눈으로 뚫어지게 다위도브를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러자 다위도브는 마까르한테서 독한 워드까냄새가 확 풍겨오는것을 느꼈다.
《그 론문에 내가 눈을 찔렸다구? 아니야, 눈이 아니라 바로 심장을 찔리웠네! 잔등까지 뚫고나갔어! 내 머리가 핑 돈것은 우리들이 꼴호즈를 만든 때가 아니라 바로 이 론문을 읽은 후야. …》
《워드까를 한병이나 마셨으니까 머리두 돌겠지요.》 와뉴쉬까 나이쵸노브가 조용히 한마디했다. 라즈묘뜨노브는 벙긋하고 동감이라는듯이 눈을 끔쩍했고 다위도브는 책상우에 머리를 숙였다. 한편 마까르는 해쓱해진 코방울을 크게 벌렸다. 흐리터분한 그의 두눈에는 광기가 번뜩이였다.
《임자같은 새파랗게 젊은것이 내게 훈계를 하구 기갈을 하려구는 하지 말아! 임자가 아직 배꼽두 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벌써 쏘베트정권을 위해서 싸웠구 당에 들어있었다. … 암, 그렇지! 내가 오늘 술을 마신건 그건 다위도브의 말투대루 사실이지. 그리구 한병이 아니라 두병이야!》
《뽐낼 건덕지가 없는가보군! 그래서 못난 소리만 하지. …》 라즈

묘뜨노브가 무뚝뚝하게 쏘아붙였다.

마까르는 그가 있는쪽을 힐끗 보았을뿐아니라 어조가 조용해졌으며 영문모르게 손을 흔들어대던것을 그치고 손을 꽉 가슴에 가져다댄채 그 두서없는 열렬한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 그 자세로 서있었다.

《나는 지금 못난 소리는 안하네. 안드류쉬까, 거짓말 말어! 내가 술을 마신건 쓰딸린동지의 그 론문이 총알처럼 나를 꿰뚫어 내 몸안에 뜨거운 피가 끓기때문이네…》 마까르의 목소리는 떨리고 더욱 낮아졌다. 《나는 여기 세포비서지, 그렇지? 내가 사람들과 또 자네들에게 닭이며 오리들을 꼴호즈에 몰아오라구 야단했지, 그렇지? 나는 꼴호즈를 위해서 어떻게 선전했겠나? 이렇게 했네. 부락내 악한들중의 어떤자들에게는 그자들이 중농축에 들어있다 하더래두 내놓구 이렇게 말했지. 〈꼴호즈에 안들어가? 그럼 너는 쏘베트정권을 반대하느냐? 19년에두 우리한테 맞서서 저항하더니 지금두 반대야? 그렇다면 내게서 은정을 바라지 말아라. 나는 너같은 벌레를 온갖 잡귀들두 가슴이 서늘하게끔 문질러놓을테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 말했지! 그뿐만아니라 권총으루 책상까지 두드렸네. 그렇게 안했다구는 안하네! 하기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한건 아니지만 특히 배속으루 검질기게 우리를 반대하는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했네. 나는 지금 취한게 아니야. 제발 객적은 소리를 말아주게! 나는 반년이래 처음 술을 마셨네. 그 론문은 어떤 론문이겠나? 그 론문은 이렇네, 우리의 쓰딸린이 그 론문을 쓰시자 나는, 이 마까르 나굴리노브는 철썩! 하구 채여서 선창에 코를 박구 녹초가 돼서 나가자빠진셈이야. … 이게 뭐람? 동지들! 나는 닭이며 기타 짐승들루 해서 내가 좌경을 범했다는걸 인정하네. … 그렇지만 여보게들, 왜 나는 좌경을 범했나? 그래, 왜 자네들은 내 목에다 뜨로쯔끼를 걸어서 그자와 한데 겨룰려구 그러나. 그래, 내가 그자와 함께 연장을 끌었나? 다위도브, 자네는 늘쌍 나를 좌익뜨로쯔끼스트라구 책망했지. 그렇지만 나는 뜨로쯔끼처럼 학식이 없구 또 그자처럼 학자나부랭이루 당에 들어있는게 아니라 심장으루, 당을 위해서 흘린 피루써 당에 들어있네!》

《자네 본질적으루 말을 하게, 마까르! 왜 자네는 이같이 귀중한 시간에 한가지 푸념만 하나? 시간이 없네.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모두의 과오를 시정할가 하는 의견이나 말하게, 자네처럼 그런다면 뜨로쯔끼 한가질세. 나는 당속에 있구 내가 당이다 하는 격이야.》

《내게 말을 시켜주게.》 마까르는 화끈 달아올라 오른편손을 더욱 힘껏 가슴에 가져다대고 으르렁거렸다. 《나는 뜨로쯔끼하구는 절연하네! 이제는 그런자와 같은 수준에 서는게 수치야. 나는 변절자가 아니네. 미리 자네들한테 경고하지만 나를 뜨로쯔끼스트라구 부르는 작자는 상판대기를 쳐주겠네! 뼈다귀가 늘씬할만큼 쳐줄테야! 내가 닭건으루 해서 좌경을 범한건 뜨로쯔끼를 위해서가 아니네. 나는 세계혁명을 너무 서둔것이야! 그때문에 나는 모든걸 더 빨리 해치우구 사유주의자—소부르죠아들을 좀더 제깍제깍 걷어치우구싶었네.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제재를 향해서 한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고 싶었던거네! 안 그래? 왜들 잠자쿠 있나? 이번에 말할건 이렇네, 쓰딸린동지의 론문에 의하면 나는 어떤잔가? 그 론문가운데 이렇게 씌여있네.》 마까르는 반외투호주머니에서 《쁘라우다》를 꺼내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꼴호즈운동에 대한 이러한 외곡, 이러한 관리식명령, 농민들에 대한 이러한 당치않은 위협들은 누구에게 필요한것인가? 우리의 적들에게밖에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것이다. 그것들은, 그 외곡들은 어떠한데로 이르게 할것인가? 우리의 적들을 유리하게 하는데로, 꼴호즈운동의 사상의 위신을 훼손시키는데로 이르게 할것이다. 좌익이라고 자처하는 이러한 외곡의 창안자들이 사실에 있어서는 우경기회주의의 물방아에 물을 대여주는것임은 명백하지 않는가.〉 이런즉 나는 무엇보다두먼저 명령을 내리는 관리이며 외곡의 창안자구 꼴호즈원들의 위신을 훼손시켰으며 나는 우익기회주의자들에게 물을 대여주어 그들의 물방아를 돌아가게 한걸루 되네.》

《자, 그만하세!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하네!》 다위도브가 일어서서 바싹 마까르한테로 다가가 여느때없이 차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나굴리노브동지, 쓰딸린의 론문, 그건 중앙위원회의 로선이네. 자네는 그래, 그 론문에 찬성하지 않나?》

《아닐세.》

《그럼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나? 말하자면 나는 내 과오를 인정하네. 사실을 거역할수는 없구 어거지를 쓸수두 없으니까. 나는 우리가 작은 집짐승들과 송아지를 공동소유화함으로써 지나친짓을 했다는걸 인정할뿐만아니라 자기의 과오들을 시정하려네. 구역당위원회의 죄

과두 있지만 우리는 집단화의 비률에 지나치게 열중하구 꼴호즈를 실제적으루 강화하는데 너무 적게 일했네. 자네는 그걸 인정하나, 나굴리노브동지?》

《인정하네.》

《그럼 동지들.》 다위도브는 활기를 띠였다. 《나는 이렇게 할것을 제의합니다. 즉 작은 집짐승과 암소는 꼴호즈원들에게 돌려주되 암소 두마리를 내놓았던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한마리를 꼴호즈의 공동소유집짐승으로 남겨두도록 선전합시다. 래일은 미리 아침부터 회의를 소집하구 해설사업을 실시해야겠소. 이제 해설사업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겠소! 나는 꼴호즈에서 탈퇴하는자들이 생기지 않을가 우려하는데 우리는 당장에두 밭으로 일을 하러 출동해야 하지 않소.… 마까르, 자네는 여기서나 솜씨를 보여주게! 꼴호즈에서 탈퇴하지들 않도록 권총을 쓰지 말고 설복해주게. 그건 어디까지나 사실루 될걸세!》

라즈묘뜨노브는 당장 래일부터 쥐박멸을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쥐박멸을 위해서는 전야작업을 하지 않을 꼴호즈원들중의 일부를 동원하고 물을 나르는데 몇짝의 소를 배당하며 학교장 쓰삐니한테는 쥐사냥을 방조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밭에 나와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정되였다.

《나굴리노브를 집에 데리구가서 쉬게 하구 술을 안 마시도록 주의해주게.》 다위도브는 라즈묘뜨노브에게 속삭였고 이쪽은 그렇게 하마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다위도브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 루까슈까 체바꼬브네 집옆의 쓰러진 울바자우에 까자크들이 앉아있었는데 그쪽에서 왁작하게 말소리가 들려왔다. 다위도브는 길 맞은쪽을 걸어가고있었는데 바로 그앞에 왔을 때 어둠속에서 누군가 알지 못할 사람이 빈정거리는 굵은 목소리로 자신있게 말하는것을 들었다. 《암만 주구 암만 내두 그자들은 그냥 부족하거던!》 그러자 또 한명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쏘베트정권에는 우익과 좌익 두 날개가 돋았네. 언제나 이놈의 쏘베트정권이 우리한테서 지옥으루 날아갈려는지?》

여러 목소리가 자지러지게 웃었다. 그러다가 불시에 급히 웃음을 그쳤다.

《쉬!… 다위도브네!》 불안스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즉시로 아까 그 굵은 목소리가 이번에는 추호도 빈정거리는 빛이 없이 짐짓 사무적으로 느릿느릿 말했다.

《그렇—지… 비만 내리지 않았던들 제깍 파종을 해치웠을걸. … 땅이 참말 전에없이 잘 마르거던. … 자 그럼 여보게들, 가볼가? 그럼 또 래일 보세!》

기침소리, 발걸음소리…

제 29 장

다음날 스물세통의 꼴호즈탈퇴신청이 제출되였다. 탈퇴한자들은 대다수가 중농들인데 제일 늦게 꼴호즈에 들어왔고 회의에서는 늘 말이 없으며 항상 관리성원들과 싸움만 하고 심드렁해가지고 일에 나가던축들이였다. 나굴리노브가 《대체 저것들두 꼴호즈원이야? 저것들은 밥두 아니구 죽두 아니라니까!》한것은 그들을 두고 한 말이였다. 사실상 작업반들에서 송장같이 무거운 짐이던자들, 정권의 눈밖에 나지나 않을가 위구해서든가 또는 이미 정월달에 시작되였던 전반적인 힘찬 꼴호즈가입바람에 휩쓸려 꼴호즈원이 되였던자들이 탈퇴했다.

다위도브는 탈퇴신청을 받으면서 그자들을 설복해보려고 했으며 좀 더 생각하고 기다려보라고 권했으나 탈퇴자들은 막무가내여서 다위도브도 마침내 단념하고 손을 내저었다.

《나가시오. 그렇지만 잊지 마시오. 다시 꼴호즈에 들어오겠다구 청을 낸다면 그때에는 넣어줄지 어떨지 우리는 좀 생각할테요!》

《결코 다시 청을 내지는 않을테요! 꼴호즈에 들지 않구두 살아갈수 있어요. … 그런것이 이것 보슈, 다위도브. 이전에는 꼴호즈가 없었어두 우리는 이럭저럭 지냈거던요, 굶어서 부어죽지 않았을뿐더러 자기것은 자기가 마음대루 했지 남한테서 이렇게 밭을 갈아라, 저렇게 씨를 뿌려라 하구 지시를 안 받았어요. … 그러니까 지금 꼴호즈에 들지 않구라두 살아가구 뭐 답답할것두 없다고 생각해요!》 비끈 밤빛웃수염속으로 벙글거리면서 어제날의 꼴호즈원 이완 바딸리씨꼬브가 일동을 대신해서 대답했다.

《우리 역시 당신네가 나간대두 이럭저럭 살아가겠소! 눈물을 흘리

거나 안달은 안할테요, 사실말이지! 아낙네들이 달구지에서 내리면 말이 수월해지는 법이요.》 다위도브는 쏘아붙였다.

《오손도손 헤여진다면 그게 제일 좋지요. 옥신각신없이 서루 좋게 헤여져야지요. 우리 집짐승을 작업반에서 끌어와두 좋겠소?》

《아니요, 우리는 그 문제를 관리부에서 토의하겠소. 래일까지 기다려주시오.》

《우리는 기다릴 경황이 없는데요. 당신네 꼴호즈에서는 강림제후에 씨를 뿌리기 시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밭에 나가야겠소. 래일까지 기다려서 만약 래일두 그냥 당신들이 우리 집짐승을 붙잡아두려구 한다면 그때에는 제 손으루들 끌어오겠소!》

바딸리씨꼬브의 목소리에는 로골적인 위협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대답할 때 다위도브는 화김에 저으기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이 관리부의 허가없이 어디 꼴호즈마구간에서 무엇이든 가져가내나 두구봅시다! 첫째로, 주지 않을거구 둘째로, 만약 가져간다면 재판에서 추궁을 받을게요.》

《자기 집짐승인데두?》

《아직은 꼴호즈의 집짐승이요.》

다위도브는 이런따위의 이전 꼴호즈원들과는 조금도 애석한 느낌이 없이 헤여졌다. 그러나 제미드 몰춘의 탈퇴신청은 그에게 불쾌한 놀라움을 가져다주었다. 제미드는 이미 초저녁때가 되여서 찾아왔는데 억병술에 취하고 변함없이 말이 적었다. 인사도 하지 않고 신문지쪼각을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신문기사우에 《꼴호즈에서 내보내주시오.》 하고 마치 허벼놓은듯이 가로씌여있었다.

다위도브는 간단한, 몰춘다운 신청서를 주무르고있다가 저으기 의아쩍고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이건 웬일이요, 응?》

《나가겠소.》 몰춘은 벽력같이 소리를 냈다.

《어디루? 왜?》

《꼴호즈에서 나가겠단 말이요, 물론.》

제미드는 아무 말도 안하고 한쪽팔을 크게 벌렸다.

《산지사방으루 퍼질셈이요?》 라즈묘뜨노브가 그의 몸짓을 번역했다.

《그렇소, 그렇소!》

《그래, 왜 당신은 나가오?》 이 말적은 열성자인 빈농이 탈퇴하려는데 놀란 다위도브는 추궁했다.

《남들이 나가니… 그래 나두 따라나가지요.》

《그래, 남이 낭떠러지에 꺼꾸루 박힌다면 자네두 그렇게 할텐가?》 라즈묘뜨노브가 조용히 웃음을 띄우면서 물었다.

《원, 그거야 그럴수 없지!》 몰춘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빈통 굴리는 소리와 놀랄만큼 흡사했다.

《할수 없지, 나가시오.》 다위도브는 한숨을 내쉬였다. 《자기 암소를 끌어가두 좋소. 당신은 빈농이니만큼 이러쿵저러쿵 안하구 내주겠소, 사실말이지. 내주지, 라즈묘뜨노브?》

《돌려줘야지.》 라즈묘뜨노브는 동의했다. 그러자 제미드는 또다시 큰소리로 껄껄 웃고 쥐여던지듯이 말했다.

《저, 암소는 내게 필요없소! 그걸 꼴호즈에 주겠소. 나는 데릴사위노릇을 가야 해요. 어떻소? 아마 놀랄걸?》 하고는 간다는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다위도브는 들창밖을 내다보았다. 몰춘이 층층대옆에 꼼짝도 안하고 서있었다. 넘어가는 자주빛태양이 곰같은 그의 잔등이며 바로 깃우까지 곱실곱실 금빛도는 털이 자란 든든한 갈색목을 아낌없이 물들이고있었다. 꼴호즈의 뜰은 눈녹은 물에 잠겨 층층대에서 곡물창고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물웅뎅이를 이루고있었다. 층층대에서 울바자옆으로 묽은 눈과 진창우로 무수히 발에 밟히운 오솔길이 뻗어있었다.

사람들은 보통 물웅뎅이를 돌아 울짱을 붙들면서 바로 울바자밑으로 해서 걸어가는것이였다. 제미드는 무거운 깊은 생각에 잠겨 서있었다. 이슥고 몸을 한번 기우뚱하더니 갑자기 술취한 사람모양으로 마구 곧장 물속으로 발을 내디디여 천천히 비칠거리면서 곡물창고까지 갔다.

흥미깊게 그를 관찰하고있던 다위도브는 몰춘이 처마밑에 놓여있는 지레대를 들고 대문으로 다가가는것을 보았다.

《저자가 우리한테 행패를 하려는게 아닌가?》 라즈묘뜨노브는 들창앞으로 다가오며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그는 몰춘의 육체적위력에 걷잡을수 없는 존경의 념을 품고 언제나 따뜻이 호의로써 그를 대하는것이였다.

몰춘은 벙그죽 대문을 열고 언 눈무더기를 어이차소리와 함께 힘껏 지레대로 내질러 대번에 세뿌드나 될 커다란 얼음덩이를 깨내였다. 대문에 얼음쪼각들이 우박처럼 튀였다. 지레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굸으로 뜰안의 물이 곧 소리도 없이 내달았다.

《아니야. 저 사람은 다시 꼴호즈에 돌아오네!》라즈묘뜨노브는 다위도브의 어깨를 잡고 몰춘이 있는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어지러운것을 보자 다 잘해놓구 갔네. 이를테면 저 사람의 마음은 우리 꼴호즈에 남아있는걸세! 내 말이 옳지?》

×

쓰딸린동지의 론문이 게재된 신문이 구역에 배달된 후 구역당위원회는 좌경의 결과들을 청산할데 관하여 조리없이 분명치 않게 이야기한 장황한 지시문을 그레먀치의 세포에 보내왔다. 모든 점으로 보아 구역에서는 완전히 할바를 모르고있다는것이 느껴졌다. 구역의 상부로부터는 누구 한사람 꼴호즈들에 나타나지 않았고 꼴호즈탈퇴자들의 재산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데 대한 현지의 조회에 대해서 구역당위원회도 구역농업조합도 대답을 주지 못했다. 오직 《꼴호즈운동에 있어서의 당로선의 외곡에 대한 투쟁에 관하여》라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서야 비로소 구역당위원회는 허둥대기 시작했다. 청산한 부농들의 명단을 급속히 제출할데 대한 지령, 공동소유화했던 소, 집짐승 및 가금을 꼴호즈원들에게 반환할데 관한 지령, 선거권을 박탈당한자들의 명단을 재검토할데 관한 지령이 그레먀치 로그에 쏟아져내려왔다.

이와 동시에 3월 28일 오전 10시의 구역당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구역검열위원회 련합회의에 나굴리노브를 호출하는 공식통지서가 배달되였다.

제 30 장

한주일동안에 그레마치 로그에서는 약 백호가 꼴호즈를 탈퇴했다. 특히 제2작업반이 많이 축가서 겨우 스물아홉호밖에 안 남았고 또 그중에서 몇명은 작업반장 류비슈낀의 말투를 빌면 도주후보지였다.

여러 사건들이 부락을 뒤흔들었다. 날마다 다위도브에게 새로운 불유쾌한 일들이 생기였다. 탈퇴자들에게 역축과 농기구를 현재 돌려줄것인가 혹은 파종후에 돌려줄것인가 재차 그가 문의한데 대해서 구역농업조합과 구역당위원회는 요란스러운 명령으로써 대답했는데 그 명령의 내용은 모든 힘과 수단을 다해서 꼴호즈의 붕괴를 방지하고 될수록 많은 꼴호즈원들이 탈퇴하지 않도록 하며 탈퇴자들과의 모든 청산과 또 재산의 반환을 가을로 미루라는것이였다.

그러자 어느날 구역농업부의 부장이며 구역당위원회 상무위원회의 한사람인 베글릐흐가 그레마치를 찾아왔다. 그는 부랴부랴 정황을 알아본 다음(그날로 그는 몇개의 촌쏘베트를 돌아야 하는것이였다.) 이렇게 언명했다.

《지금은 집짐승이며 농기구를 탈퇴자들한테 절대루 내주지 마시오. 가을에 가서 봅시다.》

《사람들이 멱살이라두 잡을듯이 달려드는데요!》 다위도브는 반대해보았다.

결단성있고 꿋꿋한 베글릐흐는 미소를 띄울뿐이였다.

《그럼 당신은 당신대루 달려들구려. 그야 원래 말하자면 돌봐줘야 하지만 관구당위원회에서는 이런 방침이요. 계급적원칙을 지키면서 특별한 경우에만 내도록 하자는것이요.》

《다시 말하면요?》

《그것쯤 다시 말하면이 없이두 당신은 알아차려야 할게지! 빈농에게는 내주구 중농에게는 가을에 내준다구 약속하는거요, 알았소?》

《거야 안되지요, 베글릐흐. 백프로의 집단화는 어떻게 합니까?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든지간에 그리고 될수록 속히 백프

로에 가져다대라.〉는 그런 방침이였거던요. 그래서 머리가 핑 돌았지요. … 집짐승을 중농에게 내지 않는다는건 사실상 중농을 죄여대는걸루 되지요, 그렇지요? 그럼 중농이 무엇으루 밭을 갈구 씨를 뿌립니까?》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요. 당신은 개인농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꼴호즈에 대해서나 생각하시오. 집짐승을 내준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구 일할테요? 그리구 또 이건 우리의 방침이 아니라 관구당위원회의 방침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혁명의 전사들로서 그 방침에 절대복종할 의무가 있소. 그리구 당신이 가지구있는 집짐승의 50프로가 개인농한테루 넘어간다면 당신은 계획을 어떻게 완수할 작정이요? 아무런 론의두 토론두 필요없소! 이발루 물고늘어져서라두 집짐승을 붙들어둬야 하오. 파종계획을 완수 못한다면 모가지를 잘라버릴테요!》

이미 두바퀴마차에 올라타면서 그는 슬며시 이렇게 말을 던졌다.

《대체루 통털어 곤난하오! 좌경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만치 그 누구를 희생시켜야 할게요. … 격식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우리 구역 사람들은 나굴리노브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반감을 가지구있소. 그 사람은 그 무슨짓을 저질렀담? 어떤 중농을 때리구 체포하구 권총으루 위협했다지. 나는 싸모힌한테서 들었소. 그 사람은 나굴리노브에 대해서 하나의 완전한 문서를 작성해가지구있소. 그렇지, 나굴리노브는 대단한 좌익가장사루 된것이요. 그래 지금은 어떤 방침인지 아오? 출당에까지 이르는 처벌을 주거던요! 그럼 잘있소. 집짐승을 소중히 하시오!》

베글릭흐는 워이쓰꼬보이로 가버렸다. 그 마차바퀴자리가 바람에 채 마르기도 전에 제3작업반장 아가폰 둡쪼브가 흥분해서 달려왔다.

《다위도브동지? 저 탈퇴한자들이 우리 작업반의 소와 말들을 가져갔어요. 우격다짐으루 가져갔어요!》

《어떻게 가져갔단 말이요?!》 다위도브는 얼굴이 검붉어지며 웨쳤다.

《아주 간단히 가져갔지요! 외양간지기를 건초적지장에 가두구 소들을 풀어가지구 벌루 몰아갔지요. 소 서른여섯마리에 말 일곱필이외다. 어떻게 할가요?》

《그래, 자네는?! 그래, 자네는 뭘하구있었나, 등신같으니?! 어

디 있었어? 왜 내버려뒀나? 자네는 어디서… 응?!》

아가폰의 얽둑얽둑한 얼굴에 새하얀 점들이 나타났다. 그도 역시 음성을 높였다.

《나는 마구간이나 외양간에서 야경을 할 의무는 없지요! 내게 고함을 칠건 없소! 당신이 그처럼 대단한 용사라면 가서 소들을 되찾아오구려! 아마 몽둥이루 당신 등심을 패댈거외다!》

초저녁이 되여서야 풀을 먹이기 위해서 주인들이 엄중히 호위해가지고 소들을 광야로 몰아냈다. 류비슈낀, 아가폰 둡쪼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3작업반의 꼴호즈원 여섯명이 말을 타고 달려나갔다. 맞은쪽골짜기 비탈에서 풀을 먹고있는 소들을 먼발치서 보자 류비슈낀은 자기의 소수부대를 둘로 나누었다.

《아가폰, 세명을 데리구 대속보루 골짜기를 건너 우측으루 가게. 나는 왼쪽으로 돌아가겠네.》류비슈낀은 시꺼먼 입수염을 어루만지고 호령을 내렸다. 《고삐를 늦춰! 속보루써 나를 따라 앞으로!》

싸움이 벌어지지 않고는 일이 되지 않았다. 류비슈낀의 사촌인 자하르 류비슈낀은 다른 세명의 탈퇴자와 함께 경비하고있었는데 소한테 달려온 미쉬까 아그나쬬노크의 다리를 묘하게 붙잡아 말에서 끌어내려 잠시동안 호되게 땅우로 끌고다녀서 여러곳에 푸른 멍을 만들었으며 어깨에서 홀딱 웃옷을 벗겨냈다. 달려온 빠블로 류비슈낀이 말을 탄채 굵직하고 기다란 채찍으로 사촌을 후려치고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소몰이군들을 물리치고 소들을 탈취하여 속보로써 부락으로 몰아갔다.

다위도브는 밤에 외양간과 마구간에 쇠를 잠그고 꼴호즈원들중에서 망을 보도록 분부했다. 그러나 집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했건만 이틀동안에 탈퇴자들은 열네마리의 소와 세마리의 말을 몰아갈수 있었다. 집짐승을 광야의 먼 골짜기로 몰아갔으며 어른들이 안보이면 알려지기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보내여 소를 돌보게 했다.

꼴호즈관리부와 촌쏘베트에는 진종일 사람들이 욱실거렸다. 탈퇴자들이 꼴호즈의 땅을 탈취할 위험이 이미 커다랗게 제기되였다.

《지금 당장 우리께 땅을 갈라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이전 분여지를 갈기 시작하겠소!》 탈퇴자들은 다위도브에게 다가들었다.

《땅은 당신들한테 나눠줄테니 걱정마시오, 개인농제씨! 래일부터 분할하기 시작합시다. 오쓰뜨롭노브한테 말하시오,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아할테니까. 나는 실제적으루 당신들께 말합니다.》 다위도브는 진정시켰다.

《그래 우리한테는 어디 땅을 갈라주겠소? 어떤 땅을?》

《빈땅이 나는데를 주겠소.》

《혹시 부락끝에 빈땅이 난다면 그때는 어떡하겠소?》

《여보 다위도브동지, 속이지 마소! 가까운데 땅은 모두 꼴호즈의 땅으루 됐으니 우리한테는 먼곳의 땅을 주게 될테지? 집짐승을 돌려주지 않아 그렇지 않아두 우리는 자기 몸이나 암소루써 씨를 뿌릴 참인데 먼 고장 땅을 받아야 한다? 허, 그것참 공명정대한 정권이로군!》

다위도브는 꼴호즈의 땅을 잘게 나눌수 없으며 또 밭들을 뒤섞어서 지난 가을에 실사한 경지정리를 문란케 할수 없으니만큼 바라는 땅들을 나눠줄수 없다는것을 설명하고 타일렀다. 탈퇴한자들은 좀 떠들어대다가 가버렸다. 그러나 잠시후에는 또 새 패가 몰려들어와 문턱에서부터 웨쳤다.

《땅을 주시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당신들은 무슨 권리루 우리 땅을 붙잡구있소? 당신들때문에 우리는 씨두 못 뿌리구있지 않소. 그래 쓰딸린동지는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구 썼소? 집짐승뿐만아니라 땅두 안 주구 소유권을 죄다 박탈했다구 그이한테 우리두 글을 쓸줄 안다우. 그렇게 한데 대해서두 그이는 당신들을 칭찬하지는 않을걸!》

《야꼬브 루끼치, 래일은 아침부터 라치연못너메 땅을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시오.》

《아니, 그 처녀지를?》 탈퇴자들은 떠들었다.

《휴한지지. 그게 왜 처녀지야? 경작하던 땅이야, 좀 오래서 15년쯤전이기는 하지만.》 야꼬브 루끼치는 설명했다.

그러자 일시에 들끓듯 맹렬히 웨쳐대기 시작했다.

《굳은 땅은 바라지 않소!》

《무엇으루 우리가 그걸 갈아?》

《만만한 땅을 주소!…》

《집짐승을 돌려주슈. 그럼 굳은 땅이라두 일구겠소!》

《모스크바루, 쓰딸린한테루 대표자들을 보냅시다!》

《아니, 당신들은 우리를 결딴낼셈이요?》

녀편네들은 천둥같이 노했다. 까자크들도 한결같이 좋아라고 그들을 거들었다. 다위도브는 매양 마지막녘에 가서는 참을성이 진해서 이렇게 웨쳤다.

《그래, 당신들은 당신들한테 더 좋은 땅을 줬으면 하오? 그렇게는 안돼요, 사실말이지! 쏘베트정권은 모든 특전을 꼴호즈에 주지 꼴호즈를 반대하는자들에게는 안 주오.》

어떤 곳에서는 개인농들이 일찌기 그들의 소유였던 꼴호즈의 땅을 이미 밭갈이하고 가꾸기 시작했다. 류비슈낀은 그들을 꼴호즈의 밭에서 쫓아냈고 야꼬브 루끼치는 자막대기를 가지고 광야로 나가 라치연못 저쪽에서 이틀동안 개인농들에게 분여지를 나눠주었다.

좀까 우샤꼬브네 작업반은 25일날 모래터를 갈러 나갔다. 다위도브는 일할수 있는 꼴호즈원들을 농산작업에 돌리고 로력을 배치했다. 로인들의 대다수는 기계파종수, 보잡이, 써레잡이로서 기꺼이 작업반들에 들어갔다. 직접 인력으로는 파종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였다. 닭의 령감이 되였던 노닥다리 아낌 베쓰흘렙노브까지가 기계파종수로서 일하고싶다는 뜻을 표명했다. 다위도브는 쓔까리를 꼴호즈관리부의 마부로 임명했다. 만단의 준비가 되였다. 파종은 억수로 내려붓는 비로 말미암아 지연되였다. 비는 그레먀치의 언덕들과 그리고 아침마다 희읍스름한 안개의 장막에 덮이는 가을걷이장을 푸짐히 적셨다.

꼴호즈로부터의 탈퇴는 중지되였다. 믿음직하고 굳건한 알맹이만 남았다. 그레먀치 로그에서 맨 마지막으로는 안드레이 라즈묘뜨노브의 애인 마리나 뽀야르꼬바가 꼴호즈를 탈퇴했다. 그들 두사람은 어쩐지 사이가 좋지 않아졌었다. 마리나는 하느님에 마음이 끌려 진실한 교인이 되여서 대재기동안 줄곧 재계했으며 세번째 주일에는 날마다 기도를 하러 안드레이의 힐난을 공손하게 말없이 대했으며 욕설에도 대꾸를 안하고 성찬을 더럽힐세라 그냥 잠자코 있었다. 어느날 밤늦게 찾아온 안드레이는 성상앞에 등잔불이 켜져있는것을 보았다. 오래 생각도 안하고 그는 방안으로 들어와 등잔을 내리워 올리브기름을 손바닥에 쏟아서 그것을 꽛꽛해진 자기 장화에 끈끈스레 칠하고나서 등잔은 발뒤꿈치로 깨뜨려버렸다.

《이건 모두 아편과 같아서 머리를 혼미하게 만드는거라구 바보같은것들한테 몇번이구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래선 안돼! 나무깨비에다

기도를 하구 기름을 태우구 밀루 초를 만들지. … 에이참 마리쉬까, 회초리가 임자를 때려주구싶어서 울구있네! 임자가 교회당에 다니기 시작한건 까닭이 없지 않은것 같아. …》

사실로 까닭이 없지 않았다. 마리나는 26일날 꼴호즈에 들어있는것을 하느님을 배반하는것이라는 구실로써 꼴호즈탈퇴신청을 내였다.

《그래, 안드류쉬까와 잠자리를 같이하는건 그건 하느님을 배반하는거루 안되나?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달콤한건가?》류비슈낀이 히죽거리면서 물었다.

마리나는 이번에도 잠자코 있었다. 몇분후에는 자기의 공손함이 회오리바람에 휩싸인듯 날아나고 자기의 입으로 성찬을 더럽힐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였다.

촌쏘베트에서 안드레이가 얼굴이 새하얗게 되여 성이 나서 달려왔다. 상처자국이 있는 이마의 땀을 옷소매로 훔치며 그는 다위도브와 야꼬브 루끼치가 있는 앞에서 이렇게 간청했다.

《마리샤! 여보! 내 신세를 망치지 않게 해주우. 창피한 꼴을 보지 않게 해줘! 그래, 임자는 왜 꼴호즈에서 나가려나? 못난이같으니, 내가 임자를 애끼지 않았던가, 고와하지 않았던가? 암소두 임자께 돌려줬겠다… 더 뭐가 필요한가? 이런짓을 한 후에야 어떻게 서루 사랑하겠나. 임자가 개인농생활루 돌아간다면? 임자의 암닭두 돌려줬구 모가지 긴 수닭이며… 또 임자가 애끓는 눈물을 흘리던 우량종 게사니두 다시 임자네 뜨락에서 살구있지. … 탈퇴신청은 되루 걷어넣으라구!》

《아니요, 아니예요!》 마리나는 치찢어진 눈을 노한듯이 가늘게 하고 웨쳤다. 《싫어요, 구슬리지 말아요! 꼴호즈에 들어있구싶지 않아요! 당신들과 함께 죄를 짓구싶지 않아요! 내 달구지하구 써레달린 경복기나 돌려줘요.》

《마리나, 정신차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임자를 버릴수밖에 없어.》

《마음대루 해, 흰 대가리도깨비같으니! 개같은 난봉군아! 눈은 왜 끔쩍거려? 더러운 놈팽이같으니. 미친 눈깔을 부릅뜨면? 그래, 어제 밤에 골목에서 말라쉬까 이그나쫀꼬바하구 함께 서있던건 누구야? 임자가 아니였어? 에이, 이 망할개같으니! 버리려무나, 임자 아니래두

살아갈테다! 벌써부터 임자는 그럴 속심이였댔어, 다 알아!》
《마리샤, 여보 그게 무슨 얼토당토않은 소리야? 어뗜 말라쉬까? 난 생 그 녀자하군 함께 서있은 일이 없어! 그리구 여기 꼴호즈가 무슨 상관이야?》 안드레이는 손으로 머리를 그러쥐고 이야기할 모든 건덕지가 진한듯 시무룩해졌다. …
《그런 너절한것한테 머리를 숙이지 말게!》 분개한 류비슈낀이 들고일어섰다. 《저것한테 간청일랑 하지 말게. 자기의 체면을 아껴! 자네는 붉은빨찌산이 아닌가. 왜 저것한테 간청을 해대구 눈치를 살피나? 상판대기를 멕여대게! 혹이 불거져나오게 답새기면 대번에 온순해질걸세!》
마리나는 얼굴이 빨갛게 되여가지고 마치 무엇에 찔리우기라도 한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드센 가슴을 내밀고 류비슈낀에게 접어들면서 널직한 어깨를 흔들어 사내들처럼, 씨름군처럼 옷소매를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왜 남의 일에 뛰여들어, 이 오지랖넓은 독사야! 되다만 집시, 새까만 모진 등신아! 내가 먼저 네 상판대기를 비틀어놓을테다! 네가 작업반장이래두 무서워않는다! 너같은건 얼마든지 보아왔구 내가 내동댕이쳤어!》
《내가 너를 동댕이치겠다. 내가 너를 반죽음을 시켜놓겠다. …》류비슈낀은 한구석으로 물러서면서 불시로 어떤 불유쾌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처하게끔 차비를 하고 굵은 목소리로 퉁명스레 말했다.
그는 어느땐가 뚜뱐쓰꼬이의 제분소에서 마리나가 건장해보이는 돈강 남쪽의 한 까자크와 대거리해서 그 까자크를 메여꽂았을뿐만아니라 녹초가 되도록 때려주고 맵짠 욕설로 요정을 내여 보고있던 사람들을 매우 흡족케 한 일을 잘 기억하고있었다. 그때 마리나는 숨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같은건 계집우에 올라타두 할일이 없겠구만, 아주바이! 그런 힘꼴, 그런 솜씨룬 계집엉뎅이밑에 깔려서 버둥거리는게 고작이겠다.》 그리고는 싸움할 때 구겨진 머리수건과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걸어가면서 수습하고 저울간으로 가버렸다. 마리나한테 메꽂히운 까자크가 땅에 흩어져있던 낟알가루와 말똥을 잔뜩 묻혀가지고 일어섰을 때 그의 량쪽볼따구니가 검붉은빛으로 물들어오른것을 류비슈낀은 기억하고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왼쪽팔굽을 굽혀서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경고했다.

《달려들지 말아. 참말이지 네 배때기를 때려줄테다! 여기서 사라져라!》

《너는 이걸 냄새맡아보지 못했지!…》 마리나는 별안간 치마자락을 높이 쳐들고 그것을 류비슈낀의 코앞에서 휘둘렀다. 부이스름한 분홍빛이 도는 둥그런 무르팍과 드세고 팽팽하며 밀탕처럼 크림빛이 도는 누르스름한 몸뚱아리가 번뜩이였다.

그는 쇠물처럼 들끓는 분노가 극도에 달한것이였다. 산전수전 다 겪은 류비슈낀이였지만 마리나의 위력있는 흰 몸뚱아리를 보고는 눈이 아뜩하여 뒤로 움츠러들어 압도된듯이 중얼거렸다.

《환장을 했군! 도깨비같으니! 이건 계집이 아니라 종자말이야! 물러가, 망할것!…》 하고는 맹렬히 웨쳐대는 마리나의 옆을 모로 서서 슬며시 빠져 침을 뱉고 욕설을 늘어놓으면서 복도로 나갔다.

다위도브는 책상우에 머리를 박고 눈을 쪼프리고서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라즈묘뜨노브는 요란스럽게 방문을 탕 닫고 류비슈낀을 뒤따라나갔다. 야꼬브 루끼치만이 자제력을 잃어버린, 기병조장의 과부를 타이르려고 해보았다.

《아니, 왜 떠들어대나? 창피한줄두 모르는 녀편네로군! 치마자락을 쳐들다니, 그건 철딱서니없는짓이야! 이 늙은것만이라두 부끄러워해야지!》

《닥쳐!》 마리나는 방문으로 향하면서 그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 늙은이라는게 어떤 놈팽인지 다 알아! 작년 여름 건초를 나를 때 너는 내게 어떤 청을 냈었니? 그래두 할짓은 하지…》

마리나는 폭풍에 날리는 구름처럼 뜨락을 휙 지나갔다. 야꼬브 루끼치는 게면쩍은듯이 기침을 깇고 나무라듯이 머리를 흔들면서 마리나의 뒤를 바라보고있었다. … 반시간후에 그는 마리나가 직접 자기 달구지멍에대를 잡고 제1작업반의 뜰에서 써레와 경복기를 쉽사리 끌어가는것을 목격했다. 비가 와서 밭에서 돌아와있던 좀까 우샤꼬브가 가까이 위험한 거리까지 접근하는것을 꺼리듯이 멀찌감치 마리나를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요청했다.

《마리나! 여보, 뽀야르꼬바씨! 내 말을 듣소? 마리나 쩨렌찌예브나! 그 재산은 우리 작업반의 목록에 들어있으니만큼 줄수 없네!》

《줄수 있을게야!》

《바보같으니, 그건 공동소유농기구란걸 알아야 해! 못나게 굴지 말

구 제발 도루 가져와. 임자는 사람인가, 뭔가? 왜 강도질을 하나? 그런 나쁜짓을 하면 재판을 받아야 해. 다위도브의 서명이 없으면 아무것두 내주지 못하겠어.》

《줄수 있을게야!》 마리나는 짤막히 대답했다.

쬼까의 두눈은 당황한듯 사팔눈이 되였고 두손은 애원하듯이 가슴에 가져다대고있었다. 그러나 마리나는 전신이 땀투성이가 되고 더워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고집스레 달구지를 끌어갔다. 달구지횡목에 기대여실은 써레가 애처로운 소리를 내고있었다. …

(저 녀편네한테서 달구지를 뺏어내구 혀바닥놀리는 법을 가르쳐주어야 해. 그렇지만 어떻게 뺏어낸담? 저 녀편네하구 일을 벌려놓으면 좋은 일은 없거던!) 야꼬브 루끼치는 조심스레 골목으로 꺾어들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 다음날 라즈묘뜨노브는 마리나의 집에서 자기의 물건들이며 총, 탄약함, 서류들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는 마리나와 헤여지는것이 무척 괴로왔다. 괴로운 나머지 그는 고독을 피했다. 그래서 좀 이야기도 할겸 울적함을 쫓아버리려고 나굴리노브를 찾아갔다.

그레먀치 로그에 밤이 내렸다. 비에 씻기운 초생달이 갓 잘라놓은것처럼 서쪽하늘가에 고요히 걸려있었다. 얼음이 풀리는 개천들의 자주 끊기는 돌돌소리에 깨여지는 3월달의 정적이 부락에 가득차있었다. 안드레이는 밤의 랭기에 굳어진 진창에서 절벅절벅 발을 뽑아들면서 자기 생각에 잠겨 조용히 걸어갔다. 축축한 대기속에서는 이미 가슴을 뛰놀게 하는 봄의 냄새가 느껴졌다. 땅은 쌉쌀하고 담담한 숨결을 내뿜고있었으며 탈곡장들은 곰팽이냄새를 풍기면서 그를 맞이했고 과수원들에는 포도주같은 떫은 향기가 차있었다. 그리고 울바자옆에 움튼 애어린 풀들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듯 강하게, 싱싱하게 냄새를 풍기고있었다.

안드레이는 밤의 여러가지 냄새를 깊이 들여마시고 발밑의 물웅뎅이에서 물에 어린 별들이 불꽃처럼 깨여져 흩어지는것을 보면서 마리나를 생각했다. 그러자 자기의 두눈에 울적과 분노의 쓰라린 눈물이 끓어오르는것을 느꼈다.

제 31 장

쓔까리령감은 꼴호즈관리부의 상임마차부로 임명된것을 무한히 기뻐했다. 야꼬브 루끼치는 관리부에 남겨둔, 부농들의것이던 두필의 종자말을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말들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해주오! 살을 지우구 또 너무 타구 다니거나 지나치게 몰아대지 마슈. 찌또크네 이 수말은 종자말이구 또 이 황부루두 좋은 돈말의 혈통이요. 우리 관리부에서는 타구다니는 일두 그리 많지 않으니까 오래지 않아 이것들을 암말들한테 붙여줍시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해요!》

《이거 별말을 다 듣는군!》 쓔까리령감은 대답했다. 《그래 내가 말을 다룰줄 모르나? 나는 일평생 숱한 말을 보아왔네.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은 내 손을 거친 말만큼두 안돼.》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쓔까리의 전생애에 있어서 그의 손을 거친 말이란 도합해서 겨우 두마리뿐이였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마리는 암소와 바꿨고 또 한마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말이 벌어졌었다. 한 20년쯤 전에 쓔까리는 한잔 하고 사뭇 기분이 좋아서 워이쓰꼬보이부락에서 돌아오던 도중에 지나가는 집시들한테서 30루블리로 그 암말을 샀던것이다. 암말은 그가 살 때 살펴본바에 의하면 퉁퉁했으나 색갈은 쥐빛이요 귀는 축 늘어졌고 눈에는 흰 티가 박혀있었다. 그러나 무척 날쌔보였다. 쓔까리령감은 한낮이 될 때까지 집시와 흥정을 했다. 그들은 한 마흔번이나 손도 쳐보고 헤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또다시 흥정을 했다.

《이건 말이라기보다 금덩어리외다! 달리는건 어떤가 하면 눈두 뜨구있지 못할 지경이구 그러니까 땅두 안 보이지요. 이건 보물이요. 새와 같소!》 집시는 기진해서 얼뻥뻥해진 쓔까리의 저고리자락을 붙잡고 침을 튕기면서 력설하고 다짐했다.

《어금이는 거의 남은게 없구 외통눈이요. 발통은 모두 터졌구 배는 축 늘어졌는데… 금덩어리가 무슨 얼어죽을 금덩어리야. 이건 애타는 눈물이지 금덩어리는 아니야!》 쓔까리령감은 집시가 마지막 한 루블리를 감해줄것을 바라마지않으면서 말을 깎아내렸다. 그들은

마지막 한루블리로 해서 금사가 어긋났던것이다.

《말이발이 대수요? 여물을 적게 먹을텐데. 이건 젊은 암말이요. 참 말이지 아직 암말이라구두 할수 없을만큼 어리구 이발루 말하자면 어쩌다 앓을 때 빠진거요. 그리구 눈의 흰 티가 어떻단 말이요? 그건 티두 아니구 할퀸 자국이외다! 발통두 이제 자라면 깨끗하게 되지요. … 털이 쥐빛이 돼서 그리 곱지는 않지만 당신이 이걸 데리구서 살것두 아니구 이것으루 밭을 갈테지. 그렇지 않소? 좀 잘 보시오. 왜 이것이 배가 큰가, 그건 힘이 세기때문이외다! 이것이 달리면 땅이 덜덜 떨구 넘어지면 사흘은 누워있지. … 내참, 아바이! 당신은 30루블리루 경마말이라두 사구싶은 모양이구려? 그렇다면 산 말은 못 사겠소. 하기는 뻐드러지면 고기는 공짜루 주겠지. …》

감사하게도 그 집시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여서 좀 에누리를 하다가 마지막 한루블리마저 감하고 굴레고삐를 저고리옷자락에 감춰가지고 쓔까리에게 내주었다. 옷자락이 기다란, 쨋쨋한 청색저고리소매로 갈색이마를 훔치면서 짐짓 흐느끼는체 하기까지 했다.

말은 고삐가 쓔까리의 손으로 넘어가자마자 이제까지의 원기를 잃어버렸다. 말은 쓔까리가 무진 힘을 넣는통에 마지못해 몸을 움직여 집게다리를 가까스로 옮겨짚으면서 그의 뒤를 따랐다. 이때에야 집시는 이새가 촘촘한 백묵처럼 흰 이발을 드러내여 웃음을 터뜨리고 쓔까리의 뒤에다 대고 이렇게 웨쳤다.

《여보, 아바이! 돈까자크! 내 친절을 잊지 마소! 말은 40년동안 나한테 봉사했는데 당신한테두 또 그만큼은 일해줄게요. 그러나 여물은 한주일에 한번만 주소. 그렇지 않으면 미쳐날뛸테니까. … 우리 아버지가 로므니아에서 그 말을 타구 왔는데 사실인즉 아버지는 프랑스인들이 모스크바에서 도망칠 때 그들한테서 그 말을 손에 넣었다오. 귀중한 말이외다!》

그는 흥정한 말을 끌고가는 쓔까리의 뒤에다 대고 또 무엇이라고 웨쳤다. 천막옆에서와 집시의 발근처에서 소란스럽고 갈가마귀처럼 새까만 집시의 어린아이들이 떠들어대고 녀편네들이 쇠소리를 내면서 웃어댔다. 그러나 쓔까리령감은 그런것에는 하등 주의도 돌리지 않고 걸어가면서 어질게도 이렇게 생각했다. (어떤 말을 샀는지는 나자신두 알아. 돈만 있다면야 나두 이런건 안 샀을게야. 그런데 저 집시는 익살꾸러기구 나처럼 재미난 사람이군. … 하여간 말이 생겼구나.

일요일에는 녀편네하구 함께 말을 타구 읍의 시장으루 달려가리라.)

그러나 그가 뚜뱐쓰끄이에 미처 이르기 전에 말한테 야릇한 일이 생겼다. … 우연히 뒤를 돌아본 쓔까리는 어리둥절했다. 자기를 따라오는것은 그가 사온, 배가 크고 뚱뚱한 암말이 아니라 빼빼 마른 말이고 배는 훌쭉 들어갔으며 엉뎅이뼈옆에는 깊은 웅뎅이가 패워있었다. 반시간이나 될가말가한 동안에 말은 절반으로 살이 빠진것이였다. 쓔까리는 십자를 긋고 《아멘, 아멘, 아멘!》하고 중얼거리면서 손에서 고삐를 떨어뜨리고 취기가 씻은듯이 사라지는것을 느끼면서 걸음을 멈췄다. 말을 한바퀴 돌아보고야 비로소 그는 그렇게도 놀랄만큼 빨리 말라버린 원인을 발견했다. 버르장머리없이 한옆으로 해서 우로 추켜든 암말의 갈가리 풀어진 꼬리밑으로부터는 배에 차있던 공기가 씩소리를 내며 뿜어나오고 똥물이 튕겨나오는것이였다. 쓔까리는 《하, 이런ㅡ야!》 하고 머리를 그러쥐고서 야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굴레를 잡아쥐고 힘을 열배로 하여 말을 끌어당겼다. 말의 창자에서 화산처럼 내뿜는 그 분출은 바로 뚜뱐쓰끄이에 이를 때까지 멎지 않아 길우에 사방 수치스러운 자국을 남겼다.

쓔까리는 그냥 끌고갔던들 그레먀치 로그까지 무사히 갔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친한 사람도 한명 있고 또 아는 까자크들이 많은 뚜뱐쓰끄이부락에 들어서서 첫집앞에 이르자 곧 사온 말을 평보로라도 타고가지 끌고가지는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비상한 긍지감과 보통 언제나 그에게 있는 뽐을 내려는 마음, 자기 쓔까리가 이제는 가난하지 않아 그리 좋지는 못하다 할망정 자기자신의 말을 타고간다는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마음이 불시에 눈을 뜬것이였다. 《와, 망할것 같으니! 그냥 롱질만 치려는거야!》 쓔까리는 자기가 자기의 말을 세운 그 맞은편집에서 면식있는 한 까자크가 나오는것을 눈끄리로 바라보면서 맹렬히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그는 굴레를 당기고 점잖게 옷차림을 수습했다. 필시 아직 어리던 오랜 옛날에는 롱질도 치고 갈갬질두 쳤을 그의 말은 사실에 있어서는 전연 롱질을 치려는 생각은 없는것이였다. 말은 맥없이 머리를 숙이고 뒤발을 꼬부리고서 서있었다. (친구네 집앞만이라두 타구 지나가야겠다. 좀 보여줘야지!) 그렇게 생각한 쓔까리는 저으기 몸을 솟구쳐 말잔등의 삐죽이 내민 등골에다 엎드리듯이 몸을 실었다. 그러자 이때 그는 후에 오래동안 뚜뱐쓰끄이까자크들의 입에 오르게 한 봉변

이 일어났다. 바로 여기서 쓔까리는 전대미문의 창피를 당했으니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있을뿐더러 필시 후손들에게까지도 전해질것이다. … 쓔까리의 두발이 땅을 차고 그의 몸이 말잔등에 가로엎드려 올라타려고 애쓰면서 땅에서 뜰가말가하자 말이 비틀하고 배안에서 무엇인지 꾸럭꾸럭 소리가 나더니 꼬리를 치고 길에 모짜로 나가넘어졌다. 쓔까리는 두팔을 뻗치고 길 저켠 먼지오른 풀우에 팽개쳐졌다. 화끈 달아서 그는 뛰여일어났다. 그리고 까자크가 자기의 창피스러운 꼴을 목격했음을 알자 고함질로써 사태를 수습하려고 《그래두 그냥 갈갬질이로군! 젠장.》 하고 발로 말을 걷어차면서 부르짖었다. 말은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일어나서 시든 풀쪽으로 머리를 뻗쳤다.

쓔까리의 꼴을 보고있던 까자크는 큰 익살군이고 유쾌한 사나이였다. 그는 울바자를 뛰여넘어 쓔까리에게로 다가왔다.

《편안한가, 쓔까리! 아니, 말을 샀나?》

《사기는 샀는데 좀 실수한가부웨, 갈개는 놈이 걸렸어. 올라타면 뺑하구 땅에 떨어뜨리거던. 아직 사람을 태우구 다녀보지 않은 생마인가부웨.》

까자크는 눈을 가늘게 하고 말둘레를 한두어번 돌고 도중에서 말 이발을 들여다보더니 아주 정색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야 물론 타구 다니지 않은 말이지! 그렇지만 보매 혈통이 좋은 말같네. 이발루 짐작컨대 이 말은 쉰살은 됐구 절대 그보다 젊지는 않은데 이것이 혈통이 좋은 말이 돼서 아무두 길을 들이지 못할 모양일세.》

쓔까리는 자기를 동정하는 그 태도를 보자 용기를 내여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저 이그나찌 뽀르피리치, 왜 이 말이 그처럼 빨리 살이 빠졌을가? 내가 이걸 끌구오는데 진작 눈앞에서 녹아버리네그려. 방구가 뿜어나오구 홈통에서처럼 똥을 갈기네, 오는 도중 사방 자국을 남겼지!》

《그래, 자네 그걸 어디서 샀나? 집시들한테서 산게 아닌가?》

《그자들한테서 샀네. 지금 임자네 동구밖에 숙영하구있습데.》

《그렇다면 말은 이런 연고루 해서 여윈거네.》 말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집시들에 대해서도 밝은 그 까자크는 설명했다. 《그자들이 말을 자네한테 팔기 전에 바람을 불어넣은거야. 어떤 말이 늙어서 여위면 그걸 팔기 전에 뒤구멍에다 속이 통한 갈대를 꽂구서 옆구리가

불어올라 말이 뚱뚱해지고 배가 나올 때까지 모두가 돌려가며 불어대는걸세. 소오줌통처럼 되게 분 다음에는 즉시루 갈대를 뽑구 그 자리에다 공기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헝겊으루 마개를 만들어 꽂거나 강냉이대속을 꽂는다네. 자네가 바로 그렇게 바람을 불어넣은 말을 샀나보군. 아마 오는 도중에서 마개가 빠져서 자네 말이 여위기 시작했을거야. … 가서 마개를 찾아오게. … 우리가 다시 불어줄테니…》

《망할놈들!…》 쓔까리는 절망하여 그렇게 웨치고 집시들이 숙영하고있는 곳을 향해서 내달았다. 그러나 언덕우에 올라가 본즉 이미 내가에는 천막도 마차도 없었다. 숙영하고있던 곳에서는 채 꺼지지 않은 화토불의 파란 연기가 나붓기고 멀리 여름철도로에는 흰 먼지가 맴돌다가 바람에 불려 흩어졌다. 집시들은 옛말에서처럼 사라진것이였다.

쓔까리는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다. 친절한 이그나트 뽀르피리예비치가 다시금 집에서 나왔다. 《말이 다시 그저… 원기때문에 넘어지지 않두룩 내가 말을 부축할테니 올라타게.》 그는 제의했다. 무안과 슬픔과 땀으로 해서 온몸이 함씬 젖은 쓔까리는 그의 친절을 받아들여 이럭저럭 겨우 올라탔다. 그러나 그의 재액은 아직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팔자였다. 이번에는 말이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그대신 말이 뛰는 본새가 아주 야릇한것이였다. 속보로 달릴 때처럼 앞발은 앞으로 내디디고 뒤발은 앞발보다도 높이 쳐들어 차대는것이다. 그런 본새로 말은 쓔까리를 첫 골목에까지 날라갔다. 미친듯이 그처럼 달리는 동안에 쓔까리의 머리에서는 모자가 날아났고 무섭게 들춰대는통에 배속에서 무엇인지 너덧번이나 덜컥하고 속이 찢어지는것 같았다. (아유, 이렇게는 타구가지 못하겠다!…) 하고 생각한 쓔까리는 달리는 말에서 내려버렸다. 그는 모자를 주으려고 뒤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골목에서 사람들이 자기한테로 달려오고있는것을 보자 그자신이 급히 발을 돌려 그처럼 뜻하지 않은 주행본새를 보여준 재액의 말을 동구밖으로 끌어갔다. 풍차가 있는데까지 어린애들이 따라오다가 그다음에야 떨어졌다. 쓔까리는 이제 두번다시 집시의 《보물》에 올라타려고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언덕으로 해서 멀리 부락을 에돌아갔다. 그러나 언덕우에 이르자 굴레를 끄는데 힘이 진해서 말을 앞세우고 몰아가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여기서 판명된것은 그가 그처럼 공들여 산 말은 두눈을 다 보지 못하는것이였다. 말은 낭떠러

지도 도랑도 아랑곳없이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것을 뛰여넘는것이 아니라 나가넘어지고는 부르르 떨리는 앞발을 번디디고 일어나서 괴롭게 숨을 쉬면서 다시 걷는데 그것도 보통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줄창 빙빙 돌아가면서 걷는것이였다. … 이 새로운 발견에 가슴이 내려앉은 쓔까리는 말이 하는대로 내버려두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한바퀴 돌고나서는 다시 새로 돌군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라선이라도 따라걷는듯이 형편없이 돌았다. 이번에는 쓔까리도 남의 깨우침이 없이도 자기가 산 말이 양수장에서 그 기나긴 괴로운 생애를 지냈고 거기서 눈을 못 보게 되였으며 늙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낮에 부락에 나타나기가 창피해서 그는 어슬해질 때까지 언덕에서 말에게 풀을 먹이다가 밤이 되여서야 집으로 몰고왔다. 체격이 장대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사정이 없는 그의 마누라가 그를 어떻게 맞이했으며 허약한 쓔까리가 자기의 실패한 흥정에 대해서 어떤 탄식을 했는가는 당시 쓔까리와 친히 지내던 구두제조공 로까쩨예브의 말에 의하건대 아무도 짐작 못할 어둠속에 묻혀버리고말았다. 다만 알려진것은 그 암말이 오래지 않아 옴에 걸려서 전신의 털이 빠지고 그런 추한 꼴로써 어느날 한밤중 뜨락에서 고이 잠들었다는것뿐이다. 그리고 그 가죽은 팔아서 쓔까리가 친구 로까쩨예브와 함께 마셔버렸다.

야꼬브 루끼치더러 쓔까리령감 자기가 일평생 적지 않은 말들을 보아왔다고 흰소리치면서도 쓔까리령감은 야꼬브 루끼치가 자기 이야기를 믿을리 없다는것을 미리부터 알고있었다. 쓔까리의 전생애는 야꼬브 루끼치의 눈앞에서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쓔까리령감은 애초에 태여나기를 자랑을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천성이였다. 어떻게도 할수 없는 힘이 그로 하여금 몇분후에는 자기자신도 선선히 취소할 그런 말을 하게 하는것이였다. …

일언이폐지하면 쓔까리령감은 마차부 겸 마부로 된것이다. 그리고 말해둘 필요가 있지만 그는 자기의 그 단순한 직책을 괜찮게 수행했다. 빨리 말을 달리기 좋아하는 나굴리노브에게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것은 쓔까리가 자주 말을 세우는것이였다. 뜰에서 채 나가기도 전에 벌써 고삐를 당기고 《와, 와!》하는것이다. 《왜 서우?》 하고 나굴리노브는 묻는다. 《말이 뒤를 보려네.》 그렇게 대답하고는 나굴리노브가 쓔까리의 자리밑에서 채찍을 뽑아들어 말잔등을 갈길 때까지 오줌을 재촉이라도 하듯이 휘파람을 불어댄다. 《지금은 마차부는

마차부자리에 앉아있구 마차를 탄 량반은 푹신한 방석에 젖히고 앉아있던 짜리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마차부지만 다위도브동지와 한자리에 앉지. 때루는 담배를 피우구싶어서 그이한테 부탁하지. 〈자, 고삐를 좀 쥐여주게. 담배를 말겠네.〉하면 〈어서 그럭허시오.〉 하구서 고삐를 잡구 때루는 한시간동안이나 말을 섬기면 나는 점잖게 앉아서 강산구경을 하지.》 하고 쓔까리령감은 까자크들에게 뽐을 냈다. 그는 점잔을 피우게 되였고 말수더구까지 적어졌다. 봄추위가 계속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마구간으로 잠자리를 옮겼으나 한주일이 지나자 로파가 밤마다 젊은 계집들이 쓔까리령감한테 다닌다는 풍문을 트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있는데서 호된 매질과 욕설끝에 그를 집으로 데려가버렸다. 젊은이들이 령감에게 그런 고약한 중상을 꾸며서 로파를 놀린것이였으나 쓔까리는 녀편네한테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밤에 두어번 강짜 심한 마나님의 호위밑에서 말을 살피러 다녔다.

그는 그레먀치의 소방대와 날랜 솜씨를 경쟁할만큼 빨리 말에다 마차를 메우는 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마차 메우기 위해서 말을 끌어낼 때에는 오래 서만 있던 말이 울어대는것을 달래면서 쟁쟁한 목소리로 매양 이렇게 웨쳐댔다. 《이런! 울어대는군, 제길!… 저건 암것이 아니라 너하구 같은 활량이야!》그리고 마차를 다 메우고 떠나려고 올라탈 때에는 사뭇 흡족한듯이 이렇게 말했다. 《자, 떠나서 한대(로력점수를 번다는 뜻) 벌어볼가. 여보게들, 이 생활이 내게는 아주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

27일 다위도브는 제1작업반의 밭에 나가보기로 작정했다. 그 작업반이 자기의 지시를 거슬러 고랑을 따라 써레질한다는 말이 사실인가를 검열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그에게 알려준것은 야장 이뽈리트 샬리였는데 샬리는 파종기를 수리하려고 벌에 가서 써레가 고랑을 가로질러서가 아니라 이랑을 따라서 움직이고있는것을 본것이였다. 그는 부락에 돌아오자 곧 관리부에 나타나서 다위도브의 손을 잡고 무뚝뚝이 이렇게 말했다.

《제1작업반은 고랑을 따라서 써레질을 하구있어요. 그렇게 써

레를 끌어서는 하등 보람이 없지요. 직접 그리루 가서 그네들한테 제식대루 하라구 분부하슈. 나두 그네들한테 그걸 말했는데 저 사팔뜨기 우샤꼬브가 이렇게 말하거던요. 〈자네가 할일은 모루나 두드려대구 풀무나 부는거야. 여기서는 주둥아리를 닥치구있어야지 당장에 보습으루 주둥아리를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그자한테 이렇게 답변했지요. 〈풀무를 불러 가기 전에 사팔뜨기 네녀석을 불어내야겠다!〉 하마트면 싸움을 할번 했수다.》

다위도브는 쓔까리령감을 불렀다.

《말에 마차를 메워주시오!》

기다려낼수가 없어서 자신이 뛰여나가 빨리 마차를 메우도록 방조했다. 출발했다. 흐린 날씨와 습기를 머금은 서남풍이 비를 예고하고있었다. 제1작업반은 제일 먼 사질토의 구역에서 일하고있었다. 그 구역은 부락에서 한 10키로메터 떨어져 고개너머의 류띄연못근처였다. 그 작업반은 견본작물을 파종할 밭을 준비하고있었는데 땅을 아주 꼼꼼히 써레질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비물이 고랑으로 해서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고 고루 손질을 한 땅에 머물러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빨리 갑시다. 빨리, 령감님!》 다위도브는 뭉게뭉게 싸여 늘어져있는 짙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독촉했다.

《그렇지 않아두 바삐 가구있네. 저 회색말은 벌써 밖에 흰 거품이 배나오구있어.》

여름철도로에서 멀지 않은 언덕우를 로교원 스삐늬가 인솔하는 학생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고있고 그들의 뒤로는 물통을 실은 넉대의 달구지가 따라가고있었다.

《꼬맹이들이 쥐를 잡으러 나왔나부이.》 쓔까리는 채찍으로 가리켰다.

다위도브는 가만히 미소를 띄우고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마차가 어린 아이들옆에 이르렀을 때 그는 쓔까리에게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물끄러미 바라보고있다가 머리가 희읍스름하고 발을 벗은 일곱살가량의 어린아이 하나를 골라냈다.

《이리 온.》

《왜?》 어린아이는 모자채양우에 모표의 퇴색한 흔적이 남아있는 붉은 도리가 달린, 아버지의 퇴물림의 군모를 뒤통수로 올려밀면서 호

락호락치 않게 반문했다.

《너는 쥐를 몇마리나 잡았니?》

《열네마리.》

《너 누구 아들이냐?》

《페도뜨 제미듸치 우샤꼬브야.》

《자, 내옆에 타라, 페도뜨 제미듸치. 좀 태워줄게. 그리구 너두 타라.》 다위도브는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계집애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린아이들을 태우고는 《출발합시다!》 하고 사내애에게 《너 몇학년이냐?》 하고 물었다.

《1학년이야.》

《1학년? 그렇다면 코를 풀어야 해, 사실말이지.》

《풀수가 없는걸뭐, 감기가 들려서.》

《아니, 풀수 없다니? 코를 이리루 내밀어라!》 다위도브는 꼼꼼히 손가락을 바지에 훔치고 한숨을 내쉬였다. 《한번 꼴호즈관리부에 들려라. 과자를 줄테니, 쵸콜레트과자를. 쵸콜레트를 먹어본 일이 있니?》

《없…어. …》

《그럼 관리부에 놀러 오너라, 내 한턱 낼테니.》

《난 그런거, 과자같은거 일없어!》

《그래! 그건 어째서냐, 페도뜨 제미듸치?》

《이발이 부스러져서그래. 아래이발들은 빠져버렸어, 이것봐!》 사내애는 새빨간 입을 벌렸다. 사실 아래이발 두개가 없었다.

《그렇다면 페도뜨까 제미듸치, 너는 앞이 빠진 개강구로구나?》

《자기자신두 개강구면서 뭐!》

《흠… 그것참… 보았구나!》

《나는 이발이 돋아나지만 아저씨는 아마 돋아나지 않지? 응!…》

《허, 롱을 다 거는군! 나두 돋아난다, 사실말이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네. 어른들은 이발이 안 돋아나. 나는 웃이발이래두 깨물수 있어. 정말이지!》

《깨물수 있을게 뭐냐!》

《손가락을 내봐! 정말이 아닌줄 알아?》

다위도브는 미소를 띄우면서 둘째손가락을 내밀었다가 악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을 움츠렸다.

《자 페도뜨까, 이번에는 내가 네 손가락을 깨물어보자.》 그는 말했다. 그러나 페도뜨까는 머뭇거리다가 별안간 달리는 마차에서 커다란 재빛귀뚜라미처럼 뛰여내려 깨꾸막질을 하면서 이렇게 웨쳐댔다.

《깨물구싶지! 그래두 이제는 틀렸어!…》

다위도브는 웃음을 터뜨렸다. 처녀애를 마차에서 내려놓은 다음에도 길우에서 빨갛게 보이는 페도뜨까의 모자도리를 오래동안 돌아보았다. 유난히 가슴이 따스해지고 눈에 눈물이 어리는것을 느끼면서 빙그레 웃음을 띄웠다. (저 애들에게 안락한 생활을 건설해주자, 사실말이지. 지금은 페도뜨까가 까자크식모자를 쓰구 뛰여다니지만 한 20년이 지나면 전기보습으루 여기 이 땅을 갈아번지게 될게다.… 벌써 저 애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의 나처럼 누이동생들의 샤쯔를 빨아주고 기워주고 끼니를 만들고 공장으루 달려가고 그렇게는 하지 않아두 될게다.— 저 페도뜨까들은 행복해질게다, 사실말이지!) 다위도브는 부드러운 초록빛에 물들기 시작한 가없는 광야를 둘러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잠시동안 그는 지저귀는 종달새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멀리서 보잡이가 보습우에 물을 싣고 걸어가는것이며 소와 나란히 발을 걸채면서 소몰이군이 밭고랑을 따라 나아가는것을 바라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힘든 일은 모두 기계가 사람대신 하게 될게야.… 그때의 사람들은 아마 땀냄새두 잊어버릴테지.… 젠장, 그때까지 살아있구싶구나!… 좀 보기라두 했으면! 죽어버린다면 그 어떤 페도뜨까두 나를 생각해주지 않을테지. 그래두 여보게 다위도브, 자네가 죽는것은 확실하네! 그리구 자네한테서는 자손대신에 그레먀치의 꼴호즈가 남는걸세. 그 꼴호즈가 꼼무나가 되구 후에 그 꼼무나에는 뿌찔로브공장의 철공 쏨까 다위도브의 이름이 붙을는지두 몰라.…) 다위도브는 자기의 생각이 우스운 방향으로 돌아가는것에 미소를 띄우고 쓔까리에게 물었다.

《곧 도착합니까?》

《차츰 가까와오네.》

《아바이, 당신네 여기서는 이 얼마나 많은 땅이 보람없이 썩구있어요. 이건 사실 무서운 일이군요! 두 5개년계획이 끝나면 그때에는 여기다 공장들을 세웁시다. 모든것이 우리의것이구 모든것이 우리 수중에 있거던요, 사실말이지! 기운을 내서 앞으루 10년만 더 사슈, 그러면 말고삐대신에 자동차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뿡뿡 소리를 질러서

야단일테지만!》
쓔까리령감은 한숨을 내쉬였다.
《좀 늦었어! 내가 한 40년전에 로동자가 되였던들 아마 나는 딴 사람이 됐을걸. … 농군살림에서는 나는 운이 좋지 못했네. 어렸을 때부터 내 일은 빗나가기만 했구 입때 그랬다니까. 일평생 나는 바람에 날려다닌것 같애. 한옆으로 일그러드는가 하면 또 어떤 물건에 부딪치구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마귀한테 끌려가게 되거던. …》
《어째서 그럴가요?》 다위도브는 저으기 흥미를 느꼈다.
《이제 모두 세세히 이야기하지. 말은 달리라구 내버려두구 난 임자한테 신세타령이나 해봅세. 임자는 뚝한 사람이긴 하지만 알아줘야하구 느껴줘야 하네. … 나는 숱한 경난을 겪었어. 애초에 내가 태여났을 때 나를 받아낸 할머니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한테 즉시루 이렇게 말했더라네. 〈임자 아들은 성년하면 장군이 되겠어. 좁은 이마에 머리는 호박같구 배가 불룩하구 목소리는 굵으니 모든 점이 장군되기에 어울려. 기뻐하게, 마뜨료나!〉 이랬답네. 그런데 두주일이 지나자 그 할머니 말은 거꾸로 됐지. … 나를 예브도끼야의 날에 낳았대. 그날은 어찌나 추웠던지 닭들이 물두 먹을곳이 없는건 고사하구 어머니말에 의하면 날아가던 참새들까지 얼어죽을 지경이였다나! 그런데 나를 세례를 받게 하느라구 뚜반쓰꼬이루 데려갔네. 그럼 좀 생각해보게나. 그렇게 추운 때 갓난애를 물에 넣는게 분별있는짓이겠나? 그래서 물을 데우기 시작했는데 보제두, 사제두 억병술에 취해있었대. 한명이 세례반에 끓는 물을 붓자 또 한명은 가늠두 안 보구 〈주 예수가 하느님의 노예를 세례하신다.〉하면서 와스스 소리가 나게 나를 끓는 물속에 거꾸로 집어넣었네. … 그래노니 나는 껍질이 벗겨졌지! 참으루 데려와보니 나는 물집투성이야. 탈장만 하드래두 물론 그때문에 생겼구 아파서 몹시 울어대니까 더욱 부어올랐지. … 그때부터 병객인 나한테는 액운이 계속됐네! 그리구 그건 모두 내가 농군의 살림에 태여난때문이야. 아홉살이 될 때까지 나는 개들한테 물리구 게사니한테 형편없이 뜯기우구 한번은 망아지가 어떻게 뒤발루 찼던지 나가넘어져서 인사불성이 되지 않았겠나. 그리구 아홉살부터는 내게 좀더 커다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네. 아홉살이 지났을 때 나는 어쩌다 한번은 낚시에 걸렸네그려. …》
《어떤 낚시에요?》 어지간히 주의를 집중하고서 쓔까리의 이야기

를 듣고있던 다위도브는 의아쩍어했다.

《물고기를 낚는 보통낚시지. 그 당시 우리 그레먀치에는 꾸삐리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귀먹은 노닥다리가 하나 있었네. 겨울에는 어망 혹은 새잡이그물루써 메추라기를 잡았구 여름에는 개울에 묻혀서 낚시질을 일삼았지. 그때에는 우리네 그 강이 더 깊었구 그래서 그때 매돌은 하나였지만 라쁘시노브네 방아간까지 그 개천에 서있었다네. 그 동뚝밑에 잉어와 가물치가 많아 령감은 낚시대를 놓구 버드나무옆에 곧잘 앉아있군 했어. 낚시대를 한 일곱개 널어놓구서 어떤 낚시에는 지렁이, 어떤 낚시에는 빵반죽, 그런가 하면 또 조그마한 물고기를 꿰여가지구 가물치가 걸리기를 기다리네. 그런데 우리 어린 녀석들은 그 령감의 낚시를 물어끊는 장난을 했네. 령감은 돌처럼 귀가 멀어서 귀에다 오줌을 눈대두 듣지 못할 지경이야. 우리는 강가에 모여 령감이 있는데서, 가까운 덤불뒤에서 옷을 벗네. 우리들중에서 한놈이 물결이 일지 않도록 살그머니 물로 들어가 령감의 맨끝낚시줄을 붙잡아 질끈 이발루 깨물어 끊어가지구 다시 덤불로 떠오르지. 한편 령감은 낚시대를 들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웅얼거리거던. 〈망할것이 또 끊었구나! 제길, 염병을 할!〉 그건 령감이 가물치의짓이라구 생각하구 낚시를 잃은것에 약이 오른거야. 령감의 낚시는 가게에서 산건데 우리는 낚시를 살 돈이 없었구 그래서 우리는 령감한테서 그걸 손에 넣는거네. 그렇게 해서 한번 나는 낚시를 하나 손에 넣었는데 또 한개 물어끊을 생각이 들었지. 령감이 미끼를 꿰구있는걸 보구 나는 물에 들어갔네. 방금 낚시줄을 살그머니 더듬어서 거기다 입을 가져다댔을 때 령감이 힘껏 낚시대를 낚아채지 않겠나! 낚시줄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구 낚시가 웃입술을 꿰었어.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 물은 입으루 몰려들어오네. 령감은 낚시대를 당겨 나를 건져내려구 애쓰지. 나야 두말할것두 없이 이만저만하게 아프지 않으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낚시에 끌려갈게구 그러니 벌써 령감이 물속으루 내밀에 지팽이를 쓸어미는게 알려지더군.… 그래 이때 나는 물밖으로 올라 고약하게 소리를 질렀지. 령감은 얼이 나가 십자를 그으려 하지만 그것두 못하구 그 얼굴은 질겁을 해서 무쇠보다도 더 시꺼매졌어. 그야 령감이 왜 혼이 나지 않았겠나. 가물치를 낚은줄 알았는데 사내애녀석을 낚았거던. 꼼짝않고 서있다가 령감이 내참, 어떻게나 내빼던지… 두발의 구두가 벗어져날아났어! 나는 낚시에 입술이 꿰운채 집으루 왔지. 아버지는

입술을 갈라헤치구 낚시를 뽑아내구나서 정신을 잃을만큼 나를 때렸네. 그렇지만 그것두 무슨 보람이 있었겠나? 입술은 다시 아물었지만 그때부터 나를 쑈까리라구들 부르게 됐다네. (로씨야말로 가물치 비슷한 고기를 쑈까리라고 한다—역자 주) 그 실없는 별명이 내게 딱 붙어버렸지. …

다음해 봄에 나는 풍차가 있는 곳으루 게사니새끼들을 몰구가서 망을 보구있었네. 풍차가 돌아가구 그 가까이에서 게사니새끼들이 모이를 찾아먹구있는데 솔개미가 그우에서 빙빙 돌구있겠지. 게사니새끼들은 노랗구 귀여운데 솔개미는 어느것이든 하나 훔쳐가구싶을밖에. 그렇지만 내가 그것들 망을 보구있어서 솔개미한테 〈훠이, 훠이!〉 소리를 지르구 떠들어대네. 이때 내 동무녀석들이 달려와서 우리는 풍차날개에 매달리는 놀음을 시작했지. 한날개를 붙잡구 날개가 땅에서 둬아르쉰쯤 올라가면 손을 놓구 땅에 풀썩 떨어지거나 다른 날개를 갈아잡는거야. 애녀석들이란 참으로 고약하지! 이런 놀음을 생각해냈단 말일세. 제일 높이 올라간 놈이 임금님이 돼서 다른 녀석들을 타구서 풍차에서 탈곡장까지 가는거야. 그러니 누구나 임금님이 되구싶지. 그래 나두 〈이제 누구보다두 높이 올라가리라!〉 생각하구 게사니새끼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네. 날개를 붙잡구 올라가는데 문뜩 보니까 게사니새끼들우를 날구있던 솔개미가 금시라두 게사니를 채가려는 판이군. 나는 깜짝 놀랐지. 게사니새끼를 채우면 영낙없이 나는 얻어맞거던. … 〈얘들아!〉 하구 소리를 지르네. 〈솔개미다, 솔개미를 쫓아다고!…〉 그런데 그 서슬에 나는 자기가 풍차날개를 붙잡구있다는건 깜빡 잊었단 말이야. … 정신이 들었을 때는 내가 땅에서 까마득히 떠올랐겠지! 아래루 내려뛰자니 무섭구 우로 올라가자니 더욱 무섭네. 어떻게 하면 좋다? 어떻게 할가 하구 내가 궁리하구있는 동안에 날개가 곧바루 서고 나는 그우에 곤두섰네. 그러나 날개가 땅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하자 나는 물러났네. 땅까지 날아떨어지는데 얼마동안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내게는 너무 길게 느껴지더군. 땅에 떨어지니 뻔한 일루 호되게 뒤쪼았지. 정신없이 뛰여일어나서 보니까 손목옆에 뼈다구가 밖으루 삐여져 나오지 않았겠나. 그러자 나는 이루 말할수 없을만큼 아파서 만사가 시들해지더라니까. 솔개미는 기어이 게사니새끼를 한마리 채갔으나 그것두 나는 하등 어떻다 생각 안했네. 접골의술이 내 뼈다귀는 다시 제자리에 놔주었지만 그게 무슨 보람 있

었겠나? 역시 다음해에는 다시금 수확기에 뼈다귀를 삐구 만신창이 됐네. 삐뜨로브제가 끝난 후 형하구 함께 귀밀가을을 하러 갔지. 나는 말을 섬기구 형은 수확기에서 가을한 곡식을 내던지네. 나는 말들을 모는데 말들우에서는 등에가 빙빙 돌구있구 하늘의 해는 새하얀데 무척 더워서 나는 그냥 정신이 뻥해져 건덩건덩 졸다가 앉은자리에서 떨어질 지경이야. 그러다가 문뜩 눈을 떠보니까 옆의 밭고랑에 커다란 들기러기가 한마리 허리띠처럼 길게 누워있겠지. 나는 말을 세웠네. 형은 〈내 저것을 삼지창으루 때려잡겠다!〉 했구 나는 〈그보다두 형님, 내가 달려들어서 산채루 잡을가?〉 했지. 형의 말이 〈해봐!〉 하겠지. 그래서 나는 달려들어서 그 들기러기를 가로쓸어안았네. 그런데 그놈이 푸득거리면서 달아나려는군! 날개죽지를 펼치구서 그걸루 내 머리를 탁탁 치구 재빨리 뛰면서 나를 끌구가네. 그리구 질겁을 해서 (이를테면 혼비백산한거지!) 왼통 내게다 물찌를 갈겨대면서 갈개는 말 써레끌듯이 나를 끌구가거던. 그러다가 무슨 영문으론지 대뜸 뒤루 돌아서서 말발밑으루 뛰여들었다가 옆으루 나가는군. 그런데 말들이 겁이 많았는지라 나를 뛰여넘구 코를 울리면서 달리기 시작했네. 그러니 나는 수확기밑으루 들어갈밖에… 형은 황급히 부레끼를 벗기구 수확기날을 들어서 나를 들판밑에 넣구 내우루 수확기를 지나가게 했는데 수확기는 이리저리 마구 달리네. … 말 한마리는 바로 뼈다귀가 드러날만큼 물어뜯기워서 힘줄이 끊어졌구 나는 못 알아볼 지경으루 불성모양이 됐지. 형이 겨우 어떻게 말들을 세우구 그중 한마리를 풀어서 나를 그우에 가로 올려놓구 부락으루 돌아왔는데 나는 기러기똥과 흙투성이가 된채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 그 들기러기는 고약한 놈같으니, 물론 날아가버렸지. 그래두 나는 또 나았어. …

반년후에 이웃집에 갔다가 오는데 부락의 종자소 한마리가 가는 길을 막아서구있겠지. 내가 그놈을 피하여 가려구 하니까 그놈이 맹호처럼 꼬리를 말구서 뿔을 내밀구 나한테 접어들지 않겠나. 낸들 소뿔에 운명하는게 그리 신통할게 뭐야? 줄행랑을 놨지. 그런데 소란 놈은 나를 따라와서 뿔루 아래갈비대밑을 받아서 울바자너머루 뚱기쳤네. 그렇게 갈비대 하나가 뚝깍 귀양을 갔다니까. 설사 내게 그것이, 갈비대가 백이 있다 하드래두 터무니없이 갈비대를 잃어버린다는건 애석한게 아닌가. … 그때문에 나는 징병때 불합격이 됐지. 그 후루두 갖가지 짐승들한테서 혼이 난 일은 무수하네! 마귀가 나를 점찍어놓았

는지, 가령 어떤 개가 사슬을 끊구 그 망할것이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두 꼭 나한테 달려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시에 그것한테 맞다들거던. 그리구는 옷을 물어뜯거나 발을 깨물어대는데 그래, 그런 봉변이 무슨 리득이 있겠나? 우쟈치나야골짜기에서 바로 신작로까지 족제비한테 쫓긴 일두 있구 벌에서 메돼지들이 달려든 일두 있지. 종자소때문에 한번은 푸짐하게 매를 맞구 장화까지 잃어버렸어. 어느날 밤에 부락을 걸어가구있었는데 도네쯔꼬브네 집 맞은편에서 또 종자소를 만났네그려. 〈음마아!…〉 하구 꼬리를 휘두르겠지. 천만에, 나는 령리해서 네따위들은 상대루 하지 않는다 생각했지. 될수록 집가까이 붙어서 가는데 소란 놈은 나를 따라오네. 나는 도망을 쳤지만 바루 등뒤에서 그놈이 코를 씨근거리지. 그런데 길거리를 향한 그 집 창문이 열려져있더군. 나는 마치 박쥐처럼 그리루 날아들어가 사방 둘러봐두 방에는 아무두 없겠지. 그래서 사람들을 소란스레 할것없이 다시 창문으루 해서 나가리라 생각했지. 소란 놈은 잠시동안 음마소리를 지르다가 집둘레에 쌓아놓은 흙을 뿔루 헤집어놓구 가버렸네. 내가 금시 창문으루 해서 길거리루 뛰여나가려구 했을 때 누가 내 팔을 덥석 쥐더니 무엇인가 단단한 물건으로 뒤통수를 치겠지. 집주인 도네쯔꼬브령감이 소리를 듣구서 나를 붙잡은거야. 〈무엇하러 여기 들어왔니, 이녀석아?〉 〈소한테 쫓겨들어왔어요.〉 〈아니다, 너희들의 소가 어떤건지 나는 안다! 너 이놈, 우리 집 며느리 올류뜨까한테루 기여들어왔지?〉 하면서 나를 두들겨패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롱조였지만 차츰 세게 두드려대더라니까. 그 령감태기는 아직 건장하구 자기자신이 며느리한테 손을 대구있었는데 이를테면 그래서 약이 올라 내 어금이를 하나 부러뜨렸다네. 그리구나서 하는 말이 〈앞으루 또 올류뜨까한테 다니겠느냐?〉 〈아니요, 안 다니겠어요, 말두 마슈! 당신네 올류뜨까를 십자가대신 끈을 달아 목에 메슈!〉 〈자, 장화를 벗어라, 벗지 않으면 또 답새기겠다!〉 그래서 나는 장화를 벗어서 잘 신으십사 하구 내줬지. 둘도 없는 장화를 뺏기는것두 그리 재미있는 일은 아니였네! 나는 그 올류뜨까를 대여섯해나 두구두구 미워했지만 그게 무슨 보람있겠나? 그런 식으루 줄창 봉변을 당했다니까. …

가령 우리가 찌또크를 청산했을 때만 해두 그렇지. 글쎄 대관절 왜 그 수개란 놈이 내 외투를 쪼각쪼각 넝마를 만들었단 말이야? 모든 점으루 봐서 마까르나 그렇지 않으면 류비슈낀한테 응당 달려들어야 할

텐데 그 망할놈의 개가 뜨락을 빙빙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접어들더라니까. 멱다시를 물지 않았기 다행이지 한 둬번 넙죽넙죽했더라면 쓔까리는? 숟가락 놓을번 했지. 아—니, 우린 그런걸 다 알구있어. 그건 물론 내게 권총이 없었기때문에 그렇게 끝난거구 운수사납게 내게 권총이 있었더라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나? 정녕쿠 살인이 일어났지! 나는 화끈 달면 앞뒤를 가리지 못한다네. 당장에 수개두 찌또크네 녀편네두 요정을 냈을게구 찌또크의 아가리에다 있는 총알을 죄다 처박았을거야! 그러면 살인이 나서 거꾸루 쓔까리가 감옥에 갇혔을지 모르지. … 그렇지만 내게 감옥은 하등 소용이 없구 내게는 다른 관심사가 있거던. 그렇지. … 그런즉 나는 굉장한 장군이 된셈이야. 나를 받아낸 할미가 지금 살아있다면 나는 그 할미를 산채루 홀딱 먹어버리겠어!… 쓸데없는 수작을 말아야거던! 어린것을 랑패하게 해서는 안되거던!…자, 저것이 작업반의 숙영이네. 다 왔네!》

제 32 장

이미 복도에서 장화에 묻은 진득진득 덩어리진 흙을 젖은 비자루로 떨구면서 라즈묘뜨노브는 나굴리노브의 방문틈사이로 엇비스듬히 흘러나오는 불빛줄기를 보았다. (마까르가 자지 않는군. 왜 저사람은 잠이 오지 않는걸가?) 안드레이는 소리도 안 내고 방문을 열면서 생각했다.

끄슬린 신문지갓을 씌운 5푼심지 남포등이 책상 한모서리와 펼쳐져있는 책을 어스름히 비치고있었다.

머리칼이 부스스한 마까르의 머리는 일심전념 책상우에 기울어졌고 오른편손으로는 볼을 고이고 왼손가락은 앞이마털을 꽉 그러쥐고있었다. 《잘있나, 마까르! 왜 자네는 자지 않구있나?》 나굴리노브는 고개를 들어 달갑지 않게 안드레이를 바라보았다.

《뭣하러 왔나?》

《좀 얘길 하려구 왔네. 방해되나?》

《방해가 되건안되건 하여간 앉게, 쫓아낼순 없으니까!》

《뭘 읽구있나?》

《공부를 하나 하기루 했네.》 마까르는 무엇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이 라즈묘뜨노브를 바라보면서 책을 손바닥으로 덮었다.

《나는 마리쉬까하구 헤여졌네, 아주…》 안드레이는 한숨을 내쉬고 맥이 풀린듯이 걸상에 내려앉았다.

《벌써 그랬어야 했지.》

《그건 어째선가?》

《그 녀편네는 자네에게 방해되였어. 지금은 필요없는건 모두 물리쳐야 할 그런 세상이거던. 지금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온갖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쓸 때가 아니야!》

《우리가 피차 사랑했다면 왜 그게 쓸데없는 일이겠나?》

《아니,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건 목칼이지 사랑이 아닐세. 자네는 회의를 하구있는데 그 녀편네는 자네한테서 눈두 안 돌리구 앉아서 강짜를 하구있으니 그건 여보게, 사랑이 아니라 형벌이야.》

《그럼 자네 생각엔 공산주의자는 계집옆에두 가면 안된단 말인가?》

《그야 안되지. 대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구있나? 오래전부터 바보가 돼서 결혼을 한자들은 녀편네와 함께 일생을 살라구 내버려두더라두 내 생각같애선 젊은이들은 법령이라두 내려서 결혼을 금지했으면 좋겠네. 녀편네 치마자락에 맛이 든다면 무슨 혁명가가 되겠나? 우리에게 있어 계집이란 게걸스러운 파리를 부르는 꿀과 같은거네. 한번 붙으면 마지막이거던. 나자신이 그걸 경험했기때문에 절대루 알구있네. 흔히 있는 일이지만 밤에 독서라도 해서 발전해볼가 하면 녀편네는 자리에 누워버리네. 좀 독서를 하다가 가서 누우면 녀편네가 잔등을 돌려대구 돌아눕지. 그러면 그런 행동이 노여워서 나무란다든가 혹은 잠자쿠 담배만 피우면서 약이 올라 잠이 달아나구마네. 잠이 모자라서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구 정치적으로 옳지 못한 어떤 일을 저지르지. 이건 경험한바이네! 그리구 새끼들까지 생긴다면 그건 벌써 당을 위해서는 죽은 사람일세. 그런자는 수월히 애를 잘 보게 되구 어린애젖냄새에 습관되는데 그렇게 되면 벌써 다야! 그런자는 투사로서두 좋지 못하구 쓸모없는 일군이거던. 제정때 나는 젊은 까자크들 훈련에서 많이 봤지만 총각은 얼굴두 명랑하구 깨닫는것두 빠르지만 젊은 녀편네를 두구 련대에 온 작자는 가끔 울적해서 목석처럼 등신이 되구마네. 아둔해져서 아무것두 깨우쳐줄수가 없네. 복무규정에 대해서 얘기해줘두 단추처럼 눈만 말똥말똥하구있거던. 나를 보구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눈이 자기 맘속으로 향해서 녀편네만 보구있는거네. 그래 그게 조리있는 일인가? 아닐세. 여보게, 전에는 자네두 마음대루 살수 있었지만 지금은 당에 들어있으니만큼 부질없는짓을 그만둬야 하네. 세계혁명이 성취된 후라면 자네가 계집을 안구서 뒈진대두 내게 아랑곳없지만 지금은 전신전념 그 혁명을 향해서 돌진해야 하네.》 마까르는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뚝뚝 소리를 내면서 균형이 잡힌 널직한 어깨를 바로잡고나서 라즈묘뜨노브의 어깨를 두드리며 보일가말가하게 눈웃음을 띄웠다. 《자네는 아마 내게 하소연하구 함께 쿨쩍거려줬으면 하구 나를 찾아왔겠지. 〈참말 자네 신세가 가련하네. 안드레이, 자네같은 다정다감한 사나이가 아낙이 없어서는 괴로울게구 참구 지내기가 힘들겠네.…〉 내가 그렇게 말해줬으면 하나? 아닐세, 안드류하, 다른 일이면 또 몰라두 그것만은 나한테 기대하지 말게! 나는 자네가 그 기병조장의 과부와 헤여진걸 오히려 기뻐하네. 가령 나만 하드래두 루쉬까와 리별했지만 아주 속이 편안하네. 아무두 방해를 놀지 않구 이제는 나는 날카로운 총창처럼 바로 그 끝날을 부농들이며 기타 공산주의의 원쑤들한테루 돌리구있네. 그리구 이렇게 자기자신 공부두 하구 교양을 쌓을수까지 있거던.》

《대체 무슨 공부를 하구있나? 어떤 학문을 쌓구있어?》 라즈묘뜨노브는 깔끔히 차겁게 물었다.

그는 속으로 마까르의 말에 분노를 느꼈다. 마까르가 자기의 슬픔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을뿐만아니라 진작 기뻐하는 빛까지 보이고 또 안드레이의 견해에 의하면 결혼에 대해서 엉터리없는 망발을 하는 분노를 느꼈다. 아주 정색하게 력설하는 마까르의 말을 들으면서 안드레이는 일순 공포까지 느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받기 잘하는 암소에게는 조물주가 뿔을 안 주기 다행이지. 만약 마까르한테 정권을 준다면 무슨짓을 할는지 몰라? 이자는 그 본새루 온 세상을 거꾸로 세우구말게야! 사회주의에서 주의를 딴데 돌리지 않게 하려구 전체 남성계급을 고자로 만들 생각까지 했을지 몰라!)

《무슨 공부를 하느냐구?》 마까르는 그렇게 되묻고 책을 탕 쳤다. 《영어를 공부하구있네.》

《뭣—을?》

《영어네. 이 책은 자습서네.》

나굴리노브는 안드레이의 얼굴에 비웃는 빛이라도 나타나지 않는가

념려하면서 주의깊게 그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뜻하지 않은 일에 하도 정신이 뻥했기때문에 커다랗게 뜬 그의 감때사나와보이는 두눈에서 나굴리노브는 놀란 빛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아니, 그래 자네는… 벌써 그, 그네들의 말루 읽거나 말할줄 아나?》

그러자 나굴리노브는 거드름스러운 빛을 머금고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말은 아직 못하네. 그건 그리 수월치 않아. 그저 저, 이를테면 인쇄된건 알아보게 됐네, 넉달째 공부하구있으니까.》

《어려운가?》 라즈묘뜨노브는 침을 꿀꺽 삼키고 부지중에 존경을 느끼면서 마까르와 또 책을 바라보고 그렇게 물었다.

마까르는 라즈묘뜨노브가 그의 공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큰것을 보자 조심하는듯 한 태도를 버리고 이번에는 선선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루 말할수 없을만큼 어렵네! 이 몇달동안에 겨우… 말을 여덟개 따루외웠네. 그렇지만 말자체는 우리 말과 어느 정도 비슷하네. 그네들은 우리 말에서 여러 말을 따갔는데 다만 거기다 자기네 투루 꼬리를 붙였더군. 가령 〈프로레타리아트〉란 말은 그네들 말에서두 꼬리가 다를뿐 같구 또 〈레월류찌야〉(《혁명》—역자 주), 〈꼼무니즘〉(《공산주의》—역자 주)이란 말두 그렇네. 그네들은 꼬리에 가서 어쩐지 숏숏 하는 발음을 하는게 마치 그런 말들에 대해서 골을 내는것 같네만 그렇다구 그네들이 그걸 어떻게 피하겠나? 그 말들은 전세계에 뿌리를 뻗쳐서 원커나 원치 않거나 말해야만 하게 되여있거던.》

《그렇—군… 그래 공부하구있단 말이지. 그런데 마까르, 자네한테 그 말이 무슨 필요있나?》 마침내 라즈묘뜨노브는 물었다.

나굴리노브는 너그러운 웃음을 띄우고 대답했다.

《자네는 이상한 말을 묻는군, 안드류하! 자네가 아둔한데두 놀라겠네. … 나는 공산주의자네, 그렇지? 영국에두 역시 쏘베트정권이 생길테지? 고개를 끄덕이니 생긴단 말이지? 바로 그걸세. 적거던. 영국부르죠아들은 인디아며 세계의 거의 절반을 점령하구서 흑인과 갈색인들을 모두 억압하구있네. 그게 대체 무슨 법이냐? 거기에두 쏘베트정권이 생길텐데 영국의 다수 공산주의자들은 계급적원쑤의 정체를 모

틀게구 또 익숙되지 않아서 그 원쑤들을 알맞춤히 취급할줄 모를걸세. 그때 나는 그네들한테루 찾아가서 그네들을 깨우쳐주겠다구 청을 낼테야. 그리구 그때에는 내가 그네들의 말을 알구있을테니까 찾아가자 즉시루 아퀴를 지어버리겠네. 〈여기는 레월류숀인가? 콤무니치숀인가? 여보게들, 자본가와 장군들을 걷어치우게! 우리 로씨야에서는 1917년에 그놈들을 놓아두었더니 그놈들이 후에 우리를 혼뜨검을 냈네. 잘못이 없두룩 되두룩 그놈들을 걷어치우게.〉 이러겠네.》 마까르는 벌렁코구멍을 벌리고 라즈묘뜨노브에게 눈을 끔쩍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내게는 그네들의 말이 필요하네. 알겠나? 나는 밤을 자지 않구 마지막건강마저 해칠망정…》하고 촘촘히 난 잔이발들을 부드득 갈고 말을 마쳤다. 《그 말을 배우고야말겠네! 세계의 반혁명분자들과 영어루써 사정없이 말할테야! 그 벌레같은 놈들은 지금부터 떨어야 해! 이제 마까르 나굴리노브가 그놈들을, 흠… 놈들한테 호락호락할 내가 아니야! 용서없이. 〈너희네 영국로동계급한테서, 인디아인들한테서, 기타 여러 피압박민족들한테서 피를 빨아먹었느냐? 남의 로력을 착취했느냐? 이 피에 굶주린 독사들아, 담벽에 가서 서라!〉 그것만 얘기하면 그만이야! 나는 무엇보다두 먼저 그 말을 배우겠네, 술술 나오게끔.》

그다음에도 그들은 한 반시간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다가 안드레이는 가버리고 나굴리노브는 자습서에 머리를 파묻었다. 느릿느릿 입술을 움직이며 긴장하여 그 널직한 눈섭을 찌프리고 땀을 빼면서 두시반까지 앉아있었다.

다음날은 일찌기 깨여 우유를 두고뿌 마시고 꼴호즈의 마구간으로 갔다.

《기운이 센 말을 어느거든지 한마리 내주게.》 그는 마구간당직에게 부탁했다.

당직자는 희한할만큼 피곤을 모르며 기운좋기로 이름난, 엉덩이가 처진 작달막한 황부루를 끌어내더니 궁금한듯이 이렇게 물었다.

《먼데 가시려는가요?》

《구역에 가네. 다위도브한테 내가 오늘 밤에 돌아온다구 전해주게.》

《타구가시나요?》

《그래. 안장을 내다주게.》

마까르는 말에 안장을 놓고 굴레를 벗긴 다음 일찌기 찌또크네것이던 화려한 톱날모양으로 된 등자에 익숙한 동작으로 발을 걸었다. 말은 당장 춤추는듯 한 속보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대문을 나서는데서 문뜩 발을 걸채여 두무릎을 짚고 하마트면 꼬꾸라질번 했으나 겨우 어떻게 자세를 바로잡고 낑큼 날쌔게 일어섰다.

《되돌아오게. 좋지 않은 징조야, 나굴리노브동지!》 대문가까이 걸어오던 쓔까리령감이 한옆으로 물러서면서 웨쳤다.

대답도 하지 않고 마까르는 속보로써 부락을 달려 큰길로 나섰다. 촌쏘베트옆에서 20명가량의 녀편네들이 흥분한듯 떠들썩하게 무슨 말들을 하고있었다.

《물러나소, 까치님네. 그렇지 않으면 말루 짓밟아버리겠소.》

마까르는 익살맞게 소리를 질렀다.

녀편네들은 아무말도 없이 길에서 물러났다.

마까르가 이미 그들의 앞을 지났을 때에야 약이 오른 갈린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다.

《망할녀석같으니, 너나 짓밟히우지 않게 해라! 두고보지, 이제 저렇게 달리다가 좋은 일은 없을테니…》

×

구역당위원회의는 11시에 시작되였다. 회의의정에는 첫 5일간의 파종사업진행에 관한 구역농업부장 베글릐흐의 보고가 상정되여있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외에 구역검열위원회 위원장 싸모힌과 구역의 검사가 참석하고있었다.

《여러점에서 자네문제가 제기될테니 가지 말게.》 하고 조직부장 호무또브가 미리 나굴리노브한테 침을 놓았다.

반시간에 걸친 베글릐흐의 보고는 긴장되고도 답답스럽게 고요한 가운데 청취되였다. 구역내의 어떤 곳들에서는 땅이 다 준비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종을 시작하지 않았고 일부 촌쏘베트들에서는 종곡이 완전히 수집되지 않았다. 워이쓰꼬보이촌쏘베트에서는 이전의 꼴호즈원들이 거의 전부 다 종곡을 가져갔고 올리호바트스크에서는 꼴호즈관리부가 제쪽에서 꼴호즈탈퇴자들에게 종곡을 나눠줬다. 보고자는 파종의 집행이 시원스럽지 못한 원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동지들, 두말할것두 없이 파종에서의 우리의 락후는 아니, 나더러 말하라면 락후여부가 아니라 한자리에서의 정체, 같은 한자리에서의 동결은 여러 촌쏘베트에서 꼴호즈들이 지방일군들의 강압에 의해서 창설된데 기인합니다. 그 지방일군들은 집단화의 수자를 불쿠기 위해서 몰아넣었구 어떤 곳에서는 주지하는바와 같이 권총까지 써서 꼴호즈에 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 견고치 못한 꼴호즈들이 현재 물에 밑둥을 씻기운 흙담장처럼 붕괴되고있는데 거기에서는 꼴호즈원들이 밭에 나가지 않으며 나가드래두 마지못해 일을 하는 침체한 현상이 벌어지구있는것입니다.》

구역당위원회 비서가 경고하듯이 연필로 유리물병마개를 두드렸다.

《동지들, 내 보고는 이제 곧 끝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는것을 허락해주십시오. 이미 이상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구역농업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역에서는 첫 5일간에 겨우 383헥터를 파종했습니다. 지체없이 구역내의 전체 열성자들을 동원해서 각 꼴호즈루 파견하는것이 필요하다구 생각합니다. 내 의견 같아서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꼴호즈원들의 탈퇴를 견제하며 꼴호즈관리부와 세포비서들에게 책임지워 날마다 꼴호즈원들속에서 해설사업을 진행하며… 즉 국가가 꼴호즈원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고있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이야기하는데 주력을 기울이는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 고장들에서 전혀 해설되지 않았으니까요. 무척 많은 꼴호즈원들이 지금까지도 꼴호즈들에 얼마나 대부금이 지출되였는지 또는 기타 모든 일을 알지 못하구있습니다. 이밖에 나는 우리들로 하여금 파종에 착수하지 못하게 한 편향의 과오를 범한 사람들의 건을 시급히 심의할것을 제의합니다. 그들은 3월 15일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철직당해야 합니다. 나는 시급히 심의하며 그들모두에게 엄격한 당적책임을 추궁할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베글리흐의 보고에 대해서 말할 사람 없소?》

구역당비서는 짐짓 나굴리노브의 눈을 피하면서 좌중을 둘러보았다.

《대체 뭘 얘기하겠소, 뻔한 일인데.》

상무위원회 한사람인 구역민경책임자가 한숨을 내쉬였다. 그는 다부지고 늘 땀이 나있으며 몸가짐이 군인답고 반들반들하게 면도로 민 머리에 상처자국이 무수한 건장한 사나이였다.

《베글리흐의 결론을 우리 결정의 기초로 삼잔 말이지요, 그렇소?》 비서는 물었다.

《물론이지요.》

《그럼 이번에는 나굴리노브에 관해서요.》 비서는 회의개시 이후 처음으로 마까르가 있는쪽을 일별하고 잠시동안 초점없는 서먹서먹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러분이 다 아는바와 같이 이 사람은 그레마치 당세포비서로 있으면서 일련의 엄중한 반혁명죄를 범했소. … 구역당위원회의 지시를 거슬러 집단화시기와 또 종곡수집시에 좌경적로선을 취했소. 이 사람은 권총으루 개인농 한명을 구타했구 랭방에다 꼴호즈원들을 감금했소. … 싸모힌동지자신이 그레마치로 가서 그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나굴리노브가 혁명적규률을 놀랄만큼 위반했구 당의 로선을 해독적으로 외곡한 사실을 발견했소. 싸모힌에게 언권을 줍니다. 싸모힌동지, 당신이 나굴리노브의 범죄적행동에 대해서 규명한 바를 상무위원회앞에서 보고하시오.》 비서는 눈시울이 부석부석한 눈을 가느스름히 내리뜨고 진한듯이 팔굽을 짚었다.

나굴리노브는 구역당위원회에 도착한 순간부터 자기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것과 관대한 취급을 바랄수 없음을 깨달았다. 구역당비서는 무진 자기를 억제하면서 그와 인사했으며 담화를 피하려고 하는듯이 즉시로 구역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것이였다.

《내 일은 어떻게 될가? 뽀르츠쥔스끼?》 마까르는 어지간히 겁을 집어먹고 그에게 물었다.

《상무위원회가 결정할테지.》 이쪽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다음사람들도 모두 마까르의 무엇을 묻고싶어하는듯 한 시선을 피하며 그를 멀리했다. 필시 그의 문제는 그들사이에서 이미 사전에 결정된것 같았다. 민경책임자 발라빈 한사람만이 마까르의 손을 굳게 쥐고 동정하듯이 미소를 띄웠다.

《나굴리노브, 떨것 없네! 그야 실수를 했지. 머리가 혼란돼서 공연한짓을 했지. 우리는 정치적으루 그리 안받침이 돼있지 않으니까. 자네따위가 아니라 두뇌가 좋은 사람들두 잘못을 저질렀네!》 그는 모서리가 죄다 닳아버린 개천의 조약돌처럼 동그랗고 단단해보이는 머리를 설레설레 젓고 시뻘건 짧은 목의 땀을 훔치고나서 동정한다는듯이 두터운 입술로 쩝쩝 입맛을 다셨다. 마까르는 저으기 기분이 나서 발라빈의 벌기우리한 혈기좋은 얼굴을 바라보고 이 젊은이는 내 속을

꿰뚫어보고 나를 리해하며 동정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한듯이 미소를 띄웠다. 《내게 엄중경고를 주구 비서를 그만두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까르는 불안스레 싸모힌을 바라보았다. 이마가 넓고 리혼에 대해서 질색을 하는 이 조그마한 사나이가 누구보다도 제일 그를 불안케 하는것이였다. 그래서 싸모힌이 가방에서 듬직한 서류뭉치를 꺼냈을 때 나굴리노브는 콕 찌르는듯 한 불안을 통절하게 느꼈다. 그는 벌렁벌렁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머리로 피가 뻗쳐올랐으며 관자노리가 화끈하고 아찔아찔한 가벼운 구역질이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라왔다. 그는 매양 발작을 일으키기 조금전에 언제나 그런 상태에 빠지는것이였다. 《제발 지금은 일어나지 말아!》 그는 싸모힌의 느릿느릿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속으로 흠칫했다.

《구역당위원회와 구역검열위원회의 위임으로 나는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나굴리노브자신과 그한테서 봉변을 당한 그레먀치 로그의 꼴호즈원 및 개인농들을 심문하고 또 증인들의 진술에 기초해서 내가 규명한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나굴리노브동지는 명백히 당의 신임을 어겼으며 당에 막대한 해독을 가져오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2월달 집단화때에는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권총으로 위협해서 꼴호즈가입을 강요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중농 일곱명을 꼴호즈에 소위 인입시켰습니다. 이것은 나굴리노브자신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놈들은 뿌리까지 썩어버린 백파요.》 나굴리노브는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자네한테 언권을 안 줬네. 질서를 지켜주게!》 비서는 엄하게 그의 말을 막았다.

《…그후 종자수집시에 그는 한 개인중농을 기절할만큼 권총으로 구타했습니다. 그것도 꼴호즈원들과 촌쏘베트의 련락원들이 있는데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 사람이 즉시 종자를 반입할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구타했습니다. …》

《창피한 일이군!》 검사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나굴리노브는 손바닥으로 목을 문질렀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잠자코 있었다.

《같은 날 밤에. 동지들, 그는 옛날 경찰관처럼 세명의 꼴호즈원들을 랭방에 감금하고 밤새껏 그들을 거기에 가둬두었으며 또 그들이 즉시 종자를 반입할것을 거절했다 해서 권총으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나는 그자들을 위협하지 않았소. …》

《나는 그들이 말한대로 말하고있소. 나굴리노브동지, 말허리를 끊지 마시오! 저 사람의 강경한 요구에 의해서 중농 가예브가 부농으로 청산당하고 추방됐는데 가예브는 재산정도에 있어 절대로 부농축에 넣을수 없었으니만큼 전연 청산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1928년에 고용자를 가지고있었다 해서 나굴리노브의 주장에 따라 청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용자란 어떤것이겠습니까! 동지들, 그것은 곡물수확때 한달가량 바로 그레먀치 로그에 처녀 한명이 고용되였었는데 가예브가 그 처녀를 고용한것은 오로지 그의 아들이 1927년 가을에 붉은군대에 입대해서 어린애 많은 가예브가 일을 해낼수 없었기때문입니다. 쏘베트법령은 그와 같은 고용로력을 금지하지 않고있습니다. 가예브는 고용위원회와의 계약에 근거해서 그 녀자고용자를 고용했고 임금도 완전히 지불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검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굴리노브는 란잡한 성생활을 하고있는바 이것도 역시 당원의 품성으로서는 적지 않게 엄중합니다. 나굴리노브는 안해와 리혼했습니다. 리혼했다느니보다 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개처럼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리유는 다만 그 녀자가 마치 그레먀치의 어떤 젊은이의 사랑을 받아들인것처럼 말하는 류언때문입니다. 일언이폐지하면 자기 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류언을 구실삼아 내쫓은것입니다. 저 사람이 현재 성적면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동지들, 그가 꺼리낌없이 음탕한 생활을 하고있다는것은 모든 자료들이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구서야 왜 저 사람이 안해를 집에서 쫓아내겠습니까? 나굴리노브가 류숙하고있는 집 마누라는 저 사람이 매일 밤 무척 늦어서야 집에 돌아오며 저 사람이 어디 가는지는 모른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지들, 우리에게는 저 사람이 어디를 갈수 있는가가 뻔합니다! 우리는 어린애들이 아닌만큼 안해를 내쫓고 녀편네를 갈아대는데 쾌락을 찾는 사나이가 보통 어떤 곳에 가는지 알고있습니다. … 우리는 알고있단 말입니다! 동지들, 이상이 말썽군인 세포비서 나굴리노브가 짧은 기간내에 행한 영웅적행동의(자기의 론고가 여기에 이르자 싸모힌은 독살스럽게 미소를 띄웠다.) 개략적사실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초래했습니까? 여기서 기탄없이 말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수령이신 쓰딸린동지가 천재적으로 표명하신바 성공으로 인한 현훈증이라기보다는 전혀 좌

경적인 망동이며 당의 총로선에 대한 침범입니다. 실례로 나굴리노브는 중농들을 부농으로서 청산하고 권총으로 위협해서 사람들을 꼴호즈에 몰아넣는 계책을 피웠을뿐아니라 가금과 부림소들과 착유집짐승 전부를 공동소유화할 결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 사람은 일부 꼴호즈원들의 말에 의하면 꼴호즈내에 가장 가혹한 규률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가금과 집짐승에 대해서는 구역당위원회에서 따로 지시가 없었소.》 나굴리노브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이미 전신을 뻗치고 왼쪽손을 경련적으로 가슴에 가져다대고 서있었다.

《아니, 그런 말일랑 말아주게!》 비서는 화를 벌컥 냈다. 《구역당위원회는 지시를 했네. 터무니없는 발뺌은 할것 없어! 협동조합규약이 있는바에야 자네두 젖멕이 애라구 그걸 헤아리지 못하겠나. …》

《…그레먀치꼴호즈에서는 사회적비판에 대한 억압이 성행하고있습니다.》 싸모힌은 계속했다. 《나굴리노브는 테로를 실시했으며 아무도 일언반구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해설사업을 진행할 대신에 그는 농민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발을 구르고 무기로 위협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레먀치 꼴호즈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꼴호즈에서는 대중적인 탈퇴가 진행되고있는만치 파종을 방금 착수하긴 했어도 반드시 해내지 못할겝니다. 우리들의 위대한 건설을 방해하는 모든 부패분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을 당에서 숙청할 사명을 지닌 구역검열위원회는 나굴리노브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 결론을 내릴것입니다.》

《전부요?》 비서가 물었다.

《예.》

《나굴리노브에게 언권을 줍니다. 어떻게 그런 생활에까지 이르렀는지 말해야겠소. 말하오, 나굴리노브.》

싸모힌이 이야기를 끝마칠무렵에 불길처럼 마까르를 휩쌌던 무서운 분노는 불시에 가뭇없이 사라지고 반신반의와 경악이 이를 대신했다. (저네들이 내게 대해서 이 무슨짓일가? 어쩌면 그럴수 있을가? 나를 망치려구들 하구있구나!) 탁상앞으로 다가가면서 그는 일순 그렇게 생각했다. 싸모힌이 말하고있는 동안 준비했던 맹렬한 반박이 깡그리 사라졌다. 머리가 텅 비고 적합한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마까르

에게는 무엇인지 야릇한 일이 생긴것이였다. …

《동지들, 나는 혁명때 당에 입당했소. … 붉은군대에 복무했소. …》

《우리는 그걸 모두 알구있네. 본문제에서 벗어나지 말게!》 비서가 초조스레 그의 말을 막았다.

《나는 모든 전선에서 백파들과 싸웠소. … 제1기병군단에두 있었구… 나는 훈장을 받았소. …》

《자네 본문제에 대해서 말하게!》

《그래, 이건 문제가 아니요?》

《발뺌을 하지 말게, 나굴리노브! 지금 자기 공훈으루 방패막이할건 없어!》 구역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말허리를 꺾었다.

《이 동지가 말을 하두룩 내버려두시오! 왜 당신들은 저 사람의 입을 막소?》 발라빈이 격분한듯이 웨쳤다. 조약돌처럼 동그란 그의 반질반질한 정수리가 갑자기 검붉은 연한 푸른색으로 물들었다.

《구체적으로 말하게!》

나굴리노브는 왼편손을 가슴에 댄채 그냥 그 모양으로 서있었다. 그리고 오른편손은 까칠까칠 말라서 뻣뻣해진 목으로 느릿느릿 뻗쳤다. 그는 파랗게 질려서 가까스로 계속했다.

《내게 말을 시켜주. 나는 적이 아니외다.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합니까? 나는 군대에서 만신창이 됐소. … 까스또니야부근에서는 타박상을 입었소. … 장갑포좌에서 날아온 중포탄에…》 하고 뚝 말을 끊었다. 시꺼매진 그의 두입술이 후후 공기를 들이마시고있었다.

발라빈이 얼른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까르에게 외면한체 고뿌를 내밀었다.

끄르츠쥔스끼는 나굴리노브를 힐끗 보고 급히 눈길을 돌렸다. 고뿌언저리를 틀어쥔 나굴리노브의 손은 와들와들 떨고있는것이였다.

고뿌가 마까르의 이발과 마주쳐서 딸각딸각 소리를 내는것이 고요한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아니, 자네 흥분할것 없네. 말하게!》 발라빈이 화가 나는듯이 말했다.

끄르츠쥔스끼는 량미간을 찌프리였다. 뜻하지 않은 련민이 울컥 가슴에 치밀었으나 그는 자기를 억제했다. 그는 나굴리노브가 당에 있어서 재액인만치 그를 철직시킬뿐만아니라 출당시켜야 한다고 깊이 마

음먹고있었다. 발라빈을 제외한 모두가 그와 뜻을 같이하고있었다.
마까르는 고뿌의 물을 단모금에 들이키고 숨을 가라앉힌 다음 말을 시작했다.
《나는 싸모힌이 말한걸 인정합니다. 사실 나는 그런짓을 했소. 그렇지만 당을 침해하려구 한건 아니요. 그건 싸모힌이 거짓말을 하구있소. 내가 음탕하다는것두 새빨간 거짓말이요. 만들어낸 소리요! 나는 계집을 멀리하구있소. 나는 그럴 경황이 없소. …》
《그래서 자네는 녀편네마저 내쫓았나?》 조직부장 호무또브가 물었다.
《그렇소, 바로 그래서요.》 마까르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렇지만 내가 모든짓을 한건… 나는 혁명에 리롭기를 바랐던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는지두 모르지요. … 모르겠소. 당신들은 나보다 학문이 있지요. 당신들은 학교두 나왔구 나보다 잘 볼거외다. 자기의 죄를 나는 적게 하려구는 하지 않아요. 마음대루들 심판하슈. 한가지 알아주기 바라는것은…》 그는 다시금 숨이 막혀서 말을 중둥무이하고 잠시동안 잠자코 있었다.
《여러분, 그건 내게 당을 반대하려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걸 알아주슈. 반니크를 때린건 그자가 당을 야유하구 종자를 돼지한테 주려고 했기때문이지요. …》
《어디 나오는대루 말해봐!》 싸모힌은 비웃듯이 퉁을 놨다.
《사실대루 말하구있소. 그 반니크를 죽여버리지 않은게 지금두 유감스럽소. 더 말할게 없소.》
꼬르츠쥔스끼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의 엉뎅이밑에서 안락의자가 찌그덕 소리를 냈다. 그는 이 답답한 사건을 빨리 끝내고싶었다. 그는 다급히 입을 열었다.
《자 동지들, 모두 명백하오. 나굴리노브자신이 자백하고있소. 하기는 사소한 점에서는 저 사람도 발뺌을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있으나 그 변명은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소. 누구나 문책을 당하는 사람은 죄의 일부를 벗어버리거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구 해보는 법이요. … 나는 나굴리노브를 꼴호즈운동에서의 당로선을 고약하게 위반한자로서, 사생활면에서 타락한 당원으로서 출당시키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오! 우리는 나굴리노브의 이전의 공훈을 보지 않기로 합시다. 그것은 지나간 단계니까. 우리는 다른자들에 대한 교훈으로서 저 사람

을 처벌해야 합니다.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당을 좌경 혹은 우경에 빠뜨리려구 시도하는 모든자들에 대하여 불철저한 처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두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어지간히 오래동안 묵인해왔소. 이미 지난해 공동경작조합조직때에두 저 사람은 좌경을 범해서 그때 벌써 나는 저 사람에게 경고했었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바에는 자기자신을 탓해야 하오! 손을 듭시다! 나굴리노브를 출당시키는데 찬성하는 사람? 손을 드는것은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들뿐이요. 그럼 네명이로군. 당신은 반대요, 발라빈동지?》

발라빈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탕 쳤다. 그의 관자노리에는 얼기설기 얼킨 피대줄이 부풀어져있었다.

《나는 반대일뿐아니라 단호하게 항의하오! 이건 근본적으루 옳지 않은 결정이요. 내게 말을 시켜주시오!》

《말을 하기에는 늦었소, 발라빈. 나굴리노브의 출당에 관한 결정은 다수가결루써 채택됐소.》

《그건 사람에 대한 관료적인 태도요! 미—안—하—지—만. 이것을 나는 그냥 두지는 않겠소! 나는 관구당위원회에 서신을 내겠소! 오랜 당원인 적기훈장수훈자를 출당시켜… 당신들은 우둔해졌소, 동지들! 마치 다른 책벌조치는 없는것 같군!》

《거기 대해서 론의할건 없소. 손을 들어 결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볼치들을 맞아야 해!…》 발라빈의 목소리는 목을 움츠린 가는 목소리로 변했다. 피둥피둥한 목이 하도 충혈하여 조금 다치기만 해도 손가락밑에서 피가 쏴 내뿜을것 같았다.

《이봐, 볼치 운운은 좀 나직이 말하게.》 조직부장 호무또브가 슬며시 다가드는듯 한 시원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자네에게두 규률을 적용할수 있네. 자네, 여기는 자네네 민경서가 아니라 구역당위원회세.》

《자네가 아니래두 아네! 그래 왜 당신들은 내게 말을 시켜주지 않소?》

《나는 그것이 필요없다구 생각하기때문이요!》 꼬르츠쥔스끼는 달아올랐다. 그리고 발라빈과 마찬가지로 자주빛이 되여 안락의자 팔걸이를 그러쥐였다. 《나는 여기 구역당위원회의 비서요. 당신의 발언을 금지하오. 말하구싶으면 저기 계단으루 나가시오!》

《발라빈, 흥분하지 마시오! 왜 달아서 그러우? 어서 자기 의견을

관구당위원회에 써보내시오. 그렇지만 손을 들어 결정을 했는데 왜 싸움뒤에 주먹질인가.》 구역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민경책임자를 타일렀다.

그는 발라빈의 제복옷소매를 잡고 한구석으로 데리고가서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말했다.

그즈음, 발라빈과의 충돌에 약이 오른 끄르츠쥔스끼는 눈시울이 부석부석 붓고 골이 난듯 번득거리는 눈을 들어 마까르를 바라보고 이제는 적의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이야기는 끝났네, 나굴리노브!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자네는 우리 대렬에서 제명됐네. 자네같은 작자들은 당에 필요없네. 당원증을 여기 내놓게!》 하고 벌거우리한 털이 돋은 손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나굴리노브는 죽은 사람처럼 새하얘졌다. 꿈틀꿈틀 커다랗게 그의 몸이 떨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당원증은 못 내놓겠소.》

《내놓게끔 할테다.》

《관구당위원회루 가게, 나굴리노브!》 발라빈이 방 한구석에서 웨치더니 구역집행위원회 위원장과의 담화를 중도에서 끊어버리고 요란스럽게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당원증은 못 내놓겠다…》 마까르는 되풀이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생기고 이마와 광대뼈가 두드러진 볼에서 파르스름하던 창백한 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당에두 아직 내가 필요할거구… 나두 당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 자네한테는 복종하지 않겠어!… 당원증은 여기 웃주머니에 있다.… 빼어낼테면 내봐라! 모가지를 끊어버릴테다!…》

《비극적인 장면이 벌어지는군!》 검사는 어깨를 으쓱 올렸다. 《제발 히스테리를 부리지 말아주게.…》

그의 말은 들은척도 안하고 마까르는 끄르츠쥔스끼를 바라보고 천천히 마치 깊이 생각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을 떠나서 어디루 가겠소? 그리구 무엇때문에? 아니, 당원증은 못 내놓겠소! 나는 여기에 자기의 일생을 바쳤소.… 일생을.…》 하고는 늙은이처럼 애처롭게 그리고 말없이 부산을 피우며 두손으로 책상을 어루만지면서 황급스레 조리없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를… 전사들에게 명령해서 총살해버

려야지. … 아무것두 남지 않게. … 이제는 이 세상이 내게 필요없으니 세상에서두 제명시켜주슈. … 결국 쎄르끄(개의 이름—역자 주)가 컹컹 짖을 때에는 소용됐지만… 늙어빠졌으니 집에서 내쫓아야지. …》

마까르의 얼굴은 석고로 만든 탈처럼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입술만이 실룩거릴뿐이였다. 그러나 마지막말을 할 때에 한자리에 박힌듯한 그의 눈에서, 어른이 된 이후 처음으로 눈물이 줄지어 철철 흘러나왔다. 눈물은 푸짐히 량볼을 적시고 오래 깎지 않아 꺗꺗하게 자라난 턱수염에 맺혔다가 가슴팍에 떨어져 검은 점점의 무늬를 이루면서 흘러내렸다.

《그만하게! 그래본댔자 보람이 없네, 동지!》 비서는 괴로운듯이 얼굴을 찌프렸다.

《너는 내게 동지가 아니다!》 나굴리노브는 웨쳤다. 《너는 승냥이다! 여기 있는 너희들모두가 독벌레들이다! 사람을 억누르기만 하지! 청산류수루 말공부만 했어! 호무또브, 너는 뭘 벙글거리구있어? 내 눈물을 비웃어?… 이놈… 21년에 포민이 한패당과 함께 관구내를 싸다니구있을 때 너는 관구위원회에 찾아왔었지, 기억하느냐? 기억하느냐 말이다, 이 개꼬리같은것아?… 찾아와서는 당원증을 내놓구 농사를 하겠다구 말했었지. … 너는 포민에게 질겁을 했었어! 그래서 당원증을 내던진거야. … 그러구두 후에 또다시 당에 기여들어왔지. 미꾸라지가 돌틈에 기여드는것처럼!…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나를 출당주는데 손을 들어? 내가 죽을듯이 슬퍼하는걸 비웃어?》

《그만하게, 나굴리노브. 제발 떠들지 말게. 우리에게는 아직두 문제들이 남아있네.》 가무스름한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긴 호무또브는 랑패하는 빛도 없이 검은 입수염밑에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타협하듯이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내게 대한 옳은 처리를 받을테다! 중앙위원회에 가겠다.》

《그렇지, 그렇지! 가보게! 거기서는 대번에 만사를 해결해줄거야! 거기서는 자네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구있으니까. …》 호무또브는 이죽거렸다.

마까르는 조용히 방문으로 걸어갔다. 문설주에 관자노리를 부딪치고 안깐힘을 썼다. 마지막으로 피여올랐던 분노에 마침내 그는 힘이 진했다. 아무런 생각, 아무런 느낌도 없이 대문까지 이르러 삽짝울타

리에서 말을 풀어 고삐를 잡고 말을 끌고갔다. 동구에 나와서 말을 타려고 했으나 올라탈수가 없었다. 네번이나 등자에 발을 걸었으나 마치 술에 취하기라도 한것처럼 비칠거리다가 안장틀에서 물러나군 했다. …

맨끝에 있는 집둘레의 토담우에 나이는 많으나 젊어보이는 한 령감이 앉아있었다. 껍질이 벗겨진 까자크식군모채양밑으로 그는 마까르가 말에 올라타려고 애쓰는것을 보고있다가 고무격려하는듯 한 미소를 띠웠다.

《장한 호걸이로군! 해가 중천에 있는데 벌써 발두 쳐들지 못한담.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부터 마신게로군! 혹시 오늘이 명절날인가?》

《명절날이지요, 페도뜨할아버지!》 이웃에 사는 사나이가 울바자너머로 내다보면서 대꾸했다. 《오늘은 씨몬제가 돼서 술집들루 십자행렬을 할 지경이랍니다.》

《글쎄 그런가부웨다.》 로인은 빙그레 웃었다. 《그러니 술보다 더 센 장사가 없지! 보겠나, 술이 저 사람을 안장에서 떨어뜨리구있네! 기운을 내게, 까자크!》

마까르는 이발을 부드득 갈았다. 그리고 장화코등이 등자에 닿자마자 새처럼 안장우에 날아올랐다.

제 33 장

그날 아침 야르쓰끼부락으로부터 스물세대의 꼴호즈달구지가 그레먀치 로그에 와닿았다. 풍차근처에서 반니크가 그들과 만났다. 굴레를 어깨에 걸치고 그는 말을 찾으려고 벌로 나가는 길이였다. 첫 달구지가 옆에까지 왔다.

《안녕하슈, 까자크여러분!》

《덕택으루 편안하외다.》 꼬리를 짧게 자른 말들을 섬기고있던 검은 수염의 허우대 큰 까자크가 대답했다.

《어디서 오는 달구지들이요?》

《야르쓰끼서 옵니다.》

《왜 당신네 말들은 꼬리가 없수? 어째서 말들을 볼품없게 만들었수?》

《와, 멋엇! 좋은 놈이지요! 꼬리를 잘랐는데두 여전하거던. 왜 꼬리가 없어졌는가구요? 잘라서 나라에 바쳤지요. 도시의 녀편네들이 말총으루 파리를 쫓을거외다. … 여보슈, 담배 가진것 없수? 한대 선사하슈, 우리는 담배에 궁했어요.》
까자크는 마차에서 뛰여내렸다.
뒤의 달구지들도 섰다. 반니크는 벌써 자기가 말을 건넨것을 후회하고있었다. 또 한 댓명가량이 신문지를 찢어서 담배 말 차비를 하며 걸어오는것을 보고 그는 시틋이 쌈지를 꺼냈다.
《당신들은 내 담배를 거덜내겠군. …》 린색한 반니크는 외마디기침을 깆었다.
《지금은 꼴호즈의 세상이외다, 알겠수? 모든것이 공동소유루 돼야거던.》 텁석부리는 무뚝뚝히 그렇게 말하고 마치 자기의 쌈지에서처럼 누거리담배를 한줌 잘 집어냈다.
모두 담배에 불을 붙였다. 반니크는 쌈지를 황급히 바지주머니에 쓸어넣고나서 거의 바로 밑둥에서부터 잘라버린 말꼬리를 측은한 눈으로 불쌍한듯이 바라보면서 웃었다. 피에 주린 봄파리들이 말한테 달려들어 땀밴 허벅다리며 목칼에 쓸친 목덜미에 내려앉았다. 말은 버릇대로 파리를 쫓아보려고 꼬리를 휘둘렀다. 그러나 털이 없어진 짧고 몰풍스런 꼬리밑둥은 보람이 없었다.
《이 말이 꼬리루 어디를 가리키는거요?》 반니크가 독살스럽게 물었다.
《그야 역시 꼴호즈를 가리키지. 그래 당신네 고장에서는 자르지들 않았소?》
《잘랐소, 그렇지만 두웨르쇼크밖에 자르지 않았지요.》
《그건 우리 쏘베트위원장의 지시였는데 그때문에 상금은 받았지만 더위가 시작되면 말들이 결단나지! 그럼 가봅시다. 담배를 잘 피웠소. 한대 피웠더니 속이 후련해지는군, 오는 동안 줄창 담배를 못 피워서 괴롭더니.》
《당신들은 어디루 가오?》
《그레먀치루 갑니다.》
《그럼 우리 부락이군. 그래 무슨 일루?》
《종곡을 가지러요.》
《그건… 그건 어렇게 돼서?》

《구역의 분부가 당신네한테서 480뿌드 종곡을 가져오랍니다. 자, 가세!》

《내 그럴줄 알았어!》 반니크는 소리를 질렀다. 굴레를 휘둘러대면서 그는 부락으로 뛰여갔다.

야르쓰끼의 달구지들이 꼴호즈관리부까지 이르기도 전에 벌써 부락민들의 태반은 야르쓰끼사람들이 종곡을 가지러 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반니크는 다리품을 아끼지 않고 가가호호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녀편네들이 골목에 모여 놀란 메추라기떼모양으로 시비를 하고 떠들어댔다.

《여러분, 우리 곡물을 가져간대요!》

《밭에 뿌릴게 없어지겠네!》

《이 일을 어쩌나!》

《공동소유창고에 넣을 필요가 없다구들 그만치 친절히 일러주었건만…》

《남정들이 우리 말을 귀담아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곡물을 내주지 못하게 남정들한테 가서 말해야 해!》

《우리들자신두 내주지 맙시다! 여러분, 곡물창고루 갑시다! 몽둥이를 들구 나서서 그 놈팽이들이 창고자물쇠루 기여들지 못하게 합시다!》

이윽고 까자크들이 나타났다. 그들사이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오고갔다. 골목에서 골목, 행길에서 행길로 옮아가면서 적지 않은 군중이 모여 곡물창고로 움직여갔다.

루뻬또브는 이렇게 썼었다. 《다위도브동지, 당신네 창고에는 수매시에 반출하지 않고 남은 73쎈트네르의 소맥이 있을겝니다. 그 소맥을(73쎈트네르 전부) 야르쓰끼꼴호즈에 내여주기 바랍니다. 그들은 종곡이 부족되고있습니다. 곡물합동사무소와 나는 이 문제의 합의를 얻었습니다.》

다위도브는 그것을 읽고나서 곡물을 내주도록 지시했다. 야르쓰끼사람들은 꼴호즈관리부의 뜰에서 곡물창고로 향했다. 그러나 창고옆의 행길은 인산인해로 막혀있었다. 2백명가량의 남녀가 달구지를 둘러쌌다.

《어디루들 가?》

《우리 곡물을 가져가려구? 렴치없게 찾아들 왔군!》

《돌아가라!》

《못 주겠다!》

좀까 우샤꼬브가 다위도브를 부르러 달려갔다. 다위도브는 줄달음쳐서 곡물창고로 뛰여왔다.

《여러분, 무슨 일이요? 왜들 모여있소?》

《당신은 왜 우리 곡물을 야르쓰끼사람들한테 내줍니까? 우리가 그자들을 위해서 곡물을 납입했소?》

《다위도브, 당신께 누가 그런 권리를 줬소?》

《그래 우린 뭘 심으라구?》

다위도브는 제일 가까운 창고의 처마우에 올라가서 자기는 구역농업동맹의 지시에 의해서 종자가 아니라 곡물수매때 미납된 곡물을 내주는것이라고 조용히 설명했다.

《여러분, 걱정마시오. 우리의 곡물은 몽땅 그냥 있을테니까! 당신들은 일없이 빈둥빈둥 해바라기씨만 까구있지 말구 밭에 나가야 하오. 작업반장들은 일에 안 나가는 사람들을 기록해둘테니까 그렇게 아시오. 나가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물게 하겠소.》

일부 까자크들은 행렬에서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다위도브의 언명을 듣고 안심하고 밭으로 향했다. 창고장은 야르쓰끼사람들에게 곡물을 내주기 시작했다. 다위도브는 관리부로 돌아갔다. 그러나 반시간후에 그냥 창고옆에서 지켜서있던 아낙네들의 기분상태에 급격한 변동이 생겼다. 이를 조장시킨것은 야꼬브 루끼치였는데 그는 몇명의 까자크들에게 이렇게 수군거린것이였다.

《다위도브가 거짓말을 하네! 곡물을 가져가구있는거야! 꼴호즈는 파종을 할테지만 개인농들이 납입한것은 야르쓰끼의 꼴호즈에 내주구있는거야.》

아낙네들은 떠들기 시작했다. 반니크, 제미드 몰츈, 도네쯔꼬브령감 그리고 30명가량의 까자크들이 잠시 상론하고나서 저울로 다가갔다.

《곡물을 못 주겠네!》일동을 대표하여 도네쯔꼬브가 언명했다.

《임자 허가는 안 받아!》 좀까 우샤꼬브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들사이에서는 말다툼이 시작되였다. 야르쓰끼사람들은 좀까를 두둔했다. 방목장에서 반니크한테 담배를 선사받은 바로 그 검은 턱수염의 덩지 큰 까자크는 마차우에 우뚝 서서 5분동안이나 맹렬히 욕

설을 늘어놓다가 그다음에는 아주 웨쳐대기 시작했다.

《자네들은 왜 당국의 지시를 어기나? 왜 자네들은 우리를 괴롭히나? 우리는 한창 바쁜 때 40웨르쓰따나 애써왔는데 그래 자네들은 국가곡물을 지리끼구있어? 자네들같은 개자식들은 쏠롭끼에 가져다 가두어야겠네! 꼴우에 앉은 개처럼 자기두 처먹지 않구 남에게두 안 준담! 왜 자네들은 밭에 안 나가나? 자네들은 명절이라두 만났나?》

《그래, 네놈은 무엇이 소원이냐? 수염이 가려운가? 좀 긁어주마!… 그건 제깍 해줄수 있어!》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마차로 비집고 나가면서 베쓰흘렙노브네 젊은 아낌이 웨쳤다.

야르쓰끼의 텁석부리까자크는 마차에서 뛰여내렸다. 그는 빛바랜 류바쉬까의 소매도 걷지 않았다. 그러나 젊은 아낌의 턱에다 어떻게나 맵시있고 기세좋게 한대 먹였던지 아낌은 잔등으로 사람들을 밀어헤치면서 두팔을 풍차의 날개처럼 휘둘러대며 두싸젠가량이나 날아났다.

일찌기 그레먀치 로그에서 있어본지 오랜 싸움판이 벌어졌다. 야르쓰끼사람들은 호되게 얻어맞았다. 류혈이 랑자하게 푸짐히 매를 맞은 그들은 곡물이 든 자루들을 쥐여던지고 겨우 마차에 올라타 말들을 채찍질하며 쇠소리를 지르는 녀편네들의 매를 헤치고 뺑소니를 쳤다.

이때부터 그레먀치 로그에 소동의 파문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좀까 우샤꼬브한테서 종곡이 들어있는 창고쇠를 뺏으려들었다. 그러나 눈치빠른 좀까는 싸움이 벌어질 때 군중들 틈에서 빠져나와 관리부로 달려왔다.

《다위도브동지, 쇠를 어디다 둘가요? 우리 부락패들이 야르쓰끼사람들을 짓부시구있는데 이제 아마 우리들한테두 달려들것 같습니다!》

《내게 쇠를 주게.》 다위도브는 침착히 말했다.

그는 쇠를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곡물창고로 향했다. 이즈음 녀편네들은 이미 촌쏘베트에서 안드레이 라즈묘뜨노브를 끌어내고 떠들썩하게 웨쳐대고있었다.

《군중대회를 열어!》

《여러분! 아주머니! 어머님네! 지금은 군중대회를 열수 없수다. 씨를 뿌려야지 군중대회는 필요없수다! 군중대회를 왜 열라구들 그러우? 그건 전사들의 말이웨다. 그 말을 하려면 먼저 전호속에 3년은 들어가있어야지! 전쟁에 나가서 이한테 실컷 깨물려본 다음 군중대회에 대

해서 말을 하슈.》 라즈묘뜨노브는 녀편네들을 깨우치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지, 옷소매, 옷자락을 쥐여잡고는 얼굴을 찌프린 안드레이를 덜레덜레 학교로 끌고가면서 부르짖었다.

《전호속에 들어가구싶진 않다!》

《전쟁에 가구싶진 않어!》

《군중대회를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자신이 열겠다!》

《열수 없다는건 개수작이야! 너는 위원장이다! 열수 있어!》

안드레이는 녀편네들을 떠밀치고 귀를 막았다. 그들보다도 더 큰소리를 내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닥쳐, 망할것들 같으니. … 좀 물러서라구! 무슨 일루 군중대회가 필요하단 말이야?》

《곡물에 대해서지! 곡물에 대해서 너희들하구 얘기를 하자!》

마침내 라즈묘뜨노브는 할수없이 이렇게 말했다.

《회의가 개회된걸루 칩시다.》

《내게 발언권을 주소.》 과부 예까쩨리나 굴라쌰야가 요청했다.

《말해, 제길헐!…》

《제길 소리는 마소, 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 누구 허락을 받구 당신들은 우리 곡물을 가져가게 했나? 누가 야르쓰끼놈들한테 내주라구 지시했구 또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나?》

굴라쌰야는 두손을 옆구리에 대고 몸을 비틀고서 대답을 기다렸다.

안드레이는 성가신 파리를 쫓듯이 그 녀편네한테 손을 내저었다.

《그건 다위도브동지가 당신들한테 어엿이 설명했소. 내가 회의를 연건 그런 실없는 일때문이 아니라…》 안드레이는 한숨을 내쉬였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쥐잡이에 나서야겠기때문이요.》

안드레이의 이 술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쥐가 다 뭐야!》

《쥐 여부가 아니야!》

《곡물을 내라!…》

《말은 청산류수로군, 고슴도치에 엉뎅이를 찔릴 놈! 쥐얘기루 어물쩍하려구! 그래 곡물얘기는 누가 하나?》

《곡물에 대해서는 할 소리 없소!》
《아—할말이 없다? 곡물을 도루 내라!》
굴라쌰야를 선두로 녀편네들이 무대로 다가들기 시작했다. 안드레이는 양철로 씌운 커다란 난로옆에 서있었다. 그는 비웃는 웃음을 띄우고 녀편네들을 바라보고있었으나 속으로는 저으기 불안을 느꼈다. 흰 구산초 벌판처럼 녀편네들의 머리수건이 주런이 뻗어있는 그뒤에 떼지어 서있는 까자크들의 몰골이 매우 험악했던것이다.
《너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장화를 신구 다니지만 우리는 신을 신두 없다!》
《인민위원이라두 된체 하구있지!》
《마리쓰까 남편의 바지를 입구 다니던것이 오래전 일인가?》
《개가죽을 썼어.》
《여러분, 저 작자의 신발을 벳깁시다!》
웨쳐대는 소리들이 마구 쏘는 맹사격처럼 요란스럽게 터져나왔다. 수십명의 녀편네들이 바로 무대앞에 떼지어 서있었다. 안드레이는 조용해지게 하려고 헛되이 애를 썼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던것이다.
《저 놈팽이의 장화를 벳겨라! 여러분, 자 제깍!》
당장에 숱한 손들이 무대로 뻗쳐올랐다. 안드레이는 왼쪽다리를 붙잡았다. 그는 간신히 난로끝에 매달렸다. 악이 치밀어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러나 이미 장화는 발에서 벗겨져 어딘가 뒤로 날아갔다. 무수한 손들이 장화를 받아 더 멀리 뒤로 내던졌다. 악의에 찬 사나운 웃음소리가 까르르 터졌다. 멀리 뒤줄에서 남자들의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홀딱 벳겨라!》
《바지두 벳기구 걸려!…》
《또 한쪽두 벳겨내!…》
《아낙네들, 해치우소! 저 돼지같은 놈을 혼쌀을 내소!…》
안드레이는 한쪽 장화마저 뽑히웠다. 그는 발에서 발싸개를 흔들어 내팽개치고 이렇게 부르짖었다.
《발싸개두 필요할테지? 가져가라! 누구 코수건이라두 만들어!》
몇명의 젊은이들이 얼른 무대로 다가왔다. 그중의 한명인 개인농 예핌 뜨루바쵸브는 이전 까자크분대장의 아들로서 입술이 두텁고 키가

한싸젠이나 되는 젊은 놈팽이인데 녀편네들을 밀어헤치고 무대우에 한발걸음 내디디였다.

《우리는 임자 발싸개는 필요없네.》그는 히죽이 웃음을 띄우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했다. 《위원장의 바지를 우리는 벳기겠네. …》

《우린 바지가 꼭 필요하네! 빈농들은 바지를 못 입구 다니네. 부농들한테서 뺏은걸루는 모자랐으니까.》 또 한명이 거침없이 주를 달았다. 보다 나이두 어리고 키가 작으나 보매 날카롭고 우두머리인것 같았다.

별명은 듸모크(연기라는 뜻—역자 주)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보기드문 곱슬머리였다. 연기처럼 뽀얗고 희읍스름한 그의 곱슬한 머리카락은 난생 한번도 빗질을 안한듯 그처럼 마구 곱실곱실 얽히여 낡은 까자크군모의 채양밑으로 치켜올라가있었다. 듸모크의 아버지는 도이췰란드전쟁때 전사했고 어머니는 티브스로 사망하여 어린 듸모크는 삼촌어머니가 키웠다. 어린아이때부터 그는 남의 남새밭밑에서 오이와 무우, 과수원에서는 벗나무열매와 사과를 훔쳤고 수박밭에서는 자루로 수박을 채냈다. 그리고 성년한 후로는 향기롭지 못한 악명을 떨쳤다. 나이찬 딸을 가진 그레먀치의 어머니들은 누구나 듸모크를, 그의 크지는 않으나 매처럼 어울린 몸매를 평온한 마음으로는 볼수 없었다. 그를 보기만 하면 반드시 고개를 돌려 침을 뱉고 이렇게 중얼거리는것이다.

《흰눈깔망나니가 걸어가네! 암내맡은 수개처럼 부락을 그냥 싸다니지.》 하고는 딸에게 《그래 너는 왜 눈을 부릅뜨구있니? 왜 창가에 버티구 섰어? 새끼를 받아가져와 봐라, 받아오기만 하면 내 손으로 숨통을 눌러버릴테다. 땔 말똥이나 가져오구 소를 맞으러 가라!》

그러나 듸모크는 해진 구두를 신은 발을 그 어떤 짐승처럼 사뿐히 디디면서 이발사이로 조용히 휘파람을 불며 울바자와 울타리옆을 지나간다. 끝이 우로 휘고 방사형으로 자란 속눈섭밑으로 들창이며 뜨락을 바라보다가 어디서든 처녀의 머리수건이 얼씬하기만 해도 느리고 굼뜬것 같이 보이던 듸모크는 삽시간에 태도가 일변하는것이다. 그는 날래고 정확한 동작으로 매처럼 얼른 고개를 돌리고 자세를 바로잡는다. 그때 그의 희읍스름한 두눈에 보이는것은 야수성이 아니라 다정함과 지극한 애정이다. 이런 순간에는 듸모크의 눈이 빛갈까지 달라져 7월달 하늘처럼 아득히 푸르러지는것 같다. 《페크쮸쉬까!

내 사랑아! 오늘 저녁 어두워지면 뜨락너메 와있으마. 너는 오늘 어디서 자겠니?》 《아유, 그런 얼빠진 소리 말어!》 처녀는 뛰여가면서 조금도 곁을 주지 않고 매섭게 대답한다.

  듸모크는 다 안다는듯 한 미소를 띄우며 처녀의 뒤를 바라보다가 걸어간다. 해질무렵에는 공동소유창고근처에서 자기의 친한 벗이던 추방된 찌모페이 르와늬의 손풍금을 울리고있다. 그러나 파수원과 숲에 푸른 그늘이 지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가축들 우는 소리가 조용해지기 바쁘게 그는 골목으로 해서 페크쮸샤네 뜰안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간다. 그리고 구슬프게 살랑거리는 백양나무꼭두머리우, 조용한 부락우 상공에는 듸모크와 꼭같이 외롭고 꼭같이 얼굴이 둥근달이 떠오른다.

  그러나 처녀들만이 듸모크의 삶의 즐거움이 아니였다. 그는 워드까도 좋아했고 또 그보다도 싸움을 좋아했다. 싸움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듸모크도 있었다. 처음에는 두손을 꽉 등에 지고 고개를 기웃한채 그를 보고만 있다. 그러나 이윽고 무르팍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참을수 없게 된다. 그러면 듸모크는 불뚝거리는 정열을 억제하지 못하고 싸움에 뛰여드는것이다. 스무살이 될 즈음에는 이미 반나마의 이발을 잃었다. 목에서 피가 나올만큼 된매를 맞은것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처녀들을 건드린탓으로도 맞았고 또 주먹다짐에 의해서야 해결될수 있는 남의 싸움에 간섭해서도 맞았다. 듸모크는 기침을 깇고 각혈을 하면서 눈물이 말라볼 날 없는 숙모네 집 뻬치까에 달포나 누워있다가는 다시 놀음판에 나타난다. 그러면 듸모크의 파르스름한 눈이 더욱 주린듯이 반짝이고 손가락은 더욱 날쌔게 손풍금건반을 달린다. 그러나 목소리는 앓은 후로 한층 더 웅글어지여 마치 낡은 손풍금의 헌 풀무처럼 거쉬여진다.

  듸모크의 목숨은 조련히 끊어지지 않았다. 고양이처럼 활력이 있는것이다. 그는 공청에서 쫓겨나고 불량행위와 방화죄로 재판도 받았다. 안드레이 라즈묘뜨노브는 란폭한 행동을 한데 대해서 여러번 그를 체포하여 촌쏘베트의 헛간에 가두었다. 그래서 듸모크는 오래전부터 그에게 큰 원한을 품어왔는지라 이번이야말로 앙갚음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보복하기 위하여 무대에 기여올라간것이다. …

  그는 점점 더 안드레이한테로 바투 다가갔다. 그의 무르팍이 와들와들 떨려서 마치 그가 춤이라도 추고있는것 같았다.

《바지를 우리한테 내라. …》 듸모크는 큰소리로 한숨을 내쉬였다. 《자, 어서 벗어!…》

무대에 물밀듯 녀편네들이 밀려올라갔다. 군중은 제각기 손을 뻗치고 안드레이의 얼굴이며 뒤통수에 더운 입김을 불어대면서 다시금 그를 둘러싸고 물샐틈없는 고리를 이루었다.

《나는 위원장이다!》 라즈묘뜨노브는 웨쳤다. 《나를 롱락하는건 쏘베트정권을 롱락하는거다! 물러들 가라! 곡물을 가져가는건 허락치 않는다! 회의는 페회다!…》

《제 손으루들 가져갈테야!…》

《호—호! 페회했네!》

《개회하세!》

《다위도브한테루 가자. 가서 그 작자두 주물러놓자!》

《그렇지, 관리부루 가자!》

《라즈묘뜨노브는 붙잡아둬야 해!》

《저 작자를 때려줘, 여보게들!》

《그 작자와 이러니저러니 할것 없어?!》

《그놈을 가둬버리자!》

한 녀편네가 주석단책상에서 붉은 공단탁보를 벗겨가지고 뒤로부터 라즈묘뜨노브의 머리에 뒤집어씌웠다. 그가 잉크와 먼지내나는 탁보를 뿌리치려고 애쓰고있는 동안에 듸모크가 손을 둘러메는 일도 없이 그의 명문을 내질렀다.

머리에서 탁보를 뿌리치고나자 안드레이는 앞뒤를 가리지 못할 격분과 아픔으로 해서 호주머니로부터 권총을 뽑아들었다. 녀편네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사방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듸모크, 예핌 뜨루바쵸브 그리고 또 무대에 올라갔던 두명의 까자크가 그의 량팔을 붙잡고 무기를 빼아냈다.

《사람들을 쏘아죽이려구 해! 개자식같으니!》 뜨루바쵸브는 탄창에 탄환 하나없이 텅빈 라즈묘뜨노브의 권총을 머리우에 쳐들면서 기쁜듯이 웨쳤다. …

다위도브는 곡물창고쪽에서 간단없이 들려오는 무서운 부르짖음을 듣고 부지중 발걸음을 늦췄다.

《와—아—아—아—아—아!》 녀편네들이 웨치는 쨍쨍한 소리가 남자들의 굵은 목소리우로 높이 날아올라 울리고있었다. 그 웨침은 한

덩어리가 된 많은 목소리들중에서 뚜렷이 두드러져있었다. 마치도 가을에 첫서리맞은 나무숲에서 다른 사냥개들의 무리와 함께 생생한 여우발자국을 따라가는 암개의 정열적이고도 흐느끼듯 맹렬한 울음소리가 온 사냥터에서 류달리 들리듯이.

《제2작업반을 데리러 사람을 보내야겠군. 그러다간 곡물을 뿔뿔이 가져가겠다.》 다위도브는 생각했다. 그는 종곡이 들어있는 창고의 열쇠를 어데다 감추기 위해서 관리부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좀까 우샤꼬브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궁리가 나지 않는듯이 대문옆에 서있었다.

《나는 숨겠수다. 다위도브동지, 그러다가는 내가 쇠를 어떻게 했다구 나를 때려눕힐겁니다.》

《그건 마음대루 하시오. 나이쵸노브는 없소?》

《그 사람은 제2작업반에 있지요.》

《제2작업반사람은 여기에 아무두 없소?》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가 있수다.》

《그 사람이 어디 있소? 여기서 뭘하구있소?》

《씨앗을 가지러 왔지요. 저기 그 사람이 달려오는군요!》

마이단니꼬브는 두사람한테로 급히 다가왔다. 그는 벌써 멀리서부터 채찍을 휘두르고 이렇게 웨쳤다.

《부락사람들이 안드레이 라즈묘뜨노브를 채포했수다! 그 사람을 움에다 가두구 지금 창고루들 가구있수다. 다위도브동지, 당신은 숨으슈. 그러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사람들의 눈이 발칵 뒤집혔수다!》

《나는 숨지 않겠소! 당신은 환장을 했소?! 자, 쇠를 가지구 작업반으루 가시오. 류비슈낀더러 열댓명 말을 태워서 즉시 이리루 보내두룩 일러주시오. 보다싶이 여기서는 란장판이 벌어졌소. 구역신세는 입구싶지 않소. 우리들자신이 처리합시다. 당신은 뭣을 타구 왔소?》

《쌍바퀴마차외다.》

《말 한필을 타구서 내달리시오!》

《그야 어렵겠습니까.》 마이단니꼬브는 호주머니에 열쇠를 넣고 골목으로 뛰여갔다.

다위도브는 천천히 곡물창고로 다가갔다. 군중들은 그를 기다리면서 저으기 조용해졌다. 《원쑤놈이 온다!》 어떤 녀편네가 다위도브

를 가리키면서 히스테리를 일으킨듯 한 목소리로 웨쳤다. 그러나 다위도브는 서둘지 않았다. 모두가 보고있는데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발을 멈추고 바람이 불어오는쪽으로 잔등을 돌려대고서 성냥을 켰다.

《어서 와! 담배는 천천히두 피울수 있어!》

《저승에 가서 실컷 피워라!》

《열쇠를 가지구 올가, 어떨가?》

《아마 가—지—구 올게야! 도둑고양이도 고기먹은 죄를 아는 법이니까.》

풀풀 연기를 피우면서 두손을 호주머니에 지르고 다위도브는 전렬로 다가왔다. 그의 자신있는 침착한 모습은 군중에게 두가지로 작용했다. 어떤자들은 그 자신있는 태도에서 다위도브축에 있는 힘과 우월성을 보았고 다른자들은 그의 외면상의 침착을 보자 흘딱 눈이 뒤집혔다. 양철지붕에 우박 떨어지듯이 고함소리가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열쇠를 내라》

《꼴호즈를 해산해라!》

《여기서 없어져! 누가 너를… 청했더냐?》

《씨앗을 내라!》

《왜 우리더러 파종을 못하게 해!》

잔잔한 산들바람이 녀편네들 머리수건끝에서 롱간을 피우는가 하면 창고지붕을 인 갈대이삭들을 흔들고 광야로부터 말라가는 담담한 흙냄새와 채 뜨지 않은 포도주같은 애어린 풀냄새를 날라왔다. 부풀어오르기 시작한 백양나무눈에서 나는 꿀같은 향기가 하도 달짝지근해서 다위도브는 말을 시작했을 때 마치 자기의 입술이 착착 붙는듯 한 감촉을 느끼였으며 혀바닥이 입천장에 닿을 때는 꿀맛까지 나는것 같았다.

《여러분, 그래 당신들은 쏘베트정권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게 됐습니까? 왜 당신들은 야르쓰끼꼴호즈에 곡물을 내주지 않았소? 그런짓을 하면 봄철파종깜빠니야를 파탄시킨 죄루 법정앞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걸 생각 안합니까? 사실말이지, 그렇게 됩니다! 쏘베트정권은 당신들의 그런짓을 용서 안할거요!》

《임자네 쏘베트정권은 지금 우리한테 체포돼서 갇혀있어! 정분난 계집처럼 움속에 앉아있어!》 작은 키에 절름발이 개인농 까자크 미

론 도부로제예브가 라즈묘뜨노브의 체포를 암시하면서 대답했다.
어떤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반니크는 앞으로 나서서 분격한듯이 이렇게 웨쳤다.
《쏘베트정권은 너희들이 여기서 하구있는 그런짓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너하구 마까르 나굴리노브가 생각해낸 그런따위 쏘베트정권에는 복종하지 않는다. 농사군들한테 파종을 시키지 않는 그런게 대관절 류행이냐? 그게 대체 뭐야! 그건 당의 외곡이다!》
《자네한테 파종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지?》
《그럼 시키구있나?》
《자네는 공동소유창고에 씨앗을 납입했나?》
《그럼, 납입했지.》
《그걸 되받았는가?》
《그럼, 받았지. 그래, 어쨌단 말이냐?》
《그런데 누가 자네한테 파종을 시키지 않는가. 왜 자네는 창고근처에 와서 서성대나?》
반니크는 이야기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엇나가서 저으기 당황했다. 그러나 그는 살짝 빠져나려고 애썼다.
《나는 자기자신의 일루 속을 태우는게 아니라 꼴호즈에서 나와가지고 자네들한테서 곡물두 자재두 되받지 못한 사람들때문에 속을 태우는거야—그거야! 그리구 자네들은 내게 어떤 땅을 나눠줬나? 왜 먼곳을 줬어?》
《여기서 없어져라!》 다위도브는 마침내 참아낼수가 없었다. 《자네와는 후에 또 말하세, 사실말이지! 그리구 꼴호즈일에는 참견을 말어. 그렇지 않으면 자네를 뜨끔히 혼쌀을 낼테다! 자네는 충동질을 하구있지! 없어지란 말이야!》
반니크는 웅얼웅얼 으름장을 놓으면서 움츠러들어갔다. 그러자 그를 대신해서 일제히 녀편네들이 나섰다. 그들은 다위도브가 말 한마디도 할수 없을만큼 별안간 겨끔내기로 떠들기 시작했다. 다위도브는 류비슈낀이 2작업반과 더불어 달려올수 있도록 시간을 끌려고 애썼다. 그러나 녀편네들은 까자크들의 무언의 공명에 지지를 받으면서 귀청이 뻥할만큼 웨쳐대며 그를 둘러쌌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위도브는 마리나 뽀야르꼬바를 보았다. 마리나는 팔굽까지 드러낸 든든한 두팔을 가슴우에 결고 코마루우에서 거

의 잇닿다싶이 된 푸르딩딩한 눈섭을 찌프리고 녀편네들과 무엇을 떠따고면서 먼발치에 서있었다. 다위도브는 마리나의 적의 가득한 시선과 마주쳤으며 거의 그와 동시에 그옆에서 흥분한듯이 무엇을 기다리는것처럼 미소를 띄우고 제미드 몰츈에게 뭐라고 수군거리고있는 야꼬브 루끼치를 보았다.

《열쇠를 내라! 순순히 내, 알겠어?》

한 녀편네가 다위도브의 어깨를 붙잡더니 바지주머니에 손을 들이밀었다.

다위도브는 힘껏 그 녀편네를 떠박질렀다. 녀편네는 뒤로 밀려나와 벌랑 자빠지더니 엄살을 피웠다.

《아유, 사람죽인다. 여러분, 살려주슈!…》

《이건 뭐야!》 뒤줄에서 어떤 사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싸움을 시작한건가? 저놈을 처박질러 코피를 터쳐라!…》

다위도브는 넘어진 녀편네를 일으켜세우려고 한걸음 내디디려 했으나 그의 머리에서 모자가 날아나고 얼굴과 잔등을 몇대 얻어맞고 두팔을 붙잡혔다. 그는 어깨를 뿌리쳐 그에게 달라붙은 녀편네들을 털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함성을 올리면서 그에게 달려들어 류바쉬까깃을 쥐여찢고 삽시간에 주머니들을 뒤지여 벌컥 뒤집어놓았다.

《이놈에게는 열쇠가 없다!》

《쇠를 어데다 뒀어?…》

《내—라! 하여튼 자물쇠를 까부시자!》

마쉬까 이그나쬬노크의 어머니인 장대한 로파가 코를 풀썩거리며 다위도브에게로 비집고나가 입걸게 욕을 해대면서 다위도브의 얼굴에 침을 뱉았다.

《옛다, 하느님두 모르는 마귀야!》

다위도브는 파랗게 질려가지고 팔을 뿌리치려고 모지름을 썼으나 뿌리칠 재간이 없었다. 까자크들중에서 누가 얼른 달려와서 녀편네들을 거든 모양이였다. 못이 박힌 커다란 손가락이 뒤에서 집게처럼 그의 팔굽을 꽉 쥐고 죄여대는것이였다. 그러자 다위도브는 몸부림치던것을 그만두었다. 그는 사태가 이미 너무나도 악화되였다는것,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속에서는 아무도 나서서 자기를 돕는자가 없으리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달리 행동하기로 작정하였다.

《창고열쇠는 내게 없소. 여러분, 쇠는…》 다위도브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있지 않다고 말할 작정이였으나 바로 그 순간에, 만약 자기가 그렇게 거절하면 군중이 좁까 우샤끄브를 찾으러 떨쳐날게고 또 필시 찾아낼게다. 그러면 좁까에게 좋은 일은 없고 죽여버릴게라는 생각이 든것이였다. (내 하숙에 있다구 하자. 그리구 거기 가서 찾는체 하다가 잃었다구 하지. 그러는 동안에 류비슈낀이 당도할게구. 설마 나를 죽일 생각까지는 못하겠지. 에이, 제길헐!) 그는 할퀸 뺨의 피를 어깨로 훔치면서 잠시 덤덤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열쇠는 내 하숙에 있소. 그렇지만 못 주겠소. 자물쇠를 까부시면 아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오! 그걸 아시오, 사실말이지!》

《우리를 하숙으루 데려다다고! 우리자신이 네 열쇠를 가져오겠다!》 이그나쬬노크의 어미가 접어들었다.

그 녀편네는 흥분으로 해서 느슨한 두뺨과 코우의 커다란 사마귀가 들까불고 조글조글한 얼굴로 연방 땀방울이 처졌다. 그가 선참 다위도브를 밀쳐내자 다위도브는 선선히 그러나 느럭느럭 자기 하숙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그래, 거겐 열쇠가 있어? 혹시 잊은게 아니야?》 반니크의 처 아브도찌야가 추궁했다.

《거기 있소, 거기 있소. 아주머니!》 다위도브는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감추면서 다짐했다.

네명의 녀편네가 그의 팔을 붙잡고 또 한명의 녀편네는 든든한 몽둥이를 들고서 그의 뒤를 따랐다. 오른쪽에는 이그나쬬노크네 로파가 전신을 와들와들 떨면서 사내같은 큰 걸음걸이로 걸어오고 왼쪽으로는 떼를 지어 녀편네들이 몰려왔다.

까자크들은 창고옆에 남아서 열쇠를 기다렸다.

《팔을 놔주오. 아주머니, 뛰지 않아요.》 다위도브는 부탁했다.

《네 속을 누가 알아, 그래놓구 도망을 칠려구.》

《그렇지 않다는데두!》

《이대로 가, 이게 마음이 놓여.》

하숙에 이르렀다. 삽짝문과 울바자를 쓰러뜨리고 뜰안으로들 몰려들어갔다. 《들어가서 열쇠를 가져와. 가져오지 않으면 당장에 남정들을 불러서 모가지를 비틀어놓게 할테야!》

《허, 아주머님네 빨리두 쏘베트정권을 잊어버렸구려. 그런짓에 대해서는 쏘베트정권이 용서하지 않을걸!》
《병이 중타해야 죽기밖에 더할라구! 씨를 못 뿌리구 가을에 가서 굶어죽기나 지금 형벌을 받기나 매일반이야! 자, 가서 가져와. 가져와!》
다위도브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자기를 감시하고있음을 아느니만큼 짐짓 열심히 찾는척 했다. 그는 트렁크속이며 책상우를 온통 헤집어놓고 서류란 서류를 모두 뒤흔들었으며 침대와 다리가 구부러진 책상밑으로도 기여들어갔다. …
《열쇠가 없소.》 그는 복도에 나와 말했다.
《그럼 그것이 어디 있어?》
《필시 나굴리노브한테 있는가 보오.》
《그렇지만 그 작자는 어디 가지 않았어?》
《그야 모르지요! 자기는 가드래두 열쇠는 두구 갈수두 있지요. 십중팔구 두구 갔을게요. 우리는 오늘 제2작업반에 곡물을 내주기루 돼있었으니까.》
패거리들은 그를 나굴리노브네 집으로 끌어갔다. 그 도중에서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쥐여찌르고 욕지거리를 했지만 그가 줄창 웃어대고 익살을 피우는지라 나중에 랭혹해져서 정식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나를 따르는 친애하는 녀성님네! 막대기루 치는것만이라두 그만둬주소.》 그는 제일 가까운데 있는 녀편네를 끄집으면서 애원하고 머리를 숙이고서 가까스로 웃음을 지었다.
그의 구부린 넓은 잔등을 쾅쾅 사정없이들 때렸다. 그러나 그는 헛기침을 하고 어깨를 흠칫흠칫 할뿐 아픈것도 참고 그냥 이죽거려보려고 했다.
《할머니! 당신은 저승에 갈 나인데두 손찌검은 곧잘하는군요. 이번엔 내가 한번 때려봅시다, 예?》
《이 감각없는 등신아! 피두 통하지 않는 돌바위야!》 다위도브의 잔등을 조그만 그러나 단단한 주먹으로 두들겨대고있던 애젊은 나쓰쫀까 드네쯔꼬와가 거의 울 가망이 되여 말했다. 《두드려대두 영 꿈쩍두 안하네!…》
《막대기루는 치지 말어!》 오직 한번 다위도브는 악문 이발사이로

매섭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한 녀편네 손에서 마른 버드나무몽둥이를 낚아채서 무릎으로 제깍 꺾어버렸다.

그는 피가 날만큼 귀를 찢기우고 입술과 코가 터졌다. 그러나 그는 빠진 앞이를 드러내면서 부어오른 입술을 벙긋하고 줄창 웃었으며 특히 모질게 접어드는 녀편네는 천천히, 가볍게 밀쳐냈다. 분격한듯 코우의 사마귀를 들까불고있는 이그나쬬노크네 로파에게 그는 참기 어려울만큼 밸이 꼴렸다. 그 로파는 아프게 때렸고 코마루 아니면 관자노리를 노렸다. 그리고 다른 녀편네들과는 달리 주사위처럼 손가락을 부르쥔 주먹등성이로 때리는것이였다. 다위도브는 걸어가면서 그 로파를 등지려고 해보았으나 보람이 없었다. 로파는 코를 풀썩거리면서 녀편네들을 밀어헤치고 다위도브의 앞으로 달려나와 갈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내 네놈의 상판대기를 때리겠다! 상판대기를!》

(오냐, 있다 보자, 옴두꺼비같은것아.) 다위도브는 매를 피하면서 싸늘한 분노속에 생각했다. (류비슈낀이 나타나기만 하면 눈이 핑핑 돌게 때려주마!)

류비슈낀과 말을 탄 일행은 그냥 오지 않았다. 나굴리노브네 집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다위도브와 함께 녀편네들도 방안에 들어갔다. 그들은 서류며 책, 속옷들을 온통 헤집어놓고 여기저기 내던졌다. 심지어는 주인집에까지 열쇠를 찾았다. 당연한 리치로 열쇠를 찾지 못한 녀편네들은 다위도브를 복도로 밀쳐냈다.

《열쇠가 어디 있어? 죽여버릴테다!》

《오쓰뜨롭노브한테 있소.》 다위도브는 창고옆에서 군중속에 끼여 고소한듯 벙글거리며 서있던 경리부장이 생각나서 그렇게 대답했다.

《거짓말 말아! 그자는 벌써 문초했어! 그자 말이 꼭 너한테 열쇠가 있을게라구 하더라!…》

《여러분!》 다위도브는 무섭게 부어오른 코를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조용히 미소를 띄웠다. 《여러분! 당신들은 참말 공연히 나를 때렸소. … 열쇠는 관리부 내 책상에 들어있소, 사실말이지. 이제야 똑똑히 생각나는군.》

《너는 우리를 놀리구있구나!》 때마침 창고에서 달려온 예까쩨리나 굴랴쌰야가 쇠소리를 냈다.

《그리루 데려다주오. 놀리기는 왜 놀려! 제발 손찌검만은 말래두요!》

다위도브는 복도에서 내려갔다. 그는 안타까울만큼 목이 마르고 무력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매를 맞은것두 한두번이 아니였지만 녀편네들한테 맞기는 처음이였다.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그는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다. (제발 쓰러지지 말아.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야수처럼 돼서 약차하면 죽일지두 몰라.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죽음일게다, 사실말이지!) 그는 일루의 희망을 품고 언덕으로 시선을 달리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행길우에는 말발통에 소용돌이쳐오르는 먼지도 일지 않았으며 사래처럼 널린 말탄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멀리 지평선우의 묘지까지 뻗어나간 언덕은 인기척도 없이 텅 비여있었다. … 부락의 행길들도 역시 비여있었다. 모두가 창고옆에 모여서 그리로부터 왁자한 수많은 목소리가 뿌옇게 들려왔다.

관리부에까지 이르는 동안에 다위도브는 서있기도 힘에 겨울만큼 푸짐히 얻어맞았다. 그는 벌써 익살을 피우지 못했을뿐아니라 평탄한 길인데도 줄곧 그냥 발을 걸채고 줄곧 머리를 그러안았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얘져가지고 웅글은 목소리로 사정했다.

《그만하오!… 이러다가는 죽겠소. … 머리는 때리지 마오. … 내게는 열쇠가 없소! 밤까지 끌구 다닌대두 열쇠는 없소! 못 주겠소!…》

《아—니, 밤까지라구?!》 천둥같이 성이 난 녀편네들은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맥빠진 다위도브에게 다시금 거마리처럼 달라붙어서 할퀴고 때리고 깨물기까지 했다.

바로 꼴호즈관리부 뜨락옆에서 다위도브는 로상에 주저앉았다. 베로 짠 그의 류바쉬까는 피투성이가 되였으며 도회지풍의 짧은 바지는(낡아서 끝에는 술이 내달렸다.) 무르팍까지 찢어지고 열어헤친 옷깃사이로는 가슴의 거무스름한 입묵이 들여다보였다. 괴로운듯 씩씩 소리를 내면서 숨을 쉬는 그는 보기에도 측은스러웠다.

《걸어라, 개자식아!…》 이그나쬬노크네 로파가 발을 굴렀다.

《너희들을 위해서다, 이 망할것들아. …》 불시에 다위도브는 쩡쩡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이상스레 밝아진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이처럼 괴롭히니… 오, 불한당들아! 열쇠는 못 주겠다. … 알겠니? 사실말이지,

못주겠어! 어쩔테냐?》

《그 사람을 내버려둬요!…》 한 처녀가 달려와서 웨쳤다.

《까자크들이 벌써 자물쇠를 쳐부시구 곡물을 나누구있어!》

녀편네들은 다위도브를 관리부 대문옆에 내버린채 창고로 달려갔다.

다위도브는 젖먹은 힘까지 다 내여 일어나서 뜨락으로 들어가 미지근한 물이 든 바께쯔를 층층대로 들고나와 한참동안 마시고나서 머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다. 푸푸 소리를 내면서 얼굴과 목의 피를 씻고 란간에 걸려있던 말등거리로 훔치고나서 층계에 걸터앉았다.

뜨락에는 사람 하나 없었다. 어데선가 암닭이 불안한듯 꼬꼬댁거렸다. 어치조롱지붕우에서 새까만 종달새가 고개를 젖히고 지저귀기 시작했다. 벌에서 쥐들이 쉴쉴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엷게 층계를 이루어 뻗어있는 연보라빛구름이 해를 가리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에는 찌는듯 한 더위가 서리여있어서 뜨락복판 재더미에서 놀던 참새들마저 목을 늘이고 꼼짝없이 누워 부채처럼 펼친 조그마한 날개를 가끔 푸득일뿐이였다.

나직한 부드러운 말발통소리를 듣고 다위도브는 고개를 들었다. 엉뎅이가 처진 황부루가 안장을 진채 전속력으로 대문안으로 뛰여들어왔다. 말은 홱 방향을 돌려 뒤발로 땅을 파고 코를 울리며 허벅다리에서 푸근히 끓어오른 흰 거품을 뜨거운 땅우에 처뜨리면서 뜰안을 빙 돌았다. 마구간옆에서 발을 멈추더니 마구간마루바닥을 두루 말아보았다.

은장식을 한 화려한 마륵은 끊어졌으며 고삐끝은 건뎅건뎅 늘어지고 안장은 바로 어깨두드러진데까지 벗어져 나와있었다. 그리고 끊어진 가슴띠는 땅까지 늘어져 거무스름한 보라빛발통에 닿고있었다. 말은 괴로운듯이 옆구리를 실룩거리고 발가우리한 코구멍을 크게 벌렸다. 금빛도는 앞머리털과 부수수 얽힌 갈기에는 지난해의 우웡씨덩어리들이 붙어있었다.

다위도브는 의아스럽게 말을 바라보았다. 이때 건초적지장문이 찌궁 하고 무거운 소리를 내더니 쓔까리령감의 머리가 쏙 밖으로 나왔다. 잠시후에는 지극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질겁한듯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령감의 전신이 나왔다..

땀에 젖은 쓔까리의 류바쉬까에는 건초부스레기가 잔뜩 붙어있고 흐

트러진 턱수염에는 영근 속생초대가리며 바싹 마른 잔풀과 나무잎, 누런 갈대씨가 더덕더덕 붙어있었다. 쓔까리령감의 얼굴은 앵두처럼 새빨갛고 무진 놀란 빛이 력연했다. 관자노리로 해서 수염과 뺨으로 땀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
《다위도브동지!》 그는 저겨디디면서 층층대로 다가오더니 애원하듯이 속삭였다. 《제발 숨어주게! 이미 우리에게 행패하기 시작했으니만큼 사태가 이제 살인에까지 이르겠네. 어찌두 임자를 까놨는지 얼굴조차 못 알아보겠군! 나는 건초속에 숨어있었네. … 그속은 무덥더라니. 견뎌낼수가 없어 함씬 땀에 떴네만 그 대신 목숨은 안전하이, 참말이지! 자, 이 복새판을 좀 참구 견뎌보세. 함께 숨읍세. 응? 혼자있기는 어쩐지 무서워. … 그래, 우리가 죽어서 무슨 리득이 있나. 무엇때문인지두 모르지. 좀 들어보세, 계집들이 벌떼처럼 웅웅 떠들구있지 않나. 그것들을 아갈잡이를 시켰으면 좋겠네! 나굴리노브두 해치운가부이. 그 사람의 말이 돌아오지 않았어. … 저 말을 타구서 그 사람은 오늘 읍에 갔었다네. 아침에 말이 대문간에서 발을 걸채길래 벌써 그때 나는 그 사람더러 〈되돌아오게. 마까르, 심히 좋지 않은 징조야!〉 그랬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야 속량있는 사람의 말인들 언제한번 들을세 말이지? 절대루 안 듣지! 언제나 코대가 딩딩허니 그래서 죽었나부이. 되돌아오기만 했던들 내 덕분으루 숨어있을걸.》
《혹시 지금 집에 있는지두 모르지요?》 다위도브는 자신없이 물었다.
《집에? 그렇다면 왜 말이 빈 안장으루 돌아와서 죽은 사람 냄새라두 맡는듯이 코를 울리겠나? 이런 징조들은 가히 알만해! 뻔한 일이지. 그 사람이 구역에서 돌아오다가 곡물창고를 부시구 곡물을 날라가는걸 보자 과격한 성미에 참아내지 못하구 야단을 쳤을테니까. 그래서 살인이 났을걸세. …》
다위도브는 잠자코 있었다. 곡물창고근처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와—하는 소리가 계속되고 짐달구지 삐걱거리는 소리와 덜컹거리는 마차바퀴소리가 들려왔다. (곡물을 날라가는구나.) 다위도브는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마까르가 어떻게 됐을가? 정말 살해당했을가? 가보자!) 그는 일어섰다.
쓔까리령감은 다위도브가 자기와 함께 건초적지장에 숨으려고 마음을 정했구나 생각하고 수선대기 시작했다.

《갑세, 가서 재액을 피하세! 그러다가는 또 어떤 마귀가 여기 나타나서 임자와 내가 있는걸 보구 결판을 낼지두 몰라. 그네들은 그런 일쯤 눈결에 해치우거던! 그렇지만 건초적지장안은 아주 썩 좋습데. … 건초냄새가 향긋한게 난 먹을것만 가져다준다면 한달이라두 드러누워있겠어. 다만 염소란 놈한테 뿡이 빠졌다니까. … 그 괘씸한 짐승을 죽여버렸으면 시원하겠네! 녀편네들이 꼴호즈를 부시구 곡물때문에 임자한테 행악을 하구있다는걸 듣구 혼자 생각했지. 〈자 쓔까리, 자네는 결단났네. 영 글렀어!〉 녀편네들이 모두 하나같이 다위도브동지, 임자와 내가 혁명때부터 한마당에서 서있었구 우리가 그레먀치 꼴호즈를 만들었으며 찌또크를 청산한걸 알구있지 않나. 그래 누구를 선참 죽이겠나? 뻔한이루 임자와 나지! 〈우리의 사태가 좋지 않구나.〉 하고 생각했지. 〈숨어야겠다. 다위도브를 죽인 다음에는 나를 찾아오겠지. 그렇게 되면 다위도브동지의 최후에 대해서 누가 예심판사께 진술할고?〉 나는 얼른 건초를 헤치고 머리루 파고들어가 숨두 크게 쉬지 못하구 드러누워있었네. 그런데 듣느라니 누가 내우 건초루 기여오르거던. … 오르면서 당연한 일루 먼지때문에 재채기를 하네. 〈아유머니나!〉 나는 생각했지. 〈나를 찾는게 틀림없다. 내 목숨을 노리구 기여오는게 틀림없다.〉 그런데 그 물건은 그냥 기여다니다가 마침내 내 배우에 올라섰네. … 나는 그냥 누워있지! 혼백하구 몸뚱아리가 제가끔 따루 날 지경이지만 망할놈의거, 이제 어디라 갈곳이 없으니 그냥 누워있지!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로 내 상판대기우에 올라섰거던. 내가 손으루 그걸 덥석 잡았더니 발통하구 왼통 털이군. 나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구 껍질이 몸뚱아리에서 들뜨기 시작했네. 무서워서 숨두 못 쉴 지경이야! 털이 난 발통을 만져보구 내가 뭘 생각했겠나? 귀신이라구 생각한걸세. 건초적지장은 무섭게 캄캄한데 온갖 요괴는 캄캄한데를 좋아하거던. 〈이제 마귀가 내게 손을 대여 간지럼을 피워죽이겠구나. … 차라리 녀편네들한테 맞아서 병신이 되는게 낫겠다.〉 참말이지, 무섭기란 이루 헤아릴수 없었어! 다른 겁많은 햇내기 젊은이가 그런 처지에 있었더라면 심장과 오장륙부가 터져서 빠드러졌을거야. 갑자기 놀란즉 그게 터지는 법이거던. 그렇지만 나는 좀 선뜩했을뿐 그냥 누워있지. 그런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경치게 염소냄새가 나는군. … 나는 몰수한 찌또크네 염소를 건초적지장에서 기르던걸 잊었댔어. 그 망할것을 깜빡 잊어버렸댔어! 내

가 보니까 아니나다를가 그 찌또크네 염소란 놈이 건초우루 다니면서 쑥을 먹구있겠지. … 그래서 그때야 물론 내가 일어나서 그놈을 쥐여박기 시작했지. 그것의 수염을 잡아당기구 또 여러가지루 혼을 냈어! 〈이 텁석부리마귀새끼야, 부락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건초우를 기여다녀?… 냄새고약한 도깨비야, 함부루 서성거리지 말아!〉 어찌나 성이 나던지 당장에 그것을 저승으루 보내구싶었네. 암만 짐승이라 해두 사리를 헤아려야 하구 함부루 건초를 싸다녀서 괜찮을 때와 얌전히 처박혀 앉아있어야 할 때를 가려야 할게 아닌가. … 아니, 임자는 어디루 가나, 다위도브동지?…》

다위도브는 아무 대답도 없이 건초적지장을 지나 대문으로 향했다.

《어디루 가?…》 쓔까리령감은 깜짝 놀란듯이 속삭였다.

벙긋이 반쯤 열린 삽짝문을 바라보자 그는 다위도브가 질풍을 등에 진듯이 지척거리면서도 빠른 걸음걸이로 공동소유곡물창고쪽으로 걸어가는것을 봤다.

제 34 장

길 한옆에 묘지가 있었다. 바람에 할퀴운 묘지꼭대기에서는 지난해의 앙상한 쑥대와 갈대들이 서글퍼보였고 갈색이 되여버린 엉겅퀴 꽃술들은 침울히 땅에 고개를 드리웠고 비탈에는 맨 꼭대기에서 기슭까지 부수수하니 누런 우선초가 깔려있다. 볕과 풍우에 시달려 씁쓸히 빛잃은 그 풀들은 풍마우세한 오랜 땅우에 실처럼 가는 잎을 편채 봄이 되여 백화가 란만해도 생애를 다 마친 늙은이처럼 기운없이 보이다가 초가을이 되여야 장엄한 흰서리에 반짝반짝 아른거린다. 그리고 가을에야 비로소 묘지는 온몸에 은비늘모양의 갑옷을 입고서 점잖게 위풍을 세우고 광야를 지키고있는듯 하다.

여름철 저녁노을때면 구름밑에서 광야의 큰 독수리가 묘지꼭대기로 내려온다. 독수리는 날개를 요란스레 푸득이면서 떨어지듯이 묘지에 내려앉아 한 두어번 몰풍스레 한자리에서 껑충껑충 뛰고나서 부채처럼 펼친 갈색날개와 황갈빛털에 덮인 꽁무니뼈를 휘우듬한 부리로 소제하기 시작한다. 그다음에는 고개를 젖히고 동그라니 가장자리가 검은 호박빛눈을 영원히 푸르른 하늘로 향하고 조는듯 꼼짝 안한

다. 무슨 광석처럼 까딱도 않는 황갈색독수리는 저녁의 사냥을 앞두고 휴식하고있다가 다시금 가벼이 땅을 차며 날아오른다. 해가 저물때까지는 호화로운 그 날개의 재빛그림자가 여러번 광야를 스치고 지나간다.

싸늘한 가을바람은 그를 어디로 날라갈가? 깝까즈의 푸르른 산록일가? 무간쓰크의 광야일가? 벨라루씨아일가? 아프가니스탄일가?

겨울이 되여 묘지가 돈피같은 눈의 만또를 입으면 날마다 동트기 전의 퍼런 비둘기빛어스름속으로 늙은 쥐빛여우가 묘지꼭대기에 나온다. 여우는 마치 타는듯 한 누런 까라라산의 대리석으로 조각한것처럼 죽은듯이 오래동안 앉아있다. 연보라빛눈우에 부루루한 주홍색꼬리를 드리우고 아가리옆이 안개라도 낀듯이 검은 삐죽한 상판대기를 바람 불어오는쪽으로 향하고 앉아있다. 이 순간에는 여러 냄새가 합쳐진 강렬한 후각세계에 오직 여우의 마노빛 도는 축축한 코만이 살아있어서 모든것을 휩싸는 담담한 눈냄새와 설한에 탄 지울래야 지울수 없는 씁쓸한 쑥냄새며 근방의 행길에서 날아오는 짚냄새 섞인 말똥냄새며 또 부리얀초 자란 먼 최뚝에 숨어있는 갓 깐 메추라기새끼의 형언키 어려울만큼 가슴뛰놀게 하는 미묘한 향기를 욕심궂게 벌린 떨리는 코구멍으로 포착한다.

메추라기냄새에는 하도 많은 내용이 얽혀있어서 후각을 만족시키자면 여우는 묘지에서 내려와 별같이 반짝이는 눈에서 발도 뽑지 않고 고드름에 덮인 홀쭉한 배를 부리얀초꼭대기로 끄을며 50싸젠이나 휘우적거려야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 벌름한 검은 코구멍으로 지지는듯 강렬한 향기가 쏠려들어온다. 그것은 떫고 시큼한 갓 눈 새똥냄새와 풍겨오는 날개냄새이다. 풀에 슬치고 눈에 젖은 날개에서는 풀에서 옮은 쑥의 씁쓸한 냄새와 들쑥의 쌉쌀한 냄새가 풍겨오고 반쯤 살에 꽂힌 푸른 깃에서는 따스하고 간간한 피냄새가 난다.

…묘지의 봉토는 열풍에 할퀴고 한낮의 볕에 타며 소낙비에 씻기우고 혹한에 찢기운다. 그러나 묘지는 천년전에, 전사한 뽈로웨쯔의 공작을 군장하여 팔찌낀 처첩들의 거무스름한 손들과 군사, 근친, 노예들의 손으로 봉분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광야우에 군림하고 있다. …

묘지는 그레먀치 로그로부터 8웨르쓰따 상거한 등성이에 있다. 옛날부터 까자크들은 이 묘지를 죽음의 묘지라고 불러오거니와 전설이

전하는바에 의하면 이 묘지기슭에서 일찌기 오랜 옛날 부상당한 까자크 하나가 죽었는데 혹시 그 까자크는 민요에서 이렇게 노래불리우는 바로 그 사람인지도 모른다.

서슬푸른 환도로 불을 치던 그
쑥을 잘라 활활 일쿠고
샘물 정히 끓여 덥히여
중한 상처 깨끗이 가시여 씻다—
《나의 상처야 상처야 이제 피도 다해
내 심장의 고동 거북만 거북만 하여라》

읍에서 20웨르쓰따가량이나 줄달음으로 달려서 죽음의 묘지곁에 와서야 비로소 나굴리노브는 공골말을 멈췄다. 말을 내려 손바닥으로 말목의 거품을 훔쳐내였다.

이른봄으로서는 유난스럽게 따뜻했다. 해가 5월처럼 땅을 내려쪼였다. 물결진 사위의 지평선우에 안개처럼 아지랑이가 나붓기고 있었다. 바람이 먼 련못으로부터 게사니의 꿱꿱소리와 오리들의 시끄러운 울음소리와 신음하는듯 한 도요새소리를 날라왔다.

마까르는 말자갈을 벗기고 고삐를 앞발에 매고서 북두끈을 늦췄다. 말은 주린듯이 애어린 풀쪽으로 목을 뻗치면서 겸사해서 지난해의 빛날은 속생초이삭들을 뜯었다.

묘지우로 들오리떼가 자지러진 소리를 획획 내면서 날아가 련못우에 내렸다. 마까르는 무심히 그뒤를 더듬어 들오리들이 돌덩이처럼 련못우로 떨어지는것과 갈대언덕근처에서 들오리들이 퍼덕이여 물이 들끓어오르는것을 보았다. 그러자 곧 제방에서는 그 소리에 놀란 기러기떼가 날아올랐다.

광야는 인기척도 없이 쥐죽은듯 했다. 마까르는 오래동안 묘지기슭에 누워있었다. 처음에는 멀지 않은 곳에서 말이 코를 울리고 자갈을 덜렁거리면서 발을 갈아짚는 소리가 들렸으나 이윽고 말이 풀많은 골짜기로 내려가자 사방은 가을걷이가 끝나 사람들의 자취가 없어진 늦가을의 벌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정적이 깃들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안드레이와 또 다위도브하구 작별하고서는 뾜스까전선에서 입구 돌아온 외투를 입구서 총으루 자살해버리겠다. 이제

나는 이 세상과 인연이 없다! 그렇다구 그때문에 혁명에는 지장이 없어. 혁명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좀 많다구? 죽는 사람이 있으면 새로 드는 사람이 있는걸. …) 마까르는 배를 대고 엎드려 우선초의 얽힌 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마치 딴사람의 일처럼 무관심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모르긴 몰라도 다위도브는 내 무릎앞에서 《나굴리노브는 출당을 당했다 할지라도 훌륭한 공산주의자였소. 그 사람의 자살행위는 찬성하지 않소, 사실말이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세계의 반혁명분자들과 투쟁하면서 목적했던 사업을 우리는 끝까지 수행합시다!》 하구 말할게야.) 그러자 마까르는 회심의 미소를 띄운 반니크가 군중속을 싸다니면서 그 희읍스름한 입수염을 쓰다듬으며 《한 놈팽이가 뻐드러졌으니 다행이야! 개자식은 개자식처럼 뒈지거던!》 하고 사설질할것을 자못 뚜렷이 머리에 그렸다.

《그렇게는 안된다, 독사같은 놈아! 자살하지 않겠다! 너같은 놈들을 요정내고야말겠다!》 마까르는 이발을 부득 갈고 소리를 내여 이렇게 말한 다음 마치 무엇에 찔리우기라도 한듯이 벌떡 일어섰다. 반니크를 생각하자 그는 결심이 돌아서서 눈으로 말을 찾으며 이렇게 생각하고있었다.

(절대루 그럴수 없다! 우선 너희놈들을 모두 널속에 쓸어넣구 그후에라야 세상을 하직하겠다! 너희들이 내 죽음앞에서 개가를 올리게는 되지 않는다! 그리구 끄르츠쥔스끼인데, 그래 그자의 말이 마지막 규정이란 말인가? 파종을 마치면 관구당위원회루 달려가자. 복당시켜줄게야! 변강까지, 모스크바까지라두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비당원으루서 있으면서 벌레같은 놈들과 싸우겠다!)

그는 밝아진 눈으로 자기 주위에 펼쳐진 세계를 둘러보았다. 벌써 그에게는 자기의 처지가 몇시간전에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만회할수 없는 절망적인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부랴부랴 그는 말이 사라진 골짜기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소리에 놀라 새끼밴 승냥이 한마리가 부리얀초에서 뛰여나왔다. 승냥이는 일순 이마 벗어진 대가리를 숙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귀를 붙이고 꼬리를 지리끼더니 우묵한 곳으로 내뺐다. 핑핑한 젖통들이 늘어진 배밑에서 맥없이 간당거렸다.

마까르가 말한테로 다가가자마자 말은 감때사납게 목을 한번 치켜올렸다. 발에 매였던 고삐가 툭 끊어져나갔다.

《와! 와쎄크! 와, 와!》 마까르는 갈개기 시작한 말뒤로 돌아가서 갈기나 혹은 등자를 잡으려고 애쓰면서 낮은 목소리로 달래였다.

머리를 휘두르면서 황부루는 걸음을 재우치고 주인을 곁눈으로 바라보았다. 마까르는 속력을 내여 달려갔으나 말은 그에게 곁을 주지 않고 뒤발질을 하다가 행길을 넘어 부락쪽을 향하여 요란스레 소리를 내면서 쏜살같이 줄달음쳤다.

마까르는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그뒤를 따랐다. 멀리 보이는 부락근처의 밭을 향하여 서너웨르쓰따쯤 길도 없는 곳을 걸어갔다. 베지 않은 풀에서 쓰트레뻬트(두루미과에 속하는 야조—역자 주)들과 쌍을 이룬 메추라기들이 날아오르고 멀리 골짜기비탈에서는 알을 품은 암컷의 망을 보면서 들기러기 수컷 한마리가 거닐고있었다. 벅찬 성욕에 사로잡힌 수컷은 희읍스름한 주홍빛털이 돋은 짧고 불그스름한 꼬리를 부채처럼 펼치고 날개를 벌려 마른 땅을 스치면서 밑둥이 분홍빛 솜털에 싸인 털을 떨어뜨렸다. …

광야에서는 크낙한 결실활동이 벌어지고있었다. 풀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새와 짐승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오직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밭들만이 아직 파종하지 않은 고랑에서 수증기를 피우면서 덤덤히 하늘가로 뻗쳐있었다.

마까르는 노발대발하여 덩이진 마른 밭을 걸어갔다. 그는 재빨리 몸을 굽혀 흙을 쥐여서 손바닥우에 폈다. 죽어버린 풀의 는적는적한 뿌리를 품은 마른 땅은 뜨거웠다. 가을걷이한 밭을 너무 오래 내버려둔것이다! 순간도 지체말고 잔디돋은 그 웃면에 서너너덧번 걸기를 걸어 오래 버려두었던 땅을 쇠이발로 부시고나서 부서진 고랑으로 파종기를 몰아 금빛밀알들을 될수록 깊이 뿌려야 한다.

《늦었구나! 땅을 망쳐버리겠다!》 마까르는 무섭게 헐벗은, 아직 갈지 않은 검은 밭을 가슴이 죄이는듯 한 아쉬운 마음으로 둘러보면서 생각했다. (한 이틀 지나면 가을걷이한 땅이 못쓰게 되구말게다. 우리 인간들을 제쳐놓구는 만물이 이런 일에는 깨끗하지. 온갖 짐승이며 나무, 땅까지라두 씨를 붙일 때를 알구있지. 그렇지만 사람들은 … 우리는 가장 저렬한 짐승보다두 못하구 더럽다! 마음속에 사유욕이 불뚝 내밀어 그래서 파종두 하러 나오지 않는거야. … 망할것들 같으니! 이제 돌아가서는 몽땅 밭으루 내몰아야지! 한자두 빠짐없이 몽땅!)

그는 더욱 걸음을 재우치고 가끔 속보로 달리기까지 했다. 모자밑으로 땀이 흘러내리고 류바쉬까잔등은 꺼매지고 입술은 말라들었다. 그러나 두볼에는 더욱 뚜렷이 병적인 홍조가 떠올라 번져나갔다. …

제 35 장

그는 종곡분배가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부락에 들어섰다. 류비슈낀과 그의 작업반은 아직도 그냥 밭에 있었다. 곡물창고들곁에서는 혼잡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곡물을 담은 자루들을 저울에 급히 내던졌고 달구지들이 끊임없이 와닿고 남녀들이 자루와 앞치마로 곡물을 날라갔다. 흩어진 낟알이 땅과 창고발판에 잔뜩 깔려있었다. …

나굴리노브는 즉시로 까닭을 알아차렸다. 부락민들을 밀어헤치면서 저울로 비집고 나갔다.

전에 꼴호즈에 들어있던 이완 바딸리씨꼬브가 곡물을 저울에 달아내주고 추한 몰골의 아뽈론 뻬쓰꼬와트쓰꼬브가 그를 조력하고있었다. 곡물창고가까이에는 다위도브도 라즈묘뜨노브도 한명의 작업반장도 없었다. 다만 경리부장 야꼬브 루끼치의 당황한듯 한 얼굴이 일순간 군중속에 얼씬거렸으나 그도 가득 들어찬 짐달구지들뒤 어디에 자취를 감췄다.

《누가 곡물을 가져들 가라구 허가했는가?》 마까르는 바딸리씨꼬브를 밀어내고 저울우에 올라서면서 웨쳤다.

군중은 말이 없었다.

《누가 네게 곡물을 달 전권을 주었어?》 마까르는 목청을 낮추지 않고 바딸리씨꼬브에게 물었다.

《우리 모임이네. …》

《다위도브는 어디 있나?》

《난 그자의 뒤만 따라다니지 않네!》

《관리부사람들은 어디 있어? 관리부가 허락했나?》

저울옆에 서있던 제미드 몰춘이 히죽이 웃음을 띄우고 옷소매로 땀을 훔쳤다. 그리고 벽력같은 굵은 목소리로 자신있는듯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관리부는 제쳐놓구 우리들자신이 허락했네. 자신들이 가져가네!》

《자신들이?… 그래?!》 나굴리노브는 성큼성큼 한달음에 창고처마밑으로 뛰여가더니 층계우에 서있던 젊은이를 주먹으로 떠박지르고 탕하고 창고문을 닫더니 그 문에 꽉 잔등을 기대였다. 《헤쳐들 가라! 곡물은 안 준다! 창고에 기여드는자는 누구나 쏘베트정권의 원쑤로서 점찍어놓겠다!…》

《허어!》 마차에 곡물을 싣는 어떤 이웃사람을 돕고있던 듸모크가 야유하듯이 말했다.

나굴리노브의 출현은 사람들이 모두 뜻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가 구역중심지로 떠나기 전까지 그레먀치에서는 나굴리노브가 반니크구타건으로 해서 재판을 받게 되며 직책에서 철직되고 필시 감옥에 들어가게 될거라는 풍문이 자자했었다. … 반니크는 벌써 아침부터 마까르가 출발했다는것을 듣고 이렇게 장담했었다.

《나굴리노브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 검사자신이 나한테 말했는데 그자를 아주 엄하게 혼뜨검을 낸다는군! 마까르는 좀 정신이 들어야 해! 출당을 당할테니 그때는 농민을 때리는게 어떤것인지 알게 될테지. 지금은 옛적 법이 아니거던!》

바로 그렇기때문에 저울옆에 마까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처럼 당황한듯 의아쩍은 정적으로써 그를 맞이했던것이다. 그러나 그가 저울로부터 창고처마밑으로 달려가서 자기 몸으로 창고문을 막아서자 대다수 사람들의 기분상태는 이내 결정되였다. 듸모크의 말에 덩달아 부르짖는 소리들이 날아왔다.

《우리에겐 지금 우리의 정권이 있어!》

《인민의 정권이야!》

《여보게들, 저 놈팽이를 해치우게!》

《저승으루 사라져라!》

《감—독—놈—아!…》

듸모크가 맨처음으로 멋을 피워 어깨를 까불며 히죽 미소를 띄우고 뒤를 돌아보면서 창고로 향했다. 그뒤로 또 몇명의 까자크가 머뭇머뭇 따라갔다. 그중의 한명은 걸어가는 도중 땅에서 돌을 하나 집어들었다. …

나굴리노브는 바지주머니에서 천천히 권총을 꺼내들고 격철을 울렸다. 듸모크는 발을 멈추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주저했다. 다른자들도 발을 멈췄다. 듬직한 돌을 집어들었던자는 그것을 손으로 주물고

있다가 한옆에 내던졌다. 나굴리노브가 격철을 울렸으니만큼 그럴 필요가 있다면 주저없이 격철을 당기리라는것은 뻔한노릇이였다. 그리고 마까르는 이내 그것을 증명했다.

《벌레같은 놈들 일곱놈을 쏴죽일테니 창고에 들어갈테면 그다음에 들어가봐라. 그래, 누가 첫째냐? 나서라!》

희망자는 어쩐지 없는것 같았다.… 일순간 군중은 혼란에 빠졌다. 듸모크는 창고로 다가갈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무엇인지 두루 생각하고있었다. 나굴리노브는 총구를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웨쳤다.

《헤쳐가라!… 당장 헤쳐가라. 그렇지 않으면 갈겨대기 시작할테다!…》

그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그의 머리우, 창고문에 수레바퀴 쇠심봉이 요란스럽게 부딪쳤다. 듸모크의 친우인 예핌 뜨루바쵸브가 마까르의 머리를 겨누어 그것을 던진것이다. 그러나 실패한것을 보자 그는 날쌔게 짐달구지에 주저앉았다. 나굴리노브는 전투때처럼 결심을 채택했다. 군중속에서 던진 돌을 피하고나서 그는 하늘을 향해서 총을 놓고 즉시 처마밑으로 뛰여나갔다. 군중은 마침내 지탱해내지 못하여 앞에 있던자들을 서로 밀어 어푸러뜨리면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짐달구지와 마차 멍에대들이 찌걱거리고 까자크들이 넘어뜨린 한 녀편네는 듣기 역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뛰지 말어! 저놈에게는 탄환이 여섯알밖에 없어!》 어디선가 나타난 반니크가 이렇게 용기를 북돋우고 내빼는 사람들을 멈췄다.

마까르는 다시 창고로 돌아갔다. 그러나 처마밑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곡물창고들이 모두 보이도록 바람벽옆에 섰다.

《다가오지 말아!》 그는 다시금 저울있는데로 밀려오는 듸모크, 뜨루바쵸브 기타 사람들에게 웨쳤다. 《얘들아, 다가오지 말아, 몰살을 낼테다!》

곡물창고에서 백보쯤 되는 곳에 자리잡은 군중속에서 이완 바딸리씨꼬브, 아따만 츄꼬브 그리고 또 세명의 꼴호즈탈퇴자가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계교를 피우기로 작정한것이였다. 30보쯤 다가와서 바딸리씨꼬브는 예고하듯이 손을 들었다.

《나굴리노브동지! 기다려주게. 총을 들지 말게.》

《대체 무슨 일들이냐? 헤쳐가란 말이다!…》

《이제 헤쳐가겠네. 그렇지만 자네는 공연히 화끈 달아서 그러네.…

우리는 허락이 있어서 곡물을 가져가구있거던. …》

《그게 누구의 허락이냐?》

《관구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저, 관구집행위원회에서 왔다던가, 그 사람이 우리께 허락했네.》

《그래 그 사람은 어디 있나? 다위도브는 어디 있어? 라즈묘뜨노브는?》

《그네들은 관리부에서 회의를 하구있네.》

《거짓말 말아, 썩은 송장같으니!… 저울에서 물러나란 말이야! 안 갈테냐?…》 나굴리노브는 왼편 팔굽을 굽히고 낡아서 까마귀같은 색칠이 벗겨진 그우에다 허연 총신을 올려놓았다.

바딸리씨꼬브는 겁내는 기색도 없이 말을 계속했다.

《우리를 믿지 못하겠으면 자신이 가보게. 그게 싫다면 우리가 그네들을 이리루 데려오지. 무기루 을러대는건 그만두게. 나굴리노브동지,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을게야! 자네는 누구를 반대해나서구있나? 인민을 반대하구있네! 전부락을 반대하구있어.》

《가까이 오지 말아! 그 이상 꼼짝 말어! 너는 내게 동지가 아니다! 국가의 곡물을 략탈해가는 이상 너는 반혁명분자다!… 나는 너희들이 쏘베트정권을 유린하두룩 그냥 두지는 않을테다.》

바딸리씨꼬브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그 순간 창고 한모퉁이에 다위도브가 나타났다. 무참하게 매를 맞아 전신이 퍼런 멍과 할퀸 자국투성이가 된 그는 발을 절채며 지척지척 걸어왔다. 나굴리노브는 그를 일별하자 바딸리씨꼬브한테로 달려가면서 갈린 목소리로 웨쳤다.
《오-냐, 이 벌레야! 속여보겠어? 우리를 때렸구나?!》

바딸리씨꼬브와 아따만 츄꼬브는 내빼기 시작했다. 나굴리노브는 그들의 뒤에 대고 두번 발사했으나 빗나갔다. 듸모크는 옆의 울바자에서 말뚝을 뽑았고 다른자들도 물러나지 않고 웅글은 소리로 웅얼대기 시작했다.

《쏘베트정권을… 유린하도록… 그냥두지는 않겠다!…》 마까르는 군중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악문 이발사이로 으르렁대였다.

《저놈을 쳐라!》

《낡은 총이라두 한자루 있었으면!》 야꼬브 루끼치는 뒤줄에서 손바닥을 치면서 신음했다, 공교롭게도 이런 때 없어진 뾜롭쩨브를 저주하면서.

《까자크여러분!… 저 행패군을 붙드슈!…》 마리나 뽀야르꼬바의 격분에 넘치는 열렬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달려오는 마까르에게 까자크들을 밀어내고 제미드 몰춘의 옷소매를 붙잡으면서 가증한듯이 이렇게 물었다. 《그래두 까자크요?… 겁이 나우?!》

그런데 별안간 군중은 마까르를 맞이하듯이 사방으로 물밀듯 갈라져나갔다. …

《민경이다!》 나쓰쫀까 드네쯔꼬바가 초풍할듯 겁을 먹고 웨쳤다.

언덕으로부터 30명가량이 말을 타고 사태처럼 부락으로 줄달음쳐내려왔다. 그들이 탄 말들이 달리는 땅우에는 봄의 먼지가 가볍고 투명한 안개처럼 뭉게뭉게 일었다. …

5분후 곡물창고옆의 텅 빈 마당에는 다위도브와 마까르밖에 남지 않았다. 말발통소리는 점점 더 가까와졌다. 말탄 사람들이 나타났다. 선두에는 라쁘시노브네 준마를 타고서 빠블로 류비슈낀이 달려오고 그의 오른쪽에는 단단한 결심으로 해서 얼굴이 험상궂게 된 얽음뱅이 아가폰 둡쪼브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다. 그뒤로는 제2작업반과 제3작업반의 꼴호즈원들이 제각기 색갈이 다른 말을 타고 질서없이 달려오고있었다. …

저녁녘에 구역으로부터 다위도브가 부른 민경 한명이 왔다. 이완 바딸리씨꼬브, 아뽈론 뻬쓰꼬와트쓰꼬브, 예핌 뜨루바쵸브 그리고 탈퇴자들중에서 몇명의 《열성자》들을 그는 벌에서 체포했다. 이그나쬬노크네 로파는 집에서 체포했다. 그들은 모두 증인들과 더불어 구역으로 호송되였다. 듸모크는 스스로 촌쏘베트에 자수하여 나왔다.

《날아들어왔군, 비둘기가?》 라즈묘뜨노브는 호기롭게 물었다.

듸모크는 비웃듯이 그를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나타났수다. 점수가 지나쳤으니 더 숨박곡질을 해서 뭘하겠수…》

《점수가 지나치다니?》 라즈묘뜨노브는 량미간을 찌프리였다.

《트럼프루 점수따기를 할 때 점수가 지나치는적이 있잖소? 스물한점이 넘는게 그거요! 이제 나는 어디루 가게 되우?》

《구역으루 가게 되지.》

《민경은 어디 있수?》

《이제 올테니 그리 안달은 말게! 위원장을 친다는것이 어떤것인지 인민재판이 가르쳐줄게다! 인민재판은 네게 호된 처벌을 내릴게다!…》

《그야 물론 그럴테지!》 듸모크는 선선히 동의하더니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청했다.

《나는 자구싶어요, 라즈묘뜨노브. 민경이 올 때까지 나를 헛간에 가둬주슈, 그렇지 않으면 잠에 취해서 달아날지두 모르니.》

다음날 략취된 종곡의 징수에 착수했다. 마까르 나굴리노브는 전날에 곡물을 가져간 집들을 찾아갔다. 그는 인사도 안하고 딴곳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억제하고 물었다.

《곡물을 가져왔나?》

《가져왔네. …》

《도루 가져가겠나?》

《가져가야 할테지. …》

《가져가게.》 하고는 인사도 없이 집에서 나왔다.

탈퇴자들중 다수가 전에 납입했던것보다 더 많은 종곡을 가져갔었다. 구두로 묻는 방법에 의해서 종곡을 나눠주었던것이다.

《밀을 얼마나 납입했나?》 바딸리씨꼬브가 성가신듯이 물었다.

《일곱뿌드씩 두크루분일세.》

《자루를 저울에 가져다놓게!》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종곡을 수집할 때 7～14뿌드나 적게 납입했던것이다. 그뿐만아니라 백뿌드가량은 저울에도 달지 않고 녀편네들이 앞치마나 자루로 뿔뿔이 가져갔었다.

저녁전으로 약간의 부족은 있었으나 밀이 전부 회수되였다. 다만 20뿌드가량의 보리와 강냉이 몇자루가 부족했다. 저녁에는 개인농들이 납입했던 종곡을 전부 다 나눠주었다.

그레먀치의 부락회의는 어두워져서 시작되였다. 다위도브는 일찌기 없었을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학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얼마전까지 꼴호즈원이던자들과 또 일부 개인농들이 어저께 한짓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네들이 부농분자들의 편으루 기울었다는걸 의미합니다! 사실말이지. 그네들은 우리의 원쑤들편에 기울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창고에서 강도처럼 곡물을 날라가구 귀중한 낟알을 땅에 지리밟구 앞치마에 싸서 훔쳐간 당신들의 행동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속에서는 부인네들더러 나를 때리라고 충동하는 지각없는 부르짖음이 나왔구 부인네들은 닥치는대루 나를 때렸습니다. 심지어 한 녀성은 내가 녹초가 된 꼴을 보

이지 않는다구 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얘기를 하구있는거요!》 다위도브는 바람벽옆에 서있는 나쓰쫀까 드네쯔꼬바를 가리켰다. 그는 다위도브가 입을 열자 즉시로 황급스레 머리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있었다.

《주먹으로 잔등을 쥐여박다가 제자신이 약이 올라 울면서 〈그냥 때려두 이놈은 돌같은 등신이야.〉 한건 그건 당신이요.》

나쓰쫀까의 감싼 얼굴은 막심한 창피에 불처럼 타올랐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계면쩍고 거북스러워서 눈을 내리깔고 잔등으로 바람벽의 회칠을 비벼대면서 어깨를 실룩거릴뿐이였다.

《잔등으루 바람벽을 온통 벗겨놨어!》 아가폰 듑쪼브가 말했다.

《몸뚱아리를 비꼬지 말아, 이 왕눈깔아! 사람을 때릴줄 알면 회의에서 사람들의 얼굴두 바라볼줄 알아야지!》 류비슈낀이 으르렁거렸다.

다위도브는 사정없이 계속했다. 그러나 이번에 말할 때에는 이미 그의 터진 입술에 쓴웃음이 떠있었다.

《…저 녀성은 내가 무릎을 꿇구서 애원하구 창고열쇠를 내줬으면 했던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볼쉐비크들은 어느 누구의 꼭두각시가 될 그런 반죽이 아닙니다! 공민전쟁때에는 사관후보생들이 나를 때렸지만 하등 보람이 없었습니다! 볼쉐비크들은 어느 누구앞에서두 무릎을 꿇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루 꿇지 않을겝니다, 사실말이지!》

《옳소.》 흥분하여 떨리는 마까르 나굴리노브의 목소리가 감개깊이 거쉬게 울렸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자신이 프로레타리아트의 원쑤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데 익숙되여있습니다. 그리구 우리는 그들을 꿇어앉힐테요.》

《그것두 세계적규모에서 꿇어앉히세!》 다시금 나굴리노브가 말을 끼웠다.

《세계적규모로서두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제 그 원쑤들한테루 기울어 그들을 원조했소. 여러분, 곡물창고들의 자물쇠를 분질러내구 나를 때리구 라즈묘뜨노브는 우선 결박해서 움에 가뒀다가 후에 촌쏘베트루 끌고갔는데 도중에서 그 사람한테 십자가를 메우려

구 한 그런 행위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것은 영낙없는 반혁명행위입니다! 우리 꼴호즈원인 미하일 이그나쬬노크의 어머니는 체포당했지만 그는 라즈묘뜨노브를 끌구갈 때 〈반그리스도놈이 끌려간다! 지옥의 마귀가 끌려간다!…〉 구 웨쳤으며 끈에 맨 십자가를 부인네들의 조력으로 라즈묘뜨노브의 목에 메우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라즈묘뜨노브동지는 마땅히 공산주의자로서 그래야 하겠지만 그런 모욕을 용인할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인네들과 그리고 승려들에게 홀린 해독적인 로파들에게 〈여러분! 나는 교인이 아니라 공산주의자요! 십자가를 가지구 물러가시오!〉 라구 실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네들은 그냥 들붙었으며 라즈묘뜨노브가 십자가끈을 이발루 물어끊구기를 쓰며 발과 머리를 뿌리치기 시작하자 비로소 그 사람한테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영낙없는 반혁명입니다! 인민재판은 저 미하일 이그나쬬노크의 어머니와 같은 모욕자들을 엄중히 처벌할것입니다.》

《나는 내 어머니에 대해선 책임이 없수다! 그분자신이 공민권을 가지구있으니까 자신이 책임을 져야지요!》 앞줄에서 미스까 이그나쬬노크가 웨쳤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폐쇄를 반대해서 넉두리한 그런따위의 작자들에 대해서 말하는겝니다. 그들은 교회를 폐쇄했을 땐 싫어했으면서 자신들이 공산주의자의 목에다 강제루 십자가를 메우려구 했으니 그건 잘했습니까? 이를테면 그들은 자기의 위선을 고스란히 드러내놨습니다! 그 소동의 장본인들과 적극적으로 나선자들은 체포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농의 낚시에 걸린 그 나머지 사람들도 자기들이 길을 잘못 들었댔다는것을 깨닫구 정신차려야 합니다. 나는 실제적으루 말하구있습니다. 주석단으루 누군가 쪽지를 던졌는데 거기에는 〈곡물을 가져갔던 사람은 모두 체포, 재산몰수, 추방한다는것이 정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씌여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볼쉐비크들은 복수하지 않으며 원쑤들만을 무자비하게 징벌합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비록 부농에게 설득되여 꼴호즈에서 나갔구 곡물을 략취해갔구 우리를 때렸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원쑤루 보지는 않습니다. 당신들은 동요하는 중농들이구 일시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당신들한테 행정적조치를 취하지 않구 사실상 당신들이 눈을 뜨게 하겠습니다.》

장내에서 숨죽인 목소리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물결쳤다.

《그러니까 여보시오, 당신두 겁낼것없이 얼굴을 감싸지 말구 내놓으시오. 비록 당신은 어저께 나를 톡톡히 때렸다 할지라도 아무두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래일 씨 뿌리러 나가서 일을 잘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두드려팰테니 그리 아시오! 다만 나는 잔등이 아니라 좀더 아래쪽을 때려서 앉지두 눕지두 못하게 혼뜨검을 낼테요!》

소리를 죽인 웃음이 점점 높아져 뒤줄에까지 파급되여가는 동안에 제법 벽력같은 폭소로 변했다.

《여러분, 어지간히 늘짱들을 부렸으니 이제는 그만하시오! 가을걷이한 땅을 너무도 버려두어 때가 지나가니 부질없는짓은 말구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실말이지! 파종을 다 하구나면 그때에는 드잡이두 싸움두 할수 있소. … 나는 문제를 엄격히 내세우겠습니다. 쏘베트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래일 밭에 나가구 반대하는 사람은 해바라기씨나 까구있으시오. 그렇지만 래일 파종하러 나가지 않는자의 땅은 우리 꼴호즈가 몰수해서 우리들자신이 파종하겠습니다!》

다위도브는 연단 한끝에서 물러나와 주석단책상옆에 앉았다. 그리고 물병으로 손을 뻗쳤을 때 남포등의 오렌지빛불광에 비쳐진 뒤줄 어스름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하고 명랑한 굵은 목소리가 감동된듯이 이렇게 말했다.

《다위도브, 입심이 갸륵두 하지! 다정한 다위도브!… 원컨대 노여움을 가슴에 품지 말구… 노여움을 외워두지 마시우. … 여기서 사람들은 가슴이 설레구… 눈 둘 곳을 못 찾구서 량심의 가책을 받구있소. …녀편네들두 게면쩍어하구요. … 그래두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아요. … 이럭헙시다. 다위도브, 지나간 일을 외구있는자는 눈이 빠지라구! 예?》

×

이튿날 아침 50명의 탈퇴자들이 꼴호즈가입신청을 제출했다. 개인농들과 그레먀치꼴호즈의 3개 작업반전부가 새벽부터 광야로 나갔다.

류비슈낀이 창고에 경비를 세워두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다위도브는 빙그레 웃음을 짓고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같아서는 이제는 필요없어. …》

나흘동안에 꼴호즈는 그 가을걷이한 땅의 거의 절반에다 파종을 했다. 제3작업반은 4월 2일 봄갈이에 착수했다. 그동안을 통하여 다위도브가 관리부에 있은것은 오직 한번뿐이였다. 그는 일할수 있는 사람은 전부 밭으로 내보냈다. 쓔까리령감까지 일시 마부의 직책을 면제하고 제2작업반으로 보냈다. 그리고 자신도 새벽에 작업반들의 담당구역으로 나갔다가 한밤이 지나 집집에서 닭들이 홰를 치기 시작할 때에야 부락으로 돌아왔다.

제 36 장

풀이 자란 꼴호즈관리부의 뜨락은 동구밖의 방목장같이 고요했다. 한낮의 해별을 받아 곡물창고지붕의 녹쓴듯 한 기와들이 따스히 뿌옇게 번뜩이고있었다. 그러나 창고들의 음달, 짓밟힌 풀에는 안개가 낀듯 한 정향나무빛의 묵직해보이는 주조한듯 한 이슬방울이 아직도 맺혀있었다.

털을 깎아 볼품없이 파래보이는 암양 한마리가 뜨락 한가운데 서있고 그옆에서는 어미와 같이 털빛이 흰 새끼양이 무릎을 꿇고 날래게 젖통을 찔러대고있었다.

류비슈낀은 젖먹는 새끼를 데린 조그만 암말을 타고 뜨락안으로 들어왔다. 헛간옆을 지나면서 그는 지붕우에서 마귀같은 초록빛눈으로 바라보고있는 염소새끼를 채찍으로 사납게 후려갈기고 두덜거렸다.

《그냥 높은 곳으루만 올라가지, 마귀같은것! 내려와!》

류비슈낀은 사납고 또 침울했다. 그는 벌에서 돌아와서 집에 들리지도 않고 관리부로 온것이였다. 그가 탄 초라한 암말뒤로는 목에 매단 방울로 웅글은 소리를 내면서 발굽만 굵고 종아리는 가는 망아지가 부수수한 꼬리를 뻗치고 달려오고있었다. 류비슈낀의 키에 비해서 말은 하도 키가 작아서 드리운 등자끈이 거의 무릎아래에 건들거렸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고 그우에 타고있는 사람은 옛말에 있는것처럼 그 장대한 두다리사이에 초라한 말을 끼고가는것 같았다. … 층층대에서 류비슈낀을 보고있던 좀까 우샤꼬브가 아주 흥겨워했다.

《자네는 하늘소를 타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갈

네. … 천연 꼭같아!》
《바루 자네가 하늘소야!》 류비슈낀은 현관으로 다가가면서 쏘아붙였다.
《발을 쳐들게. 그러다가는 발루 땅을 갈겠네!》
류비슈낀은 죱까에게 대답도 하지 않고 말에서 내려 고삐를 란간에 잡아매고 퉁명스레 물었다.
《다위도브 있나?》
《있네, 앉아서 자네를 보구싶어서 안타까와하구있네. 밤낮 사흘째나 먹지두 마시지두 않구 그냥 〈내 그리운 빠블로 류비슈낀은 어디 있소? 그 사람을 못 봐서 죽을 지경이구 이 세상두 다 시들하다!〉구 하구있네.》
《더 지껄여봐! 그 혀바닥을 뽑아놓을테다.》
죱까는 류비슈낀의 채찍을 곁눈질하고 입을 다물었다. 류비슈낀은 와당와당 안으로 들어갔다.
다위도브는 라즈묘뜨노브와 더불어 녀성회의대표자들과 함께 탁아소설치문제의 토의를 방금 끝마친 판이였다. 류비슈낀은 녀편네들이 나가기를 기다려 책상앞으로 다가갔다. 띠를 끄르자 어깨죽지가 먼지투성이가 된 그의 사라사류바쉬까에서는 땀과 해별과 먼지냄새가 풍겼다. …
《나는 작업반에서 왔어요. …》
《왜 왔소?》 다위도브는 눈섭을 흠칫거렸다.
《도무지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는 일할수 있는 사람이 스물여덟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자들마저두 일하려 하지 않구 건달을 부리는걸요. … 그자들을 다룰 재주가 없어요. 지금 나한테는 보습이 열둘 있는데 가까스로 겨우 보잡이들을 모았지요.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 혼자만이 소처럼 일하구있구 아낌 베쓰흘렙노브라든가 싸모하 꾸좬꼬브라든가 저 고약한 행패군 아따만 츄꼬브라든가 또 다른 작자들은 애군들이지 보잡이가 아니외다! 그자들은 마치 난생 보탑이라구는 잡아본 일두 없는것 같거던요! 되는대루들 갈구있지요. 한고랑 가서는 앉아서 담배만 피우는데 당초 엉뎅이를 뚱기쳐낼 재간이 없군요.》
《하루에 얼마나 일구구있소?》
《마이단니꼬브하구 나는 4분의 3제쌰찌나를 일구지만 그 작자들은… 모두 반제쌰찌나씩이외다. … 이렇게 갈구있다가는 성모제에 가

서 강냉이를 뿌리게 되겠어요.》
다위도브는 덤덤히 연필꽁무니로 책상을 두드리고있다가 슬쩍 이렇게 물었다.
《그래, 당신은 뭣하러 왔소? 우리한테 눈물이라두 씻어달라구 왔소?》 하고 사납게 눈알을 굴렸다.
류비슈낀은 천둥같이 성이 났다.
《나는 울려구 온게 아니외다! 내게 사람과 보습을 더 주시우. 익살을 피우는건 당신 아니라두 피울줄 알아요!》
《당신은 익살을 피울줄은 아오, 사실말이지. 그렇지만 일을 해나가는데는 나사가 풀렸소! 그래두 작업반장이람! 건달군들을 다룰줄 모르다니! 규률을 문란케 하구 란장판을 벌려놨다면 사실 말이지, 다룰줄 모르는군!》
《당신이 그걸 찾아주슈, 그 규률을!》 흥분해서 땀이 내밴 류비슈낀은 어성을 높였다.
《저기서는 모든 일에 아따만 츄끄브가 우두머리외다. 그자가 우리 작업반사람들을 혼란시키구 꼴호즈에서 탈퇴하라구 선동하구있는데 그 더러운 놈을 쫓아내잔즉 그놈이 다른 사람들까지 끌구갈거외다. 아니 쎄뇬 다위도브, 당신은 사실루 나를 놀리구있소? 어떤 병신과 병객들을 내게 붙여놓구서 일에 대해서 추궁하려구 그럽니까? 저 쓔까리령감마따나 뭣에 쓰겠어요? 수다스런 그 노닥다리는 오이밭에 세워놓구 허재비대신 갈가마귀나 쫓게 해야 할텐데 당신들은 그 위인을 우리 작업반에 쓸어넣구 쓴 오이 떠맡기듯 했지요! 그 위인을 어디 쓰겠습니까? 보탑두 잡지 못하구 소두 역시 몰지 못하거던요. 목소리가 참새목소리같애서 소까지두 그 위인을 사람처럼 보지 않아 조금두 무서워하지 않는걸요! 그 집게다리령감태기는 뿔에 맨 고삐에 매여달려 한고랑을 가는 동안에 열번은 어푸러지지요! 그러면 신들메를 매든가 또는 누워서 다리를 머리보다두 높이 쳐들구 빠져나온 탈장을 쓸어밀지요. 녀편네들은 소를 버려둔채 쓔까리령감 하구있는짓에만 정신을 팔거던요. 이건 일이 아니라 연극이외다. 우리는 벌써 어저께 그 탈장으루 해서 그 작자를 취사부루 했더니 거기서두 그자는 쓸모가 없을뿐더러 해로와요! 죽에 넣으라구 기름덩이를 내줬더니 그걸 다 처먹구 죽은 짜게 만들구 또 무슨 거품이 뜨게 만들었지요. … 그러니 원, 그 작자를 어디루 보내야겠소?》 류비슈낀의 검은 코수염밑에서

입술이 무섭게 떨렸다. 그는 채찍을 쳐들어 더러운 류바쉬까의 땀에 절고 빛날은 겨드랑아래 우묵진 곳을 드러내면서 자포자기하듯이 말했다. 《내가 작업반장을 그만두게 해주슈. 그런 위인들하구 빈둥빈둥하는건 참지 못하겠수다. 그자들이 그러기때문에 나까지 손발을 못 쓰겠어요!…》

《뭐 고아라두 된것처럼 그러지 마시오, 사실말이지. 우리는 당신을 언제 그만두게 해야 할지 알구있으니 지금은 밭으루 나가서 저녁까지 12헥터 갈게 하시오. 갈지 못하더라두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오! 두시간후에 내가 가서 검열하겠소. 가시오.》

류비슈낀은 요란스럽게 탕 문을 닫고나와 층층대를 뛰여내려갔다. 란간에 매놓은 말은 맥없이 서있었다. 황금빛이 점점이 있는 그 보라빛 두눈에 해빛이 반사했다. 해별에 뜨거워진 허술한 안장판에 깔린 껄끄렁배를 바로잡고 류비슈낀은 천천히 올라타기 시작했다. 좀까 우샤끄브가 눈을 가늘게 하면서 비양하듯이 물었다.

《당신네 작업반은 많이 일궜습니까, 류비슈낀동지?》

《그건 자네한테 관계없네. …》

《그야 관계는 없겠지만… 이제 자네를 짐배끌듯이 끌게 되는 날이면 관계있지!》

류비슈낀은 안장우에서 몸을 돌리고 손가락이 빨개질만큼 듬직한 갈색주먹을 부르쥐고 다짐했다.

《나타났다만 봐라! 네 그 사팔눈을 대번에 바루잡아놓을테다! 모가지를 비틀어 꽁무니를 앞세우구 걸어가게 만들테다!》

좀까는 업신여기듯이 침을 뱉았다.

《의사가 한분 나타났군! 제꺽제꺽 밭을 갈도록 먼저 자기네 보잡이들이나 고치게. …》

류비슈낀은 공격전에라도 출동하듯이 쏜살같이 대문을 나와 광야로 내달았다. 망아지목에 덜렁거리는 방울들의 흐느끼는듯 한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위도브가 계단에 나와서 좀까에게 초조히 이렇게 말했다.

《내가 며칠동안 제2작업반에 나가있을테니 대리루 당신이 여기 남아있으시오. 탁아소설치에 류의하구 그네들을 방조해주시오. 제3작업반에 귀밀을 주어서는 안되오, 알겠소? 어떤 지장이 있으면 나한테루 달려오시오, 알겠소? 마차에 말을 메우구 라즈묘뜨노브더러

나한테 들리도록 말해주시오. 나는 집에 있겠소.》
《내가 우리축들과 함께 처녀지루 가서 류비슈낀을 도울가요?》 좀까가 제의했으나 다위도브는 야단을 치고 웨쳤다.
《신통한 생각을 하는군! 그네들 일은 그네들자신이 해내야 하오! 이제 가서 그자들의 볼기를 치면 그때엔 사실말이지 반제쌰찌나씩밖에… 밭을 갈지 않을거요! 말을 메우시오!》
라즈묘뜨노브는 관리부말들가운데서 드로스끼(마차의 일종—역자주)를 메운 놈을 타고 다위도브네 하숙으로 왔다. 다위도브는 조그마한 보따리를 겨드랑에 끼고 대문옆에 서서 기다리고있었다.
《올라타게. 아니, 자네는 길량식이라두 가지구 가나?》 라즈묘뜨노브는 벙긋 웃었다.
《속옷이네.》
《무슨 속옷? 무엇때문에?》
《뭐 갈아입을 속옷이지.》
《그건 뭣하게?》
《자, 가기나 하세. 왜 귀치않게 구나? 작업반으루 가는데 밭갈이가 끝날 때까지 거기 가있기루 작정했네.》
《혹시 자네 실성하지 않았나? 밭갈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뭣하려나?》
《밭을 갈지.》
《관리부를 내버리구 밭을 갈러 가? 그거 아주 신통한 생각을 했군!》
《자, 가세! 가!》 다위도브는 량미간을 찌프렸다.
《글쎄 서둘러대지 말게.》 라즈묘뜨노브는 골이 난 모양이였다.
《자네 조리있게 말해보게. 게서는 자네가 없으면 안된단 말인가? 자네는 지도해야지 보잡이를 하는게 아니야! 자네는 꼴호즈위원장이거던. …》
다위도브는 분격한듯이 눈을 번뜩이였다.
《또 그런 소리!… 훈계로군!… 나는 우선 당원이구 그다음에 그야. … 사실말이지! 그다음에야 꼴호즈위원장이네! 우리 밭갈이가 망쳐지는데 그래, 내가 여기 있어?… 가세, 가자는데두!…》
《그야 내게는 상관없네! 제기, 고얀것이 잠이 들었군!》
라즈묘뜨노브는 채찍으로 말을 갈겼다. 다위도브는 별안간 왈칵 떠

나는 바람에 뒤로 몸이 쏠려 팔굽을 마차옆판에 호되게 부딪쳤다. 마차바퀴들은 여름철도로에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광야를 향해 달렸다.

동구에서 라즈묘뜨노브는 말을 평보로 가게 하고나서 상처자국 있는 이마를 옷소매로 훔쳤다.

《다위도브, 자네는 부질없는짓을 하구있네! 저네들의 일을 궤도에 올려놓구서는 곧 돌아오게. 밭갈이는, 그건 여보게, 신기한 일두 아니야. 훌륭한 지휘관이란건 화선에 가지 않고서도 묘리있게 지휘하는 법이거던, 그걸 나는 말해두네!》

《제발 그런 실례는 그만 들게! 나는 그네들에게 일하는걸 가르쳐줘야 하구 또 가르쳐줄테네, 사실말이지! 그것이 지도거던! 제1, 제3작업반에서는 화곡작물파종을 끝냈는데 우리 저기서는 중단이 됐네. 보매 류비슈낀이 해내지 못할것 같아. 그런데두 자네는 자네대루 훌륭한 지휘관이 어쩌구저쩌구하구있네그려. … 아니, 자네는 왜 나를 얕잡아보나? 아 그래, 자네 소견엔 내가 훌륭한 지휘관들을 보지 못한것 같은가? 일이 지체됐을 때 솔선 수범해서 인솔하는것두 훌륭한 지휘관이야! 그러니까 나는 인솔해야 하네!》

《차라리 제1작업반에서 보습을 두개 넘겨주는게 낫지 않을가?》

《그럼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데서 데려오나? 제발 빨리 몰아주게, 빨리!》

바로 언덕등성이까지 말없이 타고들 갔다. 광야우 하늘꼭대기에는 바람에 불려올라간 진보라빛의, 우박이라도 품었을듯 한 구름이 해를 가리우고 떠있었다. 새하얀 그 량가장자리는 뭉게뭉게 피고 백설같이 반짝였으나 시꺼먼 그 꼭대기는 육중하니 움직이지는 않고 찌프리고 있었다. 구름이 끊어진 곳, 해별에 오렌지빛으로 물든 그 가장자리로부터는 해빛이 넓게 부채살처럼 엇비듬히 내려비치고있었다. 광막한 하늘에서는 가는 창같은 그 해살이 지상으로 가까와오면서 분수처럼 퍼지여 지평선우에 뻗쳐있는 갈색의 광야등성이에 떨어지자 거기를 아름답게 물들이여 신통스럽고도 즐거운듯싶은 산뜻한 빛을 띠게 하였다. …

비구름의 그늘로 하여 안개낀듯이 된 광야는 덤덤하니 고즈넉이 비를 기다리고있었다. 바람에 불려 행길우에서는 짙은 남빛의 먼지기둥이 소용돌이치고있었다. 바람은 벌써 숨답답한 비의 습기를 머금고있었다. 일순후 뜨문뜨문 아끼듯이 비가 돋기 시작했다. 알맹이진 차거

운 비방울은 길바닥의 먼지속에 박히듯이 떨어져 조그마한 진창덩어리로 뭉쳤다. 쥐들이 불안스럽게 쏼쏼거리고 메추라기소리는 더욱 뚜렷이 울리기 시작했으며 정욕에 타는 들기러기의 쌍을 찾는 웨침은 끊어지고말았다. 가을한 기장밭으로 동남풍이 쏠려들어 기장그루들이 소스라쳐 술렁대기 시작했다. 광야는 지난해 부리얀초들의 메마른 속삭임으로 가득찼다. 비구름 바로 밑으로 까마귀 한마리가 몸을 기울이고 그 펼친 날개로 기류를 따라 동쪽으로 흘러갔다. 번개가 번뜩이고 희게 빛났다. 그러자 까마귀는 날카롭게 저음으로 깍 소리를 지르고 불현듯 쏜살같이 아래로 돌진했다. 일순 해빛에 전신이 비치인 까마귀는 불타는 타르홰불처럼 번뜩이였다. 그 날개깃사이로 폭풍같이 요란하게 휙 공기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까마귀가 지상 50싸젠도 내려오지 않고 홱 몸을 젖혀 날개를 푸득이자 동시에 귀청이 찢어지는듯 한 메마른 우뢰소리가 터졌다.

등성이우에 제2작업반의 숙영이 나타났을 때 라즈묘뜨노브는 느슨한 비탈밑에서 그들을 향하여 한 사나이가 걸어오는것을 보았다. 그는 낭떠러지들을 뛰여넘어 가끔 늙은이다운 종종걸음으로 달리면서 길도 가리지 않고 걸어왔다. 라즈묘뜨노브는 그 사나이한테로 말을 돌렸다. 벌써 멀리서부터 쓔까리령감임을 알아보았다. 모든 점으로 보아 쓔까리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모양이였다. … 그는 마차로 다가왔다. 모자도 안 쓴 그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찰싹 붙고 젖은 턱수염과 눈섭에는 삶은 기장알들이 붙어있었다. 쓔까리는 새파랄 정도로 얼굴이 질린게 매우 겁을 집어먹고있었다. 그러므로 다위도브는 (제2작업반의 정세가 좋지 못하구나. … 란장판이 벌어졌나보군!) 하는 불쾌한 짐작이 들었다.

《무슨 일이요?》 그는 물었다.

《죽을 고비에서 겨우 빠져나왔네!》 쓔까리는 길게 숨을 내쉬였다. 《나를 죽이려구들 했어. …》

《누가요?》

《류비슈낀과 또 다른 놈팽이들이지.》

《무엇때문에요?》

《그놈들이 변덕스러워서지. … 일은 죽때문에 일어났네. … 나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구 말하는 성미라 참아낼수가 없었지. … 그랬더니 류비슈낀이 칼을 들구서 나를 따라오겠지. … 내가 날쌔지 않았던들 지

금쯤은 칼을 맞았을게야! 별수없이 뻐드러졌을게야!…》

《부락으로 가시오. 후에 알아봅시다.》 다위도브는 후—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일렀다.

…이보다 반시간 앞서 숙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것이다.

쓔까리령감은 그 전날 밤 죽을 너무 짜게 끓였는데 작업반안에서 신용을 회복하고저 저녁때 부락에 가서 거기서 밤을 지내고 아침이 되자 집에서 자루를 가지고 작업반으로 오던 도중 부락 맨끝에 사는 크라쓰노꾸또브네 탈곡장 울짱과 울짱사이를 넘어들어가서 쌓아놓은 겨무더기옆에 도적처럼 몸을 숨기고있었다. 쓔까리령감의 계획은 독창적이라 하리만치 간단했다. 즉 닭을 노리고 숨어있다가 살짝 닭을 붙잡아 목을 비틀어 닭고기를 넣고 죽을 끓여서 작업반내에서 영예와 존경을 획득하려는것이였다. 그는 근 반시간동안이나 숨을 죽이고 엎드려있었다. 그러나 닭들은 얄밉게도 어딘가 울바자옆에서만 헤집어댈뿐 겨무더기로는 가까이 올 생각도 안하는것 같았다. 그러자 쓔까리령감은 조용히 닭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쥐주, 쥐주, 쥐주, 쥐주!… 요것아! 이것아! 쥬, 쥬, 쥬!》 하고 가만가만 부르면서 자신은 짐승처럼 겨속에 숨어있었다. 크라쓰노꾸또브로인은 우연히도 탈곡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는 누가 목소리를 죽이고 닭을 부르는것을 듣자 울바자뒤에 쭈그리고앉았다.… 닭들은 곧이듣고 겨무더기로 다가갔는데 바로 그 서슬에 크라쓰노꾸또브는 누군가의 손이 겨속에서 나와 유리알로 장식한것 같은 닭의 발을 낚아채는것을 보았다. 쓔까리는 닭잡는데 이골이 난 족제비처럼 날쌔게 닭의 목을 비틀고 금시 그것을 자루안에 쓸어넣기 시작했을 때 낮은 목소리로 《닭에 손을 왜 대?》 하고 묻는 소리와 함께 울바자뒤에서 일어선 크라쓰노꾸또브를 보았다. 쓔까리령감은 어찌도 당황했던지 손에 들었던 자루를 떨어뜨리고 모자를 벗고서 싱겁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아파나씨 뻬뜨로비치!》

《덕택으루 편안하네.》 이쪽은 대답했다. 《닭들에 손을 왜 대는가 말일세?》

《그렇지, 그렇지! 옆을 지나다보니까 유리알루 장식한것 같은 닭이데그려! 어찌도 그 털이 신통스럽구 고운지 난 참아낼수가 없었네. 그래 대체 어떤 닭인지 잡아서 좀더 가까이서 보자구 생각했지. 오래 살아왔건만 그렇게 야릇한건 본적이 없네!》

쓔까리의 계교란 맹랑하기 짝이 없는것이여서 크라쓰노꾸또브는 애저녁에 바닥을 드러내고말았다. 《거짓말말게, 로망한 말새끼같으니! 닭을 자루안에 넣구 보는 놈이 어디 있담! 털어놓게. 어떤 필요루 해서 훔치려구 했어?》

그래서 쓔까리는 자기 작업반의 밭갈이군들에게 닭고기를 넣고서 죽을 끓여주고싶어 그랬노라고 사과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크라쓰노꾸또브는 한마디도 꾸지람은 없이 이렇게 권고했을뿐이였다.

《밭갈이군한테라면 괜찮아, 죄가 없어. 이왕 한마리 축을 냈으니 그건 자루속에 넣어두구 게사니 한마리 더 막대루 때려잡게. 저것이 아니라 저기 저 알 안 낳는 변두털 있는 암게사니 말이야.… 닭 한마리루써야 작업반의 국수를 어디 만들겠나. 빨리 딴것을 잡아가지구 사라지게. 그러다가 괜히 우리 집 로친네한테 들키면 자네나 내나 피차 큰코 다치네!》

일이 이렇게 끝난것에 지극히 만족한 쓔까리는 게사니 한마리를 더 잡아가지고 울짱과 울짱사이로 울바자를 넘어 뺑소니를 쳤다. 두시간후에 그는 숙영으로 왔고 부락으로부터 류비슈낀이 도착할 즈음에는 벌써 세바께쯔들이솥에 물이 끓고 익은 기장이 쐴레쐴레 끓어올랐으며 잘게 자른 고기에서는 동동 기름이 흘러나왔다. 죽은 아주 멋지게 끓여졌다. 쓔까리령감이 오직 하나 걱정한것은 고여있던 물냄새가 죽에서 나지 않을가 하는것이였다. 왜냐하면 그는 근방의 얕은 못에서 물을 길어왔는데 그 흐르지 않는 물에도 보일가말가하게 퍼런 이끼가 끼여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걱정은 쓸데없는것이였다. 모두가 먹으면서 극구찬양했고 작업반장 류비슈낀은 《난생 이렇게 맛난 죽은 먹어본적이 없군요! 전작업반을 대표해서 령감님, 당신한테 감사를 드립니다!》고까지 했던것이다.

솥은 잠시동안에 비고말았다. 날랜축들은 벌써 밑창에서 누룽지와 고기덩이를 긁어내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쓔까리의 취사부경력을 영영 망쳐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류비슈낀이 고기를 한점 꺼내서 입으로 가져가려다가 별안간 흠칫 물러서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건 대체 뭐요?》 그는 손끝으로 허옇게 익은 고기점을 쳐들면서 쓔까리한테 사납게 물었다.

《필시 날개죽지겠지.》 쓔까리령감은 태연히 대답했다.

류비슈낀의 얼굴은 골수에 사무친 분노로 해서 서서히 퍼르스름한

홍조로 물들었다.

《날—개죽지?… 그럼 이걸 좀 보우, 취사부!》 그는 으르렁거렸다.

《아유머니나!》 한 녀편네가 소스라치듯이 소리를 질렀다. 《저 발톱 봐요!…》

《별난 수작을 다 하는군, 망할것!》 쓔까리령감은 그 녀편네에게 접어들었다. 《날개죽지에 웬 발톱이 있어? 네 치마밑에서나 그걸 찾아봐라!》

그는 펴놓은 베헝겊우에 숟가락을 내던지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류비슈낀의 떨리는 손에서는 끝의 막과 또 조그마한 발톱이 붙은 가는 뼈다귀 하나가 건들거리고있지 않는가. …

《여보게들!》 격노한 아낌 베쓰흘렙노브가 웨쳤다. 《우리는 개구리를 먹었네!》

그러자 당장에 속이 뒤집히기 시작하였다. 비위 약한 한 녀편네는 소리를 지르면서 뛰여일어나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숙영마가리뒤로 사라졌다.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는 쓔까리령감이 대경실색해서 눈이 휘둥그래있는것을 보자 벌렁 뒤로 나가넘어져 포복절도하면서 가까스로 이렇게 웨쳤다. 《원 저런, 아주머니네들! 더러운것을 먹었구려!》 그리 비위가 약하지 않은 까자크들은 마이단니꼬브를 지지했다. 《이제는 성찬은 다 받았수다!》 하고 꾸쥀꼬브는 짐짓 놀란듯이 웨쳤다. 그러나 웃어대는데 밸이 꼴린 아낌 베쓰흘렙노브는 맹렬하게 부르짖었다. 《대관절 뭬 우스워?! 쓔까리놈팽이를 족쳐줘야지!…》

《어떻게 개구리가 솥안에 들어갔을가?》 류비슈낀이 캐였다.

《저 령감태기가 못에서 물을 길어왔나부이. 이를테면 잘 보지 않은거네. …》

《병신같으니! 이 로망한 병신아!… 우리에게 뭘 멕였어?!》 도네쯔꼬바네 며느리 아니씨까는 그렇게 쇠소리를 내여 으르렁대며 부르짖었다. 《나는 지금 무거운 몸이야! 그래 너같은 반편때문에 류산하면 어쩔테냐?…》

그 말과 동시에 자기 사발에 들어있던 죽을 쓔까리령감에게 끼얹었다.

대소동이 일어났다. 녀편네들은 일제히 쓔까리의 턱수염으로 손을 뻗쳤다. 혼비백산하여 어쩔바를 모르고 쓔까리가 기를 써 웨쳐댔으나 들으려고도 하지들 않았다.

《좀 진정들 하라구! 그건 개구리가 아니야! 정말이지 개구리가 아니야!》

《그럼 그게 뭐야?》 감때사나운 아니씨까 도네쯔꼬바가 접어들었다.

《그건 임자네들에게 그렇게 보일뿐이야! 그건 눈홀림이야!》 쓔까리는 어물쩍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눈홀림인 그 뼈다귀를 먹으라고 류비슈낀이 그에게 제의하자 그는 딱 잡아뗴였다. 마침내 녀편네들의 행패에 머리꼭뒤까지 성이 난 쓔까리가 이렇게 웨쳐대지 않았던들 사건은 그것으로 끝났는지도 모른다.

《이 지저분한것들아! 치마입은 마귀들아! 남의 상판대기에 손을 댈줄은 알아두 이게 여느 개구리가 아니라 석화라는건 몰라!》

《무엇!―》 녀편네들은 깜짝 놀랐다.

《석화야, 나는 임자들한테 로씨야말루 말하구있어! 개구리는 더러운것이지만 석화는 고상한거야! 내 이름을 붙여준분은 옛 제도하에서 바로 필리모노브장군의 종졸루 복무했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 장군은 공복으루 그걸 몇백개씩 먹었대! 그것두 진짜회루 먹었대! 아직 석화껍질을 깨기도 전에 벌써 삼지창으루 그걸 우벼내지. 콱 그것을 찌르면 벌써 그건 없거던! 석화는 애처롭게 짹 소리를 내지만 목구멍에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두 석화의 일종인지두 모르지 않는가? 장군들두 좋아하느니만큼 나두 국물이 우러나두룩 임자들같은 못난이들한테 맛이 있으라구 그걸 넣을수두 있거던. …》

그러자 류비슈낀은 이상더 참아낼수 없었던지 구리로 만든 커다란 국자를 잡아쥐고 일어서더니 목청껏 호령을 질렀다.

《장군들이라구? 국물이 우러나두룩?… 나는 붉은빨찌산인데 령감은 그 어떤 장군놈한테처럼 내게 개구리를… 먹여?!》

쓔까리에게는 류비슈낀의 손안에 있는것이 칼처럼 보였고 그래서 죽을 기를 다 써서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뺑소니를 쳤던것이다. …

다위도브는 후에 숙영으로 와서 그 사연을 죄다 알았지만 그때에는 쓔까리령감을 보내고 라즈묘뜨노브에게 빨리 말을 몰도록 부탁하여 이내 작업반숙영으로 달려왔었다. 비는 그냥 광야우에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다. 그레마치 로그로부터 먼 련못까지 휘우듬히 령롱한 무지개가 중천에 걸려있었다. 숙영에는 사람 하나 없었다. 라즈묘뜨노브와

작별하고 다위도브는 제일 가까운 경작지구로 걸어갔다. 그 근방의 풀밭에서는 연장을 벗은 소들이 걸어다니고있고 보잡이인 아낌 베쓰홀렙노브는 숙영으로 가는것까지 게으름을 피워 밭고랑에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워 바스락거리는 비방울소리를 들으면서 낮잠을 자고있었다. 다위도브는 그를 깨웠다.

《왜 밭을 갈지 않소?》

아낌은 시틋이 일어나서 하품을 하고 히죽 웃음을 띄웠다.

《비가 올 때는 밭을 못 갑니다. 다위도브동지, 당신은 그걸 모르슈? 소는 뜨락또르가 아니외다. 소모가지가 젖기만 하면 이내 피가 날만큼 멍에에 쓸쳐지구 그렇게 되면 벌써 그 소루는 일을 다하게 되죠. 정말이외다, 정말이외다!》 다위도브의 눈에서 믿지 않는 기색을 보자 그는 그렇게 말을 맺고나서 이렇게 권고했다. 《차라리 가서 저 잘난 용사들이나 말리시우. 아침부터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가 아따만 츄꼬브에게 접어들구있는데… 지금 저기 저 경작지구에서 두사람이 전툴 하구있수다. 꼰드라트가 연장에서 소를 떼라구 이르면 아따만 츄꼬브는 그 사람한테 〈내 연장을 건드리지 말아, 그렇지 않으면 대가리를 까놓겠다. …〉 하지요. 그자들은 지금쯤 아마 서루 멱다시를 잡구있을지두 모르겠수다!》

다위도브는 창고 서쪽 제2지구끝을 바라보자 거기에서 사실로 싸움비슷한 일이 벌어지고있는것이 보였다. 마이단니꼬브는 손에 든 철봉을 환도처럼 휘두르고있었고 키가 큰 아따만 츄꼬브는 한손으로 마이단니꼬브를 멍에에서 밀쳐내고 또 한손은 등뒤로 돌려 주먹을 쥐고있었다. 말소리들은 들리지 않았다. 급히 그리로 향해가면서 다위도브는 멀리서부터 소리를 질렀다.

《또 무슨 일들이요?》

《어쩌면 이럴가요, 다위도브! 비가 오는데 이자는 밭을 갈구있습니다! 이런짓을 하다간 이자가 소모가지를 벗겨뜨리구말걸요! 내가 〈비내리는 동안 소를 떼게.〉 하니까 이자는 욕지거리를 하면서 〈네가 알바 아니다!〉 이러는군요. 그럼 이 개자식아, 이게 누가 알 일이냐? 누가 알 일이야, 이 고약한 도깨비야!》 마이단니꼬브는 이번에는 아따만 츄꼬브에게 철봉을 휘둘러대면서 웨쳤다.

두사람은 보매 벌써 맞붙었던 모양이였다. 마이단니꼬브는 눈통에 검은자주빛멍이 갔고 아따만 츄꼬브는 류바쉬까깃이 엇비슷이 찢어지

고 면도질을 한 부어오른 입술에는 피가 배여있었다.

《꼴호즈에 해독을 주는것을 그냥둘수는 없어!》 다위도브가 와서 기운이 난 마이단니꼬브가 웨쳤다. 《저 작자는 〈네 소가 아니야, 꼴호즈의 소야!〉 합니다. 그래 꼴호즈의 소라면 생껍질을 벗겨두 좋단 말이지! 소를 떼라, 이 고약한 놈아!》

《내게 지시를 말어! 그리구 너는 때릴 권리가 없다! 안 들으면 흙떨개를 뽑아서 반편을 만들어놓을테다! 나는 기준량을 갈아야 하는데 너는 훼방을 놀구있어!》 얼굴이 새하얘진 아따만 츄꼬브는 왼손으로 단추를 채우려고 옷깃을 어루만지면서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비가 오는데 갈아두 되오?》 다위도브는 걸어가면서 마이단니꼬브의 손에서 철봉을 빼앗아 발밑에 던지고 아따만 츄꼬브에게 물었다.

아따만 츄꼬브는 눈을 번뜩이였다. 가는 목을 꼬면서 그는 갈린 목소리로 사납게 말했다.

《제 살림에서는 안되지만 꼴호즈에서는 그래야 하지요!…》

《그 〈그래야 하지요.〉란건 뭐요?》

《계획을 완수해야 한단 말이외다! 비는 오든말든 갈아야지요. 갈아내지 못하면 녹이 쇠를 깎아먹는것처럼 류비슈낀이 하루를 깎아먹을테니까.》

《입심은 좋지. … 어제 맑은 날씨에 너는 기준량을 갈았니?》

《힘자라는데까지 갈았지!》

마이단니꼬브는 흥 하고 코를 울렸다.

《4분지 1제썈찌나 갈았다우! 보시우, 저 작자의 소들이 어떤가! 뿔에 손이 미치지 않을 지경인데 얼마나 갈았겠소? 갑시다, 다위도브, 좀 보시우.》 그는 다위도브의 젖은 외투소매를 잡고 밭고랑으로 끌고갔다. 흥분으로 해서 미처 말끝도 맺지 못하면서 게두덜거렸다. 《적어두 깊이가 3웨르쇼크반은 되게끔 갈기루 결정됐는데 이게 뭐람? 손수 재보시우!》

다위도브는 몸을 굽혀 부드럽고 진득거리는 밭고랑에 손가락을 꽂았다. 그 밑바닥으로부터 잔디 돋은 표면까지는 1.5~2웨르쇼크이하의 깊이밖에 안되였다.

《이게 간거야? 이건 땅을 긁은거지 간게 아니야! 이렇게 알뜰하게 일해놓은데 대해서 나는 아침부터 저놈을 때려주려고 했었소. 밭을 모두 돌아보시우, 전부 깊이가 이 모양이외다!》

《자, 이리 좀 오시오! 오란 말이요, 사실말이지!》 다위도브는 심드렁하게 소를 떼고있는 아따만 츄끄브에게 그렇게 웨쳤다.
아따만 츄끄브는 느릿느릿 천천히 다가왔다.
《당신은 대체 왜… 그렇게 갈구있소?》 다위도브는 앞이발 빠진 입을 벌리면서 조용히 물었다.
《그래, 당신들은 어떻게 하는걸 바라오? 8웨르쇼크를 일구랍니까?》 아따만 츄끄브는 밸이 꼴리는듯이 눈을 가늘게 하더니 빤빤히 깎은 머리에서 모자를 벗고 절을 했다. 《감사하외다! 자신들이나 더 깊이 갈아보시우! 말루야 모두 풍금타듯 하지만 일을 하는데는 그렇게 안돼요!》
《우리는 너같은 놈을 꼴호즈에서 쫓아낼테다!》 다위도브는 얼굴이 검붉어지면서 웨쳤다. 《쫓아낼테다!》
《제발 그렇게 해주시우! 자신이 나가겠수다! 나는 여기서 당신들한테 일생을 바칠 그런 저주받을 놈팽이가 아니요. … 무엇때문에 아득바득 애를 쓰는지 영문을 모르겠어!》 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숙영으로 걸어갔다.
《작업반앞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꼴호즈와 쏘베트정권을 속이구서 3웨르쇼크반깊이로 밭을 갈 대신에 1.5웨르쇼크로 갈아 땅을 망치려드는 그런 가짜꼴호즈원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비가 오는데 일을 해서 고의로 소들을 죽여버리려구 하구 개인 날에는 기준량을 불과 절반밖에 해내지 못하는 그런자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쫓아내야지요!》 류비슈낀이 말했다.
특히 기승을 내여 그를 지지한것은 녀편네들이였다.
《그런 해독분자꼴호즈원이 당신들속에 있습니다. 바로 저자요!》 다위도브는 짐달구지멍에대에 걸터앉아있는 아따만 츄끄브를 가리켰다. 《작업반전원이 모여있소. 문제를 손을 들어 결정에 붙이겠소. 해독분자이며 건달군인 아따만 츄끄브를 쫓아내는데 찬성하는 사람?》
스물일곱명중에서 스물세명이 손을 들었다. 다위도브는 그것을 계산하고나서 아따만 츄끄브에게 무뚝뚝히 이렇게 말했다.
《사라지게, 임자는 이젠 꼴호즈원이 아니네, 사실말이지! 한 1년두구봐서 나아지면 다시 받아들이세. 그럼 이번에는 동지들, 내가 당

신들에게 하는 간단하나 중대한 말을 들어주시오. 당신들은 거의모두가 다 일을 잘들 못하구있습니다. 아주 좋지 못합니다! 마이단니꼬브를 제하구는 한사람두 기준량을 완수하지 못하구있소. 제2작업반원동지들, 이것은 수치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하구있다가는 웃음거리가 되구말겠소. 그 본새루 일하면 당장 전달군명부에 올라 그냥 말라붙겠소! 쓰딸린의 명칭을 가진 꼴호즈에서 대뜸 그런 추태가 벌어지다니 이런 일은 근절해버려야겠습니다!》

《기준량이 너무 힘에 부칩니다! 소들이 끌어내지 못하는걸요.》 아낌 베쓰흘렙노브가 말했다.

《힘에 부친다구요? 소들이? 실없는 소리요! 그럼 어째서 마이단니꼬브의 소들은 힘에 부치지 않소? 나는 당신네 작업반에 남아서 아따만 츄꼬브의 소를 가지구 하루동안에 한헥터 혹은 한헥터하구 4분의 1까지두 갈수 있다는걸 산모범으루 보여주겠소.》

《허 다위도브, 당신두 날쌔구려! 괜치 않게 말을 하는군요.》 꾸쥉꼬브가 짧고 희읍스름한 턱수염밑둥아리를 줌안에 그러쥐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따만 츄꼬브의 소라면야 도깨비뿔두 휘여내지! 그런 소를 가지고 한헥터라면 나두 갈겠소. …》

《그래, 당신 소루는 갈지 못하겠소?》

《절대루 안되지!》

《그럼 바꿀가요? 당신은 아따만 츄꼬브의 소루 갈구 나는 당신 소루 갑시다! 좋습니까?》

《해봅시다.》 잠시 생각하고나서 꾸쥉꼬브는 신중히 조심스레 대답했다.

…다위도브는 뒤숭숭하게 밤을 지냈다. 그는 숙영마가리안에서 잤는데 자주 잠을 깼다. 마가리양철지붕이 바람에 드릉드릉 울리기때문인지, 비에 젖은 채 마르지 않은 외투밑으로 스며드는 한밤의 추위때문인지 혹은 밑에 깐 양모외투에 잔뜩 꾄 벼룩때문인지…

동틀녘에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가 그를 깨웠다. 다위도브는 마가리에서 뛰쳐나갔다. 서쪽하늘가에는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활등처럼 된 초생달이 검푸른 쇠갑옷같은 하늘우에 금장식처럼 뽐내고있었다. 다위도브는 련못에서 물을 떠서 세수를 하고 꼰드라트는 그옆에 서서 화가 나는듯이 누르스름한 코수염끝을 깨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루에 한제쌰찌나이상이나 간다는건 많은 일이외다. … 당신은 어제 지나쳤어요. 다위도브동지!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좋으련만…》

《모든것이 우리의 수중에 있구 모든것이 우리것이요! 뭘 당신은 겁내구있소, 괴벽스런 사람?》 다위도브는 꼰드라트의 기운을 돋구었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밭에서 죽을지언정 해낼테다! 밤에 등불을 켜들구서라두 갈겠다. 한제쌰찌나 4분의 1을 갈테다. 그렇게 못하면 안돼. 전로동계급의 수치야. …》

다위도브가 방수포로 짠 똘스똡까옷자락으로 얼굴을 훔치고있는 동안에 꼰드라트는 자기 소와 다위도브의 소들에 연장을 메우고 웨쳤다.

《갑시다!》

보습바퀴가 삐걱거리는 가운데서 꼰드라트는 수십년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소로 가는 밭갈이의 간단한 기초를 다위도브에게 깨우쳐주었다.

《우리는 싹꼬브보습을 제일 나은 보습으루 치구있습니다. 아크싸이보습두 보습에는 틀림없지만 싹꼬브보습을 따를려면 거리가 멀지요! 그걸루써는 싹꼬브보습같은 기분이 안 나거던요. 우리는 이렇게 밭을 갈기루 결정했습니다. 매 개인한테 자기 경작지구를 갈라맡기구 거기서 제각기 하기루 했지요. 처음에는 베쓰흘렙노브, 아따만 츄꼬브, 꾸젠꼬브 그리구 그자들한테 류비슈낀까지 곁붙이루 우겨대서 서루 꼬리를 물구 뒤를 따라가며 갈기 시작했었지요. 〈우리가 꼴호즈를 차리구있는 이상 보습두 꼬리를 물구 몰기루 하자.〉 구들 해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일이 그리 신통치 않더군요. … 앞보습이 서면 뒤보습들두 서야 하니까요. 앞보습이 슬렁슬렁 갈면 다른 보습들은 싫어두 거기에 맞춰갑니다. 그래서 나는 들구일어났지요. 〈나를 앞에 내보내든지 매 개인한테 경작지구를 갈라주자.〉 구 했지요. 그러자 류비슈낀두 그렇게 가는것이 쓸모없다는걸 깨달았지요. 누가 한 일인지 가려볼수가 없거던요. 경작지구들을 나누자 나는 그자들한테서 떨어져나와 그 작자들을 훨씬 떨어뜨렸지요. 우리의 매개 경작지구는 한제쌰찌나인데 세로 60싸젠, 가로 15싸젠입니다.》

《왜 가로는 같지 않소?》 다위도브는 경작지구 량옆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그건 이런 까닭에서외다. 세로 고랑을 갈아가서는 소를 돌려야지

요, 그렇지요? 만약 급작스레 소들을 돌려세우면 멍에에 목을 다쳐서 벌써 소는 밭갈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세로 갈구나서도 보습을 들구서 허턱 15싸젠쯤 몰아갑네다. 뜨락또르라면 바퀴가 자유루 움직이니까 홱 돌려가지구 다시 온 길을 도로 갈아갈수 있지만 여섯마리, 여덟마리의 소를 과연 그렇게 돌릴수 있겠어요? 돌아설 때 빠지는 곳없이 잘 갈려며는 소가 군대들처럼 왼쪽발 하나루 돌아야 하거던요. 이때문에 소루 밭을 가는데는 경작지구를 크게 해서는 안되지요. 뜨락또르라면 가는 길이가 암만 길어두 길수록 태평이지만 소루 가는데는 세로 60싸젠을 갈구나면 가로 갈 때는 보습이 우를 스치듯이 하구 허탕으루 나가지요. 자, 내가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꼰드라트는 뾰족한 흙떨개끝으로 땅에다 기다란 경작지구를 하나 그려놓았다. 《이것이 4제쌰찌나라구 합시다. 세로 160싸젠이구 가로 60싸젠이외다. 우선 세로 갈아간다 하구 보시우, 만약 내가 한제쌰찌나를 간다면 60싸젠이외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까? 시간의 허비지요. …》

《알았소. 당신은 실지루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밭을 갈아본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었소. 보습이 어떤것인가는 대강 알지만 그걸 부릴줄은 모릅니다. 내게 가르쳐주시오. 나는 알아차리는것이 빠르니까.》

《이제 내가 보습을 맞춰가지구 한두어번 갈아갈테니 그다음에는 당신자신이 요령을 잡으시우.》

꼰드라트는 다위도브의 보습을 조절하더니 보습을 3웨르쇼크반의 깊이로 꽂고 갈면서 무심결에 《하게.》조로 설명했다. 《시작하세. 만약 소들이 힘들어하는것 같으면 바로 이것을 한바퀴반쯤 돌리게. 여기서는 이걸 횡전대라구 하는데 자유루 돌아가는 사슬이 달려있구 홈을 판 사슬은 돌아가지 않네. 횡전대를 돌리면 보습날이 약간 모루 서구 엇비스듬히 나가기때문에 그 8인치넓이를 다 갈지 않구 6인치 넓이루 갈게 돼서 소들이 힘이 덜들게 되네. 그럼 출발하세! 쯧, 이랴, 쯧… 힘을 아끼지 말게, 다위도브동지!》

다위도브의 소몰이군인 젊은이가 기다란 채찍을 철썩하자 선두에 선 소들이 일시에 끌어대기 시작했다. 다위도브는 저으기 흥분하여 두 손을 보탑에 대고 보습뒤로 걸어가면서 보습날에 잘리운 기름진 검은 흙이 보습끝에서 휘우듬한, 번뜩거리는 보습판을 따라 기여올라와 죽

은 물고기처럼 옆으로 번져나가는것을 바라보았다.
한고랑을 다 갈고 소들을 몰아내자 마이단니꼬브가 다위도브한테로 달려와서 이렇게 가르쳤다.
《보습을 왼쪽으루 눕혀서 보습이 떠나가게끔 하구 그러면 보습판의 흙을 떨구지 않아두 되네. 이렇게 해야 하네, 보게!》 그는 오른편보탑에 몸을 싣고서 보습을 떠오르게 세웠다. 그러자 흙층은 보습판으로 해서 빠듯이 엇비듬하게 올라와 보습판에 매질한듯 붙어있는 진창을 핥아내다싶이 했다. 《이렇게 해야 하네!》 꼰드라트는 보습을 엎어놓고 벙긋이 웃었다.《여기에두 기술이 있네. 보습을 떠오르게 하지 않으면 소들이 가로 갈아가는 동안에 흙떨개루 보습판에서 진창을 떨궈야 하네. 이제는 보습이 씻은듯이 깨끗하니까 몰아가면서 마음편히 담배나 말아피우게, 자!》
그는 돌돌 만 담배쌈지를 다위도브에게 내밀고 자기도 한대 말고나서 턱으로 자기 소들을 가리켰다.
《우리 집 녀편네가 돌려세우는걸 보게! 보습이 알맞구 튀여나오는 일이 드물어서 녀편네 혼자서두 갈수 있어. …》
《집의 부인이 소몰이인가?》 다위도브는 물었다.
《녀편네네. 녀편네하구 일하는게 편리해. 가끔 가다 된욕두 하지만 성을 안 내구 성을 낸다 해두 밤까지지. … 밤에는 화해하게 되거던. 어쨌든 자기 사람이니까. …》
꼰드라트는 벙긋이 웃음을 띄우고 커다란 발걸음으로 천천히 밭을 갈아갔다.
조반전의 첫뜸에 다위도브는 약 4분의 1제쌰찌나를 갈았다. 그는 흥심없이 조금 죽을 먹고 소들이 여물을 먹는것을 기다려 꼰드라트에게 눈짓했다.
《시작해볼가?》
《나는 차비가 됐수다. 아뉴뜨까, 소들을 몰아와.》
그리하여 다시금 한고랑 또 한고랑 수백년동안 다져지고 굳어진 땅이 보습날과 보습끝에 잘리여 번져나가고 죽은듯 꼬부라진 풀뿌리들이 뒤집힌채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며 갈래갈래 잘라진 잔디돋은 지면이 물결진 검은 흙속에 묻힌다. 보습판옆의 땅은 들먹들먹하다가 헤염치듯이 뒤집혀나간다. 검은 흙의 담담한 냄새는 상쾌하고 달콤하다. 해는 아직 중천에 있는데 결소의 퇴색한듯 한 털은 벌써 땀에 젖어 거

매졌다. … 저녁녘이 되자 다위도브는 구두에 쓸친 발이 지끈지끈 쑤시고 허리동이 아팠다. 발을 걸채며 그는 자기가 간 밭을 재보고나서 뻣뻣해지고 먼지가 묻어 거매진 입술에 웃음을 띄웠다. 하루동안에 한제쌰찌나를 간것이였다.

《그래 얼마나 갈아엎었수?》 다위도브가 발을 끌면서 숙영으로 다가왔을 때 꾸쮄꼬브는 보일가말가한 웃음을 띄우고 간사하게 물었다.

《그래 얼마나 갈았음직하오?》

《반제쌰찌나나 해냈수?》

《아니, 천만에, 한제쌰찌나하구 한고랑이요.》

써레날에 다친 발에 모르모트기름을 바르고있던 꾸쮄꼬브는 끙끙거리면서 다위도브의 경작지대를 재러 갔다. … 반시간이 지나 이미 황혼이 짙어져서 돌아온 그는 화토불에서 멀찌감치 자리잡고 앉았다.

《왜 잠자쿠 있소, 꾸쮄꼬브?》 다위도브가 물었다.

《어쩐지 발이 몹시 아프군. … 말할것 없수다, 간건 간것이니까. … 장하외다!…》 꾸쮄꼬브는 심드렁하게 대답하고 화토불곁에 누워 외투를 뒤집어썼다.

《입을 틀어막히웠군? 이제는 짖어대지 못할테지?》 꼰드라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꾸쮄꼬브는 듣지 못한듯이 그냥 잠자코 있었다.

다위도브는 숙영마가리옆에 누워서 눈을 감았다. 화토불에서 재냄새가 풍겨왔다. 걸어서 쓸친 발바닥이 화끈화끈 달고 종다리가 저렸다. 어떻게 발을 놓아보아도 그냥 거북스러운게 위치를 바꾸고만싶었다. … 그리고 눕자마자 거의 즉시로 물결치는 검은 땅이 눈앞에 떠올랐다. 허연 보습날이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나가면 그옆으로 륜곽을 깨뜨리면서 검은 흙이 타르처럼 들끓는다. …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아니꼬움을 느끼며 다위도브는 눈을 뜨고 꼰드라트를 불렀다.

《잠이 오지 않소?》 꼰드라트는 대꾸했다.

《예, 어쩐지 머리가 어지럽구 보습밑의 흙이 눈에 보이는군요. …》

《그건 언제나 그렇지요.》 꼰드라트의 목소리에 동정의 미소가 느껴졌다. 《온종일 발밑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어지러운거외다. 그리구 흙냄새가 경치게 깨끗해서 그것때문에 취할 정도지요. 다위도브, 래일은 발밑만 보지 말구 좀 사방에 눈을 돌리시우. …》

밤에 다위도브는 벼룩이 깨무는것도 느끼지 못했으며 말 우는 소리도 그리고 언덕등성이에서 밤을 지내는 철늦은 들게사니떼 우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죽은듯이 잠이 들었다. 이미 동틀무렵이 되여서야 눈을 뜬 그는 외투로 몸을 감싸고 숙영마가리로 다가오는 꼰드라트를 보았다.

《당신은 어디 갔댔소?》 다위도브는 채 잠도 깨지 못한채 고개를 들고 물었다.

《우리 소와 또 당신네 소들 망을 보았지요. … 소들이 잔뜩 먹었어요. 골짜기루 몰아넣었는데 거기에는 좋은 풀들이 자랐더군요. …》

꼰드라트의 거쉰 목소리가 졸연간에 멀어지다가 끊어졌다. 다위도브는 마지막말마디를 듣지 못했다. 다시금 잠에 못이겨 그는 이슬에 젖은 외투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정신이 혼미해진것이였다.

이날 저녁까지에 다위도브는 한제쌰찌나와 두고랑을 갈았고 류비슈낀은 꼭 한제쌰찌나, 꾸쩬꼬브는 한제쌰찌나 조금 부족하게 갈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혀 뜻밖이였던것은 이때까지 다위도브가 약소부대라고 놀려서 별명지은 락후자들축에 들어있던 안찌쁘 그라츠가 제1위로 뛰여나온것이였다. 그는 여윈 찌또크네 소들을 가지고 밭을 갈았는데 점심때에도 얼마나 갈았는가를 내색않고있었다. 점심이 끝난 후 소몰이군으로서 그와 함께 일하는 그의 처가 정해진 6폰드의 건먹이를 치마자락에 넣어 소들한테 먹였는데 안찌쁘는 점심후에 남은 빵껍질을 책상보에서 처의 치마자락에 털어넣어 소들한테 먹이게 했다. 류비슈낀이 그것을 보고 히죽거렸다.

《찰찰하게 죄여대는군, 안찌쁘.》

《죄여대지 않구! 우리는 일에서 누구한테 뒤떨어지지 않네!》 봄볕에 끄슬려 더욱 거매진 그라츠는 남의 비위를 돋우듯이 내뱉였다.

그는 얼마나 죄여댔던지 저녁까지에 한제쌰찌나 4분의 1을 갈았던것이다. 그러나 이미 어두워져서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는 소들을 숙영으로 몰아왔다. 《얼마나 해냈나?》 하고 묻는 다위도브의 질문에 《한제쌰찌나반에 한고랑이 모자랍니다. 담배를 말게 좀 주시우. … 낮부터 못 피웠수다. …》 하고는 기진한듯 한 그러나 호기로운 눈으로 다위도브를 흘낏 바라보았다.

저녁이 끝난 후에 다위도브는 이렇게 총화를 지었다.

《제2작업반원동지들, 우리 작업반은 사회주의경쟁에서 으뜸가게 되였습니다. 아주 당당한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작에 대해서 꼴호즈관리부를 대표하여 작업반에 볼쉐비크적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침체했던 상태에서 빠져나옵시다, 사실말이지! 기준량을 수행할수 있다는것이 실제상 증명되였으니만큼 왜 빠져나오지 못하겠습니까? 이제는 써레질에 달라붙어야겠습니다. 그리구 반드시 세번 써레질을 해야 합니다! 마이단니꼬브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가장 당당한 돌격대원이니까요!》

녀편네들은 식기를 다 씻었고 보잡이들은 자리에 누웠고 소들은 방목장으로 몰아갔다. 꼰드라트가 이미 솔곳 잠이 들었을 때 안해가 외투밑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옆구리를 지르고 이렇게 물었다.

《꼰드라샤, 다위도브가 당신을 추겨주며… 칭찬비슷이 했는데… 그 돌격대원이란게 뭐요?》

꼰드라트는 그 말을 여러번 들어왔지만 그것을 설명할수가 없었다. (다위도브한테 알려달래야겠군!) 슬그머니 화가 치미는것을 느끼면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안해에게 깨우쳐주지 못해서 안해가 자기를 얕잡아보게 할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힘자라는데까지 설명해주었다.

《돌격대원 말이지? 에이참, 반편같으니! 돌격대원 말이지? 흠… 그건… 저, 어떻게 알기 쉽게 설명할가? 그렇지, 례를 들어 총에는 총알을 쳐내는 꼬챙이가 있는데 그것두 바루 돌격침이라구 한다네. 총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구 그게 없으면 쏠수가 없지. … 꼴호즈에서두 그와 같거던. 돌격대원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야, 알았어? 이제는 자라구, 내게 다가붙지 말구!》

제 37 장

5월 15일 구역전체를 통하여 화곡파종이 대체로 끝났다. 그레먀치로그의 쓰딸린꼴호즈는 이때까지에 파종계획을 완전히 수행했다. 10일 정오에 제3작업반이 나머지 8헥터의 경지에 강냉이와 해바라기를 마저 파종했으므로 다위도브는 즉시 구역당위원회에 파종이 끝났다는 보고를 련락원을 시켜서 구역으로 보냈다.

이른 밀은 싹이 터서 사람들을 즐겁게 했는데 제2작업반의 담당구역에서만도 5월 초순에 꾸반까밀을 심은 밭이 근 1백헥터나 되였다. 다위도브는 늦게 심은 꾸반까가 싹이 잘 트지 않지 않을가 걱정했고 류비슈낀도 그와 같이 근심했다. 그리고 야꼬브 루끼치같은 사람은 진작 다짐하듯이 이렇게까지 언명했다.

《싹이 트다니, 절대루 안 터요. 당신들은 1년내내 아무때 심어두 싹이 텄으면 합니까? 에짚트에서는 한해에 두번 파종해서 두번 수확하구있는듯이 책들에 씌여있지만 다위도브동지, 그레먀치 로그는 에짚트가 아닌만치 여기서는 파종기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아니, 왜 당신은 기회주의를 쓰구있소?》 다위도브는 화를 냈다. 《우리는 싹을 트게 해야 하오! 될수 있다면 두번 수확까지 거둬야지. 우리의 땅은 우리의것이니까 바라는것을 이 땅에서 짜내야 할거요, 사실말이지!》

《어린애같은 말이외다.》

《어디 두구봅시다. 오쓰뜨롭노브씨, 당신은 그 말에서 우경을 범하구있는데 그것은 당을 위해서 좋지 않구 유해한 경향이요.… 그것은, 그 우경은 충분히 락인이 찍히웠소. 당신은 그걸 잊지 마시오.》

《나는 경향에 대해서가 아니라 땅에 대해서 말하구있지요. 당신네 경향들에 대해서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다위도브도 꾸반까밀의 싹트기에 희망을 걸고있으면서도 역시 미타한 생각을 쫓아버릴수 없어서 날마다 관리부말에 안장을 놓고 타고나가 손질이 잘되여있기는 하나 해별에 타 숯처럼 되고 죽은듯이 시꺼매져서 마음을 조이게 하는 밭들을 돌아보군 하였다.

땅은 이내 말라버렸다. 씨앗은 부풀었으나 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밖으로 싹을 내밀 힘이 없었다. 가냘픈 뾰족한 싹끝이 해별을 머금은 따뜻한 땅의 부드러운 흙덩어리들밑에 맥없이 너부러져있고 빛을 향해서 발돋움하지만 수분을 못 받아 굳어진 땅의 껍질을 꿰뚫지 못했다. 다위도브는 밭에서 말을 내려 무릎을 짚고서 손으로 땅을 파헤쳐 가느다란 싹이 튼 밀알을 손바닥우에 놓고 살펴보았다. 그리고 애타게 태양을 향해서 뻗어나가려고 하면서도 거의 죽음의 운명을 지닌 땅에 묻힌 수백만개의 낟알에 대하여 쓰라린 감정을 느꼈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생각에 그는 울화가 치밀었다. 비가 내려야 했다. 그때에는 꾸반까밀이 비로도처럼 밭에 깔릴것이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고 밭들에는 생활력이 세고 마구 자라는 힘찬 잡초가 무성했다.

어느날 밤 늙은이들의 대표단이 하숙으로 다위도브를 찾아왔다.

《우리는 간절한 청이 있어서 찾아왔소.》 닭의 령감 아낌이 인사하면서 헛되이 눈으로 성상을 찾았다. 그것을 보면서 십자를 긋기 위해서였다.

《어떤 청인데요?… 성상은 없습니다. 령감님, 찾지 마십쇼.》

《없어요? 그럼 없어두 무방하오. … 괜찮아. … 늙은이들이 당신한테 원하는 청은 이렇소. …》

《어떤 청입니까?》

《제2작업반의 밭에서는 싹이 트지 않을 모양이지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령감님.》

《모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될게요.》

《그래서요?》

《비가 내려야겠소.》

《내려야지요.》

《신부들을 불러서 기도를 올리게 해주시겠소?》

《그건 무엇때문에요?》 다위도브는 얼굴이 벌개졌다.

《무엇때문에란건, 뻔하지. 하느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하기 위해서외다.》

《아니, 그건 령감님… 가주시오. 령감님, 그리구 다시는 그런 말씀 마시오.》

《아니, 그런 말 말라니? 그래, 밭이 우리 밭이 아닌가?》

《꼴호즈의 밭이지요.》

《그래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꼴호즈원이외다.》
《그리구 나는 꼴호즈위원장입니다.》
《우리두 그건 아오. 당신은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신더러 기발들구 행렬에 나서달라구는 청하지 않소.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허락하시우, 우리는 교인들이니까.》
《허락 못하겠습니다. 꼴호즈회의가 당신들을 파견했습니까?》
《아니요, 이를테면 우리 늙은이들자신이 결정했수다.》
《그것 보십시오. 당신들은 소수인만큼 꼴호즈회의는 어차피 허락하지 않을것입니다. 령감님, 과학적으루 농사를 해야지 신부들과 함께 해서는 안됩니다.》
다위도브는 늙은이들의 종교적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오래동안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로인들은 말이 없었다. 마지막녘에 마까르 나굴리노브가 나타났다. 그는 늙은이들이 교인들의 대표단으로서 기도드릴 허락을 받기 위하여 다위도브한테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것이였다.
《이를테면 안된단 말이구려?》 닭의 령감 아낌령감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숨을 내쉬였다.
《안되구말구. 그럴 까닭이 없지요. 그런짓을 하지 않아두 비는 옵니다.》
늙은이들은 방문을 나섰다. 그들에 덩달아 나굴리노브도 복도로 나갔다. 그는 다위도브네 방문을 꼭 닫고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낡아빠진 위인들이요! 나는 당신들을 알지만 당신들은 불도깨비들이외다. 당신들은 제사를 지내구 광야루 성상을 가지구 다니면서 곡식들을 짓밟아대구싶겠지. … 만약 제 마음대루들 신부를 불러가지구 밭에 나간다면 내가 소방대를 데리구 뒤따라나가서 당신들이 물초가 될만큼 뽐프루 물을 뿜어대겠수다. 알겠소? 신부두 얼씬하지 않는게 좋아요. 그 말갈기같은 머리카락을 나는 양털깎는 가위루 사람들 보는데서 잘라버릴테요. 창피하게끔 잘라줘서 돌려보내겠단 말이요. 알아듣소?》
그리고나서 다위도브한테로 돌아와 침울하고 불만스런 얼굴로 궤짝우에 앉았다.
《자네는 늙은이들하구 뭘 수군거렸나?》 다위도브는 의아쩍게 물었다.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했네.》마까르는 눈 한번 끔쩍 안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래서 그네들은 기도를 하지 않기루 결정했네.》
《그래 그네들이 뭐라구 하던가?》 다위도브는 웃음을 감추느라고 얼굴을 돌렸다.
《종교는 아편이라는걸 인식했노라구 하데. … 아니, 왜 자네는 나한테 성가시게 구나, 쎄묜? 자네는 여불없이 옴일세그려. 들어붙으면 떼낼 재간이 없어! 무슨 말을 했나, 무슨 얘길 했나?… 얘길 했으니 됐지. 자네는 여기서 그 작자들한테 민주주의를 발휘하구 타이르구 간청하구있지만 그런 노닥다리들한테는 전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네. 그네들은 그냥 해독적인 생각과 마취제에 녹아버렸거던. 그러니까 그 작자들을 상대루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구 제깍 대번에 장훈을 불러야 하네!》
다위도브는 껄껄 웃으면서 희망이 없다는듯이 손을 한번 들었다놓았다. 아니, 암만해두 마까르는 시정되지 못하겠다!
2주일동안 그는 비당원으로 지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지도부가 교체되여 꼬르즈쥔스끼와 호무또브가 해임되였다.
구역당위원회의 새 비서는 관구검열위원회로부터 나굴리노브의 상소를 받자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서 상무위원 한사람을 그레먀치 로그로 파견했고 그후 상무위원회는 나굴리노브의 출당에 관한 상무위원회의 이전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책벌이 과오에 비해서 과중했다는것과 또 나굴리노브에 대해서 일찌기 제기했던 일련의 비난(도덕적부패, 성적방탕)을 재차 조사한 결과 터무니없다는 리유로써 결정이 취소된것이였다. 마까르는 견책으로 결론되였다. 이로써 사건은 끝났다.
림시로 세포비서의 책임을 집행해오던 다위도브는 마까르에게 사무를 인계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교훈이 됐나? 또 좌경을 범하겠나?》
《아주 교훈이 잘됐네. 허긴 누가 좌경을 범했나. 난가 혹은 구역당위원횐가?》
《자네두 구역당위원회두 범했지. 모두 조금씩 범했어.》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관구당위원회두 좌경을 범하구있네.》
《어떤 례를 들어?》
《가령 이런게네. 왜 탈퇴자들한테 가축을 돌려주라는 분부를 안했나? 그게 강제적집단화가 아니겠나! 바로 그것이지 ! 사람들이 꼴호즈에서 나갔는데 집짐승두 도구두 안 주네. 뻔한 일루 그자들은 살아갈 건덕지가 없구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꼴호즈에 기여들어오네, 비명을 지르구 기여들어오지.》
《그렇지만 집짐승과 농기구는 꼴호즈의 고정재산으루 되지 않았는가!》
《그자들이 할수없이 또다시 꼴호즈에 들어온다면 그런게 무슨 필요 있어? 그자들한테 던져줘야 해. …〈자, 처먹어라, 너희네 도구루 목구멍이 막혀 뒈져라!〉하구. 나라면 그자들을 꼴호즈근처에두 얼씬 못하게 하겠는데 자네는 그런 비뚤어진 놈들을 골백명씩 받아들이구 이제 그자들이 자각적인 꼴호즈원으루 되리라구 생각하겠지? 그 도깨비같은 놈들이! 악귀같은 그놈들은 꼴호즈에 들어와서 살드라두 속으로는 널뚜껑을 닫을 때까지 개인농생활에 추파를 보낼걸세. … 나는 그놈들을 알거던! 그자들한테 집짐승과 농사도구를 내주지 않는건 좌경이구 자네가 그자들을 다시 꼴호즈에 받아들인건 우경이네. 여보게, 나두 정치적으루 발전해서 이제는 자네두 내게 야단을 못 쳐!》
《영농기가 끝나길 기다리지 않구서 지금 당장은 탈퇴자들과 아무런 청산두 할수 없다는것두 깨닫지 못하면서 정치적으로 발전한게 다 뭐야!…》
《아니야, 그건 나두 아네.》
《에끼, 마까르, 마까르! 자네는 지나친짓을 하지 않구는 못 배기거던.》
두사람은 오래동안 론쟁끝에 피차 욕지거리까지 하다가 다위도브는 나가버렸다.
그 2주일동안에 그레마치 로그에서는 여러가지 변동이 있었다. 전부락이 깜짝 놀란것은 마리나 뽀야르꼬바가 제미드 몰춘을 남편으로 맞아들인것이였다. 몰춘은 마리나의 집으로 떠싣고 갔다. 밤에 제 손으로 달구지를 끌어 자기의 초라한 전재산을 운반한 다음 자기 집 들창과 방문들은 널판자를 쳐서 아주 막아버렸다.
《마리스까가 좋은 배필을 골라냈어. 그네 둘이서 해내면 뜨락또르

보다두 더 많이 할걸!》 그레먀치에서는 그렇게들 말했다.
여러해동안 사랑하던 애인이 결혼한데 충격을 받은 안드레이 라즈묘뜨노브는 처음 얼마동안은 배짱을 부렸으나 마침내 지탱하지 못하고 다위도브 몰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위도브는 그것을 눈치채고 이렇게 경고했다.
《그런짓 집어치우게, 안드레이. 쓸데없네.》
《집어치우겠네. 다만 나는 쑈마, 분해서 못 견디겠어! 나를 어떤 놈과 바꿨나 말이야? 어떤 놈하구 바꿨어?…》
《그건 그 녀자의 개인적문제네.》
《그렇지만 나는 분해!》
《분해하는건 괜찮지만 술은 마시지 말게. 그럴 때가 아니야. 오래지 않아 김매기가 시작될텐데.》
한편 마리나는 지꿏게 번번이 안드레이의 눈에 띄우군 했는데 보매 만족하고 행복스러운것 같았다.
제미드 몰춘은 마리나의 조촐한 살림을 황소처럼 처리하여 며칠동안에 뜨락에 있는 구데데한것들을 모두 정연하게 했으며 1주야동안에 한싸젠반깊이나 되는 움을 팠으며 일뿌드나 되는 기둥이며 보습들을 져날랐다.… 마리나는 제미드의 옷을 빨고 만들고 했으며 속옷들을 기워주었다. 그리고 제미드의 일솜씨를 이웃들에게 칭찬하여 마지않았다.
《그야 뭐 여러분, 그 사람은 집안살림에 아주 도움이 되지요. 힘이 곰같은걸요. 무슨 일에 손을 대든지 척척 해나가거던요.… 말이 없는건, 그건 할수 없어요.… 피차 말다툼은 적을거예요.…》
안드레이는 마리나가 새 남편에 만족하고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울적하게 혼자서 중얼거렸다.
《아, 마리샤! 그래 나는 임자네 헛간을 고치거나 움을 파내지 못한단 말인가? 임자는 내 피끓는 장년시대를 망쳐버렸어!》
부농으로서 추방당했던 가예브가 추방지에서 그레먀치 로그로 돌아왔다. 변강선거위원회가 그의 공민권을 회복시켰던것이다. 다위도브는 식솔많은 가예브가 부락에 도착하자 즉시로 그를 꼴호즈관리부로 불렀다.
《가예브씨,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요? 개인농사를 짓겠소, 그렇지 않으면 꼴호즈에 가입하겠소?》

《아무렇게나 하지요.》 부농으로서 비법적으로 청산당했던것에 대한 노여움이 가시지 않은 가예브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렇더래두?》
《꼴호즈에 들지 않구는 배겨날것 같지 않군요.》
《신청서를 내시오.》
《내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네 집짐승은 꼴호즈에 있구 농기구두 역시 그렇소. 다만 당신네 가장집물나부랭이는 나눠줬소. 그 문제는 복잡할것 같소. 얼마쯤은 되돌려주구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돈으루 받게 되겠소.》
《우리 집 곡물두 죄다 쓸어갔는데…》
《아, 그건 간단하지요. 경리부장한테 가시오. 그 사람이 창고에 말하면 거기서 우선 10뿌드가량 밀가루를 줄게요.》
《별의별것을 다 꼴호즈에 모아들이기 시작하는군!》 마까르는 다위도브가 가예브를 꼴호즈에 받아들일 의향이라는것을 전해듣고 분격했다. 《그렇다면 다위도브더러 형기를 마친 전체 류형수들을 꼴호즈에 받아들이겠노라고 몰로트에다 광고를 내라구 하게. …》 그는 안드레이 라즈묘뜨노브에게 말했다.
파종이 끝난 후 그레마치 로그의 당세포는 2배로 장성되였다. 찌또크네 집에서 3년동안 머슴살이를 한 빠블로 류비슈낀, 제3작업반의 꼴호즈원 네쓰뜨로 로씰린 그리고 좀까 우샤꼬브가 후보당원으로 입당했다. 류비슈낀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인 세포회의가 있던 그날 나굴리노브는 꼰드라트 마이단니꼬브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입당하게, 꼰드라트, 자네에 대해서는 내가 기꺼이 보증하겠네. 자네는 기병중대에서두 내 수하에서 복무했지만 그때두 영웅적인 기병이였구 지금두 또 첫째루 가는 꼴호즈원이네. 그런데 왜 자네는 당에서 떨어져 먼발치에 서있나 말이야? 형세는 시시각각으로 세계혁명이 가까와오는 그런 판인즉 자네나 나나 다시금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면서 쏘베트정권을 수호하게 될는지두 모르는데 자네는 때가 지나가두 여전히 비당원으로 있을셈인가?! 그건 좋지 않네! 입당하게!》
꼰드라트는 한숨을 내쉬고 흉금을 털어놓았다.
《아니야, 나굴리노브동지. 지금 입당하는건 내 량심이 허락치 않네. … 쏘베트정권을 위해서라면 나는 또다시 싸우기두 하겠구 꼴호즈

에서두 량심껏 일할테네. 그렇지만 입당은 못하겠네. …》

《그건 대체 어째선가?》 마까르는 량미간을 찌프렸다.

《입당하지 못하는건 지금 내가 꼴호즈에 들어있으면서두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배를 앓구있기때문이네. …》 꼰드라트는 입술이 떨렸다. 그는 빠른 속삭임으로 변하면서 말했다. 《자기의 소들에 대해서 속을 태워. 그것들이 나는 불쌍하거던. … 그것들에 대해서는 필요이상으루 돌보지. … 베쓰흘렙노브가 달구지를 골라서 목칼루 말목을 쓸쳐놓는걸 보구 그때문에 나는 하루종일 먹을것두 못 먹었네. … 조그만 말에다 왁살스런 목칼을 씌우는 법이 있담? 이때문에 나는 입당 못하네. 제 물건에 대해서 아직 미련이 있으니만큼 입당하는건 량심이 허락치 않네. 나는 그렇게 알구있네.》

마까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건 자네의 말이 옳아. 좀 기다리게. 입당하지 말게. 꼴호즈사업에 있는 온갖 무질서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투쟁하구 목칼두 모두 말들 목에 맞게 될걸세. 그렇지만 사내가 잠을 잘 때 이전 자기 소를 꿈에 본다면, 그렇다면 자네는 입당하지 말아야 하네. 당에 들려면 사유재산에 대한 고민이 추호두 없어야 하거던. 당에 들려면 어디까지나 순결해야 하며 세계혁명을 달성하려는 일념에 고무되여야 하네. 내 아버지는 유족하게 지냈구 어렸을 때부터 내게 살림살이를 가르쳤지만 나는 거기엔 조금두 마음을 두지 않구 살림살이란 내게 하등 가치없는것이였네. 나는 풍족한 살림과 여덟마리의 소를 버리구 빈궁속으루, 고용자들속으루 들어갔네. … 그러니까 자네두 그 옴같은 사유재산에 대한 생각을 아주 깨끗이 버리기까지는 입당하지 말게.》

류비슈낀, 우샤꼬브 그리고 로쎌린이 입당한다는 소문이 전그레먀치 로그에 쫙 퍼졌다. 어떤 까자크가 익살을 피워 쓔까리령감에게 말했다.

《아니, 당신은 왜 입당청원을 안하우? 당신두 열성자축에 들어있는데 청원을 내시우! 령감한테 한자리 줄테니까 가죽가방을 사서 겨드랑에 끼구다니구려.》

쓔까리는 여러모로 생각하고나서 저녁에 어두워지기가 바쁘게 나굴리노브를 찾아 그의 집으로 갔다.

《잘 있나, 마까르쉬까!》

《안녕하시우, 그래 어떻게 오셨수?》

《사람들이 당에 들어가더군. …》

《그래서요?》

《아직 멍에대두 메기 전에 서둘지 말게.》

《다음은?》

《다음은 나두 들어가구싶은데 안될가 말이네. 나두 여보게, 일평생 말만 가지구 애태우란 법은 없네. 말하구 성례를 한것두 아니니까.》

《그래 당신은 뭘 바라시오?》

《입당하구싶다구 로씨야말루 말했네. 찾아온건 내게 어떤 자리를 주겠는지 그리구 또 여러가지 알구싶기때문이네. 자네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게.》

《아니, 그럼 당신은?… 당신은 사람들이 입당하는건 한자리 하기 위해선줄 아슈?》

《이곳 당원들은 모두 한자리 하구있더군.》

마까르는 자기를 억제하고 화제를 돌렸다.

《부활제때 신부가 댁에 들렸댔나요?》

《물론이지.》

《그자한테 시주를 했어요?》

《그야 두말할것두 없지! 닭알 두알 하구 또 당연한 일루 기름을 한 반푼트 했지.》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하느님을 믿구있었구려?》

《그야 물론이지. 그리 진실하지는 못하지만 앓는다든가 혹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다든가 또한 가령 몹시 벼락이 친다든가 할 때에는 기도를 하구 당연한 일루 하느님한테 의탁하지.》

마까르는 쓔까리령감을 점잖게 대하여 왜 그를 당에 받지 못하겠는가를 조리있게 설명해주고싶었지만 쓔까리를 그런 이야기로 끌어내놓고보니 참아낼수가 없어서 당장 이렇게 불호령했다.

《썩썩 사라지오, 도토리령감태기같으니! 신부놈한테 닭알을 시주하면서두 한자리 하겠다구 공상해? 그러면서두 말을 돌보는 일에 들어선 혼합사료두 섞어낼줄 모르지. 당신같은 위인이 당에 무슨 소용이 있소, 이쑤시개같으니. 당신은 그래 웃음판을 벌려보자는거요? 온갖 퇴물들을 당에 받는줄 생각하우? 당신이 할 일이란 혀바닥이나 놀려서 망발이나 하는거요. 나를 뒤숭숭하게 하지 말구 사라지오. 그렇

지 않아두 나는 신경에 고장이 있는 사람이요. 나는 건강때문에 당신과 조용히는 말하지 못하겠소. 가라는데두, 어서?》

《좋지 못한 때 걸렸구나! 점심후에 와야 했을걸.》 쓔까리령감은 급히 삽짝문을 탕 닫으면서 후회했다.

그레먀치 로그사람들, 그중에서도 특히 그레먀치의 처녀들을 흥분케 한 마지막소식은 듸모크의 죽음이였다.

인민재판에서 선고를 받은 예핌 트루바쵸브와 바딸리씨꼬브의 편지에 의하면 정거장으로 가는 도중에서 듸모크는 자유가 그립고 그레먀치 로그가 그리워서 도주를 시도한것이였다.

한패의 죄인들을 호송하고있던 민경이 듸모크에게 《서라!》호령을 세번이나 질렀다. 그러나 듸모크는 몸을 굽히고 밭으로 해서 숲을 향해 내달았다. 나무덤불까지 열댓싸젠쯤 남았을 때 민경은 무릎을 짚고 총을 치켜올려 세방만에 듸모크를 쓰러뜨렸다.

숙모를 제하고는 누구 한사람 그 부모없는 젊은이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듸모크에게서 단순한 사랑의 기술을 배웠던 처녀들은 설사 좀 슬퍼했다 하더라도 오래동안은 아니였다.

《지난 일은 잊기 쉽고 산 몸은 동하기 쉽다.…》처녀들의 눈물이란 아침해의 이슬과 같고…

제 38 장

1930년에 처음으로 농한기가 없어졌다. 이전에, 구식으로 살던 때 두달동안을 《농한기》라고 일컬은것은 공연한 일이 아니였다. 파종을 끝마친 집들에서는 슬금슬금 풀베기준비를 했었다. 방목장에서는 소와 말들이 마냥 놀면서 힘을 기르고 까자크들은 달구지를 고치고 간이수확기들을 손질했었다.… 5월에 파종할 밭을 갈러 나가는 사람은 드물었다. 부락들은 무거운 침묵속에 잠겨있는것이였다. 한낮때 쥐죽은듯 한 거리를 지나면 사람 하나 만나지 못했다. 까자크들은 려행을 하거나 집 혹은 움에서 쉬고있거나 맥없이 도끼질을 하고 선잠을 깬듯 한 녀편네들은 서늘한 어떤 곳에 자리잡고서 이사냥을 하고있는것이다. 부락들은 공허와 잠자는듯 한 평온에 휩싸여있는것이였다.

그러나 꼴호즈생활이 시작된 첫해에 그레먀치 로그에서는 농한기가 깨져나갔다. 곡물들이 싹을 보이기가 바쁘게 김매기가 시작되였다.

《꼴호즈의 밭에는 잡초 한뿌리두 없게끔 세벌김을 맵시다!》 다위도브는 회의에서 언명했다.

야꼬브 루끼치 오쓰뜨롭노브는 득의양양했다. 바지런하고 활동적인 그에게 있어서는 전부락이 움직여 일하고 분주하게 법석을 피우는 그러한 사업진행이 퍽 마음에 들었다. (쏘베트주권은 높이 날구있는데 어디에 내리는가 어디 보자! 김을 매구 묵은밭을 일구구 집짐승들을 살찌게 하구 농기구를 손질하구… 그렇지만 백성들이 일을 할가? 녀편네들한테 김을 매게 해낼가? 그건 전대미문의 일이 아닌가, 전 돈지방을 통해서 이전에는 김을 매지 않았다. 그렇지만 공연히 김을 안맸지. 수확이 풍성하게 됐을게야. 나이만 먹구 못난이같으니, 나두 김을 맸으면 좋을번 했지. 녀편네들두 한가하게 여름내 일없이 빈둥빈둥 하구있지.) 그는 이전에 자기가 아직 개인농사를 짓고있을 때 김을 매지 않은것을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다위도브와 이야기할 때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곡물이 들여쌓이겠어요. 다위도브동지, 이전에는 씨앗을 뿌려놓구는 어떻게 되는가 하구 기다리구만 있었지요. 그러면 밀과 함께 속생초에 엉겅퀴, 옵쓔크(귀밀비슷한 잡초—역자 주)에 대극초 그리구 기타 온갖 몹쓸 잡초들이 자랐지요. 탈곡을 시작해보면 낟알이 괜찮은것 같지만 탈곡을 다해서 달아보면 한제쌰찌나에서 소출이 40뿌드나 혹은 그보다두 더 적었거던요.》

그레먀치부락민들이 꼴호즈의 곡물창고에서 종곡을 가져갔던 일이 있은 후 다위도브는 오쓰뜨롭노브를 경리부장의 직책에서 해임해버리려고 생각했었다. 다위도브는 깊은 의혹을 품었던것이다. … 그가 곡물창고옆에 모여있던 군중속에서 오쓰뜨롭노브를 보았을 때 이 로인의 얼굴에 당황한 빛뿐만아니라 또 고소해하듯이 미소를 품고 형세를 기다리는 빛이 그림자처럼 지나간것을 기억하고있었다. … 적어도 그때 다위도브에게는 그렇게 보였던것이다.

그다음날 그는 야꼬브 루끼치를 자기 방에 부르고 다른 사람들을 내보냈다. 그들은 목소리를 죽이고 말을 주고받았다.

《당신은 어제 창고옆에서 무엇을 하구있었소?》

《사람들을 타이르구있었지요. 다위도브동지, 그자들이 정신을

차리구 제마음대루 꼴호즈의 곡물을 가져가지 말라구 그 원쑤들에게 타이르구있었어요.》 야꼬브 루끼치는 술술 대답했다.

《그럼, 녀편네들한테… 어째서 녀편네들한테 창고열쇠가 나한테 있을거라구 말했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느님 맙시사! 그런 말을 내가 누구한테 해요? 절대루 아무한테두 말한 일 없어요. …》

《녀편네들자신이 그렇게 말했소, 나를 끌구 가면서…》

《헛소리외다! 맹세라두 하겠어요. 중상이지요. … 내가 미워서 한 말이외다.》

그래서 다위도브는 먹었던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즉시로 야꼬브 루끼치가 제초준비며 사회급양자금의 수집에 있어서 하두 맹렬하게 활동할뿐아니라 사업상의 계획을 련이어 관리부에 제출하는 바람에 다위도브는 다시금 자기의 정력적인 경리부장에게 탄복하고말았다.

야꼬브 루끼치는 작업반들의 담당경지에 몇개의 련못을 새로 파도록 관리부에 제의했다. 그는 봄물을 막는데 제일 편리한 장소들을 골짜기별로 표시까지 했다. 그의 안에 의하건대 새 련못들을 파는것은 각 작업반의 집짐승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반키로메터이상을 다니지 않게끔 해야 했다. 다위도브뿐아니라 관리부의 전체 위원들도 오쓰뜨롭노브의 계획이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낡은 련못들이 꼴호즈경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이 만들어진것이기때문이였다. 그 련못들은 광야에 무질서하게 널려있으므로 봄에 작업반숙영에서 가축들이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2키로반 내지 3키로메터 몰아가야 했었다. 시간의 허비는 막대한것이였다. 피곤한 소들이 물먹는데까지 갔다가 숙영으로 돌아오자면 거의 두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이면 한헥터이상 밭을 갈거나 써레질을 할수 있었다. 관리부는 새 련못들의 굴설을 찬성했고 야꼬브 루끼치는 농작업의 중간을 리용하여 다위도브의 허락밑에 동뚝을 쌓을 목재준비에 착수했다.

그뿐만아니라 야꼬브 루끼치는 조그마한 벽돌공장을 하나 건설하자고 제의했으며 그런 공장이 수지가 맞겠는가고 의심하는 아르까쉬까 메노크에 대해서는 큰 마구간과 외양간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체로 벽돌을 생산하는것이 23키로메터나 떨어져있는 구역으로부터 그것도 백

장에 4루블리 50꼬뻬이까씩 지불하면서 운반해오는것보다 비교도 안될만큼 유리하다는것을 수월하게 증명했다. 신기할만큼 크고 또 단 수박들과 기장이 훌륭하게 자라는 부락근방의 기름진 땅을 해마다 범람하여 씻어내는 두르노이 로그에 뚝을 쌓도록 제3작업반 꼴호즈원들을 설복한것도 다름아닌 야꼬브 루끼치였다. 그의 지도밑에 말뚝으로 골짜기를 둘러막고 나무가지와 마소똥을 다져넣고 돌멩이를 채웠으며 물곬으로는 나무뿌리가 서로 얽힌 푸석진 땅을 굳어지게 하기 위해서 백양나무와 버드나무애목들을 심었다. 적지 않은 면적의 땅이 물에 씻겨내려가지 않게 되였다.

이러한 모든 사정이 합쳐져가지고 꼴호즈에서의 야꼬브 루끼치의 위태롭던 지위도 확고하게 되였다. 다위도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경리부장을 내놓지 않으리라, 실로 무진장한 그의 창발성을 백방으로 지지하리라고 굳게 결심했다. 나굴리노브까지도 야꼬브 루끼치를 저으기 너그럽게 대하게 되였다.

《정신에 있어서는 비록 딴놈이지만 맵짠 살림군이야. 우리 사람들중에서 저만큼 일에 밝은 사람을 길러낼 때까지는 오쓰뜨롭노브한테 경리부장을 시키세. 우리 당은 아주 현명하지. 당에는 숱한 지혜가 있구 그렇기때문에 당은 그처럼 날카롭네. 가끔 벌레같은 기사며 배속까지 썩은 반혁명분자두 있지. 정신을 따지자면 그런 놈은 벌써 오래전에 담벽에 세워놓구 총살해버렸을것이지만 그렇게 안할뿐더러 놈들한테 일을 주구서 〈너는 학문있는 놈이다! 자, 네게 돈을 줄테다. 처먹구 네 계집년 좋아하게 명주양말이라두 사다줘라. 그대신 골통을 짜내서 세계혁명을 위해 기사일을 해라!〉 이러거던. 그러면 그놈은 그렇게 하지. 비록 옛세상에 추파를 보내면서두 하지. 그놈을 총살해버린다면 뭣이 되겠나? 낡은 바지와 아마 금줄에 장식이 달린 시계쯤 남을테지. 그렇지만 그놈이 일을 하면 숱한 리익을 가져오거던. 우리의 오쓰뜨롭노브두 그래, 골짜기에 돌멩이를 채우구 련못을 파라지. 그건 모두 쏘베트정권에 리로우며 세계혁명을 빨리 오게 하는거네!》 어느날 세포회의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다.

야꼬브 루끼치의 생활은 다시금 어느정도 균형을 얻었다. 뽈롭쩨브의 배후에서 폭동준비를 지휘하던 모든 력량이 이번에 패배당했다는것을 그는 깨닫고있었다. 기회를 놓쳐버렸을뿐더러 가장 적대적으로 쏘베트정권을 대하던 까자크들의 기분상태에까지도 저으기 변화가

생겼으니만큼 인제 다시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그는 확신하고있었다. (뾜롭쩨브와 랴찌옙스끼는 국경너머루 내뺐나부다.) 하고 야꼬브 루끼치는 생각했다. 그러자 쏘베트정권을 걷어치우지 못한데 대한 애끓는 섭섭한 느낌에 안도의 기쁨과 만족감이 엇섞였다. 이제부터는 야꼬브 루끼치의 태평한 생활을 위협하는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제는 그레먀치 로그에 온 구역의 민경을 보아도 그는 벅찬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전에는 민경의 검은 외투만 보아도 형언키 어려울만큼 겁을 먹고 덜덜 떨었던것이다.

《어떠냐, 사교도들의 정권이 머지않아 끝장이 나겠니? 우리 사람들이 오래지 않아 쳐들어오냐?》 오쓰뜨롭노브와 단둘이 되였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물었다.

그러자 때아닌 그런 질문에 노발대발한 야꼬브 루끼치는 성가신듯 매섭게 대답했다.

《어머니야 이러나저러나 매일반이 아닙니까? 어머니.》

《매일반이 아니니까 말이지. 교회당을 닫아버렸구…》

《어머니는 나이두 자셨으니 하느님께 기도나 올리구계시우. … 세상일에 아랑곳할것 없어요. 무던히두 깐깐하슈, 어머니!》

《그 장교들은 어디루 사라졌니? 담배만 피우던 저 망나니외눈통이는 어디루 사라졌어? 그리구 너두 어지간하다!… 나더러 축복해달라더니 그래 또 그 정권에서 일하구있지!》 자기 아들 야쉬까가 왜 정권을 바꾸어놓는데 찬성하지 않는지 전혀 영문을 깨달을수 없는 로파는 잠자코 있지 않았다.

《아 어머니, 어머니는 내 피를 얼어들게 하신대두! 그런 부질없는 말씀은 그만하슈! 그래, 무엇때문에 그런걸 생각해내요? 그러다가는 사람들 있는데서두 지껄여대리다. 내 모가지를 귀양보내고싶어요, 어머니? 〈하느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다 좋게 된다〉구 어머니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안히 살구계시우. 코구멍이 둘 있으니 그리루 숨두 쉬구 잠자쿠 있어요. … 끼니를 건느게는 안할테니까! 대체 어머니는 뭬 안타까우냐 말이요?…》

이런 이야기를 한 후에 야꼬브 루끼치는 마치 끓는 물이라도 뒤집어쓴듯이 방에서 뛰여나가 그후 오래동안 진정할수가 없었다. 그리고 쎄묜과 녀편네들한테는 더 엄격히 이렇게 일렀다.

《할머니를 잘 감시들 해라! 그러다가는 할머니가 나를 좋지 않은

곳으루 보내겠다! 남이 우리 집 문턱에 들어서면 곧 할머니를 방안에 가둬버려라.》

그리하여 로파는 낮이나 밤이나 갇혀있게 되였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그를 가두지 않고 내놓았다. 로파는 자기와 같이 늙어빠진 동배들한테 찾아가서 울면서 하소연했다.

《아유, 여보 형님네들! 우리 집 야꼬브내외년놈이 나를 가두구 쇠를 잠급네다그려. … 재계의 건빵만 멕이는데 그걸 눈물과 함께 먹구있수다. 요먼저 우리 집에 야쉬까의 대장과 그의 동무, 그렇게 두 장교가 거접하구있을 때는 재계기에 집의것들이 재계 남새국을 끓여주구 정과두 가끔 주더니만… 이제는 그냥 고함질이외다, 그냥 고함질이야… 며느리년두 그렇구 아들놈두 그렇구… 으 흐—흐—흐—흐! …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여러분네, 제 배에서 나온 아들놈까지 성을 내구 야단이외다그려. 그렇지만 무엇때문에 그러는지 나두 모르겠어요. 한때는 나한테 와서 이 정권을 멸망시키는걸 축복해달라구 하더니 이제는 한마디만 반대해두 내게 욕지거릴 마구 해댑네다그려. …》

…그러나 어머니와의 옥신각신밖에는 흐린 점이 없던 야꼬브 루끼치의 평온한 생활은 불시에 급작스레 끝장이 나게 되였다. …

제 39 장

리혼한 나굴리노브의 전처인 명랑하고 방탕한 녀자 루쉬까는 이미 파종때부터 밭에 나가 일하게 되였다. 그는 제3작업반에 배치를 받자 기꺼이 작업반의 숙영마가리로 옮겨갔다. 낮에는 아파나씨 크라쓰노꾸또브와 짝을 지어 소몰이군으로 일했는데 밤이 되면 루쉬까가 거처하는 숙영선전마가리곁에서는 바로 새벽녘까지 발라라이까가 울리고 굵은 목소리들이 탄식을 하고 낮은 음계로 손풍금이 묘한 소리를 내고 처녀총각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사뭇 흥겨운 이 놀음판의 총지휘를 한것은 루쉬까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항상 밝고 단순했다. 만사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루쉬까의 얼굴에는 근심, 걱정의 주름살 하나 없었다. 그

는 경쾌하게, 자신있게 세상을 살아갔다. 금시 이제라도 기쁜 일을 만나리라 기다리고있는듯이 고운 눈섭을 치켜올리고 살아갔다. 그는 헤여진 이튿날부터 벌써 마까르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찌모페이 르와늬는 어딘가 먼곳에 있었다. 그러나 잃어버린 애인들을 께질께질 생각하는 일이 루쉬까에게 있었던가?

아가폰 둡쪼브는 루쉬까를 꾸짖으려다가 된코를 다쳤다.

《일은 나두 척척 해내구있어요. 내가 춤을 추건 정분이 나건 그건 아무두 말라구 못해요. 여보 아가폰아저씨, 너무 지꾳게 굴지 말구 외투나 뒤집어쓰구 주무시우. 혹시 샘이 나구 놀음에 참가하구싶거들랑 나오구려. 우리는 곰보두 받아주어요. 곰보가 색에는 아주 감칠이라지!》 루쉬까는 깔깔거리면서 놀려댔다.

그래서 아가폰은 처음으로 그레먀치에 돌아오자 곧 다위도브에게 협조를 구했다.

《당신은 기묘한 일을 합네다그려, 다위도브동지!》 그는 볼멘 소리를 했다. 《류비슈낀한테는 쓔까리령감을 작업반에 잡아넣었구 내게는 루쉬까 나굴리노바를 떠맡기니… 당신은 무엇때문에 그런 위인들을 우리에게 들씌워요? 언제한번 밤에 와서 숙영의 꼴을 좀 보시우. 루쉬까는 작업반의 젊은이들의 누구한테나 해죽거려서 모두 눈이 뒤집히게 했지요. 그리구 밤마다 춤을 춰대는데 줄창 땅이 와랑거리구 남의 일이지만 그네들의 발뒤꿈치가 불쌍할 지경이외다. 그처럼 그네들은 목숨을 내걸구 땅을 차대거던요! 숙영마가리옆은 아주 썩 좋은 탈곡장이 되였지요. 북두칠성이 꺼져가두 우리 숙영에서는 장마당처럼 와자지껄하지요. … 새벽까지 그렇게 미쳐날뛰다가 낮에 무슨 일들을 하겠어요? 걸어가면서 자구들 있지요. 여보 다위도브동지, 작업반에서 루쉬까를 데려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녀편네한테 남편있는 녀편네들처럼 처신하라구 일러주시우.》

《그래, 당신은 나를 뭣으루 보우?》 다위도브는 격노했다. 《나를 뭘로 아오? 그 녀편네의 교관이요?… 썩 물러가주오!… 별 너절한 일을 다 가지구 찾아오는군. … 그래, 나더러 그 녀편네한테 품행을 가르치란 말이요?… 일을 잘못한다면 작업반에서 쫓아내구려. 사실말이지! 조금만 뭣이 있어두 관리부를 찾아들 오니 대체 그건 무슨 행동이람. 〈다위도브동지, 보습이 오그라졌수다!〉, 〈다위도브동지, 말

이 탈이 났수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가져오니 계집이 난봉을 피운다면 그래, 당신생각엔 내가 그 녀편네를 가르쳐야 하오? 제길헐! 보습을 고치려면 야장한테루 가시오! 말에 관한거면 수의한테루 갈게구! 언제나 당신들은 자기의 창발성을 발휘하겠소? 언제까지 나는 당신들 손을 잡구 끌어줘야 하오! 가시오…》

아가폰은 다위도브의 푸대접에 심히 불만을 품고 가버렸다. 한편 다위도브는 그가 나간 후에 련이어 담배를 두대나 피우고 탕 방문을 닫고 문고리를 걸었다.

다위도브는 둡쪼브의 말을 듣고 울화가 동했다. 그가 성이 나서 고함을 지른것은 작업반장들이 자기의 직책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사소한 사업적문제들까지도 해결해달라고 사뭇 그를 괴롭게 하는 그때문이 아니라 둡쪼브의 말에 의하건대 루쉬까가 누구한테나 해죽거렸기 때문이였다.

루쉬까와 꼴호즈옆에서 만났을 때 루쉬까는 반쯤 내리뜬 살눈섭밑에 웃음을 감추고 부실한 놈팽이라도 좋으니 새서방감을 하나 골라달라고 부탁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를 안해로 삼지 않겠는가고 제의했었는데 루쉬까와 그런 실없는 말을 주고받은 이후로 다위도브는 자기도 모르게 루쉬까에 대해서 달라졌던것이다. 최근에 와서 점점 더 자주 그는 그 참말 부질없고 맹랑하기짝없는 녀편네를 생각하고있는 자기를 발견하는것이였다. 이전에는 그 녀자에 대해서 저으기 성미에 거슬리는듯 민망할 정도로 무관심하게 대했으나 이제는 전연 다른것을 느꼈다. … 그러므로 둡쪼브가 허튼 불평을 가지고왔다는 그것은 다위도브에게 있어 욕설을 토하게 한 외면적인 구실에 불과했다.

밤마다 더욱 번번이 그는 까닭없이 잠이 깨여 애꿎은 담배를 피우고 찌꼴새들의 아름다운 휘파람소리와 흐느끼는듯 한 지저귐을 들으면서 애타는듯 얼굴을 찌프렸다. 그러다가 이윽고는 들창을 탕 닫고 껄껄한 라사담요를 뒤집어쓰고는 입묵한 넓은 가슴을 베개에 대고 훤히 동이 틀 때까지 뜬눈으로 누워있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찾아왔는지 급작스레 무르익은 1930년 봄에는 과수원과 정원의 숲들에 숱한 찌꼬리들이 깃들어 그 재잘거리는 지저귐으로 호젓한 밤의 공허를 채울뿐만아니라 빛이 밝아져도 도무지 조

용해지려 하지 않았다. 꾀꼬리들의 사랑의 환락을 위해서는 짧은 봄밤만으로는 부족했던것이다. 《겨끔내기루 울어대는구나, 렴치없는것들이!…》 새벽이 되여 다위도브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루쉬까 나굴리노바는 파종이 끝날 때까지 작업반에 있었으나 작업반이 밭갈이를 끝마치고 밭에서 돌아오자 그날로 저녁에 다위도브를 찾아왔다.

다위도브는 저녁을 마치고 자기 방에 누워서 《쁘라우다》를 읽고 있었다. 복도에서 누가 쥐처럼 방문을 바스락거리더니 이윽고 가는 녀자목소리가 들렸다.

《들어가두 돼요?》

《들어오시오.》

다위도브는 벌떡 침상에서 일어나 저고리를 걸쳤다.

루쉬까는 들어와서 뒤로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조그마한 검은 숱은 바람에 끄슬려 거무스레한 얼굴을 저으기 걸늙어보이게 했다. 해별에 타서 진해진 두볼우의 잔 주근깨들이 더욱 또렷하게 두드러져보였다. 그러나 검은 채양모양으로 앞으로 숙어진 숱밑의 두눈은 웃음을 띄우고 더한층 산뜻하게 반짝거렸다.

《좀 뵈러 왔어요. …》

《안으로 들어와 앉으시오.》

그가 찾아온것에 놀라고 또 기뻐하는 다위도브는 걸상을 밀어내놓고 저고리단추를 채우고나서 침상에 앉았다.

그는 기다리듯이 잠자코 있었다. 불안과 거북스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루쉬까는 활발하게 책상앞으로 다가가서 자못 날쌘 동작으로 치마를 치켜들고(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앉았다.

《어떻게 지내셔요, 꼴호즈위원장님?》

《이럭저럭 살구있지요.》

《갑갑하지 않아요?》

《갑갑할 시간두 없거니와 그럴 까닭두 없소.》

《그럼 내 생각두 안했어요?》

좀체로 당황하지 않는 다위도브도 얼굴이 발개지고 량미간을 찌프렸다. 루쉬까는 걸치레로 공손히 살눈섭을 내리깔았다. 그러나 두입모서리에는 억누를수 없는 미소가 간들거리고있었다.

《젠장,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는 저으기 자신없는 어조로 대답했다.

《그래, 정말 생각 안했수?》

《아니라는데두, 사실말이지! 그래 내게 일이 있소?》

《있지요… 가제 온 신문들에 뭐라구 씌여있어요? 세계혁명에 대해서 무슨 소식이 없어요?》 루쉬까는 팔굽을 짚고 대화에 알맞는 진지한 표정을 얼굴에 띄웠다. 그의 입가에는 조금전까지의 요사스러운 미소가 씻은듯이 사라졌다.

《여러것이 씌여있소. … 당신은 무슨 일이요?》 다위도브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필시 주인마누라가 엿듣고있을것이다. 다위도브는 불우에라도 앉아있는것 같았다. 그는 립장이 참말 난처하고 딱했다! 주인마누라는 마까르의 녀편네가 밤마다 자기 집 하숙인을 찾아다닌다고 래일로 그레먀치전체에 소문을 퍼뜨릴게고 그러면 얼룩이 하나 안 갔던 다위도브의 소문새가 고약하게 될것이다. 남의 말질에 이골이 난 녀편네들은 골목들과 우물가에서 신명이 나서 떠벌일게니 꼴호즈원들은 그를 만나면 다 안다는듯이 히죽거릴게다. 라즈묘뜨노브는 루쉬까의 그물에 걸려든 동지에 대해서 독설을 하기 시작할게다. 그리고 구역에까지 소문이 가면 구역농업동맹에서는 모르긴 해도 문제를 삼아가지고 《계집들이 찾아다녀서 그래서 그자가 파종을 10일에야 끝냈구나. 그자는 파종보다두 계집질에 분망했나보군. …》 이럴게다. 관구당위원회 비서가 2만 5천명 부대원들을 각 구역에로 파견하기 전에 이렇게 말한것도 리유없는 일이 아니다. 《혁명의 전위대인 로동계급의 위신을 농촌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동지들, 극히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커다란 일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사소한 사생활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한꼬뻬이까어치 실수가 있어두 정치적으로는 백루블리어치로 말밥에 오릅니다. …》

루쉬까의 방문과 그와의 무랍없는 대화가 가져올 결과들을 일순간에 두루 생각해본 다위도브는 땀까지 배여나왔다. 명예훼손의 위협에 직면하고있음이 명백했다. 그러나 루쉬까는 다위도브의 애끓는 심경을 전연 모르고 앉아있었다. 다위도브는 흥분으로 해서 저으기 갈

린 목소리로 이번에는 엄하게 되물었다.

《일이란건 뭐요? 말하구 가시오. 나는 당신과 실랭이를 치구있을 겨를이 없소. 사실말이지!》

《그래, 당신은 접때 나한테 말한것 잊지 않았겠지요? 나는 마까르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다 알아요, 그이가 반대하리란건…》

다위도브는 뛰여일어나서 손을 내저었다.

《나는 시간이 없소! 후에! 요다음에!》

이 순간 그는 루쉬까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라면 웃고있는 그의 입을 손바닥으로라도 막을 참이였다.

루쉬까도 그것을 깨닫고 업신여기듯이 눈섭을 실룩했다.

《내 참, 이런이라군! 아니, 그래두… 그럼 좋아요. 내게 재미있는 신문이나 주어요. 그밖에는 당신한테 일이 없어요. 미안해요, 방해해서…》

녀자는 가버렸다. 그리고 다위도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였다. 그러나 잠시후에는 이미 책상앞에 앉아서 머리카락을 꽉 틀어잡고 이렇게 생각했다. (왜 이렇게두 나는 멍텅구리고 미련할가? 생각 좀 해보라, 여기 대해서 뭐라구들 하든 대수냐. 그래, 내게는 녀자들이 찾아오면 안된단 말인가? 그래 나는 수도승이란 말인가? 남이 무슨 상관이야? 그 녀자가 내 마음에 드니까 따라서 그 녀자하구 함께 시간을 보낼수도 있지. … 일에만 지장이 없다면 그밖의것은 아무것두 아니야! 이제는 그 녀편네가 찾아오지 않을게다, 사실말이지. 내가 너무 거칠게 군데다가 좀 황급해하는건 그 녀편네두 알아채렸어. … 젠장, 참 싱겁게두 됐군!)

그러나 그의 위구는 공연한것이였다. 루쉬까는 자기가 세웠던 계획에서 수월히 물러나는 그런따위의 위인이 아니였고 다위도브를 정복하는것은 그의 계획에 들어있었다. 또 실상 그로서도 그레먀치의 어떤 젊은이와 일생을 결탁할 생각은 없었다. 그것은 무엇때문에? 늙을때까지 뻬치까옆에서 오그라들고 소나 몰고 밭이나 만지면서 벌에서 썩으려고? 그러나 다위도브는 순박하며 어깨가 넙적한 정다운 젊은이여서 일과 세계혁명을 기다리느라고 꽛꽛 굳어진 마까르와는 아주 딴판이다. 찌모페이와도 다르다. … 그에게도 하나의 조그만 허물이 있으니 그것은 이발이, 그것도 제일 눈에 띄는 앞이발이 빠진것이다.

그러나 루쉬까는 자기가 정을 둔 사나이의 그 외견상의 결점과 타협했다. 그는 자기의 길지는 않으나 풍부한 생활의 경험으로써 이발이 남자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하지는 않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다음날 해질무렵에 또다시 루쉬까가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성장을 차렸고 더욱 도발적이였다. 찾아온 구실은 신문이였다.

《당신의 신문을 가져왔어요. … 또 얻어갈수 있어요? 그리구 책은 없는가요? 재미있는 련애소설 같은걸 하나 주세요.》

《신문은 가져가시오. 그렇지만 책은 없소. 여기는 도서실이 아니니까.》

루쉬까는 권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앉았다. 그리고 제3작업반에서의 파종사업이며 그레먀치 로그에 조직된 우락 페르마에서 자기가 본 무질서한 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꾸밈없이 솔직하게 다위도브의 기분을 맞췄으며 다위도브가 관심을 두고 살고있으리라 생각되는 그 권내에 발을 들여밀었다.

처음에는 다위도브도 그의 말에 의심스럽게 귀를 기울이고있었으나 차츰 이야기에 마음이 끌려서 우락 페르마의 조직에 대해서 품고있는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했으며 이와 아울러 외국에서 나타난 우락제품의 새로운 기술적성과들을 알려주고 마지막녘에 가서는 사뭇 애타는듯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숱한 돈이 필요하지요. 착유량 높은 암소들이 낳는 송아지를 몇마리 사야겠고 종자소두 한마리 데려와야겠소. … 그리구 이 모든 일은 될수록 빨리 실시할 필요가 있소. 옳게 조직된 우락업은 막대한 수입을 가져오니까! 사실말이지. 이 사업에서 꼴호즈는 예산을 정정하겠소. 그래, 지금은 거기에 뭣이 있소? 서푼의 가치두 없는 낡아빠진 분리기가 하나 있지만 그것으로는 봄에 짜는 우유를 분리해낼 엄두두 못 낼거요. 양철통은 하나두 없구 옛날 그 식으루 우유를 동이에다 넣구있으니 대체 이게 뭐요? 당신은 거기 우유가 시여진다구 하지만 왜 시여지겠소? 모르긴 몰라두 필시 더러운 용기에 부었을게요.》

《동이들을 불에 잘 쪼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셔지지요.》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잘 간수하지 못한다는거요. 당신이 이 일을 맡아서 잘 정리해주구려. 해야 할 일을 하시오. 그러면 관리부가

언제나 방조하겠소. 그렇지만 지금 같아서야 어떻게 되겠소? 용기를 돌아보지 않구 또 착유부들이 그렇게 젖을 짠다면 우유는 언제든지 망쳐먹지요. 바로 얼마전에 내가 보기엔 착유부가 소밑에 앉아있는데 소젖통을 씻지 않을뿐더러 착유부자신의 손두 사실상 씻지 않았었소. 이제까지는 그 일에 착수할 시간이 내게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착수하겠소! 당신두 분칠을 하구 단장만 할 대신에 목장이나 좀 운영해보구려, 어떻소? 당신을 목장의 책임자루 임명할테니 강습소에 가서 과학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시오. 그러면 기능가진 녀자루 될게요.》

《아니요, 나는 제쳐놓구 운영하세요.》 루쉬까는 한숨을 내쉬였다. 《거기서는 내가 아니라두 잘 정리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책임자는 되구싶지 않아요. 강습에두 가구싶지 않구요. 귀찮은 일이 몹시 많지요. 나는 쉽게 일하구 한가하게 사는게 좋아요. 그래 어때요?… 일은, 그건 못난이들이나 좋아해요.》

《또 그런 실없는 소리!》 다위도브는 화가 나는듯이 말했다. 그러나 설복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이윽고 루쉬까는 돌아갈 차비를 했다. 다위도브는 그를 바래다주려고 나갔다. 나란히 서서 어두운 골목을 걸어갔다. 오래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이윽고 다위도브의 마음에 걸리는 모든것을 유난스레 재빨리 알아차린 루쉬까는 이렇게 물었다.

《오늘 꾸반밀을 보러 갔었어요?》

《갔었소.》

《그래, 어때요?》

《좋지 못하오! 만약 이 주일내루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을가 걱정이요. 젠장 그것이 모두 어떻게 될지 알겠소? 기도를 올리게 해달라구 나를 찾아왔던 로인들은 고소해할게요, 사실말이지! 〈오냐, 기도 올리는걸 허락하지 않더니 하느님이 비를 안 주셔!〉, 이럴테지. 청우계가 한자리에서 움직일줄 모르는 이상 하느님이 하등 상관있소? 그렇지만 그네들은 그 어리석은 신앙에 굳어졌거던. 정말 야단이야, 사실말이지! 우리두 얼마간 좀 실수를 했소.… 오이며 일부 밭작물을 제쳐놓구 진작 밀을 심어야 했을걸. 거기서 실수가 생겼소! 그리구 바로 〈멜리오노뿌쓰〉 밀두 그랬지. 저 등신같은 류비

슈낀한테 우리의 조건하에서는 그 종류가 모든 농학적자료들에 비춰보아 제일 알맞는다는걸 사실상 증명했었소. …》 다위도브는 또다시 활기를 띠였다. 그리고 자기의 장끼에 들어선 그는 오래동안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할 모양이였다. 그러나 루쉬까는 드러내놓고 초조한듯이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이젠 곡물얘기는 그만해요! 밑을 붙이구 좀 앉읍시다.》하고 달빛에 푸른 도랑언저리를 가리켰다.

두사람은 그리로 다가갔다. 루쉬까는 치마를 쳐들고 알뜰스레 제의했다.

《당신 저고리를 좀 깔아요, 치마를 더럽힐가봐 그래요. 이건 내 명절옷이랍니다. …》

그리고 깔아놓은 저고리우에 나란히 앉아 자기의 새침해지고 신기스럽게 고와진 얼굴을 다위도브의 히죽이 미소를 띄운 얼굴로 가까이 가져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곡물얘기며 꼴호즈얘길랑 그만하시우! 지금 그런 얘길 할건 없어요. … 뽀뿌라 새잎냄새 풍기는걸 맡으세요?…》

이로써 루쉬까에게 마음이 끌리면서도 그와 관계를 맺어 자기의 위신을 떨구지 않을가 겁내던 다위도브의 주저는 끝판이 났다

…찌끄리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목청껏 울어댔다. 다위도브는 일어섰다. 그의 발밑에서 마른 흙이 스르르 도랑으로 흘러떨어졌다. 찌끄리들의 재잘거리는 지저귐을 들으면서 다위도브는 화를 내며 이렇게 생각했다. 《저 무슨 망할놈의 몹쓸 새들이람! 우리같은 건실한 사람까지 이런 도랑으루 오게 만들거던, 사실말이지!》

루쉬까는 두팔을 펼치고 기진한듯 눈을 감고서 번듯이 그냥 누워있었다. 잠시동안 서로 덤덤히 있었다. 이윽고 루쉬까는 별안간 원기있게 팔딱 몸을 일으켜 구부린 무릎을 두팔로 안고 소리도 없는 웃음이 북받쳐올라 몸을 들까불었다. 누가 간지럼이라도 피우듯이 웃어댔다.

《당신은… 뭣이 우습소?》다위도브는 영문을 모르겠다는듯이 모욕이라도 당한것처럼 물었다. 그러나 루쉬까는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별안간 웃음을 그치더니 발을 내뻗치고 손바닥으로 옆구리와 배를 쓸면서 약간 갈린, 행복한듯 한 목소리로 감회깊이 말했다.

《참말 이제 난 몸이 가벼워졌어요!…》

《날개를 꽂으면 날아나겠소?》 다위도브는 퉁을 쏘았다.

《아니, 당신은 공연히… 공연히 퉁명스럽게 구는군요, 괴벽스럽기두. 그래, 내가 울기라두 해야 하겠어요? 앉아요, 왜 벌떡 일어났어요?》

다위도브는 시뜻이 그 말에 복종했다. (이제는 이 녀편네를 어떻게 하면 좋을가? 이 일은 사실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마까르에 대해서나 또 통털어 거북스러워… 아무 근심걱정없던걸 흉한 코에 걸렸구나!) 그는 달빛을 받아 파르스름한 루쉬까의 얼굴을 곁눈으로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한편 이쪽은 땅에 손도 안 짚고 가뿐히 일어나 히죽이 웃음을 띄우고 눈을 가느스름하게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내가 좋지요? 예?》

《글쎄 뭐라구 할가…》 다위도브는 루쉬까의 훌쭉한 어깨를 껴안으면서 어름어름 대답했다.

제 40 장

그레마치 로그에 억수로 퍼붓던 비가 그친 다음날 야꼬브 루끼치는 말을 타고 크라쓰나야떡갈나무숲으로 나갔다. 그는 채벌한 떡갈나무들에 손수 표식할 필요가 있었던것이다. 동뚝에 쓸 목재준비에 착수하기 위해서 래일 제3작업반의 거의 전원이 떡갈나무숲으로 출동하게 되여있었다.

야꼬브 루끼치는 아침부터 떠났다. 그의 말은 깐깐히 끝을 묶은 꼬리를 저으면서 느릿느릿 걸어갔다. 앞발이 미끄러운 진흙에서 빗나가군 했다. 그러나 야꼬브 루끼치는 채찍 한번 들지 않았다. 서둘 필요가 없었던것이다. 그는 안장틀우에 고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그레마치 로그둘레에 펼쳐져있는 광야를 둘러보았다. 거기서는 낭떠러지 하나, 골짜기며 모르모트굴 하나하나까지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있어 마음에 정다웠다. 그는 습기에 부풀어오른 부드러운 밭들과 소낙비에 씻기운 고개숙인 곡식을 즐겁게 바라보고 분통이 터져 애타는 심정으로 생각했다. (저 앞이빠진

도깨비가 비를 예언했었구나! 꾸반까밀이 싹틀게다! 젠장, 모든 것들과 같이 하느님두 이 망할놈의 정권편이로구나! 흉년, 흉작두 있더니만 21년이래로는 참말루 고간이 메여질 지경으루 풍작이다! 천지만물이 쏘베트정권편이니 이래서야 이 정권이 운명하는 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니야, 공산주의자들을 쳐넘기는데 동맹국들이 조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자신만으로는 쥐뿔두 해내지 못해. 제아무리 꾀가 있대두 그 어떤 뽈롭쩨브따위루는 당해내지 못하지. 지푸래기를 꺾는데두 힘이 있어야 한다구 힘을 대항해서 어디 이겨낼수 있을라구? 게다가 또 백성들마저 망할것들이 악독스러워져서… 서루 고발하구 갖은 고자질을 다 한다니까. 개새끼들같으니, 자기만 좋다면 벌판의 쑥까지 다 말라죽어두 무관사거던. 한심한 세상이다!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그건 아마 귀신두 모를게야.… 그렇지만 나두 때를 맞춰 태여난가부다. 그렇지 않구서는 뽈롭쩨브와의 일이 그처럼 순조롭게 끝났을리 없지. 된경을 쳤을게야! 그렇지만 고맙게두 그 일은 모두 깨끗해졌다. 그것이 앞으루 어떻게 될는지 좀더 두구보자. 이번에는 쏘베트정권과 손을 끊을수 없었지만 일이 더 믿음직하게 벌어질는지두 몰라!)

태양밑에서 활개를 펼친 풀들의 줄기며 힘있게 자란 곡식들의 싹우에는 이슬이 유리련주처럼 떨고있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것을 뿌리치면 이슬방울들은 떨어져나와 무지개마냥 반짝거리면서 비냄새풍기는 대견하고 다정한 땅우에 흩어졌다.

도로의 수레바퀴자리에는 미처 땅에 잦아들지 못한 비물이 고여있었다. 그러나 그레마치 로그우에는 백양나무보다도 더 높이 분홍빛아침안개가 떠오르고 뽀얗게 푸른 하늘에는 소낙비에 깨끗이 씻기운듯한 은빛초생달이 새벽이 되여 희미하게 떠있었다.

은으로 쪼아낸듯 휘우듬히 가늘고 푸집한 비가 내릴것을 약속하는 달이였다. 그래서 야꼬브 루끼치는 달을 바라보자 마침내 《풍년이 들겠구나!》 하고 속으로 확신했다.

그는 한낮때가 거의 되여 떡갈나무숲에 도착했다. 앞발을 매여 말은 풀을 먹도록 놓아주고 자기는 허리띠에서 조그마한 목수용도끼를 뽑아들고 산림감독이 그레마치꼴호즈에 배당한 지구의 떡갈나무들에 표식을 하러 갔다.

숲기슭의 끌쪽으로부터 여섯그루의 나무에다 도끼로 깎아 표식을 하고 다음나무로 나아갔다. 키가 출중하게 높아 마스트만이나 하고 희한스러울만큼 후리후리 곧게 뻗은 떡갈나무 한그루가 옆으로 가지를 펼친 키낮은 느릅나무와 스무나무고목들우에 거연히 솟아있었다. 그 맨 꼭대기 빽빽이 돋아난 윤기도는 푸른 잎들속에서는 까마귀둥지가 볼품없이 거밋거렸다. 나무줄기의 굵기로 보아 그 떡갈나무는 야꼬브 루끼치와 거의 동년배였다. 그래서 그는 손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애석하고 서글픈 마음으로 죽음의 운명을 지닌 나무를 바라보았다.

도끼로 깎고 껍질이 벗겨진 옆구리에 제도연필로 《게. 까.》라고 쓰고나서 피를 쳐치듯 진이 밴 축축한 나무쪼각을 발로 걷어차고 담배를 피우려고 걸터앉았다. (여보게, 임자는 몇해동안 살아왔나! 아무도 임자에게는 손을 못 댔지만 이제 죽을 때가 닥쳐왔네. … 임자를 넘어뜨려 임자의 치장이던 가지와 싹들을 도끼로 다듬어 앙상하게 벗겨내구 련못으로 끌구 가서 동뚝의 말뚝으루 박아치우게 돼. …) 야꼬브 루끼치는 천막을 쳐놓은듯 한 떡갈나무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그러면 임자는 물크러질 때까지 꼴호즈의 련못에서 썩을게야. 그러다가 봄시위가 임자를 골짜기 어느 끝으루 날라갈테니 그러면 임자는 만사끝이로다!)

이런 생각을 하자 야꼬브 루끼치는 불현듯 까닭모를 울화와 불안을 벅차게 느꼈다. 그는 마음이 초조해졌다. 《차라리 그대를 동정해서 자르지 말가? 몽땅 다 꼴호즈에 쓸어넣을건 없지. …》 하고 후련한 안도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마음먹었다. 《살아라! 자라거라! 아름다움을 자랑해라! 임자야 근심걱정 무엇인가! 임자한테는 국가세금두 자치세두 안 달래구 꼴호즈에 들 필요두 없다. … 하느님의 뜻대루 살아라!》

그는 분주히 뛰여일어나서 진흙을 한줌 쥐여 도끼자리에 깐깐히 문질렀다. 그는 만족한듯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숲기슭으로 걸어갔다. …

감동하여 마음이 누그러워진 야꼬브 루끼치는 도합 예순일곱그루의 떡갈나무에 표식하고나서 말을 타고 숲가로 나갔다.

《야꼬브 루끼치, 잠간만 기다려주오!》 숲에서 나서려 할즈음 누가 그를 불렀다.

이윽고 아가위덤불속에서 검은 털모자를 쓰고 외투감라사로 만든 따뜻해보이는 잠바앞을 헤친 한 사나이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바람에 끄슬려 검고 뺨은 파리해서 피골이 상접했으며 눈은 푹 빠졌는데 희읍스름히 말라붙은 입술우에는 보르르 자라난 수염이 숯으로 그린듯이 까밋거렸다.

《못 알아보겠수?》

사나이는 모자를 벗고 조심히 사방을 둘러보면서 풀밭으로 나왔다. 그때에야 비로소 야꼬브 루끼치는 그 낯선 사나이가 찌모페이 르와늬임을 알아보았다.

《임자는 어디서 왔나?》 뜻하지 않은 상봉인데다가 몰라보리만큼 달라진, 무섭게 파리해진 찌모페이의 몰골에 깜짝 놀란 그는 그렇게 물었다.

《감히 돌아오지 못할 곳에서 왔어요. … 추방지에서지요. … 꼬틀라쓰에서외다.》

《그래, 도망쳐왔단 말인가?》

《도망쳤지요. … 야꼬브아저씨, 뭐 가진게 없수? 빵이 없수?》

《있네.》

《제발 좀 주슈! 나는 나흘동안… 썩은 능금만…》 하고 쥐라도 인듯이 목을 꿀꺽 했다.

그의 입술은 떨리고 품안에서 빵쪼각을 꺼내는 야꼬브 루끼치의 손을 더듬는 두눈이 승냥이처럼 번뜩이였다.

그가 하도 주린듯이 맹렬하게 빵에 달라붙는것을 보고 야꼬브 루끼치는 기가 막혔다. 끄슬려 굳어진 껍질을 이발로 물어뜯고 구부린 손가락으로 만만한데를 뜯어내여 거의 씹지도 않고 삐죽한 울대뼈를 간신히 움직이면서 게걸스럽게 삼켰다. 목이 메여가면서 마지막빵쪼각을 삼키고나서야 비로소 취한듯 한 그리고 조금전의 미친듯 하던 빛이 사라진 눈을 들어 야꼬브 루끼치를 보았다.

《임자는 몹시 주렸구만. …》 야꼬브 루끼치는 동정하듯이 말했다.

《닷새째나 굶어서 물크러진 능금 아니면 지난해의 마른 가시열매를 찾아내구있다니까요. … 말라빠졌어요.》

《그래, 임자는 어떻게 이리루 왔나?》

《정거장에서 걸어왔지요. 밤마다 걸어왔어요.》 찌모페이는 기진한듯이 대답했다.

그는 먹는것에 마지막힘을 다 써버린것처럼 사뭇 얼굴이 파래졌다. 억제할수 없는 딸꾹질이 그의 몸을 뒤흔들고 얼굴을 병적으로 찌프리게 하는것이였다.

《아버지는 살아계신가? 그래, 가족들은 무사하구?》 야꼬브 루끼치는 계속했다. 그는 말에서는 내리지 않고 가끔 불안스레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버지는 내장의 염증으루 돌아가시구 어머니는 누이동생과 함께 거기 있지요. 그래, 아저씨네 부락에서는 어때요. 루께리야 나굴리노바는 그냥 거기 살구있나요?》

《그 녀편네는 남편하구 헤여졌다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찌모페이는 활기를 띠였다.

《작은어머니네 집에 거접하구 얻어먹구있네.》

《저 야꼬브아저씨, 이것 보슈.… 가시거들랑 그 사람한테 오늘루 꼭 먹을걸 가지구 이리루 오두룩 전해주슈. 나는 영 말라버려서 가지 못하겠수다. 낮동안 좀 쉬여야겠어요. 아주 녹초가 됐는걸요. 170웨르쓰따를 그것두 밤길루 왔는데 익지 못한 고장을 밤에 걷는다는게 어떤건지 아셔요? 눈을 감구 걷는것과 같아요.… 가져오두룩 해주슈. 조금만 추서면 자신이 부락으루 가겠어요.… 고향땅이 못 견딜 지경으루 그립수다!》 하고 어색한듯이 웃음을 띄웠다.

《앞으루 어떻게 살아갈 작정인가?》 이 상봉에서 불쾌한 충격을 받은 야꼬브 루끼치는 그렇게 추궁했다.

그러자 찌모페이는 얼굴이 험악해지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시겠수? 나는 지금 승냥이와 같은 신세외다. 이제 좀 쉬구나서 밤에 부락에 가서 총을 파내겠어요.… 탈곡장에 묻어 감춰둔게 있지요.… 그걸루 벌이를 시작하겠수다!… 내게는 한길밖에 없지요. 나를 처벌하느니만큼 나두 처벌하겠수다. 어떤 작자에게는 한방 선사하구… 또 어떤자는 정신이 들게 되겠지요! 그렇게 가을까지 떡갈나무숲에서 지내다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꾸반이든지 또 딴곳으루 내빼지요. 세상은 넓으니까 우리같은 그런 사람두 한두백명이 아닐거외다.》

《마까르네 루쉬까는 꼴호즈위원장하구 가까와지는것 같데.》 루쉬까가 다위도브네 집에 다니는것을 수차 본 야꼬브 루끼치는 내키지 않는듯이 그렇게 알려주었다.

찌모페이는 덤불우에 누웠다. 견딜수 없는 위병이 그를 쓰러눕힌것이다. 그러나 그는 띠염띠염 사이를 두면서도 역시 입을 열었다.

《아니, 그 첫째가는 원쑤놈 다위도브하구… 그놈이 밥숟가락을 놓게 해야지. … 그렇지만 루쉬까는 내게 진실해요. … 옛사랑은 잊을수 없지요. … 그건 한때 난봉피우는것과는 다르니까. … 나는 그 사람의 마음가는 길을 언제든지 찾아내요. … 그 길에 풀이 자라지는 않았을테지. … 아저씨, 빵때문에 나는 죽겠수다. … 배를 도려내는것 같아요. … 루쉬까한테 그렇게 전해주슈. … 기름과 빵을 가져오두룩… 빵을 더 많이요.》

야꼬브 루끼치는 래일 떡갈나무숲에서 채벌이 시작된다는것을 찌모페이에게 미리 이르고 숲에서 나왔다. 그리고 꾸반밀을 심은 구역을 돌보기 위해서 제2작업반의 밭으로 향했다. 얼마전까지 숯처럼 시커멓던 광활한 밭에는 마침내 티여나온 싹들이 가냘픈 초록빛의 레스처럼 사면에 반짝이고있었다. …

루끼치는 밤이 되여서야 부락에 돌아왔다. 찌모페이 르와늬와의 상봉에서 받은 그리고 온종일 그에게서 떠나지 않던 그 답답한 인상을 그냥 품은채 그는 꼴호즈마구간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집에서는 비길데없이 쓰디쓴 새로운 불길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복도에 들어서자 벌써 부엌에서 며느리가 뛰여나와 속삭이듯이 그에게 귀띔했다.

《아버지, 손님들이 와있어요. …》

《누구냐?》

《뽈롭쩨브하구 저… 사팔뜨기야요. 어슬어슬하자… 어머니하구 내가 바로 소젖을 짜구있을적에 찾아왔어요. 살림방에 앉아들 있어요. 뽈롭쩨브는 억병술이 취했구 또 한 작자두 혀바닥이 잘 돌지 않아요. … 둘이 다 형편없이 람루해요! 이가 득실거리구 바루 옷우루 벌벌 기여다녀요!》

…살림방으로부터 말소리가 들려왔다. 랴찌옙스끼가 기침을 하면서 비웃듯이 독살스럽게 말하는것이였다.

《…그야 물론이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으리? 존경하는 뽈롭쩨브씨. 당신께 묻습니다. 그래, 당신이 어떤분인가를 내가 말씀드릴가요. … 좋습니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을 못 가진 애국자, 군대를 못 가진 장군이지요. 이 비교가 너무 고상하구 추상적이라면 주머니에 돈 한푼없는 투전군이지요.》

뽈롭쩨브의 웅글은 굵은 목소리를 듣자 야꼬브 루끼치는 맥이 빠진듯 바람벽에 잔등을 기대고 머리를 그러쥐였다. …

옛일이 다시금 시작될것이다.

개간된 처녀지(1)

저　자　미하일 숄로호브
역　자　변문식
편　집　리혜란
편　성　한영실'
교　정　김연옥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2
인　쇄　주체101(2012)년 3월 10일
발　행　주체101(2012)년 3월 15일

ㄱ－16616ㄴ　　　　　값 260원